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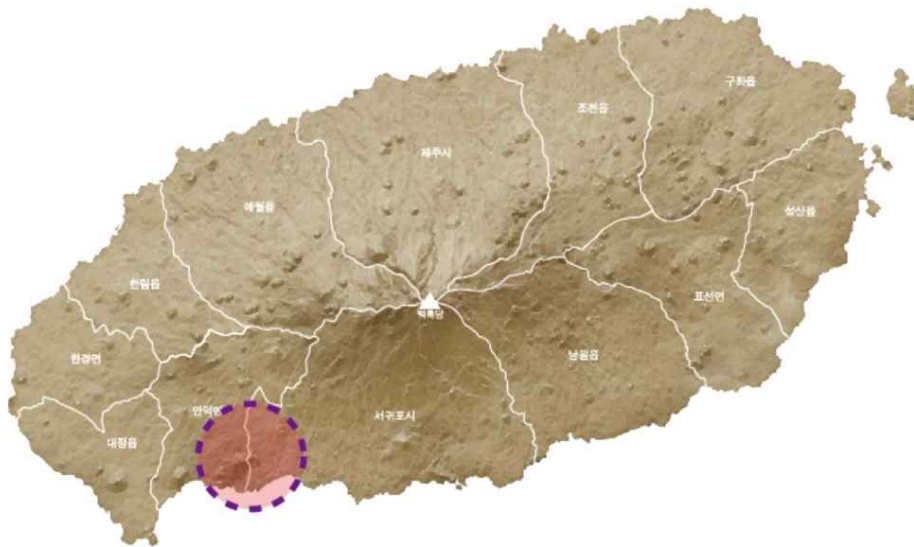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71-01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안덕면 대평리

구술: 강인숙 양성지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김성용

# 17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원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11-2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7

-안덕면 대평리

## 목 차

###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 II.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30
3. 밭일 .....	54
4. 들일 .....	83
5. 바다일 .....	102
6. 의생활 .....	120
7. 식생활 .....	150
8. 주생활 .....	204
9. 신앙 .....	255
10. 세시풍속 .....	257
11. 놀이 .....	266
12. 통과의례 .....	312



# 1.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2. 사업 기간

2018년 3월 20일~2018년 12월 31일

## 3. 사업 참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돌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그리고 제보자와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 ·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흥, 이오생, 오욱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 5. 사업 추진 과정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ᄃ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헛구나’처럼 ‘ㄱ’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7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함덕리’ 구술 자료가『2018년도 제주어구술 자료집 1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웠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거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팻'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단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II. 구술 자료

(@: 김성용, #1: 강인숙, #2: 양성지)

### 1. 조사 마을

101001 @ 그 이 난드르<sup>1)</sup>양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해봅서. 난드르가 어떻 만들 아저신가.(그 이 ‘난드르’요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난드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101001 #2 난드르 형성 과정이 거 어른덜 곤는 거 들어보민 거 저 애월<sup>2)</sup>서 넘어왔젠 흙주게, 사름이. 게난 애월서 넘어온디, 우리 양씨.(‘난드르’ 형성 과정이 거 어른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거 저 ‘애월’서 넘어왔다고 하지요, 사름이. 그러니까 ‘애월’서 넘어왔는데, 우리 양씨.)

101001 #1 질 처음.(제일 처음.)

101001 #2 처음 양씨가 와십주게. 입도 선묘는 이제 당쿨<sup>3)</sup>이엔 혼 디 잇수다게, 당쿨. 경 흐연에 그다음은 동난드르<sup>4)</sup>가 고씨가 들어오고. 경 흐연에 그때가 난드르엔 잇는디 어디 창천이<sup>5)</sup> 강씨 집인가 어느 집안에서 거기서 거시기 흐연에 옛날 어른덜 알안에 거기 왓단에 이자 사름 살음직 혼 디 거자 이 군산<sup>6)</sup> 앞의 가면은 사름 살음직 혼 디 잇젠 그디 강 보렌. 경 흐연 완에 거 하르방인가 할망인가 오란에 춤 살앗젠 흙주게. 살렌 경 흐연에 이젠 츄츄 츄츄 이제 살아난. 자식도 나고 거시기 흐난 사름도 불고 거시기 흐연. 경 흐 땀 우리 집안에서 거시기 양씨 하르방, 할망이 살아난 디에 옛날 전분공장 흐여난 터가 잇수다게. 그디 거시기 흐연에 살암주게. 경 흐난 그 지역에 신 그 거기 살젠 흐난 사름 살암직 혼 딘 요영 흐여근에 안네 들어가민 안네밭<sup>7)</sup>디 가민 동녘 구석에 가근에 막살이 짓언. 경 흐여근에 그디 저 옛날식으로 막살이 하나 메여가지고 이자 살앗젠 흙주게. 경 흐여근에 글로부터 츄츄 츄츄 이젠 춤 부락이 형성돼여가지고 츄츄 츄츄 부락이 커가지고 사름 델토 소문 들으멍 오란 살아가지고 경 흙주기.(처음 양씨가 왔었지. 입도 선묘는 이제 ‘당쿨’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당쿨’. 그렇게 하여서 그다음은 ‘동난드르’가 고씨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여서 그때가 ‘난드르’라고 있는데 어디 ‘창천리’ 강씨 집인

1) ‘난드르’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를 일컫는다.

2) ‘애월’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이다.

3) ‘당쿨’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지명이다.

4) ‘동난드르’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중 동쪽을 일컫는다.

5) ‘창천이’는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이다.

6) ‘군산’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와 서귀포시 예래동의 경계인 일주도로 남쪽에 있는 오름이다.

7) ‘안네밭’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지명이다.

가 어느 집안에서 거기서 거시기 하여서 옛날 어른들 알아서 거기 왔다가 이자 사람 살 것 같은 데 거자 이 ‘군산’ 앞에 가면은 사람 살 것 같은 데 있다고 거기 가서 보라고. 그렇게 하여서 와서 거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와서 참 살았다고 하지요. 살라고 그렇게 하여서 이젠 차차 차차 이제 살았었어. 자식도 나고 거시기 하니까 사람도 불고 거시기 하여서. 그렇게 한 땀 우리 집안에서 거시기 양씨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었던 데에 옛날 전분공장 했었던 터가 있습니다. 거기 거시기 하여서 살고 있지.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거기 살려고 하니까 사람 살 것 같은 데는 요렇게 하여서 안에 들어가면 ‘안네밭’에 가면 동쪽 구석에 가서 오막살이 지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 저 옛날식으로 오막살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자 살았다고 하지요. 그렇게 하여서 그로부터 차차 차차 이젠 참 부락이 형성되어가지고 차차 차차 부락이 커가지고 사람들도 소문 들으면서 와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101001 @ 거난 여기 아까 보난에 당케<sup>8)</sup>도 있고 여긴.(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당케’도 있고 여긴.)

101001 #2 예.(예.)

101001 #1 마궁물<sup>9)</sup>도 있고.(‘마궁물’도 있고.)

101001 #2 당케엔 혼 건 옛날 당케에, 그 도<sup>10)</sup>엔 흡주예. 퀘미<sup>11)</sup>엔 당케. 그다음은 당쿨도 포급주게. 계난에 그 또 다음은 그 마궁물이엔 혼 디 이십주게. 경 혼 연 그 마궁물 넘어가민 그자 박수<sup>12)</sup>, 박수덕이, 고기 낚으는 사름 살명 고기 낚양 갑주게. 옛날은 이자 창감산<sup>13)</sup>이서 오라근에 이자. 옛날은 그 고기도 경 잘 물곡, 거시기 저 그땐 머 혼 때라노난 잇는 디, 지금은 고기가 당추 낚으기 힘듭주기. 경 혼디 오라근에 자꾸 사름은 보칩니다. 오라근에 오징어도 낚아가곡.(‘당케’라고 하는 건 옛날 ‘당케’에, 그 ‘도’라고 하십시오. ‘퀘미’라고 ‘당케’. 그다음은 ‘당쿨’도 포구지요. 그러니까 그 또 다음은 그 ‘마궁물’이라고 하는 데 있지요. 그렇게 하여서 그 ‘마궁물’ 넘어가면 그저 ‘박수’, ‘박수덕이’, 고기 낚는 사람 살면서 고기 낚아서 가지요. 옛날은 이자 ‘창감산’에서 와서 이자. 옛날은 그 고기도 그렇게 잘 물고, 거시기 그땐 뭐 한 때라서 잇는 데, 지금은 고기가 절대로 낚기 힘들지요. 그런데 와서 자꾸 사름을 보칩니다. 와서 오징어도 낚아가고.)

101001 @ 여자 삼촌 마을에 대흥영 혼 번 곱아봅서.(여자 삼촌 마을에 대해서 한 번 말해 보십시오.)

101001 #1 난 이 마을에서 나지도 안 흥고, 크지도 안 흥난 몰르지.(난 이 마을에서 낚지도 안 하고, 크지도 안 하니까 모르지.)

101001 @ 경 흥여도 영 살아오명.(그렇게 해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8) ‘당케’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지명이다.

9) ‘마궁물’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내(川) 이름이다.

10) ‘도’는 어떤 장소의 입구를 뜻한다.

11) ‘퀘미’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지명이다.

12) ‘박수’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해안가에 있는 절벽이다. ‘박수덕이’, ‘박수기정’이라고도 한다.

13) ‘창감산’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와 감산리를 뜻한다.

101001 #1 살아오명은 무신 검질 메곡 기자, 미녕 차곡 기자, 미녕 좃곡계. 어린 때 시집오란 사난 그거주. 물질은 안 흥난 해녀질은 못흥여. 해녀덜은 강 구제기영 잡아오곡 다 해도 난 아무것도 못 흥곡. 밧디 검질만 메곡, 멘네 갈곡. 경 헛주계. (살아오면서는 무슨 김매고 그저, 무명 짜고 그저, 무명 좃고계. 어린 때 시집와서 사니까 그거지. 물질은 안 하니까 해녀질은 못해. 해녀들은 가서 소라 잡아오고 다 해도 난 아무것도 못 하고. 밧에 김만 매고, 면화 갈고. 그렇게 했지.)

101001 #2 당케, 당쿨, 마궁물, 그다음 박수, 박수덕이엔 흡주기, 그 고기 나끄는 디. 그 박수덕이로 글로 안넨 들어가민 박수 안네 박수 널찍흔 그.(‘당케’, ‘당쿨’, ‘마궁물’, 그다음 ‘박수’, ‘박수덕이’라고 합지요, 그 고기 낚는 데. 그 ‘박수덕이’로 거기로 안쪽에 들어가면 ‘박수’ 안쪽 ‘박수’ 널찍한 그.)

101001 #1 완전히 박수 안넨 그 점이라. 완전히 좋아.(완전히 ‘박수’ 안쪽에는 그 점이다. 완전히 좋아.)

101001 #2 박수 안네 가민 바로 저 기정흥고 ㄴ찌 부뜬.(‘박수’ 안쪽에 가면 바로 저 절벽하고 같이 붙은.)

101001 #1 거기서는 음식을 벤또 쌍왕 박수 안네 가가지고 벤또를 먹지 안 흡니까? 만약의 정심을 먹을 때 케우리지 안 흥민 아파불어. 절대 안 돼여, 그디는 그 박수엔 흥 디는. 우리가 이제 밧디 가민 옛날 할망덜 밥 먹젠 흥민 툃툃 케우리지 안 흡니까? 저 제석할망<sup>14)</sup> 먹는 거. 경흥디 박수는 그냥 먹엉 가민 아프던지, 좀 달라불어. 거기는 툃 경 흥여야 돼는 디라. 귀신이 잇는 디, 그추룩 해야 돼는디, 박수는.(거기서는 음식을 도시락 싸와서 ‘박수’ 안쪽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먹지 안 합니까? 만약에 정심을 먹을 때 고수레하지 안 하면 아파버려. 절대 안 되어, 거기는 그 ‘박수’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밧에 가면 옛날 할머니들 밥 먹으려고 하면 툃툃 고수레하지 안 합니까? 저 ‘제석할망’ 먹는 거. 그런데 ‘박수’는 그냥 먹어서 가면 아프든지, 좀 달라버려. 거기는 툃 그렇게 해야 되는 데다. 귀신이 잇는 데, 그처럼 해야 되는 데, ‘박수’는.)

101002 @ 그 여기 마을 사름덜양, 아까 물어봤수다만은 무슨 저, 무슨 성씨로 이루어졌수과?(그 여기 마을 사름들요, 아까 물어봤습시다만은 무슨 저, 무슨 성씨로 이루어졌습니까?)

101002 #1 양씨가 이루어졌주.(양씨가 이루어졌지.)

101002 #2 양씨.(양씨.)

101002 @ 제일 많은 성씨가 머라마썸?(제일 많은 성씨가 뭐지요?)

101002 #1 양씨가 만흥여났주.(양씨가 많았었지.)

101002 #2 지금은 제일 만흥게 강씨가 만흥주.(지금은 제일 많은 게 강씨가 많지.)

101002 #1 강씨가 만해, 지금 사는 딘. 우리 양씨가 질 만해나신디, 다 나가불곡, 다 머 흥여부난, 양씨 이 부락은 이 할망칩<sup>15)</sup>의 옛날에 그 메역 할망칩의 가도

14) ‘제석할망’은 곡식의 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단골이 양씨가 먼저 하여, 심방이. 양씨가 질 먼저, 선후도착이라. 경흥디 양씨가 오란에 이 부락에서 사름 안 사는디 양씨 하르방이 들어와가지고 이 부락을 설촌했젠 합니다, 나가 듣기에. 경 했는디 그르후에는 딴 디서 강씨도 오고, 고씨도 오고 딴 부락에서 들어왔지, 여기서 설촌하는 건 양씨입니다. 제일 체얍이.(강씨가 많아, 지금 사는 데는. 우리 양씨가 제일 많았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다 뭐 해버리니까, 양씨가 부락은 이 ‘할망칩’ 옛날에 그 미역 ‘할망칩’에 가도 단골이 양씨가 먼저 해, 무당이. 양씨가 제일 먼저, 선후도착이라. 그런데 양씨가 와서 이 부락에서 사람 안 사는데 양씨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이 부락을 설촌했다고 합니다, 나가 듣기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때에는 다른 데서 강씨도 오고, 고씨도 오고 다른 부락에서 들어왔지, 여기서 설촌한 건 양씨입니다. 제일 처음에.)

101002 #2 처음은 양씨 하르방.(처음은 양씨 할아버지.)

101002 #1. 예. 양씨디, 양씨가 어디 살았냐? 아까 하르방 말하듯 어디 살았는디고, 흥민 내 동쪽에 안네 들어가면 큰 밭이 이섯수다, 잇수다 이제. 이제 펜션 지선 잇주만은 그 밭이 들어간에 그 양씨 하르방이 막살이 흥나 지선에 할망을 청하연 양씨 즈손을 낫다 합니다. 이 부락 난드르 설촌에는 양씨가 설촌한 거라.(예. 양씨디, 양씨가 어디 살았느냐? 아까 할아버지 말하듯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 내 동쪽에 안쪽 들어가면 큰 밭이 있었습디다, 있습니다 이제. 이제 펜션 지어서 잇지만은 그 밭에 들어가서 그 양씨 할아버지가 오막살이 하나 지어서 할머니를 청해서 양씨 자손을 낳았다 합니다. 이 부락 ‘난드르’ 설촌에는 양씨가 설촌한 거라.)

101002 @ 이추륙만 곶으민 뉘는 겨우다양.(이처럼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101002 #1 양씨가 설촌하는 겨우다. 양씨 다음에는 저 동네에서 고씨도 오고, 이 동네서.(양씨가 설촌한 것입니다. 양씨 다음에는 저 동네에서 고씨도 오고, 이 동네서.)

101002 #2 저 동네 고씨가 질 앞의엔 곶앗주.(저 동네는 고씨가 제일 앞에라고 말했지.)

101002 #1 아니, 이디서 설촌은 양씨가 설촌해 낫는데, 양씨가 들어와서 양씨 부락이라, 난드르가예. 난드르가 기우다. 경흥디 다른 디서 오는 사름은 강씨도 들어오고, 양씨도 들어오고, 박씨도 다 들어온 거라. 경흥디 양씨가 이 부락을 제일 성공시킨 건 양씨입니다.(아니, 여기서 설촌은 양씨가 설촌해 놓았는데, 양씨가 들어와서 양씨 부락이라, ‘난드르가’요. ‘난드르’가 그렇습디다. 그런데 다른 데서 오는 사름은 강씨도 들어오고, 양씨도 들어오고, 박씨도 다 들어온 거라. 그런데 양씨가 이 부락을 제일 성공시킨 건 양씨입니다.)

101002 #2 직접 말로 말하민 주인이 뉘는 겨우게.(직접 말로 말하면 주인이 되는 거지.)

101002 #1 예. 경흥디 그 비석도 이 대, 난드르, 대평<sup>16)</sup>은 이제사 난 거고, 난드

15) ‘할망칩’은 할머니, 즉 신을 모신 당을 가리키는 말이다.

16) ‘대평’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이다.

르서 제일 처음 들어온 하르방 비석도 크게 지서졌수다.(예. 그런데 그 비석도 이대, ‘난드르’, ‘대평’은 이제야 난 거고, ‘난드르’서 제일 처음 들어온 할아버지 비석도 크게 지어졌습니다.)

101002 @ 어디 잇수과? 그 건.(어디 있습니까? 그 것은.)

101002 #1 이 동산에. 크게 양씨 집안의서, 설촌헌 하르방. 처음에 들어온 하르방이 난드르 오란 일름도 지우곡, 난드르는 어떻게서 난드르냐 흐면은 경 곶읍디다. 저 난드르는 부락이 일름이 어선 거 아니꽈? 난드르엔 흐는다. 난드르는 무사 난드르냐 흐민 절로 영 돌아가면은 그디 난드르가 축항으로 췌, 말 시견에 가젠 흐난 부락이 일름이 없어. 경흐니까 난드르라고 일름을 지왓젠 홉니다.(이 동산에. 크게 양씨 집안에서, 설촌헌 할아버지. 처음에 들어온 할아버지가 ‘난드르’ 와서 이름도 지우고, ‘난드르’는 어떻게 해서 ‘난드르’냐 하면은 그렇게 말합디다. 저 ‘난드르’는 부락이 이름이 없어서 거 아닙니까? ‘난드르’라고 하는데. ‘난드르’는 왜 ‘난드르’냐 하면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 ‘난드르’가 축항으로 소, 말 실어서 가려고 하니까 부락이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난드르’라고 이름을 지웠다고 합니다.)

101002 @ 계난 난드르 흐면은 췌췌헌 땅이난에 난드르엔 해시카부텐, 거 아니라마씨?(그러니까 ‘난드르’ 하면은 평평한 땅이니까 ‘난드르’라고 했을까 싶어서, 거 아닙니까?)

101002 #1 그거 아니. 건디 저디 저 물질이 이서, 또. 그전 굽으로. 물질은 어떻게 흐연 물질이나?(그거 아니. 그런데 저기 저 말길이 있어, 또. 그전 굽으로. 말길은 어떻게 하여서 말길이나?)

101002 #2 좃은다리<sup>17)</sup> 질이엔 흐여서 기정 옆으로 영 올라간 디.(‘좃은다리’ 길이라고 하여서 절벽 옆으로 이렇게 올라간 데.)

101002 #1 중국더레 물을 이제 일로 흐영 시꺼가젠 흐난, 못 흐난, 화순 축항으로 실러가젠 흐난 물을 좃은다리 절로 흐영 화순<sup>18)</sup> 축항더레 가난 물질이엔 흐염젠 홉니다. 물 글로 물을 물안 시꺼가나난 일름을 물질이라고 지왓젠 홉니다.(중국으로 말을 이제 여기로 해서 실어가려고 하니까, 못 하니까, 화순 축항으로 실어가려고 하니까 말을 ‘좃은다리’ 길로 해서 ‘화순’ 축항으로 가니까 말길이라고 하고 있다고 합디다. 말 거기로 말을 말아서 실어서가니까 이름을 말길이라고 지웠다고 합디다.)

101002 @ 계난 양씨 흐고.(그러니까 양씨 하고.)

101002 #1 양씨 흐고.(양씨 하고.)

101002 @ 그다음에 고씨.(그다음에 고씨.)

101002 #1 고씨, 강씨.(고씨, 강씨.)

101002 @ 김씨.(김씨.)

101002 #1 김씨, 거뿐이주. 다른 디덜은 다 하나씩 들어온 사름덜. 강씨, 고씨,

17) ‘좃은다리’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지명이다.

18) ‘화순’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이다.

김씨, 것이 이 부락에는 먼저 들어오고.(김씨, 거뿐이지. 다른 데들은 다 하나씩 들어온 사람들. 강씨, 고씨, 김씨, 것이 이 부락에는 먼저 들어오고.)

101002 @ 이 웨지 사름덜은 언제부때 막 들어왔수과? 이디.(이 외지 사람들은 언제부터 마구 들어왔습니까? 여기.)

101002 #1 거 우리 나지 아니흔 때난 어떻사 해신디.(거 우리 낳지 아니한 때니까 어떻게야 했는지.)

101002 @ 아니 웨지 사름덜.(아니 외지 사람들.)

101002 #1 웨지 사름덜은 혼 삼년벧기 안 뵈지. 난드르 이추록 혼 건디는 삼사년 벧기 안 뵈고. 우리 앞의 집이영 난드르 영 개뻬 뵈는 거는 이거 이제 혼 삼년, 삼년벧기 안 뵈어. 사름 살 수가 없어, 너무 들어완. 이거 중단 안 혼면 우리가.(외지 사란들은 한 삼년밖에 안 뵈지. ‘난드르’ 이처럼 하건 데는 삼사년밖에 안 되고. 우리 앞에 집하고 ‘난드르’ 이렇게 개발 되는 거는 이거 이제 한 삼년, 삼년밖에 안 뵈어. 사름 살 수가 없어, 너무 들어와서. 이거 중단 안 하면 우리가.)

101002 @ 무사 웨지 사름덜 하영 들어오민 살기 즐 거 아니우파양?(왜 외지 사 람들 많이 들어오면 살기 좋을 거 아닙니까?)

101002 #1 아니, 아니. 안 뵈니다. 웨지 사름덜 오민 땅 요만이 혼 땅도 문 지네 전냥 혼영 집 지서불곡, 질도 캄캄하게 맨들아불곡, 머 안 뵈크라. 난드르가 파산이라 파산. 난드르 사름덜 병신 님은 사름덜이 만해. 나가 생각할 때, 저 절로 가면은 차부로 영 돌아가는 디 막 스칭, 오칭 지순 집 잇수게양, 이제. 우리 집 앞의우다, 큰밭<sup>19)</sup>. 경 혼여신디 그디 동더레 돌아왔진 집도 잇곡, 알러레 돌아왔인 집도 잇곡, 스칭, 오칭 지서서양. 게난 질 예염으로 혼 칭은 집을 안 지서야 뵈 건디 그 집을 지서부니까 절로 들어오는 것도 부락을 막아불고, 또 절로 오민 그 정도 못 베리고, 난드르만 판이라. 게난 난드르 스나이덜이 병신덜이라. 그 집은 난드르 단체에서 스나이 남즈덜이 강 ‘이 집은 지성 안 뵈다.’ 부락을 영원히 막아부런 병신 맨들아분 거라. 나가 여자 할망이 뵈여부난 거주, 남즈라시민 그 집 못 짓게 혼여.(아니, 아니. 안 뵈니다. 외지 사람들 오면 땅 요만큼 한 땅도 모두 스스로 해서 집 지어버리고, 길도 캄캄하게 만들어버리고, 뵈 안 되겠어. ‘난드르’가 파산이라 파산. ‘난드르’ 사람들 병신 님은 사람들이 많아. 나가 생각할 때, 저 저쪽으로 가면은 주차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데 마구 사춤, 오춤 지은 집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앞입니다. ‘큰밭’. 그렇게 하였는데 거기 동으로 돌아왔은 집도 있고, 아래로 돌아왔은 집도 있고, 사춤, 오춤 지었어. 그러니까 길 옆으로 한 층은 집을 안 지어야 될 것인데 그 집을 지어버리니까 저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부락을 막아버리고, 또 저쪽으로 오면 그 정도 못 보고, ‘난드르’만 판이라. 그러니까 ‘난드르’ 사나이들이 병신들이라. 그 집은 ‘난드르’ 단체에서 사나이 남자들이 가서 ‘이 집은 지어서 안 된다.’ 부락을 영원히 막아버려서 병신 만들어버린 거지. 나가 여자 할머니가 되어버리니까 거지, 남자였으면 그 집 못 짓게 해.)

19) ‘큰밭’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지명이다.

101002 @ 계난 그 저 여기 비율. 원래 여기 사름덜 흐고 웨지 사름덜 흐면은 멧 대 멧 됩니까?(그러니까 그 저 여기 비율. 원래 여기 사람들 하고 외지 사람들 하면은 멧 대 멧 됩니까?)

101002 #1 아이고, 웨지 사름이 하지.(아이고, 외지 사람이 많지.)

101002 #2 아이, 웨지 사름이 하는디.(아이, 외지 사람이 많은데.)

101002 @ 여긴 웨지 사름이 하마썸?(여긴 외지 사람이 많습니까?)

101002 #2 다 웨지 사름덜.(다 외지 사람들.)

101002 #1 하마썸, 하. 다 육지 사름덜. 민박이고 펜션이고 다 육지 사름덜 만흐여. 장사고 뗏이고 난드르는 다 육지 사름이라. 계난 걸 막아야주 안 웨크라.(많아요, 많아. 다 육지 사람들. 민박이고 펜션이고 다 육지 사람들 많아. 장사고 무엇이 고 ‘난드르’는 다 육지 사름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야지 안 되겠어.)

101002 #2 경 믿음대로 웨여게.(그렇게 마음대로 돼.)

101002 #1 아니, 믿음대로 아니고 다시 오랑 점령 못 흐게 만들야사크라.(아니, 마음대로 아니고 다시 와서 점령 못 하게 만들어야겠어.)

101004 @ 거민양, 아까 질문흐 건디, 이 마을 주변에 보민 오름도 있고, 내도 있고, 바위도 있고, 굴도 있고, 이거 저 오름부터 흐 번 말해봅서.(그러면요, 아까 질문한 것인데, 이 마을 주변에 보면 오름도 있고, 내도 있고, 바위도 있고, 굴도 있고, 이거 저 오름부터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1004 #1 오름은 월라봉<sup>20)</sup>에 굴도 있고, 저 군산에도 굴 이서. 굴 있고. 또 아래 내려오민 아까 아기업게돌<sup>21)</sup>이엔 흐 디가 잇거던. 아기업게돌, 아기업은 돌이 있어. 계난 그디도 그 안네 굴이 있어. 켄디 웨정놈덜 오란 판 굴이라, 군산에. 저 월라봉도 웨정놈, 일본놈덜 오란 판 굴이고. 해방웨난 가부럿주기. 이디 사름 판 거 아니고, 해방 후에 판 것도 아니고. 웨정 때예. 스삼 사건 전에. 저 일본 시대 때, 일본놈덜 군인덜 오란 살멍 다 판 거.(오름은 ‘월라봉’에 굴도 있고, 저 ‘군산’에도 굴 있어. 굴 있고. 또 아래로 내려오면 아까 ‘아기업게돌’이이라고 한 데가 잇거든. ‘아기업게돌’, 아기 업은 돌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도 그 안쪽에 굴이 있어. 그런데 일본사람들 와서 판 굴이라, 군산에. 저 ‘월라봉’도 일본사람, 일본사람들 와서 판 굴이고. 해방되니까 가버렸지. 여기 사름 판 거 아니고, 해방 후에 판 것도 아니고. 일본 시대 때예. 사삼 사건 전에. 저 일본 시대 때, 일본사람들 군인들 와서 살면서 다 판 거.)

101004 @ 군산 흐면은 굴은 멧 개 잇수과?(군산 하면은 굴은 멧 개 있습니까?)

101004 #1 굴, 그디 으라게 메와져부럿주게. 군산 뒤우로 창천이<sup>22)</sup> 발른 딜로 굴이 막 큰 굴이 이션, 건 안 메와졌어, 지금. 우린 그레 잘 안 가난 흐여도.(굴, 거기 여러 개 메워져버렸지. ‘군산’ 뒤로 ‘창천리’ 바른 데로 굴이 아주 큰 굴이 있어서, 그것은 안 메워졌어, 지금. 우린 그리로 잘 안 가니까 해도.

20) ‘월라봉’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지경에 있는 오름이다.

21) ‘아기업게돌’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지경에 있는 돌이다.

22) ‘창천이’는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이다.

101004 #2 군산에 상덕<sup>23)</sup>, 바로 상덕 밑에도.(‘군산’에 ‘상덕’, 바로 ‘상덕’ 밑에도.)

101004 #1 경흐디 앞으로는 상덕 밑으로 딱딱 물 떨어지는 디도 있어.(그런데 앞으로는 ‘상덕’ 밑으로 딱딱 물 떨어지는 데도 있어.)

101004 @ 상덕마썸?(‘상덕’이요?)

101004 #2 상덕.(‘상덕’.)

101004 #1 예. 저거 두 개 상덕이엔 흐여. 두 거 코지난 거, 돌 두 개 영 양펜의 이신 건디, 걸 상덕이엔 흐여. 그 일름이 상덕이엔 홉네다.(예. 저거 두 개 ‘상덕’이라고 해. 두 거 곳난 거, 돌 두 개 이렇게 양편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상덕이라고 해. 그 이름이 상덕이라고 합니다.)

101004 #2 서넉 짝에 덕에는 거기 굴, 군인덜 판 굴.(서넉 쪽 언덕에는 거기 굴, 군인들 판 굴.)

101004 #1 그 아래 굴 막 판 디.(그 아래 굴 마구 판 데.)

101004 @ 쏘곶에양.(속에요.)

101004 #2 응.(응.)

101004 #1 예. 일본 군인덜이 찻는디, 건 메와졌어, 더러. 메와지고 또 쏘곶 아래 가면은 이 저 돌 그 빛으로 물이 딱딱 나는 디가 있어. 지금도 있어.(예. 일본 군인들이 찻는데, 건 메워졌어, 더러. 메워지고 또 조금 아래 가면은 이 저 돌 그 빛으로 물이 딱딱 나는 데가 있어. 지금도 있어.)

101004 #2 구시물<sup>24)</sup>.(‘구시물’.)

101004 #1 구시물이라고.(‘구시물’이라고.)

101004 @ 구시물마썸?(‘구시물’이요?)

101004 #1 구시물. 일름이 구시물이엔 홉니다.(‘구시물’. 이름이 ‘구시물’이라고 합니다.)

101004 @ 그다음에 군산 잇고, 그다음에 월라봉 잇고.(그다음에 ‘군산’ 잇고, 그다음에 ‘월라봉’ 잇고.)

101004 #1 산이엔 흐 건 난드르는 그것뻬이 엇어.(산이라고 한 건 ‘난드르’는 그것뻬에 없어.)

101004 @ 그다음에 저 머 내.(그다음에 저 뭐 내.)

101004 #1 내. 냇가는 두 개.(내. 냇가는 두 개.)

101004 @ 내 이름은 머엔 홉니까? 이디.(내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101004 #2 내 이름은 동 동내엔 흐지.(내 이름은 동 동내라고 하지.)

101004 #1 셋내<sup>25)</sup>, 셋내엔 흐여. 아니 동내가 아니고 셋내엔 홉니다.(‘셋내’, ‘셋내’라고 해. 아니 동내가 아니고 ‘셋내’라고 합니다.)

101004 @ 셋내?(‘셋내’?)

23) ‘상덕’은 군산 꼭대기에 있는 두 개의 돌이다.

24) ‘구시물’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지경에 있는 물 이름이다.

25) ‘셋내’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지경에 있는 내 이름이다.



101004 #1 이름이 옛날에는 내중엔 동네로 지와신디 동편이난 해신디. 옛날엔 그 내를 군산으로 영 물이 내려오란에 이레 오난 섯내, 섯내 해낫젠 흡디다게. 나가 들은 말입주, 난 무신. 나지 아니 흥난.(이름이 옛날에는 나중에는 동네로 지었는데 동편이니까 했는데. 옛날에는엔 그 내를 ‘군산’으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이리로 오니까 ‘섯내’, ‘섯내’ 했었다고 합디다. 나가 들은 말이지요, 난 무슨. 낱지 아니 하니까.)

101004 @ 지금도 저 물 내려오나?(지금도 저 물 내리고 있습니까?)

101004 #1 예. 물 잇수다. 드리도 봐지곡.(예. 물 있습니다. 다리도 놓아지고.)

101004 @ 그 줄기가 저 군산 줄기?(그 줄기가 저 ‘군산’ 줄기?)

101004 #2 그 군산 동녘 옆으로.(그 ‘군산’ 동녘 옆으로.)

101004 #1 예. 군산 동녘 옆으로 내려오는 모양이라. 게난 비가 오민 내치곡.(예. 군산 동녘 옆으로 내려오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내리고.)

101004 #2 고노리고<sup>26)</sup>엔 흥 디가 잇수다게. 거기서 물 나는 디, 거기서 다 나옵니다.(‘고노리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 나는 데, 거기서 다 나옵니다.)

101004 #1 거 다 열리<sup>27)</sup> 지경이라. 난드르 지경은 아니우다. 군산도 반은, 반쪽도 안 돼여, 우리 난드르 지경은.(거 다 ‘열리’ 지경이라. ‘난드르’ 지경은 아닙니다. ‘군산’도 반은, 반쪽도 안 돼, 우리 ‘난드르’ 지경은.)

101004 #2 상덕으로게.(‘상덕’으로게.)

101004 #1 상덕으로 갈랑 저딘 열리 지경, 안덕 지경의 가불고, 창천 지경의 가불곡.(‘상덕’으로 갈라서 저기는 ‘열리’ 지경, ‘안덕’ 지경에 가버리고, ‘창천’ 지경에 가버리고.)

101004 @ 게난 여러 마을로 갈라져신게양. 열리, 창천이, 난드르.(그러니까 여러 마을로 갈라졌네요. ‘열리’, ‘창천이’, ‘난드르’.)

101004 #1 예게. 저 군산은 으라 개 갈랏주만. 게난 영장 흥면은, 사름 죽으면은 우리 난드르는 영장 갈 디가 없어. 게난 열리 공동묘지 간 다 묻엇거던. 묻은디 이젠 법이 바파지니까 열리 지경 사름덜이 난드르 사름 영장 못 흥게 딱 중단해불엇어. 지경이 열리 지경이엔 흥여근에. 게난 자기 가족에, 가정에 이녁 공동묘지 잇인 사름은 그디 가기가 힘드난 다 가정의 다 공동묘지 이녁만씩 다 샷젠.(예. 저 ‘군산’은 여러 개 갈랏지만. 그러니까 장사 하면은, 사름 죽으면 우리 ‘난드르’는 영장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열리’ 공동묘지 가서 다 묻엇거든. 묻었는데 이젠 법이 바뀌지니까 ‘열리’ 지경 사람들이 ‘난드르’ 사름 장사 못 하게 딱 중단해버렸어. 지경이 ‘열리’ 지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 가정에 이녁 공동묘지 없는 사름은 거기 가기가 힘드니까 다 가정에 다 공동묘지 이녁만큼씩 다 샷다고.)

101004 @ 게난 여기 사름덜은 어드레 갑니까?(그러니까 여기 사름들은 어디로 갑니까?)

26) ‘고노리고’는 ‘군산’ 동쪽에서 ‘섯내’가 시작하는 지점으로 샘이 솟는 곳이다.

27) ‘열리’는 서귀포시 예래동이다.

101004 #1 계남 이녁만씩 가족 공동묘지 샀거던.(그러니까 이녁만큼씩 가족 공동묘지 샀거든.)

101004 #2 여기도 옛날엔.(여기도 옛날엔.)

101004 #1 이 앞에. 이 군산더레 올라가는, 일로 올라가는 디.(이 앞에. 이 군산으로 올라가는, 이리로 올라가는 데.)

101004 #2 군산 발른, 서 상덕계.(‘군산’ 바른, 서 ‘상덕’에.)

101004 #1 서쪽에.(서쪽에.)

101004 #2 옆으로계 쪽 하게 저.(옆으로 쪽 하게 저.)

101004 #1 대평 지경이난.(‘대평’ 지경이니까.)

101004 #2 대평 지경이난에 그레 공동묘지가 이선계.(‘대평’ 지경이니까 그리로 공동묘지 이어서.)

101004 #1 켌디 일로 올라가민예, 차가 그디 강 세우면은 영 걸영 올라가면은 이건 군산 꼭대기레 올라가는 디고, 이편이 오면은 난드르 지경이난 하나씩 그디 강 묻읍니다. 계남 땅도 없어 이젠.(그런데 이리로 올라가면요, 차가 거기 가서 세우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 이건 ‘군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데고, 이쪽에 오면 ‘난드르’ 지경이니까 하나씩 거기 가서 묻읍니다. 그러니까 땅도 없어 이젠.)

101004 #2 옛날은 바로 그.(옛날은 바로 그.)

101004 #1 밋밋 그디 산 써낫수게.(밋밋 거기 묘 썼었습니다.)

101004 #2 셋상덕의 서 우덕편이 그 공동묘지가 크게 이서낫주게.(‘셋상덕’ 서 위쪽에 그 공동묘지가 크게 있었었지.)

101004 #1 창천 지경으로 저 뒤트레도 다 영장을 흐는디, 경흐디 옛날에 나가 여간 여기 오란 들으난에 막 비 아니 왕 ㄱ물곡 흐지 안 흡니까? 겨민 그 군산에 강 모르게, 지네 잘 뒤젠 덕 두 개 가운데 강 영장 물어볼민 ㄱ물곡, 경 흐여낫젠 흐영 막 조사도 못 해낫수다.(‘창천’ 지경으로 저 뒤로도 다 장사를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나가 여간 여기 와서 들으니까 아주 비 아니 와서 가물고 하지 안 흡니까? 그러면 그 ‘군산’에 가서 모르게, 자기네 잘 되려고 언덕 두 개 가운데 가서 영장 물어버리면 가물고, 그렇게 했었다고 해서 마구 조사도 못 했었습니다.)

101004 @ 계민 막 영산이라양.(그러면 아주 영산이지요.)

101004 #1 예, 영산.(예, 영산.)

101004 #2 영산이라 흡주게.(영산이라 하지요.)

101004 #1 이제 ㄱ뜨민 우린 노인이난 잘 모르는데, 산은 아주 매력잇는 산이야. 견디 저 상덕이양, 옛날에 우리 시아버지가 보통 하르바지가 아니라낫수다. 겨난 큰 시님이 병껏 쓰고 흐연 육지 시님이 읍디다. 오난에 우리 집의 마리에 돌아단에 술상 하나 받 먹으멍 그 시님이 머라고 곧느냐, 나가 들엇거던. 듣는데, 그 시님이, 이 난드르서 심방질 흐는 사름을 난드르서 난 사름 세 사름이 나부럿이면은 이 난드르가 췌안홀 견디, 심방이 안 낫다 흐는 거라. 이 지방에서 나야 뒤여, 웨방 사름 오랑 사는 게 아니고. 지방 사름은 하나뻑기 어서낫수다게. 경 해신디 저 상덕

코지가 동더레 하난 돌아가고, 서러레 하난 돌아가불엇어. 마주 영 흥여시민 줄 건디, 동더레 돌아앗아불고 서러레 돌아앗아불엇어, 그 상덕 봉오리가. 경 흥여부난에 그 정시가 말흐는 걸 나가 딱 들어신디. 우리 시아버지가 보통 하르방 아니난덜 앓양 곤는 걸 들으난, 이 상덕이 이렇게 마주 흥여불여시민 난드르 사는 사름덜이 불목이 업고, 펜안홀 건디, 큰사름 안 나곡, 부자가 삼대 안 간다는 거라, 부자가. 난드르서는 부자가 삼대 안 간덴. 삼대 가민 어떤 코를 들던지 얹은 터지고 군산으로 된 막아지고, 아무러케 공부를 잘 했던 말았던 저 큰 사름이 업다 흥는 거라마썸. (이제 같으면 우린 노인이니까 잘 모르는데, 산은 아주 매력있는 산이야. 그런데 저 ‘상덕’이요, 옛날에 우리 시아버지가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병거지 쓰고 해서 육지 스님이 옵디다. 오니까 우리 집의 마루에 데려다가 술상 하나 놔서 먹으면서 그 스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가 들었거든. 듣는데, 그 스님이, 이 ‘난드르’서 무당질 하는 사람을 ‘난드르’서 낳은 사람 세 사람이 낳아버렸으면은 이 ‘난드르’가 편안할 것인데, 무당이 안 낳았다 하는 거라. 이 지방에서 낳아야 되어, 외방 사람 와서 사는 게 아니고. 지방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 ‘상덕’ 곳이 동으로 하나는 돌아가고, 서쪽으로 하나는 돌아가버렸어. 마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동으로 돌아앉아버리고 서쪽으로 돌아앉아버렸어, 그 ‘상덕’ 봉오리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지관이 말하는 걸 나가 딱 들었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니까들 앉아서 말하는 걸 들으니까, 이 ‘상덕’이 이렇게 마주 해버렸으면 ‘난드르’ 사는 사람들이 불목이 없고, 편안할 것인데, 큰사람 안 나고, 부자가 삼대 안 간다는 거라, 부자가. ‘난드르’서는 부자가 삼대 안 간다고. 삼대 가면 어떤 코를 달든지 얹은 터지고 ‘군산’으로 뒤는 막아지고, 아무렇게 공부를 잘 했든 말았던 저 큰사람이 없다 하는는 거지요.)

101004 @ 거 지금도 그거 나타남수광?(거 지금도 그것 나타나고 있습니까?)

101004 #1 예. 나타남주. 지금 우리 현재 나타나.(예. 나타남지요. 지금 우리 현재 나타나.)

101004 @ 경흥디 아까 그 내, 셋내엔 해신디 내 이시난에 옛날에 나록 농스 흥여낫수과?(그런데 아까 그 내, ‘셋내’라고 했는데 내 있으니까 옛날에 벼농사 했었습니까?)

101004 #1 예. 논도 이서낫주. 그 논으로 흥질 아니 흥고, 그 물로도 대엿주만은 다른 덜로 물을 감산이 내로, 저 감산이 흔들머리<sup>28)</sup>엔 흥 디 동산에 내려오면은 길이 있어. 그디 내 꼬락지에 물이 있어.(예. 논도 있었었지. 그 논으로 많지 아니 하고, 그 물로도 대엿지만은 다른 데로 물을 ‘감산이’ 내로, 저 ‘감산이’ ‘흔들머리’라고 하는데 동산에 내려오면 길이 있어. 거기 내 곶에 물이 있어.)

101004 @ 감산이로 내려오는 물?(‘감산이’로 내려오는 물?)

101004 #1 예. 감산이 내로 내려오는 물.(예. ‘감산이’ 내로 내려오는 물.)

101004 #2 거 감산이 내로 내려오는 물이라게?(거 ‘감산이’ 내로 내려오는 물인

28) ‘흔들머리’는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지경 이름이다.

가?)

101004 #1 게 아무덜 내려와도 그디 물 잇고, 이디 딱로 조고만씩조고만씩 내가 잇거던, 요디.(그럼 아무데서 내려와도 거기 물 잇고, 여기 따로 조금만씩조금만씩 내가 잇거든, 여기.)

101004 @ 게 어디서 나록 농스 헛엇수과?(그럼 어디서 벼농사 하였습니까?)

101004 #1 게난 그 조고만씩 혼 내엿 물 등겨당 나록 농슬 헛엇수다.(그러니까 그 조금만씩 한 내에 물 당겨다가 벼농사를 하였습니디.)

101004 @ 어느 펜이서?(어느 편에서.)

101004 #1 요디 잇어. 막은골<sup>29)</sup>.(여기 잇어. ‘막은골’.)

101004 @ 막은골에서?(‘막은골’에서?)

101004 #1 이디 잇고, 난드른 논도 얼마 엿어.(여기 잇고, ‘난드르’는 논도 얼마 없어.)

101004 #2 난드른 동 냇물.(‘난드르’는 동쪽 냇물.)

101004 @ 삼촌도 나록 농사 해낫수과?(삼촌도 벼농사 하였습니까?)

101004 #1 아니, 난 감산이 친정에 나록 하난 해낫주만은, 이디도 오란에 이디 이거 이제 다 논 해난 디라. 논 해난 디난 우리도 나록 해난. 이젠 밧을 맨들아불 엿주게. 경 해신디 감산이는 우리 친정에는 논 한 집이난 어린 땐 머 나록도 날르 꼭 다 해신디, 이디 완도 논 벼실엿단 논 메완 논 엿어져부러트주게.(아니, 난 ‘감산이’ 친정에 벼 하나까 난 했엇지만, 여기도 와서 여기 이거 이제 다 논 했엇던 테라. 논 했엇던 테니까 우리도 벼 했엇어. 이젠 밧을 만들어버러트지. 그렇게 했는데 ‘감산이’는 우리 친정에는 논 많은 집이니까 어린 땐 뉘 벼도 나르고 다 했는데, 여기 와서도 논 벌엿다가 논 메워서 논 없어져버러트지.)

101004 @ 논 자린 지금 머 햄수과?(논 자리는 지금 뉘 하고 잇습니까?)

101004 #1 논 자린 밧 다, 이거.(논 자리는 밧 다, 이거.)

101004 @ 다 밧 멩글아불엿구나.(다 밧 만들어버러트구나.)

101004 #1 이거 다 이거 논 해난 디, 이 터도 이거 논 해난 디.(이거 다 이거 논 했엇던 테, 이 터도 이거 논 했엇던 테.)

101004 @ 처음에는 여기 논도 하영 해낫구나.(처음에는 여기 논도 많이 했엇구나.)

101004 #1 이딘 저수지로, 저수지 물 등겨단 저수지.(여기는 저수지로, 저수지 물 당겨다가 저수지.)

101004 @ 어느 펜이?(어느 편에?)

101004 #2 저수지, 을로 올라가민 저수지가 잇주게.(저수지, 여기로 올라가면 저수지가 잇지요.)

101004 #1 일로 영 올라가민 저수지 통이 잇어. 이제 그디 평균 뉘엿는데, 건 부락에서 사가지고 저수지 물 등견 그디 물 해서 내 꼬락지 요만흔 서릿내로 골골

29) ‘막은골’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잇는 지명이다.

골골 내려오면 싸움박질 험명 논일 험엿주게. 이놈 저놈 험명.(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수지 통이 있어. 이제 거기 평균 되었는데, 건 부락에서 사가지고 저수지 물 당겨서 거기 물 해서 내 고랑 요만한 ‘서릿내’로 골골골골 내려오면 싸움박질 하면서 논일 하였지요. 이놈 저놈 하면서.)

101004 @ 나록도 험여낫구나.(벼도 하였었구나.)

101004 #1 예, 나록 험수다.(예, 벼 험했습니다.)

101004 @ 경험고 바위.(그리고 바위.)

101004 #1 좃은다리게, 안막은골 바위, 좃은다리 바우, 그거주게.(‘좃은다리’, ‘안막은골’ 바위, ‘좃은다리’ 바위, 그거지요.)

101004 @ 바우?(바위?)

101004 #1 그전이란 바위엔 험주게. 그전 바우.(그전이니까 바위라고 험지요. 그전 바위.)

101004 @ 거기 무슨 당은 엿수과?(거기 무슨 당은 없습니까?)

101004 #1 당 엿어, 당은 할망당<sup>30</sup>.(당 없어, 당은 ‘할망당’.)

101004 @ 보민 돌, 큰 돌 이신디.(보면 돌, 큰 돌 있는데.)

101004 #1 할망당 엿어, 본향당<sup>31</sup>.(‘할망당’ 엿어, ‘본향당’.)

101004 @ 할망당에는 머 낭 잇수광?(‘할망당’에는 뭐 나무 있습니까?)

101004 #1 낭 엿어.(나무 엿어.)

101004 @ 돌 잇수광?(돌 있습니까?)

101004 #1 돌 험영 다져근에게, 촌의 할망덜게. 감산이도 통물<sup>32</sup>에 당 잇고, 난드르 당 잇곡, 세 성제난 세 개 잇곡, 할망당.(돌 해서 다져서, 촌에 할머니들. ‘감산이’도 ‘통물’에 당 잇고, ‘난드르’ 당 잇고, 세 형제니까 세 개 잇고, ‘할망당’.)

101004 @ 옛날 보민 바위 ㄱ뜰 디 당이 잇주게.(옛날 보면 바위 같은 데 당이 엿지요.)

101004 #2 경 험는 디가 잇주게.(그렇게 하는 데가 엿지요.)

101004 #1 경험디 이딘 바위에 가지 안 험여.(그런데 여기는 바위에 가지 안 해.)

101004 @ 바위에는 엿고, 박수기정엔 엿수과?(바위에는 없고, ‘박수기정’에는 없습니까?)

101004 #1,2 엿어.(없어.)

101004 #2 저 열리 동부락엔 바당가 어엽에게, 바위 돌 트멍에게.(저 ‘열리’ 동부락에는 바닷가 옆에, 바위 돌 틈에.)

101004 #1 건 동잇 본향.(건 동의 ‘본향’.)

101004 @ 그다음에 굴, 굴.(그다음에 굴, 굴.)

101004 #1 굴은게, 저 군산에 굴 잇고, 월라봉에 굴 잇고.(굴은요, 저 ‘군산’에

30) ‘할망당’은 여신을 모시는 당이다. 여기서 ‘할망’은 여자를 뜻한다.

31) ‘본향당’은 제주도를 수호하는 신을 모신 당이다.

32) ‘통물’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지명이다.

굴 있고, ‘월라봉’에 굴 있고.)

101004 #2 막은굴 안에 가민 기정 바우 안에 들어가는 굴 이십주.(‘막은굴’ 안에 가면 절벽 바위 안에 들어가는 굴 있습지요.)

101004 #1 자연적으로 뚫 거. 이디 영 흥민 대가리 팍팍 췌우곡.(자연적으로 뚫 거. 여기 이렇게 하면 머리 팍팍 쏘이고.)

101004 @ 옛날 그 저 즘녀덜 그디 강 무싱거.(옛날 그 저 해녀들 거기 가서구역.)

101004 #1 아니, 그디 강 옷은 아이 벗어. 이쪽에서 벗엉, 압 굴렁이 벗어똥 이젠 즘수침이 이시난 흥여도.(아니, 거기 가서 옷은 아니 벗어. 이쪽에서 벗어서, 앞 구렁에 벗어똥서 이젠 해녀집이 있으니까 하여도.)

101004 @ 옛날원 그런 디 가근에.(옛날에는 그런 데 가서.)

101004 #1 압 굴렁이 빌레<sup>33)</sup> 이편이. 가기 전에 불 살랑 메역 흥곡, 메역귀 귀떡곡 흥는 딴 거기 가기 전에.(앞 구렁 ‘빌레’ 이편에. 가기 전에 불 살려서 미역 하고, 미역귀 구워먹고 하는 데는 거기 가기 전에.)

101004 #2 막은굴 옆의 가민 내 옆의 흥뽀 이렇게 흥여근에 바우가 잇주게. 게난 거기서 옷 벗곡 불 살랑 추우곡.(‘막은굴’ 옆에 가면 내 옆에 조금 이렇게 해서 바위가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옷 벗고 불 살려서 쪼고.)

101004 #1 감산이 지경이 그 내로 갈랑, 이제 요 박수레 가기 전의 내가 잇이난, 그 내로 갈랑 건 감산 지경, 바당이. 또 이디는 내로 갈라가지고 동카름<sup>34)</sup> 바당. 난드르 바당은 요 앞의벳기 없어.(‘감산이’ 지경이 그 내로 갈라서, 이제 요 ‘박수’로 가기 전에 내가 있으니까, 그 내로 갈라서 건 ‘감산’ 지경, 바다가. 또 여기는 내로 갈라가지고 ‘동카름’ 바다. ‘난드르’ 바다는 요 앞에밖에 없어.)

101004 @ 옛날엔 전부 내로 갈랏수다.(옛날에는 전부 내로 갈랏습니다.)

101004 #1,2 예.(예.)

101004 #1 내로 갈르고, 지형이 그거. 지형이 그건데, 이 즘수덜은 난드르 즘수덜은 억이 췌여. 난드르 사름덜은 억세여가지고 화순 바당에도 강 싸움박질 흥멍가담흥영 메역 떼여오곡, 딱시 동카름 바당에도 강 부떠근에 완력으로 강 흥여오곡 흥단 이젠 법이 바짜전 법적으로 딱딱 지형을 갈라부난 즘수질 흘 디가 잇어, 이젠.(내로 가르고, 지형이 그거. 지형이 그것인데, 이 해녀들은 ‘난드르’ 해녀들은 억이 세어. ‘난드르’ 사람들은 억세여가지고 ‘화순’ 바다에도 가서 싸움박질 하면서 가담해서 미역 떼어오고, 다시 ‘동카름’ 바다에도 가서 붙어서 완력으로 가서 해오고 하다가 이젠 법이 꺾져서 법적으로 딱딱 지형을 갈라버리니까 해녀질 할 데가 없어, 이젠.)

101005 @ 그다음양, 이 난드르에 기관덜 잇지 안 흥우짜? 영 보민 이런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그다음은요, 이 ‘난드르’에 기관들 잇지 안 합니까? 이렇게 보면

33) ‘빌레’는 지면(地面)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혀진 돌이다.

34) ‘동카름’은 마을의 동쪽에 있는 동네이다.

이런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101005 #1 사무실 이거 뿐, 난드른.(사무실 이거 뿐, ‘난드르’는.)

101005 @ 여기 초등학교.(여기 초등학교.)

101005 #1 초등학교 폐교. 안덕초등학교 가부럼주게.(초등학교 폐교. 안덕초등학교 가버리고 있지요.)

101005 @ 언제 이거 폐교됐수과?(언제 이거 폐교됐습니까?)

101005 #1 오래여서, 흔 오 년 됐어.(오랫어, 한 오 년 됐어.)

101005 #2 오 년 더 됐어게.(오 년 더 됐어요.)

101005 @ 여기 초등학생덜 몇 명 됩니까?(여기 초등학생들 몇 명 됩니까?)

101005 #1 몰라. 몇 명사 됩신디. 안덕의서 노랑 차가 왕 아침에 여덟 시에 오랑 실러가곡, 두 시 뒤편 딱로 실러 오곡, 경 흐여. 큰 대형차 놔둬서.(모르지. 몇 명이야 되고 있는지. ‘안덕’에서 노란 차가 와서 아침에 여덟 시에 와서 실어가고, 두 시 되면 다시 실어 오고. 그렇게 해. 큰 대형차 놔두고 있으면서.)

101005 @ 계난 여기 애들은 안덕초등학교.(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안덕초등학교.)

101005 #1 응, 화순.(응, ‘화순’.)

101005 @ 창천이가 가까움직흔디.(‘창천이’가 가까울 것 같은데.)

101005 #1 아니, 아니, 창천이는 창천이고, 우리는 지경으론, 경 흐난 여깃 아의 덜은 화순으로 가는 게 이익이라.(아니, 아니, ‘창천이’는 ‘창천이’고, 우리는 지경으론,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은 ‘화순’으로 가는 게 이익이라.)

101005 #2 옛날엔 처음에 거시기 안덕초등학교 거시기 뎡겨놔주게. 경 흐연게 거기 흐난 후교가 폐교 뒤편 딱로 그래.(옛날에는 처음에 거시기 안덕초등학교 거시기 다녔었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 하니까 학교가 폐교 돼버리니까 다시 그리로.)

101005 #1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안덕초등학교 뿐, 안덕면에서. 중학교가 중간에 생긴 거주, 안덕에는 중학교도 없었어.(옛날에는 초등학교도 안덕초등학교 뿐, 안덕면에서. 중학교가 중간에 생긴 거지, ‘안덕’에는 중학교도 없었어.)

101005 @ 계난 어디 갔수과?(그러니까 어디 갔습니까?)

101005 #1 안덕중학교가 이제사 생긴.(안덕중학교가 이제야 생긴.)

101005 @ 옛날에는?(옛날에는?)

101005 #1 옛날엔 중학교 흐는 사름, 모실포<sup>35)</sup>. 모실포, 중문<sup>36)</sup>더레 나갓지 중학교 흐는 사름은. 학교 가는 사름도 배랑 엇지만은. 안덕초등학교가 안덕면에서 이제 하나, 중문면에선 강정<sup>37)</sup>이여 멋이여 중문면에서 이제 중문초등학교 하나, 웨정 때 짓은 학교는 어디냐. 안덕초등학교, 중문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 한림초등학교 네 개 뿐 웨정 때 짓은 학교주, 다 해방 후에 짓은 거우다.(옛날에는 중학교 하는

35) ‘모실포’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 하모리이다.

36) ‘중문’은 서귀포시 중문동이다.

37) ‘강정’은 서귀포시 대천동의 한 마을이다.

사람, ‘모실포’. ‘모실포’, ‘중문’으로 나갔지 중학교 하는 사람은. 학교 가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안덕초등학교가 ‘안덕면’에서 이제 하나, ‘중문면’에서는 ‘강정’이여 뗏이여 중문면에서 이제 중문초등학교 하나, 일제시대 때 지은 학교는 어디냐. 안덕초등학교, 중문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 한림초등학교 네 개 뿐 일제시대 때 지은 학교지, 다 해방 후에 지은 것입니다.)

101005 @ 계란 여기 복지회관 하고, 초등학교벧기 엇구나.(그러니까 여기 복지회관 하고, 초등학교밖에 없구나.)

101005 #1 예, 스무실이엔 흔 거 그거.(예, 사무실이라고 한 거 그거.)

101005 @ 따른 건?(다른 건?)

101005 #1 이젠 수련장이라. 학교는 수련장 뒤편주게.(이젠 수련장이지. 학교는 수련장 뒤편주게.)

101005 @ 며 아의덜 하영 읍니까?(뭐 아이들 많이 읍니까?)

101005 #1 하영 수련 읍네다. 학생덜토 오고 기냥도 오랑 막 저 축구도 흥곡, 그디 막 널르니까 줍니다. 그디 왕 밤 자고. 잠자는 디도 있고, 다 흥여난. 밥흥여 먹고, 다 흥여 거기서. 거난 손님 만이 읍니다. 건 청년 수련장.(많이 수련 읍니다. 학생들도 오고 그냥도 와서 마구 저 축구도 하고, 거기 아주 넓으니까 좋습니다. 거기 와서 밤 자고. 잠자는 데도 있고, 다 해놓아서. 밥해서 먹고, 다 해 거기서. 그러니까 손님 많이 읍니다. 그것은 청년 수련장.)

101006 @ 그다음에 이디 보민 계덜 잇지예, 계. 며 도새기 잡아먹는 계여, 며 사발제여.(그다음에 여기 보면 계들 잇지요, 계. 며 돼지 잡아먹는 계여, 뭐 사발 계여.)

101006 #1 아니. 그건 제, 제. 옛날은 제엔 해낫수다.(아니. 그건 계, 계. 옛날은 계라고 했었습니다.)

101006 @ 어떤 것덜 잇수과? 옛날은.(어떤 것들 있습니까? 옛날은.)

101006 #1 제는계, 쓸도 어렵고 흥난 제흥영 쓸도 흥 가메기씩, 흥 말씩 모이는 제도 있고, 도새기 잡아먹는 제도 있고, 이제처럼 판매가 어디 잇수과계. 경 해근에 제가 있어낫주게. 경 흥여근에 돈 흥폼씩 모영 켓돈으로 끈어근에 며 흥여주곡 막 흥여낫수다계.(계는, 쓸도 어렵고 하니까 계해서 쓸도 한 가마니씩, 한 말씩 모이는 제도 있고, 돼지 잡아먹는 제도 있고. 이제처럼 판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조금씩 모여서 켓돈으로 끊어서 뭐 해주고 마구 했었습니다.)

101006 @ 아까 도새기 잡아먹는 제.(아까 돼지 잡아먹는 계.)

101006 #1 쓸 흥여근에 흥는 제, 영장 나나 흥민 영장나민 쓸 메와다 주곡, 경 흥는 제. 이제 그뜨민 친목이지. 이제 그뜨민 친목.(쌀 해서 하는 계, 영장 나나 하면 영장나면 쌀 메워다 주고, 그렇게 하는 계. 이제 같으면 친목이지. 이제 같으면 친목.)

101006 #2 친목. 친목.(친목. 친목.)



101006 #1 옛날엔 제라고 했지.(옛날엔 계라고 했지.)

101006 #2 계, 돼야지 잡아먹는 제가 잇곡.(그럼, 돼지 잡아먹는 계가 있고.)

101006 #1 이제 ㄱ뜨민 친목이지 머, 모임.(이제 같으면 친목이지 뭐, 모임.)

101006 @ 사발제도 잇어낫수과?(사발제도 있었습니까?)

101006 #1 예, 사발제도 잇엇수다.(예, 사발제도 있었습니다.)

101006 @ 잔치 ㅎ젠 ㅎ민.(잔치 하려고 하면.)

101006 #1 잔치 ㅎ젠 ㅎ민, 경 ㅎ단 사발제엔 부락엿 거 빌어당 ㅎ다근에 이녁 방답만씩. 이녁 방답만씩 사발 ㅎ영, 일본서 교포덜 잇는 방답엔 일본서 돈 주민 오랑 사발도 사고 솟도 사고. 경노당이 잇영 잔칠 ㅎ수과? 문딱 집의서만 큰일 ㅎ젠 ㅎ난 그릇이 잇수과게. 경 ㅎ난 그처럼 해신디, 이젠 것도 다 폐지웬 이젠 경노당에 가불곡, 잔치도 경노당에, 영장도 경노당에, 어디 머 병원으로 가부난 이젠 집의서 큰일 하나도 엿입니다.(잔치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사발계라고 부락엿 거 빌어다가 하다가 이녁 집안만큼씩. 이녁 집안만큼씩 사발 해서, 일본서 교포들 잇는 집안에는 일본서 돈 주면 와서 사발도 사고 솟도 사고. 경로당이 잇어서 잔칠 ㅎ습니까? 모두 집에서만 큰일 하려고 하니까 그릇이 잇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것처럼 ㅎ는데, 이젠 것도 다 폐지되서 이젠 경로당에 가버리고, 잔치도 경로당에, 장사도 경로당에, 어디 뭐 병원으로 가버리니까 이젠 집에서 큰일 하나도 없습니까.)

101006 @ 계난 이제 제덜은 엿지예?(그러니까 이제 계들은 없지요?)

101006 #1 제덜은 엿어. 계난 이젠 절믄 아의덜 모임벳기 엿어. 우리 이디 오랑 살 땐 제가 만ㅎ여낫수다.(계들은 없어. 그러니까 이젠 젊은 아이들 모임밖에 없어. 우리 여기 와서 살 때는 계가 많았었습니다.)

101006 @ 옛날 저 남즈 삼춘 저 고적<sup>38)</sup> 잇지 안 ㅎ우파? 고적.(옛날 저 남자 삼춘 저 ‘고적’ 잇지 안 합니까? ‘고적’.)

101006 #1 예, 고적이 일가방상. 이제도 고적은 잇어. 일가에 영장 나민 옛날엔 쓸로 ㅎ 말씩 모여나신디 이제는 돈의로, 돈의로 집안마다 ㅎ나. 삼만 원 내는 집안, 오만 원 ㅎ는 집안, 보통으로. 건 고적.(예, ‘고적’이 일가집안. 이제도 ‘고적’은 잇어. 일가에 영장 나면 옛날엔 쓸로 한 말씩 모였었는데 이제는 돈으로, 돈으로 집안마다 달라. 삼만 원 내는 집안, 오만 원 ㅎ는 집안, 보통으로. 건 ‘고적’.)

101006 @ 고적 쓸도 잇고, 옛날원 고적 쓸.(‘고적’ 쓸도 잇고, 옛날에는 ‘고적’ 쓸.)

101006 #1 쓸, 쓸로 ㅎ 말씩 ㅎ단, ㅎ로 이젠 돈의로 ㅎ젠 ㅎ난 ㅎ 말에 만천 원 ㅎ민 천 원ㄱ지 들르명 돈으로 내낫수다, 우리. 이젠 살기가 얼마나 조아부러트수과게. 보리밥 먹을 때 잔치밥 가민 사발에 스뭇 던덕ㄱ찌 부뜨곡, 보리쌀 농곡, 곤쌀 놓는 집원 농곡, ㅎ 놓곡 ㅎ영 밥 ㅎ민 사발 ㅎ지도 안 ㅎ영 그, 아이고.(쌀, 쌀로 한 말씩 하다가, ㅎ로 이젠 돈으로 하려고하니까 한 말에 만천 원 하면 천 원까

38) ‘고적’은 일가에 경조사가 생겼을 적에 친척끼리 만들어 가는 부조떡이나 쌀이다.

지 따르면서 돈으로 냈었습니다, 우리. 이젠 살기가 얼마나 좋아버렸습니까. 보리밥 먹을 때 잔칫밥 가면 사발에 사뭇 더덕같이 붙으고, 보리쌀 넣고, 흰쌀 넣는 집에는 넣고, 팔 넣고 해서 밥 하면 사발 씻지도 안 해서 그, 아이고.)

101007 @ 그다음에양, 난드르 풍습 잊지 안 흐우파? 풍습. 어떤 풍습 잊수과?(그다음에요, '난드르' 풍습 잊지 안 합니까? 풍습. 어떤 풍습 있습니까?)

101007 #1 어떤 풍습이라게 그거주. ㄱ싸 ㄹ는 거 풍습이 변경돼버렸주.(어떤 풍습이라 그거지. 아까 말하는 거 풍습이 변경돼버렸지.)

101007 @ 흔 번 더 곱아줍서.(한 번 더 말해보십시오.)

101007 #1 그거주게. 며 이젠 경노당에 강 잔치 해불곡, 식당에 강 잔치 해불곡, 일포도 다 경 해불곡 흐난 집의서 흘 일이 없어.(그거지. 뭐 이젠 경로당에 가서 잔치 해버리고, 식당에 가서 잔치 해버리고, 일포도 다 그렇게 해버리고 하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어.)

101007 @ 옛날 잔치 흐젠 흐민 메칠?(옛날 잔치 하려고 하면 며칠?)

101007 #1 사흘도 넘어 걸려. 무사냐 흐민, 흐룬 도새기 잡양먹는 날, 아시날은 출리는 날, 뒷날은 가문잔치 흐명 밤이영 낮이영 막 먹어. 뒷날은 잔치흐영. 옛날은 식당에 강 무신 헛수광? 그날 강 그날 잔치 흐는 날 새서방 독개로 강 모셔오민 매기.(사흘도 넘어 걸려. 왜냐 하면, 하루는 돼지 잡아서 먹는 날, 전날은 차리는 날, 뒷날은 가문잔치 하면서 밤하고 낮하고 마구 먹어. 뒷날은 잔치해서.)

101007 @ 옛날은 식당에 강 무싱거 헛수광?(옛날은 식당에 가서 무엇 했습니까?)

101007 #1 그날 강 그날 잔치 흐는 날 새서방 도께로 강 모셔오민 매기.(그날 가서 그날 잔치 하는 날 새서방 독교로 가서 모셔오면 없음.)

101007 @ 집의서 흐지 안 흐엿수과?(집에서 하지 안 하였습니까?)

101007 #1 예게, 집의서게.(예, 집에서.)

101007 @ 보리낭 영 곱아근에.(보릿짚 이렇게 깔아서.)

101007 #1 곱곡.(깔고.)

101007 @ 팽풍 영 둘러근에.(병풍 이렇게 둘러서.)

101007 #1 둘러곡, 새각시 앓정.(둘르고, 새색시 앓혀서.)

101007 @ 사진 찍곡?(사진 찍고?)

101007 #1 우리 흘 땀 사진도 없더라.(우리 할 땀 사진도 없더라.)

101007 #2 사진도 엿주게.(사진도 없지.)

101007 #1 이 하르방<sup>39)</sup>은 잔칫날 말 탕 강, 지레영 큰큰 흐연게.(이 '하르방'은 잔칫날 말 타서 가서, 키하고 큰큰 했게.)

101007 @ 이디 저 걸궁흐는 팀은 엿수과?(여기 저 걸립(乞粒)하는 팀은 없습니까?)

101007 #1 엿어. 걸궁은 예레<sup>40)</sup>에서 오랑 해줍니다. 옛날부터 걸궁이 어서. 감

39)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산인 걸궁을 잘 햏여난.(없어. 걸립(乞粒)은 ‘예레’에서 와서 햏줍니다. 옛날부터 걸립(乞粒)이 없어. ‘감산’인 걸립(乞粒)을 잘 햏였어.)

101007 @ 거 저 멩질 꺏나민 무싱거 햏지양. 어르신덜안티 저 세배.(거 저 멩질 꺏나면 무엇 햏지요. 어르신들한테 저 세배.)

101007 #1 예, 서배. 멩질날 이 복지판으로, 복지판으로 햏던지 저 수련장으로. 그뻤 부락에서 햏영 맥이곡 서배햏곡.(예, 세배. 멩질날 이 복지판으로, 복지판으로 햏든지 저 수련장으로. 그뻤 부락에서 햏서 먹이고 세배햏고.)

101007 @ 게난 저 설 때는 세배햏곡, 저 추석 뻤 머 안 햏니까?(그러니까 저 설 때는 세배햏고, 저 추석 뻤 뭘 안 햏니까?)

101007 #1 추석 때는 없어.(추석 때는 없어.)

101007 @ 체육대회도 안 햏곡?(체육대회도 안 햏고?)

101007 #1 이디 이디서 노인덜 서배햏곡 햏여. 복지판에서, 저디 손님 들어볼민 못햏민 이디 왕 햏여. 부락 죽은 디난 사름도 만햏지 안 햏. 안덕뻤 죽은 뻤에서 난 드르가 호 수가 제일 죽아. 수입 가져오는 것도 제일 죽고. 왜냐, 이 농토 지형이 제일 죽아 대평은, 난드르는. 감산 가튼 디는 돌록<sup>41)</sup>이여 머여 막 만햏는디, 요 군산 아퓌 요거 햏풍 친 거 ㄱ췌 이거뻤인디, 군산 아퓌도 열리 지경이 햏영 들어볼 엇어. 게난 이 농토 지형이 죽아, 난드르.(여기 여기서 노인들 세배햏고 햏. 복지판에서, 저기 손님 들어버리면 못햏면 여기 와서 햏. 부락 작은 데니까 사람도 많지 안 햏. ‘안덕뻤’ 작은 뻤에서 ‘난드르’가 호 수가 제일 작아. 수입 가져오는 것도 제일 작고. 왜냐, 이 농토 지형이 제일 작아 ‘대평’은, ‘난드르’는. ‘감산’ 같은 데는 ‘돌록’이여 뻤여 아주 많은데, 요 군산 앞에 요거 햏풍 친 거 같이 이것뻤인디, ‘군산’ 앞에도 ‘열리’ 지경이 많이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농토 지형이 작아, ‘난드르’.)

101007 #2 이 아퓌 눈으로 바지는 거뻤.(이 앞에 눈으로 바지는 거뻤.)

101007 #1 이거뻤. 게난 마농 농사 쫓뻤 햏볼민 매기. 게난 돈 가져오는 것도 췌 죽고, 나는 것도 없어. 다른 디 농토가 널르난 콩도 같고 햏도 같고 다 햏는디 여긴 마농 햏는 거 요거매기.(이거뻤. 그러니까 마늘 농사 조금 햏버리면 없어. 그러니까 돈 가져오는 것도 췌 적고, 나는 것도 없어. 다른 데는 농토가 넓으니까 콩도 같고 참깨도 같고 다 햏는데 여긴 마늘 햏는 거 요거뻤.)

101008 @ 여기 특산물?(여기 특산물?)

101008 #1 특산물이 마농매기주게. 거뻤기 없어.(특산물이 마늘뻤이지요. 거뻤에 없어.)

101008 @ 그다음에 줌녀덜 햏는 거.(그다음에 햏녀들 햏는 거.)

101008 #1 줌수덜 햏는 거 멏 사름이 햏여게. 구제기 잡양 오곡.(햏녀들 햏는 거 멏 사람이 햏요. 소라 잡아서 오고.)

40) ‘예레’는 서귀포시 햏예동이다.

41) ‘돌록’은 서귀포시 안덕뻤 감산리에 있는 지형 이름이다.

101008 @ 멧 멧이나 정도 햄수과?(멧 멧이나 정도 하고 있습니까?)

101008 #1 몰르कु다게. 줌수 난 해너 아난에.(모르겠습니다. 해너 나는 해너 아니니까.)

101008 @ 구제기도 못 먹엄신게.(소라도 못 먹고 있네요.)

101008 #1 게, 못 먹주게. 이 하르방은 입이 보영해불어.(그럼, 못 먹지요. 이 ‘하르방’은 입이 보애버려.)

101008 @ 감귤은?(감귤은?)

101008 #1 감귤도 얼마 엇수다.(감귤도 얼마 없습디다.)

101008 @ 게민 줌녀덜 해근에 바당에 강 흐 거 흐고.(그러면 해너들 해서 바다에 가서 한 거 하고.)

101008 #1 마농, 그거뿐.(마늘, 그거뿐.)

101008 @ 그거뿐마씨? 게민 무싱거 먹영 살암수과? 이디 사름덜은.(그거뿐입니까? 그러면 무엇 먹어서 살고 있습니까? 여기 사람들은.)

101008 #1 경 해도 세상이 좋은 세상이난 굶지 안 해.(그렇게 해도 세상이 좋은 세상이니까 굶지 안 해.)

101008 @ 무싱거 흐멍, 돈은 벌어야 할 거 아니우파?(무엇 하면서, 돈은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1008 #1 경 해도양, 우리 노인은 아무 것도 날 거 엇어양. 우리 늘거부난 못 흐는디 노인 연금도 있고. 경해도 굶진 안 해.(그렇게 해도요, 우리 노인은 아무 것도 날 거 없어요. 우리 늙어버리니까 못 하는데 노인 연금도 있고. 그래도 굶진 안 해.)

101009 @ 그다음양, 이 난드르 자랑거리. 경해도 자랑거린 이실 거 아니우파?(그다음은요, 이 ‘난드르’ 자랑거리. 그래도 자랑거린 있을 거 아닙니까?)

101009 #1 자랑꺼린게, 우리덜 건강흐고 단체 좋고.(자랑거린요, 우리들 건강하고 단체 좋고.)

101009 @ 게난 마을 자랑거리.(그러니까 마을 자랑거리.)

101009 #1 마을 자랑거린 그거주게 무신. 다 이웃스촌이라고 다 좋게 살고, 이 추룩 놀고, 건강흐곡 흐민 돼는 거주 무신. 구제기 잡곡, 마농 싱그곡, 그거뿐이주. (마을 자랑거린 그거지 무슨. 다 이웃사촌이라고 다 좋게 살고, 이처럼 놀고, 건강하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소라 잡고, 마늘 심고, 그거뿐이지.)

101009 @ 모영덜 ㄱ찌 수눔명<sup>42)</sup> 흡니까?(모여서들 같이 ‘수눔면서’ 합니까?)

101009 #1 아니 그, 마늘 흘 때는 비니루 더끌 때영 다 수눔영 흐여, 서로 도우명.(아니 그, 마늘 할 때는 비닐 덮을 때하고 다 ‘수눔어서’ 해, 서로 도우면서.)

101009 @ 그다음에 여기 와근에 노래덜도 불르곡.(그다음에 여기 와서 노래들도 부르고.)

101009 #1 예, 이디 오랑 노래덜도 불르곡, 멧질 ㄱ쁜 땐 마이크가 족양 못 흐

42) ‘수눔다’는 힘든 일을 이웃 간에 서로 거들어 가며 하다는 의미다.

여.(예, 여기 와서 노래들도 부르고, 명절 같은 때는 마이크가 작아서 못 해.)

101010 @ 이 마을에 대흥영 곤지 못흔 것덜, 난드르에 대흥영 곤지 못흔 것덜  
 곱아줍서?(이 마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것들, ‘난드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것  
 들 말해주십시오.)

101010 #1 그거주게 무신, 곱은 거, 거뿐.(그거지 무슨, 말한 거, 거뿐.)

101010 @ 곤지 못흔 거게, 웨지 사름덜 와근에 못흔 거.(말하지 못한 거, 외지  
 사람들 와서 못 한 거.)

101010 #1 웨지 사름덜 오는 거 막을 수 엿이카? 다시 더 들어오난게.(외지 사  
 람들 오는 거 막을 수 없을까? 다시 더 들어오니까.)

101010 @ 계난 그거에 대해서 혼 번 말해봅서?(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1010 #1 경흐난 집도 다 풀아뿔 나가불곡, 웨지 사름덜 왕 살아불곡, 난드르  
 사름 이녁 집 가진 사름 멧 엿어. 다 풀아부런.(그러니까 집도 다 팔아뿔어서 나가버  
 리고, 외지 사람들 와서 살아버리고, ‘난드르’ 사람 이녁 집 가진 사람 멧 없어. 다  
 팔아버려서.)

101010 #2 토지 ㄱ쁜 것도 다 열리 사름.(토지 같은 것도 다 ‘열리’ 사람.)

101010 @ 바당궂디는 다 웨지 사름덜 사불엿수과?(바닷가에는 다 외지 사람들  
 사버렸습니까?)

101010 #1 바당궂이고 아무디고 안 산 디가 엿주게. 바당에 일로 저레 강 봅서  
 만은 돈딱 좋은 집덜 짓으곡 장사 해불엿서.(바닷가고 아무데고 안 사는 데가 없지.  
 바다에 일로 저리로 가서 보십쇼만은 모두 좋은 집들 짓고 장사 해버리고 있어.)

101010 @ 계난 땅 폰 사름덜은 어디 가불엿수과?(그러니까 땅 판 사람들은 어  
 디 가버렸습니까?)

101010 #2 땅 폰 사름덜 어디 시에 가근에.(땅 판 사람들 어디 시에 가서.)

101010 #1 이디 사는 사름도 잇곡, 어디 나가분 사름도 잇곡.(여기 사는 사람도  
 있고, 어디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101010 @ 집 엿인 사름도 잇겟네.(집 없는 사람도 있겟네.)

101010 #2 집 엿인 사름도 잇입주게.(집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101010 #1 계, 집 엿언 할망 하나만 흥영 요만이 혼 막사리도 짓영 살곡, 아덜  
 덜은 집 풀아지민 나가불곡.(그럼, 집 없어서 할머니 하나만 해서 요만큼 한 오막살  
 이 지어서 살고, 아들들은 집 팔아지면 나가버리고.)

101010 @ 멧년 후에는 여기 본토백이 엿이큰게.(멧 년 후에는 여기 본토사람 없  
 어지겠네.)

101010 #1 이디 사름 엿어, 본토백이 엿어.(여기 사람 없어, 본토사람 없어.)

101010 #2 지금 보듯 흥면은 본토백이 엿임직흥우다.(지금 보듯 흥면은 본토사  
 람 없어질 것 같습니다.)

101010 #1 엿엄직흥여. 이제 생활흥는 거 보면은 엿엄직흥여, 내중이라 가민. 이

제 이녀 집 가진 사름도 멧 없어. 우리 동네 가면은 켈 하. 우리 앞집이여, 옆집이여, 건 이녀 집덜. 요 차부로, 요 골목으로 나강 문딱 폴아부난 모른 사름덜이라 다. 그디 혼 사름뿐이라.(없어질 것 같아. 이제 생활하는 거 보면 없어질 것 같아, 나중이라 가면. 이제 이녀 집 가진 사람도 멧 없어. 우리 동네 가면은 제일 많아. 우리 앞집이여, 옆집이여, 건 이녀 집덜. 요 주차장으로, 요 골목으로 나가서 모두 팔아버리니까 모른 사람들이라 다. 거기 한 사람뿐이라.)

101010 @ 어디 사름덜 왕 살았수과?(어디 사람들 와서 살고 있습니까?)

101010 #1 육지 사름덜게.(육지 사람들.)

101010 @ 어디 서울서?(어디 서울서?)

101010 #1 서울서사 오람신디, 강남서사 오람신디, 나 압니까.(서울서야 오고 있는지, 강남서야 오고 있는지, 나 알아집니까.)

101010 @ 하는 일이 뭐라, 그 사름네.(하는 일이 뭐라, 그 사름네.)

101010 #1 오라근에양, 커피도 팔고, 우리 아피도 질 예염에 이제 치킨이여, 멋이여 머 아니 멘드는 것이 없어. 그 집도 질 예염으로. 겐디 그 집은 그 혼 사름씩 오랑 사는데, 불 썩진 디 문딱 장사라.(와서요, 커피도 팔고, 우리 앞에도 길 옆에 이제 치킨이여, 멋이여 뭐 아니 만드는 것이 없어. 그 집도 길 옆으로. 그런데 그 집은 그 한 사람씩 와서 사는데, 불 썩진 게 모두 장사라.)

101010 @ 거난 이거 난드르 엇어짐직하다 이거.(그러니까 이거 ‘난드르’ 없어질 것 같다 이거.)

101010 #1 난드르 땅이, 사름이 엇어져. 경혀도 엇어지지 안 혀. 게도 그 난드르엔 혀영.(‘난드르’ 땅이, 사름이 엇어져. 그래도 엇어지지 안 해. 그래도 그 ‘난드르’라고 해서.)

## 2. 제보자 일생

102001 @ 이젠양, 여자 삼촌부터 낳고 자란 과정 곱아줍서.(이제네요, 여자 삼촌부터 낳고 자란 과정 말해주십시오.)

102001 #1 난 때, 물야기<sup>43)</sup> 뎌 모르고, 초등학교 들어가야 아는 거주게, 나가 아는 디는. 감산이 친정이난, 그때는 일고여답 슬엔 학교 못 들어갓어, 우리 시절에는. 경흔디 아웁 슬, 열 슬 뉘사 일혹년 들어갓어. 여답 슬에 들어간 사름 드물어. 잘 엇어. 경흔디 그때 들어갈 때는 우리가 웨정놈이라양, 일본놈이라양. 안덕 지서장도 일본놈, 학교 교장도 일본놈. 글도 일본 글. 다 헛주게, 나가 학교 들어갈 때는. 삼혹년 뉘난에 해방 뉘디다. 나가 안덕초등학교 십삼 뉘디 삼혹년 뉘난에 해방을 뉘디다. 열흔 슬이 뉘난 우리 아버지가 두 슬 들연에 아웁 슬로 학교를 입학했어. 게난 그뎌 웨정놈이라양, 일본놈이라양. 일본놈덜안티 옷 입영, 이 바질 입영 가

43) ‘물야기’는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몸이 굳지 않은 아이다.

면은 남즈덜은 요만이만 질면은 2새로 탁 그차불곡, 반바지로. 또 옷은 학교에 입는 옷은 뗏을 입었냐, 우리가 그땐 미녕하고 광목벳기 더 잇엇수과. 광목치매 입으면은 일본 해군 모양으로 바우로 흰 떨 두 개 둘릅니다. 흰 띠 두 개. 치매 바우에 흰 띠 두 개 둘루곡, 이딘 해군 모양으로 이레 들린 그 우와기라양. 우와기도 흰 띠 두 개 들러, 그 등긴 거, 이쪽으로 이레까지. 경 흥연 학교 교복이라양. 경흥민 이양발을 못 신게 했거던. 게민 대비, 이젠 대비로 갈아야지, 그땐 대비. 대비 신영 가면은 학교에 가다근에 모르게 담고냥드레 질러똥 가야지, 담고냥드레. 질러똥 가면 올 땐 좇지 못혀, 좇지 못혀곡. 물이 수두가 이제야 수두 낫주, 수두가 엇수다양, 안덕초등학교에. 수두 엇이든 물받이 땅꼬물 두에. 췌멘으로 이만인 흠디다. 이만이 혼 땅꼬물 흥민 그디 흥민 혼 사름이 잘못흥민 전체 기압이라양. 게민 돌로 못아, 언디민. 게민 그레 강 발을 다 등가. 거난 곳인 거 이제도 잇수게. 경 흥영 곳아근에 발 곳으곡. 벤또 정심은 쌍 가민 보리조팝. 쌍 가민 쓸은 한 거 아메도 그 일본 벤또 먹는 때 그 음복<sup>44)</sup> 흥여근에 그걸 먹어. 마농지 쌍 가민 마농 내. 도슬기착<sup>45)</sup>에 싸는 놈, 쿨락 박세기에 싸는 놈, 박세기에 싸는 놈, 여라 가지라. 벤또가 엇이난 그때 일본 때. 경 흥연에 그 학교 다녀십주게. 기민 안덕멘은 학교가 안덕초등학교, 모실포 이제 초등학교가 그 초등학교, 한림초등학교, 또 저 제주시 그 어디 그거벳기 웨정 때 짓은 초등학교가 엇수다. 이제 다 짓인 거는 해방 후에 짓인 거라, 다. 경흥디 중문흥교는 습격 들언에 해방 후에 스슴 스건 때 습격 들언 불 슬아불어서. 그 불 스는 디 왓단에 애무혼 사름 총으로 문딱 쏘안 하영 죽여불엇수게게. 그디 불 난에 막 그 산폭도덜 오란 불 지더부난 불 와랑와랑<sup>46)</sup> 해 가난 불끄렝이 해근에 초가집이난 불카카부덴.(난 때, ‘물아기’ 땐 모르고, 초등학교 들어가야 아는 거지, 나가 아는 데는. ‘감산이’ 친정이니까, 그때는 일고여덟 살엔 학교 못 들어갔어, 우리 시절에는. 그런데 아홉 살, 열 살 돼야 일학년 들어갔어. 여덟 살에 들어간 사람 드물어. 잘 없어.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일본사람이지요, 일본사람이지요. ‘안덕’ 지서장도 일본사람, 학교 교장도 일본사람. 글도 일본 글. 다 했지요, 나가 학교 들어갈 때는. 삼학년 되니까 해방 됩디다. 나가 안덕초등학교 삼삼 회인데 삼학년 되니까 해방 됩디다. 열한 살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두 살 들어서 아홉 살로 학교를 입학했어. 그러니까 그땐 일본사람이지요, 일본사람이지요. 일본사람들한테 옷 입어서, 이 바지를 입어서 가면은 남자들은 요만큼만 길면 가위로 탁 끊어버리고, 반바지로. 또 옷은 학교에 입는 옷은 뗏을 입었냐, 우리가 그땐 무명하고 광목밖에 더 잇엇습니까. 광목치매 입으면 일본 해군 모양으로 둘레로 흰 떨 두 개 두릅니다. 흰 띠 두 개. 치매 둘레에 흰 띠 두 개 두르고, 여기는 해군 모양으로 이리로 달린 그 상의지요. 상의도 흰 띠 두 개 달려, 그 등긴 거, 이쪽으로 이리까지. 그렇게 해서 학교 교복이지요. 그러면 이 양말을 못 신게 했거든. 그러면 양말, 이젠 양말로 말해야지, 그땐 양말. 양말 신어서 가면은 학교에 가다가 모르게 담구

44) ‘음복’은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다.

45) ‘도슬기착’은 대오리로 엮은 도시락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동고령’, ‘밥당석’이라고도 한다.

46) ‘와랑와랑’은 불이 성하게 타오르는 모양이다.

명으로 끼워둬서 가야지, 담구명으로. 끼워둬서 가면 올 땐 찾지 못해, 찾지 못하고. 물이 수도가 이제야 수도 걸었지. 수도가 없습니다, 안덕초등학교에. 수도 없으면 물받이 물탱크 뒤에. 시멘트로 이만큼은 합디다. 이만큼 한 물탱크 하면 거기 하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 기합이지요. 그러면 돌로 마아, 굳어지면. 그러면 그리로 가서 받을 다 담가. 그러니까 곱은 거 이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곱아서 발 열고. 도시락 점심은 싸서 가면 보리조팝. 싸서 가면 쌀은 많은 거 아마도 그 일본 도시락 먹는 때 그 ‘음복’ 해서 그것을 먹어. 마늘장아찌 싸서 가면 마늘 내. ‘도슬기짱’에 싸는 놈, 박 바가지에 싸는 놈, 바가지에 싸는 놈, 여러 가지이다. 도시락이 없으니깐 그때 일본 때. 그렇게 해서 그 학교 다녔습지요. 그러면 ‘안덕면’은 학교가 안덕초등학교, ‘모슬포’ 이제 초등학교가 그 초등학교, 한림초등학교, 또 저 제주시 그 어디 그거밖에 일제 시대 때 지은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이제 다 지은 거는 해방 후에 지은 거지요, 다. 그런데 중문학교는 습격 들어서 해방 후에 사삼 사건 때 습격 들어서 불 사라버렸어. 그 불 사는 데 왔다가 공연한 사람 총으로 모두 쏘아서 많이 죽여 버렸습니다. 거기 불나서 마구 그 산 폭도들 와서 불 지퍼버리니까 불 ‘와랑와랑’ 해 가니까 불티 해서 초가집이니까 불탈까 싶어서.)

102001 @ 그 천제연<sup>47)</sup> 여피 초등학교 있어났수계양?(그 ‘천제연’ 옆에 초등학교 있었습니까?)

102001 #1 아니, 이제 그 학교가 그 학교.(아니, 이제 그 학교가 그 학교.)

102001 @ 아니.(아니.)

102001 #1 그땐 면사무소.(그때는 면사무소.)

102001 @ 천제연 여피.(‘천제연’ 옆에.)

102001 #1 천제연 여피 면사무소.(천제연 옆에는 면사무소.)

102001 @ 아, 기짱?(아, 그렇습니까?)

102001 #1 예, 이 안덕도, 안덕 이제 지서영 면사무소 감산이 안덕천<sup>48)</sup>에 면사무소 지선 저편이 있고 있어났수다. 계남 화순 사람한테 풀련에 감산이가 화순으로 지서영 학교 줘분 거라. 학교도 감산이 있어나고, 그레 가분 거라, 이제. 경 해신디 그 지봉 우의 올란에 명석 더꺼근에 불가리는 건디, 산에 연락함젠 돌아단 문딱 죽여불었수게. 경 험었수다.(예, 이 ‘안덕’도, ‘안덕’ 이제 지서하고 면사무소 ‘감산이’ ‘안덕천’에 면사무소 지서는 저편에 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순’ 사람한테 풀려서 ‘감산이’가 ‘화순’으로 지서하고 학교 줘버린 거라. 학교도 ‘감산이’ 있었었고, 그리로 가버린 거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지봉 위에 올라서 명석 덮어서 불가리는 것인데, 산에 연락하고 있다고 데려다가 모두 죽여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102001 @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엔?(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는?)

47) ‘천제연’은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폭포이다.

48) ‘안덕천’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 위치한 안덕 계곡이다.



102001 #1 그다음엔 검질이나 매레 다니곡, 밥이나 흥곡, 아기라도 봤주 무신. 그때 중학교 해시민 멘장질 하지.(그다음에는 김이나 매러 다니고, 밥이나 하고, 아기라도 봤지 무슨. 그때 중학교 했으면 멘장질 하지.)

102001 @ 언제 씨집 읍데가?(언제 시집 왔습니까?)

102001 #1 씨집은 어느 때사 오라져신지, 열여답에 오난에게.(시집은 어느 때야 와졌는지, 열여덱에 오니까.)

102001 @ 열여답에 완에.(열여덱에 와서.)

102001 #1 하르방은 쭈무 슬이고, 이제까지 살았주게. 열여답에 오란 열아읍에 야기 나고. 아덜, 거 잇어시민 육십여섯이라.('하르방'은 스무 살이고, 이제까지 살았지. 열여덱에 와서 열아홉에 야기 넣고. 아들, 거 있었으면 육십여섯이다.)

102001 @ 그다음엔?(그다음에는?)

102001 #1 그다음엔 두 슬 묻이, 세 슬 묻이로 네 개 뿐이난, 야기가. 네 개만 나난. 그때 시절에도 야기가 거뿐. 노인회장 흥고, 딱시 무슨 회장 흥고 흥여도 야기가 거뿐. 옛날엔 막 일고야답 개 나지 안 흥였수과? 계난 그거뿐. 거 무싱거 아무 것도 아니 흥여도 거뿐. 계난 막둥이가 서른세 슬에 난 야의가 이제 원하난가, 원둘 일 거우다. 막둥이, 저 누나광 열두 슬 차이.(그다음에는 두 살 터울, 세 살 터울로 네 개 뿐이니까, 야기가. 네 개만 낳으니까. 그때 시절에도 야기가 거뿐. 노인회장하고, 다시 무슨 회장하고 해도 야기가 거뿐. 옛날에는 막 일고야덱 개 낳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뿐. 거 무엇 아무 것도 아니 해도 거뿐. 그러니까 막내가 서른세 살에 낳은 야이가 이제 원하나인가, 원둘일 것입니다. 막내, 저 누나와 열두 살 차이.)

102001 @ 계난 검질메곡.(그러니까 김매고.)

102001 #1 검질메곡, 멘네 타곡, 콩 검질메곡, 콩 비곡.(김매고, 면화 따고, 콩 김매고.)

102001 @ 줌수 역할은 안 흥여봄디가?(해너 역할은 안 해봤습니까?)

102001 #1 줌수사, 감산이 사름이 줌수 해저게. 구제기도 못 잡고, 먹음은 해도 잡진 못 흥여.(해너야, '감산이' 사름이 할 수 있습니까. 소라도 못 잡고, 먹음은 해도 잡지는 못 해.)

102001 @ 계민 남자 삼촌 자라운 과정 흥 번 말흥여봄서.(그러면 남자 삼촌 자라운 과정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2001 #1 밧 갈곡.(밭 갈고.)

102001 #2 나사게.(나야게.)

102001 #1 쉼 멕이곡.(소 먹이고.)

102001 #2 수물대, 대야섯 나도록은 밧 갈곡.(스물대, 대야섯 나도록은 밧 갈고.)

102001 @ 학교는 어떻 안 다넛데가?(학교는 어떻게 안 다녔습니까?)

102001 #2 학교는게.(학교는게.)

102001 #1 학교는 무신, 옛날 서당 말앙 무슨 학교 시켜서.(학교는 무슨, 옛날

서당 말고 무슨 학교 시켜서.)

102001 @ 거난에 살아온 과정 쪽 돌아봅서.(그러니까 살아온 과정 쪽 말해보십시오.)

102001 #2 살아온 과정이사 나가 어린 때 혼 열서너 슬 때난 소 맥이레 다니곡, 소 사근에 소 ㄱ리청 밧 갈레 다니곡, 주루게 밧은 주루 갈아십주게.(살아온 과정이야 나가 어린 때 한 열서너 살 때니까 소 먹이러 다니고, 소 사서 소 가르쳐서 밧 갈러 다니고, 주로 밧은 주로 갈았습니다.)

102001 #1 그거뿐이주.(그거뿐이지.)

102001 #2 난드르 벵디 널르지 안 혼난 혼디 거자 나 손으로 거자 갈았수다게. 이제 생각혼민 그 며 혼게 했주.('난드르' 별판 넓지 안 하니까 함께 거의 나 손으로 거의 갈았습니다. 이제 생각하면 그 뭐 하게 했지.)

102001 #1 잘 갈곡게.(잘 갈고.)

102001 #2 밧은 춤 암체 질루멍 암체로 군작 밧을 갈았주.(밧은 참 암소 기르면서 암소로 곧장 밧을 갈았지.)

102001 @ 경 혼연에 밧 슬 웬 때 결혼혼여서마씨?(그렇게 해서 몇 살 된 때 결혼하였습니까?)

102001 #1 쓰물, 난 열여답에.(스물, 난 열여덟에.)

102001 #2 난 쓰물에, 쓰물에 결혼혼연. 쓰물에 결혼혼연에 살단에 즈식도 나고 거세기 쓰물.(난 스물에, 스물에 결혼했어. 스물에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도 낳고 거시기 스물.)

102001 #1 하나에 낫주.(하나에 낳았지.)

102001 #2 여섯, 일곱에 일본 가신가.(여섯, 일곱에 일본 갔는가.)

102001 #1 예, 일곱.(예, 일곱.)

102001 #2 쓰물일곱에 일본 가기 시작혼여근에.(스물일곱에 일본 가기 시작해서.)

102001 #1 갔다 왔닥, 갔다 왔닥.(갔다 왔다가, 갔다 왔다가.)

102001 #2 쪽 계속 혼여근에 이제 고향에 들어완 살건디가 십 년.(쪽 계속해서 이제 고향에 들어와서 사는지가 십 년.)

102001 #1 이십 년도 넘엇주게.(이십 년도 넘었지.)

102001 #2 어디 이십 년 말이라?(어디 이십 년 말인가?)

102001 #1 어디 하르방 온 디 이십 년 넘엇수다. 무신 말을. 아, 영훈이가 밧 슬 인 때우파게? 군인 강 쓰물두 슬 아니우파? 건 돼고.(어디 '하르방' 온 지 이십 년 넘었습니다. 무슨 말을. 아, 영훈이가 몇 살인 때입니까? 군인 가서 스물두 살 아십니까? 그것은 되고.)

102002 @ 게른양, 여자 삼촌 부모님은 어떤 일을 혼였수광?(그러면요, 여자 삼촌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102002 #1 우리 친정에 어머니? 친정에 아버지는 도청에 근무자. 딱시 어멍넌

농스꾼. 우린 나록 하고 기자 농스꾼이주, 기냥 옛날엔. 기자 검질 메레 다니고 농스꾼이고, 아버지는 도청에 직원이고, 면사무소에 싯단 도청에 직원이고 아버지는. 옛날 웨정 때부터 도청 직원이고.(우리 친정에 어머니? 친정에 아버지는 도청에 근무자. 다시 어머니는 농사꾼. 우린 벼 하고 그저 농사꾼이지, 그냥 옛날엔. 그저 김매러 다니고 농사꾼이고, 아버지는 도청에 직원이고, 면사무소에 있다가 도청에 직원이고 아버지는.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도청 직원이고.)

102002 @ 그다음에 남자 삼촌은 부모님?(그다음에 남자 삼촌은 부모님?)

102002 #1 농스꾼.(농사꾼.)

102002 #2 농스꾼.(농사꾼.)

102002 @ 어떤 농사 지엿수과?(어떤 농사 지엿습니까?)

102002 #1 기냥 이제 콩 갈곡, 마농만 안 싱그는 거뿐, 보리 갈곡.(그냥 이제 콩 갈고, 마늘만 안 심는 거뿐, 보리 갈고.)

102002 #2 이제 보리 갈고.(이제 보리 갈고.)

102002 #1 감저 뺏데기하고.(고구마 고지하고.)

102002 #2 감저 뺏데기, 주로 우리 커갈 적의 주로 감저 뺏데기하고 보리.(고구마 고지, 주로 우리 커갈 적에 주로 고구마 고지하고 보리.)

102002 #1 보리 공출하곡계.(보리 공출하고.)

102002 @ 공출마썸?(공출요?)

102002 #1 공출도 하곡, 기자 보리, 가메기로 무경 풀앗주게. 그거뿐이주.(공출도 하고, 그저 보리, 가마니로 묶어서 팔았지. 그거뿐이지.)

102002 @ 공출하민 어디?(공출하면 어디?)

102002 #1 공출은 웨정 때.(공출은 일제 시대 때.)

102002 @ 어디 일본놈덜안티?(어디 일본사람들한테?)

102002 #1 일본놈덜안티 바쳤젠 흠디다. 우리 아버지네 대에 헛주. 멘네도 문 빼여 가불곡, 낫사발도 문 일본놈덜 오랑 문 빼여불곡 다 헛수게게. 그때 시절엔 게.(일본사람들한테 바쳤다고 합디다. 우리 아버지네 대에 헛지. 면화도 모두 빼앗아 가버리고, 낫쇠로 만든 사발도 모두 일본사람들 와서 모두 빼앗아버리고 다 헛습니다. 그때 시절에는.)

102003 @ 거민양, 여자 삼촌 어머니 고향은 어디우파?(그러면요, 여자 삼촌 어머니 고향은 어디입니까?)

102003 #1 우리 어머니 화순.(우리 어머니는 '화순'.)

102003 @ 화순마썸?('화순'이요?)

102003 #1 화순 김칩의.(‘화순’ 김집에.)

102003 @ 김칩의양, 남자 삼촌은?(김집에요, 남자 삼촌은?)

102003 #1 어명은 동카름.(어머니는 ‘동카름’.)

102003 #2 어명은 이디 동난드르<sup>49</sup>.(어머니는 여기 ‘동난드르’.)

49) ‘동난드르’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중, 동쪽에 있는 대평리이다.

102003 @ 동난드르양?(‘동난드르’요?)

102003 #1 소씨.(소씨.)

102004 @ 여자 삼촌 어릴 때 무싱거 흥명 놀았수과?(여자 삼촌 어릴 때 무엇 하면서 놀았습니까?)

102004 #1 공기도 흥고, 오자미도 흥고.(공기도 하고, 오자미도 하고.)

102004 @ 공기, 그다음에.(공기, 그다음에.)

102004 #1 공기, 오자미, 쓸이영 저 조영 콩이영 어멍네 모르게 싸다근에 막 맨 들양, 바놓으로 맨들양, 오자미. ‘오~자~미’ 흥명 오자미 흥곡.(공기, 오자미, 쌀하고 저 조하고 콩하고 어머니네 모르게 싸다가 마구 만들어서, 바늘로 만들어서, 오자미. ‘오~자~미’ 하면서 오자미 하고.)

102004 @ 어떻 흥는 겨우파? 그거.(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거.)

102004 #1 오자미 다섯 개 흥영 영 탁탁 흥는 겨주게. 공기 다섯 개 흥여당 공깃돌 흥영 공기 흥곡.(오자미 다섯 개 해서 이렇게 탁탁 하는 거지. 공기 다섯 개 해서 공깃돌 해서 공기 하고)

102004 @ 거 잘 곱아줍서, 그거.(거 잘 말해주십시오, 그거.)

102004 #1 오자미는양, 조흥곡 콩흥곡 어멍네 모르게 흥여당 험벽으로 맨들양 그레 담양. 담아근에 오자미를 헛주게. 손으로 막 장난흥명 돌리가덜, 서의씩, 돌리씩. 경흥곡 고무줄, 학교 가문 고무줄. 검은 고무줄 메영, 돌리가 메민 글로 고무줄 흥곡, 베뜰락 흥곡, 경 험 살앗주. 옛날이사 흥 거 머 잇어. 이제문 장난감 다 하곡 노는 놀이가 하신디, 그때는 오자미흥고 공기벧기 엇어서. 그때 고무줄도 학교 가난 해서. 어느 저를에 학교 안 다닌 사름은 고무줄도 흥 줄 몰라. 그때 초등학교 텅기 난 고무줄을 헛주.(오자미는요, 조하고 콩하고 어머니네 모르게 해다가 흥겘으로 만들어서 그리로 담아서. 담아서 오자미를 헛지. 손으로 마구 장난하면서 돌이가들, 셋씩, 둘씩. 그리고 고무줄, 학교 가면 고무줄. 검은 고무줄 매어서, 돌이가 매면 그것으로 고무줄 하고, 줄넘기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지. 옛날이야 할 거 뭐 잇어. 이제면 장난감 다 많고 노는 놀이가 많은데, 그때는 오자미하고 공기밖에 없었어. 그때 고무줄도 학교 가니까 했어. 어느 겨를에 학교 안 다닌 사름은 고무줄도 할 줄 몰라. 그때 초등학교 다니니까 고무줄을 헛지.)

102004 @ 고무줄은 흥 때 어떻 흥연 흥디강?(고무줄은 할 때 어떻게 해서 합디까?)

102004 #1 고무줄은 이것이 검은 고무줄이주게. 영 돌리가 심으민 일로 뛰었다가 뛰었다가.(고무줄은 이것이 검은 고무줄이지. 이렇게 돌이가 잡으면 이리로 뛰었다가 뛰었다가.)

102004 @ 잘 곱아줍서게.(잘 말해주십시오.)

102004 #1 경 흥는 거. 베뜰락은 돌리 마주치면 탁탁탁탁 탁탁 흥명 경 헛주게. 겨벧기 장난감이 엇어.(그렇게 하는 거. 줄넘기는 돌이 마주치면 탁탁탁탁 탁탁 하면서 그렇게 헛지. 겨밖에 장난감이 잇어.)

102004 @ 남자 삼촌은 그때 남자덜 머 헝명 놀았수과?(남자 삼촌은 그때 남자들 뉘 하면서 놀았습니까?)

102004 #1 남자덜 쉼 맥일 때주게.(남자들 소 먹일 때지.)

102004 #2 어릴 때 쉼, 소도 몰양 다니명 맥이곡. ㄴ찌 텅기는 벗덜 감저 심영, 싱거근에 훑어가든 감저 과다근에 귀 먹기.(어릴 때 소, 소도 몰아 다니면서 먹이고. 같이 다니는 벗들 고구마 심어서, 심어서 굶어가면 고구마 과다가 구워서 먹기.)

102004 @ 뽕이치긴 안 해봅디가?(뽕기치기 안 해봅디까?)

102004 #1 뽕이치기도 했어. 뽕이치긴 오꽃 이제불언. 뽕이치기 하영 했주. 뽕이 빠당 요만씩 무경 오랑 뽕이치기 하영 했어.(뽕기치기도 했어. 뽕기치기는 그만 잊어버렸어. 뽕기치기 많이 했지. 뽕기 빠다가 요만큼씩 묶어서 와서 뽕기치기 많이 했어.)

102004 @ 군산 강 뽕이 뽑아왕?(‘군산’ 가서 뽕기 빼와서?)

102004 #1 아니, 새왓디, 새왓디 간, 난 감산이난 뽕이 하, 새왓디게.(아니, 띠밭에, 띠밭에 가서, 난 ‘감산’이니까 뽕기 많아, 띠밭에.)

102004 #2 새든 밧디 가민 막 나오주게.(띠든 밧에 가면 마구 나오지.)

102004 @ 율라봉 가든 잇엄직흔게.(‘율라봉’ 가면 잇을 것 같네.)

102004 #1 율라봉 멀영 가집니까? 이디 난드르 새왓도 잇영 뽕이치기 즐바로 못 했일거여.(‘율라봉’ 멀어서 가집니까? 여기 ‘난드르’는 띠밭도 없어서 뽕기치기 똑바르게 못했을 거여.)

102004 #2 것도 흔 ㄴ리.(것도 한 기회.)

102004 #1 난 학교 다닐 때 뽕이치기 하영 했져, 감산이서.(난 학교 다닐 때 뽕기치기 많이 했어, ‘감산’에서.)

102004 @ 거 먹젠게, 먹젠.(거 먹으려고, 먹으려고.)

102004 #1 따먹젠, 또 먹곡. 또 선생님안티 강 가방은 서게, 포따리 싸근에. 저 스나이덜, 난드르 스나이덜은 안덕초등학교 다니젠 헝문 요 좇은드리로 가명 무슨 것에 들어메영 다니곡, 올 때도 이디 오랑 늙의 감저 문 과먹어불곡, 난드르 아의덜, 학생덜.(따먹으려고, 또 먹고. 또 선생님한테 가서 가방은 잇어, 보자기 싸서. 저 남자들, ‘난드르’ 남자들은 안덕초등학교 다니려고 하면 요 ‘좇은드리’로 가면서 무슨 것에 둘러메어서 다니고, 올 때도 여기 와서 남의 고구마 모두 과먹어버리고 ‘난드르’ 아이들, 학생들.)

102005 @ 그다음에양, 웨정 때 공출에 대헝 아는 바 잇걸랑 다 곱아줍서.(그다음에요, 일제시대 때 공출에 대해서 아는 바 잇거들랑 다 말해주십시오.)

102005 #1 멘네 공출, 따시 멘네 영 브르는 거, 씨 까는 거 잇거던. 경헝민 그거 오랑 오꽃 멘사무소 사름 그거 문 으져가불곡, 게든 모르게 멘네 브르곡, 멘네 타오곡, 까곡, 콩 검질 메곡, 경헝곡 돛비 타곡, 콩, 돛비 타곡, 녹디 타레 텅기곡, 그거 했주마는.(면화 공출, 다시 면화 이렇게 바르는 거, 씨 까는 거 잇거든. 그러면 그거

와서 그만 면사무소 사람 그거 모두 가져가버리고, 그러면 모르게 면화 바르고, 면화 따오고, 까고, 콩 김 매고, 그리고 동부 따고, 녹두 따러 다니고, 그거 했지마는.)

102005 @ 그거 다 바친 거라마씨?(그거 다 바친 거예요?)

102005 #1 밧되 논 거, 이녁 밧되.(밭에 놓은 거, 이녁 밧에.)

102005 @ 거 일본놈덜안티 바친 거 아니우꽈?(일본사람들한테 바친 거 아닙니까?)

102005 #1 게, 그거 해단 해주마. 우린 일본놈 공출하는 거는 몰라.(그럼, 그거 해다가 했지. 우린 일본사람 공출하는 거는 몰라.)

102005 @ 건디 공출 안 하는 어떻게 했수과?(그런데 공출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102005 #1 공출 안 하는 사름덜은 왕 막 태작하곡, 안 돼지. 우리 씨아방네 대에 했주.(공출 안 하는 사람들은 와서 마구 태작하고, 안 되지. 우리 시아버지 대에 했지.)

102005 @ 공출, 계난에 멘네 공출.(공출, 그러니까 면화 공출.)

102005 #1 멘네 공출. 멘네도 모르게 미녕 차지도 못 하게 하곡.(면화 공출. 면화도 모르게 무명 짜지도 못 하게 하고.)

102005 @ 다른 공출은 어서낫수광?(다른 공출은 없었습니까?)

102005 #1 다른 공출이사 보리 공출하곡, 나록 공출하곡 다 했젠 흙디다, 웨정 때. 나록도 공출하곡, 막 하민 일본놈덜 든 공출하여갓젠. 멘네 산담<sup>50)</sup> 소곱에도 든 곱져낫젠 흙디다. 난 하꿈 옥은 때 공출하레 텅겨난 거 알아져. 우리 할머님네 멘네 불람시든 낫사발 다 으져 가불곡. 아의 때 경 흙디다, 일본 웨정 때.(다른 공출이야 보리 공출하고, 벼 공출하고 다 했다고 합디다, 일제시대 때. 벼도 공출하고, 마구 하면 일본사람들 모두 공출하여갓다고. 면화 ‘산담’ 속에도 모두 숨졌었다고 합디다. 난 조금 성장한 때 공출하러 다녔던 거 알아져. 우리 할머님네 면화 바르고 있으면 낫사발 다 가져 가버리고. 아이 때 그렇게 합디다, 왜정 때.)

102005 #2 첫 번째 보리 공출, 절간 썰영 물리와 가른 절간도 공출하곡.(첫 번째는 보리 공출, 고구마 썰어서 말려 가면 고구마도 공출하고.)

102005 @ 감저 뺏테기양.(고구마 고지요.)

102005 #2 응.(응.)

102005 #1 예.(예.)

102005 @ 계난 공출은 여라 가지 해신게마썸양.(그러니까 공출은 여러 가지 했네요.)

102005 #2 에에, 여라 가지.(에에, 여러 가지.)

102005 #1 농사 지민 다 공출하여사, 모르게 곱정, 산담 강 일러근에 그디 곱졌 당 먹곡 했젠 흙디다.(농사 지면 다 공출해야, 모르게 숨겨서, ‘산담’ 가서 일러서 거기 숨졌다가 먹고 했다고 합디다.)

50) ‘산담’은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이다.

102005 @ 계난 공출 안 흐민 어떻 흐여?(그러니까 공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2005 #1 공출 안 흐민게 좀 큰일 나주게, 벌금 내곡.(공출 안 하면 좀 큰일 나지, 벌금 내고.)

102005 #2 막 조사흐곡.(마구 조사하고.)

102005 #1 거난 난 아윈 때 공출하는 거 바닷주게. 아윈 때, 학교 다닐 때, 웨정 때.(그러니까 아이때 공출하는 거 봤었지. 아이때, 학교 다닐 때, 왜정 때.)

102006 @ 그다음에양, 사삼 사건 겪었던 내용을 곶아봅서.(그다음에요, 사삼 사건 겪었던 내용을 말해보십시오.)

102006 #1 나 계건 곶으카마썸. 우리집의 습격을 아웁 번 들었수다, 친정에. 나 스슴 스건 끝난에, 스몏 끝나지 안 흐 때 결혼을 했거던. 겨난에 나 오라부난에 우리 밧거리에 경찰관이 살았어. 그 사름네 사난에 폭도덜이 들언에 경찰 아방 죽여 불고, 밧거리 불 부썸불고, 겨난 경찰 아방이 그 옛날엔 영 이어도 방에 짓는 그 방이 잇었수다, 박거리 썸막 어염에. 계난 그디 저 우리 아버지가 일본놈덜 가부난에 이만씩 흐 웨낭 그 시꺼단에 그디 과썸 세와서마썸. 세완 뇌두난 그 하르방이 그디 간 죽언에 그 낭에 불 부뎠에 그 하르방이 다 불 부뎠었어. 기추룩 해낫수다게. 경흐디 아이고 습격 오민 경 흐디다. 습격을 들어오면은 시집 안 온 때, 난 아윈 때 난, 습격을 들어오면은 우리 아버지가 웨정 뎡 고리뎡 바지 그 각반 모양으로 흐 바질 입읍테다게. 경흐난 집의 잇이면은 올레<sup>51</sup>)로 들어와, 이놈덜이. 우리 이불 썸 근에 영 고개 내, 콧 질러뎡다다게, 질러뎡다다게. 기추룩 흐민 이불 썸 영 보민 탁 들어오라근에, 구들에 오랑 백장, 옛날엔 백, 이젠 단스 잇주만은 백장 아니우파게. 백장 문이, 그 썸, 썸 잇이민 썸문 탁 열아근에 밧 흐 착은 그레 올려 놓곡 그걸 다 퍼. 다 평 좋은 건 가져가곡, 남은 건 마리고 구석이고 불 부썸 탁탁 질어뎡다다게. 멘네 ㄱ뎡 거 ㄱ뎡 질어불곡 ㄱ 불 부썸불곡 다. 그추룩 흐곡 뒷날 아축의 일어난 불가장 보면은 와닥탁와닥탁 흐는 소리, 낭 창문 화딱화딱, 보민 습격 들어근에 불 부썸불민 왕대왓 카는 거, 와닥탁와닥탁. 감산인양, 습격으로 살질 못 했수게. 우리 밧갈썸 두 개 다 하르방네 겨영 우리 겨영 다 이꺼 가불곡양, 그 썸 그냥 이꺼 가질 안 흐고 집의 거 습격흐연 어디 시꺼 갖수게. 경흐연 다 그 폭도덜이 다 경 흐여불었수게. 계난 이제 복지파 닳은 상사침이엔 흐지 안 흐여낫수과? 옛날에. 상사침이엔 흐 디, 도피자 가족덜이라 건, 폭도에 가분 가족덜 그디 가두왕 살았어. 그디 돌아당 사난양, 습격왕 가명 몰안 가명 ㄱ 우리집의 불 부썸부런게. 경 흐난 감산이 사름이 직흐염시난 돌리 산폭도가 밤의 몰아갓어양. 몰아간 어떻 흐여냐? 흐난에 문서에 죽일 사름 다 썸서렌 흐디다. 장군덜만, 난 사름덜만 감산이서도, 경흐난. 계난 습격해단에 요디 나뎡두서 저쪽에 살명 그거 강 등짐으로 정 오랜 흐 거라양. 정 오랜 흐난, 영 오름 이디민 오름 올라가불민 이레 가불민 이디 사름은 이레 볼 수가 엇주게. 경흐난 두 사름, 세 사름이 온디 돌린 전 ㄱ딱ㄱ딱 올라가고,

51) '올레'는 집에서 거리로 나드는 작은 골목이다.

이 녀석은 멩글락멩글락 흐명 아니 올라가고렌 흡디다. 아니 올라간디 흐 사름은 막 아래 간 가불고, 두 사름은 동산에 시난, 이 사름이 흐 부락의 사름이라. 그 부런 들르싸된 막 돌아오라서, 감산이. 온 거 보난 얼굴이 먼 가시로 홀터불고, 경흐연 오난에 어떻 흐엿냐 흐면은 가난에 구뎡일 파렌 헛덴 흡디다. 감저 구뎡이 모양으로 구뎡이 판에 이디 들어강 죽을레, 소 잡을레, 게난 살아나젠 흐난 소 잡으켄 흐고렌 흡디다. 게난 소잡아, 갈리갈리 그찬 소 잡아뎡에 거 저울 영 흐난 돌아난 온 거라, 그 사름이. 들안 오난 성은 이제도 살았수다만, 김창석이엔 흐 사름 아신디, 김창석인 스슴에 걸리난 안덕 지서에 간에 들어앗아분 거라양. 심어가분 거라양. 게난 아시가 피산흐난에 그 사름은 살아난 흐곡, 그 사름 살단 군인 간 죽엇수다. 경흐여도. 그추록 흐 세상이 잇엇수다. 감산인양, 습격으로 못살게 멘들아분 디우다게. 우리 아버지 일름을 막 개 부르듯 불르곡.(나 그러면 말할까요. 우리집에 습격을 아홉 번 들엇습디다, 친정에. 나 사삼 사건 끝나서, 사뭇 끝나지 안 한 때 결혼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 와버리니까 우리 바깥채에 경찰관이 살았어. 그 사람네 사니까 폭도들이 들어서 경찰 아버지 죽여버리고, 바깥채 불 붙여버리고, 그러니까 경찰 아버지가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이어도 방에 짓는 그 방이 잇엇습디다, 바깥채 소 외양간 옆에. 그러니까 거기 저 우리 아버지가 일본사람들 가가버리니까 이만큼씩 한 웨냥 그 실어다가 거기 곧게 세웠어요. 세워서 놓아두니까 그 할아버지가 거기 가서 죽어서 그 나무에 불 붙어서 그 할아버지가 다 불 붙여버렸어. 그처럼 헛엇습디다. 그런데 아이고 습격 오면 그렇게 합디다. 습격을 들어오면은 시집 안 온 때, 난 아이때니까, 습격을 들어오면은 우리 아버지가 왜정 뎡 코르텐 바지 그 각반 모양으로 한 바질 입읍데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올레’로 들어와, 왜놈들이. 우리 이불 써서 이렇게 고개 내, 콧 찻러붙디다, 찻러붙디다. 그처럼 하면 이불 써서 이렇게 보면 탁 들어와서, 방에 와서 벽장, 옛날엔 벽, 이젠 장롱 있지만은 벽장 아넛니가. 벽장 문이, 그 궤, 궤 있으면 켓문 탁 열어서 발 한 짝은 그리로 올려 놓고 그것을 다 퍼. 다 퍼서 좋은 건 가져가고, 남은 건 마루고 구석이고 불 붙여서 탁탁 때어버립디다. 면화 같은 거 모두 때어버리고 모두 불 붙여버리고 다. 그처럼 하고 뒗날 아침에 일어나서 밝아가서 보면은 와닥탁와닥탁 하는 소리, 나무 창문 화딱화딱, 보면 습격 들어서 불 붙여버리면 왕대밭 타는 거, 와닥딱와닥딱. ‘감산인’요, 습격으로 살질 못 헛엇습디다. 우리 발 가는 소 두 개 다 할아버지네 거하고 우리 거하고 다 이끌어 가버리고요, 그 소 그냥 이끌어 가질 안 하고 집에 거 습격하여서 어디 실어서 갔습디다. 그래서 다 그 폭도들이 다 그렇게 해버렸습디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과 닳은 향사집이라고 하지 안 헛엇습디까? 옛날에. 향사집이라고 한 데, 도피자 가족들이라 건, 폭도에 가버린 가족들 거기 가두워서 살았어. 거기 데려다가 사니까요, 습격와서 가면서 몰아서 가면서 모두 우리집에 불 붙여버렸어. 그렇게 하니 ‘감산이’ 사람이 지키고 잇으니까 둘이 산폭도가 밤에 몰아갔어요. 몰아가서 어떻게 해냐? 하니까 문서에 죽일 사람 다 썼다고 합디다. 장군들만, 난 사람들만 ‘감산이’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습격해다가 여기 나뒗뒗서 저쪽에 살면서 그거 가



서 등짐으로 져서 오라고 한 거지요. 져서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름 여기면 오름 올라가버리면 이리로 가버리면 여기 사람은 이리로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왔는데 둘이는 져서 까딱까딱 올라가고, 이 녀는 멩글락멩글락 하면서 아니 올라갔다고 합디다. 아니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아주 아래 가서 가버리고, 두 사람은 동산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 부락의 사람이라. 그 부러서 내팽개치고 마구 뛰어왔어, ‘감산이’. 온 거 보니까 얼굴이 모두 가시로 훗어버리고, 그래서 오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은 가니까 구덩이를 파라고 했다고 합디다. 고구마 구덩이 모양으로 구덩이 파서 여기 들어가서 죽을려고, 소 잡을려고, 그러니까 살아나려고 하니까 소 잡으겠다고 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소 잡아, 갈리갈리 끊어서 소 잡아둬서 거 저울 이렇게 하니까 달아나서 온 거라, 그 사람이. 뛰어서 오니까 형은 이제 도 살았습디다만, 김창석이라고 한 사람이 동생인데, 김창석인 사삼에 걸리니까 ‘안덕’ 지서에 가서 들어앉아버린 거지요. 심어가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동생이 피산하니까 그 사람은 살아나서 하고, 그 사람 살다가 군인 가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것처럼 한 세상이 있었습디다. ‘감산인’요, 습격으로 못 살게 만들어버린 데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마구 개 부르듯부르고.)

102006 @ 난드르 사삼 사건 흔 번 말혀여봅서.(‘난드르’ 사삼 사건 한 번 말해 보십시오.)

102006 #2 난드르 사삼 사건은양, 나 어신 때 흐르 아축의 뉘 잠시난에 아, 일어나렌 흐연 일어난 베려보난 아버지 산 때난 아버지한테 말 들엄서게. 우리 아버지 일름이, 당신 일름 머냐, 흐난 거 바른 일름을 아니 곶안에 그자, 거짓말 일름으로 그자 예, 나 저디 강태운이엔 흔 분 일름을 거느립디다게. 나신딘 너 일름 밋이냐, 흐난 나 이제 어른도 아닌디, 머 이제 열서너 슬벳긔 아니 뉘엇는디 머 뉘여서 이젠. 이따근에 갈 때랑 하르방이영 ㄱ찌 가자고 이젠, 경 흐난에 나 알앗젠 흐연. 경 흐연 나가부는디 아버지가 이레 오랑 곱아불라 곱아불라 흐연. 아버지가 이젠 곱안 이십주게. 계난에 말젠 보난에 다 가불엇젠 흐명 뉘텐. 이 사름덜 군산 넘영 이제 창감산이쥬 가실 거엔 흐명 흐난, 이젠 거 뿐. 계난 습격이엔 흔 습격도 안 들어보고.(난드르 사삼 사건은요, 나 없을 때 하루 아침에 뉘서 자고 있으니까 아,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서 봐보니까 아버지 산 때니까 아버지한테 말 듣고 있어. 우리 아버지 이름이, 당신 이름 뉘냐, 하니까 거 바른 이름을 아니 말해서 그저, 거짓말 이름으로 그저 예, 나 저기 강태운이라고 한 분 이름을 이야기합디다. 나한테는 너 이름 밋이냐, 하니까 나 이제 어른도 아닌데, 뉘 이제 열서너 살밖에 아니 뉘는데 뉘 뉘서 이젠. 이따가 갈 때에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가자고 이젠, 그렇게 하니까 나 알앗다고 했어. 그렇게 해서 나가버리는데 아버지가 이리로 와서 숨어버리라 숨어버리라 했어. 아버지가 이젠 숨어서 있습지요. 그러니까 말제는 보니까 다 가버렸다고 하면서 뉘었다고. 이 사름들 ‘군산’ 넘어서 이제 ‘창감산’이쥬 가실 거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젠 거 뿐. 그러니까 습격이라고 한 습격도 안 들어보고.)

102006 @ 여긴 피해본 사름 엇수과?(여긴 피해본 사름 없습니까?)

102006 #1 피해본 사람은 흥 사람, 건 무사? 나가 듣기에는양. 우리 저 씨이모 분디, 그 딸네 저 거세기 돛걸름, 옛날에 밧디 돛걸름 놓젠, 군산 어염에 소 물레 가서. 계난에 저 군산 예염에 이쪽으로 서쪽으로 작백이 잇엇수다. 둘 메완 작백인디, 감산이 이씨 집안에서 그 산폭도난 도새기 질환에 그 작박 소굽에 판에 그 도새기 솥양 먹젠 흥난 네가 풍풍풍 난 거라양. 네가 풍풍 나난 중문 지서에선 그 네 판에 그디 조사올 때 그 하르방은 소 물레 간 아다루가 웬 거라. 경 흥난에 산에 습격햄젠 흥명 그 하르방 심어단 도새기 꿰기 뒤에 걸고 흥연 중문 지서에서 죽여 분 거, 거벳기. 경 흥는디 난드르, 난드르엔 흥 된 웨 피해가 엇나? 습격들 수가 엇수다. 들어오긴 들어와도 나가질 못 흥여.(피해본 사람은 한 사람, 건 왜? 나가 듣기에는요. 우리 저 시이모부인데, 그 딸네 저 거시기 돼지거름 옛날에 밧에 돼지거름 놓으려고, ‘군산’ 옆에 소 물러 가서. 그러니까 저 ‘군산’ 옆에 이쪽으로 서쪽으로 작백이 잇엇습니다. 둘 메워서 작백인데, ‘감산이’ 이씨 집안에서 그 산폭도니까 돼지 길러서 그 작백 속에 파서 그 돼지 삶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풍풍풍 난 거지요. 내가 풍풍 나니까 ‘중문’ 지서에서는 그 내 봐서 거기 조사올 때 그 할아버지는 소 물러 간 적중 된 거라. 그렇게 하니까 산에 습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 심어다가 돼지 고기 뒤에 걸고 해서 ‘중문’ 지서에서 죽여버린 거, 거밖에. 그렇게 하는데 ‘난드르’는, ‘난드르’라고 한 데는 왜 피해가 없나? 습격들 수가 없습디다. 들어오긴 들어와도 나가질 못해.)

102006 #2 들어와도 나가지 못 흥여.(들어와도 나가지 못해.)

102006 #1 열리서 집중했지, 감산이서 집중했지. 어딜로 나갑니까? 들어오기는 낮이 왕 들어와도 나가질 못 흥니까 습격이 없엇는데, 스슴 스건에 쪼끔 걸린 사람은 여기 며 흥 사람이 배로, 큰 배로 시건 문딱 부산드레 나가불엇어. 경 아니 흥여 시문 문딱 오랑 두드리곡 다 흥 건디, 계난 부산드레 나강 일본 강 부재 웬 사람덜이 문딱 그 사람덜이라. 경 흥연 난드르 피해가 없어.(‘열리’서 집중했지, ‘감산이’서 집중했지. 어디로 나갑니까? 들어오기는 낮에 와서 들어와도 나가질 못하니까 습격이 없엇는데, 사삼 사건에 조금 걸린 사람은 여기 뭐 한 사람이 배로, 큰 배로 실어서 모두 부산으로 나가 버렸어. 그렇게 아니 하였으면 모두 와서 두드리고 다 할 것인데, 그러니까 부산으로 나가서 일본 가서 부자 된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들이라. 그래서 ‘난드르’는 피해가 없어.)

102006 #2 난드르 습격이란 게 엇어났주. 우리 알거니, 나 어린 때 그때 오란에 아버지 일름 속이고 곱안 냉중에 거시기 흥난 창천이덜 가불엇수게. 나왔던 관차덜이, 걸로 뿐.(‘난드르’는 습격이란 게 없엇엇지. 우리 알거니, 나 어린 때 그때 와서 아버지 이름 속이고 숨어서 나중에 거시기 하니까 ‘창천이’ 가버렸습디다. 나왔던 관차들이 걸로 뿐.)

102006 #1 나가 오란 듣기는 경 흥디다. 저쪽 동네는 사람 만이 죽엇어. 스슴에 쪼리난 오란, 지서에서 오란 막 죽여불엇주게. 막 동카름 하, 만해. 이딘 스슴 스건 피해 엇수다. 그 하르방 흥나뿐, 장씨 하르방.(나가 와서 듣기는 그렇게 합디다. 저

쪽 동네는 사람 많이 죽었어. 사삼에 걸리니까 와서, 지서에서 와서 마구 죽여 버렸지. 아주 ‘동카름’ 많아, 많아. 여기는 사삼 사건 피해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 하나 뿐, 장씨 할아버지.)

102007 @ 그다음에양, 중매결혼 했수광? 연애결혼 했수광?(그다음에요, 중매결혼 했습니까? 연애결혼 했습니까?)

102007 #1 난 중매결혼이주, 어느 저를에. 연애결혼 해시민 좋주게. 그 시절에사 연애가 어딴어. 연애하민 씨집 못 가. 중매는 게 새각시 잇젠 하난 구하레 간 거주게, 우리 집일게. 우리 집의 구하레 간, 나 곧건 들으쿠광?(난 중매결혼이지, 어느 저를에. 연애결혼 했으면 좋지. 그 시절에야 연애가 어디 있어. 연애하면 시집 못 가. 중매는 게 새색시 있다고 하니까 구하러 간 거지, 우리 집에를. 우리 집에 구하러 가서, 나 말하건 들겠습니까?)

102007 @ 곶읍서.(말하십시오.)

102007 #1 우리 아버지는, 나가 어명이 두 개라부난 의부어명이영 살았거던. 계난 우리 아버지는 어려도 재계 씨집 보내영 그 집의 가근에 잘 펜안이 살렌 하젠 하연 보내긴 하고, 계난 우리 할아버지가 잇었어. 할아버지가 잇언 대평은 개촌이라 해서 쌍놈 사는 디엔 하명 씨집 가게 했수과? 아이 가게만, 개촌이라 물질 만하곡, 개촌이엔 하명. 경하난 우리 씨아버지가 막 텅긴 거라양, 막 텅겨가난에. 나 알거니, 우리 할아버지가 손청에 잇단에 우리 아버질 불러잡디다. 불러가난에 난 그만이 생각하연 보난, 느 새끼고, 느 딸이니까 주는데, 난드르 양 집이엔 하난 양반이난 할 수 었다. 양반이엔 하연 나 씨집 오랏수다. 양반이엔 오란 보난 쌍놈의 집만도 못 하여. 경 하연 오랏수다.(우리 아버지는, 나가 어머니가 두 개라버리니까 의붓어머니하고 살았거든. 우리 아버지는 어려도 빨리 시집 보내어서 그 집에 가서 잘 편안이 살라고 하려고 해서 보내긴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잇었어. 할아버지가 있어서 ‘대평’은 개촌이라 해서 쌍놈 사는 데라고 하면서 시집 가게 했습니까? 아니 가게만, 개촌이라 물질만 하고, 개촌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마구 다닌 거지요, 마구 다녀가니까. 나 알거니, 우리 할아버지가 사랑채에 있다가 우리 아버지를 불러잡디다. 불러가니까 난 가마히 생각하여서 보니까, 너 새끼고, 너 딸이니까 주는데, ‘난드르’ 양 집이라고 하니까 양반이니까 할 수 없다. 양반이라고 해서 나 시집 왔습니다. 양반이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쌍놈의 집만도 못 해.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102007 @ 계난 중매혼 거고.(그러니까 중매한 거고.)

102007 #1 예.(예.)

102008 @ 그다음에 스주는 봤수과?(그다음에 사주는 봤습니까?)

102008 #1 스주?(사주?)

102008 @ 사주, 사주.(사주, 사주.)

102008 #1 사주는 씨아방네영 밧주 무신, 나가 바? 택일하연 간 우리 집의 들이 천 아무날 잔치 하켄 하난.(사주는 시아버지네하고 봤지 무슨, 나가 바? 택일해서

가서 우리 집에 들이쳐서 아무 날 잔치 하겠다고 하니까.)

102008 @ 계남 남자 삼촌이 돌아봄서.(그러니까 남자 삼촌이 말해보십시오.)

102008 #2 아방이 다 알안에 거시기 흐여부난 무신.(아버지가 다 알아서 거시기 해버리니까 무슨.)

102008 #1 아무 날 잔치엔 흐난 물 탕 감뿐이주. 보리밥 흐고 흐연에. 콩 넣고 밥 흐연, 도새기 잡고.(아무 날 잔치라고 하니까 말 타서 감뿐이지. 보리밥 하고 해서. 콩 넣고 밥 해서, 돼지 잡고.)

102009 @ 그때 혼수품은 머 흡디강?(그때 혼수품은 뭐 했습니까?)

102009 #1 아니, 그때는 소게이불 두 채 흐는 사름, 흐나 흐는 사름, 머가 없어. 아무 거 화장품.(아니, 그때는 솜이불 두 채 하는 사람, 뭐가 없어. 아무 거 화장품.)

102009 @ 계남 머, 머 행 읍디가?(그러니까 뭐, 뭐 해서 왔습니까?)

102009 #1 난 이불 두 채 흐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학교 선생이거든. 경흐난 목포 갓단에 이제 거울, 경대, 그뻐 경대 흐는 사름이 없었어. 빨간 경대를 하나 상왔어. 부산 저 목포 간, 켜 산 오란 날 주난에 씨집 올 땐 거 가정 완 난드르 동네 사름덜이 다 왔수다, 그거 구경흐레. 경 흐 거주. 화장품이엔 흐 건양, 이젠 보난 아기 저 이디 물르민 블르는 거, 폭삭폭삭흐 거, ㄴ루 분. 동동구르무짜이 잇수과? 거 어디 잇수과? 어느 저를에.(나는 이불 두 채 하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학교 선생이거든. 그러니까 목포 갔다가 이제 거울, 경대, 그때는 경대 하는 사람이 없었어. 빨간 경대를 하나 사서 왔어. 부산 저 목포 가서, 그거 사서 와서 나를 주니까 시집 올 때는 거 가지고 와서 '난드르' 동네 사름들이 다 왔습디다, 그거 구경하러. 그렇게 한 거지. 화장품이라고 한 건요, 이제는 보니까 아기 저 여기 무르면 바르는 거, 부드러운 거, 가루 분. 피부용 크림이 있습니까? 거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저를에.)

102009 @ 잘 출렷덴 해신게마썸, 거울도 흐곡.(잘 차렸다고 했네요, 거울도 하고.)

102009 #1 잘 출렷젠 해주게. 난 잘 출런 온 거.(잘 차렸다고 했지. 난 잘 차려서 온 거.)

102009 @ 이불 두 채 흐곡.(이불 두 채 하고.)

102009 #1 이불 두 채 흐고, 또 그거 흐고, 옷도 잘 해연 오곡, 아버지네가 머 흐난에 작은아버지영.(이불 두 채 하고, 또 그거 하고, 옷도 잘 해서 오고, 아버지가 뭐 하니까 작은아버지하고.)

102009 @ 무슨 옷 흐연에?(무슨 옷 해서?)

102009 #1 멍지 치매 저고리 입언 오고, 멍지 치매 저고리 씨어명신디 받고 해주게. 경 흐연 간 뒷날은 문딱 미리 영 옷아노난 으전에 뒷날은 친정에 가지 안 흡니까, 으정오라도 뒷날은 산폭도 오란 문딱 으자가부난 매기. 감산이 친정에, 무사 건 내불어뵤 가지 안 흐연.(명주 치마 저고리 입어서 오고, 명주 치마 저고리 시어 머니에게 받고 했지. 그렇게 해서 가서 뒷날은 모두 미리 이렇게 갖다 노니까 가져

서 뒷날은 친정에 가지 안 합니까, 가져와도 뒷날은 산폭도 와서 모두 가져가버리니까 없음. ‘감산이’ 친정에, 왜 건 내버려둬서 가지 안 했어.)

102009 @ 계난 이불은 며, 멘네 같안?(그러니까 이불은 뭐, 면화 같았어?)

102009 #1 멘네사 같아신디, 어떻사 현연 주난, 가렌 현난 오라부난 몰라.(면화야 같았는데, 어떻게야 해서 주니까, 가라고 하니까 와버리니까 몰라.)

102009 @ 그때 멘네라도 타알 거 아니우파?(그때 면화라도 따야 할 거 아닙니까?)

102009 #1 계, 멘네 타주게. 멘네 브르레 가는 거는 저 날웨<sup>52)</sup>, 모실포 날웨 공장 씨 까는 딴 그디벳기 엇입디다. 그디 간 까오난 몰라. 어명이 이불사 현여신디, 어떻사 현여신디.(그림, 면화 땀지. 면화 바르러 가는 거는 저 ‘날웨’, ‘모슬포’ ‘날웨’ 공장 씨 까는 데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까오니까 몰라. 어머니가 이부이야 했는지, 어떻게야 했는지.)

102009 @ 그뎨 이불 숫자에 따라 잘 출렸져, 안 출렸져, 경 현디.(그때는 이불 숫자에 따라서 잘 차렸져, 안 차렸져, 그렇게 하는데.)

102009 #1 예, 경 했수다. 경 현난 이불 현 채, 이불 더끄는 건 두 개 현고 요 하나, 경 현는 사름 현고, 현 채가 주장이라. 경 현디 난 요 두 개에, 이불 두 개에, 깔레이불도 현고, 할망이 건 해주난, 할망이 부자라노난 할망이 깃딕 못 현게 현연 다 해주난.(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불 한 채, 이불 덮는 건 두 개 하고 요 하나,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한 채가 주장이라. 그런데 난 요 두 개에 이불 두 개에, 누비이불도 하고, 할머니가 그것은 해주니까, 할머니가 부자라 노니까 할머니가 까딕 모 하게 해서 다 해주니까.)

102009 @ 깔레이불은 아의 덮는 건가?(누비이불은 아이 덮는 건가?)

102009 #1 누비이불, 이제 여름에 더끄는 누비이불, 깔레이불 현는 사름도 엇어서.(누비이불, 이제 여름에 덮는 누비이불, 누비이불 하는 사람도 없었어.)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흡디가?(결혼식은 어디서 했습니까?)

102010 #1 결혼식 집의서 해주게, 무신. 새각시 돌아오난 매기주기, 무신. 독계 탄 오난 매기주.(결혼식 집에서 했지, 무슨. 새색시 데려오니까 없지, 무슨. 독교 타서오니까 없지.)

102010 @ 집의서 어떻?(집에서 어떻게?)

102010 #1 집의서 오난에 밥.(집에서 오니까 밥.)

102010 #2 이제 뭇 탕 가는디 독계 현연에 실런에 게.(이제 말 타서 가는데 독계 해서 실어서 게.)

102010 @ 뭇 탕 간에.(말 타서 가서.)

102010 #1 뭇 탕 간, 독계 타난.(말 타서 가서, 독교 타니까.)

102010 @ 올 때 신부는 어떻 와?(올 때 신부는 어떻게 와?)

102010 #1 신분 독계 타난 뭇 앞의 메왕, 두의 메우곡 현영 뭇이 끄성 오란, 유

52) ‘날웨’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동쪽 모슬포에 있는 자연마을의 하나다.

손 물 심곡.(신부는 독교 타니까 말 앞에 메워서, 뒤에 메우고 해서 말이 끌어서 와서, 유사는 말 심고.)

102010 @ 독계?(독교?)

102010 #1 독계, 가메 닳은 거, 독계엔.(독교, 가마 닳은 거, 독교라고.)

102010 @ 독계, 가메?(독교, 가마?)

102010 #1 그거 탄 오랏주.(그거 타서 왔지.)

102010 @ 그거 사람이 영.(그거 사람이 이렇게.)

102010 #1 아니, 아니. 뭘, 뭘, 뭘 메와 앞뒤에.(아니, 아니. 말, 말, 말 메워서 앞뒤에.)

102010 @ 구루마식으로?(마차식으로?)

102010 #1 응, 경흥디 부락에 유스엔 흥 사름이 있어. 그 사름은 물 심영 오랑 물 들러퀴어 가민 물 귀 물곡, 유스가 모셔와, 부락에 사름으로. 이제 ㄱ뜨민 이서 기질 흥는 사름 말고 유스가 있어. 상예 흥젠 흥민 요령 흥영 땡글땡글.(응, 그런데 부락에 유사라고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말 심어서 와서 말 날뛰어 가면 말 귀 물고, 유사가 모셔와, 부락에 사름으로. 이제 같으면 이서기 하는 사람 말고 유사가 있어. 상여 하려고 하면 요령 해서 땡글땡글.)

102010 @ 군산 넘어 갓네.(‘군산’ 넘어 갓네.)

102010 #1 군산으로 안 강, 이 질로, 묵은 질로.(‘군산’으로 안 가서, 이 질로, 묵은 질로.)

102010 @ 묵은질이 어디우짱?(옛길이 어딥니까?)

102010 #1 요 두에 있어. 아, 새길 옆으로 올라간 데가 있어. 묵은 질로.(요 뒤에 있어. 아, 새길 옆으로 올라간 데가 있어. 묵은 질로.)

102010 @ 저 올레질인가?(저 올레길인가?)

102010 # 올레질도 안 돼여, 그건 새로 뺀 질이고. 묵은 질이 학교 다닐 때덜 다 글로 다녔주지, 이딧 사름덜은. 것이 큰질이라낫주, 쪼끄만 흥 질이주, 다닥다닥 흥영 췌멘도 안 흥.(올레길도 안 돼, 그건 새로 뺀 질이고. 묵은 질이 학교 다닐 때들 다 거기로 다녔지, 여기 사름들은.)

102010 @ 아, 글로 흥영 간에 모성왔구나. 사진은 찍음데가?(아, 거기서 해서 가서 모셔서왔구나. 사진은 찍었습니까?)

102010 #1 사진 찍음이랑 마랑, 아무것도.(사진 찍음일랑 마랑, 아무것도.)

102010 @ 거난 밥 흥 사발 먹은 거?(그러니까 밥 한 사발 먹은 거?)

102010 #1 흥 사발사 먹어신디, 두 적사 먹어신디.(한 사발이야 먹었는지, 두 모금이야 먹었는지.)

102010 @ 경흥여도 곤밥 흥 사발은 먹어실 거 아니우짜?(그래도 흰밥 한 사발은 먹었을 거 아닙니까?)

102010 #1 흥 사발은 무신. 양, 독새길 노민, 독새길 숲양 네 개산디 다섯 개산디 상 우의, 새각시 상 우의 놆. 계민 독새기 하나 흥곡, 돛케기 농곡, 밥 흥 적 그

차 낱 가지깡이에 상 아래 놔 두면 어느 놈 아의덜 오꽃 으저가부런 매기.(한 사발은 무슨. 예, 달걀을 놓으면, 달걀을 삶아서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상 위에, 새색시 상 위에 놓아. 그러면 달걀 하나 하고, 돼지고기 놓고, 밥 한 모금 끊어 놓아서 바리뚜껑에 상 아래 놓아두면 어느 놈 아이들 전부 가져가버려서 없어.)

102010 @ 게 먹지도 못 했네.(그거 먹지도 못 했네.)

102010 #1 독새기 떡곡, 하간 거 먹는 체. 체면 출런 먹어서게, 새각시노렌 흥연.(달걀 먹고, 모든 거 먹는 체. 체면 차려서 먹었어, 새색시노라고 해서.)

102010 @ 결혼흥영 신희살림은 어디서 흠디가?(결혼해서 신희살림은 어디서 했습니까?)

102010 #1 결혼흥영 씨아방이영 씨어머이영 흥디 살앗주게, 이제 사는 집의.(결혼해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았지, 이제 사는 집에.)

102010 @ 안거리 박거리 흥여근예?(안채 바깥채 해서?)

102010 #1 안거리 박거리 안 흥고, 처음에는 흥디 살고.(안채 바깥채 안 하고, 처음에는 함께 살고.)

102010 @ 흥 방에서?(한 방에서?)

102010 #1 아니, 방은 뜨나고, 흥 방의서 살아지느냐게, 아뻡 해도. 경흥연 흥디 살단에 우린 박거리 살고, 어멍넌 안거리 큰 집의 살고. 씨누의가 세 개, 씨아지방은 우의 아지방은 일본 가불고, 게난 너 오누의 사난에게, 씨누의덜 싯고 흥난 우린 박거리 트로 살고, 어멍, 아방넌 안거리 살고. 경 흥단에 어멍, 아방네 다 죽어부난 우린 큰 집의 살단 또 늘거가난 다시 다른 집 짓언 온 거주게, 이거 새 집, 묵은 집은 내불고. 경흥디 이젠, 또 박거리 가 사는 거라, 우리가. 안거린 아덜네 살고.(아니, 방은 다르고, 한 방에서 살아지느냐, 아무리 해도. 그래서 함께 살다가 우리는 바깥채 살고, 어머니네는 안채 큰 집에 살고. 시누이가 세 개, 시아주버니는 위에 아주버니는 일본 가버리고, 그러니까 네 오누이 사니까, 시누이들 있고 하니까 우린 바깥채 따로 살고, 어머니, 아버지네는 안채 살고.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네 다 죽어버리니까 우린 큰 집에 살다가, 또 늙어가니까 다시 다른 집 지어서 온 거지, 이거 새 집, 묵은 집은 내버리고. 그런데 함께 이젠, 또 바깥채 가 사는 거라, 우리가. 안채는 아들네 살고.)

102010 @ 큰아덜? 두 번째 아덜?(큰아들? 두 번째 아들?)

102010 #1 우리 막둥이 아덜.(우리 막내아들.)

102010 @ 막둥이 아덜이 안거리 살고.(막내아들이 안채 살고.)

102010 #1 예, 우리 박거리 살고, 거는 다섯 식구. 아기가 세 개, 하난 아덜은 군인 가곡, 딸은 대학교 일학년이고, 초등학교 육학년짜리 흥나 있고, 서 오누의.(예, 우리 바깥채 살고, 거는 다섯 식구. 아기가 세 개, 하나인 아들은 군인 가고, 딸은 대학교 일학년이고, 초등학교 육학년짜리 하나 있고, 세 오누이.)

102010 @ 아이고, 서 오누의, 잘 나신게마썸.(아이고, 세 오누이, 잘 낳았네요.)

102010 #1 예, 더 아까와 말제 난 지집아의.(예, 더 아까워 말제 낳은 계집아이.)

102011 @ 경흐난양, 아까 해신디 아의덜은 어떻게 됩니까?(그러니까요, 아까 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02011 #1 착흐주 무신.(착하지 무슨.)

102011 @ 아까 아의덜 사남매?(아까 아이들 사남매?)

102011 #1 삼남매.(삼남매.)

102011 @ 아니, 아니. 여자 삼촌네.(아니, 아니. 여자 삼촌네.)

102011 #1 나, 사남매라낫주게.(나, 사남매였었지.)

102011 @ 응, 사남매. 영 곱아봅서.(응, 사남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102011 #1 사남매디 큰아덜은 없어. 출장 갔단에 당해부난, 이거 이십칠 년.(사남매인데 큰아들은 없어. 출장 갔다가 당해버리니까, 이거 이십칠 년.)

102011 @ 메뉴린 잇수과?(며느리는 있습니까?)

102011 #1 메뉴리도게 아기도 잇고 혼디, 서방 언언 가불곡, 가네덜은 연금자난 에 하나는 큰딸은 일곱 살에 아방 죽어분 아의주게. 서울 사범대 흐연 고등학교 선생이고, 두 번째 딸은 이화여대 나오난에 이제 박사학위 따젠 햄젠 흐고, 유복자 아방 모른 아의는 이제 스물일곱 살이거든, 고려대학 졸업흐연 박사학위 사년 혼텐 홉디다.(며느리도 아기도 잇고 한데, 서방 얻어서 가버리고, 그 아이들은 연금자니까 하나는 큰딸은 일곱 살에 아버지 죽어버린 아이지. 서울 사범대 해서 고등학교 선생이고, 두 번째 딸은 이화여대 나오니까 이제 박사학위 따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유복자 아버지 모른 아이는 스물일곱 살이거든, 고려대학 졸업해서 박사학위 사년 한다고 합디다.)

102011 @ 아이, 잘 돼신게마썸. 게 두 번째는?(아이, 잘 되었네요. 그럼 두 번째는?)

102011 #1 두 번째 아덜은 혼디 사는 거게, 막둥이 아덜. 아덜 하난 군인 가고, 대학교 일학년이고, 육학년짜리 지집아의 잇고. 안거리 사는 거, 건 막둥이.(두 번째 아들은 함께 사는 거, 막내아들. 아들 하나는 군인 가고, 대학교 일학년이고, 육학년 짜리 계집아이 잇고. 안채 사는 거, 건 막내.)

102011 @ 딸 잇언게.(딸 잇던데.)

102011 #2 딸 성젠 다 시집간 살암주.(딸 형제는 다 시집가서 살고 있지.)

102011 @ 딸은 어디 잇수과?(딸은 어디 있습니까?)

102011 #1 제주시. 세화<sup>53)</sup> 살곡, 족은딸은. 큰딸 아기 들안 와십디다. 손지덜 들 안, ㄴ짜 멍임이네 집 와십디다. 아기덜 안거리에 잇젠 흐명.(제주시. '세화' 살고, 작은딸은. 큰딸 아기 데리고 왔었습니다. 손자들 데려서, 방금 멍임이네 집 왔었습니다. 아기들 안채에 있다고 하면서.)

102011 @ 게난 큰아덜이 예순여섯, 두 번째는?(그러니까 큰아들이 예순여섯, 두 번째는?)

53) '세화'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이다.



102011 #1 두 번째 예순둘인가 셋인가?(두 번째는 예순둘인가 셋인가?)

102011 @ 딸양.(딸은요.)

102011 #1 예, 세 살 맞이난 예순세 살.(예, 세 살 터울이니까 예순세 살.)

102011 @ 예순셋, 그다음에 두 번째도.(예순셋, 그다음에 두 번째도.)

102011 #1 세 살 맞이난 육십하난가?(세 살 터울이니까 육십하난가?)

102011 @ 그다음에.(그다음에.)

102011 #1 그다음엔 순하나계, 막둥이.(그다음에는 순하나, 막내.)

102011 @ 아이고, 열 살 차이 남신게.(아이고, 열 살 차이 나고 있네.)

102011 #1 열두 살 차이, 큰누나하고. 지 성광은 열다섯 살 차이라났수다. 그것이 우리 집의 대장질을 하는 거주게. 그 작은아들이 다 식게, 멧질이고 멋이고, 가의가 하는 거 다. 아버지네 책임도 다 하곡.(열두 살 차이, 큰누나하고. 지 형과는 열다섯 살 차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에 대장질을 하는 거지. 그 아이가 하는 거 다. 아버지네 책임도 다 하고.)

102012 @ 경호곡양, 시집살이 어떻게 했수광?(그리고요, 시집살이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2012 #1 난 씨아방, 씨어멍네가 워낙 좋아노난, 나는 시집살이 사는 거 궤로운 거 하나도 없어.(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워낙 좋았으니까, 나는 시집살이 사는 거 궤로운 거 하나도 없어.)

102012 @ 경호여도.(그래도.)

102012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2012 @ 재미나는 것도 실 거난에.(재미나는 것도 있을 거니까.)

102012 #1 재미나는 것사 서방, 신랑이영 아기 안앙 놀 때만, 재미난 건 신랑하고 뽀뽀 할 때만 좋았어.(재미나는 것이야 서방, 신랑하고 아기 안아서 놀 때만, 재미나는 건 신랑하고 뽀뽀 할 때만 좋았어.)

102012 @ 다른 것도 잊지 안 호우파?(다른 것도 잊지 안 합니까?)

102012 #1 아니게, 재미난 것사게.(아니게, 재미난 것이야게.)

102012 @ 시누의에 대한 일이라던가.(시누이에 대한 일이라든가.)

102012 #1 시누의덜도 밑에난에 경 안 호곡, 씨어머니, 씨아버지가 워낙 좋아노난, 나가 다른 디 시집 가시문 살렌 해도 못 살아. 홀 줄도 모르고, 일할 줄도 잘 모르고, 학교 졸업호연에 단발머리 묶으지 안 호연 씨집을 왔거던. 게난 다른 집의 씨집 가시문 난 못 살아. 씨어머니 씨아버지네가 워낙 좋아노난 날 데령 산 거주. (시누이들도 아랫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워낙 좋았으니까, 나가 다른 데 시집갔으면 살라고 해도 못 살아. 할 줄도 모르고, 일할 줄도 잘 모르고, 학교 졸업해서 단발머리 묶지 안 해서 시집을 왔거든. 그러니까 다른 집에 시집을 갔으면 나는 못 살아. 시어머니 시아버지네가 워낙 좋았으니까 나를 데려서 사는 거지.)

102012 @ 오자마자 밥도 호곡 머 흡디가?(오자마자 밥도 하고 뭐 했습니까?)

102012 #1 것사, 밥이사 해야주게. 씨어멍 씨아방네 일흐레 가불민 난 빨리 아  
기 나불고 흥난, 난 집의서 밥헝곡, 경 헛주게. 우리 씨아버지가 밧디 애기 놔똥 못  
뎡기게 흥여, 절대로.(것이야, 밥이야 해야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네 일하러 가버리면  
나는 빨리 아기 낳아버리고 하니까, 나는 집에서 밥하고, 그렇게 했지. 우리 시아버  
지가 밧에 애기 놔똥 못 다니게 해, 절대로.)

102012 @ 막 좋은 분인게예?(아주 좋은 분이네요?)

102012 #1 예, 씨어멍, 씨아방이, 이제도 곤주만은, 좋아노난 난 씨집 간 것, 친  
정의 사는 것보다 더 편하게 살았어. 친정의 의붓어멍이니까 나가 고생했지만은 씨  
집원 고생 안 했어. 똤나마나 일만 흥는 집이라도 밧 갈곡 농사짓곡 흥여도 씨아방,  
씨어멍이 좋아노난 메뉴리를 그렇게 고생 안 시켰어. 우리 씨아버지는 스나이벳기  
모르곡, 지집아의는 사름으로 인정을 안 해. 즈손도 낭 웨손진 인정 안 흥곡. 옛날  
에 동고리가 엇엇거든. 상귀에 휘장흥영 동고리 타지민 보금지에 낭 와. 낭 오면은  
우리 씨누의네 아기덜은 우리 이제 아덜보다 더 어려, 아의덜이 다. 어려도 하나씩  
주당 두 방울 남으민 거 어린 거 쥐불지 안 흥여. 웨손지덜 안 쥐. 보금지에 담앗당  
이넉 손지만 트로 주지.(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제도 말하지만은, 좋았으니까  
나는 시집 간 것, 친정에 사는 것보다 더 편하게 살았어. 친정에 의붓어머니니까 나  
가 고생했지만은 시집에는 고생 안 했어. 똤나마나 일만 하는 집이라도 밧 갈고 농  
사짓고 해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좋았으니까 며느리를 그렇게 고생 안 시켰어. 우  
리 시아버지는 남자밖에 모르고, 계집아이는 사름으로 인정을 안 해. 자손도 나서  
외손자는 인정 안 하고. 옛날에 사탕이 없엇거든. 상 모서리에 휘장해서 사탕 타지  
면 호주머니에 넣어서 와. 넣어서 오면 우리 시누이네 아기들은 우리 이제 아들보  
다 더 어려, 아이들이 다. 어려도 하나씩 주다가 두 방울 남으면 거 어린 거 쥐버리  
지 안 해. 외손자들 안 쥐. 호주머니에 담았다가 이넉 손자만 따로 주지.)

102013 @ 그다음에 자식덜 결혼은 어떻게 했수과?(그다음에 자식들 결혼은 어  
떻게 했습니까?)

102013 #1 결혼, 그때에도.(결혼, 그때에도.)

102013 @ 큰아덜 결혼할 땐 어디서 했수과?(큰아들 결혼할 때는 어디서 했습니  
까?)

102013 #1 저, 큰아덜 결혼할 때 집의서 했주.(저, 큰아들 결혼할 때 집에서 했  
지.)

102013 @ 집의서양?(집에서요?)

102013 #1 옛날이난 경노당도 엇고, 식당도 엇고, 거난 집의서 제주시에 간에  
식장으로 간 만나긴, 춤 저 새각시 돌아왔주. 경 헛주.(옛날이니까 경로당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제주시에 가서 식당으로 가서 만나기는, 참 저 새색  
시 데려왔지. 그렇게 했지.)

102013 @ 계난 메뉴린 어딿 사름이라?(그러니까 며느리는 어디 사람입니까?)

102013 #1 메뉴린 시에 사름. 경 헛 오란에 애기 하나는, 막둥이 아덜은 유복자

고, 딸 두 개 나뉜 아들이 죽어부난, 건 머 필요가 엇고. 경흐난 두 번째 딸은 또 집의서 잔치 흐연에 제주시 간 살아불곡, 또 죽은딸도 집의서 잔치 흐연, 그때 시절엔 이 경노당도 엇인 때난 잔치 흐연에 세화 구좌읍, 김씨 집안에 가근에 살고.(며느리는 시에 사람. 그렇게 해서 와서 얘기 하나는, 막내아들은 유복자고, 딸 두 개 낳아뒤서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건 뭐 필요가 엇고. 그러니까 두 번째 딸은 또 집에서 잔치해서 제주시 가서 살아버리고, 또 작은딸도 집에서 잔치해서, 그때 시절에는 이 경로당도 엇는 때니까 잔치해서 ‘세화 구좌읍’, 김씨 집안에 가서 살고.)

102013 @ 계민 막둥이만 여기서.(그러면 막내만 여기서?)

102013 #1 예, 막둥이도 집의서 잔치 흐곡.(예, 막내도 집에서 잔치하고.)

102013 @ 집의서마씨?(집에서요?)

102013 #1 예, 그때 돼도록 집의서 했수다. 경노당 엇인 때.(예, 그때 되도록 집에서 했습니다. 경로당 엇는 때.)

102013 @ 원흐난디.(원하나인데.)

102013 #1 예, 경노당의서 아니 흐여났수다. 경노당 생기지 안 흐 때라, 쩌끄만 흐 경노당이 있어났수다, 그때. 계난 경노당이며, 식당이며 엇인 때.(예, 경로당에서 아니 하였었습니다. 경로당 생기지 안 한 때니까, 조금만한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경로당이며, 식당이며 엇는 때.)

102013 @ 메뉴린 어디우파?(며느리는 어디입니까?)

102013 #1 메뉴린 육지, 진주<sup>54</sup>) 아의.(며느리는 육지, ‘진주’ 아이.)

102013 @ 어떻 흐연? (어떻게 해서?)

102013 #1 거는 우리 큰딸 사우가, 저 우리 큰사우가 저 운전수거던, 계난 시웨 빠스 오래 탄 사름이우다게. 계난 그 친구가 있어난 모양이라. 경흐난 그 친구가 소개해 주난에 가이가 온 거라. 메뉴리도 착힙니다.(거는 우리 큰딸 사위가, 저 우리 큰사위가 저 운전사이거든, 그러니까 시외버스 오래 탄 사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소개해 주니까 그 아이가 온 거라. 며느리도 착합니다.)

102014 @ 거민양, 며느리 흐고 사위에 대행 곶아줍서. 메뉴리부떠.(그러면요, 며느리하고 사위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며느리부터.)

102014 #1 메뉴리는 원체 착흐난, 나이도 어리고 착흐난 우리를 잘 해줘. 계난 부모가 효자라야 즈식이 효자 사는 거우다. 메뉴리만 잘 해봐도 필요가 엇어. 우리만 잘 해봐도 필요엇수다. 겐디 내리사랑이라가지고 우로 알러레 내리는 물이라가지고 메뉴리가 잘못흐더라도 내가 이해흐고 감부라 시키면은 우리가 시어멍, 메뉴리가 갈등이 안 집니다, 부모니까. 어떤 사름이 딸이 그만이 키왕 보내여근에 믱음에 맞곡, 씨어멍 믱음에 맞곡, 메뉴리 맞인 사름이 어디 십네까? 다 흐꿈 불만해도 이해가 가고, 널리 생각해가지고 즈식은 부모가 즈식을 안으는 거기 따문에, 우리가 안양 젓을 뵙이는 거 따문에, 씨어머니가 메뉴리를 감푸라시키고 사랑을 쥐야 갈등

54) ‘진주’는 경상남도 서남부에 있는 도시 이름이다.

을 안 지는 거우다. 메뉴리가 아무리 미와 두드린다양, 계도 나만 속속흐른 나 메뉴리안티 맞은 거 압니까? 내만 숨져불영 속속흐민 우리 메뉴리가 좋은 사름 돼는 거라. 계난 메뉴리만 나쁜 사름 돼질 안 흐고, 메뉴리가 나쁘게 생각흐영 도둑놈으로 생각을 흐면은, 우리 아덜도 똑같습니다. 아덜을 높은 자리레 앓지젠 흐민 메뉴리를 더 높은 자리레 앓져야 아덜이 두 번째 앓는 거우다.(며느리는 원체 착하니까, 나이도 어리고 착하니까 우리를 잘 해줘. 그러니까 부모가 효자라야 자식이 효자 사는 것입니다. 며느리만 잘 해봐도 필요가 없어. 우리만 잘 해봐도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이라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물이라가지고 며느리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이해시키면은 우리가 시어머니, 며느리가 갈등이 안 집니다, 부모니까. 어떤 사람이 딸이 그만큼 키워서 보내여서 마음에 맞고, 시어머니 마음에 맞고, 며느리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조금 불만해도 이해가 가고, 널리 생각해가지고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아서 짓을 먹이는 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시키고 사랑을 줘야 갈등을 안 지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 두드린다, 그래도 나만 조용하면 나 며느리에게 맞은 거 압니까? 내만 삼켜버려서 조용하면 우리 며느리가 좋은 사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며느리만 나쁜 사람 되질 안 하고, 며느리를 나쁘게 생각해서 도둑놈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아덜도 똑같습니다. 아덜을 높은 자리레 앓히려고 하면 며느리를 더 높은 자리로 앓혀야 아덜이 두 번째 앓는 것입니다.)

102014 @ 사위 자랑 흐 번 해봅서.(사위 자랑 한 번 해보십시오.)

102014 #1 사위는 거 오민 웬장국이나 잘 길영 밥은 멕이주 며, 사위만씩 흐 거.(사위는 거 오면 된장국이나 잘 끓여서 밥은 먹이지 뭐, 사위만큼 한 거.)

102014 @ 경흐여도게.(그래도요.)

102014 #1 아니, 아니. 우리 사위도 잘 흐고, 이제 세상이난 잘 흐고, 족은사위도 오민 잘 흐고, 다 잘 합니다게. 거 메날 오는 거, 들양 사는 거 아니난, 오랜만이 오민 며 밥이나 잘 행 쥬 보내볼민 매기. 사위만씩 흐 것사 무신.(아니, 아니. 우리 사위도 잘 하고, 이제 세상이니까 잘 하고, 작은사위도 오면 잘 하고, 다 잘 합니다. 거 맨날 오는 거, 데려서 사는 거 아니니까, 오랜만에 오면 뭐 밥이나 잘 해서 줘서 보내버리면 없어. 사위만큼 한 것이야 무슨.)

102014 @ 득도 잡아주고?(달도 잡아주고?)

102014 #1 에에, 득 어딿수과? 나 잡아먹을 것도 엇인디, 옛날에 장득 잡았주. (에에, 닭 어디 있습니까? 나 잡아먹을 것도 없는데, 옛날에 수탉도 잡았지.)

102014 @ 경해도게, 오민.(그래도요, 오면.)

102014 #1 지네덜이 통뚝이라도 산 오람주, 무신 나가 잡안 줘수과게. 오민 용돈이라도 줘뵤 가젠 흐곡.(자기네들이 통닭이라도 사서 오고 있지. 무슨 나가 잡아서 주고 있습니까. 오면 용돈이라도 줘두고 가려고 하고.)

102014 @ 계난 막 잘 해줬신게.(그러니까 아주 잘 해주고 있네.)

102014 #1 예, 계난 부모도예, 믿음으로라도 그만큼 생각을 해야 사우도 나신더

레 부뜨지, 내가 잘못흐민 안 부뜨니다. 상대방도 선생님하고 나가 만약의 잘못을 흐더라도, 좋다 흐면은 다음의 만나면 인사흐지만은, 나가 나쁘게 탁 돌아서불면은 다음의 바저도 머엔 웨쳐불어. 우리 제주도는 좁은, 좁은 흐 섬이우다. 우리가 할망덜 늬의 일 흐레라도 밧디 갈 거 아니우파, 마농 흐레라도 갈 거 아니우파. 게민 다 모르는 사름이라도 ㄱ찌 흐여. ㄱ찌 흐민, 그 ㄱ찌 앓인 사름안티 잘못 흐여도 이거 마농도 영 잘 다듬아주고 좋게 지나면은, 오일장에던지, 제주시던지 어디 바지면은 날 반갑게 행 텅기주만은, 경 안 흐영 모질게 흐민, 야, 저 할망 이상흐 할망이라라. 나 일 흐레 가난, 야, 말도 곧지 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게 흐영 나뒤야 상대방이 좋지, 내가 나쁘게 흐민 상대방이 좋게 해집니까, 절대 아니라마썸.(예, 그러니까 부모도요, 마음이라도 그만큼 생각을 해야 사위도 나에게 붙지, 내가 잘못하면 안 붙습니다. 상대방도 선생님하고 내가 만약에 잘못을 하더라도, 좋다 하면은 다음에 만나면 인사하지만은, 나가 나쁘게 탁 하게 돌아서버리면은 다음에 봐도 뭐라고 외쳐버려. 우리 제주도는 좁은, 좁은 한 섬입니다. 우리가 할머니들 남의 일 하러라도 밧에 갈 거 아닙니까, 마는 하러라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모르는 사름이라도 같이 해. 같이 하면, 그 같이 앓은 사름한테 잘못 해도 이거 마는도 이렇게 잘 다듬어주고 좋게 지나면, 오일장에든지, 제주시든지 어디 봐지면은 나를 반갑게 해서 다니지만은, 그렇게 안 해서 모질게 하면, 야, 저 할머니 이상한 할머니라라. 나 일하러 가니까, 야,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게 해서 나뒤야 상대방이 좋지, 내가 나쁘게 하면 상대방이 좋게 해집니까, 절대 아니예요.)

102014 @ 계난 큰사위가 제주시?(그러니까 큰사위가 제주시?)

102014 #1 예, 작은사운 세화 구좌읍.(예, 작은사위는 ‘세화 구좌읍’.)

102014 @ 제주시 어디 살았수과?(제주시 어디 살고 있습니까?)

102014 #1 제주시 저 노형<sup>55</sup>.(제주시 저 ‘노형’.)

102014 @ 막 요즘 잘 나가는 된다.(아주 요즘 잘 나가는 데인데.)

102014 #1 예, 노형 살 건디 오래였수다. 애기도 오누의 난 다 씨집, 장게 보내 불고.(예, ‘노형’ 살 건데는 오래었습니다. 애기도 오누이 낳아서 다 시집, 장가 보내 버리고.)

102015 @ 지금까지양, 흐지 못흐 말, 커오명이영 곁아봅서.(지금까지요, 하지 못한 말, 커오면서 하고 말해보십시오.)

102015 #1 어떻 흡니까게. 물 지곡, 아기 들곡, 다슴어명안티 압제 받으난, 거뿐이주 무신. 벨 말이 다 있습니까. 옛날 살기는 다 마찬가지로우다게.(어떻게 합니까. 물 지고, 아기 데리고, 의붓어머니한테 압제 받으니까 거뿐이지 무슨. 벨 말이 다 있습니까. 옛날 살기는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102015 @ 아니, 게도 영.(아니, 그래도 이렇게.)

102015 #1 학교 텅기고, 나도 잘 했주 머. 그때 시절에 여자 학교 가는 사름이 몇 사름이 잇엇수과? 부락에.(학교 다니고, 나도 잘 했지 뭐. 그때 시절에 여자 학

55) ‘노형’은 제주시 노형동이다.

교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부락에.)

102015 @ 초등학교 나오고양?(초등학교 나오고요?)

102015 #1 예.(예.)

102015 @ 중학교는?(중학교는?)

102015 #1 중학교 나와서 멘장 하지, 난드르 씨집왕 샅니까.(중학교 나왔으면 멘장하지, '난드르' 씨집와서 샅니까.)

102015 @ 경하여도 그때 초등학교도 잘 나온 거우다.(그래도 그때 초등학교도 잘 나온 것입니다.)

102015 #1 예, 집안으로 갑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옛날부터 선생, 공무원 집안이난 했주. 아무나 학교 안 시겟수다, 그 시절엔.(예, 집안으로 갑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옛날부터 선생, 공무원 집안이니까 했지. 아무나 학교 안 시켰습니다, 그 시절에는.)

102015 @ 남자 삼촌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안 나왔수가?(남자 삼촌은 초등학교, 초등학교 안 나왔습니까?)

102015 #2 못 다년.(못 다녔어.)

102015 @ 그때 며.(그때 뭐.)

102015 #1 하늘 천, 따 지, 웨하르방 선생이난.(하늘 천, 땅 지, 외할아버지 선생 이니까.)

102015 @ 여기 서당 잇어났수과?(여기 서당 있었었습니까?)

102015 #1 아니, 동카름 웨하르방이 훈장이라고, 서당 선생입주.(아니, '동카름' 외할아버지가 훈장이라고, 서당 선생입지요.)

102015 @ 살아오명 곧고 싶은 말 잇건 곶아봄서.(살아오면서 말하고 싶은 말 잇건 말해보십시오.)

102015 #2 살아오명 곶을 말도 잇어.(살아오면서 말할 말도 없어.)

102015 @ 쉼 맥이레 하여 다녔지양?(소 먹이러 많이 다녔지요?)

102015 #2 소 맥이는 디.(소 먹이는 데.)

### 3. 밭일

103000<sup>56)</sup> @ 오늘은양, 나록농사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양. 나록농사 흐젠 흐민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오늘은요, 벼농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벼농사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0 #1 필요흐 건양, 옛날에 나록 흐젠 흐민 개자리엔 흐 논 풀을 흐여와, 막 비여당, 낭썸, 무슨 낭썸이영 흐여당 논더레, 달루면은 논더레 그 풀을 막 빼여.

56) 기존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에서는 논농사에 대한 질문 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이 보고서에서 논농사에 관련한 질문 번호를 '밭일' 앞에 부여하였다.

경 흐영 발로 막 블라, 그거를. 그거를 발로 부르면은 이제는 저 거세기 나록씨 빼젠 흐면은 나록씨 빼여근에 발로 영영 행 나두면은 나록이 나주게. 경 헛주게, 처음의 시작할 때는. 따시 나록메 뭇 때는 문제흐민 곁아야주양.(필요한 건요, 옛날에 벼 하려고 하면 개자리라고 한 논 풀을 해와, 마구 베어다가, 나뭇잎, 무슨 나뭇잎하고 해다가 논으로, 다지면 논으로 그 풀을 마구 흘뿌려. 그렇게 해서 발로 마구 밟아, 그것을. 그것을 발로 밟으면은 이제는 그 거시기 뻬씨 뿌리려고 하면은 뻬씨 뿌려서 발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놔두면 벼가 나지. 그렇게 했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시 뻬모 뭇 때는 문제하면 말해야지요.)

103000 @ 계속 곁읍서.(계속 말하십시오.)

103000 #1 경흐면은 나록메가 클 거 아니우짜? 나록메 크민 여자덜이 물 덩방흔 디 낭으로 방석 뉘들앙 곁아앗앙 나록뭇 다 메여양. 즈근즈근 메면은 요만씩 요만씩 다 무꿍네다. 무꺼근에 열 개문 열 개 툽툽 나두면은 그 논을 이젠 곁아근에, 논을 곁 거 아니우짜, 나록 싱그젠 흐민, 곁아근에 이젠 섬비<sup>57)</sup>질 흐여. 그 장남은 앞의 이끄곡, 두의에는 장남 섬비질 흡니다. 경흐민 따시 섬비질 해낭 다 달좌지면은.(그러면 뻬모가 클 거 아넵니까? 뻬모가 크면 여자들이 물 많은 데 나무로 방석 만들어서 곁아 앓아서 뻬모를 다 매지요. 자근자근 매면 요만큼씩 요만큼씩 다 묶습니다. 묶어서 열 개면 열 개 툽툽 놔두면 그 논을 이젠 곁아서, 논을 곁 거 아넵니까, 벼 심으려고 하면, 곁아서 이젠 ‘섬비’질 해서. 그 건강한 일꾼은 앞에 이끌고, 뒤에는 건강한 일꾼 ‘섬비’질 합니다. 그러면 다시 ‘섬비’질 해놔서 다 다져지면.

103000 #2 섬비가 아니고 씨레라.(‘섬비’가 아니고 씨레라.)

103000 #1 서레, 서레, 서으레, 서으레. 경흐면은 이제 내중엔 저 날레<sup>58)</sup> 멍석 짓는 거 닳은 거, 즈록 돋은 거, 긴 걸로 곁릅네다, 그걸로. 자락자락 밀렀다 등겼다 흐명 서으레질 다 흐영 논을 달좌지면은 이젠.(씨레, 씨레, 씨레, 씨레.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저 ‘날레’ 멍석 짓는 거 닳은 거, 자루 돋은 거, 긴 걸로 곁릅니다, 그것으로. 자락자락 밀렀다 당졌다 하면서 씨레질 다 해서 이렇게 논을 다져지면은 이젠.)

103000 #2 밀레질<sup>59)</sup>.(‘밀레질’.)

103000 #1 밀레질, 밀레<sup>60)</sup>엔 흡니다, 그건. 밀레질을 흐여낭 나록메를 다 뿌려, 논 달좌진데레 뿌리민, 또 여자덜이 요만씩 곁르멍 툽툽툽 싱거. 그거문 나록멘 다 끝난거주기, 나록씨. 경흐민 내중엔 따로 그 나록 도사면은 메살룸<sup>61)</sup>이엔 흐 거 잇수다. 곁질 메는 거, 메 살룸, 것고라 메 살룸이엔 해십주. 경흐민 초불은 가면은 메지가 좋고, 우리가 흐 때 박박 곁급니다게. 손으로 막 박박 곁경 초불은 메 살룸 다 흐면은 따로 커근에 이레 야가기레 올라강 각각 찢러불곡, 또 곁질을 메여. 박박

57) ‘섬비’는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여러 개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고는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이다.

58) ‘날레’는 별을 찢기 위하여 멍석에 넣어놓은 곡식이다.

59) ‘밀레질’은 논바닥을 고르는 일이다.

60) ‘밀레’는 논바닥을 고르는 도구이다.

61) ‘메살룸’은 뻬모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김을 매거나 벼의 밑동에 흙을 덧씌우는 것이다.

홀트명, 박박 막 땅을 팝네다, 여자 손으로.(‘밀레질’, ‘밀레’라고 합니다, 그것은. ‘밀레질’을 해놔서 벗모를 다 뿌려. 눈 다져진 곳으로 뿌리면, 또 여자들이 요만큼씩 가르면서 툭툭툭 심어. 그거면 벗모는 다 끝난 거지, 범씨. 그러면 나중에는 따로 그 벼 새싹 돋으면 ‘메살름’이라고 한 거 있습니다. 김매는 거, ‘메살름’. 것더러 ‘메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벌은 가면은 매기가 좋고, 우리가 할 때 박박 굽습니다. 손으로 마구 박박 굽어서 애벌은 ‘메살름’ 다하면 따로 커서 이리로 모아지로 올라가서 각각 찢어버리고, 또 김을 매어. 박박 훑으면서, 박박 마구 땅을 팝니다, 여자 손으로.)

103000 @ 검질메는 걸 머렌 훑니까?(김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103000 #1 메살름.(‘메살름’.)

103000 @ 메살름이엔 훑니까?(‘메살름’이라고 합니까?)

103000 #1 메살름. 옛날엔 검질메레 가는 거, 아이고 눈에 메살름 흐레 가사, 경. 메살름이엔 골앗수다. 우리가 눈을 하영, 친정에 하영 벼슬어나난 어린 때도 알아집주게.(‘메살름’. 옛날에는 김매러 가는 거, 아이고 눈에 ‘메살름’ 하러 가야, 그렇게. ‘메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많이, 친정에 많이 벌었었으니까 어린 때도 알아집지요.)

103000 @ 그 나룩은 언제, 어떻게 잡니까?(그 벼는 언제, 어떻게 잡니까?)

103000 #1 그거주게.(그거지게.)

103000 @ 나룩 언제 메 놔마썸?(벼 언제 모 놓아요?)

103000 #1 저, 스오월에, 오월에.(저, 사오월에, 오월에.)

103000 #2 아니라, 삼월 그믐에 놀거라.(아니라, 삼월 그믐에 놓을 거라.)

103000 #1 게문 삼스월이엔 흐는 거주, 나룩메 놓는 건. 경 헛당 그슬 들영 비여근에 홀트곡.(그러면 삼사월이라고 하는 거지, 벗모 놓는 건. 그렇게 했다가 가을 들어서 베어서 훑고.)

103000 @ 아, 경 흐난에 나룩메 놔근에.(아, 그렇게 하니까 벗모 놓아서.)

103000 #1 나룩메 낱, 나룩 키와낱.(벗모 놓아서, 벼 키워놓아서.)

103000 #2 키와근에.(키워서.)

103000 @ 음력 몇 월마썸?(음력 몇 월이요?)

103000 #1 음력 구월 나면은 나룩 비거던.(음력 구월 나면은 벼 베거든.)

103000 @ 아니, 게난 메 놓는 거.(아니, 그러니까 모 놓는 거.)

103000 #1 놓는 건 삼사월에.(놓는 건 삼사월에.)

103000 @ 삼스월양, 나룩메 놀 뎨 어떻 놓니까?(삼사월요, 벗모 놓을 때는 어떻게 놓습니까?)

103000 #1 그싸 근듯, 나룩메 놓젠 흐민 눈을 이제 물 대여근에 갈 거 아니우파? 갈민 쉼로, 쉼로 간다 말이여. 게민 흐랑흐랑<sup>62)</sup> 흘 거 아니우파게, 눈을. 경흐민 이제 막 그 달좌노면은 이젠 딱로 낱쌌, 그 무신 낱쌌산디사 흐고 개자리, 개자

62) ‘흐랑흐랑’은 눈에 끈기 있는 흙탕물이 잘 다져서 부드러운 상태를 말한다.



리 비여당 논더레 문딱 깎니다. 꿀민 발로 막 블라, 사름이. 발로 ब्ल르문 굴라앗일 거 아니우파? 경 흐면은 나록 씨 빼여 이제. 경 흐영 그 우터레 나록씨 빼민 나록 메가, 나록묘중 나올 거 아니우파? 경흐민 나록 크면은 이제 그걸 여자덜이 나록 싱그젠 흐민 요만씩 갈르명 싱글 거난, 여자덜이 빌민 앗앙 다섯이민 다섯, 여섯이민 여섯, 낭으로 방석 깔앙, 물 대여진 눈에 앗젠 흐민, 경 흐영 그디 깔앙 앗앙 그 걸 다 맵니다. 요만씩 다 무꺼, 여자덜낭으로.(방금 말하듯, 벳모 놓으려고 하면 눈을 이제 물 대어서 갈 거 아닙니까? 가면 소로, 소로 간다 말이여. 그러면 ‘흐랑흐랑’ 할 거 아닙니까, 눈을. 그러면 이제 마구 그 다져놓으면 이제 따로 나뭇잎, 그 무슨 나뭇잎인지 하고 개자리, 개자리 베어다가 눈으로 모두 깎니다. 깔면 발로 마구 밟아, 사람이. 발로 밟으면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범씨 뿌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위로 범씨 뿌리면 벳모가, 벳모 나올 거 아니니까? 그러면 벳크면 이제 그것을 여자들이 벳 심으려고 하면 요만큼씩 가르면서 심을 거니까, 여자들이 빌면 앉아서 다섯이면 다섯, 여섯이면 여섯, 나무로 방석 깔아서, 물 대어진 눈에 앉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거기 깔아서 앉아서 그것을 다 맵니다. 요만큼씩 다 묶어, 여자들대로.)

103000 #2 한 포기씩 한 포기씩 무꺼근에.(한 포기씩 한 포기씩 묶어서.)

103000 #1 다섯 개씩 열 개씩 이레 쪽 나라비하게 그걸 놓니다게. 놓민 이제 나록을 싱그젠 흐민 눈을 갈 거 아니우파? 눈을 갈면은 이제 서으레로 ㄱ짜ㄱ짜 서으레질을 흐여, 달롭으로. 달루민 딱로 이제 골르게 달뤄지지 안 흐민 이만이 흐 즈룩진 거 흐영 미는 것고라 머온 흡니까?(다섯 개씩 열 개씩 이리로 쪽 줄로 놓습니다. 놓으면 벳를 심으려고 하면 눈을 갈 거 아닙니까? 눈을 갈면 이제 씨레로 방금 같이 씨레질을 해, 다짐으로. 다지면 따로 이제 고르게 다져지지 안 하면 이만큼 한 자루 긴 거 해서 미는 것더러 뭐라고 합니까?)

103000 #2 밀레, 밀레.(‘밀레’, ‘밀레’.)

103000 #1 밀레, 밀레로 그레 등겅다, 저레 등겅다 나록 판을 짝 곱릅네다. 경흐민 나록 이레 메여 논 걸 딱로 다 빼여. 하나씩 하나씩 다 빼민 여자덜이 또 싱글 거 아니우파? 요만씩 요만씩 갈랑 툭툭툭툭 줄 짓영. 열이민 열, 나록메가 흐 말지기, 두 말지기, 서 말지기 잇는 따문, 그것에 세여근에 놓을 빡주게. 경흐민 쪽 흐영 싱거깎니다. 이제 테레비에 보듯이. 경 흐영 싱경 나두민 커가민, 경 요만씩 올라오민 초불검질, 메살름, 초불검질 메영, 메살름이온 흡니다, 것고라. 경 흐영 두불은 딱시 두불검질 메곡, ㄱ랏 메곡, 나록에도 ㄱ랏이 잇어. 나록씨는 그거. 물 대곡, ㄱ물아시민 물 대곡, 벌러지지 못하게. 흐랭이 잇고, 강답 잇수다, 논도. 흐랭이는 요 깎지 막 들어가는 논이고, 강답은 요만이벳기 안 들어가는 거고.(‘밀레’, ‘밀레’로 그리로 당겅다, 저리로 당겅다 벳 판을 짝 곱릅니다. 그러면 벳 이리로 매어 놓은 걸 따로 다 뿌려. 하나씩 하나씩 다 뿌리면 여자들이 다 심을 거 아닙니까? 요만큼씩 요만큼씩 갈라서 툭툭툭툭 줄 지어서. 열이면 열, 벳모가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세 마지기 잇는 따문, 그것에 세어서 놓을 빌지요. 그러면 쪽 해서 심어깎니다. 이제

텔레비전에 보듯이. 그렇게 해서 심어서 놔두면 커가면, 커서 요만큼씩 올라오면 애 벌매기, ‘메살름’, 애벌매기 매어서, ‘메살름’이라고 합니다, 것더러. 그렇게 해서 두 벌 다시 두벌매기 매고, 가라지 매고, 나룩에도 가라지 있어. 범씨는 그거. 물 대고, 가물었으면 물 대고, 벌러지지 못하게. 골답 있고, 건답 있습니다, 논도. 골답은 요 까지 마구 들어가는 논이고, 건답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는 거고.)

103000 @ 그다음에양, 나룩농사 걸름 잇수과?(그다음에요, 벼농사 거름 잇습니까?)

103000 #1 걸름, 그 나룩씨 빠젠 흐민 풀 빈 개자리영, 그것이 걸름. 나룩씨 뵈디.(거름, 그 범씨 뿌리려고 하면 풀 뵈 개자리하고, 그것이 거름. 범씨 뿌린데.)

103000 #2 계난 그 개자리 흐연 짚안 거 우트레 씨 빠영 나룩 나기 시작흐민 그 풀 의지로 해근에.(그러니까 개자리 해서 짚아서 그거 위로 씨 뿌려서 벼 나기 시작하면 그 풀 의지로 해서.)

103000 #1 경흐곡계 커 가민 비료도 주곡계.(그리고 커 가면 비료도 주고.)

103000 @ 무슨 비료 줬수과?(무슨 비료 줬습니까?)

103000 #1 몰라, 무슨 비료 옛날에 요소주계. 옛날엔 하간 각자 하영 안 나오난, 경 구월 나민 나룩 밍니다.(몰라, 무슨 비료 옛날에 요소지계. 옛날에는 온갖 각자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구월 나면 벼 밍니다.)

103000 @ 나룩씬 어떻 뿌립니까?(범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00 #1 나룩씨 기냥 작작 빠주기, 손으로. 영 그릇에 으정 텅기멍 작작 빠주기. 나룩씨는 처음에 집의서 물 등강 나뉘야 돼여. 다라고 멋이고 큰 것에 물 등강 당 건정 물 빠지민 으정가근에, 이제 그걸 으정 텅기멍 장남이 빠던지, 여자가 빠던지 나룩씨 뵈니다게. 우린 친정의 논이 하노난 나 어린 때부터 논에만 자꾸 가나난.(범씨 그냥 뿌리지, 손으로. 이렇게 그릇에 가져서 다니면서 작작 뿌리지. 범씨는 처음에 집에서 물 담가서 놔뉘야 돼. 대야고 뵈이고 큰 것에 물 담갔다가 건져서 물 빠지면 가져가서, 이제 그것을 가져서 다니면서 건강한 일꾼이 뿌리든지, 여자가 뿌리든지 범씨 뿌립니다. 우리는 친정에 논이 많았으니까 나 어린 때부터 논에만 자꾸 갔었으니까.)

103000 @ 그다음에 나룩예, 검질은 몇 번 뵈니까?(그다음에 벼요, 김은 몇 번 뵈니까?)

103000 #1 두불계, 메살름이라고.(두벌, ‘메살름’이라고.)

103000 @ 계난 나룩 검질뵈 뵈 어떻 메여마썸?(그러니까 벼 김뵈 때는 어떻게 매어요?)

103000 #1 두불계. 박박 땅을 막 파, 막 손으로 무랑무랑 췌멍, 이디 영 골로 싱겨주민 나룩 트멍마다 나룩 이만씩 펼기 흐민 트멍마다 막 손으로 논을 후갈아, 우리가. 메살름이라고.(두벌계, 박박 땅을 마구 파, 마구 손으로 무랑무랑 주무르면서, 여기 이렇게 줄로 심어주면 벼 틈마다 벼 이만큼씩 포기 하면 마구 손으로 논을 후갈아, 우리가. ‘메살름’이라고.)

103000 @ 거난 요 머냐, 요 미는 거.(그러니까 요 뭐냐, 요 미는 거.)

103000 #1 미는 거는 저 거세기게. 눈 달랑 나록 싱그젠 해사게, 서으레질 햏여 근에.(미는 거는 저 거시기게. 눈 다져서 벼 심으려고 해야, 씨레질 해서.)

103000 @ 아니, 거난 나록햏곡 나록 사이에 영영 햏는 거, 나 해나신디.(아니, 그러니까 벼햏고 벼 사이에 이렇게이렇게 햏는 거, 나 햏였는데.)

103000 #1 거 중간에사 기계 나왔주게.(거 중간에야 기계 나왔지.)

103000 #2 옛날 낭으로 멘들양.(옛날 나무로 만들어서.)

103000 #1 예, 쉐로도 나오랏수다.(예, 쇠로도 나왔었습니다.)

103000 @ 거 머엔 햏니까?(거 뭐라고 햏니까?)

103000 #2 거 메살름엔 햏는 거주게.(거 ‘메살름’이라고 햏는 거지.)

103000 #1 메살름햏는 기계게. 이젠 기계 좋은 때난, 우리 클 때는 기계 엇이난 손으로만 햏엇주기.(‘메살름’햏는 기계. 이젠 기계 좋은 때니까, 우리 클 때는 기계 없으니까 손으로만 햏였지.)

103000 @ 거난 저 남자 삼촌 처음부터 끝까지, 끝에 강 말 낮추와불지 말곡 또 박또박 말햏서양.(그러니까 저 남자 삼촌 처음부터 끝까지, 끝에 가서 말 낮춰버리지 말고 또박또박 말햏십시오.)

103000 #2 예.(예.)

103000 @ 그다음에 나록에는 어떤 검질덜이 자랍니까?(그다음에 벼에는 어떤 검들이 자랍니까?)

103000 #1 검질, 눈에 풀 나주게. 물 위로 막 나와. 물소굽에서 나오면은 손의로 막 검질 신 디고, 엇인 디고 무랑무랑 햏염주게. 눈을 갈아 손의로 막. 것이 검질 메는 거.(검, 눈에 풀 나지. 물 위로 마구 나와. 물속에서 나오면 손으로 마구 검 있는 데고, 없는 데고 무랑무랑 주무르고 있지. 눈을 갈아 손으로 마구. 것이 검매는 거.)

103000 @ 계난 무신 풀덜.(그러니까 무슨 풀들.)

103000 #2 풀이엔 햏 건 이 저 물피<sup>63</sup>.(풀이라고 햏는 것은 이 저 ‘물피’.)

103000 #1 아니, 물피도 잇고, 저 지랑햏 거, 눈에 나는 거, 모양이 깁는깁는 햏 거, 것고라 무신 왕풀(?) 그거 잇어. 밧디도 눈에 나는 풀 잇젠 햏명 우리 막 검질 메지 안 햏엇수과게?(아니, ‘물피’도 잇고, 저 치렁햏 거, 눈에 나는 거, 모양이 가는 가는 햏 거, 것더러 무슨 ‘왕풀’(?) 그거 잇어. 밧에도 눈에 나는 풀 잇다고 햏면서 우리 마구 검매지 안 햏햏니까?)

103000 @ 그 나록 수햏은 어떻 햏니까?(그 벼 수햏은 어떻게 햏니까?)

103000 #1 수햏은양, 경 햏영 고고리 필 거 아니우파게? 경햏민 그 나록 말고, 나록 저 거세기 물피, 것고라 물피엔 햏니다. 물피 뽑으레, 저 메레 멩햏니다. 건 데 햏붙 거, 물피 나록 아니고, 그거 해나민 이제 ㅁ실 들민 햏미로 다 비여. 옛날엔 기계로 안 비여. 기계 엇이난. 햏미로 다 나록을 빙주게. 경 햏영 나란히 노민, 그

63) ‘물피’는 눈에 나는 잡초로 벼와 비슷햏다.

논은 물 빠지왓당 나록 흐젠 흐민 물 빠지와봄주게. 경흐민 므른 논더레 다 비여 낡, 코짱히 조 비듯 비여 노면은, 물리우면은 이제 홀트는 거, 보리 홀트는 기계 닳은 거, 나록 홀트는 거.(수확은요, 그렇게 해서 이삭 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벼 말고, 벼 저 거시기 ‘물피’, 것더러 ‘물피’라고 합니다. ‘물피’ 뽑으러 저 매러 다닙니다. 그것은 던져버릴 거, ‘물피’ 벼 아니고, 그거 해났으면 이제 가을 들면 낫으로 다 베어. 옛날에는 기계로 안 베어. 기계 없으니까, 낫으로 다 벼를 뽑지요. 그렇게 해서 나란히 놓으면, 그 논은 물 빼었다가 벼 하려고 하면 물 빼어버립지요. 그러면 마른 논으로 다 베어 놓아서, 가지런히 조 베듯 베어 놓으면, 말리면 이제 훑는 거, 보리 훑는 기계 닳은 거, 벼 훑는 거.)

103000 @ 거 기계 며엔 흡니까?(거 기계 뭐라고 합니까?)

103000 #1 거 나록 홀트는, 거 무싱겨우파? 보리 홀타난, 옛날 것고라?(거 벼 훑는, 거 무엇입니까? 보리 훑는, 옛날 것더러?)

103000 #2 것고라 멋엔 한다만은.(것더러 뭐라고 한다만은.)

103000 @ 나록클<sup>64</sup>?(‘나록클’?)

103000 #1 나록클은 홀트는 거게, 나록클은 나중에 이렇게 도르기 돌란에 이만 썩 무건 해나고. 나록 홀트는 건 보리 홀트는 거영 똑ㄱ똥 거.(‘나록클’은 나중에 이렇게 바퀴 달아서 이만큼씩 묶어서 했었고. 벼 훑는 건 보리 훑는 거하고 똑같은 거.)

103000 @ 나록클.(‘나록클’.)

103000 #1 응, 나록클. 홀트레 가는 거. 경 구월 나른 흡니다, 나록 비는 건.(응, ‘나록클’. 훑으러 가는 거. 그렇게 9월 나면 합니다, 벼 베는 건.)

103000 @ 도깨질은 안 흡디가?(도리깨질은 안 했습니까?)

103000 #1 도깨질 나록이 죽은 사름은 도깨질을 흐주만은, 밧디 가근에.(도리깨질 벼가 적은 사름은 도리깨질을 하지만은, 밧에 가서.)

103000 #2 작으마흐 사름덜이 도깨질을 흐곡, 하영 흐 사름덜은 도깨질 못 흐여 게.(적은 사름들이 도리깨질을 하고, 많이 한 사름들은 도리깨질을 못 해.)

103000 #1 밧디 클이영 문딱 으정가근에 썩 시꺼오곡, 쉼로 나록 흐영 멩탱이에 담아근에 썩으로 무경, 나록 집더레 시꺼오곡 헛주. 쉼까만 흐 거주, 도깨질 못 흡니다.(밧에 틀하고 모두 가져가서 쥘 실어오고, 소로 벼 해서 망태기에 담아서 쥘으로 묶어서, 벼 집으로 실어오고 했지. 조그만 한 거지, 도리깨질 못 합니다.)

103000 @ 나록쌀로 몇 행 먹읍니까?(볍쌀로 무엇 해서 먹습니까?)

103000 #1 나록쌀은 곤밥 흐영 식게 흐곡, 멩질 흐곡게. 곤밥 옛날 보리밥 먹을 때 그거주게.(볍쌀은 흰밥 해서 제사 하고, 멩질 하고. 흰밥 옛날 보리밥 먹을 때 그거지.)

103000 @ 밥만 흡니까?(밥만 합니까?)

103000 #1 밥만 흐주게.(밥만 하지.)

64) ‘나록클’은 벼를 훑는 기구이다. 표준어 ‘그네’에 대응하는 말이다.

103000 #2 밥도 햅영 먹곡, 죽도 썬 먹곡.(밥도 해서 먹고, 죽도 썬서 먹고.)

103000 #1 나록 엇인 사름은 보리밥 먹곡, 그 사름덜토 식게, 멧질에만 햅주. 무신 곤밥 먹엇수과, 옛날에.(벼 없는 사름은 보리밥 먹고, 그 사름덜토 제사, 멧질에만 하고 있지. 무슨 흰밥 먹엇습니까, 옛날에.)

103000 @ 떡은 안 햅디가?(떡은 안 햅습니까?)

103000 #1 떡도 햅곡게, 그걸로게. 식게 때 떡도 햅곡 다, 나록쫄로. 방에에 정, 들그레에 정. 기계라도 시민 햅주만은, 들그레에 정, 옛날에.(떡도 하고, 그것으로. 제사 때 떡도 하고 다, 법쌀로. 방아에 저서, 연자매에 저서. 기계라도 있으면 하지만은, 연자매에 저서, 옛날에.)

103000 #2 식게 떡 햅곡.(제사 떡 하고.)

103000 #1 식게 떡 솔벤<sup>65)</sup>, 절벤 햅곡, 침떡 햅곡, 고달떡<sup>66)</sup>, 조떡 햅곡 막 해낫주게. 그건 나록쫄 주장햅주게. 이젠 하간 거 잇어도, 쫄쌀로 조떡도 햅곡.(제사 떡, ‘솔벤’, 절편 하고, 시루떡 하고, ‘고달떡’, 조 떡 하고 마구 햅엇지. 그건 법쌀 주장햅지. 이젠 온갖 거 잇어도 쫄쌀로 조떡도 하고.)

103000 @ 그 나록쫄은 어떻 사용햅수과?(그 벧짚은 어떻게 사용햅습니까?)

103000 #1 나록쫄은 무꺼근에게 멧석도 즐곡, 멧탱이도 즐곡게. 경 햅주게, 옛날은게. 보리 무끄곡, 나록쫄으로 게 틀영, 그거뿐.(벧짚은 묶어서 멧석도 곁고, 멧태기도 곁고. 그렇게 햅지, 옛날은. 보리 묶고, 벧짚으로 물렛줄 만들어서, 그거뿐.)

103000 @ 나록농사에 엇힌 추억 잇걸랑 곁아봍서.(벼농사에 엇힌 추억 잇걸랑 말햅해보십시오.)

103000 #1 엇인 사름은 나록쫄도 엇영 늬의 눈에 강 부름씨햅영 햅 말씩, 두 말씩 빌어 오곡.(없는 사름은 법쌀도 없어서 남의 눈에 가서 심부름햅서 한 말씩, 두 말씩 빌려 오고.)

## 밭벼 농사

103039 @ 산디 안 햅햅디게예?(밭벼 안 햅햅습니까?)

103039 #1 산디도 햅여, 밧디. 산디는 므른 밧디.(밭벼도 햅, 밧에. 밧벼는 마른 밧에.)

103039 @ 계난 산디 햅햅디가?(그러니까 밧벼 햅햅습니까?)

103039 #1 응, 산디도 곁아낫주. 우리 아버지네 밧이 하노난. 산디 씨 햅영 들로 불리메 따로, 산디왓은.(응, 밧벼도 곁았엇지. 우리 아버지네 밧이 많았엇으니까. 밧벼는 씨 뿌려서 말로 밧아 따로, 밧벼밭은.)

103039 @ 산디 농사는 어떤 준비를 햅니까?(밭벼 농사는 어떤 준비를 햅니까?)

103039 #1 산디 씨 걱정햅영 나록 씨 햅고 산디 씨는 틀리거던, 틀립니게게. 틀리면은 밧디 변햅 나뫓당, 곁닥햅게 곁질 메곡 햅영 나뫓당, 산디 씨를 햅여, 산디

65) ‘솔벤’은 반월형(半月形)의 떡본으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이다.

66) ‘고달떡’은 쫄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친 시루떡이다.

씨를 작작 하게 스나이 주인이 강 빼면은, 이젠 물로 막 불립니다, 산디왓덜. 불리민 걸로 끝. 경 흥영 이추록 나가민 여자덜이 검질 메레 텅기주. 초불이여 두불이여, 산디왓디 검질 혼나불어. 절환지 주장흥영 나곡, 여름 검질.(밭벼 씨 걱정해서 볍씨하고 밭벼 씨는 틀리거든, 틀립니다. 틀리면 밭을 애벌같이 해서 놔뒀다가, 곱게 김매고 해서 놔뒀다가, 밭벼 씨를 뿌려, 밭벼 씨를 작작 하게 남자 주인이 가서 뿌리면은, 이젠 말로 밟습니다, 밭벼밭들. 밟으면 걸로 끝. 그렇게 해서 이처럼 나가면 여자들이 김매러 다니지. 애벌이여 두벌이여, 밭벼밭에 김 정신없어. 바랭이 주장해서 나고, 여름 김.)

103040 @ 경흥민 산디는 언제 어떻게 잡니까?(그러면 밭벼는 언제 어떻게 잡니까?)

103040 #1 산디 씨 봄계, 봄에 빼여. 삼스월에 흡니다.(밭벼 씨 봄에, 봄에 뿌려. 삼사월에 합니다.)

103040 @ 나록이영 꼭ㄴ뚝니까?(벼하고 똑같습니까?)

103040 #1 똑ㄴ따, 똑ㄴ따, 산디 농사는.(똑같아, 똑같아, 밭벼 농사는.)

103040 @ 계난 물이냐, 밭이냐.(그러니까 물이냐, 밭이냐.)

103040 #1 물은 안 가고 밭디.(물은 안 가고 밭에.)

103040 @ 웃드르에서 주로 하지 안 흡니까?(‘웃드르’에서 주로 하지 안 흡니까?)

103040 #1 예, 웃드르<sup>67)</sup> 밭디덜게 막 해주. 나도 검질 메레도 만이 텅기고, 우리 집원 밭 한 집이난 산디하고 콩하고, 지랄 연병을 다 했수다, 어린 때. 이제 우리 연세가 막 검질만 맨 사름덜이주게. 그르후제 난 사름덜은 세상 몰르고.(예, ‘웃드르’ 밭들 마구 하지. 나도 김매러 많이 다니고, 우리 집에는 밭 많은 집이니까 밭벼하고 콩하고, 지랄 연병을 다 했습니다, 어린 때. 이제 연세가 아주 김만 맨 사름들이지. 뒷날의 어느 때에 난 사름들은 세상 모르고.)

103041 @ 밭디, 산디 걸름.(밭에, 밭벼 거름.)

103041 #1 산디 걸름 엇어.(밭벼 거름 엇어.)

103041 #2 걸름 안 흥영, 비료.(거름 안 해서, 비료.)

103041 #1 비료 주는 사름은 주곡, 안 주는 사름은 안 주곡, 산디왓디 걸름은 엇수다. 보리가 걸름이주, 다른 것엔 걸름 엇어.(비료 주는 사름은 주고, 안 주는 사름은 안 주고, 밭벼밭에 거름은 없습니다. 보리가 거름이지, 다른 것에는 거름 엇어.)

103042 @ 산디 씨 어떻 뿌릅니까?(밭벼 씨 어떻게 뿌리니까?)

103042 #1 기냥 좁씨 빼듯 밭디 강 작작 빼여부는 거. 기냥 빼여부는 거, 마른 채. 건 물도 안 둥그곡 기냥 빼는 거. 우리 시절의 나벳기 산디 흥는 거 몰라. 이루 후에 난 사름덜은 몰라. 우리 연거레가 산디여, 콩이여 알암주.(그냥 조씨 뿌리듯 밭에 가서 작작 뿌려버리는 거. 그냥 뿌려버리는 거, 마른 채. 건 물도 안 담그고

67)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이나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냥 뿌리는 거. 우리 시절의 나뭇잎에 밭벼 하는 거 몰라. 그 이후에 난 사람들은 몰라. 우리 또래가 밭벼다, 콩이다 알고 있지.)

103042 #2 지금도 저 옷드르레 가민 산디 하영 갈암주.(지금도 저 ‘옷드르’로 가면 밭벼 많이 갈고 있지.)

103042 #1 므른 밭디 산디 갈암주게. 나룩씨로 밭디 산디 모양으로 모실포 저레 가민 밭디 물 안 대여도 막 햅여.(마른 밭에 밭벼 갈고 있지. 볍씨로 밭에 밭벼 모양으로 ‘모실포’ 저리로 가면 밭에 물 안 대어도 마구 햅.)

103042 #2 물 안 대여도 나룩씨 빼여근에 나면은 자꾸 물 줍주게.(물 안 대어도 볍씨 뿌려서 나면은 자꾸 물 주고 있지.)

103042 #1 나룩씨 나사 물 준덴, 마농에 물 주듯, 이 서촌더레. 나룩도 밭디 햅주게, 막 맛 좋아. 밭디 나룩 햅 거 잘도 맛 좋아, 밥이.(볍씨 나야 물 준다고, 마늘에 물 주듯, 이 서촌으로. 벼도 밭에 하고 있지, 아주 맛 좋아. 밭에 벼 한 거 잘도 맛 좋아, 밥이.)

103043 @ 산디 검질은 몇 번 맵니까?(밭벼 김은 몇 번 맵니까?)

103043 #1 산디 검질은 햅이 엇어. 초불 메영, 두불 메영, 짓으면 따시 메곡 따시 메곡 햅이 엇어. 밭디 검질만 짓으면, 나룩 때문에 검질메는 거난 수정이 엇어.(밭벼 김은 햅이 엇어. 초벌 매키서, 두벌 매키서, 지으면 다시 매키 다시 매키 햅이 엇어. 밭에 김만 지으면, 벼 때문에 김매는 거니까 숫자가 엇어.)

103044 @ 산디왓 검질은 어떤 검질덜 잇수과?(밭벼밭 김은 어떤 김들 잇습니까?)

103044 #1 절환지, 숙 그런 거 낫주기. 절환지가 주장 나.(바랭이, 숙 그런 거 낫지.)

103044 @ 다른 검질은?(다른 김은?)

103044 #1 다른 검질은 잡 검질 하영 나난 무슨 검질산디사, 옷드르 밭디 무신.(다른 김은 잡 김 많이 나니까 무슨 김인지, ‘옷드르’ 밭에 무슨.)

103044 #2 뜯 검질이엔 햅 건 물믄작쿨 ㄹ뜯 거, ㄹ랏 닳은 것이 검질이영 막 서꺼정 납니다게. 케민 ㄹ랏이영 절환지영 ㄹ찌 막 햅주게.(다른 김이라고 한 건 쇠무를 같은 거, 가라지 닳은 것이 김하고 마구 섞어져서 납니다. 그러면 가라지하고 바랭이하고 같이 마구 매키요.)

103045 @ 그 산디 수확은 어떻게 햅니까?(그 밭벼 수확은 어떻게 햅니까?)

103045 #1 산디 수확은 좋으면 하영 나곡, 구지민 죽영 나곡, 수확은 밭에 메영 나는 거주게. 거난 수확 나는 거는 햅이 엇어. 조민 수확이 만이 나고, 나쁘민 수확이 편찍햅 밭도 잇고.(밭벼 수확은 좋으면 많이 나고, 나쁘면 적게 나고, 수확은 밭에 따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수확 나는 거는 햅이 엇어. 조면 수확이 많이 나고, 나쁘면 수확이 아무 것도 없는 밭도 잇고.)

103045 @ 수확 햅젠 햅민 비영.(수확 하려고 하면 베어서.)

103045 #1 비영 홀트는 거주게, 나룩 홀트듯. 건 무꺼당 집의서 홀트메, 쉼로 시

꺼당.(베어서 훑는 거지, 벼 훑듯. 그것은 묶어다가 집에서 훑지요, 소로 실어다가.)

103045 #2. 옛날이야 다 마찬가지, 집의서 거세기 하는 건.(옛날이야 다 마찬가지, 집에서 거시기 하는 건.)

103046 @ 산디 쌀 햅영 멀 햅니까?(밭벼 쌀 해서 무엇을 햅니까?)

103046 #1 산디 쌀 햅영 곤밥도 햅영 떡곡게, 나록 쌀 햅듯 떡도 햅곡 다 햅주게. 부주도 햅곡, 사돈칩의 햅 말씩 저가곡게.(밭벼 쌀 해서 흰밥도 해서 먹고, 볶쌀 햅듯 떡도 하고 다 햅지. 부조도 하고, 사돈집에 한 말씩 저가고.)

103047 @ 산디 짙은 멀 햅수과?(밭벼 짙은 무엇을 햅습니까?)

103047 #2 쉼도 주곡, 물도 맥이곡.(소도 주고, 말도 먹이고.)

103047 #1 산디 짙은 쉼도 주곡, 기자 물도 맥이곡, 산디 짙은 쉼출 주장햅주. 산디 기냥 내부는 사름도 있고, 밧디 내부는 사름이 하.(밭벼 짙은 소도 주고, 그저 말도 먹이고, 밧벼 짙은 소풀 주장햅지. 밧벼 그냥 내버리늬 사람도 있고, 밧에 내버리는 사람이 많아.)

103048 @ 산디 농사에 얽힌 추억 햅 번 말햅보햅서.(밭벼 농사에 얽힌 추억 한 번 말햅보햅시오.)

103048 #1 추억은 무신 그거주게, 다른 거 엇어. 검질 메레 텅경 고생만 햅주 무신.(추억은 무슨 그거지, 다른 거 없어. 김매러 다니며 고생만 햅지 무슨.)

103048 @ 산디 햅명 물웨도 가끔 보이곡.(밭벼 하면서 물외도 가끔 보이곡.)

103048 #1 아니, 밧디 검질 메레 가젠 햅민, 산디 검질 메레 가젠 햅민 햅 햅영 질구덕에 상지착 우알칙의 잔뜩 담양 강, 웨도 으정 가민 칼이라도 으정 가주. 웨 으정 가민 물착물착 수까락으로 그차냥 국 햅영 먹으명 산디 검질 메곡 햅주게. 경 햅영 물 족으민 저오렌 안 햅민 좋아. 통물<sup>68</sup>) 오란, 감산이서 통물 질레 오라냇주. 난 아으난 물만 질어오렌 햅여.(아니, 밧에 김매러 가려고 하면, 밧벼 김매러 가려고 하면 햅해서 대바구니에 ‘채롱작’ 위아래에 잔뜩 담아서 가서, 외도 가져서 가면 칼이라도 가져서 가지. 외 가져서 가면 문덕문덕 손가락으로 끊어놔서 국 해서 먹으면서 밧벼 김매고 햅지. 그렇게 해서 묵 적으면 저오라고 안 하면 좋아. ‘통물’와서, 감산리서 ‘통물’ 길러 왔었지. 나는 아이니까 물만 길어오라고 햅.)

## 고구마 농사

103049 @ 그다음엔 감저 농사에 대햅 들어보쿠다. 감저 농사 햅젠 햅민 어떤 준비가 필요햅니까?(그다음에는 고구마 농사에 대햅 들어보겠햅습니다. 고구마 농사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햅니까?)

103049 #2 감저 농사햅기 시작햅민, 봄 나민.(고구마 농사햅기 시작하면, 봄 나면.)

103049 #1 감저 씨 물어.(고구마 씨 물어.)

103049 #2 감저 씨 이제 햅민 거, 이제 밧을 준비햅 거 아니우꽈게? 밧을 준비

68) ‘통물’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흐민 보리 갈아난 보리 그르에 이젠 감절 싱그는디, 그때는 게 보리밭을 번혀여.(고구마 씨 이제 하면 거, 이젠 밭을 준비할 거 아녘니까? 밭을 준비하면 보리 갈았었던 보리 갈았던 곳에 이젠 고구마를 심는데, 그때는 그거 보리밭을 애벌같이 해.)

103049 #1 것이 아니고, 감젓메를 놓주게, 처음엔게.(것이 아니고, 고구마 모종을 놓지, 처음에는.)

103049 #2 밭이영 번혀여 놔야 따로 감젓메도 놓지 안 햏여게.(밭하고 애벌같이 해 놔야 따로 고구마 모종도 놓지 안 해.)

103049 #1 감젓메 봄 나쁜 나뉡, 밭 번햏고, 경 햏니다. 여름에 감저 싱그는 거 아니우파게.(고구마 모종 나뉡 놔뉡서, 밭 애벌같이 하고, 그렇게 햏니다. 여름에 고구마 심는 거 아녘니까.)

103049 #2 여름이나마나 오월.(여름이나마나 오월.)

103049 #1 오월 마에 싱그는 거주게, 감젓줄 끼차다근에게. 봄윈 메 놓곡, 감젓메 놓곡, 감저 씨 햏 나뉡당. 감저썬 구덩이 팡, 느람지<sup>69)</sup> 더햏고 햏영 감저씨 묻엇당.(오월 마에 심는 거지, 고구마 덩굴 끊어다가. 봄에는 모종 놓고, 고구마 모종 놓고, 고구마 씨 해서 놔뉡다가. 고구마 씨는 구덩이 파서, 이영 덮고 해서 고구마 씨 묻엇다가.)

103050 @ 거민양, 감저는 언제, 어떻게 햏니까?(그러면요,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햏니까?)

103050 #1 감저 싱그는 거?(고구마 심는 거?)

103050 #2 오월 들에.(오월 달에.)

103050 #1 오월 장마에 싱그는 거. 처음엔 메 놔야 뉡여, 감젓메 낡. 구덩이 파근에 감저썬 햏여당 구덩이 팡 더경, 검질 짚고 햏영 더경, 느람지 더갓당, 씨를 느람지 더갓다근에 감젓메 놓젠 햏른 걸 파. 썬은 걸, 막 썬어부는 구덩이도 짓고, 안 썬은 구덩이도 짓고, 걸 골려당 멜 놔, 감젓멜, 메종을. 감저 메종 놔근에 비료 주곡, 오줌 주곡, 옛날엔 막 햏다근에 감저 싱그젠 햏른 오월 마에 줄 기창, 경, 강 싱것주게. 요만큼씩 요만큼씩 쫄라근에게. 경 햏연 밧뉡 싱것주게. 경 햏영 팔뉡 나가쁜 들영, 구월 나쁜 감저 파.(오월 장마에 심는 거. 처음에는 모종 놔에 돼, 고구마 모종 놔서. 구덩이 파서 고구마 씨를 햏다가 구덩이 파서 덮어, 검불 깔고 해서 덮어, ‘느람지’ 덮엇다가, 씨를 이영 덮엇다가 고구마 모종 놓으려고 하면 걸 파. 썬은 것을, 아주 썬어버리는 구덩이도 있고, 안 썬은 구덩이도 있고, 걸 골라다가 모종을 놔, 고구마 모종을, 모종을. 고구마 모종 놔서 비료 주고, 오줌 주고, 옛날에는 막 햏다가 고구마 심으려고 하면 오월 마에 덩굴 끊어서, 쥘서, 가서 심엇지. 요만큼씩 요만큼씩 잘라서. 그렇게 해서 밭에 심엇지. 그렇게 해서 팔뉡 나가쁜 들어서, 구월 나뉡 고구마 파.)

103051 @ 그다음에양, 감저 밧 걸름은 어뉡 마런 햏니까?(그다음에요, 고구마 밧 걸름은 어떻게 마런 햏니까?)

69) ‘느람지’는 표준어 ‘이영’에 대응하는 말이다.

103051 #1 걸름 엇어. 감저왔은 그냥 생 밧디 감저 갈아근에 오월 마에 갈민, 그 고지레 감저줄 해당 요만씩 요만씩 졸랏당 싱그민, 그것이 감저.(거름 없어. 고구마 밧은 그냥 생 밧에 고구마 갈아서 오월 마에 갈면, 그 이랑으로 고구마 덩굴 해다가 요만큼씩 요만큼씩 잘랐다가 심으면, 그것이 고구마.)

103051 #2 비료 뿌렁 싱그주.(비료 뿌려서 심지.)

103051 #1 비료도 주는 사름 짓고, 아이 주는 사름도 짓고, 그건 흘 수 엇고.(비료도 주는 사람 있고, 아니 주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할 수 없고.)

103051 #2 옛날엔 엇이난 했주만, 이젠 비료 안 주민 안 돼주기.(옛날에는 없으니까 했지만, 이젠 비료 안 주면 안 되지.)

103051 #1 이젠 감저 싱그는 사름도 엇곡게, 옛날엔 주장 감저만 싱것주게. 감저 뺏데기 공판했수게, 우리가.(이젠 고구마 심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는 주장 고구마만 심었지. 절간고구마 공판 했습지요, 우리가.)

103052 @ 감전 어떻 싱급니까?(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103052 #1 감저줄은양, 감저메 논 된 물탁물탁흔<sup>70)</sup> 거난 비여. 비여 노민 밧디 이젠 비여 논 걸 그냥 정 가. 그냥 큰 냥, 흘근 냥 정 강, 흘 펜이 앓아두서 똑 요 지러기씩 다 쫄라. 경 쫄랑 고지로 연줄로<sup>71)</sup> 흐영 쪽 싱거가주게.(고구마 덩굴은요, 고구마 모종 놓은 데는 ‘물탁물탁한’ 거니까 베어. 베어 놓으면 밧에 이젠 베어 놓은 걸 그냥 저서 가. 그냥 큰 대로, 굵은 대로 저서 가서, 한 편에 앓아두서 똑 요 길이씩 다 잘라. 그렇게 잘라서 이랑으로 연줄로 해서 쪽 심어가지.)

103052 #2 싱글 만씩 흐여근에 끈을 거주.(심을 만씩 해서 끊음 거지.)

103052 #1 싱글 만씩, 경 흐영 싱거가는 거.(심을 만씩, 그렇게 해서 심어가는 거.)

103052 @ 메 논 디 가근에 비여당.(모종 놓은 데 가서 베어다가.)

103052 #1,2 비여당.(베어다가.)

103052 #1 정 강.(저서 가서.)

103052 #2 밧디 으정강.(밧에 가져가서.)

103052 @ 가정가근에.(가져가서.)

103052 #1 쫄랑, 요만씩.(잘라서, 요만큼씩.)

103052 @ 흘 멧 쉼치 정도?(한 몇 센티미터 정도?)

103052 #1 똑 요 지러지 돼여, 요 지러지. 게난 멧 쉼치사 될지, 뽕으로 두 개 스뭇 하지 안 흐여. 너무 질게 기차도 싱금이 굿주게. 요 꼬뽕이로 요레만 감저 드는 거난.(똑 요 길이 돼, 요 길이. 그러니까 몇 센티미터야 될지, 뽕으로 두 개 사뭇 많지 안 해. 너무 길게 끊어도 심음이 나쁘지. 요 끝으로 요리로만 고구마 드는 거니까.)

103052 @ 게 어디 싱급니까?(그거 어디 심습니까?)

70) ‘물탁물탁흔’은 ‘(고구마 줄기 따위가) 살진’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71) ‘연줄로’는 줄을 이어서 의미다.

103052 #1 밧디게.(밭에게.)

103052 @ 밧디 어디?(밭에 어디?)

103052 #1 아무 밧디라도, 이녁 밧 신 사름은 이녁 밧디 싱그곡, 늬의 밧 신 사름은 늬의 밧디 강 싱그곡, 보리 그르에 감저 싱그는 거, 보리 비여똥.(아무 밧에라도, 이녁 밧 있는 사람은 이녁 밧에 심고, 남의 밧 있는 사람은 남의 밧에 가서 심고, 보리 갈았던 곳에 고구마 심는 거, 보리 베어똥서.)

103053 @ 그다음에 감저밧디 검질 멧 번 맵니까?(그다음에 고구마 밧에 김 몇 번 맵니까?)

103053 #1 검질은 멧 번산디 그자 감저줄 덤방흐민 우트레 올라오민 메곡, 감저 파먹으멍 드러 메는 거.(김은 멧 번인지 그저 고구마 덩굴 무성하면 올라오면 매고, 고구마 파먹으면서 계속 매는 거.)

103053 #2 초불, 두불, 세불까지 매지.(애벌, 두벌, 세벌까지 매지.)

103053 #1 세불만 맵서? 드러. 감저밧디 검질이 더 나 따로, 감저줄 더꺼져도. 경 흐민 감저줄 영 영 헤쳐근에 에염드레 노멍 고랑으로 검질 메여갑니다게.(세벌만 매고 있는가? 마구. 고구마밭에 김이 더 나 따로, 고구마 덩굴 덮어져도. 그러면 고구마 덩굴 이렇게 이렇게 헤쳐서 옆으로 놓으면서 고랑으로 김 매어갑니다.)

103054 @ 감저 밧디 어떤 검질덜 납니까?(고구마 밧에 어떤 김들 납니까?)

103054 #2 절환지엔 흐 거영, 그랏이엔 흐 거영, 그자 잡쿨덜 하영 나주.(바랭이라고 한 거하고, 가라지라고 한 거하고, 그저 잡풀들 많이 나지.)

103054 #1 절환지가 하영 나주, 여름 검질은.(바랭이가 많이 나지, 여름 김은.)

103054 @ 절환지흐고.(바랭이하고.)

103054 #1 속도 나고, 밧에 매주게. 밧디 검질 씨 진 밧은 하영 나고, 경 아니 흐영 감저줄 탁 더꺼져분 밧은 아니 메는 사름 아니 메곡, 밧에 메는 거. 경 흐영 감저 파 먹으멍 검질 메여, 검질 짓은 밧은.(속도 나고, 밧에 매지. 밧에 김 씨 진 밧은 많이 나고, 그렇게 아니 해서 고구마 덩굴 탁 덮어져버린 밧은 아니 매는 사람 아니 매고, 밧에 매는 거. 그렇게 해서 고구마 파먹으면서 김매어, 김 짓은 밧은.)

103055 @ 그다음에 감저 수확은 어떻 흡니까?(그다음에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55 #2 잘 들민 하영 나고.(잘 들면 많이 나고.)

103055 @ 경흐난 어떻, 켈 처음 감저줄 걷어야 할 거 아니우파?(그러니까 어떻게, 제일 처음 고구마 덩굴 걷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3055 #1 감저줄 경 걷어똥, 그걸 따로 잠대로 갈거든, 감저밧을. 갈민 조름의서 감저 주워.(고구마 덩굴 그렇게 걷어똥서, 그것을 따로 쟁기로 갈거든, 고구마 밧을. 갈면 뒤에서 고구마 주워.)

103055 @ 아, 거난에 감저줄 걷을 때 멀로 걸었수파?(아, 그러니까 고구마 덩굴 걷을 때 무엇으로 걸었습니까?)

103055 #1 호미로게.(낮으로게.)

103055 @ 쟁기로 걷지 안 했수과?(쟁기로 걷지 안 했습니까?)

103055 #1 쟁기로 걷는 사름이 드물어. 쟁기로 든 걷어지질 못 흐주게.(쟁기로 걷는 사람이 드물어. 쟁기로 모두 걷어지질 못 하지.)

103055 @ 쟁기로, 벧 떼어뒤근에 낭으로.(쟁기로, 벧 떼어뒤서 나무로.)

103055 #1 게난 그런 사름덜은 고랑으로만 감저줄만 영 영 테여칭 나두른 비는 디, 주로 호미로 밍니다. 밋밋 둥그리멍 문짜.(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랑으로만 고구마 덩굴만 이렇게 이렇게 떼어뒤서 놔두면 베는데, 주로 낮으로 밍니다. 밋밋 굴리면서 몽땅.)

103055 @ 경 흐영 비여근에.(그렇게 해서 베어서.)

103055 #1 경 흐영 내불어뒤근에, 이젠 감절 밧 갈양 좃어 곳일 거 아니우파.(그렇게 해서 내버려뒤서, 이젠 고구마를 밧 갈아서 주워 가질 거 아닙니까.)

103056 @ 감절 어떻 보관했수광?(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103056 #1 구덩이 광, 검질 꿀양, 어육이고 무슨 짝이고 꿀양 그레 감저 막 비와냥, 경 흐영 또 검질 더경 느람지, 그 새로 느람지 여꺼근에 느람지 둘렁, 더경 나뉘당 봄 낭 따시 팟주게. 느람지 걷어뵤 감절 팟주게.(구덩이 파서, 검불 깔아서, 억새고 무슨 짚이고 갈아서 그리로 고구마 마구 부어놔서, 그렇게 해서 또 검불 덮어서 이영, 그 띠로 이영 엮어서 이영 둘러서, 덮어서 놔뵤다가 봄 나서 다시 팟지. 이영 걷어뒤서 고구마를 팟지.)

103056 @ 느람지만 했수광?(이영만 했습니까?)

103056 #1 느람지만 했주게.(이영만 했지.)

103056 @ 느람지 위에 더끌 거.(이영 위에 덮을 거.)

103056 #1 더끌 거 엇어.(덮을 거 없어.)

103056 @ 주쟁이72).(주저리.)

103056 #1 주쟁이 우의 더끄른 매기.(주저리 위에 덮으면 끝.)

103056 @ 게, 그걸 자세히 곱서게.(그럼, 그것을 자세히 말하십시오.)

103056 #1 주쟁이, 이건 느람지 벧 둘러민 꼭대기 트멍나지 안 흡니까, 이추룩 흐른. 게문 주쟁이 멘들양 톱 더꺼불민 브름 걷어지카부텐 베로 역던지, 돌로 지둘 르던지, 경 흐는 거.(주저리, 이건 이영 빙 두르민 꼭대기 틈나지 안 함니까, 이처럽 하면. 그러면 주저리 만들어서 톱 덮어버리면 바람 걷어질까 싶어서 참바로 엮든지, 돌로 지지르든지, 그렇게 하는 거.)

103056 @ 감저 구덩이 말고 백장엔 안 놉디가?(고구마 구덩이 말고 벽장에는 안 놓았습니까?)

103056 #1 백장엔 이제사 남주게. 옛날에 그 작산 감절 어떻 백장에 놔. 이제 사름덜 헤꼬만 밧 구석에 흐 발씩 싱그는 사름게. 옛날엔 그 작산 감저 구덩이 판 문업주. 감저 구덩이 족족 팝니까게.(벽장에는 이제야 놓고 있지. 옛날에 그 많은

---

72) '주쟁이'는 띠나 짚으로 둥글게 엮어 가리 꼭지 따위에 덧덮는 물건이다.

고구마를 어떻게 벽장에 놓아. 이제 사람들 조그만 발 구석에 한 말씩 심는 사람게. 옛날에는 그 많은 고구마 구덩이 파서 묻고 있지. 감저 구덩이 작작 팝니까.)

103056 @ 감저 구덩이 몇 개 해납디가?(고구마 구덩이 몇 개 했었습니까?)

103056 #1 감저 구덩이 하나도 흐곡, 두 개도 흐곡, 감저에 매여.(고구마 구덩이 하나도 하고, 두 개도 하고, 고구마에 달려 있어.)

103056 #2 보통 두 개로 흐주.(보통 두 개로 하지.)

103056 #1 두 개로 물어. 이녁 손 디밀영 강 파떡곡, 파당 숲양 아기덜 벅이곡, 남은 거 씨 흐곡. 우리 월평<sup>73)</sup> 감저 씨 사례도 가나서, 문딱 찍어부난.(두 개로 물어. 이녁 손 들이밀어서 가서 파떡고, 파다가 삶아서 아기들 먹이고, 남은 거 씨 하고. 우리 ‘월평’ 고구마 씨 사례도 갔었어, 모두 찍어버리니까.)

103057 @ 그 감저론 멀 했수과?(그 고구마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103057 #1 감저로 무싱거, 숲양 떡곡, 감저뻗대기 방에 강 ㄱ루 흐영 떡도 처 떡곡, 경 했주. 계난 공출 해불곡 감저 순 숲양 정심으로게. 옛날은 먹을 것이 엇이 난, 보리밥 흐영 감저로 막 양식을 흐연 살앗주게, 우리가. 엇는 집에는.(고구마로 무엇, 삶아서 먹고, 고구마 고지 방아 가서 가루해서 먹고,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공출 해버리고 고구마 두루 삶아서 점심으로.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리밥 해서 고구마로 마구 양식을 해서 살았지, 우리가. 없는 집에는.)

103057 @ 계난 절간, 계난 감저뻗대기도 흐고, 그다음?(그러니까 절간, 그러니까 고구마 고지도하고, 그다음?)

103057 #1 뻗대긴 풀고, 거 뿐이주게. 감저뻗대기 ㄱ루 멘들양 즈베기도 행 떡곡, 떡도 행 떡곡.(고지는 팔고, 거 뿐이지. 고구마 고지 가루 만들어서 수제비도 해서 먹고, 떡도 해서 먹고.)

103057 @ 썩감저로는 안 팝디강?(생고구마로는 안 팔았습니까?)

103057 #1 썩감저로도 막 받아가, 상인 오랑. 받아강 돈도 못 받아내분 사름덜 토 하곡. 썩감저로 밧딜로 막 파당, 감저 깎 주지 안 흐 사름 하서.(생고구마로도 마구 받아가, 상인 와서. 받아가서 돈도 못 받아서 내버린 사람들도 많고. 생고구마로 밧에로 마구 파다가, 고구마 값 주지 안 한 사람 많아.)

103058 @ 감저쿨로는 머 했수과?(고구마 덩굴로는 뭐 했습니까?)

103058 #1 감저 줄긴 쉼 벅엿주게. 건 물리왕 쉼출.(고구마 덩굴은 소 먹었지. 그것은 말려서 소풀.)

103058 #2 쉼출, 쉼출.(소풀, 소풀.)

103058 #1 감저 싱글 때양, 요만씩 졸를 때는 ㄱ뻗이 순 요추룩 꺼경 데와근에 웬장 찍영 정심 반찬 흐곡, 경 해서. 먹을 거 엇이난.(고구마 심을 때요, 요만큼씩 짹을 때는 끝에 순 요처럼 꺾어서 데워서 된장 찍어서 점심 반찬 하고, 그렇게 했어. 먹을 거 없으니까.)

103058 @ 계난 쉼출?(그러니까 소풀?)

73) ‘월평’은 서귀포시 월평동을 일컫는다.

103058 #1 쉼출, 감저줄은 쉼출.(소꿀, 고구마 덩굴은 소꿀.)

103059 @ 감저 농사에 얽힌 추억 흔 번 말해봅서.(고구마 농사에 얽힌 추억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3059 #1 추억은 그거주 무신. 감저 싱글 때는 덩곡 얼떡곡, 오월 마 나부난, 비 잘잘 오명 맞곡 싱그곡, 고생 만이 했주게. 옛날 우리 살 때사, 거 사름 사는 거라. 감저줄 족으믄 집의 오랑 감저줄 비영 정 가젠 흐믄 스뭇 얼떡곡, 경 흐여낫수 게게. 그거 우리 시절 추억이라. 감저줄 저 오지 말렌 흐믄 질 좋아. 얼떡는 거, 고 생흐는 거. 쉼로 시꺼가는 사름, 등짐으로 저 가는 사름이 핫주게. 감저 싱그레 가는 사름 문딱 흔 짐씩 정 가. 경 흐연 밧디 강 앓앙 요만씩 즐랑 싱그곡, 경 핫주 게. 오월 마에 비 즐줄 맞으멍 싱그곡, 오월 마에 감저 싱그는 거난. 유월절 전의 싱거사, 옛날 감저는. 유월절 넘어불민 감저 아이 든덴 흐멍.(추억은 그거지 무슨. 고구마 심을 때는 덩고 얼떡고, 오월 마 나버리니까, 비 잘잘 오면서 맞고 심고, 고 생 많이 했지. 옛날 우리 살 때야, 그거 사름 사는 거라. 고구마 덩굴 적으면 집에 와서 고구마 덩굴 베어서 저서 가려고 하면 사뭇 얼떡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거 우리 시절 추억이라. 고구마 덩굴 저 오지 말라고 하면 제일 좋아. 얼떡는 거, 고 생 하는 거. 소로 실어가는 사름, 등짐으로 저 가는 사름이 많지요. 고구마 심으러 가는 사름 모두 한 짐씩 저서 가. 그렇게 해서 밧에 가서 앉아서 요만큼씩 잘라서 심 고, 그렇게 했지. 오월 마에 비 즐줄 맞으면서 심고, 오월 마에 고구마 심는 거니까. 유월절 전에 심어야, 옛날 고구마는. 유월절 넘어버리면 고구마 아니 든다고 하면 서.)

103059 @ 감저 과당 보민 주녕이도 하영 나오지양?(고구마 과다가 보면 지네도 많이 나오지요?)

103059 #1 게, 주녕이 나오믄 심어근에 풀곡게, 주녕이 잡으레 땡기는 사름 하. (그럼, 지네도 나오면 심어서 팔고, 지네 잡으러 다니는 사름 많아.)

103059 #2 주녕이 물어근에 손 알령 처매곡 흐영 벨 짓덜을 다 흐여.(지네 물어 서 손 아려서 처매고 해서 벨 짓들을 다 해.)

103059 #1 주녕이 뭍도 흐곡, 우린 주녕이 심어 풀아보진 안 흐엿주만은 주녕이 심으레 땡기는 사름 하메.(지네 뭍도 하고, 우리는 지네 잡아 팔아보지는 안 하엿지 만은 잡으러 다니는 사름 많지.)

## 기타 농사

103060 @ 그다음에 그 수박 갈아봅디가?(그다음에 그 수박 갈아봤습니까?)

103060 #1 아니, 난드른 수박 농사 흐는 사름 엿수다.(아니, '난드르'는 수박 농 사 하는 사름 없습디다.)

103060 @ 안 갈아봤주만은 수박은 어떻 농사지읍니까?(안 갈아봤지만은 수박은 어떻게 농사짓습니까?)

103060 #1 수박은양, 구땡이 팡, 그레 걸름을 놓던지 무싱거 흐영 수박씨 꼭꼭

찢러주게. 호박씨 흐듯 똑똑 찢르는데, 요즘에는 호박으로, 호박씨 물어, 묻으면은 호박 나가면 수박 그차당 접목시키는 거라, 폴레 텅기는 건. 옛날엔 그런 것이 었는데, 이제는 그거라, 접목시켜, 영 맞대가레로. 수박은 경 흐는 거, 구덩이 팡.(수박은 요, 구덩이 파서, 그리로 거름을 넣든지 무엇 해서 수박씨 똑똑 찢르고 있지. 호박씨 하듯 똑똑 찢르는데, 요즘에는 호박으로, 호박씨를 물어, 묻으면 호박 나가면 수박 끊어다가 접목시키는 거라, 팔러 다니는 건.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제는 그거라, 접목시켜, 이렇게 맞대어서. 수박은 그렇게 하는 거, 구덩이 파서.)

103060 @ 게른 며, 싱경만 내불민 수박이 옹니까?(그러면 뉘, 심어서만 내버리면 수박이 옹니까?)

103060 #1 게, 수박 걸름 주곡, 수박 장사 흐는 사름덜은 다 밧덜로. 난드른 수박 뉘지도 아니 흐곡, 싱그지도 아니 흐곡.(그럼, 수박 거름 주고, 수박 장사 하는 사람들은 다 밧으로.(‘난드르’는 수박 되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103060 @ 수박 순도 톨아야 뉘곡.(수박 순도 뜯어야 되고.)

103060 #1 순 톨암실거라, 지네대로.(순 뜯고 있을 거야, 제네 대로.)

103060 #2 순 톨아야 뉘여.(순 뜯어야 돼.)

103060 #1 순 톨암젠 홉디다.(순 뜯고 있다고 홉디다.)

103060 #2 멧 닙 강알로 톨 흐게 순 나오는 거 쫄랑 내불민, 거길로 이제 순 나오멍 제라흐게 수박이 올릴 거주게.(멧 일 사이로 톨 하게 순 나오는 거 잘라서 내버리면, 거기로 이제 순 나오면서 온전하게 수박이 열릴 거지.)

103060 #1 도막도막 믰디로 나는 거난. 호박도 믰디로 올메. 호박도 우녕에 낱나두믄, 믰디로 일로 고장 피영 올메. 수박이나 호박이나 톨궂뉘 모양이라.(도막도막 마디로 나는 거니까. 호박도 마디로 열지. 호박도 텃밭에 놓아서 놔두면, 마디로 이리로 꺾 피어서열지. 수박이나 호박이나 톨궂은 모양이라.)

103061 @ 춤웨 갈아뵈디가? 춤웨.(참외 갈아뵈습니까? 참외.)

103061 #1 춤웬 놔낫주.(참외 놓았었지.)

103061 #2 수박이영 한가지.(수박하고 마찬가지로.)

103061 #1 춤웨도 구덩이 팡 춤웨씨 뵈뵈 돌아가멍 똑똑 손으로 질러. 경 흐영 나민 좇으민 메영 데껴볼곡, 그거 크민 춤웨, 우 막곡 행 나두민 춤웨 올민 타당 먹는 거. 춤웨 장사도 안 흐여보곡.(참외도 구덩이 파서 참외씨 뵈뵈 돌아가면서 똑똑 손으로 질러. 그렇게 해서 나면 좇으면 매어서 던져버리고, 그거 크면 참외, 위 막고 해서 놔두면 참외 열면 따다가 먹는 거. 참외 장사도 안 해보고.)

103061 #2 춤웨도 마찬가지로, 수박 흐는 거나.(참외도 마찬가지로, 수박 하는 거나.)

103061 #1 경 흐여도 춤웨가 더 공들어.(그렇게 해도 참외가 더 공들어.)

103061 @ 게 어떤 공이 들어?(게 어떤 공이 들어?)

103061 #1 그 쥌쥌해부난게, 씨 뵈여근에 영영 똑똑 손으로 누들민. 이녁 먹젠 하르방덜.(그 쥌쥌해버리니까, 씨 뿌려서 똑똑 손으로 누르면. 이녁 먹으려고 할아버지들.)

103061 #2 송동이<sup>74)</sup> 막 일민 송동이 잡곡, 그만큼 얼먹어.(‘송동이’ 마구 일면 ‘송동이’ 잡고, 그만큼 얼먹어.)

103061 #1 케단 이제사 찰워 놓는 사람이 있어게, 장사 탱기민 사먹어불엄주.(그러니까 이제야 찰워 놓는 사람이 있어게, 장사 다니면 사먹어 버리고 있지.)

103062 @ 고치 갈아볶디가?(고추 갈아봤습니까?)

103062 #1 고치사 우녕에.(고추야 텃밭에.)

103062 @ 거 흔 번 곱아봅서.(거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3062 #1 메 사당 이녁냥으로, 고치씨 빼영 나는데, 이제는 쉽게 흔젠 오일장에 강 고춧메 사당 꼭꼭 싱경 나뉘주게.(모종 사다가 이녁대로, 고추씨 뿌려서 나는데, 이제는 쉽게 하려고 오일장에 가서 고추 모종 사다가 꼭꼭 심어서 놔두고 있지.)

103062 @ 옛날은?(옛날은?)

103062 #1 옛날엔 고치 경 하영 갈도 안 흔여, 멘네왔디 농곡 옛날엔, 멘네 갈민 멘네왔디 강 씨 빼영 나뉘, 멘네왔디 멘네 타레 강 고추 타오주게. 고치 하영 먹어서게 옛날에사, 경 헛주. 이젠 고춧메 사당 우녕에 이녁 먹을 거 풀꼬치 타 먹곡, 웬장 찍영 먹젠 풀꼬치 탕 매운 거여, 안 매운 거여 사당 메종 싱검주게. 옛날엔 멘네왔디 주장흔영 하영 놔, 그 고춧메. 경 흔영 멘네 타레 강 막 하영 탕 오메, 옛날엔. 옛날엔 고치 가는 사람도 엇곡, 김치도 경 하영 먹지도 안 흔곡게.(옛날에는 고추 그렇게 많이 갈도 안 해. 면화밭에 놓고 옛날에는, 면화 갈면 변 면화 밭에 가서 씨 뿌려서 놔뉘서, 면화 밭에 면화 따러 가서 고추 따오지. 고추 많이 먹어서 옛날이야, 그렇게 했지. 이제는 고추 모종 사다가 텃밭에 이녁 먹을 거 청량고추 따 먹고, 된장 찍어서 먹으려고 청량고추 따서 매운 거여, 안 매운 거여 사다가 모종 심고 있지. 옛날에는 면화 밭에 주장해서 많이 놓아, 그 고추 모종. 그렇게 해서 면화 따러 가서 아주 많이 따서 오지, 옛날에는. 옛날에는 고추 가는 사람도 없고, 김치도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안 하고.)

103062 #2 고치 가는 거 전문적으로 흔는 사람이 엇어노난게.(고추 가는 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103062 #1 짐치 철에 보민 고치 낱 짐치 흔는 사람도 멧 개 엇어.(김치 철에 보면 고추 넣어서 김치 하는 사람도 멧 개 없어.)

103062 #2 전문적으로 가는 사람 갈아시민 고치 타기 시작흔민 즈미집니다.(전문적으로 가는 사람 갈았으면 고추 따기 시작하면 재미있습니다.)

103062 #1 우리 딸도 고치 타레 탱기명 돈 버슬고렌 흔메. 장에 픈는 고치 맛대 가리 엇덴 흔명 이딧 고치 사오메.(우리 딸도 고추 따러 다니면서 돈 벌었다고 하지. 장에 픈는 고추 맛이 없다고 하면서 여기 고추 사오지.)

103064 @ 경흔고 저 늣뻐.(그리고 저 무.)

103064 #1 늣뻐도 씨 빼영 나두민 나는 거, 스까불곡 흔는 거주게.(무도 씨 뿌려

74) ‘송동이’는 참외 잎을 먹는 벌레이다.



서 놔두면 나는 거, 숨어버리고 하는 거지.)

103064 @ 거 어떻 갑니까?(거 어떻게 갑니까?)

103064 #1 옛날엔 우녕더레 늑삐씨 박박 빼영 나두민 나는 게, 그걸로 늑삐가 뒤텔주게. 큰 밧디 장사 하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도. 우녕에 씨 빼영 이녀 승키고, 이건. 늑삐씨로 빼영 내부는 거.(옛날에는 텃밭으로 무씨 박박 뿌려서 놔두면 나는 게, 그것으로 무가 되었지. 큰 밧에 장사 하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도. 텃밭에 씨 뿌려서 이녀 푸성귀고, 이건. 무씨 뿌려서 내버리는 거.)

103063 @ 그다음에 배추.(그다음에 배추.)

103063 #1 배추도 마찬가지로. 씨, 배추씨 빼영 소까똥, 좇이민 소까똥, 옛날엔 오줌 쳐다근에, 향아리에 오줌, 단지에 싸민 비왕 나뒤당 썩으민 허벅으로 쳐당, 그 배추에 조록조록 주멍, 경 흥영 김치 담았주게, 옛날엔. 경흥디 이 난드르양, 나가 씨집오란 보난에, 그 메역하는 망사리에 나물을 캐어단 담습디다. 어딜 정 간 바당 어염에 강 통에 간에 톱 녹전 돌 지들랏단 옷어당 김치 흥연 먹언게게.(배추도 마찬가지로. 씨, 배추씨 숨아뒤서, 갖으면 숨아뒤서, 옛날에는 오줌 쳐다가, 향아리에 오줌, 단지에 싸면 비워서 놔뒤다가 썩으면 허벅으로 쳐다가, 그 배추에 조록조록 주면서, 그렇게 해서 김치 담았지, 옛날에는. 그런데 이 ‘난드르’는요, 내가 시집와서 보니까, 그 미역하는 망사리에 나물을 캐어다가 담습디다. 어디를 쳐가서 바다 옆에 가서, 통에 가서 톱 늑혀서 돌 지질렀다가 가져다가 김치해서 먹던데.)

103063 @ 계난 소금 역할 하는 겁주.(그러니까 소금 역할 하는 거지요.)

103063 #1 춘물, 소금 죽영 들젠 춘물에 강 등그는 거. 옷드르사 소금물에 등그주만은, 이던 오란 어딜 쳐 감신고 흥단 보난에 통에 간에 망사리 톱 녹전 돌 지들랏단 건정 오란 김치 흡디다. 계난 소금 안 들젠 춘물에 간 크는 거.(짠물, 소금 적게 들려고 짠물에 가서 담그는 거. ‘옷드르’야 소금물에 담그지만은, 여기는 와서 어디를 쳐 가고 있는가 하다보니까 통에 가서 망사리 톱 늑혀서 지질렀다가 건져서 와서 김치 합디다. 그러니까 소금 안 들려고 짠물에 가서 담가 두는 거.)

103063 @ 거 머냐, 쪽 엇인 늑멸.(거 뭐냐, 속 없는 배추.)

103063 #1 옛날엔 쪽이 하지 안 흥여. 이제난 쪽 늑물벧기 엇는, 옛날엔 쪽 앓인 늑물이 드물곡, 기냥 보통 배추라노난, 그런 거라도 김치가 맛만 좋았어.(옛날에는 속이 많지 안 해. 이제니까 속 배추밖에 없는, 옛날에는 속 앓은 배추가 드물고, 그냥 보통 배추여놓으니까, 그런 거라도 김치가 맛만 좋았어.)

103063 @ 퍼렁흥 늑멸.(퍼렁 배추.)

103063 #1 예, 파리롱흥 걸로. 계난 양념도 경 맛 좋게 해서? 새우젓이 어디 있어.(예, 파르스름한 걸로. 그러니까 양념도 그렇게 맛 좋게 했어? 새우젓이 어디 있어.)

103063 @ 계난 언제 늑멸 갑니까?(그러니까 언제 배추 갑니까?)

103063 #1 늑물은게, 이제 이른 봄 나민 늑물씨 빼영 늑물 갈아야지, 여름에 흥영 먹주게. 경 흥영 팔뿔 나 가민 캐영 김치 했주게.(나물은요, 이제 이른 봄 나면

나물씨 뿌려서 나물 갈아야지, 여름에 해서 먹지. 그렇게 해서 팔월 나가면 캐어서 김치 했지.)

103063 @ 누물썬 어떻 멩글양?(나물씨는 어떻게 만들어서?)

103063 #1 누물씨 사다근에 우녕에 빼영, 씨 세왕 경 흐영 닥닥 털어나두민 그 씨로 박박 빼엿주게. 이제는 경 안 흐주게. 씨 사당, 시장에 강 문딱 사당 했주. 우리 어릴 땐 경 해서. 씨 누물 동지 세왕, 그 씨가 익으면 독석이고 멧이고 폐왕 닥닥 두드리민 씨가 털어지지 안 흡니까? 털어지민 그건 냉경 나뉘당 씨 빼영 갈곡, 유채 갈아근에 걸로 지름 빠다 먹곡, 야채 지름, 꽤 지름이 경 합니까? 야채, 야채 그거라, 그 누물을 지름 빠다 먹었주. 춤지름이 경 하질 안 흡주게. 어느 저름에 춤 지름 먹고 흐연 살앗수과. 그땐 배추지름, 이젠 야채지름, 그땐 배추지름. 옛날 산 말이사 먹는 것도 즐바로 못 먹곡게.(나물씨 사다가 텃밭에 뿌려서, 씨 세워서 그렇게 해서 닥닥 털어나두면 그 씨로 박박 뿌렸지. 이제는 그렇게 안 해. 씨 사다가, 시장에 가서 모두 사다가 했지.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했지. 씨 나물 장다리 세워서, 그 씨가 익으면 멧석이고 멧이고 퍼서 닥닥 두들기면 씨가 떨어지지 안 합니까? 떨어지면 그건 남겨서 놔뉘다가 씨 뿌려서 같고, 유채 갈아서 걸로 기름 빠다 먹고, 야채 기름, 참깨 기름이 그렇게 많습니까? 야채, 야채는 그거라, 그 나물을 기름 빠다 먹었지. 참기름이 그렇게 많지를 안 합지요. 어느 겨름에 참기름 먹고 해서 살았습니까. 그때는 배추기름, 이제는 야채기름, 그때는 배추기름. 옛날 살았던 말이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103065 @ 감자 농사 지어봘디가?(감자 농사 지어봘습니까?)

103065 #1 감저사 멘날 싱것주게, 매해에.(감자야 만날 심었지, 매해에.)

103065 @ 아, 지슬, 지슬.(아, 감자, 감자.)

103065 #1 아, 지슬, 지슬은양, 지슬은 이제는 고지로 밋밋 썰 놓는다, 옛날은.(아, 감자, 감자는요, 감자는 이제는 이랑으로 밋밋 씨를 놓는데, 옛날은.)

103065 @ 옛날 걸로 굴읍서.(옛날 걸로 말하십시오.)

103065 #1 게메 옛날은 구덩일 팝디다. 요만씩 요만씩 밧디 가민 구덩이 파민, 집의 시궁 통이 있어. 시궁 통 흐민 씨레길 비왕 나두민 다 걸름돼지 안 흡니까. 게 문 그거 굴체로 날라다 놔근에 밧디 강 비왕 나뉘당, 그 구덩이 판디레 솔박<sup>75)</sup>으로 던지 그 걸름을 툭툭 놔. 걸름을 낵 이젠 영 더꺼근에, 씨 흘그민 벌르곡, 그냥 흐영 썰 세 개민 세 개, 네 개민 네 개 구덩이에 밧디 다 낵 나뉘. 게문 곳 올리레 가곡, 흑 올리레 가곡, 검질 메레 가곡, 경 햇당 우리가 파레 가젠 흐민, 문딱 아이 판 때 파레 가민, 물에 씻으레 가민, 거 멧 굳 판 거 잘 들엇저이, 세 굳 판 거여, 네 굳 판 거여, 다섯 굳 판 거여, 경 해났주게. 지슬 파당 메날 숲양 먹곡, 지슬로 양식을 했어.(글쎄 옛날은 구덩이를 팝디다. 요만큼씩 요만큼씩 밧에 가면 구덩이 파면, 집에 시궁 통이 있어. 시궁 통 하면 쓰레기를 비워서 놔두면 다 거름되지 안 합니까. 그러면 그거 삼태기로 날라다 놓아서 밧에 가서 비워서 놔뉘다가, 그 구덩이 판

75) '솔박'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이다.

곳으로 ‘술박’으로든지 그 거름을 툽툽 놓아. 그 거름을 놔서 이젠 이렇게 덮어서, 씨 굵으면 쪼개고, 그냥 해서 씨를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구덩이에 밭에 다 놔서 놔둬. 그러면 북 올리러 가고, 흙 올리러 가고, 김매러 가고,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파러 가려고 하면, 모두 아니 판 때 파러 가면, 물에 씻으러 가면, 거 몇 북 판 거 잘 들었다이, 세 북 판 거여, 네 북 판 거여, 다섯 북 판 거여, 그렇게 했었지. 감자 파다가 만날 삶아서 먹고, 감자로 양식을 했어.)

103065 @ 걸름은 아까 무슨 거로.(거름은 아까 무슨 거로.)

103065 #1 시궁, 시궁 통에, 담 다왕 시궁 통을 멘들앙 나뉜. 게른 마당이든 몬 지레기영 막 그레 담지 안 흡니까. 게른 거 썩으면 걸름 돼지 안 흡니까. 경흐민 굴채로 벳것디로 내청 지슬 논 밧디레 저다 놔, 홉을 빌엇던지 저다 낱, 경흐민 구덩이 판 디레 굴채로 흐명 툽툽툽툽 비와근에 이제 흑 더꺼근에 지슬썰 꼭꼭 질렁 나뉜당 지슬이라.(시궁, 시궁 통에 담 다서 시궁 통을 만들어서 놔둬. 그러면 마당이든 먼지하고 마구 그리로 담지 안 흡니까. 그러면 거 썩으면 거름 되지 안 흡니까. 그러면 삼태기로 바깥으로 내쳐서 감자 놓은 밭으로 저다 놔, 홉을 빌든지 저다 놔, 그러면 구덩이 판 데로 삼태기고 하면서 툽툽툽툽 비워서 이제 흙 덮어서 감자씨를 꼭꼭 찢러서 놔뒀다가 감자라.)

103065 @ 게 언제 갑니까?(그거 언제 갑니까?)

103065 #1 그거, 것도 마찬가지로 봄. 경 흐영 여름에 오월 마에 파레 가곡.(그거, 것도 마찬가지로 봄. 그렇게 해서 여름에 오월 마에 파러 가고.)

103065 #2 지슬은 이삼월에 싱그주기.(감자는 이삼월에 심지.)

103065 @ 불치덜은 안 낫수가?(불티들은 안 넣었습니까?)

103065 #1 불치 놔. 불치도 농곡, 불치 신 사름은 불치 농곡, 옛인 사름은. 그 시궁 통 논 우의도 불치를 허꺼, 지슬 놀 때.(불티 넣어. 불티도 넣고, 불티 있는 사름은 불티 넣고, 없는 사름은. 그 시궁 통 놓은 위에도 불티를 섞어, 감자 놓을 때.)

103065 #2 옛날에 집의게 굴목<sup>76)</sup> 짓곡, 낭불 숨지 안 흐여, 낭불 숨으면 불치가 하영 나오주기.(옛날에 집에게 ‘굴목’ 짓고, 나무불 때지 안 해, 나무불 때면 불티가 많이 나오지.)

103065 #1 온돌 흐민 불치 놓는 디가 잊지 안 흐우파? 이딘 솟 앓지곡, 이 뒤에 맨 불치. 게민 그거 담아당 지슬 놀 때영, 밧디 모멸 놀 때도 쓰곡, 모멸 농사 할 때도 불치가 주장이라. 불치 시꺼당 느람지 둘러 나두메, 모멸 논 밧은.(온돌 하면 불티 놓는 데가 있지 안 합니까? 여기는 솔 앓히고, 이 뒤에 전부 불티. 그러면 그거 담아서 감자 놓을 때하고, 밭에 메밀 놓을 때도 쓰고, 메밀 농사 할 때도 불티가 주장이라. 불티 실어다가 이영 둘러 놔두지요, 메밀 놓은 밭은.)

103065 @ 게난 지실로는 멀 행 먹엇수과? (그러니까 감자로는 무엇을 해서 먹었습니까?)

103065 #1 게난 지실은 숲양 떡곡, 그거뿐이주 무싱거라게. 옛날엔 떡을 행 먹

76)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카, 솥양 먹는 게 주장. 옛날엔 보리밥만 먹으난 지실 하영 먹었주게. 경하고 반찬  
햅영 떡국, 지슬 볶양. 이젠 다마네기라도 잇주, 그땐 맨 지슬만. 이만큼 존존햅 거,  
베깁이라도 햅민 좋아. 그냥 거죽 채 볶양, 볶안 먹었주기.(그러니까 감자는 삶아서  
먹고, 그거뿐이지 무엇이랴. 옛날에는 떡을 해서 먹을까, 삶아서 먹는 게 주장. 옛날  
에는 보리밥만 먹으니까 감자 많이 먹었지. 그리고 반찬 해서 먹고, 감자 볶아서.  
이제는 양파라도 있지, 그때는 전부 감자만. 이만큼 잔잔한 거, 벳깁이라도 하면 좋  
아. 그냥 거죽 채 볶아서, 볶아서 먹었지.)

103066 @ 피 농사 저 볶디가?(피 농사 저 봤습니까?)

103066 #1 피 몰라, 저 동촌<sup>77</sup>벳기.(피 몰라, 저 ‘동촌’밖에.)

103066 #2 여긴 안 햅여.(여기는 안 해.)

103066 #1 피엔 햅 건 꼴도 구경해 보지 아이 햅고 몰라.(피라고 한 건 꼴도 구  
경해 보지 아니 하고 몰라.)

103067 @ 모멸 해 볶디가?(메밀 해 봤습니까?)

103067 #1 모멸이사, 감산이 아이 때.(메밀이야, ‘감산리’ 아이 때.)

103067 @ 모멸은 언제?(메밀은 언제?)

103067 #1 어느 때 햅느냐 햅면은, 봄 나민 밧을 막 번햅여, 모멸 농젠 햅민. 번  
햅영 나뉘당 칠월애 모멸을 농주게. 모멸을 농면은 저 불치, 아까<sup>ㄴ</sup>찌 불치 시민 밧  
디 시꺼다근애 막 <sup>ㄴ</sup>람지 둘렁 나두메, 나뉘디다게. 그추룩 햅민 그거 햅영 나뉘당  
칠월 나민, 모멸골 굿으레 가쟁 햅민, 아척 캄캄한 때 강, 장남 강 모멸골을 짓어,  
경 햅민 이제 여자덜은 승키 구덕, 친 맨 거, 으정 강 모멸쌀 불치레 막 서꺼. 서경  
나뉘다근애 여자덜은 가근애 그거 담으멍 툯 툯 툯 모멸 골 굿어나둔 골마다, 고지  
마다, 골마다 툯 툯 툯 좁아농주게. 경 햅영 내중에는 섬비질. 모멸 여자가 농면은  
섬비질을 햅여. 경햅민 걸로 끗, 모멸팍은. 경 햅영 <sup>ㄴ</sup>슬 들른 모멸 비는 거.(어느  
때 하느냐 하면은, 봄 나면 밧을 막 애벌같이 해, 메밀 농으려고 하면. 애벌같이 해  
서 놔뉘다가 칠월애 메밀을 농지. 메밀을 농면은 저 불티, 아까같이 불티 있으면 밧  
애 실어다가 막 이영 둘러서 놔두지요, 놔뉘디다. 그처럼 하면 그거 해서 놔뉘다가  
칠월 나면, 메밀 고랑을 그으러 가려고 하면, 아침 캄캄한 때 가서, 건강한 일꾼 가  
서 메밀 고랑을 짓어,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푸성귀 바꾸니, 끈 맨 거, 가져서 가서  
메밀씨를 불티로 막 섞어. 섞어서 놔뉘다가 여자들은 가서 그거 담으면서 툯 툯 툯  
메밀 고랑 그어서 놔둔 고랑마다, 고지마다, 고랑마다 툯 툯 툯 집어농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섬비질’. 메밀 여자가 농면은 ‘섬비질’을 해. 그러면 걸로 끝, 메밀밭  
은. 그렇게 해서 가을 들면 메밀 베는 거.)

103067 @ 비여근애?(베어서.)

103067 #1 비여근애, 명석이영 문, 옛날엔 명석 <sup>ㄴ</sup>정 밧디 가. 도계질 햅여. 모  
멸냥 트로 시꺼 오곡, 모멸 트로 시꺼 오곡, 장남 빌멍 모멸 두드리레 가곡, 모멸은  
비여 농면은 집의, 난 모멸 햅영 날르젠, 두드리젠 햅민 이만씩 아시날 강 문딱 모

77) ‘동촌’은 서귀포시 동쪽 마을들을 일컫는다.

여봐. 밧더레 영 모여 놓니다게. 모여 노민 그 집의 누겔 빌든지, 아인 모멸 두드리 는 디레 그걸 날라가. 날라강 이레 노면은 걸 장남덜은 강 막 두드릴 거 아니우파 게. 두드리민 이젠 모멸낭 흔 명석 해나민 모멸낭만 데껴뵤 따로 그거 담아뵤 따로 모멸을 차례로 짚아. 경흐민 따시 이젠 또 두드리곡. 경 흐영 문 두드러지민 모멸낭 저레 데경, 모멸낭 무끄는 사름이 왕 무끄민 므쉬로 시경 집더레 시꺼가는 사름, 경 흐영. 경 흐여뵤 그 모멸을 불러, 드룻밧디서 불러사 흘 거 아니우파. 불령 모멸랑 그냥 시꺼 오곡, 그추룩 했수다. 경 흐영 집의 오민 그 모멸은 어떻 흐영 쓸을 멘드 느냐, ㄱ레에 거퍼, ㄱ레에. 그 모멸을 파삭 물리우민 들이치명, ‘이어동 흐라’<sup>78)</sup>, 흐른 거죽 트로 쓸 트로 나오거던.(베어서, 명석하고 모두, 옛날엔 명석 가져서 발 에 가. 도리깨질 해. 메미짚 따로 실러 오고, 메밀 따로 실어 오고, 건강한 이꾼 빌 면서 메밀 태작하러 가고, 메밀은 베어 놓면은 집에, 난 메밀 많이 나르려고, 태작 하러 하면 이만큼씩 전날 가서 모두 모여봐. 밧으로 이렇게 모여 놓니다. 모여 놓으 면 그 집에 누겔 빌든지, 아이는 메밀 태작하는 데로 그것을 날라가. 날라서 이리로 놓면은 걸 건강한 일꾼들은 가서 막 태작할 거 아닙니까. 태작하면 이젠 메밀짚 한 명석 했으면 메밀짚만 던져뵤서 따로 그거 담아뵤서 따로 메밀을 차례로 짚아. 그 러면 다시 이젠 또 태작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 태작하면 메밀짚 저리로 던져, 메밀 짚 묶는 사름이 와서 묶으면 마소로 실어서 집으로 실어가는 사름, 그렇게 해서. 그 령게 해뵤서 그 메밀을 드려, 들밭에서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드려서 메밀랑 그 냥 실어 오고, 그처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오면 그 메밀은 어떻게 해서 쓸 을 만드느냐, 맷돌에 거퍼해, 맷돌에. 그 메밀을 바삭 말리면 들이치면서, ‘이어동 하라’, 하면 거죽 따로 쓸 따로 나오거든.)

103067 @ 거 노래 흔 번 해 봅서.(거 노래 한 번 해 보십시오.)

103067 #1 ㄱ레야, 이 모멸이 까지냐 아이 까지느냐 이어뵤 흐라, 경 흐명 모멸 거퍼주게. 거퍼민 이젠 체로 쳐 그거를. 스투기도 잇고 푸는체로 치민, 또 모멸쓸을 푸는체로 곱닥하게 멘들주게. 스투기도 잇곡, 모멸 상품 쓸도 잇곡, 경 했수다게. 경 흐영 또 모멸ㄱ루 곱앙 빙떡<sup>79)</sup>도 지지곡, 즈배기도 해 떡곡, ㄱ레에 곱앙.(맷돌아, 이 메밀이 까지느냐 아니 까지느냐 ‘이어동 하라’, 그렇게 하면서 메밀 거퍼하지. 거 퍼하면 이젠 체로 쳐 그거를. 싸라기도 잇고 키로 치면, 또 메밀쌀을 키로 곱게 만 들지. 싸라기도 잇고, 메밀 상품 쌀도 잇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메밀 가루 갈아서 ‘빙떡’도 지지고, 수제비도 해 먹고, 맷돌에 갈아서.)

103067 @ 여기 빙떡이엔 흠니까?(여기 ‘빙떡’이라고 합니까?)

103067 #1 빙떡, 옛날엔 빙떡, 이젠 빙이엔 햄주만은, 사투리가 엇이난 빙이엔 햄주게, 옛날은 빙떡.(‘빙떡’ 옛날에는 ‘빙떡’, 이제는 ‘빙’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 투리가 없으니까 ‘빙’이라고 하고 있지, 옛날은 ‘빙떡’.)

78) ‘이어동 흐라’는 맷돌노래의 후렴구다. ‘이어동 하라’의 의미다. 여기에서 ‘이어동’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다.

79) ‘빙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팔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 고서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이다.

103067 @ 우리 동네선 영빈<sup>80</sup>)이엔 햏여.(우리 동네서는 ‘영빈’이라고 햏.)

103067 #1 영빈이엔 햏니다, 이디도. 건 이제사 난 말이고.(‘영빈’이라고 햏니다, 햏기도. 건 이제야 난 말이고.)

103067 @ 영빈, 영빈.(‘영빈’, ‘영빈’.)

103067 #1 영빈은 이제사 난 말이고, 옛날 우리 실 땡 빙떡, 아이고 빙 지지레 가사겘, 솟뚜겘이에.(‘영빈’은 이제야 난 말이고, 옛날 우리 있을 때는 ‘빙떡’, 아이고 ‘빙’ 지지러 가야할 겘, 솟뚜겘에.)

103067 @ 영빈이 옛날 말 아니우짜?(‘영빈’이 옛날 말 아니니까?)

103067 #1 아니, 아니. 영빈은 이제사 난 말, 영빈은. 경햏디 솟뚜겘이에 불 솟아근에, 빙 지지는 솟뚜겘이가 잇어이. 경 아이 햏민 바로 밥 햏 햏 먹는 솟뚜겘이에 지지던지, 경 아이 햏민 부갓칩의는 솟뚜겘이, 이제 ㄱ뜨민 후라이판 모양으로 잇어. 경햏민 낭불로 게멩이 솟앙 빙을 지겘주게. 이제는 멏 후라이판이여 햏근 거 햏 영 박박 지지불어도, 옛날에 그췏룩 햏수다. 경햏고 늣뻘 햏곡, 께 놓곡 햏영 저 거 세기 쪽과, 께마농. 이제 쪽과주만은 옛날은 께마농이주 쪽과ㄱ라, 께마농 쫓쫓 썰 영 늣뻘채레 서꺼근에, 이제 그겘 놓멍 빙빙 물민 빙떡이주게. 이제 쪽판디 옛날엔 께마농.(아니, 아니. ‘영빈’은 이제야 난 말, ‘영빈’은. 그런데 솟뚜겘에 불 때어서, ‘빙’ 지지는 솟뚜겘이 잇어. 그렇게 아니 햏면 바로 밥 햏먹는 솟뚜겘에 지지던지, 그렇게 아니 햏면 부갓집에는 솟뚜겘이, 이제 같으면 후라이판 모양으로 잇어. 그러면 나무불로 약햏게 삶아서 ‘빙’을 지겘지. 이제는 멏 후라이판이여 온갓 거 햏서 박박 지지버려도, 옛날에 그쳐럼 햏습니다. 그리고 무햏고, 참게 넣고 햏서 저 거시기 쪽과, ‘께마농’. 이제 쪽과지만은 옛날은 ‘께마농’이지 쪽과더러, 쪽과 잘잘 썰어서 무채로 섞어서, 이제 그것을 넣으면서 빙빙 말면 ‘빙떡’이지. 이제는 쪽과인데 옛날은 ‘께마농’.)

103067 @ 그다음 빙떡 멘들고, 그다음?(그다음 ‘빙떡’ 만들고, 그다음?)

103067 #1 모멸쌀 햏영 곱앙 즈배기도 햏 햏곡게, 새미떡<sup>81</sup>)도 식게에 멘들곡게.(메밀쌀 햏서 같아서 수제비도 햏서 햏고, ‘새미떡’도 제사에 만들고.)

103067 #2 돌레떡<sup>82</sup>)도 멘들고.(‘돌레떡’도 만들고.)

103067 #1 옛날엔 영장밭디 등절비<sup>83</sup>). 곤떡으로도 등절비 햏곡, 그 상뒤 테우는 거 세 개민, 경햏민 모멸은 이만씩 벵돌락햏 다데<sup>84</sup>), 그건 상뒤 테우는 거, 경 햏여 낫수게, 모멸은. 경 햏수다게.(옛날에는 장지에 ‘등절비’. 흰떡으로도 ‘등절비’ 햏고, 그 햏도 테우는 거 세 개면, 그러면 메밀은 이만큼씩 등그런 ‘다데’, 그건 햏도 테우는 거, 그렇게 햏었습니다, 메밀은. 그렇게 햏습니다.)

103067 @ 그다음에.(그다음에.)

80) ‘영빈’은 ‘빙떡’을 서귀포시 색달동에서는 이르는 말이다.

81) ‘새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팔소 등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82)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이다.

83) ‘등절비’는 흰쌀로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찌거나 삶아낸 후에 팔고물을 묻힌 떡이다.

84) ‘다데’는 당에 갈 때 재물로 바치는 둥글납작한 떡이다.

103067 #1 죽 썰 먹곡, 묵 호곡.(죽 썰서 먹고, 묵 하고.)

103067 @ 모멸체로는?(메밀 걸쭉질로는?)

103067 #1 모멸체 베게에 놓곡, 비와붉도 호곡, 불치레 강 낱 흔디 굴묵 짙어불곡, 베게에 놓곡, 경 햇주. 이젠 모멸체 베게가 엇어. 사름은 모멸체 베게가 최곤디 이젠 모멸체 베게가 엇입니다.(메밀 걸쭉질은 베게에 넣고, 부어버림도 하고, 불티로 가서 놔서 함께 ‘굴묵’ 때어버리고, 베게에 넣고, 그렇게 했지. 이제는 메밀 걸쭉질 베게가 없어. 사름은 메밀 걸쭉질 베게가 최고인데 이제는 메밀 걸쭉질 베게가 없습니다.)

103067 @ 무사 아기 나난 다음에 모멸?(왜 아기 나니까 다음에 메밀?)

103067 #1 아기 나난 건 메역국, 거 모멸로 즈배기.(아기 나니까 건 미역국, 거 메밀로 수제비.)

103067 @ 피 삭인텐 호영.(피 삭인다고 해서.)

103067 #1 피, 피 삭인텐 호영 모멸, 메역 바락바락 놓멍 쑤영 맥엿주게. 이제사 무슨 병원에서 나곡, 그거 맥염수과? 안 맥입니다. 흔 닷새 행 맥여, 아기 어멍. 시어멍이.(피, 피 삭인다고 해서 메밀, 미역 바락바락 넣으면서 썰서 먹었지. 이제야 무슨 병원에서 낳고, 그거 먹이고 있습니까? 안 먹입니다. 한 닷새를 해서 먹여, 아기 어머니. 시어머니가.)

103067 @ 그다음에 모멸냥은 머 햇수과?(그다음에 메밀짚은 뭐 했습니까?)

103067 #1 모멸냥은 물리왕 진을커도 호곡, 그냥.(메밀짚은 말려서 빨감도 하고, 그냥.)

103067 #2 보통 진을커.(보통 빨감.)

103067 #1 진을커가 하영 햇주.(빨감이 많이 했지.)

103067 @ 쉼 안 먹지양?(소는 난 먹지요?)

103067 #1 쉼 잘 안 먹어, 쉼출도 줌도 줘서.(소 잘 안 먹어, 소꼴도 줌도 줘서.)

103068 @ 거난에 담배 농사 지어뵈디가?(그러니까 담배 농사 지어뵈습니까?)

103068 #1 난 담배 아니 호고, 우리 하르버지가 담배 호연 폴아났어.(난 담배 아니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담배 해서 팔았었어.)

103068 @ 게 거 어땡 지읍디가?(게 거 어떻게 지었습니까?)

103068 #1 섭담배양, 저 큰 밧을 하나 호민 담뱃메 놓니다. 담뱃메 놓민 요만씩 홀그민 그거 옷어당 문딱 고지마다 싱거, 놓 빌영. 싱그민 거 커가민 고완 장여 나뵈당, 커가는냥 담배섭을 툭툭 툭읍네다, 강. 툭아오민 물리왕 여깡, 짝으로 여깡 막 돌아메영 물립니다, 그늘에서, 담배를. 우리 하르방이 담배 농사 하영 벌어났주게, 우리 친정 하르버지가. 경호른 쉼막의고, 무똥<sup>85)</sup>의고 담배 짝으로 여까근에 막 물립니다다게. 물리우민 공출이 잇수다. 담배 푸는 날이 잇어. 그땐 푸는 날 강 잘 물리왕 노랑게 잘 호민 일등, 이등 경 홉디다. 경호고 딱시 퍼렁흔 때 썰영 덕석우의 년 건 풀담배, 건 엇인 사름 벌어당 먹는 거, 경 홉디다. 난 우리 할아버지가 담배 농

85) ‘무똥’은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사 해나난 알아지주. 경 안 흥영 모릅니다, 담배가 어떤 거. 우리 할아버지 큰 밭디, 이장 흥단 설르난에 큰 밭디 농사 흥연, 담배 농살 흡디다게. 거리왓디, 큰 밭디 담배 농살 흡디다게. 나 친정 하르방 담배 농사 해나난 알주, 어떻 압니까, 우리.(일담 배요, 저 큰 밭을 하나 하면 담배 모종 놓니다. 담배 모종 놓으면 요만큼씩 굶으면 그거 가져다가 모두 고지마다 심어, 놓 빌어서. 심으면 거 커 가면 고완 장여 놔뒀다가, 커가는 대로 담뱃잎을 툭툭 뜯습니다, 가서. 뜯어오면 말려서 엮어서, 짚으로 엮어서 막 달아 메어서 마릅니다, 그늘에서, 담배를. 우리 할아버지가 담배 농사 많이 벌었었지, 우리 친정 할아버지가. 그러면 외양간이고, ‘무똥’에고 담배 짚으로 엮어서 막 말립니다. 말리면 공출이 있습니다. 담배 파는 날이 있어. 그때는 파는 날 가서 잘 말려서 노랑게 하면 일등, 이등 그렇게 합디다. 그리고 다시 퍼럴 때 썰어서 멍석 위에 넌 건 풋담배, 건 없는 사람 빌어다가 먹는 거, 그렇게 합디다. 난 우리 할아버지가 담배 농사 했었으니까 알아지지. 그렇게 안 해서 모릅니다, 담배가 어떤 거. 우리 할아버지 큰 밭에, 이장 하다가 그만두니까 큰 밭에 농사해서, 담배 농사를 합디다. 마을 안에 있는 밭에, 큰 밭에 담배 농사를 합디다. 나 친정 할아버지 담배 농사 했었으니까 알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103068 @ 계난 본 짐작으로 흥영 말흡서게.(그러니까 본 짐작으로 해서 말하십시오.)

103068 #1 짐작으로 그거주기. 담뱃메 낱 요만큼씩 느멀 이제 나뒸 요만큼씩 나민 고지마다 강 다 싱급니다. 계민 키와근에 켜 이만이 올라오민 담배섭 알로 즈근즈근 타가, 툭아와. 툭아왕 이제 찍으로 느람지 여끄뒸 여까근에 지랑지랑 돌아메영 넘디다게. 우리 하르버진 담배 농살 전업으로 흥난 담배 엇이민 빌레 가곡 흡디다게, 풀담배. 우리 하르버진 집 즈갓디 거리왓, 큰 밭 잇이난 담배 농살 흡디다게. 밥긱영 오렌 흥곡, 담배 툭젠 흥민. 오랑 저 가렌 흥민, 이만큼씩 넘작넘작 흥 거, 저긱영, 흥정 흥곡 헤낫수다, 우리.(짐작으로 그거지. 담배 모종 놓아서 요만큼씩 배추 이제 나뒸 요만큼씩 나면 이랑마다 가서 다 심습니다. 그러면 키워서 커서 이만큼 올라오면 담뱃잎 아래로 자근자근 따와, 뜯어와. 뜯어와서 이제 짚으로 이영 엮뒸 엮어서 주렁주렁 달아메어서 널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 농사를 전업으로 하니까 담배 없으면 빌러 가고 합디다, 풋담배. 우리 할아버지는 집 곁에 ‘거리왓’, 큰 밭 잇으니까 담배 농사를 합디다. 밥 가져서 오라고 하고, 담배 뜯으려고 하면. 와서 저 가라고 하면, 이만큼씩 한 거, 저서 가져서, 가져서 하고 했었습니다.)

103068 @ 이 위에 농사지은 건 엇수과?(이 외에 농사지은 건 없습니까?)

103068 #1 보리 갈곡, 모멸 흥곡, 웃드르난 콩 갈곡, 그거주게. 멘네 타레 가곡 게.(보리 갈고, 메밀 갈고, ‘웃드르’니까 콩 갈고, 그거지. 면화 따러 가고.)

103068 @ 멘네, 멘네.(면화, 면화.)

103068 #1 멘네는 난드르 오난, 밭 버는디 빈 밭디 강 몸을 해당 막 시꺼다냥 고랑마다 곱디다게, 웃드르 경 안 흥는다. 난드르 멘네 하영 가는 디난 고랑마다 강 막 밭로 부치멍 흥명 밋밋 낱, 이젠 멘네씨 빼여근에 걸 저 밭 곱디다. 밭 갈면은



이젠 섬비질 해 불민 멘네라. 멘네냥 나민 매날 검질 메레 가곡, 멘네밧디 고치씨  
 빼여근에 고치 타오곡, 딱시 어염엔 돛비 농곡, 딱시 강낭콩 농곡, 강낭콩 타당 숲  
 앙 떡곡.(면화는 ‘난드르’ 오니까, 밭 버는데 빈 밭에 가서 모자반 해다가 막 실어다  
 놔서 고랑마다 갑디다, ‘웃드르’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난드르’는 면화 많이 가는 데  
 니까 고랑마다 가서 막 밭로 붙이며 하면서 밋밋 놓아서, 이젠 면화씨 뿌려서 걸  
 저 밭에 갑디다. 밭 갈면 이젠 ‘섬비질’ 해 버리면 면화라. 면화나무 나면 만날 김매  
 러 가고, 면화 밭에 고추씨 뿌려서 고추 따러 오고, 다시 옆에는 동부 놓고, 다시  
 강낭콩 놓고, 강낭콩 따다가 삶아서 먹고.)

103068 @ 계난 멘네 갈젠 흐민 켈 처음에.(그러니까 면화 갈려고 하면 제일 처  
 음에.)

103068 #1 켈 처음에 몸, 몸 시꺼당 고랑마다 꼴아. 몸도 매 사름에 엇수다게.  
 우리 씨아버지가 데 흐영 몸 비여오주게. 바당에서 물리왕 쉼로 막 시꺼다 놓민 하  
 이고 몸 꼴레 가젠 흐민 고생이여. 씨어멍, 씨누이하고, 나하고 가민 막 질민 호미로  
 끄치멍 매 고랑마다 밧 숨뻑 갑주게. 꼴민 이제 멘네씨 빼여근에 이젠 섬비질 흐민  
 멘네라.(제일 처음에 모자반, 모자반 실어다가 고랑마다 깔아. 모자반도 모든 사람  
 에 없습디다. 우리 시아버지가 떼 해서 모자반 베어오지. 바다에서 말려서 소로 막  
 실어다가 놓으면, 아이고 모자반 깔러 가려고 하면 고생이여. 시어머니, 시누이하고,  
 나하고 가면 아주 길면 낮으로 꿇으면서 모든 고랑마다 가득 깔지요. 깔면 이제 면  
 화씨 뿌려서 이젠 ‘섬비질’ 하면 면화라.)

103068 @ 밧은 안 갈고?(밭은 안 갈고?)

103068 #1 밧 갈앙게, 멘네씨 빼영 밧 갈앙, 경 흐영 섬비질 흘 거 아니우파?  
 갈아냥 멘네씨 빼민 몸 낀 디, 밧을 갈아 냥 우트레 멘네씨 빼민 물어지지 안 흐지  
 안 흐우파? 경 흐영 섬비질을 흐민 멘네씨 물어질 거 아니우파? 경 흐영 내불민 집  
 의 오민 모멸모냥 다글다글<sup>86)</sup> 나갑디다. 나가민 요만이 나가민 검질 짓어가민 매날  
 멘네왔디 검질 메레.(밭 갈아서, 면화씨 뿌려서 밧 갈아서, 그렇게 해서 ‘섬비질’ 할  
 거 아납니까? 갈아놔서 면화씨 뿌리면 모자반 칸 데, 밧을 갈아 놓아서 위로 면화  
 씨 뿌리면 물어지지 안 하지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섬비질’을 하면 면화씨 물어  
 질 거 아납니까? 그렇게 해서 내버리면 집에 오면 메밀처럼 ‘다글다글’ 나갑디다.  
 나가면 요만큼 나가면 김 깎어 가면 만날 면화 밭에 김매러.)

103068 @ 멘네 밧디 무슨 검질덜 나?(면화 밭에 무슨 김들 나?)

103068 #1 절란지, 자쿨 다 나누게. 몸 꼴아, 흐 디 검질 다박다박. 경흐민 이제  
 멘네 타레 가는 건 송키 구덕 흐영 강, 이제는 집의 타당 까주만은, 그뎨 멘네왔디  
 서 문딱 까. 흐나 흐 곡지 탕 까농곡, 흐 곡지 탕 까농곡 흐영 멘넬 타민, 멘네 이  
 만이 흐 밧디 흐민 사흘은 타레 멩겨사 흡디다. 타당 물리왕 이젠 멘네 브르는물레  
 가 잇지, 옛날엔. 이젠 공장에 나난에, 서림이<sup>87)</sup>엔 공장에 중간에 낫디다만은, 멘네

86) ‘다글다글’은 제보자가 씨앗 싹이 잘 나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표준어 ‘모록모록’의 뜻으로 쓰인  
 것 같다.

87) ‘서림이’는 서귀포시 대정읍 서림리이다.

브르는 거, 멘네 맥이멍 블라. 게민 두이로 멘네 나오민, 그걸로 멘네 테우는 디 강 정, 멘네 좇쟁 흐민, 미녕 흐젠 흐민, 멘네 소랑소랑하게 문 밀어다근에 즈근즈근 무쨍 오랑 집의 오랑, 옛날 물레, 걸로 뱅뱅 돌려근에 씨 영 나오곡, 경 흐연 그걸로 미녕 흐곡 헛수게게.(바랭이, 잡풀 다 나지. 모자반 깔아, 함께 김 다박다박. 그러면 이제 면화 따러 가는 건 푸성귀 바꾸니 해서 가서, 이제는 집에 따다가 까고 있지만은, 그땐 면화 밭에서 모두 까. 하나, 한 곡지 따서 까놓고, 한 곡지 따서 까놓고 해서 면화를 따면, 면화 이만큼 한 밭에 하면 사흘은 따러 다녀야 합니다. 따다가 말려서 이젠 면화 씨아가 있지, 옛날엔. 이젠 공장 나니까, ‘서림리’라고 공장에 중간에 났습니다만, 면화 바르는 거, 면화 먹이면서 밭라. 그러면 뒤로 면화 나오면, 그것으로 면화 타는 가서 저서, 면화 짜려고 하면, 무명 하려고 하면, 면화 가늘고 길쭉하게 모두 밀어다가 자근자근 묶어서 와서 집에 와서, 옛날 씨아, 걸로 뱅뱅 돌려서 씨 영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무명 하고 했습니다.)

103068 @ 집의서 멘네 타당 까지 안 흐곡, 밭디서.(집에서 면화 따다 까지 안 하고, 밭에서.)

103068 #1 밭디서 흙치 짱 오란, 옛날엔 몰란.(밭에서 한꺼번에 같이 까서 와서, 옛날에는 몰라서.)

103068 @ 우린 집의서 까신디.(우리는 집에서 잤는데.)

103068 #1 아니, 건 중간에부터사. 경 흐난 쉽는다, 타당 나뒹당 시간 나민 흐는다, 허리에 ㄷ구덕<sup>88)</sup> 메곡 멘네 타젠 흐민 허리가 다 그차져붙어.(아니, 건 중간에부터야, 그렇게 하니까 쉬운데, 따다가 놔뒹다가 시간 나면 하는데, 허리에 ‘출구덕’ 메고 따려고 하면 허리가 다 끊어져버려.)

103068 @ 나중에는 썸, 그 멘네에 다 붙어붙어, 그거 툃젠 흐민.(나중에는 잎, 그 면화에 다 붙어버려, 그거 따려고 하면.)

103068 #1 멘넨 집의 오민 아멩 흐여도 썸 막 부떠. 게민 그걸 까기 전에 썸 문 털이치와뒹 멘넨 까 놔사주. 경 아니 흐민 물리명도 다듬곡, 다 흐여.(면화 집에 오면 아무리 해도 잎 막 붙어. 그러면 그것을 까기 전에 잎 모두 떨어치워 뒤서 면화를 까 놔야지. 그렇게 아니 하면 말려서 다듬고, 다 해.)

103068 @ 멘네 베랭이도 하곡.(면화 벌레도 많고.)

103068 #1 아이고, 베랭이가양 낭간에, 집의, 밥숯되아올라 다 들어가. 벌경흐 베랭이. 게난 이젠 멘네도 잘 안 갈곡, 멘네 중간엔 집의 타다근에 까곡, 이젠 멘네, 난드르 멘네가 일등 아니우파? 한국에 난드르 멘네만이 흐 디가 없거던. 경흐난 멘네 브르는 디 잇곡, 소게 테우는 디 잇곡, 경 흐여낫수게, 이디.(아이고, 벌레가요 텃마루에, 집에, 밥숯에마저 다 들어가. 벌건 벌레. 그러니까 이제는 면화도 잘 안 갈고, 면화 중간에 집에 따다가 까고, 이젠 면화, ‘난드르’ 면화가 일등 아납니까? 한국에 ‘난드르’ 면화만큼 한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면화 바르는 데 있고, 솜 타는 데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88) ‘출구덕’은 나물이나 해산물 등을 채취할 때 허리에 차고 사용하는 대오리로 만든 바꾸니다.

103068 @ 여기가 무사 잘 돼어나신고양?(여기가 왜 잘 됐었습니까?)

103068 #1 땅 토지난.(땅 토지니까?)

103068 @ 또 햇빛 잘 비추곡.(또 햇볕 잘 비추고.)

103068 #1 아니, 햇빛은 아무디나 ㄹ뜨는디, 땅 토지가 좋아놓니까 멘네가 잘 돼여. 경헝곡 땅 토지가 출흑이거던. 경 헝난에 거세기 무싱거, 조도 좋곡, 보리쌀도 강정<sup>89)</sup> 다음에 우리 아니우파게, 이 난드르. 게문 난드르 사름은 폴레 가민 강정 보리쌀이엔 흐민 고정들어불어.(아니, 햇볕은 아무데나 같은데, 땅 토지가 좋으니까 면화가 장 돼. 그리고 땅 토지가 찰흙이거든. 그렇게 하니까 거시기 무엇, 조도 좋고, 보리쌀도 ‘강정’ 다음에 우리 아넝니까, 이 ‘난드르’. 그러면 ‘난드르’ 사름은 팔러 가면 ‘강정’ 보리쌀이라고 하면 곧이들어 버려.)

## 4. 들일

### 소 기르기

104001 @ 게민양, 드르 일, 쉼 질루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 쉼은 어떻 질릅니까?(그러면요, 들 일, 소 기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

104001 #2 송아길 사오민 소출을 장만홉주게.(송아지를 사오면 소꼴을 장만합지요.)

104001 @ 쉼출?(소꼴?)

104001 #2 쉼출, 밧 엇이든 쉼출 흐는 밧을 삽주게. 쉼출 비는 밧을 사근에 이젠 출을 거세기 비여근에, 실릅주게. 실러 놉근에 집의 오라근에 큼직하게 놀을 눕니다게. 쉼 일 년 맥일 출을 놀어근에. 글로부떠 이젠 쉼막 잇어근에, 쉼막 안네서 쉼을 질릅주게. 경 헝여근에 거기서 출 빠당 주곡, 쉼영 주곡, 머 흘 때 거세기 출 쉼영, 솟양도 맥이곡, 경 헝연에게 쉼을 질와십주게.(소꼴, 밧 없으면 소꼴 하는 밧을 삽지요. 소꼴 베는 밧을 사서 이젠 꼴을 거시기 베어서, 실지요. 실어서 놉서 집에 와서 큼직하게 가리를 쌍습니다. 소 일 년 맥일 꼴을 쌍아서, 거기서부터 이젠 외양간 잇어서, 외양간 안에서 소를 기릅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꼴 빼다가 주고, 쉼어서 주고, 뭐 할 때 거시기 꼴 쉼어서, 삶아서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소를 길렀습지요.)

104001 #1 옛날엔 솟양 맥인 게 아니고, 못 채 헝여근에 반 못씩 줏수다게.(옛날에는 삶아서 먹인 게 아니고, 못 채 해서 반 못씩 줏습니다.)

104001 #2 아이고, 솟양도 줏서게.(아이고, 삶아서도 줏어.)

104001 #1 옛날, 옛날에 우리 시대는 슬픈 거, 그르후에 쉼막에 쉼영 맥이곡, 클도 나오고, 저 기계도 나오고 했주. 옛날엔 쉼는 기계도 엇엇수다, 우리 어린 땐.(옛

89) ‘강정’은 서귀포시 강정동이다.

날, 옛날에 우리 시대는 삶은 거, 뒷날의 어느 때에 외양간에 썰어서 먹이고, 틀도 나오고, 저 기계도 나오고 했지. 옛날에는 썰는 기계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린 때.)

104001 #2 그냥 거세기계 칼로 썰어.그냥 거시기 칼로 썰어서.)

104001 #1 작도로 작도, 작도로 썰었수게. 작도하면 썰었수다, 쉼출.(작두로 작두, 작두로 썰었습니다. 작두해서 썰었습니다, 소꼴.)

104001 #2 작도로 썰는 거 잇주게.(작두로 썰는 거 있지.)

104001 @ 누까는 안 쫓수가?(겨는 안 쫓습니까?)

104001 #2 무사 누까게, 보리에 방에 저나민 보리체도 흑곡, 누까엔 딱로 보리체 꽃땡이 것이 나오는 거.(왜 겨게, 보리에 방아 저나면 보릿겨도 하고, 겨라고 따로 보릿겨 끝에 것이 나오는 거.)

104001 #1 도새기 질루젠 흑난 쉼에 갈 거 쫓수과? 도새기 맥이젠 흑난, 어느 겨를에, 쉼 그쁜 거.(돼지 기르려고 하니까 소에 갈 거 있었습니까? 돼지 먹이려고 하니까, 어느 겨를에, 소 같은 거.)

104002 @ 쉼 종류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 쉼 종류, 털에 따라랑도.(소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02 #2 노란 게 잇고, 흰 거 잇고.(노란 게 잇고, 흰 거 잇고.)

104002 @ 노란 거 무슨 쉼엔 흡니까?(노란 거 무슨 소라고 합니까?)

104002 #2 황쉼엔 흑주게.(황소라고 하지.)

104002 #1 어럭쉼도 잇고.(얼럭소도 잇고.)

104002 #2 어럭쉼도 잇고.(얼럭소도 잇고.)

104002 @ 어럭쉼 어떤 쉼우파?(얼럭소는 어떤 소입니까?)

104002 #2 검은, 흰 점 박아진 거 어럭쉼.(검은, 흰 점 박힌 거 얼럭소.)

104002 @ 그다음에마씨.(그다음에요.)

104002 #2 그다음에 이 자 백쉼도 잇고.(그다음에 이 저 흰 소도 잇고.)

104002 @ 그다음에.(그다음에.)

104002 #2 검은 쉼도 잇고.(검은 소도 잇고.)

104002 @ 속쉼<sup>90)</sup>?(취소는?)

104002 #2 속쉼 딱로 벌경흔 털 난 되게 그릇 굿어진 거, 경 흔 걸 속쉼엔 흡주.(취소는 따로 벌건 털 난 데 경계가 되는 줄을 친 자국이 그어진 거, 그렇게 한 걸 취소라고 합지요.)

104002 @ 그다음에 빨 모양에 따라 쉼 종류 틀리지 안 흡니까?(그다음에 빨 모양에 따라서 소 종류 틀리지 안 합니까?)

104002 #2 암컨게 보통 오그라지곡, 부룽이는 폐와지긴 흑는다, 게 오그라진 것도 만흡주게. 집의서 질루당 네 슬썸 나가민 그 놈을 이젠 멩에 흑영 멘들아근에 멩에 씨우곡, 잠대 흑여근에게.(암소는 보통 오그라지고, 부룩소는 퍼지긴 하는데, 게 오그라진 것도 많습지요. 집에서 기르다가 네 살썸 나가면 그 놈을 이젠 멩에

90) '속쉼'는 털빛이 흑황색으로 얼럭덜럭한 소이다.

해서 만들어서 멍에 씌우고, 쟁기 해서.)

104002 #1 돌, 돌 끄영 마리쳐냥.(돌, 돌 끌어서 가리켜 놓아.)

104002 @ 예, 그건 나중에 물어보쿠다.(예, 그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104003 @ 그다음에 쉼 어떻 이용릅니까? 집의서 혼 마리씩은 키웠지 안 혼우 파?(그다음에 소는 어떻게 이용릅니까? 집에서 한 마리씩은 키웠지 안 했습니까?)

104003 #2 키우민 게 맥여근에 키우민 품도 혼곡, 밭도 갈곡, 경 혼여십주게.(키우면 게 먹여서 키우면 품도 하고, 밭도 갈고, 그렇게 하였습지요.)

104004 @ 쉼 어떻 길들여마썸?(소는 어떻게 길들여요?)

104004 #1 마리치는 거?(가르치는 거?)

104004 @ 예.(예.)

104004 @ 메칠 정도 마리쳐?(며칠 정도 가르쳐?)

104004 #1 건 한이 엇주, 쉼에 매여. 자게 혼는 쉼도 있고, 아뻡 마리쳐봐도 늦게 혼는 쉼도 있고.(건 한이 없지, 소에 따라 달라. 제게 하는 소도 있고, 아무리 가르쳐 봐도 늦게 하는 소도 있고.)

104004 #2 보통 그자 오래 마리치민 혼 보름, 경 아니혼민 일주일 그 정도 기자.(보통 그저 오래 가르치면 한 보름, 그렇게 아니하면 일주일 그 정도 그저.)

104004 #1 쉼에 매주.(소에 따라 다르지.)

104004 #2 마리치민 잘 듣는 거 잇곡, 아니 들민 고개 영 들르명 도망치젠만 혼는 거 잇곡, 춤 벨 거 다 잇입니다게.(가르치면 잘 듣는 거 있고, 안니 들면 고개 이렇게 들면서 도망치려고만 하는 거 있고, 참 벨 거 다 있습니다.)

104004 #1 경혼민 쉼 이끄는 딘, 새 쉼 혼젠 혼면은 뒤에서 밭 가는 사름, 앞원 또로 이끄곡, 경 해낫수다.(그러면 소 이끄는 데는, 새 소 하려고 하면은 뒤에서 밭 가는 사람, 앞에는 따로 이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4005 @ 쉼 나이, 혼 슬을 며연 홉니까?(소 나이, 한 살을 뭐라고 합니까?)

104005 #2 혼 슬은 처음 난 거, 금승<sup>91)</sup>이엔 혼고, 또 일 년 넘은 건 다간<sup>92)</sup> 송아기엔, 사름<sup>93)</sup> 송아기, 나름<sup>94)</sup> 송아기 경.(한 살은 처음 난 거, ‘금승’이라고 하고, 또 일 년 넘은 건 ‘다간’ 송아지라고, ‘사름 송아지, ‘나름’ 송아지 그렇게.)

104005 @ 계난 금승, 그다음엔.(그러니까 ‘금승’ 그다음에는.)

104005 #2 다간, 사름, 나름.(‘다간’, ‘사름’, ‘나름’.)

104005 @ 그다음엔.(그다음에는.)

104005 #2 그다음엔 다섯 슬, 여섯 슬, 이겨주.(그다음에는 다섯 살, 여섯 살, 이겨지.)

104006 @ 쟁기 명칭, 영 양손으로 잡는 걸 머렌 홉니까?(쟁기 명칭, 이렇게 양손으로 잡는 걸 뭐라고 합니까?)

91) ‘금승’은 마소의 나이 한 살을 가리킨다.

92) ‘다간’은 소의 나이 두 살을 가리킨다.

93) ‘사름’은 소의 나이 세 살을 가리킨다.

94) ‘나름’은 소의 나이 네 살을 가리킨다.

- 104006 #2 양주머리.(양지머리.)
- 104006 @ 그다음에 가운데 영.(그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 104006 #2 거 거시기 멧옌 혼다마는 잇어부런에.(거 거시기 뭐라고 한다마는 잇어버려서.)
- 104006 @ 밧 가는 거.(발 가는 거.)
- 104006 #1 잠대, 장기, 보섭, 보섭도 잇주게.(쟁기, 쟁기, 보습, 보습도 있지.)
- 104006 #2 벧.(벧.)
- 104006 @ 벧, 그다음은.(벧, 그다음은.)
- 104006 #2 보섭.(보습.)
- 104006 @ 보섭, 그다음에 영 묶으는 거 잇지 안 흐우파?(보습, 그다음에 이렇게 묶는 거 잇지 안 합니까?)
- 104006 #2 머옌 혼다만은.(뭐라고 한다마는.)
- 104007 @ 질메, 질메.(길마, 길마.)
- 104007 #1 질메 지우젠 흐민 등태부떠 먼저 해 놔사.(길마 지우려고 하면 걸언치부터 먼저 해 놔야.)
- 104007 @ 등태, 그다음.(걸언치, 그다음.)
- 104007 #1 등태, 험벅 씨와냥, 그다음엔 짝으로 멩근 거 씨와냥, 딱시 낭으로 웬 거 지와냥 짐을 시킴주게.(걸언치, 형겅 씨워놔서, 그다음에는 짚으로 만든 거 씨워놔서, 다시 나무로 된 거 지워놔서 짐을 실고 있지.)
- 104007 @ 경흐난 그 질메 명칭.(그러니까 그 길마 명칭.)
- 104007 #1 질메.(길마.)
- 104007 @ 질메는 전체 명칭이고, 부분 명칭, 낭으로 영 두 개 웬 걸 머옌 흡니까?(길마는 전체 명칭이고, 부분 명칭, 나무로 이렇게 두 개 된 걸 뭐라고 합니까?)
- 104008 @ 아까 곶아난 거, 멩에.(아까 말해난 거, 멩에.)
- 104008 #1 벗어지지 말렌, 멩에에 찢렁 영 오그라지게 흐영 즐라메여나서. 쉼 멩에에 거.(벗어지지 말라고, 멩에에 찢러서 이렇게 오그라지게 해서 잘라메었었어. 소 멩에에 거.)
- 104008 #2 그거 멩에 거시기 접게<sup>95)</sup>. 줄 옅이.(그거 멩에 거시기 목대. 줄 없이.)
- 104008 @ 무슨 낭으로 했수과? 그 접게는.(무슨 나무로 했습니까? 그 목대는.)
- 104008 #2 보통은 삼동낭, 거세기 혼 사름은 윤누리낭 잇지 안 흐우파게. 그 윤누리낭으로 접게 흐주게. 게 멩에에 끼와근에게 줄로 즐라메여근에게, 접게 줄 흐영 즐라메여근에, 경 흐영 두에서 또로 귀마리<sup>96)</sup>, 저 장기 귀마리, 그 저 앞 코지에 흐여근에 저 즐라메는 노 잇주게. 거 흐연근에 장기에 즐라메여근에 가린석<sup>97)</sup> 흐영

95) '접게'는 멩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이다. 표준어 '목대'에 대응하는 말이다.

96) '귀마리'는 표준어 '발목'의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쟁깃술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97) '가린석'은 밭을 갈 적에 왼편으로 쇠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이다.

양편의 장기, 두 줄 하여근에 이젠 멩에레 얽어다근에 즐마뻬주게. 쉼 ㄱ리칠 땐 이끄는 장남 혼 사름 흥곡, 밧 가는 장남 혼 사름 하여근에 ㄱ리칩주게.(보통은 상동 나무, 거시기 한 사람은 윤노리나무 있지 안 합니까. 그 윤노리나무로 목대 하지. 그거 멩에에 끼워서 줄로 잘라매어서, 목대 줄 해서 잘라매어서, 그렇게 해서 뒤에서 따로 ‘귀마리’, 저 쟁기 ‘귀마리’, 그 저 앞 코에 해서 잘라매는 참바 있지. 그거 해서 쟁기에 잘라매어서 ‘가린석’ 해서 양편에 쟁기, 두 줄 해서 이젠 멩에로 얽어다가 잘라뻬지요. 소 가르칠 때는 이끄는 건강한 일꾼 한 사람하고, 밧가는 건강한 일꾼 한 사람 해서 가르칩지요.)

104009 @ 경흥민양, 목장 있어났수과? 여기도.(그러면요, 목장 있었습니까? 여기도.)

104009 #1 이디도 군산이 목장이주게.(여기도 ‘군산’이 목장이지.)

104009 @ 어떻 관리하였수과?(어떻게 관리했습니까?)

104009 #1 건 부락에서 낱 내불민.(건 부락에서 낱 내버리면.)

104009 #2 부락에서 쉼 맥이는 사름덜 쉼 맥이곡, 다 관리흥곡.(부락에서 소 먹이는 사람들 소 먹이고, 다 관리하고.)

104009 @ 거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름 있지 안 흥우파?(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름 있지 안 합니까?)

104009 #2 이딘 엇어났수다.(여기는 없었습니다.)

104009 #1 저 웃드르양, 사름이 돈 받양 쉼 보는 디 목장이 있어. 계민 우리 부구리<sup>98)</sup> 약 흥레 가나곡 해났수다게. 저 열리<sup>99)</sup> 우트레 사름이 돈 받양.(저 ‘웃드르’요, 사름이 돈 받아서 소 보는 데 목장이 있어. 그러면 우리 ‘부구리’ 약 하러 갔었고 했었습니다. 저 ‘열리’ 위로 사름이 돈 받아서.)

104009 #2 백만원목장이 있어.(백만원목장이 있어.)

104009 @ 우리 동네가 백만원케우다게. 쉼 보는 사름을 며연 흥니까?(우리 동네가 백만원목장입니다. 소 보는 사름을 뭐라고 합니까?)

104009 #1 쉼 보는 사름이엔 우리 드러 곶아났주.(소 보는 사름이라고 우리 계속 말했었지.)

104009 #2 쉼생이<sup>100)</sup>엔도 흥곡.(‘쉼생이’라고도 하고.)

104009 #1 쉼생인 부락에 보리 받아가곡 쉼생이고, 쉼 보는 사름은 뜨나주게.(‘쉼생이’는 부락에 보리 받아가고 ‘쉼생이’고, 소 보는 사름은 다르지.)

104009 #2 쉼생인 저 목장에 가근에 쉼 보곡, 목장 말양 흥는 사름덜이 쉼생이엔 흥주게.(‘쉼생이’는 저 목장에 가서 소 보고, 목장 말아서 하는 사람들이 ‘쉼생이’라고 합지요.)

104009 #1 우리 돈 쉼에 쉼 메경 바났어. 부구리 약 흥렌 가사 쉼여, 이녁 쉼난.(우리 돈 쉼서 소 맡겨서 봤었어. ‘부구리’ 약 하러는 가야 돼, 이녁 소이니까.)

98) ‘부구리’는 진드기가 성장하여 된 벌레이다.

99) ‘열리’는 서귀포시 예래동이다.

100) ‘쉼생이’는 목장을 맡아서 마소를 돌보는 사름을 일컫는다.

104009 @ 부구리 약은 언제 해낫수가?(‘부구리’ 약은 언제 했었습니까?)

104009 #1 부구리 약은 조끔만 흐른 드리 흐주.(‘부구리’ 약은 조끔만 하면 계속 하지.)

104009 #2 여름만 돼민 매일.(여름만 되면 매일.)

104009 #1 군산에 논 사름 매날 췌 보레 갓당 부구리 약 흐영 박박 강알에영 문, 이만씩 흐 부구리, 췌췌흐 진독.(‘군산’에 놓은 사름 만날 소 보러 갔다가 ‘부구리’ 약 해서 박박 사타구니하고 모두, 이만큼씩 한 ‘부구리’, 잔잔한 진독.)

104009 @ 계난 피 하영 먹으민 부구리 췌는 거주게.(그러니까 피 많이 먹으면 ‘부구리’ 되는 거지.)

104009 #1 예게, 강알에 돌아진 거 박박 글경, 췌로 췌 거.(예게, 사타구니에 매 달린 거 박박 굵어서, 쇠로 된 거.)

104009 @ 걸 머옌 흡니까?(걸 뭐라고 합니까?)

104009 #2 부구리 췌빳.(‘부구리’ 참빳.)

104010 @ 췌 질루멍 재미난 일.(소 기르면서 재미난 일.)

104010 #1 췌 질루는 건 매 집의, 촌에 췌 엇인 집이 엇주게. 췌막 흐영 트로 흐영.(소 기르는 건 모든 집에, 촌에 소 없는 집이 없지. 외양간 해서 따로 해서.)

104010 @ 새끼 나젠 흐민 어떻 흡니까?(새끼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4010 #1 새끼 나젠 흐민 거꼴로 나와, 발로.(새끼 나려고 하면 거꾸로 나와, 발로.)

104010 @ 새끼 나젠 흐민 췌가 좀 틀리지 안 흡니까?(새끼 나려고 하면 소가 좀 다르지 안 합니까?)

104010 #1 막 들러퀴주게, 사름이나 마찬가지로.(막 날뛰지, 사름이나 마찬가지로.)

104010 #2 막 못 전디영 행헝<sup>101)</sup> 흐멍.(막 못 견더서 ‘행헝’ 하면서.)

104010 #1 행헝 해가민, 발부터 먼저 나와 가민, 임제가 과짜 사주게.(‘행헝’ 해 가면, 발부터 먼저 나와 가면, 임자가 곧게 사지.)

104010 @ 췌 새끼 나젠 해가민, 보고락흐 무신 저.(소 새끼 나려고 하면, 보드라운 무슨 저.)

104010 #1 아이, 그런 거 엇어. 췌막에 메민 새끼 막 바들랑바들랑 해가민 블라 불카부덴.(아니, 그런 거 없어. 외양간에 매면 새끼 막 바들랑바들랑 해가면 밟아버릴까 싶어서.)

104010 @ 바들랑바들랑 흐여?(바들랑바들랑 해?)

104010 #1 아파가민, 배 아파가민게, 사름이나 마찬가지로.(아파가면, 배 아파가면, 사름이나 마찬가지로.)

104010 #2 못 전디영, 못 전딘 소리만 흐여.(못 견더서, 못 견디는 소리만 해.)

104010 #1 경흐난 흐는 건 보난, 사름은 머리뺍부터 먼저 나오는디, 이건 발부터 먼저 나오는 거라노난, 췌 새끼 양 발부터 먼저 나오는 겁디다게. 영 흐영 나옴

101) ‘행헝’은 소가 새끼 날 때 못 견더서 나는 소리이다.



디다. 영 흥영.(그러니까 하는 건 보니까, 사람은 머리부터 먼저 나오는데, 이걸 발부터 먼저 나오는 거라서, 소 새끼는 발부터 먼저 나오는 겁디다. 이렇게 해서 나오디다. 이렇게 해서.)

### 말 기르기

104011 @ 그다음엔양, 물 질좌뵈디가?(그다음에는요, 말 길러봤습니까?)

104011 #1 물도 질좌뵈주, 하영 질좌뵈주.(말도 길렀었지, 많이 길렀었지.)

104011 @ 물은 어떻 질좌뵈디가?(말은 어떻게 길렀었습니까?)

104011 #1 물은 목장에만 질루와, 집의 메지 안 흥영.(말은 목장에만 길러, 집에 메지 안 해서.)

104011 #2 물은 군산에 뵈 내부난, 저 창천이 우트레 강 좇아오곡 해뵈수다게.(말은 ‘군산’에 뵈서 내뵈리니까, 저 ‘창천리’ 위로 가서 찾아오고 했었습니다.)

104011 @ 물석으로 영 흥영 메진 안 흥고?(말고뵈로 이렇게 해서 메지는 안 흥고?)

104011 #1 메지 안 흥여.(매지 안 해.)

104011 #2 뵈도 안 흥고.(뵈도 안 흥고.)

104011 #1 게난 이디 곶이 박양 이녁 물은 알아지주게, 곶이로. 귀에 곶이 박양.(그러니까 여기 곶이 박아서 이녁 말은 알아지지, 곶이로. 귀에 곶이 박아서.)

104011 @ 건 췌도 잇인 거난에.(건 소도 잇는 거니까.)

104011 #1 예, 게난 그 곶로 이녁 물 알주게. 물 뵈트 개, 뵈트 필 흥 거.(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녁 말을 알지. 말 뵈트 개, 뵈트 필 흥 거.)

104011 #2 게 웅매 그뵈트 건 이녁 집의 메여싹주게.(게 웅매 같은 건 이녁 집에 매여싹지요.)

104011 @ 웅매마씨?(웅매요?)

104011 #2 웅매엔 흥주, 수컷고라.(웅매라고 하지요, 수컷더러.)

104011 #1 일름이 웅매. 스나이 뵈생이고라 웅매엔 흥주, 웅매. 즈매, 암컨 즈매. 즈매엔 해뵈수다, 옛날엔. 조팏 불리젠 흥민 강 몰아오곡게.(이름이 웅매. 수컷 망아지라 웅매라고 하지, 웅매. 암말, 암컷은 암말. 암말이라고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조팏 뵈으려고 하면 가서 몰아오고.)

104012 @ 게메 물 종류에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글췌 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잇습니까?)

104012 #1 물 종류는 그거주 머. 흰 것도 있고, 노랑 것도 있고.(말 종류는 그거지 뵈. 흰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104012 @ 게메 그걸 머엔 흥여?(글췌 그것을 뵈라고 해?)

104012 #2 얼룩말도 있고 흥주만은, 가레뵈생인엔도 흥곡, 검은 거. 경흥곡 흥 건 거 흥 뵈생이엔도 흥곡, 거시기 흥는다.(얼룩말도 있고 하지만은, 가라망아지라고도 흥고, 검은 거. 그리고 흥 건 거 흥망아지라고도 흥고, 거시기 하는데.)

104012 #1 경חק곡양, 물갈기, 이디 덮으는 거, 그거 비여근에 풀앗수게.(그리고  
요, 말갈기, 여기 덮는 거, 그거 뽑아서 팔았습디다.)

104012 @ 노랑 물 머온 헛수가?(노랑 말 뉘라고 헛습디까?)

104012 #2 노랑 건, 아 또 거 머온 혼다만은. 저 붉은 물덜은 적대물이온 흐는  
디.(노랑 건, 아 또 거 뉘라고 한다만은. 저 붉은 말들은 적다마라고 하는데.)

104012 @ 응, 적대물.(응, 적대마.)

104012 #2 노랑 물, 거 무신 물이온 혼다만은.(노랑 말, 거 무슨 말이라고 한다  
만은.)

104013 @ 뉘수다. 게민 물은 멀로 사용헛수과?(뉘습디다. 그러면 말은 무엇으로  
사용헛습디까?)

104013 #1 물은 그냥 밧 불리는 것이 주장이주게. 짐 시끄는 물은 심어당 보리  
도 시끄곡, 그자 밧 불리는 거, 새끼 낭 파는 거, 그거 주장. 경חק고 저 짐 시끄는  
것도 잇엇수다. 모멸낭도 시끄곡, 보리도 시끄곡, 물로 막 시꺼서, 쉼영 ㄹ찌. 쉼사  
매 집의 흐나벳기 엿주만은, 물 하민, 물 두 개, 세 개 흐민 보리 시꺼오곡, 돛걸름  
도 시끄곡, 다 헛수다.(말은 그냥 밧 밧는 것이 주장이지. 짐 싣는 말은 심어다가  
보리도 싣고, 그저 밧 밧는 거, 새끼 낭아서 파는 거, 그거 주장. 그리고 저 짐 싣는  
것도 잇엇습디다. 메밀짚도 싣고, 보리도 싣고, 말로 막 싣어서, 소하고 같이. 소애  
모든 집에 하나밖에 없지만은, 말 많으면, 말 두 개, 세 개 하면 보리 싣어오고, 돼  
지거름도 싣고, 다 헛습디다.)

104013 @ 물로 밧은 갈아뵙디가?(말로 밧은 갈아뵙습디까?)

104013 #1 물로 밧은 아이 갈앗수다, 제주도는. 쉼로만 갈앗주.(말로 밧은 아니  
갈앗습디다, 제주도는. 소로만 갈앗지.)

104013 @ 어떤 된 보난에 물로도 밧 갑디다.(어떤 데는 보니까 말로도 밧 갑디  
다.)

104013 #1 옛날에도 감산인 물로 밧 가는 사름 잇어나서, 여자.(옛날에도 ‘감산  
리’는 말로 밧 가는 사름 잇엇엇어, 여자.)

104013 #2 여기 난드르도게 물로 밧 가는 사름 잇어나서.(여기 ‘난드르’도 마로  
밧 가는 사름 잇엇엇어.)

104013 #1 여자, 감산인 여자, 이제 그 할망 살아서.(여자, ‘감산리’는 여자, 이제  
그 할머니 살앗어.)

104013 #2 주로 물 하영 흐는 사름은 팔아먹젠 그자.(주로 말 많이 하는 사름은  
팔아먹으려고 그저.)

104014 @ 그다음에 물 그 나이양, 흐 슬을 머온 흡디까?(그다음에 말 그 나이  
요, 한 살을 뉘라고 합디까?)

104014 #2 일수, 이수.(일수 이수.)

104014 @ 거난 물 흐 슬이 머마썸?(그러니까 말 한 살이 뉘지요?)

104014 #2 일수.(일수.)

104014 @ 일수? 머영은 흐지 안 흡니까?(일수? 뭐라고는 하지 안 합니까?)

104014 #1 금승 몽생이엔 흐곡계.(‘금승’ 망아지라고 하고.)

104015 @ 뭘 질루멍 재미있었던 일 혼 번 곱아봅서.(말 기르면서 재미있었던 일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4015 #1 재미나주게, 뭘 몰아올 때영.(재미나지, 말 몰아올 때하고.)

104015 @ 어떻?(어떻게?)

104015 #1 뭘 몰아당 조팏 킬릴 때 스뭇 재미나주게. 워랑워랑.(말 몰아다가 조 밭 밟을 때 사뭇 재미나지. 워랑워랑.)

104015 #2 몽생이 하나 흐영 탕 돌아다니는 게 즈미주게. 뭘 보레 갈 때 몽생이 타 옷여근에 산에 올라가곡, 느려올 때도 그놈의 몽생이가 어질어놓니까, 차 탕 텅 기는 것보다 더 줍디다게.(망아지 하나 해서 타서 돌아다니는 게 재미지. 말 보러 갈 때 망아지 타 가져서 산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그놈의 망아지가 어질어놔서, 차 타서 다니는 것보다 더 좋습디다.)

## 떡이

104016 @ 그다음엔양, 출, 출.(그다음에는요, 꿀, 꿀.)

104016 #1 출?(꿀?)

104016 @ 출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 그 마소 떡이는 어떤 것덜 잇수강? 뭘 흐고 쉼 먹는 것덜.(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마소 떡이는 어떤 것들 잇습니까? 말하고 소 먹는 것들.)

104016 #1 뭘은 드룻밭디 강 내불곡.(말은 들밭에 가서 내버리고.)

104016 @ 아이, 거난 먹는 것덜 잇지 안 흐우짜?(아니, 그러니까 먹는 것들 잇지 안 합니까?)

104016 #2 먹는 건 풀 먹는 거 마찬가지로.(먹는 건 풀 먹는 거 마찬가지로.)

104016 @ 저슬에.(겨울에.)

104016 #2 저슬에도 뭘은 머 흐 사름덜은 드룻밭디 내불엇주.(겨울에도 말은 뭐한 사람들은 들밭에 내버렸지.)

104016 @ 쉼는?(소는?)

104016 #1 쉼는 집의서.(소는 집에서.)

104016 @ 거난 쉼출 흐젠 흐민 어떻 흡니까?(그러니까 소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4016 #2 쉼출은게, ㄱ슬 들어가민 출 빌 때 웨민 출 비여근에 무꺼근에 집의 시꺼다근에 놀영 나뒤듬서 그거 빠멍 줍주게.(소꼴은, 가을 들어가면 꼴 벨 때 되면 꼴 베어서 묶어서 집에 실어다가 쌓아서 쌓아두고 있으면서 그거 빼면서 줍지요.)

104016 #1 팔윳 나른 출 빙니다게.(팔윳 나면 꼴 뱉니다.)

104016 @ 거난 멍질 지낭 흐는 거 아니우짜?(그러니까 멍질 지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104016 #1 멩질 지나도 거 고비에 해운으로 가. 멩질 전의 출 빔 시작할 때도 있고, 멩질 넘영도 흥곡, 건 해운으로 가는 거고, 보통으로 팔월 멩질 고비에 비여 근에 쓰무날, 음력 쓰무날 돼영 무릅니다게. 추석 때 출 비레 땡기는 거, 원처.(멩질 지나도 거 고비에 해운으로 가. 멩질 전에 풀 빔 시작할 때도 있고, 멩질 넘어서도 하고, 건 해운으로 가는 거고, 보통으로 팔월 멩질 고비에 베어서 쓰무날, 음력 쓰무날 돼서 묶습니다. 추석 때 풀 베러 다니는 거, 원처.)

104017 @ 케난 이 출은 어떻 마련릅니까?(그러니까 이 풀은 어떻게 마련릅니까?)

104017 #1 출은 드룻밭디 내불민 또 나곡, 또 나곡 흥는 거.(풀은 들밭에 내버리면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거.)

104017 @ 출 비젠 흥면은.(풀 베려고 하면은.)

104017 #1 눗 빌영 비곡.(눗 빌어서 베고.)

104017 @ 출밭 잇어야 흥 거 아니우파?(풀밭 잇어야 할 거 아릅니까?)

104017 #1 게, 출밭 신 사름은 강 비곡, 눗의 밧 버실영, 드룻밭디 강 봉가오는 사름도 잇곡, 이녁 밧 엇인 사름은 경 흥는 거주.(그림, 풀밭 잇는 사름은 가서 베고, 남의 밧 벌어서, 들밭에 가서 주워오는 사름도 있고, 이녁 밧 없는 사름은 그렇게 하는 거지.)

104017 #2 이녁 밧 엇인 사름은 출 잇는 사름신디 간에 출 사근에 벌어오곡.(이녁 밧 없는 사름은 풀 잇는 사름에게 가서 풀 사서 빌려오고.)

104017 #1 보통으로 췌 잇인 사름은 이녁 출왓이 잇입니다, 옛날엔.(보통으로 소 잇는 사름은 이녁 풀밭이 잇습니다, 옛날에는.)

104017 #2 하여튼 췌 하여영 질루는 사름이 출왓 엇인 사름이 엇입니다. 이 옷드르 사름덜 보민 출왓이 적지 안 흥여마썸. 멧 만 평덜 잇입니다.(하여튼 소 많이 기르는 사름이 풀밭 없는 사름이 없습니다. 이 ‘옷드르’ 사름들 보민 풀밭이 적지 안 해요. 멧 만 평들 잇습니다.)

104017 #1 저 옷드르 강도 출 흥여오곡, 이디 사름덜.(저 ‘옷드르’ 가서도 풀 해오고, 여기 사름들.)

104018 @ 출 빌 때 과정을 흥 번 곱아봅서.(풀 벨 때 과정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4018 #1 호미로, 눗 빌영 강, 호미로 강 즈근즈근 다 비엿주게. 비여냥, 물리 와근에, 무꺼다근에게 췌로 시꺼오랏든, 탈탈이로 시꺼오랏든 집의 오랑 놀엿주게. 경 흥연 빠멍 췌주게.(냇으로, 눗 빌어서 가서, 냇으로 가서 자근자근 다 베엿지. 베어놔서, 말려서, 묶어다가 소로 실어오든, 경운기로 실어오든 집에 와서 썩았지. 그렇게 해서 빠면서 췌지.)

104019 @ 옛날은 췌 질메로 해왔지 안 흥우파?(옛날은 소 길마로 해왔지 안 합니까?)

104019 #1 시꺼오랏주게. 시꺼 오랑, 게메 거 시꺼오는 거, 무꺼근에 바리 빌영

시꺼오주게.(실어왔지. 실어 와서, 글썽 거 실어오는 거, 묶어서 바리 벌여서 실어오지.)

104019 @ 시꺼와근에.(실어와서.)

104019 #1 놀어. 흐 뭇씩 빠명 주는 거. 아이고, 옛날에사 이제 췌 안 질루우난 흐곡, 지들커 안 흐여도 살압수다.(쌓아. 한 뭇씩 빼어서 주는 거. 아이고, 옛날에야 이제 소 안 기르니까 하고 뺄감 안 해도 살고 있습니다.)

104019 @ 게문 출 운반할 때는?(그러면 풀 운반할 때는?)

104019 #1 췌로 시꺼.(소로 실어.)

104019 @ 췌로양?(소로요?)

104019 #1 구루마로도 시끄곡, 놉 빌영, 늬의 사름 구르마 빌영 시꺼오주, 췌 엇인 사름덜은.(마차로도 싣고, 놉 벌어서, 남의 사람 마차 벌어서 실어오지, 소 없는 사람들은.)

104019 @ 거문 이제 집의 왕 놀어근에.(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쌓아서.)

104019 #1 흐 뭇씩 빠명 줘주게.(한 뭇씩 빼면서 주고 있지.)

104019 @ 거 놀 흐나에 흐 뭇 바리<sup>102)</sup> 들어갑니까?(거 가리 하나에 한 뭇 ‘바리’ 들어갑니까?)

104019 #1 하영 놀젠 흐민 크게 흐곡, 놀굽을. 조그만이 뭇 바리 흐민 놀터를 족게 만들곡, 출이 하민 놀터를 크게 멘들주게. 경 하영 놀엄수게게. 보리도 마찬가지로 지우다게. 족으민 놀굽이 족곡, 하민 놀굽이 크곡, 우녕팓 모양으로게.(많이 쌓으려고 하면 크게 하고, 가리 밑바닥을. 조그만큼 뭇 ‘바리’ 하면 가리 터를 작게 만들고, 풀이 하면 가리 터를 크게 만들지. 그렇게 해서 쌓고 있습니다. 보리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적으면 가리 밑바닥이 작고, 많으면 가리 밑바닥이 크고, 텃밭 모양으로.)

104020 @ 그다음에 여물은 어떻 마련합니까?(그다음에 여물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20 #1 머?(뭐?)

104020 @ 여물, 여물.(여물, 여물.)

104020 #1 여물, 무신 여물?(여물, 무슨 여물.)

104020 @ 거난에 췌 맥이젠 흐면은.(그러니까 소 먹이려고 하면은?)

104020 #1 췌 맥이는 여물이 잇어?(소 먹이는 여물이 잇어?)

104020 #2 출씨.(풀씨.)

104020 #1 출씨, 자골씨. 옛날엔 자골씨 흐 번 빠영 나두민 출 익영 비어나민, 그 씨로 자골왓, 출왓이 돼여불주게.(풀씨, 자귀풀씨. 옛날에는 자귀풀씨 한 번 뿌려서 놉두면 풀 익어서 베어나면, 그 씨로 자귀풀밭, 풀밭이 돼버리지.)

104020 @ 췌 잘 먹지양?(소 잘 먹지요?)

104020 #1 잘 먹주게. 내중에라가난 자골출도 엇언, 새 그자 밋밋 경 흐는 거.

102) ‘바리’는 마소에 실을 수 있는, 곧 마소 함 마리가 등에 실어 나를만한 무게의 분량이며, 묶음이나 단을 나타내는 수량 단위이다.

난드른 자골 출도 배랑 엇어.(잘 먹지. 나중에 가니까 없어서, 띠 그저 밋밋 그렇게 하는 거. ‘난드르’는 자귀풀 풀도 별로 없어.)

104020 #2 이 난드른 기냥 주로가 절환지 출.(이 ‘난드르’는 그냥 주로가 바랭이 풀)

104020 #1 웃드르가 자골 출밭. 웃드르가 맨 자골, 벌경흔 자골. 자골은 먹으면 쉼 슬치곡 흐주.(‘웃드르’가 자귀풀 풀밭. ‘웃드르’가 모두 자귀풀, 벌건 자귀풀. 자귀풀은 먹으면 소 살찌고 하지.)

104021 @ 이 출 빌 때 재미난 일 잇걸랑 흔 번 곶아봅서.(이 풀 벨 때 재미난 일 잇걸랑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4021 #1 재미남은 무슨, 삭삭 덩고 나 원.(재미남은 무슨, 삭삭 덩고 나 원.)

104021 @ 출 빌 때 뒤면은 그때가 감저 팔 때라. 감저 파다근에 출밭디서 썩 먹는 거나.(풀 벨 때 뒤면은 그때가 고구마 팔 때라. 고구마 파다가 풀밭에서 구워서 먹는 거나.)

104021 #2 그 즈미만이 알아근에 쉼 맥이레 가근에, 멧이 어울려근에 그자 감저 밧디 들어가근에, 누겔랑 잘 보라 사름 오는 거, 감저 메여당 썩 먹고, 또로 걸리민 도망치곡.(그 재미만큼 알아서 소 먹이러 가서, 멧이 어울려서 그저 고구마 밧에 들어가서, 누겔랑 잘 보라 사름 오는 거, 고구마 매어다가 구워서 먹고, 따로 걸리면 도망치고.)

104021 #1 이 하르방<sup>103)</sup> 쉼 맥이레 하영 텅기난, 난 그거 몰라.(이 ‘하르방’ 소 먹이러 많이 다니니까, 난 그거 몰라.)

## 뿔감

104022 @ 지들커 종류에는 어떤 것덜 잇수과?(뿔감 종류에는 어떤 것들 잇습니까?)

104022 #1 보릿냥, 췌냥, 띠시 유채냥 물리왕 지들커이. 띠시 소냥가지, 알 거스려뿔 소냥가지 놀어두서 그거. 그거주게 무싱거 엇주게.(보릿짚, 깻짚, 다시 유채나무 말려서 뿔감. 다시 술가지 아래 거슬러서 술가지 가려뿔서 그거. 그거지 무엇 없지.)

104022 @ 쉼뿔.(소뿔.)

104022 #1 쉼뿔은 안 흐여.(소뿔은 안 해.)

104022 @ 뿔뿔.(말뿔.)

104022 #1 뿔뿔 그런 것도 엇고.(말뿔 그런 것도 없고.)

104022 @ 쉼뿔 흐곡, 뿔뿔 흐여단에 굴묵 진지 안 흐엇수과?(소뿔하고, 말뿔 해다가 ‘굴묵’ 때까지 안 하였습니까?)

104022 #1 그건 굴묵 진는 거. 뿔뿔 좇어 오곡, 쉼뿔 좇어당, 드룻밧디 강 군산에도 강 망텅이로 저당 굴묵에 비와뿔 그스락 서끄명도 진곡, 굴묵 진는 거고. 때

103)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뜻한다.

해먹는 건, 지들커는 보릿낭, 모밀낭, 쫄빵, 콩꼬질 그거 물리왕 지들커 흥곡 밥 해먹는 거고, 굴묵 짙는 건 물똥, 쉼똥, ㄱ스락.(그건 ‘굴묵’ 때는 거. 말똥 주워 오고, 소똥 주워다가, 들밭 가서 ‘군산’에도 가서 망태기로 저다가 ‘굴묵’에 부어워서 까끄라기 섞으면서 때고, ‘굴묵’ 때는 거고. 때 해먹는 건, 땀감는 보릿짚, 메밀짚, 깨짚, 짚 그거 말려서 땀감하고 밥 해먹는 거고, ‘굴묵’ 때는 건 말똥, 소똥, 까끄라기.)

104022 #2 주로 거세기 흥 건 소낭가지덜.(주로 거시기 한 건 설가지들.)

104022 #1 밥 해먹는 건 소낭가지고, 굴묵 짙는 건 물똥, 쉼똥, ㄱ스락 서꺼근에 아궁이 흥여근에 자락자락 짙지 안 흥여서게.(밥 해먹는 건 소나무가지고, ‘굴묵’ 때는 건 말똥, 소똥, 까끄라기 섞어서 아궁이 해서 자락자락 때지 안 했어.)

104023 @ 거난에 쉼똥 물리ওয়া 쉼 거 아니우파?(그러니까 소똥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104023 #1 물론 거만 좇어오람주게, 좇으레 간 사름이.(마른 거만 주워오고 있지, 주우러 간 사름이.)

104023 #2 좇어옴도 흥곡, 물리옴도 흥곡.(주워오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104023 #1 좇어당 흥꿈 젓으면 마당에, 올레<sup>104</sup>에 너는 사름도 잇주만은, 베영 저오질 못 흥여 젓이민. 게난 드룻밭디 좇으레 가도 물론 걸로만 좇어, 젓인 건 똥쌈 나똥 오주, 오지 못 흥영 베영.(주워다가 조금 젓으면 마당에, ‘올레’에 너는 사름도 있지만은, 무거워서 저오지를 못 해 젓으면. 그러니까 들밭에 주우러 가도 마른 거로만 주워, 젓은 건 뒤집어 놔워서 오지, 오지 못 해서 무거워서.)

104023 @ 게, 그거 주워다근에.(그럼, 그거 주웠다가.)

104023 #1 굴묵 짙영, 굴묵더레 비와냥. 게민 굴묵은 아궁이 잇잔아, 그레 게 막 짙영 불그네로 과락과락 흥영, 지들커로 불 부찌민, 그거 문딱 불 부찌민 구들이 멘도통햄주게.(‘굴묵’ 때어서, ‘굴묵’으로 부어놔서. 그러면 ‘굴묵’은 아궁이 잇잖아, 그리로 그거 막 때어서 불당그레로 ‘과락과락’해서, 땀감으로 불 붙이면 방이 조금 매지근하지.)

104023 @ 게난 영 짙는 것이 불그네?(그러니까 이렇게 때는 것이 불당그레?)

104023 #1 불그네. 불치 파네곡, 따로 그걸로 박박 잡아댕경 불치 파네영, 불치 놓는 건, 굴묵 이건 아궁이고, 이디 답아그네 불치 놓는 데가 있어 따로. 경 흥연 그걸로 잡아댕경 불치 그레 농곡, 솔박<sup>105</sup>으로나 무싱거로나 담으멍 그레 비와농곡. 빙애기, 득, 빙애기 안지젠 흥면은 풀브른구덕<sup>106</sup>에 검질 짚아근에 빙애기 깨우젠 흥민 불치레 강 풀브른구덕 냥 득 안양 새끼 깨우곡 해서, 빙애기.(불당그레. 재 파내고, 따로 그것으로 박박 잡아당겨서 재 파내어서, 재 놓는 건, ‘굴묵’ 이건 아궁이고, 여기 답아서 재 놓는 데가 있어 따로.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잡아당겨서 재 그리로 놓고, ‘솔박’으로나 무엇으로나 담으면서 그리 부어놓고. 병아리, 닭, 병아리 앓으려고 하면 ‘풀브른구덕’에 검불 깔아서 병아리 까게 하려고 하면 재로 가서 ‘풀

104) ‘올레’는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이다.

105) ‘솔박’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이다.

106) ‘풀브른구덕’은 대오리를 걸은 바구니가 헐어서 종이나 헝겊 따위에 풀을 발라 붙인 바구니이다.

브른구덕' 놓아서 닭 앉아서 새끼 까게 하고 해서, 병아리.)

104023 @ 굴묵에 그때.(‘굴묵’에 그때.)

104023 #1 굴묵에 새끼 내왕.(굴묵에 새끼 나오게 해서.)

104024 @ 솔썩 걷어단에도 굴묵 때볶디게양?(솔가리 걷어다가도 ‘굴묵’ 때봤습니까?)

104024 #1 솔썩? 솔썩은 걷어당 굴묵은 안 때고, 밥혀연 먹었주. 밥혀영 먹는 거, 솔입으로 불 습양.(솔가리? 솔가리는 걷어다가 ‘굴묵’은 안 때고, 밥해서 먹었지. 밥해서 먹는 거, 솔가리로 불 때어서.)

104024 @ 거 어떻 걸었수과?(거 어떻게 걸었습니까?)

104024 #1 강, 소낭밭디 강 글쟁이로 글경, 무경 정 오랑 나뒀당 밥행 먹었주게. 난 감산이 드리<sup>107)</sup>에까지 솔입 글그레 뎅겨나서, 이디 난드르서. 경 혀연 베 두 개나 세 개나 낱 딱 무경. 정 올 때도 있고, 나뒀당 집의서 누게 강 저 읍센 흘 수도 잇곡, 경 헛주게. 솔입은 저 밥해먹는 거, 완전히 벌경흔 솔입은 불 습기 좋주게.(가서, 소나무밭에 가서 갈퀴로 긁어서, 묶어서 저 와서 놔뒀다가 밥해서 먹었지. 난 ‘감산리’ ‘드리’에까지 솔가리 긁으러 다녔었어, 여기 ‘난드르’서. 그렇게 해서 참바 두 개나 세 개나 놔서 딱 묶어서. 저서 올 때도 있고, 놔뒀다가 집에서 누군가 가서 저 오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지. 솔가리는 저 밥해먹는 거, 완전히 벌건 솔가리는 불때기 좋지.)

104024 @ 굴묵은 안 진곡?(‘굴묵’은 안 때고?)

104024 #1 굴묵은 아이 진고.(‘굴묵’은 아니 때고.)

104024 @ 밥해 먹는 거?(밥해 먹는 거?)

104024 #1 밥해 먹는 거, 지들커가 어려우난. 순 불습양만, 보리쌀 밥 혀젠 혀민 어떻 흘 말이라게.(밥해 먹는 거, 땀감이 어려우니까. 순 불때어서만, 보리쌀 밥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말이야.)

104025 @ 낭도 해단 지들커 헛지예?(나무도 해다가 땀감 헛지요?)

104025 #1 게, 낭도 해당 지들커 헛주. 낭혀레 막 뎅겨주게.(그럼, 나무도 해다가 땀감 헛지. 나무하러 막 다녔지.)

104025 @ 무슨 낭해웁디가?(무슨 나무해왔습니까?)

104025 #1 이디 가민 소낭도, 늪의 밧디 강 늘낭 도독질로 꼬창 정 오곡, 섬비 낭 혀곡. 난 섬비 낭 혀렌 안 뎅겨보고, 우리 씨누의덜은 섬비<sup>108)</sup> 낭 혀레 하영 뎅겨서. 경 혀영 무경 정 오랑 즈근즈근 데미민, 그거 빵 질어불민 우리 씨누의덜 막 울고 해나서.(여기 가면 소나무도, 남의 밧에 가서 날나무 도독질로 끓어서 저 오고, ‘섬비’ 나무하고, 난 ‘섬비’ 나무 하려고 안 다녀보고, 우리 시누이들은 ‘섬비’ 나무 하려고 다녔어. 그렇게 해서 묶어서 저 와서 자근자근 쌓으면, 그거 빼서 때어버리면 우리 시누이들 막 울고 헛었어.)

107) ‘드리’는 서귀포시 감산리에 위치한 지경 이름이다.

108) ‘섬비’는 콩게에 대응하는 어휘로 여기서는 콩게로 쓸 나무라는 의미로 쓰였다. 팽팡나무나 쥐똥나무를 주로 이용하였다.



- 104025 #2 옛날엔 여기서덜 저 웃드르 저.(옛날에는 여기서들 저 ‘웃드르’ 저.)
- 104025 #1 군산 뒤에.(‘군산’ 뒤에.)
- 104025 #2 군산 뒤에 가근에게.(‘군산’ 뒤에 가서.)
- 104025 #1 창천 지경으로 강 막 낭 도둑질허영.(‘창천’ 지경으로 가서 막 나무 도둑질 해서.)
- 104025 #2 상창<sup>109)</sup> 지경에 강, 놀낭 허여근에게.(‘상창’ 지경에 가서, 날나무해서.)
- 104025 #1 놀낭, 소낭, 난드르 사름덜 낭덜 잘 해왔어.(날나무, 소나무, ‘난드르’ 사람들 나무들 잘 해왔어.)
- 104025 @ 소낭, 소낭.(소나무, 소나무.)
- 104025 #1 소낭 끼창, 놀낭 끼창 썸은 내불곡 즈근즈근 저 오랏주게.(소나무 끊어서, 날나무 끊어서 잎은 내버리고 자근자근 저 왔지.)
- 104025 #2 웃드르 가민 썸비 낭.(‘웃드르’ 가면 ‘썸비’ 나무.)
- 104025 #1 정 왕, 집의 오랑 께곡.(저 와서, 집에 와서 깨고.)
- 104025 @ 다른 종낭은 안 허곡?(다른 때죽나무는 안 하고?)
- 104025 #1 다른 종낭 핫수가? 옛날엔 하지 안 허여서. 황백비낭이엔 혼 건 옛날에 저 쉼 무싱거 들민 약하는 거, 황백비낭. 노란 거, 쓴쓴흔 거, 황백비낭이엔 해서. 건 옛날 할망덜 입바우 막 해싸지민 황백비낭 거죽 베껴당 이디 저 영 딱 주영 뎅겨나서, 약, 병원 엇이난.(다른 때죽나무는 많습니까? 옛날에는 많지 안 해서. 황백나무라고 한 건 옛날에 저 소 무엇 들면 약하는 거, 황백나무. 노란 거, 쓴쓴한 거, 황백나무라고 했어. 건 옛날 할머니들 입술 가장자리 아주 헤어지면 황백나무 꺾질 벗겨다가 여기 저 이렇게 딱 쥐서 다녔었어, 약, 병원 없으니까.)
- 104025 @ 낭 흘 때는 멀로 가근에?(나무 할 때는 무엇으로 가서?)
- 104025 #1 나대<sup>110)</sup>영, 나대 웃영 강.(‘나대’하고, ‘나대’ 가져서 가.)
- 104025 @ 나대허곡.(‘나대’하고.)
- 104025 #2 툽, 손툽 가정.(툽, 손툽 가져서.)
- 104025 #1 툽 웃영 뎅기는 사름은 베랑 엇주. 여자덜이 주로 뎅기난게. 경허곡 군산 ㄹ뎅 디 강 소낭 ㄹ창 내불민, 막 벌경허민 정 오곡, 경 헛주게. 늪의 밧디 아이 거시렁 내불민, 창천이 사름덜 아이 거시렁 내불민, 난드르 사름 여자덜은 거 문 딱 거두왕 저 오랏주.(툽 가져서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지. 여자들이 주로 다니니까. 그리고 ‘군산’ 같은 데 가서 소나무 끊어서 내버리면, 아주 벌거면 저서 오고, 그렇게 했지. 남의 밧에 아니 가지 쳐서 내버리면, ‘창천리’ 사람들 아니 가지 쳐서 내버리면, ‘난드르’ 사람 여자들은 거 모두 거둬서 저 왔지.)
- 104025 #2 주로 나대주.(주로 ‘나대’지.)
- 104025 #1 나대, 나대.(‘나대’, ‘나대’.)

109) ‘상창’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이다.

110) ‘나대’는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낫 비슷한 연장이다.

104026 @ 솥 멩글아납디가?(솥 만들었었습니까?)

104026 #1 아이고, 솥이사 이디 멘들어나서게? 난드르서.(아이고, 솥이야 여기 만들었었어? ‘난드르’서.)

104026 @ 양?(예?)

104026 #1 솥은예, 감산이선 곳밭<sup>111)</sup>디 강, 영 막 데명 그레 불 부짱, 솥 해난 거 해도, 난 솥 해나지 안 흐난 몰라.(솥은요, ‘감산리’에서는 ‘곳밭’에 가서, 이렇게 막 쌓아서 그리로 불 붙여서, 솥 해난 거 해도, 난솥 해나지 안 하니까 몰라.)

104026 #2 난드르 솥 멘들아놋수다.(‘난드르’ 솥 만들었었습니다.)

104026 @ 머마씨?(뒤예요?)

104026 #2 솥 멘들아나서.(솥 만들었었어.)

104026 @ 거 흐 번 곶아볶서.(거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4026 #2 저 군산에 울코미<sup>112)</sup>엔 흐 디 이섯수다게. 울코미에 낭 그디 흐연, 군산의 소낭 끈연에 부락에서 솥 굽는 사름이 이섯는디 흐 멧 사름. 나도 경 흐연 그디 ㄱ찌 흐기 전에 솥 굽는 날은양, 똥그랑케 흑 파근에 그디 즈근즈근 즈근즈근 낭 끈으멍 즈근즈근 세웁니다게. 한가운디 요만흐 고망 딸라근에 그디 불 질르주. 경 흐여근에 흐 질은 더 높여. 경 솥구덩일 만듭주게. 경 흐여근에 흐 구덩이 만들 아지민 이젠 뉘연젠 흐여근에 우로 가근에 짝이민 짝, 새민 새 흐여근에 더경 그 우트레 흑을 막 데뎡주게. 경 흐영 이젠 다 흐영 더끈 두엔 불 뎡뎡 흐영 불 때기 시작흠주게. 거 으라 날 갑니다. 거 솥 흐 구덩이 구어내젠 흐민. 흐 거자 흐 일주 일만이 흐연에 솥을 예점 솥 내치겐 흐연에 거시기. 아 간 베려보난 솥을 다 불 부면 거시기 했는디 불이 죽질 안 해서. 솥이 불이 막 와랑와랑 흐연 딱시 이거 안 뉘켄 흐연 우리 물 옷어당 쥐근에 꺼불겐 흐연, 경 흐연 물 쥘에 꺼전 했는디, 경 흐연 솥 흐 구덩이가양, 솥 나오는 것이 솥 가멩이가 거자 흐 서나쁜 가멩이 이상 나웁니다.(저 ‘군산’에 ‘울코미’라고 한 데 있었었습니다. ‘울코미’에 나무 거기 해서, ‘군산’에 소나무 끊어서 부락에서 솥 굽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몇 사람. 나도 그렇게 해서 거기 같이 하기 전에 솥 굽는 날은요, 동그랑케 흑 파서 거기 자근자근 자근자근 나무 끊으면서 자근자근 세웁니다. 한가운데 요만큼한 구멍 뚫어서 거기 불 때지. 그렇게 해서 한 길은 더 높여. 그렇게 솥구덩이를 만듭지요. 그렇게 해서 한 구덩이 만들어지면 이젠 댘다고 해서 위로 가서 짚이면 짚, 띠면 띠 해서 덮어서 그 위로 흙을 막 쌓웁지요. 그렇게 해서 이젠 다 해서 덮은 뒤에는 불 뎡다고 해서 불 때기 시작합지요. 거 여러 날 갑니다. 거 솥 한 구덩이 구워내려고 하면, 한 거의 일주일만이 해서 솥을 임시 솥 내치겠다고 해서 거시기. 아 가서 봐보니까 솥 다 불 붙어서 거시기 했는데 불이 죽질 안 해서. 솥이 불이 막 와랑와랑 해서 다시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 물 가져다가 쥐서 꺼버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물 쥐서 꺼져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솥 한 구덩이가요, 솥 나오는 것이 솥 가마니가

111) ‘곳밭’은 자연생 나무가 우거진 밭이다.

112) ‘울코미’는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와 서귀포시 예래동의 경계인 일주도로 남쪽에 있는 오름인 ‘군산’에 있는 지명이다.

거의 한 서남은 가마니 이상 나옵니다.)

104026 @ 무슨 낭으로 만듭디가?(무슨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104026 #1 소낭.(소나무.)

104026 #2 소낭, 소낭개.(소나무, 소나무개.)

104026 @ 소낭으로도 햅여마썸?(소나무로도 햅요?)

104026 #2 예.(예.)

104026 #1 소낭으로도 웨여.(소나무로도 돼.)

104026 #2 소낭으로게 가지 탁탁 다스려뵈 뭉뎡이만.(소나무로 가지 탁탁 다스려뵈서 뭉뎡이만.)

104026 #1 이젠 다 욱지로 오는 솟이주게.(이젠 다 욱지로 오는 솟이지.)

104026 @ 거 솟 멩글양 폼디가?(거 솟 만들어서 팔았습니까?)

104026 #2 아이 똥은 무신, 매 집의서 사용했주. 다 픈는 사름은 풀고, 이녁 집의서 햅 사름은 이녁 집의.(아니 똥은 무슨, 모든 집에서 사용했지. 다 픈는 사름은 팔고, 이녁 집에서 한 사름은 이녁 집에.)

104026 #1 옛날엔 그 화리가 정동화리 잇곡, 부억에 부жат집의, 옛날에 양반의 집원 부억에 이런 화덕이 있어. 그디서 불 살랴 추왓주게. 계난 아기가 돌아다니당 거기서 죽곡 해나서, 불에 데영. 옛날엔 부억에 화덕이엔 햅 게 있어났수다.(옛날에는 그 화로가 청동화로 있고, 부억에 부жат집에, 옛날에 양반의 집에는 부억에 이런 부뚜막이 있어. 거기서 불 살려서 쪼었지. 그러니까 아기가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죽고 했었어, 불에 데어서. 옛날에는 부억에 부뚜막이라고 한 게 있었었습니다.)

104026 @ 정제에양, 잇어나서마썸. 돌로 영.(부억에요, 있었었어요. 돌로 이렇게.)

104026 #1 싸근에 불 추는 디. 옛날 것고라 화덕이엔 햅수다.(켜서 불 쪼는 데, 옛날 것더러 부뚜막이라고 했습니다.)

104026 @ 거기서 솟 햅여근에 불 추와났구나.(거기서 솟 해서 불 쪼었었구나.)

104026 #1 불도 추곡, 낭으로, 생낭 해당 그디 와랑와랑<sup>113)</sup> 살랴도 추곡, 옛날엔 무싱거 온돌이 잇수과? 굴묵 진는 거 방 하나 잇곡 햅민, 어른이나 늑져불곡, 애기덜이나 늑지곡, 그디 싸늘한 데 살았주 무신. 이불 하나에 오망오망<sup>114)</sup> 밭 찢러 살곡 햅수게, 옛날엔게. 구들 하나에 다섯 식구, 여섯 식구 문딱 모여정 늑곡.(부도 쪼고, 나무로, 생나무 해다가 거기 ‘와랑와랑’ 살려서도 쪼고, 옛날에는 무엇 온돌이 있습니까? ‘굴묵’ 대는 거 방 하나 있고 하면, 어른이나 늑혀버리고, 애기들이나 늑히고, 거기 싸늘한 데 살았지 무슨. 이불 하나에 ‘오망오망’ 밭 찢러서 살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방 하나에 다섯 식구, 여섯 식구 모두 모여져서 늑고.)

104027 @ 그다음에 이 저 지들커 햅명 재미난 일 햅 번 곱아봅서.(그다음에 이 저 빨감 하면서 재미난 일 한 번 말해보십시오.)

113) ‘와랑와랑’은 불이 성하게 타오르는 모양이다.

114) ‘오망오망’은 사람이나 물건이 즐망졸망하게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이다.

104027 #1 재미난 일 무싱거, 하르방 머 지들커 흐레 땡겨서.(재미난 일 무엇, 할아버지 뭐 땡감 하러 다녔어.)

104027 #2 거 무싱거 재미난 일 엇수다.(거 무엇 재미난 일 없습니다.)

104027 #1 지들커 정 오명 뵤만 흐연 쉬곡 했주 무신.(땡감 저서 오면서 무거움만 해서 쉬고 했지 무슨.)

104027 @ 추억게?(추억이요?)

104027 #2 늬의 밧디 거시기.(남의 밧에 거시기.)

104027 @ 어디 낭 흐레 갓당.(어디 나무하러 갔다가.)

104027 #1 소낭 도독질흐영 막 정 돌아오곡, 경 했주게. 무신 그거 뿐이주.(소나무 도독질해서 막 저서 달려오고, 그렇게 했지. 무슨 그거뿐이지.)

104027 #2 낭 흐레 갓다근에 늬의 집 밧디 걸러들어근에, 생소낭 끈어저근에.(나무 하러 갔다가 남의 집 밧에 걸러들어서, 생소나무 끊어져서.)

104027 #1 양, 늬의 낭 벌경흐민 거 지들커 흐레 강 그거 끼창 오젠 그거 박박박 정 오라낫수게, 난드르 여자덜은.(예, 남의 나무 벌거면 거 땡감 하러 가서 그거 끊어서 오려고 그거 박박박 저서 왔었습니다, ‘난드르’ 여자들은.)

## 사냥

104028 @ 사냥 해 봅디게? 사냥.(사냥 해봤습니까?)

104028 #1 사냥이사 어떻 흡니까?(사냥이야 어떻게 합니까?)

104028 #2 사냥 해보질 못 했수다.(사냥 해보질 못 했습니다.)

104029 @ 계난 무싱거 머 썩 잡는 거.(그러니까 무엇 뭐 썩 잡는 거.)

104029 #1 썩코<sup>115)</sup> 놓는 것사 했주.(‘썩코’ 놓는 것이야 했지.)

104029 @ 계난 사냥 대상은 어떤 것덜 잇수과? 썩흐고.(그러니까 사냥 대상은 어떤 것들 있습니까? 썩하고.)

104029 #1 썩 그거벧기 더 잇어게?(썩 그거밖에 더 있어?)

104029 @ 지다리?(오소리?)

104029 #1 지다리 이디 어디, 지다리 고톡 좇아저사주.(오소리 여기 어디, 오소리 구멍 찾아져야지.)

104029 @ 계난 썩?(그러니까 썩?)

104029 #1 썩코 낱게, 아의덜 흐영.(‘썩코’ 놓아서, 아이들 해서.)

104029 @ 계난 썩 잡젠 흐민 어떻 흐엿수과?(그러니까 썩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104029 #1 썩코 놔근에게.(‘썩코’ 놓아서.)

104029 #2 썩코 만들아근에, 일로 영 사름 텡기는 딜로 영 보민 썩 텡기는 길이 알아집니다게. 썩 밧자국 나곡, 썩 톡도 싸곡 흐명, 이디 썩코를 놓는다.(‘썩코’ 만들어서, 이리로 이렇게 사람 다니는 데로 이렇게 보면 썩 다니는 길이 알아집니다. 썩

---

115) ‘썩코’는 썩을 잡기 위한 올가미이다.

밭자국 나고, 꿩 똥도 싸고 하면서, 여기 ‘꿩코’를 놓는데.)

104029 @ 계란 꿩코 멀로 멘들아?(그러니까 ‘꿩코’ 멀로 만들어?)

104029 #2 하리가네, 전깃줄로. ㄴ는ㄴ는 흥 전깃줄 잊지 안 흥우짜?(철사, 전깃줄로. 가는가는 한 전깃줄 잊지 안 합니까?)

104029 @ 하리가네, 건 일본말이네.(철사, 건 일본말이네.)

104029 #2 ㄴ는 쉼줄로 코 멘들아근에, 꿩 땡겜시민 영 흥영 바근에, 만약에 여기서 꿩코 놓젠 흥민 특 흥게 놓주게. 꿩콜 영 흥영 벌겨지게 놓민, 이레 영 가게, 이젠 돌맹이 옷어당 일로 못 가게 놓니다게. 돌맹이 멧 개 놔 불민 그레 가젠 흥당 막아정 일로 가당 걸어정.(가는 쇠줄로 올라미 만들어서, 꿩 다니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봐서, 만약에 여기서 ‘꿩코’ 놓으려고 하면 특 흥게 놓지요. ‘꿩코’를 이렇게 해서 벌겨지게 놓으면, 이리로 이렇게 가게, 이제는 돌맹이 가져다가 이리로 못 가게 놓니다. 돌맹이 멧 개 놓아 버리면 그리로 가려고 하다가 막아져서 이리로 가다가 걸어져.)

104029 #1 걸어정, 파닥파닥 흥여. 뒷날 강 보민 야가기 들아정 파닥파닥 죽엄시민 봉가왔주게. 넘어가당 늣 봉가가봄도 흥여불고.(걸어져서, 파닥파닥 해. 뒷날 가서 보면 모가지 매달려서 파닥파닥 죽고 있으면 주워왔지. 넘어가다가 남 주워가 버림도 해버리고.)

104029 #2 늣도 봉가가봄도 흥고.(남도 주워가버림도 하고.)

104029 #1 꿩코 논 거.(‘꿩코’ 놓은 거.)

104030 @ 노루 사냥 해 봅디가?(노루 사냥 해봤습니까?)

104030 #1 아이, 이디서 난드르 노루 사냥은 무싱거. 난드르 사름덜이 노루 어느 저를에.(아니, 여기서 ‘난드르’ 노루 사냥은 무엇. ‘난드르’ 사람들이 노루 어느 저를에.)

104031 @ 지다리 사냥은?(오소리 사냥은?)

104031 #1 지다리로 마찬가지.(오소리도 마찬가지로.)

104031 #2 지다리 어느 저를에.(오소리 어느 저를에.)

104031 #1 지다리로 잡아보지 못 흥고.(오소리도 잡아보지 못 하고.)

104031 @ 어디 굴 ㄴ쁜 뒤 지다리 잊지양?(어디 굴 같은 데 오소리 잊지요?)

104031 #1 사름 땡겨가민 나오지도 안 흥여, 지다리.(사람 다녀가면 나오지도 안 해, 오소리.)

104032 @ 족제비.(족제비.)

104032 #1 족제비 잡으레사 땡겨나실 테주.(족제비 잡으러야 다녔었을 테지.)

104032 @ 덧에 대흥영 흥 번 곶아봅서.(덧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4032 #2 족제빈 잡아낫수다.(족제비는 잡았었습니다.)

104032 @ 어떻 잡읍디가?(어떻게 잡았습니까?)

104032 #2 족제비 덧 멘들아근에, 중이 잡아근에, 쉼줄 흥영 중이 푹 흥게 들아 메여근에, 덧 흥영 간에 그디 딱 놔근에, 그디 이제 죽은 거 테어지젠 흥민, 그 곳

땡이, 덧 줄 즐라멘 꺾땡이 뒤우로 오라근에게 벗어지게끔 햏여근에 코를 멘들아근에, 경 햏연근에 족제비 들어가근에 톡 햏게 덧저근에 죽읍주게. 경 햏연 햏 마린가, 두 마린가 잡아낫수다.(족제비 덧 만들어서, 쥐 잡아서, 쇠줄 해서 쥐 톡 하게 매달아서, 덧 줄 잘라매어서 꼬트머리 뒤로 와서 벗어지게끔 해서 올라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족제비 들어가서 톡 하게 덧쳐서 죽읍지요. 그렇게 해서 한 마린가, 두 마린가 잡았었습니다.)

104032 @ 족제비 잡앙 풀앗수과?(족제비 잡아서 팔앗습니까?)

104032 #1 풀주게.(팔지요.)

104032 #2 뽕도 햏고, 옛날엔 그 붓 메젠.(뽕도 하고, 옛날에는 그 붓 만들려고.)

104032 #1 막 받으레 땡겅주게.(막 받으러 다녔지요.)

104032 #2 족제비 끌렅기 요만이 햏 거 햏나에 스오백 원씩 받아나서.(족제비 꼬리 요만큼 한 거 하나에 사오백 원씩 받았었어.)

104032 #1 스백 원이민 얼마나 큰 거우파?(사백 원이면 얼마나 큰 것입니까?)

104033 @ 사냥에 대한 추억.(사냥에 대한 추억.)

104033 #1 사냥 무신 추억 있어. 사냥 해나도 안 햏여신디.(사냥 무슨 추억 있어. 사냥 했어도 안 했는데.)

104033 #2 추억이란 건 엇어.(추억이란 건 없어.)

## 5. 바다일

105001 @ 바당 일에 대햏영 물어보쿠다양. 바당에서 햏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이수과?(바다 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01 #1 옛날 켈기 나끄곡, 즘수질 햏곡 그거주게.(옛날 고기 낚고, 해녀질 하고 그거지.)

105001 @ 거난에.(그러니까.)

105001 #1 거벳기 더 잇어게.(그러니까 더 있어.)

105001 @ 거난.(그러니까.)

105001 #1 배가 풍선, 초석 들린 배, 옛날에. 걸로 가근에 네 젓으멍 가곡, 네 젓으멍 오곡, 경 햏영 풍선, 초석 두 개, 세 개 들러근에 네 젓으멍 바당에 가곡, 먼 디 갈 때는 초석으로 가곡, 경 햏영 켈기 나깡 올 때도 기추룩 햏영 오곡, 당캐<sup>116)</sup> 레 들어오랑, 경 햏주게, 브재기덜은.(배가 돛단배, 돛 달린 배, 옛날에. 걸로 가서 노 저으면서 가고, 노 저으면서 오고, 그렇게 해서 돛단배, 돛 두 개, 세 개 달려서 노 저으면서 바다에 가고, 먼 데 갈 때는 돛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고기 낚아서 올 때도 것처럼 해서 오고, ‘당캐’로 들어와서, 그렇게 했지, 어부들은.)

116) ‘당캐’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포구 일대를 일컫는다.

105002 @ 듄북 해 뵈디강?(뽄부기 해 뵈십니까?)  
105002 #1 듄북이 머라?(뽄부기가 뵈인가?)  
105002 @ 감태.(감태.)  
105002 #1 감텐 난 안 해뵈. 우리 씨어멍은 감태 하영 해신디.(감텐 난 안 해뵈어. 우리 시어머니는 감태 많이 해뵈.)  
105002 @ 거 혼 번 곴아뵈서.(거 한 번 말해뵈십시오.)  
105002 #1 감태는양, 바당 썸민, 이제 혼는 거 보민, 이제도 감태 혼니다, 이디 사름덜은. 난 감태 좃으렌 안 뵈겨본 사름이주만은, 해변의 오라도. 바당 썸민 감태가 막 올려, 궂더레. 게민 그거 주워근에 모영 나뵈탕, 널영, 물리왕, 놀영 나뵈탕 풀앗수게게, 감태는.(감태는요, 바다 세면, 이제 하는 거 보면, 이제도 감태 혼니다, 여기 사름들은. 난 감태 주우려 안 다녀본 사름이지만은, 해변에 와도. 바다 세면 감태 막 올려, 바닷가로. 그러면 그거 주워서 모여서 뵈뵈다가, 널어서, 말려서, 썸아서 뵈뵈다가 팔앗습니다, 감태는.)  
105002 @ 혼자?(혼자?)  
105002 #1 혼자 이녁만씩게, 이녁만씩. 열 사름이민 열 사름마다 다 뵈나게.(혼자 이녁만큼씩, 이녁만큼씩. 열 사름이면 열 사름마다 다 다르게.)  
105002 @ 공동으로 혼진 안 혼곡?(공동으로 하지는 안 하고?)  
105002 #1 공동으로 안 혼곡, 혼자덜. 춤 부지런해사 그 감태 줍젠 혼민.(공동으로 안 하고, 혼자들. 참 부지런해야 그 감태 주우려고 하면.)  
105002 @ 주워근에.(주워서.)  
105002 #1 물리왕, 놀영 뵈탕, 감태 받는 사름이 잇주게.(말려서, 썸아서 뵈다가, 감태 받는 사름이 있지.)  
105002 @ 곴름으로 해신가마썸?(거름으로 해는가요?)  
105002 #1 몰르कु다. 곴름이사 해신디, 감태 받아가는 사름이 잇고, 조합에도 받아가곡, 이제도 감태 햄수게게.(모르겠습니다. 거름이야 해는지, 감태 받아가는 사름이 잇고, 조합에도 받아가고, 이제도 감태 하고 있지요.)  
105002 @ 지금은 공동으로 햄수과?(지금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105002 #1 이제도 이녁만씩.(이제도 이녁만큼씩.)  
105002 @ 이녁만씩.(이녁만큼씩.)  
105002 #1 이녁만씩 혼는 거 닢읍디다, 줍수덜.(이녁만큼씩 하는 거 닢앗습니다, 해녀들.)  
105003 @ 보말 잡아뵈디게양?(고둥 잡아뵈십니까?)  
105003 #1 게, 보말이사 잡주게.(그럼, 고둥이야 잡지.)  
105003 @ 보말 어떻 잡읍니까?(고둥 어떻게 잡읍니까?)  
105003 #1 물싸민 우린 줍수 아이난, 물싸민 바짜 물르민 강 돌 일르멍, 보말 나민 주워 농곡, 돌 일르멍 좃어 농곡, 물 들어가민 오라불곡, 경 헛주게.(물싸면 우린 해녀 아니니까, 물싸면 바짜 마르면 가서 돌 일으키면서, 고둥 나면 주워 넣고,

돌 일으키면서 주워 넣고, 물 들어가면 와버리고, 그렇게 했지.)

105003 @ 지픈 디 들어강?(깊은 데 들어가서?)

105003 #1 아니, 물 바짝 썬 디, 돌 일르민 보말이 나와. ㄱ메기도 나오고, 수두리도 나오고, 떡보말도 나오고.(아니, 물 바작 썬 데, 돌 일으키면 고등이 나와. 남방울타리고등도 나오고, 두드려고등도 나오고, 밤고등도 나오고.)

105003 #2 물 싸가민게, 돌 밑에 내려가근에게 돌 똬쓰민게.(물 써 가면, 돌 밑에 내려가서 돌 뒤집으면.)

105003 #1 돌 일러근에게, 돌 똬싸사. 스나이덜은 훑은 돌 일르민 조쿠제기도 나오고 하간 거 나온덴 흐는디 우린, 옷드르 사름이곡 잡을 줄 몰르민 존존흔 거 일리민 보말 나오민 좇엉 집의 오랑 숲양 내영 떡곡 했주게. 그거주게 보말은.(돌 일으켜서, 돌 뒤집어야. 남자들은 굵은 돌 일으키면 어린 소라도 나오고 온갖 거 나온다고 하는데 우린, ‘옷드르’ 사람이고 잡을 줄 모르면 잔잔한 거 일으키면 고등 나오면 주워서 집에 와서 삶아서 내어서 먹고 했지. 그거지 고등은.)

105003 @ 갱이, 갱인 어떻 잡습니까?(게, 게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3 #1 갱이, 풋갱이 잡으레, 풋갱이 있어. 지금 풋갱이 잇이난, 동카름 바당에 내창이 잇이민, 영 존존흔 돌 잇이민 풋갱이가 불불불불불 기여가민 문딱 주워, 그거주게. 풋갱이 잡으레 가게 흐명.(게, 아주 작은 게 잡으러, 아주 작은 게 있어. 지금 아주 작은 게 있으니까, ‘동카름’ 바다에 내가 있으면, 이렇게 잔잔한 돌 있으면 아주 작은 게가 발발발발발 기어가면 모두 주워, 그거지. 아주 작은 게 잡으러 가게 하면서.)

105003 @ 잡아다근에?(잡아다가?)

105003 #1 잡아당 옛날엔 ㄱ루 농곡 흐영, ㄱ루 낱 보깡 바삭바삭 먹어신디, 이제 사름덜은 풀젠 잡아감주게, 식당에 풀젠. 경흐민 갱인 뽏아근에 물로 막 췌질양, 물로 보끄면은 푹 계란 보꾼 거 닳아. 기냥은 ㄱ루 놔근에 ㄱ루 무쳐근에 보깡 먹엇주게, 옛날 어른덜은. 모멸ㄱ루 낱, 갱이 바글바글 해가민 ㄱ루 낱 흐민, ㄱ루 정흐민 바삭바삭 씹엉 먹엇주게.(잡아다가 옛날에는 가루 넣고 해서, 가루 넣어서 볶아서 바삭바삭 먹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팔려고 잡아가고 있지, 식당에 팔려고. 그러면 게는 빵아서 물로 막 물기를 짜려고 비틀어서, 물로 볶으면 푹 계란 볶은 거 닳아. 그냥은 가루 넣어서 가루 묻혀서 볶아서 먹었지, 옛날 어른들은. 메밀가루 넣어서, 게 바글바글 해가면 가루 넣어서 하면, 가루 저서 하면 바삭바삭 씹어서 먹었지.)

105003 #2 옛날 닳지 안 흐영 이제 엇수다.(옛날 닳지 안 해서 이제는 없습시다.)

105004 @ 보말 종류 어떤 거 잇어마썸?(고등 종류 어떤 거 있어요?)

105004 #1 보말, ㄱ메기, 떡보말, 수두리, 딱시 저 무싱겨우짜? 저, 것고라 무싱겨엔 흐다만은, 먹으른 쓴쓴흐고, 닥살 잇고 흐 거. 거 무슨 보말이엔 흐연게 만은, 것도 있어.(고등, 방울타리고등, 밤고등, 두드려고등, 다시 저 무엇입니까? 저, 것더



러 무엇이라고 한다만은, 먹으면 아주 쓰고, 껍데기 있고 한 거. 거 무슨 고둥이라고 하던데 만은, 것도 있어.)

105005 @ 갱이 종류는?(게 종류는?)

105005 #1 갱이 종류는 그거 풋갱이.(게 종류는 그거 아주 작은 게.)

105005 #2 똥갱이.(먹을 수 없는 게.)

105005 #1 (장면 위의 사람과) 닥살 하고 쓴쓴흔 보말고라 며옴 흡니까? 맞아 문다드리. (장면으로) 저 거세기 문다드리, 네 가지주게. 보말이옴 흔 거.((장면 위의 사람과) 껍데기 하고 아주 쓴 고둥더러 뭐라고 합니까? 맞아 눈알고둥. (장면으로) 저 거시기 눈알고둥, 네 가지지. 보말이라고 한 거.)

105005 @ 갱이 종류는?(게 종류는?)

105005 #1 갱이 종류는 풋갱이, 그냥 넷갱이, 그거주게. 따른 거 옴어.(게 종류는 아주 작은 게, 그냥 참게, 그거지. 다른 거 옴어.)

105005 #2 똥갱이.(먹을 수 없는 게.)

105005 #1 똥갱이.(먹을 수 없는 게.)

105005 #2 지름갱이<sup>117</sup>.(‘지름갱이’.)

105005 @ 풋갱이는 어떤 거?(아주 작은 게는 어떤 거?)

105005 #1 풋갱이는 발간 거, 발발발발 돌아댕기는 거, 먹는 거, 건 풋갱이고. 똥갱이도 있고, 똥갱이옴 흔 건 검은 거, 발발발발 기어 댕기는 거.(아주 작은 게는 빨간 거, 발발발발 돌아다니는 거, 먹는 거, 그것은 아주 작은 게이고. 먹을 수 없는 게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게라고 한 건 검은 거, 발발발발 기어 다니는 거.)

105005 @ 것도 먹어?(것도 먹어?)

105005 #1 먹엄사신디 난 몰라.(먹고 있는지 난 몰라.)

105005 #2 먹는 사람은 먹넌 말도 옴어.(먹는 사람은 먹는다는 말도 옴어.)

105005 #1 갱이 종류 다 잡아감실 겨우다, 이젠.(게 종류는 다 잡아가고 옴을 것 옴니다, 이젠.)

105005 #2 지름갱이 옴고.(‘지름갱이’ 옴고.)

105005 #1 지름갱이 옴고, 세 가지라.(‘지름갱이’ 옴고, 세 가지지.)

105005 @ 지름갱이?(‘지름갱이’?)

105005 #1 지름갱이 일름이 옴수다, 기냥 갱이. 지름갱이, 풋갱이, 따시 똥갱이, 경 흐연 세 가지라. 따시 저 넷갱이, 옴은 거, 그거. 다섯 가지라, 갱이 종류도.(‘지름갱이’ 이름이 옴습니다, 그냥 게. ‘지름갱이’, 아주 작은 게, 다시 먹을 수 없는 게, 그렇게 해서 세 가지지. 다시 저 참게, 굽은 거, 그거. 다섯 가지지, 게 종류도.)

105006 @ 이 불 들런에, 햇불 들런에 잡아봄디게양?(이 불 들러서, 햇불 들러서 잡아옴습니까?)

105006 #1 난 아이 댕겨밧수다게, 웃드르서.(난 아니 다녀옴습니다, ‘웃드르’서.)

105006 @ 햇불 들러근에 머 잡아?(햇불 들러서 뭐 잡아?)

117) ‘지름갱이’는 조간대(潮間帶) 상층(上層)에 서식하는 게의 일종이다.

105006 #1 보말 잡아놔수다. 넷쟁이영. 내쳐나민 바당드레 막 느려가주게. 경흐민 불 들러근에 넷쟁이 잡으레 가놔수게게.(고등 잡았었습니다. 참게하고. 내에서 물이 크게 흘러내려나면 바다로 막 내려가지. 그러면 불 들러서 참게 잡으러 갔었습니다.)

105006 @ 넷쟁이도 잡곡, 그다음에.(참게도 잡고, 그다음에.)

105006 #1 그거주게, 무신.(그거지, 무슨.)

105006 @ 저 뗏도 잡지 안 흐여, 저.(저 뗏도 잡지 안해, 저.)

105006 #1 아명, 바지른 다 잡주.(아무리, 봐지면 다 잡지.)

105006 @ 그 물꾸러 닻은 거 머 잊지?(그 문어 닻은 거 뭐 잊지?)

105006 #1 낙지? 낙지 잘 아이 나옵니다, 그거 들렁은.(낙지? 낙지 잘 아니 나옵니다, 그거 들러서는.)

105006 @ 무사 밤의 가근에.(왜 밤에 가서.)

105006 #1 아이, 겨도 거 잘 안 나와. 잡는 사름은 바지른 잡주게. 넷쟁이 주장 잡으레 갖주게. 내쳐나민 바당드레 느려가난.(아니, 겨도 거 잘 안 나와. 잡는 사름은 봐지면 잡지. 참게 주장 잡으러 갔지. 내에서 물이 크게 흘러나면 바다로 내려가니까.)

105006 @ 게민 여기선 넷쟁이 어디 강 잡아?(그러면 여기서는 참게 어디 가서 잡아?)

105006 #1 아니, 이 앞의도 가곡게, 이 앞의가 주장 갖주.(아니, 이 앞에도 가고, 이 앞에가 주장 갖지.)

105006 @ 넷쟁이가 어디서 내려와근에?(참게가 어디서 내려와서.)

105006 #1 이 내로 느려와, 내쳐나민 바당드레.(이 내로 내려와, 내에서 물이 크게 흘러나면 바다로.)

105006 @ 이 내가 무슨 내파?(이 내가 무슨 내입니까?)

105006 #1 셋내<sup>118</sup>.(‘셋내’.)

105006 @ 셋내서 내려와근에.(‘셋내’서 내려와서.)

105006 #1 셋내. 저 군산 앞으로 영 느려오는 내.(‘셋내’. 저 ‘군산’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내.)

105006 @ 이젠 쟁이 엇지양?(이젠 게 없지요?)

105006 #1 쟁이 엇어. 경 흐고양, 쟁이 잡아당 먹을 필요가 엇수다. 이제는 밧디 약을 만이 햐수게. 경흐민 내트레 다 느려가는 거라. 거 쟁이가 다 먹는 거 아니우파? 이젠 넷쟁이 심어가젠도 아니 흐곡, 넷쟁이 바져도 잡지도 안 흡니다.(게 없어. 그렇게 하고요, 게 잡아다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밧에 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로 다 내려가는 거야. 거 게가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이젠 참게 잡아가려고도 아니 하고, 참게 바져도 잡지도 안 합니다.)

105006 @ 이젠 넷쟁이 엇일 거라.(이젠 참게 없을 거야.)

118) ‘셋내’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내(川) 이름이다.

105006 #1 심음도 잇는다, 제초제영 막 써붙은 물이 내트레 느려감수게. 강이가 그거 먹엄수게. 계난 이제 강이 안 잡아. 저 장에 강 사당은 먹어도.(잡음도 있는데, 제초제하고 막 써버리면 물이 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가 그거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 안 잡아. 저 장에 가서 사다가는 먹어도.)

105007 @ 여기 저 원담<sup>119</sup> 잇지예, 원담. 돌로 영 동고락하게.(여기 저 ‘원담’ 잇지요, 돌로 이렇게 동그렇게.)

105007 #2 잇어낫수다.(있었었습니다.)

105007 @ 그 원담 안에 무슨 꿩기 들어옵니까?(그 ‘원담’ 안에 무슨 고기 들어옵니까?)

105007 #2 그때 우리 알거니 따치 ㄹ쁜 거나.(그때 우리 알거니 독가시치 같은 거나.)

105007 @ 뻔?(뻔치?)

105007 #1 뻔은 안 들어와.(뻔치는 안 들어와.)

105007 #2 뻔도 들어오기야 들어오주만은 주로 물 싸민 강 심는 거 보민, 돌 구녕에 들어가근에 곱은 거 이시민게 잡양 담는 거 보민, 주로 따치 잘 잡읍니다.(뻔치도 들어오기야 들어오지만은 주로 물써면 가서 잡는 거 보면, 돌 구멍에 들어가서 숨은 거 있으면 잡아서 담는 거 보면, 주로 독가시치 잘 잡았읍니다.)

105007 @ 따른 꿩기덜은?(다른 고기들은?)

105007 #1 따른 꿩기 ㄹ되 십니까? 경.(다른 고기 가에 있습니까? 그렇게.)

105007 @ 계난 여긴 원담 엇어낫구나양.(그러니까 여기는 ‘원담’ 없었었구나.)

105007 #2 원담 여기 잇어낫수다. 저 기운<sup>120</sup>이엔 혼 디, 원담이엔 혼 거 잇어 낫는다, 다 이거 바당의 멧 번 쉐 날은 자꾸 뻔라져근에 꺾어가곡, 꺾어가곡 혼연 엇어져. 곱까지 잇긴 잇어낫는다, 곱까지 다 쓸어내부난.(‘원담’ 여기 있었었습니다. 저 ‘기운’이라고 한 데, ‘원담’이라고 한 거 있었었는데, 다 이거 바다가 멧 번 쉐 날은 자꾸 무너져서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해서 없어져. 밑까지 잇기는 있었었는데, 밑까지 다 쓸어내 버리니까.)

105008 @ 그 원담 보수 혼젠 안 혼염구나, 이 마을에선?(그 ‘원담’ 보수 하려고 안 하고 있구나, 이 마을에서는?)

105008 #1 안 혼니다게. 그물 놓곡, 덩장 놓멍 다 잡아불언 무신.(안 합니다. 그물 놓고, 덩장 놓으면서 다 잡아버려서 무슨.)

105008 @ 아니, 경 혼여도게.(아니, 그렇게 해도.)

105008 #1 이제 원담이 엇수게, 혼치.(이제 ‘원담’이 없읍니다, 한꺼번에 같이.)

105008 @ 이제 관광객덜도 오고, 영 바당에.(이제 관광객들도 오고, 이렇게 바다에.)

105008 #1 경 혼여도 바당만 돌지.(그렇게 해도 바다만 돌지.)

119) ‘원담’은 해변 조간대(潮間帶)에 만(灣)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이다.

120) ‘기운’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바닷가에 원담이 있었던 지명이다.

105008 @ 멩글아근에.(만들어서.)

105008 #1 멘드는 사름도 엇곡, 관광객덜은 질로만, 바당에 우의 질 나난 질로만 걸어댕기주. 그 바당 빌레<sup>121</sup>레 나가지도 안 합니다.(만드는 사람도 없고, 관광객들은 질로만, 바다에 위에 길 나니까 질로만 걸어 다니지. 그 바다 너럭바위로 나가지도 안 합니다.)

105009 @ 멜은 어떻 잡읍니까?(멸치는 어떻게 잡읍니까?)

105009 #1 멜은양, 바당 썬영 절치른 빌레에 막 주워왓주게.(멸치는요, 바다 세어서 파도치면 너럭바위에 막 주워오고 있지.)

105009 @ 계난 잡을 때는?(그러니까 잡을 때는?)

105009 #1 계메, 잡을 때 경 좃어오는 거.(글썬, 잡을 때 그렇게 주워오는 거.)

105009 #2 경 햏영도 햏곡, 기자 구물로 햏영 잡음도 햏곡, 물통에 들엉.(그렇게 해서도 햏고, 그저 그물로 해서 잡음도 햏고, 물통에 들어서.)

105009 #1 멜 잘 들어오지도 안 햏여.(멸치 잘 들어오지도 안 햏.)

105009 #2 우리 어릴 때 원담 안네 멜 들어오란 멜 잡아낫수다게.(우리 어릴 때 ‘원담’ 안에 멸치 들어와서 멸치 잡았었습니다.)

105009 @ 원담에서양?(‘원담’에서요?)

105009 #2 원담 안네서, 계난 거시기 햏연에 이만햏 멜사들 거시기 들렁 간에, 멜 햏영 들어왓첸 햏연에 간 보난, 멜사들 썬 햏게 안트레 디밀안에 조금 싯단에게 영 들르난 슝햏햏 들어와싯디다게. 경 햏연 그땐 잡아뵈, 잡아보지도 안 햏고.(‘원담’ 안에서, 그러니까 거시기 해서 이만햏 멸치들 거시기 들러서 가서, 멸치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멸치들 썬 햏게 안으로 들이밀어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들르니까 가득햏게 들어왓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땐 잡아뵈어, 잡아보지도 안 햏고.)

105009 #1 줌수덜 화포 햏여근에 꿩기 잡아.(햏녀들 화포 해서 고기 잡아.)

105010 @ 꿩기 어떻 낚읍니까?(고기는 어떻게 낚읍니까?)

105010 #1 꿩기 낚음은, 이제 이제는 낚싯대덜로 햏영 햏는다, 옛날엔 춤대, 대로 춤대 햏영 강 무신 꿩기도 나끄곡, 경 햏주게. 큰 꿩기 못 나끄곡, 우럭 ㄱ뽏 거, 불락 ㄱ뽏 거, 경 막 낚앗주게.(고기 낚음은, 이제 이제는 낚싯대들로 해서 햏는데, 옛날에는 낚싯대, 대로 낚싯대 해서 가서 무슨 고기도 낚고, 그렇게 햏지. 큰 고기는 못 낚고, 우럭 같은 거, 불락 같은 거, 그렇게 막 낚았지.)

105010 @ 거난 춤대.(그러니까 낚싯대.)

105010 #1 춤대, 대로.(낚싯대, 대로.)

105010 @ 여기 며 대 잇수과?(여기 뽏 대 잇읍니까?)

105010 #1 아니, 감산이도 강 햏여 오곡 막 햏여. 질 다끄레 갓당도 도독질로 막 그창 오곡, 감산이 내창에 거. 왕대로도 햏곡, 족대로도 햏곡, 족덴 이디 기정에

121) ‘빌레’는 지면(地面) 또는 땅에 넓적햏고 평평햏게 문힌 돌이다. 표준어 ‘너럭바위’에 대응햏는 말이다.

하난, 아의덜은 죽대.(아니, ‘감산리’도 가서 해서 오고 막 해. 길 뚫으러 갔다가도 도둑질로 끊어서 오고, ‘감산리’ 내에 거. 왕대로도 하고, 이대로도 하고, 이대는 여기 절벽에 많으니까, 아이들은 이대.)

105010 #2 우리 저 거시기 흔 댜 볼락 ㄹ똥 거 하영 나까낫수다.(우리 저 거시기 한 때는 볼락 같은 거 많이 낫았었습니다.)

105010 #1 테로도 강 잡아오곡.(떼로도 가서 잡아오고.)

105010 @ 계난 낫시대는 춤대양?(그러니까 낫시대는 ‘춤’요?)

105010 #1 예, 춤대. 대 ㅎ여근에 춤대. 다 그걸로 나깻주게, 옛날덜은.(예, 낫시대. 대 해서 낫시대. 다 그것으로 낫았지, 옛날들은.)

105011 @ 낫시줄은 어떻 구릅니까?(낫시줄은 어떻게 구릅니까?)

105011 #2 픈는 거 잇이난.(파는 거 있으니까.)

105011 #1 픈는 거 사다근에게 ㄹ는ㄹ는 흔 힌 거 ㅎ여근에 춤대에 돌아메여근에게.(파는 거 사다가 가는가는 한 흰 거 해서 낫시대에 달아메어서.)

105011 #2 ㄹ는ㄹ는 흔 수자리<sup>122)</sup> ㅎ여근에, 헤영흔 거, 수자리엔 흡주게.(가는가는 한 ‘수자리’ 해서, 하얀 거, ‘수자리’라고 합지요.)

105011 #1 바당에 가근에 계수리 파근에 니깍도 ㅎ곡, 경 헛주게.(바다에 가서 깻지렁이 파서 미끼도 하고, 그렇게 했지.)

105011 @ 게 낫시도 사와?(그럼 낫시도 사와?)

105011 #2 낫시도 사와야주게.(낫시도 사와야지.)

105011 @ 어디 강 사와수강?(어디 가서 사와습니까?)

105011 #2 상점마다게 낫시 픈는 디 잇이난게.(상점마다 낫시 파는 데 있으니까.)

105011 @ 경 ㅎ는디 이 뽕뜰.(그렇게 하는데 이 붕뜰.)

105011 #2 연철, 연철로 집의서 멘들아근에.(연철, 연철로 집에서 만들어서.)

105011 @ 어떻 멩급니까?(어떻게 만듭니까?)

105011 #2 조그만 ㅎ게 동글락ㅎ게.(조금만 하게 동그렇게.)

105011 #1 불 파파 ㅎ명 멘들아, 불 불명 스뭇, 난리가 나게 흡디다. 나 멘드는 거 바나신디, 바당에도 강 막 멘들고, 경 흡디다.(불 파파 하면서 만들어, 불 불면서 사뭇, 난리가 나게 합디다. 나 만드는 거 봤었는데, 바다에 가서 막 만들고, 그렇게 합디다.)

105012 @ 작살로 퀘기 잡아뵈디가?(작살로 고기 잡아뵈습니까?)

105012 #2 예, 작살 건 머, 내가 잡아뵈주.(예, 작살 건 뭐, 내가 잡아뵈지.)

105012 @ 작살로 어떻 퀘기 잡읍니까?(작살로 어떻게 고기 잡습니까?)

105012 #2 예를 들어서, 형씨가 고기 아니우파? 고만이 사시민 먼 디서 보민 저기 틀립엇이 고기가 잇구나 ㅎ여근에, 작살로게 고무줄 부짚 거난, 고무줄 늘려양, 꺾어근에 발리와 앓아근에 그레 갑주게. 영 감시민 그자 영 보민 그자 돌아남직흔

122) ‘수자리’는 낫시와 낫시줄 사이에 매는 끈이다.

거, 아이 보민 알아집니다게. 흐끔 흐여근에 느릿느릿 거시기 도망치단 흐민, 요영 흐민 요레 가젠 험시민 요레 쏘으민 뽕직하다 흐여근에 잡아 쏘으민 기자 구석에 몇 부짱 쏘으민 쿡 하게 들어잡주게. 게민 웅이 ㄱ쁜 거, 훑은 거 잘 쏘아나서.(예를 들어서, 형씨가 고 아넵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먼 데서 보면 저기 틀림없이 고기가 있구나 해서, 작살로 고무줄 붙인 거니까, 고무줄 늘려서요, 가져서 빨리 와 앉아서 그리로 잡지요.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저 이렇게 보면 달아날 것 같은 거, 아니 보면 알아집니다. 조금 해서 느릿느릿 거시기 도망치다가 하면, 요렇게 하면 요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으면 요리로 쏘면 될 것 같다 해서 잡아 쏘면 그저 구석에 무엇 낚아서 쏘면 쿡 하게 들어잡지요. 그러면 흑돔 같은 거, 굵은 거 잘 쏘았어.)

105012 #1 이 하르방만씩 흐 거 잡아웁디다게. 잘도 잘 쏘아나서.(이 할아버지만 큼씩 한 거 잡아웁디다. 잘도 잘 쏘았어.)

105012 #2 흐 사람이 뿌리메지도 못 흐는 거 쏘아낫수다. 경 흐여근에 쏘민 그자 무게 차근에 꺾어 오기가 힘들어. 막 들러귀곡 흐는 따문.(한 사람이 둘러메지도 못 하는 거 쏘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쏘면 그저 무게 차서 가져 오기가 힘들어. 막 날뛰고 하는 따문.)

105012 #1 물 안에서게 줌수질 흐영.(물 안에서 해녀질 해서.)

105012 #2 경 흐영 어떻, 어떻, 어떻 흐영 굿되ㄱ지 옷져오민, 아, 들르질 못 흐여. 고기 갈라주멍.(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에까지 가져오면, 아, 들르지를 못 해. 고기 갈라주면서.)

105012 #1 성제섬도 강 막 쏘아웁디다.(형제섬도 가서 막 쏘아웁디다.)

105012 #2 성제섬에 간 이제 흐여 쏘이지 못 흐단, 요놈의 디 어떠한 고기가 엇이나, 경흐디 물이 봉봉<sup>123)</sup> 들어간 아이 뎅기던 고기가 나웁디다게, 물 들어간. 브레보난에 저 셋성지<sup>124)</sup>로 보난에, 셋성지 들연 영 보난, 웃성지<sup>125)</sup>ㄱ지 영 보난에, 아 갓돔덜이 그자 흐나씩 들씩 들엇닥 나왔닥 흐여. 요거 댓 개 쏘아짐직하다 흐연에 이젠 흐숨 쉬연에 셋성지로 간에 들엇어. 아, 들자마자 그 앞의서 큰 왕석 흐 돌 선게 갓돔이 후룩 하게 나 앞의서 기자 골겨들어. 아 이거 틀림없이 돌아난, 이디 ㄱ만 싯단 영 숙연 브레보난 그자 눈광 베롱이 들런, 날 잡아가라 흐듯이. 이젠 브레단 콧 쏘안 눈통이로 기짜으로 쏘안에. 거 잡안 이젠 꿩미에 꿩연에 거시기 흐연 찬 탱겨십주게. 경흐디 동넛아의가, ㄱ찌 간 아의가, 아 어디서 갓돔 쏘안? 아 어디서 쏘았져게. 이디서 하영 바져라. 아이 난 쏘젠 흐난 엇어가지고 못 흐쿠다게. 아이 쏘아진다게. 경 골으는 것이, 느랑 느 므음대로 강 쏘오라. 난 나대로 가켜. 경 갓돔 바지는냥 조름에 돌아가다근에 기자 영장 알 후룩 하게 내려가민 그 놈을 쏘아근에 꿩미에 꿩영, 게 계속흐연 부짱 기자 아 예술굽 므리나 쏘으질 안 흐엿수과? 야, 예술굽 므리 이만씩 흐 것덜은 상당히 벽차는 겁디다이. 경 흐연 그 곳연에

123) '봉봉'은 바닷물이 밀려와 만조가 된 모양이다.

124) '셋성지'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앞 바다에 있는 형제섬의 부분 지명이다.

125) '웃성지'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앞 바다에 있는 형제섬의 부분 지명이다.

곳디 내리난 상당히 하 베여. 갓돔 이젠 풀렌 흐난, 그뎨 갓돔 하나에 이제.(형제섬에 가서 이제 해 쏘지 못 하다가, 요놈의 데 어떠니까 고기가 없느냐, 그런데 물이 '뽕뽕' 들어가니까 아니 다니던 고기가 나옴디다, 물 들어가니까. 봐보니까 저 '섯성지'로 보니까, '섯성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웃성지'까지 이렇게 보니까, 아, 도미들이 그저 하나씩 들씩 들었다가 나왔다가 해. 요거 다섯 개 쏘아질 것 같아서 이젠 한 숨 쉬어서 '섯성지'로 가서 들었어. 아, 들자마자 그 앞에서 큰 왕석 한 돌 있었게 도미가 후룩 하게 나 앞에서 그저 갈겨들어. 아 이거 틀림없이 달아난, 여기가만 있다가 이렇게 숙여서 봐보니까 그저 눈이 있는지 약간 트여서 들러서, 날 잡아가라 하듯이. 이젠 보다가 콧 쏘아서 눈통이로 그쪽으로 쏘아서. 거 잡아서 이젠 꿰미에 꿰어서 거시기 해서 차서 다녀십지요. 그런데 동네 아이가, 같이 간 아이가, 아 어디서 도미 쏘았어? 아 여기서 쏘았겨게. 여기서 많이 봐져라. 아니 난 쏘으려고 하니까 없어가지고 못 하겠습니까. 아니 쏘아진다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늘 너 마음대로 가서 쏘아라. 난 나대로 가겠어. 그렇게 도미 봐지는 대로 꿰무미에 데려가다가 그저 절벽 아래 후룩 하게 내려가면 그 놈을 쏘아서 꿰미에 꿰어서, 게 계속해서 낚아서 그저, 아 예닐곱 마리나 쏘질 안 했습니까? 야, 예닐곱 마리 이만큼씩 한 것들은 상당히 벽차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끌어서 가에 내리니까 상당히 많아 보여. 도미 이젠 팔라고 하니까, 그뎨 도미 하나에 이제.)

105012 #1 오백 원사 가신디, 천 원사 가신디.(오백 원이야 갓는지, 천 원이야 갓는지.)

105012 #2 오백 원 아니라, 꿰고 잘 받으면 춤 백오십 원.(오백 원이 아니라, 꿰고 잘 받으면 참 백오십 원.)

105012 #1 그뎨 돈 백오십 원이든, 이제 만오천 원보다 더 컷주게.(그뎨 돈 백오십 원이면, 이제 만오천 원보다 더 컷지.)

105012 #2 칠십 원, 팔십 원. 게난 이거 한 번에 사면 나 험하게 풀켄 흐난, 풀켄 풀렌 흐연, 이거 다 사면 풀켄, 다 사질 안 흐고 세 개 사켄, 세 개면 춤 만오천 원씩 했주. 경 만오천 원씩 받안. 산 놈이 야 이거 험하게 사졌젠 흐명.(칠십 원, 팔십 원.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사면 나 저렴하게 팔겠다고 하니까, 팔겠으면 팔라고 해서, 이거 다 사면 팔겠다고, 다 사질 안 하고 세 개 사겠다고, 세 개면 참 만오천 원씩 했지. 그렇게 만오천 원씩 받았어. 산 사람이 야 이거 저렴하게 사겠다고 하면서.)

105012 #1 경 흐고 꿰기도 막 훑고.(그리고 고기도 아주 굵고.)

105012 #2 경 흐연 냉경 남은 거 서너 개 잇이난에 사켄 흐 사름 시민 험하게 라도 풀아주켄 흐명 흐난, 춤말로 풀다, 춤말로 풀다, 흐난 동네사름이난 삼센 흐명, 거세기 흐 만 원, 흐 일이천 원만 생각흐민 다 안네쿠편. 경 흐연 남은 거 다 쥐불어서. 경 해나서.(그렇게 해서 남겨서 남은 거 서너 개 잇으니까 사겠다고 한 사람 있으면 저렴하게라도 풀아주겠다고 하면서 하니까, 참말로 파냐, 참말로 파냐, 하니까 동네사람이니까 사라고 하면서, 거시기 한 만 원, 한 일이천 원만 생각하면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남은 거 다 쥐버렸어. 그렇게 했었어.)

105012 #1 이젠 히여난 디 가난 히지도 못 호고, 좃지도 못 호여렌 흡디다, 옛날 히여난 디. 하르방<sup>126)</sup> 들어가난 디.(이젠 헤엄쳤던 데 가니까 헤엄치지도 못 하고, 좃지도 못 했다고 합디다, 옛날 헤엄쳤던 데. ‘하르방’ 들어갔던 데.)

105012 #2 아, 잘도 즈미있어. 따로 들렁귀<sup>127)</sup>엔 호 디 가근에 가오리도 쏘아보고, 이 기움창<sup>128)</sup> 안네서도 가오리, 아 고기 쏘으레 가단 브레보난에, 아 모살여<sup>129)</sup>엔 호 여 우에 거무룽호 것이 덕석 모양으로 헝색이<sup>130)</sup> 업더진 것이 있어. 저 멧인고, 난 무신 건드렁호<sup>131)</sup> 것이 던져부난 걸쳐져신가? 했주. 냉중이라, 슬슬 이레 가단 보난 핀쩍<sup>132)</sup> 호는 거 보난 눈 뜨는 거라.(아, 잘도 재미있어. 따로 ‘들렁귀’라고 한 데 가서 가오리도 쏘아보고, 이 ‘기움창’ 안에서도 가오리, 아 고기 쏘러 가다가 봐보니까, 아 모래 ‘여’라고 한 ‘여’ 위에 거무스름한 것이 멧석 모양으로 ‘헝색이’ 엮어진 것이 있어. 저 멧인고, 난 무슨 ‘건드렁한’ 것이 던져버리니까 걸쳐져 있는가? 했지. 나중에야, 살살 이리로 가다가 보니까 ‘핀쩍’ 하는 거 보니까 눈 뜨는 거야.)

105012 #1 가오리게.(가오리게.)

105012 #2 거난 가오리게, 헝색이 업더전. 예, 이놈 나안티 죽어불렌, 나영 갑장이 이제 시에 강 살암주만, ㄴ쩍 나 쏘으크메 느 들르라게 호연.(그러니까 가오리게, 헝색이 엮어져서. 예, 이놈 나한테 죽어버라고, 나하고 갑장이 이제 시에 가서 살고 있지만, 같이 나 쏘겠으니 너 들러라 해서.)

105012 #1 그 사름덜은 췌기 못 쏘으는 사름덜이라.(그 사람들은 고기 못 쏘는 사람들이야.)

105012 #2 아이, 경 호연 나가 간 소살 호연 뒤으로 꼬랑지 어염으로 들러갓주게. 꼬랑지 어염으로 굽언 영 호는 잘 모른 쟁이라. 한 잡아 뒤꼭지 앓아 췌우난에, 야 화닥닥 호게 뛰난게 나 차앗안에, 화륙 호민 동으로 착, 화륙 호민 서로 착 호명 경 호단, 게맛디 한창에 꺾어 오라십주. 신씨 가의영 둘이 꺾언, 이제 돌아가불어 이문방 씨라고 그 사름이, 야 멧을 호젠, 가오리 쏘안에, 하이고 잘도 훗은 거 쏘앗져, 경 흡서. 삼춘 칼 곳어당 빌려십서. 나 집의 강 칼 으정 오마, 호연에 집의 강 칼 ㄴ정 오란 그놈을 잡안 이제 스분지 일 끈언 주난 들렁가지 못호여. 하이고 고맙다, 고맙다 호명. 경 호연에 춤 푸지게덜 멧엇수다. 알아지는 사름 갈라주곡 거시기 호연.(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가서 작살 해서 뒤로 꼬리 옆으로 달려갔지. 꼬리 옆으로 굽어서 이렇게 하는 잘 모른 모양이야. 한 잡아 꼭뒤 앓아 쏘이니까, 야 화닥닥 하게 뛰니까, 나 차가지고 화륙 하면 동으로 착, 화륙 하면 서로 착 하면서

126)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127) ‘들렁귀’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의 한 지명이다.

128) ‘기움창’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의 한 지명이다.

129) ‘여’는 바닷가 바닥이 얇거나 조수가 썰 때 나타나 보이는 돌 따위이다.

130) ‘헝색이’는 구술 내용으로 보아 ‘납작하게’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131) ‘건드렁호’는 구술 내용으로 보아 ‘허드레’한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132) ‘핀쩍’은 빛이 잠깐 비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다가, 포구 한창에 끌어 왔습지요. 신씨 그아이하고 둘이 끌어서, 이제 돌아가버려 이문방 씨라고 그 사람이, 야 뭇을 하려고, 가오리 쏘아서, 아이고 잘도 굶은 거 쏘았져, 그렇게 합지요. 삼촌 칼 가져다가 빌려주십시오. 나 집에 가서 칼 가져서 오마, 해서 집에 가서 칼 가져서 와서 그놈을 잡아서 이제 사분지 일 끊어서 주니까 들러가지 못 해.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참 푸짐하게들 먹었습니다. 알아지는 사람 갈라주고 거시기 해서.)

105012 #1 꿩기 막 잘 쏘아놨수다. 힘도 좋고, 젊은 때는. 이젠 이추록 해도.(고기 아주 잘 쏘았었습니다. 힘도 좋고, 젊은 때는. 이젠 이처럼 해도.)

105013 @ 꿩기배는 어떤 종류 이서놨수과?(고기배는 어떤 종류 있었었습니다?)

105013 #1 꿩기 잡는 풍선? 풍선 그거뻬기 더 잇어선게? 초석 들렁, 브던 디 갈 땐 네 젓영 가곡, 먼 디 갈 땐 큰 초석, 헤영훈 초석.(고기 잡는 돛단배? 돛단배 그 거밖에 더 있었던데? 돛 달려서, 가까운 데 갈 때는 노 저어서 가고, 먼 데 갈 때는 큰 돛, 하얀 돛.)

105013 @ 테운 엇어놨수광? 그 숙대낭으로 멩근 거.(떼는 없었습니다? 그 삼 나무로 만든 거.)

105013 #1 테 잇어. 테, 할으방 테가 잇어나서. 몸 비곡, 꿩기 나끄레 땡기곡.(떼 잇어. 떼, ‘할으방’ 떼가 있었었어. 모자반 베고, 고기 낚으러 다니고.)

105013 #2 몸 비곡, 볼락 나끄레 땡기곡, 볼락 나끄레 가명 출구덕<sup>133)</sup> 웃영 가민.(모자반 베고, 우럭볼락 낚으러 다니고, 우럭볼락 낚으러 가면서 ‘출구덕’ 가져서 가면.)

105013 @ 계난 테ㅎ곡 풍선?(그러니까 떼하고 돛단배?)

105013 #1 예, 거뻬기 엇었수다. 테는 그 몸 햅영 시꺼오곡, 꿩기 나끄레 땡기곡, 텐 때 집의 엇어.(예, 거밖에 없었습니다. 떼는 그 모자반 해서 실어오고, 고기 낚으러 다니고, 떼는 모든 집에 엇어.)

105014 @ 즘녀덜 채취하는 해산물 어떤 것덜 잇수과? 즘녀덜.(해녀들 채취하는 해산물 어떤 것들 있습니까? 해녀들.)

105014 #1 이제 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즘수질 햅젠 햅민 옛날 즘순 소중의 입곡, 적삼 입곡, 수건 쓰곡.(이제 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녀질 하려고 하면 옛날 해녀는 속옷 입고, 적삼 입고, 수건 쓰고.)

105014 @ 게 바당의 가민 머 잡아와?(그럼 바다에 가면 뭐 잡아와?)

105014 #1 바당의 가민 소라도 잡곡게, 하간 거 이제나 똑 ㄱ뜨지.(바다에 가면 소라도 잡고, 온갖 거 이제나 똑 같지.)

105014 @ 여기 소라엔 흡니까?(여기 소라라고 합니까?)

105014 #1 옛날엔 구쟁기, 옛날엔 구쟁기. 바룻 테곡, 전복 테곡, 경 햅주게, 즘수가게. 전복은 이제나 똑 ㄱ뜨고, 바룻, 오분재기엔 햅는디, 바룻, 오분재기엔도 햅곡, 바르엔도 햅곡.(옛날에는 소라, 옛날에는 소라. 오분자기 떼고, 전복 떼고, 그렇

133) ‘출구덕’은 나물이나 해산물 등을 채취할 때 허리에 차고 사용하는 대오리로 엮은 바구니이다.

게 했지, 해녀가. 전복은 이제나 꼭 같고, 오분자기, 오분자기라고 하는데, 오분자기, 오분자기라고도 하고, 오분자기라고도 하고.)

105014 @ 설명은 하지 말앙 그냥 글읍서. 게난 줌녀덜 잡는 건.(설명은 하지 말아서 그냥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해녀들 잡는 건.)

105014 #1 그거.(그거.)

105014 @ 아까 말흔 전복.(아까 말한 전복.)

105014 #1 오분재기, 전복, 구쟁기 그거주게.(오분자기, 전복, 소라 그거지.)

105015 @ 줌녀덜이 물질할 때 필요흔 도구덜?(해녀들이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들?)

105015 #1 도구덜은양, 큰건 들읍서양. 입영 들어가는 것이 속옷헝곡, 흰 적삼 입곡, 물적삼이엔 햅영, 수건 흰 수건 쓰곡, 눈은 췌끄만 햅 거, 이젠 큰 눈 하난디, 췌끄만 햅 동골락햅 눈이 잇수다, 옛날 해난 줌수덜. 그거 입어근에 호미 곳어근에 들어가곡, 글갱이 옷영 강, 빗창<sup>134)</sup> 전복 잡는 사름 비창, 글갱이도 옷곡. 경 햅연 강 전복 바지른 떼곡, 구쟁기 잡아 오곡, ㄱ디 나오랏주게.(도구들은요, 말하건 들으 십시오. 입어서 들어가는 것이 속옷하고, 흰 적삼 입고, 물적삼이라고 해서, 수건 흰 수건 쓰고, 물안경 조금만 한 거, 이젠 큰 물안경 많았었는데, 조금만 한 동그란 물 안경이 있습니다, 옛날 했었던 해녀들. 그거 입어서 낫 가져서 들어가고, 호미 가져서 가서, ‘빗창’ 전복 잡는 사람 ‘빗창’, 호미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서 전복 보이면 떼고, 소라 잡아오고, 가에 나왔지.)

105015 @ 테왁<sup>135)</sup>은?(‘테왁’은?)

105015 #1 이제 테왁이나 ㄱ든 테왁.(이제 ‘테왁’이나 같은 ‘테왁’.)

105015 @ 그때 테왁은 무싱걸로 멘들앗수과?(그때 ‘테왁’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5015 #1 쿨락박세기<sup>136)</sup>.(‘쿨락박세기’.)

105016 @ 게민 요즘 해녀덜 햅고, 옛날 줌수덜 햅고 어떤 차이가 이신고마췌?  
(그러면 요즘 해녀들 하고, 옛날 해녀들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105016 #1 잡아오는 물건 차이는 귀살, 거는 귀엔 해낫주게, 우리가. 귀 잡아당 풀 것도 엇고, 귀 잘 안 잡아. 먹는 거뿐이주. 이제는 완전히 돈이 하난 귀 잡는 거 딱남주게. 귀 잡아당 까근에 커피 수까락으로 공들여 곱닥햅게 햅영 폴양 일 키로에 칠만 원. 경 햅영 풀주게. 옛날엔 그런 거 사가는 사름도 엇고, 풀지도 안 햅고, 잡지도 안 햅여 잘. 먹젠이나 햅뽀 잡아오주.(잡아오는 물건 차이는 성게, 거는 성게라고 했었지, 우리가. 성게 잡아다가 팔 것도 없고, 성게 잘 안 잡아. 먹는 거뿐이지. 이제는 완전히 돈이 많으니까 성게 잡는 거 다르고 있지. 성게 잡아다가 까서 커피 숟가락으로 공들여 곱게 해서 팔아서 일 킬로그램에 칠만 원. 그렇게 해서 팔지. 옛날에는 그런 거 사가는 사름도 없고, 팔지도 안 하고, 잡지도 안 해 잘. 먹

134) ‘빗창’은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이다.

135) ‘테왁’은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이다.

136) ‘쿨락박세기’는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고 만든 바가지이다.

으려고나 조금 잡아오지.)

105016 @ 계난 옛날은.(그러니까 옛날은.)

105016 #1 구쟁기하고 기자, 전복하고 기자, 바릇 그런 거나 주장 했주. 메역은  
섯당 메역 해치<sup>137)</sup> 흥는 날은 메역 흥곡.(소라하고 그저, 전복하고 그저, 오분자기  
그런 거나 주장 했지. 미역은 있다가 미역 ‘해치’ 하는 날은 하고.)

105016 @ 오늘날은 저 며.(오늘날은 저 뭐.)

105016 #1 메역 해치 햄저, 흥민.(미역 ‘해치’ 하고 있져, 하면.)

105016 @ 귀 하영 잡암구나.(성게 많이 잡고 있구나.)

105016 #1 요새엔 귀 아이 난 구쟁기만, 요새에 이 난드르 줌수덜, 귀 흘 땀 또  
뜨나. 흥 물질 흥영 귀 잡는 거 흥고, 구쟁기는, 저 소라 잡을 땀 뜨나, 해치가.(요  
새에는 성게 아니 나서 소라만, 요새에 이 ‘난드르’ 해녀들, 성게 할 때는 또 달라.  
한 물질해서 구 잡는 거 하고, 소라는, 저 소라 잡을 때는 달라, ‘해치’가.)

105017 @ 거면은 줌너덜 물웃 변천, 옷 변천 어떻 됐수가?(그러면은 해녀들 물  
웃 변천, 옷 변천 어떻게 됐습니까?)

105017 #1 옛날은 무신 그거주게. 속옷 입고, 흰 적삼 입고, 물수건 흰 수건 쓰  
곡, 눈은 요만인 흥 거 썩 물에 들었주게.(옛날은 무슨 그거지. 속옷 입고, 흰 적삼  
입고, 물수건 흰 수건 쓰고, 물안경은 요만큼 한 거 써서 물에 들었지.)

105017 @ 이제는?(이제는?)

105017 #1 이제는 큰 눈 쓰곡, 고무옷 입어불곡, 큰 눈 쓰곡, 고무옷 입었주게.  
이제는 줌수덜 얼지 안 흥여. 경 흥영 굿디 나오민 독독독독 털영 불 살랑 추곡.(이  
제는 큰 물안경 쓰고, 고무옷 입어버리고, 큰 물안경 쓰고, 고무옷 입었지. 기제는  
해녀들 춥지 안 해. 그렇게 해서 가에 나오면 독독독독 떨어져 불 살러 쪼고.)

105017 @ 불 살루는 디 며엔 흥니까?(불 사르는 데 뭐라고 합니까?)

105017 #1 불턱<sup>138)</sup>.(‘불턱’.)

105017 @ 여기도 불턱 잇수과?(여기도 ‘불턱’ 잇습니까?)

105017 #1 이젠 엇어전. 이젠 아무디라도 빌레 앞의 보름의지, 불 살랑 추민 흥  
곡, 메역 해치 흘 때는 이제 불턱이 더 하. 메역 흥영 막 퍼다 놓민, 메역귀 그창  
불치에 썩 먹으민, 흥 보름에 메역 해나민 불치 흥 말 먹엇젠 흥메, 줌수덜이. 시꺼  
멍흥 거 구멍 드리 먹어놓곡 흥민.(이젠 없어졌어. 이젠 아무데라도 ‘빌레’ 앞에 바  
람 불지 않는 곳, 불 살러 쪼면 하고, 미역 ‘해치’ 할 때는 이제 불턱<sup>138)</sup>이 더 많아.  
미역해서 막 퍼다 놓으면, 미역귀 끊어서 재에 구워서 먹으면, 한 보름에 미역 해나  
면 재 한 말 먹었다고 하지, 해녀들이. 시꺼먼 거 구우면서 계속 먹어놓고 하면.)

105017 @ 배고파노난.(배고팠으니까.)

105017 #1 배고프곡게, 귀가 귀흥여노난게, 메역귀. 이젠 메역귀 먹지도 안 흥엇

137) ‘해치’는 마을 사람들이 일정한 날을 정하여 미역, 툫 따위들을 공동으로 채취하는 날이다.

138) ‘불턱’은 해녀들이 무자맥질해서 작업하다가 언 몸을 따뜻이 하기 위하여 마련해 간 떨감으로 불을  
지펴서 쪼는, 바닷가 바위 위 바람막이에 돌담을 둥그스름하게 에워싼 곳이다. 바닷가 바위의 자연적  
덤뒀이를 활용하여 꾸며지기도 하여, 해녀들의 탈의장으로도 이용되는 곳이다.

주만은.(배고프고, 미역귀가 귀했으니까, 미역귀. 이젠 미역귀 먹지도 안 했지만은.)

105017 @ 무사게 메역귀.(왜 미역귀.)

105017 #1 아아, 이제 사름덜 메역귀 잘 안 먹어. 옛날 어른덜은 메역귀 스몫 크게 해주게. 즈수 덕에 가민 메역귀 꿩 먹는 게 일이라. 케민 이디가 시꺼명 허곡. (아아, 이제 사람들 미역귀 잘 안 먹어. 옛날 어른들은 미역귀 사몫 크게 했지. 해녀 덕에 가면 미역귀 구워서 먹는 게 일이야. 그러면 여기가 시꺼명 고.)

105018 @ 툷.(툷.)

105018 #1 툷, 해치 허여.(툷, 허채 해.)

105018 @ 툷 해롭디게예?(툷 해봤지요?)

105018 #1 난 툷 해보지 안 혼디, 즈수 아니난. 조합에서 즈수덜만 허주게. 옛날 엔 툷을 그냥 내불민 물리와당 먹음벧기 안 허여서. 난 웃드르 사름이난 곳디 툷 허레 강 솥양 먹는 거뿐.(난 툷 해보지 안 했는데, 해녀 아니니까. 조합에서 해녀들만 하지. 옛날에는 툷을 그냥 내버리면 말려다가 먹음밖에 안 했어. 난 ‘웃드르’ 사람이니까 가에 툷 하러 가서 삶아서 먹는 거뿐.)

105018 @ 옛날은 개인으로 안 허고 공동으로 했지양, 해치 허여근에.(옛날은 개인으로 안 하고 공동으로 했지요, ‘해치’ 해서.)

105018 #1 예, 공동이우다. 이녁만씩 가져가서 공동허여도. 해치 허는 날, 메역도 이녁만씩, 툷도 이녁만씩.(예, 공동입니다. 이녁만큼씩 가져가서 공동해도. ‘해치’ 하는 날, 미역도 이녁만큼씩, 툷도 이녁만큼씩.)

105018 @ 해치허민 공동으로 허는 거 아니우파?(‘해치’하면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105018 #1 아니, 아니. 이녁 물에 들영 하영 잡으민 하영 가져가곡, 공동 아니. 이제도 공동 아니. 이젠 메역 해치도 안 허곡, 기자 잡아당 먹젠 허민 먹음주게. 메역 풀 되도 엇곡.(아니, 아니. 이녁 물에 들어서 많이 잡으면 많이 가져가고, 공동 아니. 이제도 공동 아니. 이젠 미역 허채도 안 하고, 그저 잡아다가 먹으려고 하면 먹고 있지. 미역 팔 데도 없고.)

105018 @ 메역도 잘 안 남지양?(미역도 잘 안 나지요?)

105018 #1 메역은 한텐 허여, 견디 이 스방의 바당 중에서 이 앞의 메역이 맛좋아. 제일 맛좋아. 물랑도 안 허곡, 씹 싸먹는 디 메역은 잘도 맛좋아.(미역은 많다고 해, 그런데 이 사방의 바다 중에서 이 앞에 미역이 맛좋아. 제일 맛좋아. 무르지도 안 하고, 씹 싸먹는 데 미역은 잘도 맛좋아.)

105019 @ 그 저 우뭇가사리.(그 저 우뭇가사리.)

105019 #1 우미, 저 가시리.(우뭇가사리, 저 풀가사리.)

105019 @ 그건 개인이 흡니까? 공동으로.(그건 개인이 합니까? 공동으로.)

105019 #1 개인냥으로, 이제도 개인으로.(개인대로, 이제도 개인으로.)

105019 @ 가시리 허고양?(풀가사리 하고요?)

105019 #1 가시리도, 이젠 가시리도 엇어, 이 빌레에, 판씩. 가시리 허는 할망덜

토 엇곡, 우미 매는 사름도 엇어. 우미도 엇어. 옛날은 우미 메곡, 가시리 메곡, 할 망덜 돈 버실엇주게. 이제 이디 오염웨연 하나토 엇어.(풀가사리도, 이젠 풀가사리도 없어, 이 ‘빌레’에, 전혀. 풀가사리 하는 할머니들도 없고, 우뭇가사리 매는 사람도 없어. 우뭇가사리도 없어. 옛날은 우뭇가사리 매고, 풀가사리 매고, 할머니들 돈 벌었지. 이제 여기 오염돼서 하나도 없어.)

105019 @ 옛날 가시리로 머 햏여?(옛날 풀가사리로 뭐 해?)

105019 #1 풀로게, 풀 도비햏는 거. 미녕 매는 디도 가시리 죽 썰 메곡, 방 도비도 가시리 죽 썰 햏주게.(풀로, 풀 도배햏는 거. 무명 매는 데도 풀가사리 죽 썬서 매고, 도배도 풀가사리 죽 썬서 햏지.)

105019 @ 우미는?(우뭇가사리는?)

105019 #1 우미는 꺏는 거고, 우미는 멘드는 거.(우뭇가사리는 꺏는 거고, 우뭇가사리는 만드는 거.)

105019 @ 멩글양 여름에 시원햏게.(만들어서 여름에 시원햏게.)

105019 #1 여름에 그거, 우미 줌수덜 햏당, 개인으로 햏당 널영 우미 숲양 먹으며, 이제도. 경 먹읍니다게.(여름에 그거, 우뭇가사리 해녀들 햏다가, 개인으로 햏다가 널어서 우뭇가사리 삶아서 먹지, 이제도. 그렇게 먹읍니다.)

105020 @ 전복햏고 구쟁긴 어햏 잡암수과?(전복햏고 소라는 어햏게 잡고 있습니까?)

105020 #1 아, 물에 바지민 전복은 빗창으로 떼곡, 구쟁긴 손으로 잡양 망시리에 담양 올려오람주게.(아, 물에 봐지면 전복은 ‘빗창’으로 떼고, 소라는 손으로 잡아서 망사리에 담아서 올려오고 있지.)

105020 @ 이것도 공동으로 햏여?(이것도 공동으로 해?)

105020 #1 공동으로 안 햏여. 이녁만씩. 햏영 잡으민.(공동으로 안 해. 이녁만큼씩. 많이 잡으면.)

105020 @ 물 들 때는 ㄴ찌 가야.(물 들 때는 같이 가야.)

105020 #1 ㄴ찌 들곡, ㄴ찌 나곡 햏여도 이녁 잡은 거만씩 풀곡, 구제긴 ㅍ로 햏여오민 망시리에 담양 물 등갓당, 꺏는 날이 잇주게. 게민 이녁만씩 건져당 풀곡, 조합에서.(같이 들고, 같이 나오고 해도 이녁 잡은 거만씩 팔고, 소라는 ㅍ로 햏으면 망사리에 담아서 물 담갔다가, 꺏는 날이 있지. 그러면 이녁만큼씩 건져다가 팔고, 조합에서.)

105021 @ 이 전복 종류 잇지 안 햏우파양?(이 전복 종류 잇지 안 합니까?)

105021 #1 전복 종류사 전복 하나주 무신.(전복 종류야 전복 하나지 무슨.)

105021 @ 암커 잇곡, 수커 잇지 안 햏우파? 거 모양이 어햏 틀립니까?(암컷 잇고, 수컷 잇지 안 합니까? 거 모양이 어햏게 다릅니까?)

105021 #1 암커는 물랑물랑 크곡.(암컷은 물렁물렁 크고.)

105021 @ 양?(예?)

105021 #1 암커는 물랑물랑햏여, 전복 꺏데기도 크고, 수커는 빗작빗작햏곡.(암

컷은 물렁물렁해, 전복 껍데기도 크고, 수컷은 납작납작하고.)

105021 #2 암커는 흐뎡 납작흐곡, 수커는 흐뎡 움소룩흐여.(암컷은 조금 넓죽하고, 수컷은 조금 둥글고 미끈둥해.)

105021 @ 지난 영 좀 두껍구나?(그러니까 이렇게 좀 두껍구나?)

105021 #1 암커는 빗작빗작 흐고, 수커는 오물락오물락흐곡.(암컷은 납작납작하고, 수컷은 오묵오묵하고.)

105021 @ 반대로 말했신게?(반대로 말하고 있네요?)

105021 #1 반대로도 돌아져붙었주만은 저 전복이.(반대로도 말해버렸지만은 저 전복이.)

105021 @ 다시 한 번 돌아봅서.(다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5021 #1 전복 암커는 벧작흐곡, 수커는 오물락오물락 전복 껍데기가 커. 난 전복은 몰라도 경 곱읍디다.(전복 암컷은 납작하고, 수컷은 오묵오묵 전복 껍데기가 커. 난 전복은 몰라도 그렇게 말합디다.)

105021 @ 구쟁기 종류?(소라 종류?)

105021 #1 구쟁기 종류는 흐난디, 구쟁기도 조쿠제기 있고, 큰 훑는 문둥구제기 있고, 경 흐는다.(소라 종류는 하나인데, 소라도 어린 소라 있고, 큰 굵은 성숙한 소라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105021 @ 조쿠제긴 작은 거?(어린 소라는 작은 거?)

105021 #1 조쿠제긴 존존흔 거게. 경흐곡 줍수에 매영 짚은 밧디 흐민 훑은 거 잡아오곡, 줍수가 굿디 흐민 존 거 잡아오곡. 경흐민 딱로 존 건 받아가지 아니 흐민, 또 바닷물에 데껴붙어, 크게, 줍수덜이. 존 거 막 끌려. 경 흐영 이녁만씩 망사리에 담양 킷당 풀 때는 명 프는 거주게.(어린 소라는 잔잔한 거. 그리고 해녀에 따라서 깊은 밧에 하면 굵은 거 잡아오고, 해녀가 가에 하면 잔 거 잡아오고. 그러면 따로 잔 건 받아가지 아니 하면, 또 바닷물에 던져버려, 크게, 해녀들이. 잔 거 막 가려. 그렇게 해서 이녁만큼씩 망사리에 담아서 담갔다가 팔 때는 떠서 파는 거지.)

105021 @ 거 쓴흔 거, 딱딱흔 껍데기로 웬 건 무싱겨우파?(거 쓴 거, 딱딱한 껍데기로 된 건 무엇입니까?)

105021 #1 그건 구제기 슬메.(그건 소라 살이지.)

105021 @ 쪼끌락흔 거 보면은.(아주 작은 거 보면은.)

105021 #1 쪼끌락흔지 안 흐고 큰 것도 거 있어. 위의 더꺼지는 거, 거 씨. 다듬아불어사주게. 이제도 큰 구제기 해도 그건 다듬아불어사.(아주 작지 안 하고 큰 것도 거 있어. 위에 덮어지는 거, 거 씨. 다듬어버려야지. 이제도 큰 소라 해도 그건 다듬어버려야.)

105021 @ 거 이서양.(거 있어요.)

105021 #1 잇입니다. 구제기 씨와지는 거. 그거 존 구제기고, 큰 구제기고 다 잇입니다. 다 잇이는 거.(잇습니다. 소라 씨워지는 거. 그거 잔 소라고, 큰 소라고 다 잇습니다. 다 잇는 거.)

105021 @ 거 무슨 건지 몰르고양?(거 무슨 건지 모르고요?)

105021 #1 것고라 머센 혼다만은, 막 써, 써.(것더러 뭐라고 한다만은, 아주 써, 써.)

105022 @ 아까 말흔 테에 대행 말해봅서.(아까 말한 떼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105022 #1 테, 하르방 잘 알주게.(떼, '하르방' 잘 알지.)

105022 #2 테, 거시기게 숙테낭.(떼, 거시기 삼나무.)

105022 @ 멩그는 과정이라던가.(만드는 과정이라든가.)

105022 #2 수기낭 거시기 끈어다근에 그 놈으로 이녁 테 흘 만씩 끈주게. 끈어 근에 양펜으로 고망 툄라근에 무슨 낭 질러근에 닥닥 박아근에 못, 나무못으로 혼 펜이 도매시겨낭 이쪽으로 안터레 막 디밀양 이젠 덧각흔게 들어가민 나무못으로 딱 흔게. 경 흔여근에 멩에, 멩에 멘들아근에게 멩에 씨우주게. 경 흔영 멩에 우의 텃네, 낭으로게 네 멘들아근에, 텃넬 멩에 우의 ㄴ찌 놈근에 짓주게.(삼나무 거시기 끊어다가 그 놈으로 이녁 떼 할 만큼씩 끊지. 끊어서 양편으로 구멍 뚫어서 무슨 나무로 찢러서 닥닥 박아서 못, 나무못으로 한 편에 연결시켜놔서 이쪽으로 안으로 막 들이밀어서 이젠 탄탄하게 들어가면 나무못으로 딱 하계. 그렇게 해서 멩에, 멩에 만들어서 멩에 씨우지. 그렇게 해서 멩에 위에 떼 노, 나무로 노 만들어서, 떼 노를 멩에 위에 같이 놔서 짓지.)

105022 @ 만들아근에 무슨 꿰기 잡았수과?(만들어서 무슨 고기 잡았습니까?)

105022 #1 아니, 꿰기 나끄레 강, 볼락도 나끄곡. 먼 된 못 가주게.(아니, 고기 낚으러 가서, 볼락도 낚고. 먼 데는 못 가지.)

105022 @ 멧 사름 타?(멧 사람 타.)

105022 #1 서너 사름 타주게.(서너 사람 타지.)

105022 #2 볼락 나끄레 가도 두서너의만.(볼락 낚으러 가도 두서넛만)

105023 @ 풍선, 아는 대로 혼 번 말흔여봅서.(돛단배, 아는 대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5023 #1 꿰기 나끄는 배.(고기 낚는 배.)

105023 @ 돛 달양 흔는 거 아니우파양?(돛 달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105023 #1 응, 초석 들양. 초석 큰 거 들민은, 브디게 갈 때는 네 젓영 감주만 은, 먼 디 저 먼 바당에 갈 거 아니우파게? 그 풍선이 그 날 강 그 날 와도, 건 초 석으로 브름으로 가는 거. 올 때도 브름으로 들어오곡. 이젠 옥돔이엔 햄주만은 생 선, 제숙<sup>139)</sup>, 그거 나까오는 거주게. 다른 게 아니라, 멩넥이 흔곡, 멩네긴 브딘 디, 먼 디 가사 멩네긴 나끄덴 흔곡, 휘 먹는 거. 주로 생선 나끄레 텡껏주게, 하르방은. 배 멧 척 흔여근에. 동서가 서의도 잇곡, 너의도 잇곡, 경 흔연 갖주게. 동서엔 혼 건 배에 꿰기 나끄는 사름.(응, 돛 달아서. 돛 큰 거 달면, 바디 갈 때는 노 저어서 가고 있지만은, 먼 데 저 먼 바다에 갈 거 아닙니까? 그 돛단배가 그 날 가서 그

139) '제숙'은 제상(祭床)에 올리는 생선류이다.

날 와도, 건 돛으로 바람으로 가는 거. 올 때도 바람으로 들어오고. 이젠 옥돔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생선, '제숙', 그거 낚아오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 두툽상어 하고, 두툽상어는 가까운 데, 먼 데 가야 두툽상어는 낚는다고 하고, 회 먹는 거. 주로 생선 낚으러 다녔지, '하르방'은. 배 몇 척 해서. 동서가 셋도 있고, 넷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갔지. 동서라고 한 건 배에 고기 낚는 사람.)

105024 @ 풍선 명칭 알아지쿠광? 요거 혼 건 초석이고.(돛단배 명칭 알아지겠습니까? 요거 한 건 돛이고.)

105024 #1 베코 쫄랑혼 건 앞의, 뒤에는 납작한 거.(베코 길쭉한 건 앞에, 뒤에는 납작한 거.)

105024 @ 그 납작한 건 머엔 햏여?(그 납작한 건 뭐라고 해?)

105024 #1 건 뒷가지, 앞가지 햏는 거주게.(건 뒷가지, 앞가지 하는 거지.)

105024 @ 뒷가지, 앞가지?(뒷가지, 앞가지?)

105024 #1 갈 때는 앞가지로 가곡, 올 때도 앞가지로 오곡, 뒷가진 사름 올르곡 낙리곡 햏는 거주게, 뒤에.(갈 때는 앞가지로 가고, 올 때도 앞가지로 오고, 뒷가지는 사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지, 뒤에.)

105024 @ 노 젓는 건 머렌 햏여?(노 젓는 건 뭐라고 해?)

105024 #1 노 젓는 건, 네.(노 젓는 건, 노.)

105024 @ 네?(노?)

105024 #1 옛날엔 네로 젓엉 벅딘 디 가는 사름은 햏곡, 먼 디 퀘기 나끄레 가는 사름은 초석으로, 세 개나 두 개나 들앙, 경 해낫수다게.(옛날에는 노로 저어서 가까운 데 가는 사름은 하고, 먼 데 고기 낚으러 가는 사름은 돛으로, 세 개나 두 개나 달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 6. 의생활

### 옷감

106001 @ 옷감에 대해서 혼 번 말해줍서.(옷감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6001 #1 옛날엔 광목, 미녕, 그거주게. 베, 모시는 드물고, 모시 거벳기 엇어. 옷은 햏영 입을 것이, 하여튼 광목, 미녕, 베, 모시, 옛날 어른덜은 그거벳기 입을 것이 엇수다.(옛날에는 광목, 무명, 그거지. 베, 모시는 드물고, 모시 거밖에 엇어. 옷은 햏서 입을 것이, 하여튼 관목, 무명, 모시, 옛날 어른들은 그거밖에 입을 것이 엇습니다.)

### 명주

106002 @ 거민 명주실예.(그러면 명주실요.)

106002 #1 예, 멩지. 멩지실을 멘들라 햏면은.(예, 명주. 명주실을 만들라 하면



은.)

106002 @ 만드는 과정.(만드는 과정.)

106002 #1 멘드는 과정?(만드는 과정?)

106002 @ 예.(예.)

106002 #1 멍지는 누에를 질릴 거 아니우파? 누에 질루민 막 풀 달문 거 해다 놔근에 영 데며. 경 흐영 누에가 커근에, 입으로 쨌쨌흔 때 감양 흡니다, 처음에 그 거. 저 누에가 나오젠 흐민 쨌쨌흔 거 털영 있어, 영 해가민 헤뜩헤뜩헤뜩 흐꿈 커. 경흐민 흐꿈 요만이 크민 그 낭더레 심으멍 올립니다. 그레 행 내불민 그레 뽕 주곡, 경흐민 뽕 트더 먹으멍 살당 입으로 멍지썰이 잘잘잘잘 내려가. 저 누에가 땡기 멍양. 경흐민 이제 누에를 따로, 경 흐다근에 고치 돼여, 흰 고치, 안네. 흰 고치가 돼여볼 거 아니우파? 안네 누에는 들어 앓곡 뱅뱅뱅뱅뱅 저 입으로 뱅뱅 썰을 멘들 양 헤영흔 고치를 멘들아마썸. 게민 안네 돼민, 이젠 그걸 탕, 이젠 영영, 미녕 좇는 물레 달문 거 이십니다. 그 멍지 짜는 거, 멍지썰 나오는 거. 경흐민 이디는 솟디 놔근에 물 팔팔 꿰우곡, 꿰우민 흰 그 집짓은 꼬치를 그 물 꿰우는 솟디레 들이쳐 양. 경흐민 그걸 어떻 흐여근에 물레레 영 감으민, 이디션 흐곡 손으로 질질질질 해가민 뱅뱅뱅뱅뱅 가림<sup>140)</sup> 깃어정 멍지썰이 나옵니다, 가림으로. 이만큼 가림으로 영 나오면은 이젠 그걸 어떻 흐느냐 하면은 놔뒹당 모둥이로 감아, 다, 그 멍지썰을 양. 모둥이로 감으면은 이젠 따로 메쟁 흐민 불 살좌근에 가시 맥이멍 그 멍지를 멘듭니다. 흐면은 이제 베클 놔근에 차. 북 들이치고 내치고 흐멍 차민 이젠 멍지라. 그추룩 흐영 멍지 했수다.(명주는 누에를 기를 거 아닙니까? 누에 기르면 아주 풀 닳은 거 해다 놔서 이렇게 쌓아. 그렇게 해서 누에가 커서, 입으로 자잘한 때 감아서 합니다, 처음에 그거. 저 누에가 나오려고 하면 자잘한 거 털어서 있어, 이렇게 해가면 헤뜩헤뜩헤뜩 조금 커. 그러면 조금 요만큼 크면 그 나무로 잡으면서 올립니다. 그리로 해서 내버리면 그리로 뽕 주고, 그러면 뽕 뜯어 먹으면서 살다가 입으로 명주실이 잘잘잘잘 내려가. 저 누에가 다니면서요. 그러면 이제 누에를 따로, 그렇게 하다가 고치 돼, 흰 고치, 안네. 흰 고치가 돼버릴 거 아닙니까? 안네 누에는 들어앓고 뱅뱅뱅뱅뱅 저 입으로 뱅뱅 실을 만들어서 하얀 고치를 만들어요. 그러면 안에 되면, 이젠 그것을 따서, 이젠 이렇게 이렇게, 무명 갖는 물레 닳은 거 있습니다. 그 명주 짜는 거, 명주실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 솔에 놔서 물 팔팔 꿰고, 꿰으면 흰 그 집지은 고치를 그 물 꿰는 솔로 들이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물레로 이렇게 감으면, 여기서는 하고 손으로 질질질질 해가면 뱅뱅뱅뱅뱅 ‘가림’ 지어져서 명주실이 나옵니다, ‘가림’으로. 이만큼 ‘가림’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놔뒹다가 몽당이로 감아, 다, 그 명주실을요. 몽당이로 감으면 이젠 따로 매려고 하면 불 살려서 ‘가시’ 먹이면서 그 명주를 만듭니다. 하면은 이제 베틀 놔서 짜. 북 들이치고 내치고 하면서 짜면 이젠 명주야. 것처럼 해서 명주 했습니다.)

140) ‘가림’은 실 뭉텅이에서 몇 올을 한 가닥으로 하여 갈라낸 것이다.

106003 @ 멍지 종류 어떤 거 잇수과?(명주 종류는 어떤 거 잇습니까?)

106003 #1 멍지 종류 하나뿐. 멍지 종류는 하나. 계난 멍지가 그 누에 입으로 나온 것이 고우면은 혜영께 곱고, 그것이 흐뎡 곱게 나오면은 멍지가 노리롱흐여. (명주 종류 하나뿐. 명주 종류는 하나. 그러니까 명주가 그 누에 입으로 나온 것이 고우면 하얗게 곱고, 그것이 조금 곱게 나오면 명주가 노르무레해.)

106003 @ 그 멍지를 머옴 흘니까?(그 명주를 뭐라고 합니까?)

106003 #1 멍지, 그냥 멍지주게. 우리 바지, 저고리 하르방덜 흐영 입지곡, 그자 멍지.(명주, 그냥 명주지. 우리 바지, 저고리 할아버지들 해서 입지고, 그저 명주.)

106003 @ 생멍지?(생명주?)

106003 #1 생멍지는 노이지 아니 흘 거.(생명주는 누이지 아니 한 거.)

106003 @ 양?(예?)

106003 #1 그 멍진 그 멍진디 물 꿰아근에 무싱거 낵 노이민 혜양흐는 거주게. (그 명주는 그 명주인데 물 꿰여서 무엇 놔서 누이면 하얀 거지.)

106003 @ 생멍지이.(생명주.)

106003 #1 응, 생멍지는 노이지 안 흐민 생멍지, 노이는 따문 보들보들흐곡 히 영흐는 거.(응, 생명주는 누이지 안 하면 생명주, 누이는 때문 보들보들하고 흰 거.)

106003 @ 수아주?(비단?)

106003 #1 응, 수아주?(응, 비단?)

106003 @ 그건 모르쿠과?(그건 모르겠습니까?)

106003 #1 수아주 모르큰게. 난 수아주옴 흘 말은 아이 곱아보난. 생멍지 흐곡, 그 저 노인 멍진 혜영흐 게 보들보들흐 멍지, 바지, 저고리 흐곡 흐는 거주게. 생멍진 적삼 흐곡, 생멍진 중의, 적삼 흐곡, 생멍진 슬그랑흐는 거주게.(비단 모르겠어. 난 비단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 말해보니까. 생명주 하고, 그 저 노인 명주는 하얀 게 보들보들한 명주, 바지, 저고리 하고 하는 거지. 생명주는 적삼하고, 생명주는 중의, 적삼 하고, 생명주는 ‘살그랑하는’ 거지.)

106004 @ 거난 멍지로 어떤 옷 멍글아마씨?(그러니까 명주로 어떤 옷 만듭니까?)

106004 #1 아니, 바지, 저고리. 장계가젠 흐민 바지, 저고리 흐영 입지곡, 도복, 도복 멘들곡, 경 흐는 거주게. 경흐곡 늑은 어른덜 집의서도 바지, 저고리 흐연 입지곡, 멍지로, 노인덜은. 하르방이 이시면은 멍지로 바지, 저고리 흐영 집의서도 입저, 늑은 어른덜은. 광목 저고리 입은 어른은 두물주게. 멍지론 창웃도 흐영 입지곡, 할망덜은 저고리, 치메 행 입곡, 멍지로.(아니, 바지, 저고리. 장가가려고 하면 바지, 저고리 해서 입히고, 도포, 도포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늑은 어른들 집에서 바지, 저고리 해서 입히고, 명주로, 노인들은. 할아버지가 있으면 명주로 바지, 저고리 해서 입혀, 늑은 어른들은. 광목 저고리 입은 어른은 드물지. 명주로는 창웃도 해서 입히고, 할머니들은 저고리, 치마해서 입고, 명주로.)

106005 @ 무명실 알아지쿠과?(무명실 알아지겠습니까?)

106005 #1 미녕썰?(무명실?)

106005 @ 저 무명썰.(저 무명실.)

106005 #1 무명썰이엔 혼 게 멩지썰 아니 무사?(무명실이라고 한 게 멩주실 아니 왜?)

106005 @ 무명 혼민 머라?(무명 하면 뭐라?)

106005 #1 무명 혼민 머라?(무명 하면 뭐라?)

106005 @ 무명이 저 머 아니우짜? 광목.(무명이 저 뭐 아닙니까? 광목.)

106005 #1 광목이주게, 광목.(광목이지, 광목.)

106005 @ 광목 멩그는 과정 혼 번 글아봅서.(광목 만드는 과정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6005 #1 광목은게 강 필로 사오곡 그거 차근에, 그거 흥세미녕<sup>141)</sup>까지, 그추룩 차곡 혼는 거주. 게난 광목은 집의서 잘 멘들질 못 혼주게. 집 광목으로 막 필로 혼난 사당 험주. 경 혼영 물레 들영, 광목으로 감도 들이곡, 물레도 들영 아의덜 옷도 행 입지곡, 검은 물레 들이민 검은 치메. 노랑혼 물 들이멍 광목으로 아의덜 저고리도 혼연, 옛날엔 우리, 옛날 그 시절엔 경 혼연 입것주게. 멩질 돌아와가민 막 풀 혼여근에 아의, 지집아의 치메 혼곡, 저고리 혼영 입져낫주게.(광목은 가서 필로 사오고 그거 짜서, 그거 ‘흥세미녕’까지, 것처럼 짜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광목은 집에서 잘 만들질 못 하지. 집 광목으로 아주 필요로 하니까 사다가하고 있지. 그렇게 해서 물감 들여서, 광목으로 감도 들이고, 물감도 들여서 아이들 옷도 해서 입히고, 검은 물감 들이면 검은 치마, 노란 물 들이면서 아이들 저고리도 해서, 옛날에는 우리, 옛날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입혔지. 멩질 돌아와 가면 막 풀해서 아이, 계집아이 치마하고, 저고리 해서 입혔었지.)

106006 @ 그 누에치기.(그 누에치기.)

106006 #1 누에치기, 거 누에 질루는 거.(누에치기, 거 누에 기르는 거.)

106006 @ 누에 질루는 거 말해보십시오.(누에 기르는 거 말해보십시오.)

106006 #1 ㄴ짜추룩게.(아까처럼.)

106006 @ 혼 번 말해보십시오.(한 번 말해보십시오.)

106006 #1 처음엔양, 종이 닳은 겁네다. 누에 나무에 가망혼 줍쓸ㄴ짜 이디 짝 짝 데며진 것이. 테와. 게민 그걸 나두민 가망혼 베렝이가 오몰랑오몰랑 나옵니다. 누에 나오는 거, 누엿베렝이 나오는 거. 경혼민 그걸 툽툽툽 털어와 이레. 털어 놓민 그거 혼들혼들혼들 혼멍 크민 무싱거 빵도 먹지 못 혼곡 혼꿈씩 혼당, 혼꿈 커가민 빵을 복작썰영 그레 허꺼. 허끄민 그걸 툽아 먹는 체 합니다, 그거. 경 혼민 츄츄 츄츄 커. 경혼민 가망혼 것이 헤영합니다게. 경혼민 크민 이젠 막 크민 이젠 그 검질이고 유채낭이고 세왕 그레 그 누엘 문딱 좇으멍 그레 올려. 올렝 나두민, 그레 따시 빵도 그레 주곡. 경 혼영 나두민 입으로 멩지썰이 나와. 영영 나오라가민 이제 췌 내불민 꼬치, 헤영혼 꼬치가 똥골똥골혼 거 그 누에 입으로 문딱 집 짓어.

141) ‘흥세미녕’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 속에 넣는 무명이다.

지냥으로 지 몸 하나 가냥흔 거. 경흐민 그걸 이젠 물 꿩왕 놔근에 클로 뱅뱅뱅 흐  
 명 누에 썰을 뽑니다, 그거. 빠민 졸졸 나민 이추록 가림 짓어근에 멩지썰이 나오거  
 던. 멩지썰 가림 흐민 이젠 모동이로 걸 다 감읍니다. 감으민 끼차지민 썰로 영영  
 흐명 잇으명 감양, 감으민 이젠 저 미녕 매듯 따로 맵니다게. 저 불 살르곡 흐영 미  
 녕 클로 흐영 마당에서 막 가시로 밀명 흐민, 이젠 그거 매영 모동이 흐민, 이젠 꼬  
 리 감곡 흐영 이젠 베클에서 차. 북으로 이레 갔다가 저레 갔다가 흐명. 경 흐영 차  
 민 그것이 멩지주게. 게민 노이지 안 흐 건 생맹지고, 노인 건 멘질멘질 흐영, 풀  
 흐영 문질흐민 장게가는 새서방 바지, 저고리 흐곡, 도복 흐곡, 햇수게게. 죽어갈 때  
 죽은 옷도, 도복 흐곡, 바지, 저고리. 씨집 가젠 흐민 우리가 여자난 멩지 치매, 저  
 고리 입정 씨집 보내곡, 씨집의서 선물 주는 것도 멩지 치매, 저고리. 경 흡디다게,  
 옛날에.(처음에는요, 종이 닳은 겹니다. 누에 나무에 가만 좁쌀같이 여기 가득 쌓여  
 진 것이. 태워. 그러면 그것을 놔두면 가만 벌레가 오몰랑오몰랑 나옵니다. 누에 나  
 오는 거, 누엿벌레 나오는 거. 그러면 그것을 툭툭툭 떨어놔 이리로. 떨어 놓으면  
 그거 한들한들한들 하면서 크면 무엇 뽕도 먹지 못 하고 조금씩 하다가, 조금 커가  
 면 뽕을 짓이겨 썰어서 그리로 섞어. 섞으면 그것을 뜯어 먹는 체 합니다, 그거. 그  
 러면 차차 차차 커. 그러면 가만 것이 하얏습니다. 그러면 크면 이젠 아주 크면 이  
 젠 그 검불이고 유채짚이고 세워서 그리로 그 누엘 모두 주우면서 그리로 올려. 올  
 려서 놔두면, 그리로 다시 뽕도 그리로 주고. 그렇게 해서 놔두면 입으로 명주실이  
 나와. 이렇게이렇게 나와가면 이제 쥐서 내버리면 고치, 하얀 고치가 동글동글한 거  
 그 누에 입으로 모두 집 지어. 자기대로 자기 몸 하나 간수한 거. 그러면 그것을 이  
 젠 물 끓여서 놔서 틀로 빙빙빙 하면서 누에 실을 뽑니다, 그거. 빠면 졸졸 나오면  
 이처럼 ‘가림’ 지어서 명주실이 나오거든. 명주실 ‘가림’ 하면 이젠 몽당이로 걸 다  
 감읍니다. 감으면 끊어지면 실로 이렇게이렇게 하면서 이으면서 감아서, 감으면 이  
 젠 저 무명 매듯 따로 맵니다. 저 불 사르고 해서 무명 틀로 해서 마당에서 막 가  
 시로 밀면서 하면, 이젠 그거 매어서 몽당이 하면, 이젠 실뿔 감고 해서 이젠 베틀  
 에서 짜. 북으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짜면 그것이 명  
 주지. 그러면 누이지 안 한 건 생맹주고, 누인 건 매끈매끈 해서, 풀 해서 만질하면  
 장가가는 새서방 바지, 저고리 하고, 도포 하고 했습니다. 죽어갈 때 죽은 옷도, 도  
 포 하고, 바지, 저고리, 시집 가려고 하면 우리가 여자니까 명주 치마, 저고리 혀서  
 시집 보내고, 시집에서 선물 주는 것도 명주 치마, 저고리.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 무명

106007 @ 무명이예, 멩지지양?(무명이지요, 명주지요?)

106007 #1 멩지우다.(명주입니다.)

106007 @ 그 종류덜 잇지 안 흐우짜?(그 종류들 잇지 안 합니까?)

106007 #1 예.(예.)

106007 @ 토목이다, 생목이다, 광목이다, 닷새미녕 머.(토목이다, 생목이다, 광목

이다, 닷새무명 뭐.)

106007 #1 닷새미녕은.(닷새무명은.)

106007 @ 그 종류를 혼 번 말해봅서.(그 종류를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6007 #1 예, 닷새미녕은 막 저.(예, 닷새무명은 아주 저.)

106007 @ 우선 저 토목이 머짜?(우선 저 토목이 뭐입니까?)

106007 #1 토목이 그거 그놈의 아덜이우다게. 경흐난 말이 옛날 어른덜 문즈로 토목이엔 했주. 닷새미녕, 옷새, 일고, 으답새미녕이 제일 즘질고 곤 거, 으답새미녕. 으답새론 하르방덜 바지, 저고리도 흐영 입지곡 완전히 곤 거. 닷새미녕은 훙은 훙은 혼, 갈중의<sup>142</sup>)나, 감이나 들영 갈중의나 행 입곡, 경 흐는 거. 닷새미녕, 옷새 저 으답새미녕이 완전히 곤 거, 썰도 ㄱ늘게 품품 좃앙 정<sup>143</sup>)으로 밀어당, 멘네 테와당, 정 해다근에, 으답새미녕 흐젠 흐민 막 멩심흐영 썰 내와사 웨여. 우리 ㄱ쁜 사름은 바르르르륵 흐영 으답새미녕이랑마랑 어느 저를에.(토목이 그거 그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옛날 어른들 문자로 토목이라고 했지. 닷새무명, 옛새, 일곱, 여덟새무명이 제일 잘고 가늘고 고운 거, 여덟새무명. 여덟새론 할아버지들 바지, 저고리도 해서 입히고 완전히 고운 거. 닷새무명은 굵은굵은 한, ‘갈중의’나, 감이나 들여서 ‘갈중의’나 해서 입고, 그렇게 하는 거. 닷새무명, 옛새 저 여덟새무명이 완전히 고운 거, 실도 가늘게 품품 좃아서 ‘정’으로 밀어다가, 면화 타다가, ‘정’ 해다가, 여덟새무명 하려고 하면 아주 명심해서 실 나오게 해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바르르르륵 해서 여덟새무명은커녕 어느 겨를에.)

106007 @ 거난 쥬 좋은 것이 으답새미녕?(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여덟새무명?)

106007 #1 으답새미녕.(여덟새무명.)

106007 @ 그다음은?(그다음은?)

106007 #1 그다음 아래 닷새미녕 훙은훙은 혼 거, 그거주.(그다음 아래 닷새무명 굵은굵은 한 거, 그거지.)

106007 @ 중간은 옷새미녕?(중간은 옛새무명?)

106007 #1 예, 경흐민양, 차는 것도 옷새 거세기 잇곡, 으답새 잇곡 홉니다, 차는 것도. 경 흐영 북으로 들이청 내쳤닥 들이쳤닥 홉니께게. 그 곳인 멘네양, 멘네 타오민 고운 거, 곳인 거, 똥멘네 굴러냥 멘네 테와웁니께게. 경흐민 닷새미녕벳기 못 흐여 곳인 건.(예, 그러면요, 짜는 것도 옛새 거시기 있고, 여덟새 있고 합니다, 짜는 것도. 그렇게 해서 북으로 들이쳐서 내쳤다가 들이쳤다가 합니께. 그 곳은 면화요, 면화 따오면 고운 거, 굵은 거, 똥면화 가려놔서 면화 타웁니께. 그러면 닷새무명 못 해 곳은 건.)

106008 @ 경흐면은 무명으로 어떤 옷을 멩급니까?(그러면은 무명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42)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이다.

143) ‘정’은 솜을 가늘게 말아서 두 뼘 가량의 길이로 끊어 낸 물건이다.

106008 #1 아니, 바지, 저고리도 헝곡, 아의덜 저고리도 헝영 입지곡. 여자는 치메도 헝영 입지곡계, 스나이는 바지, 바지는 무신 중의, 적삼 닳은 거 헝영 스나이덜은 헝영 입지곡, 어른덜은 으담새미녕으로 바지, 저고리 헝영 어른덜은 입지곡, 집안의 어른덜은. 닳새미녕은 갈옷이나 헝곡, 밧되 입는 옷이나벳기 못 흡니다계. 난 그런 거 안 입어보난 몰라도.(아니, 바지, 저고리도 하고, 아이들 저고리도 해서 입히고, 여자는 치마도 해서 입히고, 남자는 바지, 바지는 무슨 중의, 적삼 닳은 거 해서 남자들은 해서 입히고, 어른들은 여덱새무명으로 바지, 저고리 해서 어른들은 입히고, 집안에 어른들은. 닳새무명은 갈옷이나 하고, 밧에 입는 옷이나 밖에 못 합니다. 난 그런 거 안 입어보니까 몰라도.)

106009 @ 토목으로 멀 멩급니까?(토목으로 뵘 만듭니까?)

106009 #1 토목은 광목이라?(토목은 광목인가?)

106009 @ 토목헝곡 광목이 줌.(토목하고 광목이 줌.)

106009 #1 틀리우파?(다릅니까?)

106009 @ 틀리지 안 헝우파?(다르지 안 합니까?)

106009 #1 토목이민 닳새, 으담새미녕 아닌가? 토목이엔 말은 난 들어본 디 옛인 거난.(토목이면 닳새, 옛새무명 아닌가? 토목이라는 말은 난 들어본 바 없는 거니까.)

106010 @ 광목으로는 멀 멩글아마씨?(광목으로는 뵘 만들어요?)

106010 #1 광목으로도 바지, 저고리, 치메, 저고리, 두루막 헝영 하르방덜 입지곡, 창옷 헝영 입지곡, 그거주게. 죽을 때는 멩지로 헝영 입지곡, 그건 산 때에 노인덜 통대 물곡 헝영 바지, 저고리 광목으로 헝여낫주게. 매번에 소게 낳 바지, 저고리 헝민 버물민 그거 뜯으멍 다시 빨앙 풀 헝영 다듬이 해사 다시 바지, 저고리 헝곡, 중의, 적삼 헝영 입지곡.(광목으로도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 해서 할아버지들 입히고, 창옷 해서 입히고, 그거지. 죽을 때는 명주로 해서 입히고, 그건 산 때에 노인들 통대 물고 해서 바지, 저고리 광목으로 했었지. 매번에 솜 넣어서 바지, 저고리 하면 버물면 그거 뜯으면서 다시 빨아서 풀해서 다듬이 해야 다시 바지, 저고리 하고, 중의, 적삼 해서 입히고.)

106011 @ 계문 저 흥세미녕?(그러면 저 ‘흥세미녕’?)

106011 #1 흥세미녕은, 흥세미녕이엔 혼 건 저 으담새 헝여근에 새서방 장계 가젠 헝민 저 함더레 놓는 것이 흥세미녕. 옛날엔 미녕으로 놓앗주게. 광목으로 놓곡 헝는디 이젠 이 저 거세기 썩 가젠 헝면은 그것드레 낳, 그거 무싱거우파? 그거 날 택일 혼 거.(‘흥세미녕’은, ‘흥세미녕’이라고 한 건 저 여덱새 해서 새서방 장가가려고 하면 저 함으로 놓는 것이 ‘흥세미녕’. 옛날엔 무명으로 넣었지. 광목으로 넣고 하는데 이젠 이 저 거시기 써서 가려고 하면은 그것으로 넣어서, 그거 무엇입니까? 그거 날 택일 한 거.)

106011 #2 날 택일?(날 택일?)

106011 #1 날 택일이라도 이름이 있어.(날 택일이라도 이름이 있어.)

106011 @ 흥세함<sup>144</sup>.(‘흥세함’.)

106011 #1 함더레양, 요런 니기반뜩한 함입니다.(함으로요, 요런 네 귀 반뜩한 함입니다.)

106011 @ 예.(예.)

106011 #1 계민 그레 광목이던지 미녕이던지 낱, 그 우터레 글 쓴 걸, 택일기<sup>145</sup> 쓴 걸 가져가. 경 흥영 또 우시, 흥세미녕 가져가는 사름은 따로 갑니다, 새서방침의서, 새각시침의 가젠 흥민. 경 흥영 그건 따로 들렁 가는 거.(그러면 그리로 광목이든지 무명이든지 넣어서, 그 위로 글 쓴 걸, ‘택일기’ 쓴 걸 가져가. 그렇게 해서 또 위요, ‘흥세미녕’ 가져가는 사름은 따로 갑니다, 새서방침에서, 새색시침에서 가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건 따로 들러서 가는 거.)

106011 @ 함 속에 안 담양마씨?(함 속에 안 담아요?)

106011 #1 함 속에 담양게. 함을 들렁 가는 거주게. 이제도 함 흥영 흥는 되가 있어. 노랑 포따리 싸곡 흥는다.(함 속에 담아서. 함을 들러서 가는 거지. 이제도 함 해서 하는 데가 있어. 노랑 보자기 쌓고 하는데.)

106011 @ 우리 집원 아직도 흡니다, 그거.(우리 집에는 아직도 흡니다, 그거.)

106011 #1 예, 흥는 집원 흡니다.(예, 하는 집에는 흡니다.)

106011 #2 이디도 흥는 집 있어.(여기도 하는 집 있어.)

106011 #1 예, 보금지에 편지 봉투 닳은 거 썩 강.(예, 지갑에 편지 봉투 닳은 거 써서 가서.)

106011 @ 그것이 여장이우다.(그것이 예장입니다.)

106011 #1 여장게, 여장. 여장 맞아. 함 쏘급에 가는 여장. 계문 니기반뜩한 것 더레 미녕이고 멋이고 낱 흥단, 중간엔 아기 기저기 저 거세기 멘, 아기 기저기 흥는 걸로 흥 필이고 두 필이고 낱 흥민, 그 씨집의 보내볼민 씨어명은 그거 말양 나 뒷당 메누리 아기 나민 아기 지성기 흥렌 그거 쫓수다게. 계민 거 클러근에 아기 지성기, 이젠 샷바 채우주만, 아기 기저기 빨곡 드러 했수게.(예장이야, 예장. 예장 맞아. 그러면 네 귀 반뜩한 것으로 무녕이고 멋이고 넣어서 하다가, 중간에는 아기 기저귀 저 거시기 맨, 아기 기저귀 하는 걸로 한 필이고 두 필이고 넣어서 하면, 그 시집에 보내버리면 시어머니는 그거 말아서 놔뒷다가 며느리 아기 나면 아기 기저귀 하라고 그거 쫓습니다. 그러면 거 끌어서 아기 기저귀, 이젠 샷바채우지만, 아기 기저귀 빨고 계속 했습니다.)

106011 @ 나도 흥 삼년 전의 우리 권당 예장 쓰렌 흥난 나가 쫓수다게.(나도 한 삼년 전에 우리 권당 예장 쓰라고 하니까 나가 쫓습니다.)

106011 #1 경흥민양, 새서방 우시가 글 아는 사름 가사주 글 모르는 사름 가민, 새각시 페라우민<sup>146</sup> 예장 새로 써오렌 흥곡 흡니다. 들여 놓지도 안 흥곡.(그러면

144) ‘흥세함’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納幣函)이다. 함 속에는 예장과 무명을 넣는다.

145) ‘택일기’는 큰일 하는 날짜를 받아 적어 놓은 종이이다.

146) ‘페랍다’는 성질이 신경질적이고 사납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다.

요, 새서방 위요가 글 아는 사람 가야지 글 모르는 사람 가면, 새색시 ‘페라우먼’ 예장 새로 써오라고 하고 합니다. 들여 놓지도 안 하고.)

106012 @ 그다음에 멘네 농사 저봅디가?(그다음에 면화 농사 저봤습니까?)

106012 #1 게, 멘네 갈앗주게.(그럼, 면화 갈았지.)

106012 @ 멘네 농사 짓는 것에 대행 말해봅서.(면화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106012 #1 곶으카?(말할까?)

106012 @ 예.(예.)

106012 #1 멘네왔은 번헝영 나뉘당, 요 헝루기도 곶앗주게. 멘네 번헝영 나뉘당, 난드르난. 옷드르 그냥만 멘네씨만 빼영 가는디, 이디는 몸, 몸 해당 고랑에 쪽 갑니다, 곶름으로. 쪽 곶민 따시 밧을 또 갈 거 아니우파? 곶민 몸 물어질 거 아니우파? 물어지민 이젠, 멘네씨 이젠, 저 불치나 오쭈이영 낱 박박 부벼 멘네씨를, 막 마당에서, 올레에나, 막 부비민. 거민 헝디 어우러지면은 이제 그거 옷영 강 작작 뻔 거 아니우파? 빼민 따로 섬비질을 헝여. 경헝민 멘네씨 가두와지면은 섬비질을 헝면은, 멘네 나민 곶질 메곡 헝는 거.(면화밭은 애벌같이해서 놔뉘다가, 요 하루도 갈았지. 면화 애벌같이해서 놔뉘다가, ‘난드르’니까. ‘옷드르’는 그냥만 면화씨만 뿌려서 가는데, 여기는 모자반, 모자반 해다가 고랑에 쪽 갑니다, 곶름으로. 쪽 곶면 다시 밧을 갈 거 아넵니까? 곶면 모자반 물어질 거 아넵니까? 물어지면 이젠, 면화씨 이젠, 저 재나 오쭈하고 놔서 박박 문질러서 면화씨를, 막 마당에서, ‘올레’에나, 막 문지르면. 그러면 함께 어우러지면 이제 그거 가져서 가서 작작 뿌릴 거 아넵니까? 뿌리면 따로 ‘섬비질’을 해. 그러면 면화씨 가뉘지면은 ‘섬비질’을 하면은, 면화 나면 곶매고 하는 거.)

106012 @ 거난 이제 멘네 갈아근에?(그러니까 이제 면화 갈아서.)

106012 #1 갈아근에.(갈아서.)

106012 @ 곶질나민?(곶나면?)

106012 #1 곶질 메곡, 후제 크민 멘네 탕, 이제는 가지 채 타오람주만은, 그때는 낭에서 출구덕 메어두서 그곶 탕 멘네로 이레, 구덕더레 낱, 푸데나 무싱거 옷영 강 담으명 집의 왓수다게.(곶매고, 후에 크면 면화 따서, 이제는 가지 채 따오고 있지 만은, 그때는 나무에서 ‘출구덕’ 메어뉘서 그것을 따서 면화로 이리로, 구덕으로 넣어서, 포대나 무엇 가져가서 담으면서 집에 왔습니다.)

106012 @ 멘네드레 먹어봅디강?(목화다래 먹어봤습니까?)

106012 #1 어.(예.)

106012 @ 멘네드레.(목화다래.)

106012 #1 멘네드레 타 먹주게. 아윈 때 늻의 밧디 강 막 홀터당 먹곡.(목화다래 따 먹지. 아이때 남의 밧에 가서 마구 훑어다가 먹고.)

106012 @ 나도 옛날 타먹어난 기억이 잇어가지고.(나도 옛날 따먹었던 기억이 잇어가지고.)



106012 #1 멘네드레 세지 안 혼 거. 늬의 밧디 강 막 정탐 시기명 타먹엇수다 게. 멘네 타레 강은 못 먹고.(목화다래 쇠지 안 한 거. 남의 밧에 가서 막 정탐 시키면서 따먹엇습니다. 면화 따러 가서는 못 먹고.)

106012 @ 퍼렁혼 거, 퍼렁혼 거. 거 막 들주게.(퍼런 거, 퍼런 거, 거 아주 달지.)

106012 #1 돌아도 먹을 거 엇이난 먹엇주게. 경흐고 멘네밧디양, 저 동의<sup>147)</sup> 사름덜은 흐린조떡 흐영 멘네밧딜로 멘네 바꾸레 막 텅기고, 떡 흐영 폴레, 멘네 타는 밧디.(달아도 먹을 거 없으니까 먹엇지. 그렇게하고 면화밭에요, 저 ‘동의’ 사람들은 차조떡 해서 면화밭으로 면화 바꾸러 막 다니고, 떡 해서 팔러, 면화 따는 밧에.)

106012 @ 아, 거 해롭디가?(아, 거 해봤습니까?)

106012 #1 우린 해변이난 큰 밧 저디 잇이난, 조떡 흐영 폰텐 흐난 씨어멍 아니 보난, 모르게 씨누의덜이영 모르게 산 곱정 먹어서.(우린 해변이니까 큰 밧 저기 있으니까, 조떡 해서 판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아니 보니까, 모르게 시누이들하고 모르게 사서 숨어서 먹엇어.)

106012 @ 게난 멘네가 막 귀해나신게양?(그러니까 면화가 아주 귀했네요?)

106012 #1 동의 사름덜게.(‘동의’ 사람들이지.)

106012 @ 아.(아.)

106012 #1 새각시 소게이불을 이젠 삼주만은, 그땐 멘네로만 헛수게. 게난 그 새각시 폴젠 흐민, 난드르 멘네 존 디난 오곡, 밧딜로 텅기명 흐린조떡.(새색시 숨이불을 이젠 사고 있지만은, 그때는 면화로만 헛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색시 팔려고 하면, ‘난드르’ 면화 좋은 데니까 오고, 밧에로 다니면서 차조떡.)

106012 @ 게민 동의는 멘네가 잘 안 돼난?(그러면 ‘동의’는 면화가 잘 안 되니까?)

106012 #1 멘네가 잘 안 돼는 모양인게. 한국에선양, 대평만이 멘네 좋은 디가 엇수게, 꿩고 이 대평. 멘네 만이 가난 공장도 잇어낫수다. 씨 불르는 공장, 대평이 꿩고. 이젠 멘네 공장도 엇곡, 이불 안 흐영 갑니다. 상 가불주. 옛날엔 으담 채씩, 아홉 채씩 흐영 갓수게게. 씨어멍 주곡 흐명 스뭇. 나도 딸 폴젠 흐난 열두 채씩 흐연 보냈수다, 그 옛날에.(면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 한국에선요, ‘대평’만큼 면화 좋은 데가 없습디다, 최고 이 ‘대평’. 면화 많이 가니까 공장도 잇엇습디다. 씨 바르는 공장, ‘대평’이 최고. 이젠 면화 공장도 없고, 이불 안 해서 갑니다. 사서 가버리지. 옛날에는 여덟 채씩, 아홉 채씩 해서 갓습디다. 시어머니 주고 하면서 사뭇. 나도 딸 팔려고 하니까 열두 채씩 해서 보냈습디다, 그 옛날에.)

106012 @ 혼 번에?(한 번에?)

106012 #1 혼 번 씨집갈 때 정 가는 거. (한 번 시집갈 때 저서 가는 거.)

106012 @ 멧 채마씨?(멧 채요?)

106012 #1 열두 채, 으담 채, 아홉 채. 게민 우알 채에 이불 흐곡, 요 흐곡 열

147) ‘동의’는 서귀포시 동쪽을 일컫는다.

개씩이라.(열두 채, 여덟 채, 아홉 채. 그러면 위아래 채에 이불하고, 요하고 열 개 식이야.)

106012 @ 하영 흥연 가신게마썸.(많이 해서 갔네요.)

106012 #1 씨어멍, 씨아방 흥 채는 안네곡, 경흥민 지네 더끝 거. 이불 하영 흥민, 아이고 부제침 새각시 오랏져.(시어머니, 시아버지 한 채는 안내고, 그러면 자기네 덮을 거. 이불 많이 하면, 아이고 부жат집 새색시 왔다.)

## 모시

106013 @ 그다음에양, 모시 알아지쿠과?(그다음에요, 모시 알아지겠습니까?)

106013 #1 육지로 모시 흥지, 제주선 못 해나서.(육지로 모시 하지, 제주선 못했었어.)

106014 @ 계민양, 모시로 어떤 옷 멘듭니까?(그러면요, 모시로 어떤 옷 만듭니까?)

106014 #1 모시로 중의, 적삼. 이 노인덜양, 노인덜 씨어멍, 씨아방이나 잇이민 중의, 적삼 흥영 입지곡, 창옷, 옛날엔 훗, 안 안 논 거 창옷, 멧질 때 창옷을 입져서. 계민 모시 창옷. 경흥곡 멧진 생맹지로 바지 저 중의, 적삼흥영 입정, 모시로 창옷 흥영 입정 식계, 멧질 맨 절 흥곡, 경 헛주게. 여자도 할망덜 모시 적삼 흥영 입곡, 치메 흥영 입곡. 모신 죽으면 안 놓는 거, 모시 놓민 즈손 머리 힌덴 해나서, 관 안네. 요샌 모시 안 놔도 다 히여불어.(모시로 중의, 적삼. 이 노인들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나 있으면 중의, 적삼해서 입히고, 창옷, 옛날엔 훗, 안 안 놓은 거 창옷, 멧질 때 창옷 입혀서. 그러면 모시 창옷. 그리고 명주는 생명주로 바지 저 중의, 적삼해서 입혀서, 모시로 창옷해서 입혀서 제사, 멧질 때 절하고, 그렇게 했지. 여자도 할머니들 모시 적삼해서 입고, 치마해서 입고. 모시는 죽으면 안 놓는 거, 모시 놓으면 자손 머리 희다고 했었어, 관 안에. 요샌 모시 안 놓어도 다 희어버려.)

106014 @ 무사 힌덴 훗디가?(왜 희다고 합디까?)

106014 #1 몰라. 문조가 모시옷은 죽음에 놓면은 즈손 머리 힌덴 흥영 못 흥게 흥여. 계난 산 때 입는 거뿐.(몰라. 문조가 모시옷은 죽음에 놓으면 자손 머리 희다고 해서 못 하게 해. 그러니까 산 때 입는 거뿐.)

106014 @ 누게안티 들읍디가?(누구한테 들었습니까?)

106014 #1 곤는 거 들었주, 어른덜안티게.(말하는 거 들었지, 어른들한테.)

106015 @ 모시 키와뵈디가?(모시풀 키워뵈디까?)

106015 #1 모시 안 해뵈주게. 육지로 온 거주. 이된 모시 안 차뵈서.(모시 안 해뵈지. 육지로 온 거지. 여기는 모시 안 짜뵈어.)

## 삼

106016 @ 삼 갈아뵈디가? 삼.(삼 갈아뵈습니까? 삼.)

106016 #1 삼은 우리 학교 멧길 때예, 모싯대라 이젠 보난, 모싯대 겁죽 베껴

오랜 흡디다게. 모싯대 겹죽 베경 학교 가민, 잘 안 흥영 오민 벌 반곡 해낫수다. 그걸로 삼베 멘들젠 공출로 육지레 내보내엇젠 흡디다게.(삼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요, 모싯대라 이젠 보니까, 모싯대 꺾데기 벗겨서 오라고 합디다. 모싯대 꺾데기 벗겨서 학교 가면, 잘 안 해서 오면 벌 받고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삼베 만들려고 공출로 육지로 내보내었다고 합디다.)

106016 @ 거 어떻 멩급니까?(거 어떻게 만듭니까?)

106016 #1 몰라. 어떻사 멘들아신디, 공출만 해나부난.(몰라. 어떻게야 만들었는지, 공출만 했어버리니까.)

106017 @ 베로 어떤 옷 멩글아낫수가?(베로 어떤 옷 만들었었습니까?)

106017 #1 베론게 중의, 적삼, 베적삼. 여자는 적삼, 치메, 남자덜은 적삼, 중의, 경 흥연 입저, 창옷 흥영 입지고, 경 했주기. 다른 거 흘 것이 베랑 엷주게, 옛날은. 삼도 어렵고, 베도 어렵고 다 흥난.(베로는 중의 적삼, 베적삼. 여자들은 적삼, 치마, 남자들은 적삼, 중의, 그렇게 해서 입혀, 창옷 해서 입히고, 그렇게 했지. 다른 거 할 것이 별로 없지, 옛날은. 삼도 어렵고, 베도 어렵고 다 하나까.)

106017 @ 상 나민 베옷 입지지 안 흡니까?(상 나면 베옷 입히지 안 합니까?)

106017 #1 상 나민 베옷은 상제옷이고, 상제옷이고 기냥 가정의서, 집의서 옷 흥영 입엷주게.(상 나면 베옷은 상복이고, 상복이고 그냥 가정에서, 집에서 옷 해서 입었지.)

106017 @ 상제옷.(상복.)

106017 #1 게민 영장은 나민 그 상제 어멍이나 베옷을 흥영 나뉘, 다 옛날엔. 옛날엔 강 사다근에 집의서 두건 멘들곡, 영장 난 집의서 막 두건 멘들곡, 옷도 멘들곡. 이제는 멘든 거 사당 착착 해불엄주게.(그러면 영장은 나면 그 상제 어머니나 베옷을 해서 놔뉘, 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가서 사다가 집에서 두건 만들고, 영장 난 집에서 막 두건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이제는 만든 거 사다가 착착 해버리고 있지.)

106017 @ 옛날 할망덜 보민 죽기 전에.(옛날 할머니들 보면 죽기 전에.)

106017 #1 다 멘들양 나뉘주게.(다 만들어서 놔두고 있지.)

106017 @ 저 머냐, 퀘에 나두지 안 흡니까?(저 뭐냐, 퀘에 놔두지 안 합니까?)

106017 #1 나가 그 말이거던.(나가 그 말이거든.)

106017 @ 베 색깔 보민 틀려마쌌양. 희뚜룩 흥 것이 있고, 노랑흥 것이 있고.(베 색깔 보면 달라요. 희웁스름한 것이 있고, 노란 것이 있고.)

106017 #1 할망덜이 돈 한 거, 좋은 거 사민 노랑흥 베고, 즘진 베도 있고, 흥꿈 흥은 베 좋은 거 있주. 즘진 건 돈을 해꿈만 준 거고, 보통 베는 노랑흥 베는 좋은 거, 할망덜이 돈이 잇언 비싼 걸로 사당 퀘에 나두는 거고, 흥는 사름은 흥는디, 이젠 그런 거 멘들지도 안 흥고, 베도 안 사오고. 그자 그 날사 멘든 거 사당. 그 베 영 흥민 퀘로 앓아내영 영장 나민 그 일가 방상덜 강 두건 멘들곡, 옷 멘들곡 다 했주게. 경 했수다게, 옛날에는. 옷 집의서 주장 멘들앗수다게. 이젠 안 흥여도. 두

건 죽곡.(할머니들이 돈 많은 거, 좋은 거 사면 노란 베고, 자잘한 베도 있고, 조금 굵은 베 좋은 거 있지. 자잘한 건 돈을 조금만 준 거고, 보통 베는 노란 베는 좋은 거, 할머니들이 돈이 있어서 비싼 길로 사다가 퀘에 놔두는 거고, 하는 사람은 하는데, 이젠 그런 거 만들지도 안 하고, 베도 안 사오고. 그저 그 날이야 만든 거 사다가. 그 베 이렇게 하면 퀘로 가져내어서 영장 나면 그 일가 집안들 가서 두건 만들고, 옷 만들고 다 했지.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옷 집에서 주장 만들었습니다. 이젠 안 해도. 두건 접고.)

106018 @ 그다음에 삼은 싱거보지 안 했지양?(그다음에 삼은 심어보지 안 했지요?)

106018 #1 우린 삼 아이 싱거봤수다. 삼에 대해영은 몰라.(우린 삼 아니 심어봤습니다. 삼에 대해서는 몰라.)

106018 #2 삼은 싱거보지 안 했수다. 알긴 아는데.(삼은 심어보지 안 했습니다. 알긴 아는데.)

106018 @ 며 아는디마썸?(뭐 아는데요?)

106018 #1 알긴 아는데.(알기는 아는데.)

106018 #2 삼은 종류가 알긴 아는데, 보민. 집의 싱거보지 안 했어. 흐쫄 잘 사는 사람덜 삼 사다근에게 며 흐긴 해낫수다게. 경 겁죽 베껴근에.(삼은 종류가 알긴 아는데, 보민. 집에 심어보지 안 했습니다. 조금 잘 사는 사람들 삼 사다가 뭐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꺾대기 벗겨서.)

106018 #1 집의서 막 달루고, 숲곡, 다 가메에 슬몹디다.그 거 흐는 거 보난, 거 삼 베견에, 막 슬만게. 경 흐연 넙디다게. 그때 흐뽀 바낫주. 삼은 몰라.(집에서 막 다져서, 삶고, 다 가마에 삶습니다. 거 하는 거 보니까, 삼 벗겨서, 막 삶던데. 그렇게 해서 널었습니다. 그때 조금 봤었지. 삼은 몰라.)

## 도구

106019 @ 멘네 흐젠 흐민 씨아 잇지예, 씨아에 대해서 흐 번 말해봅서.(면화 하려고 하면 씨아 잇지요, 씨아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6019 #1 멘네 브르는물레가 있어. 멘네씨 가리는 거. 경흐민 일로 뱅뱅 돌리멍, 일로 멘네 맥이민 씨는 저 이레 털어지곡, 멘네, 소게, 깐 건 저레 뒤터레 털어지주게. 그거 곳영 가근에 저 멘네 흐는 디 강, 멘넛정<sup>148</sup>도 해 오곡, 소게도 멘들아 오곡 했주게.(면화 씨아가 있어. 면화씨 가리는 거. 그러면 이리로 빙빙 돌리면서, 이리로 면화 먹이면 씨는 저 이리로 떨어지고, 면화, 솜, 깐 건 저리 뒤로 떨어지지. 그거 가져서 가서 저 면화 하는 데 가서, ‘멘넛정’도 해 오고, 솜도 만들어 오고 했지.)

106020 @ 게민 물레에 대흐영 흐 번 말해봅서.(그러면 씨아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48) ‘멘넛정’은 솜을 가늘게 말아서 두 뽕 가량의 길이로 끊어낸 물건이다.

106020 #1 물렌 그거. 멘들아진 거. 물레 아귀 멘네 맥이는 거, 세 아귀라. 게민 이 고냥드레 맥이고, 이 고냥드레, 이 고냥, 이디서 혼 착으론 둘르곡, 혼 착으론 멘네 흥영 물레 맥이곡. 게민 이레 앞더레는 씨 털어지곡, 두터레는 멘네가 혜영혼 거 털어져. 게민 그거 담양 멘네 테우는 디 가민 발로 딱딱딱딱 두드리멍.(씨아는 그거. 만들어진 거. 씨아 아귀 면화 먹이는 거, 세 아귀야. 그러면 이 구멍으로 먹이고, 이 구멍으로, 이 구멍, 여기서 한 짝으로는 두르고, 한 짝으로는 면화해서 씨아 먹이고. 그러면 이리로 앞으로는 씨 떨어지고, 뒤로는 면화가 하얀 거 떨어져. 그러면 그거 담아서 면화 타는 데 가면 발로 딱딱딱딱 두들기면서.)

106020 @ 손으로 돌릴 거 아니우짜양?(손으로 돌릴 거 아닙니까?)

106020 #1 손으로 이 짝으로는 돌리곡, 혼 짝으로는 기계, 물레 돌리곡, 이 짝은 맥여야 돼주게. 이 착으로는 돌리곡, 혼 착으로는 맥이곡. 경흥민 씨는 앞더레 털어지곡, 멘네씨 간 건 두터레 털어지민, 그거 담양 강 멘네 테우는 집의 강, 이제는 기계로, 발동기로 활활활활활 테왁주만은, 그때는 사람으로 영 누들언에 멘네 저 소게도 멘들고 멘넷정도 흡디다게.(손으로 이 짝으로는 돌리고, 한 짝으로는 기계, 씨아 돌리고, 이 짝은 맥여야 되지. 이 짝으로는 돌리고, 한 짝으로는 먹이고, 그러면 씨는 앞으로 떨어지고, 면화씨 간 건 뒤로 떨어지면, 그거 담아서 가서 면화 타는 집에 가서, 이제는 기계로, 발동기로 활활활활 활 타고 있지만은, 그때는 사람으로 이렇게 눌러서 면화 저 숨도 만들고 ‘멘넷정’도 합디다.)

106020 @ 누드는 거 머우짜?(누르는 거 뭘니까?)

106020 #1 그 무슨 클산디샤.(그 무슨 틀인지.)

106021 @ 거 베틀인디양. 베틀에 대흥여근에 혼 번 말해봅서.(거 베틀인데요, 베틀에 대하여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6021 #1 베틀은 나 알아져. 난 멘들아 보지도 안 흥곡.(베틀은 나 알아져. 난 만들어 보지도 안 하고.)

106021 @ 남자 삼촌 베틀에 대흥영 말해봅서.(남자 삼촌 베틀에 대하여 말해보십시오.)

106021 #2 스각형으로 흥여근에 큼직하게 흥꿈 이만이 높으게 흥여근에.(사각형으로 해서 큼직하게 조금 이만큼 높게 해서.)

106021 #1 높읍니다, 높아.(높읍니다, 높아.)

106021 #2 게민 그 안네 그 무신 뱅뱅 돌리는 거 모양으로 멘네 테우는 기계가 잇입주게. 우의서 거시기 돌리멍, 발로 돌리멍 멘네 블라논 거 옷어가근에 앞의 나둡서 이제 맥이라, 맥이라. 그걸 쪽쪽쪽쪽쪽 잡아 텅기멍 나가민 그자 부각하게 소게 나옴주게.(그러면 그 안에 그 무슨 빙빙 돌리는 거 모양으로 면화 타는 기계가 있습지요. 위에서 거시기 돌리면서, 발로 돌리면서 면화 바라놓은 거 가져가서 앞에 놔두고 있으면서 이제 먹이라, 먹이라. 그것을 쪽쪽쪽쪽쪽 잡아 다니면서 나가면 그 저 보각하게 숨 나옴지요.)

106021 #1 게민양, 그거 등겨당, 이만이 기계로 발로 소겔 테왁수게. 발로 이디

초석 낀 디레 그거를 언주와다 낡 막 무르췌영 손으로 멘듭니다. 옷 소게는 그디서 장으로 짓어주고, 막 뱅뱅뱅 돌아근에 발로 불랑 장으로 짓어주고, 또로 경 흐영 집의 오랑 옷에 놀 때 옷에 맞추왕 그 소겔 놓는 거고. 그디서 멘네 미녕 맨들젠 흐민 요만씩, 요만씩 멘넛정 몰양 오랑, 열 개씩 낡 무꺼근에 툽툽 낡 옷영 왕, 그 멘네 좇는 물레로 썰 내와근에 미녕 맨들앗수게게. 경 햇수다게. 열리, 뜯드르<sup>149</sup>) 미녕 클 이서낫수다. 그 테우는 클.(그러면요, 그거 당겨다가, 이만큼 기계로 발로 숨을 땀습니다. 발로 여기 초석 낀 데로 그거를 그러모아다 놓아서 막 짓무르게 주물러서 손으로 만듭니다. 옷 숨은 거기서 장으로 지어주고, 막 빙빙빙 말아서 발로 밟아서 장으로 지어주고, 따로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옷에 넣을 때 옷에 맞추어서 그 숨을 넣는 거고. 거기서 면화 무명 만들려고 하면 요만큼씩, 요만큼씩 ‘멘넛정’ 말아서 와서, 열 개씩 놓아서 묶어서 툽툽 놓아서 가져와서, 그 면화 갖는 씨아로 실 내워서 무명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열리’, ‘뜯드르’ 무명 틀 있었습니다. 그 타는 틀.)

### 바느질

106022 @ 그다음에 바느질 해봅디게양?(그다음에 바느질 해봤습니까?)

106022 #1 바느질이사 흐주게.(바느질이야 하지요.)

106022 @ 바느질 도구덜 잊지 안 흐우짜? 바느질 흐면은.(바느질 도구들 잊지 안 합니까? 바느질 하면은.)

106022 #1 바느상지, 바느, 전대, 즐레, 그 바느 찢르는 즐레. 그거는 풀 브른 들랭이 새끼 요만인 흐 거 흐영, 바느상지 흐영, 바느상지 바우레 동골락동골락흐 거 두 개 멘들양 돌아매여. 건 바느 찢르는 거, 건 바느상지. 그새 농곡, 썰, 저 거세기 낭으로 이추룩 소랑소랑하게 멘들양. 게문 그레 썰 감아근에 나뒹당 쓰곡, 썰 가림<sup>150</sup>) 영 흐민 썰 문 씨지민 따시 울로 영 흐영 발에 감아두서 썰 감아. 경 흐영 손의로 햇주기. 건 바느상지, 여자.(바느질고리, 바늘, 전대, 바늘겨레, 그 바늘 찢르는 바늘겨레, 그거는 풀 바른 바구니 새끼 요만큼 한 거 해서, 바느질고리 해서, 바느질고리 테두리에 동그란동그란 거 두 개 만들어서 달아매어. 건 바늘 찢르는 거, 건 바느질고리. 가위 넣고, 실, 저 거시기 나무로 이처럼 길쭉길쭉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그리로 실 감아서 놔뒹다가 쓰고, 실 ‘가림’ 이렇게 하면 실 모두 쓰면 다시 여기로 이렇게 해서 발에 감아뒹서 실 감아. 그렇게 해서 손으로 했지. 건 바느질고리, 여자.)

106022 @ 계난 썰도 있어야 돼고.(그러니까 실도 있어야 되고.)

106022 #1 게, 바느상지, 그새, 바느 놓민 뒹는 거.(그럼, 바느질고리, 가위, 바늘 놓으면 되는 거.)

106022 @ 그다음에 험벽덜도 있어야 뒹 거 아니우짜?(그다음에 험겔들도 있어

149) ‘뜯드르’는 서귀포시 하예동 바닷가 마을을 일컫는다.

150) ‘가림’은 실 뭉텅이에서 몇 올을 한 가닥으로 하여 갈라낸 것이다.

야 될 거 아닙니까?)

106022 #1 게 험벅은, 게 바농, 옷 멘드는 거 따라근에 기지 곳어오주게. 바농상 지 흐젠 흐민. 보선 멘들젠 흐민 보선 멘들 만이 곳어오곡. 경 흐영 손의로도 보선 줄 수도 잇곡, 보선은 어떻 흐영 멘드냐 흐면은, 뱅뱅 돌아가게 쥘 가운데레 소게 낱 데쓰민 보선이라.(그럼 형겘은, 그럼 바늘, 옷 만드는 거 따라서 옷감 가져오지. 바느질고리 하려고 하면. 버선 만들려고 하면 버선 만들 만큼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손으로도 버선 기울 수도 있고, 버선은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하면은, 빙빙 돌아가게 기워서 가운데로 슴 넣어서 뒤집으면 버선이야.)

106022 @ 썰 색깔은 몇 개?(실 색깔은 몇 개?)

106022 #1 썰 색깔은 옛날은 노랑 썰 하고, 검은 썰 하고, 이거벧기 잇엇수다 게.(실 색깔은 옛날은 노랑 실 하고, 검은 실 하고,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106022 @ 노랑 썰도 잇어났수강?(노랑 실도 잇었습니다?)

106022 #1 노랑 썰도 잇엇수다, 옛날은. 붉은 썰 하고, 그건 잇어서, 옛날은.(노랑 실도 잇었습니다, 옛날은. 붉은 실 하고, 그건 잇엇어, 옛날은.)

106022 @ 난 흑백, 거난 검은 썰 하고, 흰 썰베끼 잇이카부텐.(난 흑백, 그러니까 검은 실 하고, 흰 실밖에 없을까 싶어서.)

106022 #1 아니, 아니. 옛날에도 그건 잇엇수다. 게난 미싱질 흐는 집의가 드뭇주게. 감산이<sup>151)</sup> 클칩<sup>152)</sup>, 클칩 흐영, 시집가젠 흐민 누비이불, 감산이 클칩 할망, 클칩 할망 흐명 그 할망베끼 잇어서. 경흐디 손의로 문딱 그자, 옷 좁는 거고 멘드는 거고 손의로만 멘들명 입지곡 그자 했주게, 아기덜이라도.(아니, 아니. 옛날에도 그건 잇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봉질 하는 집이 드뭇지요. ‘감산리’ ‘클칩’, ‘클칩’ 해서, 시집가려고 하면 누비이불, ‘감산리’ ‘클칩’ 할머니, ‘클칩’ 할머니 하면서 그 할머니밖에 없엇어. 그런데 손으로 모두 그저, 옷 좁는 거고 만드는 거고 손의로만 만 들어서 입히고 그저 했지, 아기들이라도.)

106022 @ 여기 난드른 미싱 잇인 집 잇엇수과?(여기 ‘난드르’는 재봉틀 잇는 집 잇었습니다?)

106022 #1 잇엇수다. 할망이 저승옷<sup>153)</sup> 흐는 할망, 장씨 할망, 죽어불언. 저승옷 흐는 사람이 드뭇주게. 거 흘 줄 몰랑도 못 흡주게.(잇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승옷’ 하는 할머니, 장씨 할머니, 죽어버렸어. ‘저승옷’ 하는 사람이 드뭇지요. 거 할 줄 몰라도 못 합지요.)

106023 @ 바농질 방법 혼 번 말해봅서.(바느질 방법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6023 #1 바농질은게, 이것이 바농이민양, 이 바농 영 쥘렁 쥘욱 흐게 쥐가는 건 저 거세기 저 무싱것고, 영 혼 건 흐썰 좁는 거고, 딱시 뒷바농질 흐는 건 감치는 거.(바느질은, 이것이 바늘이면요, 이 바늘 이렇게 쥘러서 쥘 하게 기워가는 건 저 거시기 저 무엇이고, 이렇게 한 건 조금 좁는 거고, 다시 뒷바느질 하는 건 감치

151) ‘감산이’는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이다.

152) ‘클칩’은 당시 감산리에서 재봉틀을 가지고 이불을 만들엇던 할머니의 집을 일컫는다.

153) ‘저승옷’은 영혼들이 저승에서 입는 옷이다.

는 거.

106023 @ 거 영영 돌리는 거.(거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

106023 #1 아니, 아니. 이거 영 흐민, 이 바농을양, 영 흐민 이레 쪽 갓잘영 뒤우로, 또로 바농을, 또로 바농 썰을 뒤레 가게 흐민 그건 감치는 거, 이것도 영 흐민 영 주는 거는 기냥 호는 거고, 영 이거 감치는 거, 오그라정 중중 흐민 감치는 거.(아니,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이 바늘을요, 이렇게 하면 쪽 갓잘영(?) 뒤로, 따로 바늘을, 따로 바늘 실을 뒤로 가게 하면 그건 감치는 거,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깎는 거는 그냥 호는 거고, 이렇게 이거 감치는 거, 오그라져서 중중 하면 감치는 거.)

106023 @ 일자로 영 영 들어강 나오게 흐는 건?(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게 하는 건?)

106023 #1 그거는게, 저 호우는 거, 호우는 거. 이딴 말로, 아이고 저 거세기 옷 호젠 흐난 슴브르와라, 경 흐명 호우는 거. 감치는 건 영 이추룩 감치는 거, 바농으로 안으로 쥘 흑흑 흐는 건 감치는 거.(그거는, 저 호는 거, 호는 거. 여기 말로, 아이고 저 거시기 옷 호려고 하니까 지루해라, 그렇게 하면서 호는 거. 감치는 건 이렇게 이처럼 감치는 거, 바늘로 안으로 기워서 흑흑 하는 건 감치는 거.)

106023 @ 여기 두의 혈어근에 험벅 놔근에 흐는 건?(여기 뒤에 혈어서 험겔 놓아서 하는 건?)

106023 #1 험벅 대어도 손의로 영 호우는 거주게.(험겔 대어도 손으로 이렇게 호는 거지.)

106023 @ 호는 거?(호는 거?)

106023 #1 호아. 이거 기지민, 나가 동무릅 터질 거 아니우파? 케민 기지 니 귀 반뜩흔 거, 안으로 낱 활활활활 호앙 니 귀로 쥘 불민 쥐분 거주.(호아. 이거 옷감 이면, 나가 무릎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옷감 네 귀 반뜩흔 거, 안으로 놓아서 활활활활 호아서 네 귀로 기워 버리면 기워버린 거지.)

106023 @ 케민 여기 영 흐는 건?(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는 건?)

106023 #1 이건 감치는 거, 감치는 바농질.(이건 감치는 거, 감치는 바느질.)

106023 @ 감칠 땀 어떻 해야 돼여?(감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106023 #1 감침은양, 이거 오그라정.(감침은요, 이거 오그라져서.)

106023 @ 바농 영 답양.(바늘 이렇게 답아서.)

106023 #1 일로 영 호우명 쪽 쥐 가주게. 베껏디 썰 안 나오게.(이리로 이렇게 호면서 쪽 기워 가지. 바깥에 실 안 나오게.)

106023 @ 썰 안 나오게?(실 안 나오게.)

106023 #1 베껏디 못 나오게. 이건 미상으로 주난 흐여도 베껏디 나오지 안 하게 감추아야 돼여. 베리기 굿주게, 베껏디 나와불민.(바깥에 못 나오게. 이건 재봉틀로 기우니까 해도 바깥에 나오지 않게 감치어야 돼. 보기 굿지, 바깥에 나와 버리면.)



106023 @ 이불 줄 땐?(이불 기울 때는?)

106023 #1 이불은 딱 이불 페우민, 안을 굽더래 낡, 소겔 우트레 낡, 거죽 우트레 낡근에 쪽 돌아가명, 이것이 이불 아니우파? 이것이 소게 낡진 거 아니우파? 영오그려낡 쪽 호아갑주게, 드문드문.(이불은 딱 이불 퍼면, 안을 밑으로 놓아서, 숨을 위로 놓아서, 꺾데기 위로 놓아서 쪽 돌아가면서 이것이 이불 아닙니까? 이것이 숨놓아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그려놔서 쪽 호아가지, 드문드문.)

106023 @ 계민 두 가지 방법이네양?(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네요?)

106023 #1 예, 호우는 거.(예, 호는 거.)

106023 @ 호우는 거 호고.(호는 거 하고.)

106023 #1 감치는 거.(감치는 거.)

106023 @ 감치는 거.(감치는 거.)

106023 #1 예, 거 두 가지 방법, 옛날엔 그거벧기 엇어수다게. 이젠 미싱이 다행 옷 상 입어불고, 옷 멘들지도 안 호고 다 햄주만은, 옛날엔 여남은 슬, 열다섯 슬 나도록 팬티 입젓수과?(예, 거 두 가지 방법, 옛날에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재봉틀이 다 해서 옷 사서 입어버리고, 옷 만들지도 안 하고 다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여남은 살, 열다섯 살 나도록 팬티 입혔습니까?)

106023 @ 계난 터진디 영 대여근에 주는 거주게.(그러니까 찢어진데 이렇게 대어서 기우는 거지.)

106023 #1 건 주는 거고. 옷도 팬티가 어딿수과? 아기덜은. 신도 엇어수다, 옛날 아기덜은 맨발에 발삭발삭 다녔주. 짝신.(건 기우는 거고. 옷도 팬티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들은. 신도 없었습니다. 예날 아기들은 맨발에 발삭발삭 다녔지. 짝신.)

## 옷 종류

106024 @ 그 남자 옷 종류에는 어떤 것덜 잇수과?(그 남자 옷 종류에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6024 #1 남자 옷은 저고리 호고 바지, 창옷 거뿐. 양복은 이런 양복이고.(남자 옷은 저고리 하고 바지, 창옷 거뿐. 양복은 이런 양복이고.)

106024 @ 옛날도 양복 잇어났수가?(옛날도 양복 있었습니까?)

106024 #1 옛날도 양복 잇주게. 양복 입는 사람이 몇 개 안 땃주게, 옛날엔.(옛날도 양복 있지. 양복 입는 사람이 몇 개 안 땃지, 옛날에는.)

106024 @ 계난 남자 옷 호민 갈중의 잇고.(그러니까 남자 옷 하면 ‘갈중의’ 잇고.)

106024 #1 갈중의 잇고.(‘갈중의’ 잇고.)

106024 @ 그다음.(그다음.)

106024 #1 갈적삼<sup>154</sup> 잇고, 모시 중의, 적삼, 베 중의, 적삼, 창옷 그거주게, 다른 거 엇어.(‘갈적삼’ 잇고, 모시 중의, 적삼, 베 중의, 적삼, 창옷 그거지, 다른 거

154)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적삼이다.

없어.)

106024 @ 계난 베갯디 나갈 때는?(그러니까 바깥에 나갈 때는?)

106024 #1 베갯디 나갈 땀게, 갈중의 입엇당 벗어똥게 미녕 바지, 저고리던지 해또록헝게 입엿 나갈주게. 어이구.(바깥에 나갈 때는, ‘갈중의’ 입엇다가 벗어똥서 무명 바지, 저고리든지 해읍스름하게 입어서 나가고 있지. 아이고.)

106024 @ 집의서는?(집에서는?)

106024 #1 집의서는게 그냥 그거 입엿 살암주게. 갈중의 밧디 갈 때 입곡, 갈중의, 적삼은 밧갈 때 입곡, 다른 건 미녕 저고리, 미녕 적삼, 미녕 중의, 양복이엔 헝민 무신 몸빼 닳은 것덜 헝영 양복이 서서게. 양복이 어디 잇수광?(집에서는 그냥 그거 입어서 살고 있지. ‘갈중의’는 밧에 갈 때 입고, ‘갈중의’, 적삼은 밧갈 때 입고, 다른 건 무명 저고리, 무명 적삼, 무명 중의, 양복이라고 하면 무슨 바지 닳은 것들 해서 양복이 있어서. 양복이 어디 있습니까?)

106025 @ 여자 옷 종류는 어떤?(여자 옷 종류는 어떤?)

106025 #1 여자 옷은 속옷, 중의, 따시 바지, 저 굴중의<sup>155)</sup>, 치메, 적삼, 그거주게. 다른 거 엿어.(여자 옷은 속옷, 중의, 다시 바지, 저 ‘굴중의’, 치마, 적삼, 그거지. 다른 거 없어.)

106026 @ 아의덜 옷 종류는 어떤 거?(아이들 옷 종류는 어떤 거?)

106026 #1 아의덜 옷은게, 그거 그놈의 아덜이주게. 바지엔 헛자 중의ㄱ짜, 바지ㄱ짜 멘들안 입정 내불엇주. 무신 곱게 헝곡 좋은 거 입져서게. 미녕으로 헝영 어뎡어뎡 물레 들이멍, 노랑 물레 들인 사름, 검은 물레 들인 사름, 어뎡어뎡 입전 설러 불엇주. 어느 저를에 잘 입지곡. 멩질 돌아오민 스똥 미녕 차젠 헝민, 검은 꼬리, 붉은 꼬리, 흰 꼬리 헝영 북 세 개로 이레 갔다 헝 번은 붉은 거, 헝 번은 검은 거, 헝 번은 노랑 거 헝여근에 미녕 그거 차지민, 걸로 야기, 여자덜 저고리 헝영 입지곡.(아이들 옷은, 그거 그놈의 아들이지. 바지라고 해야 중의같이, 바지같이 만들어서 입혀서 내버렸지. 무슨 곱게 하고 좋은 거 입혀서. 무명으로 해서 어떻게어떻게 물감 들이면서, 노랑 물감 들인 사름, 검은 물감 들인 사름, 어떻게어떻게 입혀서 끝내버렸지. 어느 겨를에 잘 입히고. 멩질 돌아오면 사똥 무명 짜려고 하면, 검은 실똥, 붉은 실똥, 흰 실똥 해서 북 세 개로 이리로 갔다 한 번은 붉은 거, 한 번은 검은 거, 한 번은 노랑 거 해서 무명 그거 짜지면, 걸로 야기, 여자들 저고리 해서 입히고.)

106026 @ 옛날 바찌이.(옛날 하의.)

106026 #1 바찌가 어딿수과게.(하의가 어디 있습니까?)

106026 @ 바찌이.(하의.)

106026 #1 그 바찌가 바지주게.(그 하의가 바지지.)

106026 @ 영 터지와근에.(이렇게 터지게 해서.)

106026 #1 터지곡 대곡, 영 가레엿주게, 허리ㄱ지.(터지고 대고, 이렇게 가렸지,

155) ‘굴중의’는 허리편에 주름이 잡히고 보통 중의보다 폭이 넓은 부녀자들이 입는 중의다.

허리까지.)

106026 #2 오줌 모르우민 영 햅영 싸곡.(오줌 마려우면 이렇게 해서 싸고.)

106026 #1 스나인 사둡서 싸곡.(남자는 서 있으면서 싸고.)

106027 @ 그다음에양, 마름질 햅고 옷 만드는 과정.(그다음에요, 마름질 하고 옷 만드는 과정.)

106027 #1 옷 멘드는 과정은 중의 햅 때도 뜨나곡, 적삼 햅 때도.(옷 만드는 과정은 중의 햅 때도 다르고, 적삼 햅 때도.)

106027 @ 옷 멩글아봘디게양?( 옷 만들어봘습니까?)

106027 #1 예게.(예.)

106027 @ 과정을 햅 번 말해봘서.(과정을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6027 #1 과정은 그거주게. 몰르는 게 주장이주.(과정은 그거지. 마르는 게 주장이지.)

106027 @ 몰랑.(말라서.)

106027 #1 바지 햅젠 햅민 바지 식으로 몰라야 될 거, 저고리 햅젠 햅민 저고리 식으로 몰라야 될 거, 속옷은 또 속옷 햅는 식으로, 속옷, 장의 부찌는 거 막 하메. 굴중의 요만씩 햅 거 부찌는 거 열 개도 넘어. 게난 어멍 엇인 사람은 굴중의만 험벅 부찢 줄 알민 어멍 엇어도 산덴 해나서.(바지 하려고 하면 바지 식으로 마라야 될 거, 저고리 하려고 하면 저고리 식으로 마라야 될 거, 속옷은 또 속옷 식으로, 속옷 장옷 붙이는 거 아주 많아. ‘굴중의’ 요만큼씩 한 거 붙이는 거 열 개도 넘어. 그러니까 어머니 없는 사람은 ‘굴중의’만 험겘 붙일 줄 알면 어머니 없어도 산다고 했었어.)

106027 @ 과정을 말해봘서, 몰라근에.(과정을 말해보십시오, 마라서.)

106027 #1 몰라근에 험벅 드러 부청 이거 멘들어야주. 이 모양으로 멘들어야주게. 호앗던지 감찰던지.(마라서 험겘 계속 붙여서 이거 만들어야지.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호든지 감치든지.)

106027 @ 그다음.(그다음.)

106027 #1 그거주게.(그거지게.)

106027 @ 몰름만 햅민 옷이 돼여?(마름만 하면 옷이 돼?)

106027 #1 바농질만 햅민 돼는 거주게.(바느질만 하면 되는 거지.)

106027 @ 바농질은 돼쌍 해야지양?(바느질은 뒤집어서 해야지요?)

106027 #1 웰쌍도 햅영 느뉘쓰민 돼고, 어떤 사람은 느뉘쓸쌀 거 웰쌍도 햅고 그주룩 햅엇주게. 멘들은 웰싸사 바지가 돼주. 베리지 곳영 웰니까게?(뒤집어서도 해서 원래 상태로 뒤집으면 되고, 어떤 사람은 원래 상태로 뒤집을 거 뒤집어서도 하고 것처럼 하였지. 멘들은 뒤집어야 바지가 되지. 보기 곳어서 됩니까?)

106027 @ 게민 여긴 머 허리에 고무줄 낫수광?(그러면 여기는 뭐 허리에 고무줄 넣었습니까?)

106027 #1 고무줄도 즐바로 엇엇수다.(고무줄도 바르게 없었습니다.)

106027 @ 계민 그 혼 번 바지 멩글 때 과정을?(그러면 그 한 번 바지 만들 때 과정을?)

106027 #1 바지 멘들 때 바지로 돌르민 바지 모양으로 부껴야주게, 힘벽을 다. 저고린 저고리 모양으로 부껴야곡. 경 혼영 호우던지 감추던지 혼는 거주게. 호우는 것도 잇곡, 감추는 것도 잇곡.(바지 만들 때 바지로 마르면 바지 모양으로 붙여야지, 형겼을 다. 저고리는 저고리 모양으로 붙여야 하고. 그렇게 해서 호든지 감치든지 하는 거지. 호는 것도 있고, 감치는 것도 있고.)

106027 #2 경혼난 앞가지 뒷가지 혼여근에게 부껴민.(그러니까 앞가지 뒷가지 해서 붙이면.)

106027 #1 몰라 논 것만 츠레로 부껴민 되는 거.(마라 놓은 것만 차례로 붙이면 되는 거.)

106028 @ 바지 잇지 안 혼우파양? 명칭, 바지도 명칭이 있어.(바지 잇지 안 합니까? 명칭, 바지도 명칭이 있어.)

106028 #1 바지도게 앞가지 뒷가지가 잇수다.(바지도 앞가지 뒷가지가 잇습니다.)

106028 @ 거난 그 명칭을 말해봅서.(그러니까 그 명칭을 말해보십시오.)

106028 #1 앞가지는 혼쉴 좁게 돌르곡, 뒷가지는 널르게 돌르곡.(앞가지는 조금 좁게 마르고, 뒷가지는 넓게 마르고.)

106028 @ 앞가지가 어느 거라?(앞가지가 어느 거지요?)

106028 #1 여기 동동 혼는 거 앞가지.(여기 동동 하는 거 앞가지.)

106028 @ 그다음엔?(그다음에는?)

106028 #2 엉덩이 가는 거 뒷가지.(엉덩이 가는 거는 뒷가지.)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1 여기는 허리, 허리.(여기는 허리, 허리.)

106028 @ 계난 그거벧기 엇수가?(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습니까?)

106028 #1 계, 거벧기 엇주게 무신, 다른 거 셔?(그럼, 거밖에 없지 무슨, 다른 거 있어?)

106028 @ 계민 저고리, 저고리.(그러면 저고리, 저고리.)

106028 #1 저고린 스미 혼곡.(저고리는 소매하고.)

106028 @ 아니, 여기 드는 건 머라?(아니, 여기 다는 건 뭐예요?)

106028 #1 깃 들곡, 동전 들곡. 안네 거는 너븐 건 깃, 베껏디 헤끔은 혼 게 동전. 흰 걸로 영 드는 건 동전.(깃 달고, 동정 달고. 안네 거는 넓은 건 깃, 바깥에 조금만 한 게 동정. 흰 걸로 이렇게 다는 건 동정.)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1 여기는 스미. 스미 이거 그냥 스미주게. 스미 그냥 영 해부는 거. 누웨쓰민 스미가 웨부는 거.(여기는 소매. 소매 이거 그냥 소매지. 소매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 원래 상태로 뒤집으면 소매가 돼버리는 거.)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1 여기는 어깨, 진동, 진동이엔 곱아.(여기는 어깨, 진동, 진동이라고 말해.)  
106028 @ 여긴 단추?(여기는 단추?)  
106028 #1 단추 매는 옷이 옛날에 어디 있어.(단추 매는 옷이 옛날에 어디 있어.)  
106028 @ 계민 머라?(그러면 뭐예요?)  
106028 #1 거는 앞의 오는 거난 단추 매는 거주게.(거는 앞에 오는 거니까 단추 매는 거지.)  
106028 @ 험벽으로 영 햏영 멩글아근에.(햏격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106028 #1 그건 들매기.(그건 매듭단추.)  
106028 @ 양?(예?)  
106028 #1 그건 들매기.(그건 매듭단추.)  
106028 @ 들매기?(매듭단추?)  
106028 #1 예, 단추가 어딿수과? 들매기 들안, 들매기 들안. 이 속옷에도 들매기 뵤주룽게 들고. 건 일름이 들매기.(예, 단추가 어디 있습니까? 매듭단추 달아서, 매듭단추 달아서. 이 속옷에도 매듭단추 아주 많이 달고. 건 이름이 매듭단추.)  
106028 @ 치마, 치메 이디 영 무끄는 걸 머렌 햏여?(치마, 치마 여기 이렇게 묶는 걸 뭐라고 해요?)  
106028 #1 허리띠주게.(허리띠지.)  
106028 @ 양?(예?)  
106028 #1 치메 허리띠 무끈 거.(치마 허리띠 묶는 거.)  
106028 @ 허리띠, 그다음에 영.(허리띠, 그다음에 이렇게.)  
106028 #1 건 치멘게, 통으로 햏는 거난 두 폭이민 두 폭, 햏 폭이민 햏 폭 햏 영 알 감추와불곡, 매친 들민 치메주게, 아기덜은. 친 들앙 입저십주게.(건 치마야, 통으로 하는 거니까 두 폭이면 두 폭, 한 폭이면 한 폭 해서 아래를 감쳐버리고, 어깨끈 달면 치마지, 아기들은. 끈 달아서 입혔습니다.)  
106028 @ 제일 밑에는 머엔 햏여?(제일 밑에는 뭐라고 해요?)  
106028 #1 바우난 영 오그려근에 감추왓주게.(테두리니까 이렇게 오그려서 감치었지.)  
106028 @ 명칭, 명칭.(명칭, 명칭.)  
106028 #1 명칭 그거 감춘 거.(명칭 그거 감친 거.)  
106028 @ 그다음에양, 보선. 보선 여기를 머엔 햏여?(그다음에요, 버선. 버선 여기를 뭐라고 해요?)  
106028 #1 코젹이. 보선코젹이.(코, 버선코.)  
106028 @ 그다음에 여기는?(그다음에 여기는?)  
106028 #1 거는 기냥 보선이엔 햏민 되는 거주.(거는 그냥 버선이라고 하면 되

는 거지.)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1 여긴 보선모가지.(여기는 버전목.)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1 발창계. 보선창계. 발창이나 보선창이나 그뜨지 안 햏여?(발바닥이지. 버전창이지. 발바닥이나 버전바닥이나 같지 안 햏?)

106028 @ 보선 안네는 무싱거 놔?(버선 안에는 무엇 넣어?)

106028 #1 숨 놓는, 늘근 어른덜은 숨을 놓메.(숨 놓는, 늙은 어른들은 숨을 놓지요.)

106028 @ 멘네, 멘네.(면화, 면화.)

106028 #1 멘네, 숨, 숨. 멘넬 놓지 안 햏고 멘네 테와온 숨을 햏끔씩 놓멍 뉘싸 근에 안광 그 거죽 사이에 낳 뉘쓰메. 경 햏영 신엇주게, 발 실려왕. 난 보선 신어 보지 안 햏수다만은, 어린 때라도.(면화, 숨, 숨. 면화를 놓지 안 햏고 면화 타온 숨을 조금씩 넣으면서 뒤집어서 안과 그 거죽 사이에 넣어서 뒤집지요. 그렇게 햏서 신엇지, 발 차가워서. 난 버전 신어보지 안 햏습니다만, 어린 때라도.)

106028 @ 계난 여기 며?(그러니까 여기 뭐?)

106028 #1,2 코짹이.(코.)

106028 #1 보선코지.(버선코.)

106028 @ 그다음엔 여기는?(그다음에 여기는?)

106028 #1 건 기냥 보선목이주게, 뒤치기.(건 그냥 버전목이지, 뒤치기.)

106029 @ 단추 종류에 대햏영 말햏보셔.(단추 종류에 대햏서 말햏보십시오.)

106029 #1 단추, 들매기 그거.(단추, 매듭단추 그거.)

106029 @ 들매기뿐?(매듭단추뿐?)

106029 #1 들매기, 단추엔 햏 건 들매기, 코걸이 걸곡, 이디 코걸이 걸곡 들매기 들양, 들매기 못아야 뉘여. 못을 줄 모르는 사람은 못 못아.(매듭단추, 단추라고 햏는 건 매듭단추, 코걸이 걸고, 여기 코걸이 걸고 매듭단추 달아서, 매듭단추 햏어야 돼. 햏을 줄 모르는 사람은 못 햏어.)

106029 #2 이젠 며 못을 사람이 엇어.(이젠 뉘 햏을 사람이 없어.)

106029 #1 장엔 문딱 들매기 옷이우다.(장에는 모두 매듭단추 옷입니다.)

## 재단과 염색

106030 @ 계민양, 옷감 손질에 대햏서 말햏햏줍셔.(그러면요, 옷감 손질에 대햏서 말햏햏해주십시오.)

106030 #1 멏지는.(명주는.)

106030 @ 손질 잘 햏여야 햏 거 아니우짜?(손질 잘 햏야 햏 거 아햏니까?)

106030 #1 예, 풀 햏영 막 안반에서 다듬이 햏야주게, 멏지는. 경햏곡 다른 건 경 풀 햏영, 미녕 그뜨 거 옷은 풀 햏영 발로 즈근즈근.(예, 풀햏서 막 안반에서 다

듬이 해야지, 명주는. 그리고 다른 건 그렇게 풀해서, 무명 같은 거 옷은 풀해서 발로 자근자근.)

106030 @ 그거에 대헌영 자세히 말해봅서.(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십시오.)

106030 #1 저, 베옷 헌영 입지젠 헌민양, 풀 흘 거 아니우짜? 밀꺾루 낱 죽 썬 근에 알뜰게 썬 맥영 돌르민 그걸 막 손의로, 옛날 다리미가 어딴수과? 다리민 저 불 담아낱 영 미는 거라낱주게, 옛날엔. 경헌민 손의로 초근흔 때, 스몹 꺾르지 안흔 때, 손의로 멘작헌영 즈근즈근 개여낱 발로 불릅니다. 다려지게, 즈근즈근 곱닥헌게. 경헌디 이젠 다리미 싯곡. 경헌곡 모시 헌고 베는 게을른 사름은 못 입어. 풀헌곡 다리미질해야 돼지.(저, 베옷 해서 입히려고 하면요, 풀 할 거 아닙니까? 밀꺾루 넣어서 죽 썬서 얹게 썬서 먹여서 마르면 그것을 막 손으로, 옛날 다리미가 어디 있습니까? 다리민 저 불 담아 넣어서 이렇게 거였었지, 옛날엔. 그러면 손으로 축축한 때, 사몹 꺾르지 안 한 때, 손으로 평평해서 자근자근 개어놓아서 발로 밟습니다. 다려지게, 자근자근 곱게. 그런데 이젠 다리미 있고. 그리고 모시 하고 베는 게을른 사름은 못 입어. 풀 하고 다리미질해야 돼지.)

106030 @ 게난 이것도.(그러니까 이것도.)

106030 #1 다듬이는 멍지. 미녕 꺾든 거, 베 꺾든 건 다듬이 안 헌고.(다듬이는 명주. 무명 같은 거, 베 같은 건 다듬이 안 하고.)

106030 @ 미녕은 어떻? 풀로.(무명은 어떻게? 풀로.)

106030 #1 미녕은 풀 헌영 꺾싸 개뚝 개여낱 즈근즈근 발로 불르민 이젠 다듬이질 해진 거. 경헌고 멍지는 풀 헌영 안반에서 와다다다다다닥 멍지.(무명은 풀해서 아까 개뚝 개어놓아서 자근자근 발로 밟으면 이젠 다듬이질 한 거. 그리고 명주는 풀해서 안반에서 와다다다다다닥 명주.)

106030 #2 다듬이질 해야.(다듬이질 해야.)

106030 #1 저 바지, 저고리 하르방네, 씨아방 거나 이넉 하르방 거나 헌영 바지, 저고리도 다듬이 해야 돼여. 곱닥헌영 문지락헌게. 경 헌영 이젠 또로 그걸 바놓으로 바지 멘들곡, 저고리 멘들곡 햄주게, 소게 눈 거. 게난 씨집 오랑 서방 거 바지, 저고리 헌렌 헌민 흘 줄 모르는 사름이 하. 나도 못 헌영 씨어명이 해주곡, 하르방<sup>156)</sup> 거 헌렌.(저 바지, 저고리 할아버지네, 시아버지 거나 이넉 할아버지 거나 해서 바지, 저고리도 다듬이 해야 돼. 고와서 매끈하게. 그렇게 해서 이젠 따로 그것을 바늘로 바지 만들고, 저고리 만들고 하고 있지, 숨 넣은 거. 그러니까 시집 와서 서방 거 바지, 저고리 하라고 하면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나도 못 해서 시어머니가 해주고, ‘하르방’ 거 하라고.)

106030 @ 거난 그 다듬이질 할 때 안반?(그러니까 그 다듬이질 할 때 안반?)

106030 #1 안반, 이제 그 육지 사름네 와다다다 헌는 거. 안반 낱 헌는 거. 이제 촌에 안반 다 풀아부난 해도, 안반 잇지 안 헌우짜게? 마께 하나로 헌는 사름 싯곡,

156)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이다.

두 개로 하는 사람 잇곡.(안반, 이제 그 육지 사람네 와다다다 하는 거. 안반 놓아서 하는 거. 이제 촌에 안반 다 팔아버리니까 해도, 안반 있지 안 합니까? 방망이 하나로 하는 사람 있고, 두 개로 하는 사람 있고.)

106030 @ 머 서답마께로?(뭘 빨랫방망이로?)

106030 #1 아니, 아니. 동골락흔 거 다듬이 마께가 잇주게. 동골락 흔 거. 걸로 마주 앓앙 돌리가 와다다다닥. 저 돌리가 마께 두 개, 다듬이 마께 두 개 흐젠 흐민 잘 맞아야주, 경 아니 흐민 임텡이 맞곡, 울어지곡 흐여. 졸바로 돌리가 맞춰야주. (아니, 아니. 둥근 거 다듬이 방망이가 있지. 둥근 거. 걸로 마주 앓아서 돌리가 와다다다닥. 저 돌리가 방망이 두 개, 다듬이 방망이 두 개 하려고 하면 잘 맞아야지, 그렇게 아니 하면 이마 맞고, 울어지고 해. 똑바르게 돌리가 맞춰야지.)

106031 @ 그다음에양, 염색에 대해영 말해봅서.(그다음에요, 염색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106031 #1 염색은양, 노랑 물도 잇고, 붉은 물도 잇고, 검은 물도 잇고, 흰 것도 잇고, 딱시 먹지도 잇고.(염색은요, 노랑 물도 잇고, 붉은 물도 잇고, 검은 물도 잇고, 흰 것도 잇고, 다시 먹지도 잇고.)

106031 @ 염색 어떻 흡니까?(염색 어떻게 합니까?)

106031 #1 염색은게, 물 흐영 꿰와근에 물레 헤다근에 물에 타명게 적삼이민 적삼 들이쳐근에 박박 놀령 물리우민 그것이 염색이주게.(염색은요, 물 해서 끓여서 물감 해다가 물에 타면서 적삼이면 적삼 들이쳐서 박박 놀려서 말리면 그것이 염색이지요.)

106031 @ 염색물 풀앗수가?(염색물 팔았습니까?)

106031 #1 풀앗주게. 풀곡 옛날에 노랑 물은 우녕팻디 치지.(팔았지요. 팔고 옛날에 노랑 물은 텃밭에 치자.)

106031 @ 무싱거마씨?(무엇요?)

106031 #1 치지엔 흔 거 잇어, 노랑흔 거, 동골락동골락 흔 거. 그거 타다근에 뵈아근에 물 첩질앙 아의덜 저고리 흐연 입져서. 그거 물레 들영. 치지, 치지엔 흔 거 잇어난. 이제도 치지가 이서. 거 일름이 치지라. 그 물레, 노랑 물. 감은 우녕팻디 감 타근에 뵈상 감물 들이곡게.(치자라고 한 거 잇어, 노랑 거, 동글동글 한 거, 그거 따다가 뵈아서 물 짜서 아이들 저고리 해서 입혔어. 그거 물감 들여서. 치자, 치자라고 한 거 있었어. 이제도 치자가 잇어. 거 이름이 치자야. 그 물감 노랑 물. 감은 텃밭에 감 따서 뵈아서 감물들이고요.)

106031 @ 그 갈중의 멩글 때.(그 ‘갈중의’ 만들 때.)

106031 #1 갈중의 멘들 때 감, 풋감 쥬쥬흔 거 낭에 돌아지민 유월 구물영 해사주, 너미 세여도 아이 웨여. 경흐민 들, 영 떡그루 뵈는 디 영 흐곡, 도고리에 뵈는 사람 시민 아의덜은 강 감 주시 막 좃어먹곡. 먹을 거 어시난, 감 주시.(‘갈중의’ 만들 때 감, 작은 감 자잘한 거 나무에 매달리면 유월 그물어서 해야지, 너무 세어도 아니 돼. 그러면 말, 이렇게 떡가루 뵈는 데이렇게 하고, 함지박에 뵈는 사람 잇으



면 아이들은 가서 감 찌꺼기 막 주워 먹고, 먹을 거 없으니까, 감 찌꺼기.)

106031 @ 감씨 햅영 햅주게.(감씨 해서 하지.)

106031 #1 게, 거죽 베끼멍 연해사주, 쉰 건 햅꿈 딱딱햅곡, 경햅민 감 들이젠 햅민 아의덜만 빈주룽이 왕 감씨 좇어 먹젠 햅난 난리가 나낫주게. 경햅연 나가 저고리 들이젠 햅민, 이것이 저고리 그뜨면은 거세기 감 뺏은 더레 이거 낡 감 우트레 낡 막 놀려 막 햅게. 이젠 감물로만 햅는디, 그뻐 경 놀리민 감 주시영 막 부뜨지 안 햅니까? 게민 탁탁 털어볼주게. 털영 널민 매날 보리냥 우의, 매날 물 적지멍 널어야 바래여.(그림, 거죽 벗기면서 연해야지, 쉰 건 조금 딱딱하고, 그러면 감 들이려고 하면 아이들만 뻥히 와서 감씨 주워 먹으려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지. 그러면 나가 저고리 들이려고 하면, 이것이 저고리 같으면은 거시기 감 뺏은 데로 이거 넣어서 감 위로 넣어서 막 놀려, 막 햅게. 이젠 감물로만 햅는데, 그때는 그렇게 놀리면 감 찌꺼기하고 막 붙지 안 햅니까? 그러면 탁탁 털어버리지. 털어서 널면 매날 보릿짚 위에, 매날 물 적시면서 널어야 바래어.)

106031 @ 물 적저근에?(물 적서서.)

106031 #1 물 적저사 햅빛나민 바래곡, 또 밤의 햅당.(물 적서야 햅벌나면 바래고, 또 밤에 햅다가.)

106031 @ 게 물 적질 뻐 멀로?(게 물 적실 뻐 무엇으로?)

106031 #1 늘물로. 허벽으로 질어온 물, 내에 강 감산이 내에 가근에 갈중의, 적삼 정 가근에, 내에 강 쟁 경 햅당, 돌 우의 낫당 물 빠지민 집의 저다근에 널곡, 경 햅주게.(날물로. 허벽으로 질어온 물, 내에 가서 ‘감산리’ 내에 가서 ‘갈중의’, 적삼 저서 가서, 내에 가서 담갔다가 그렇게 햅다가, 돌 위에 낫다가 물 빠지면 집에 저다가 널고, 그렇게 햅지.)

106031 @ 게난게 물 안 들영 햅영햅 걸로.(그러니까 물 안 들여서 하얀 걸로.)

106031 #1 햅영햅 건 중의, 적삼, 바지, 저고리, 미녕 바지, 저고리, 광목 바지, 저고리.(하얀 건 중의, 적삼, 바지, 저고리, 무명 바지, 저고리, 광목 바지, 저고리.)

106031 @ 검은 건 사당 햅고?(검은 건 다다가 햅고?)

106031 #1 검은 거는 물레 들염실 거라. 난 검은 건 아니 햅보난 몰라. 검은 건 잘 엇어.(검은 거는 물감 들고고 있을 거야. 난 검은 건 아니 햅보니까 몰라. 검은 건 잘 없어.)

106031 #2 물레 들염주.(물감 들고고 있지.)

106031 #1 음, 물레 들염주. 물레도 무신 검은 거. 촌흙 햅다근에양, 눈에 촌흙이 잇주게. 촌흙 햅당 막 데경, 따시 물 낡 막 씻영 햅벌에도 들여낫수다. 물레 엇이난.(음, 물감 들고고 있지. 물감도 무슨 검은 거. 찰흙 햅다가요, 눈에 찰흙이 잇지요. 찰흙 햅다가 막 주물러서 다시 물 넣어서 막 씻어서 햅겘에도 들렸었습니다. 물감 없으니까.)

106031 @ 촌흙 벌경햅게?(찰흙 벌경게?)

106031 #1 예, 벌경햅게 촌흙 햅다근에.(예, 벌경게 찰흙 햅다가.)

106031 @ 촌흙 흙 만 흙니다게. 토신제 흙 때 하는 식으로, ‘송이’지 ‘송이’.(찰흙 할 만 합니다. 토신제 할 때 하는 식으로, ‘송이’지 ‘송이’.)

106031 #1 밧디 가근에 쉼매나 맥이레 강 비오랑 젖이민 촌흙으로 들이민 몸에 물 내려. 경 해낫수다. 졸바로 헨 살앗수과게.(밭에 가서 소 매나 먹이러 가서 비와서 젖으면 찰흙으로 들이면 물 내려. 그렇게 했었습니다. 똑바르게 해서 살았습니까.)

## 신발

106032 @ 신의 종류에 대혀영 알아줍서.(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6032 #1 옛날 신발은 짝신,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 운동화 그거벧기 엇엇주게.(옛날 신발은 짝신,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 운동화 그거밖에 없었지요.)

106032 @ 나막신.(나막신.)

106032 #1 남신. 낭으로 멘든 남신.(나막신. 나무로 만든 나막신.)

106032 @ 경혀민양, 가죽신 이서낫수가?(그러면요, 가죽신 있었습니까?)

106033 #1 옛날에 가죽신 잇엇주게.(옛날에 가죽신 있었지요.)

106033 @ 거면은 가죽신 멩그는 과정 흙 번.(그러면은 가죽신 만드는 과정 한번.)

106033 #1 가죽신 멘드는 과정 어떻 알습니까?(가죽신 만드는 과정 어떻게 알습니까?)

106033 #2 가죽신 맨들은 가죽 혀여다근에 물릅주, 물라. 물라근에게 칼로 거시기 빙빙 돌려가명 끈어근에게, 므리와근에 거기서 이젠 이제 바농으로 줄 건 바농으로 주곡. 경 혀여나근에 밋창 부짖 때는 밋창 혀곡 운디 그 거시기 가죽으로 한 거, 운디 밀으레 신 창이영 그찌 바근에게 줍주게. 주어근에 그거를게, 바농 두 개 혀영 마주 쥐 갑니다게. 딱 혀게 주민 그걸로 끓.(가죽신 맨들은 가죽 해다가 마르지요, 마라. 마라서 칼로 거시기 빙빙 돌려가면서 끊어서, 마려서 거기서 이젠 이제 바늘로 기울 건 바늘로 기우고. 그렇게 해와서 밑바닥 붙일 때는 밑바닥하고 운두 그 거시기 가죽으로 한 거, 운두 밑으로 신 바닥하고 같이 놓아서 집지요. 기워서 그거를요, 바늘 두 개 해서 마주 기워 갑니다. 딱 하게 기우면 그것으로 끝.)

106033 @ 낭 바투지양?(나무 받치지요?)

106033 #1 에에, 그거 골 박아옌. 신 창에 마추아근에 운디 움직거리지 못하게 박아야 흙주게.(에에, 그거 골 박아라고. 신 바닥에 맞추어서 운두 움직거리지 못하게 박아야 합지요.)

106034 @ 그다음에 남신 멩그는 과정 말혀여봅서.(그다음에 나막신 만드는 과정 말해보십시오.)

106034 #2 남신은 그 끌로 파곡, 자귀로 가끄곡, 머 흙주기. 오골랑흔 게 칼 잇수다게. 거 남신 툴르는 칼인디, 통 짓어근에 파내젠 혀민게, 경 안 혀민 신지 못홀 건디, 걸 파내부려야 신어정 홀 건디, 그걸 문짝하게 남신을 곱게 혀젠 혀민 불

지지명 거시기 흡주기.(나막신은 그 끌로 파고, 자귀로 깎고, 뭐 합지요. 오그라진 칼 있습니다. 거 나막신 뚫는 칼인데, 통 지어서 파내려고 하면요, 그렇게 안 하면 신지 못할 것인데, 걸 파내버려야 신어져서 할 것인데, 그것을 반드럽게 나막신을 곱게 하려고 하면 불 지지면서 거시기 합지요.)

106034 @ 낭은 무슨 낭으로 흡니까?(나무는 무슨 나무로 합니까?)

106034 #2 낭은 며 소낭으로도 헝곡, 아무 낭이라도 헝기 좋은 낭 잇이민 흡니다게. 보통으로 소낭이 만 흡주기.(나무는 뭐 소나무로도 하고, 아무 나무라도 하기 좋은 나무 있으면 합니다. 보통으로 소나무가 많이 합지요.)

106035 @ 짝신 멩그는 과정 헝 번 말해보서.(짚신 만드는 과정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6035 #2 짝 두드려근에, 덩드렁<sup>157</sup>)에서 망치로 탁탁 두드려근에, 그다음은 놀이제 뽑주게. 신 만들 거시길 헝여근에 발 뗏 치 짐작헝여근에 놀이제 발에 맞추왕 끈어근에, 경 헝여근에 신 깎을 만듭니다게. 경 만들앙 거시기 헝민 헝 짝 부찌근에 헝 번 넘어가명 짝 잇이 어울릴 때게, 이레 어울려 가곡, 저레 어울려 가곡. 약 헝 열다섯 개면 열다섯 개, 스무 개면 스무 개, 경 뇌근에 삼으민. 경 헝다 보민 딱로 바우 거시기 꾸미젠 헝면은 그늘게 노 꼬양 신 깎에 찢릅주게. 돌아가명 바우 문짝헝게 웹니께게. 꾸명 거시기 헝여근에 양팬이 귀마리 딱 헝게 헝민 웹주게. 경 헝민 신영 바근에 족으민 크게 삼아사켜, 크면 족게 삼아사켜 헝명 신읍주게.(짚 두드려서, ‘덩드렁’에서 망치로 탁탁 두드려서, 그다음은 노를 이제 뽑지요. 신 만들 거시기를 해서 발 뗏 치 짐작해서 노를 이제 발에 맞추어서 끊어서, 그렇게 해서 신 총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거시기 하면 한 짚 붙여서 한 번 넘어가면서 짚 없이 어울릴 때요, 이리로 어울려 가고, 저리로 어울려 가고. 약 한 열다섯 개면 열다섯 개, 스무 개면 스무 개, 그렇게 놓아서 삼으면. 그렇게 하다 보면 따로 테두리 거시기 꾸미려고 하면은 가늘게 노 꼬아서 신 총에 찢릅지요. 돌아가면서 테두리 반드럽게 웹니께. 꾸며서 양편에 발목 딱 하게 하면 됩지요. 그러면 신어 봐서 작으면 크게 삼아야겠어, 크면 작게 삼아야겠어 하면서 신읍지요.)

106035 @ 그 바위는 짝으로 헝지 안 헝여근에 신사라로 헤낫수강?(그 테두리는 짚으로 하지 안 해서 신서란으로 했었습니까?)

106035 #2 헝꿈 곱게 거시기 헝젠 헝민 신사라로 거시기 헝엿수다게. 경헝민 아프지도 안 헝곡 붕물지도 안 흡주기.(조금 곱게 거시기 하려고 하면 신서란으로 거시기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프지도 안 하고 부르트지도 안 합지요.)

106035 #1 신 다 삼으민 코지 난 거 헝곡, 뒤치기 헝곡 헝영 안네레 담양 탁탁 두드립데다. 신 삼는 하르방 보난, 건 골 박는 거, 골 박는 거엔 흡니다. 신 늘어나게 경 흡니다.(신 다 삼으면 코 난 거 하고, 뒤치기 하고안으로 담아서 탁탁 두드립니다. 신 삼는 할아버지 보니까, 건 골 박는 거, 골 박는 거라고 합니다. 신 늘어나게 그렇게 합니다.)

157) ‘덩드렁’은 짚 따위를 두들길 때 사용하는 둥글넓적한 돌 판이다.

106036 @ 찍신도 종류가 있지 안 후우파?(짚신도 종류가 있지 안 합니까?)

106036 #1 이 짝을 훑은 걸로 혼 건.(이 총을 굶은 걸로 한 건.)

106036 #2 계난 훑은 짝이 있고, 줌진 짝이 있고. 계난 찍신 보통으로 후여근에 므쉬 몰레 텅기곡, 드르에 텅기는 찍신은 훑치 찍신을 삼아 가명 훑은 걸로 짝을 주고 후주게. 경 후여근에 훑은 거는 혼 으숫 개, 일곱 개도 후곡, 혼 열두어 개까지도 후주게. 경후난 짝도 이만씩 돈집니다게. 기냥 기자 신영 텅기는 디 편안후곡.(그러니까 굶은 총이 있고, 자잘한 총이 있고. 그러니까 짚신 보통으로 해서 마소 몰러 다니고, 들에 다니는 짚신은 한꺼번에 같이 짚신을 삼아가면서 굶은 걸로 총을 주고 합지요. 그렇게 해서 굶은 거는 한 여섯 개, 일곱 개도 하고, 한 열두어 개까지도 합지요. 그러니까 총도 이만큼씩 돈칩니다. 그냥 그자 신어서 다니는 데 편안하고.)

106036 #1 신는 거가 또 하나 있어. 가막창신. 옛날 새각시 신으는 가막창신.(신는 거가 또 하나 있어. 검은 가죽신. 옛날 새색시 신는 검은 가죽신.)

106036 @ 그거 혼번 말해봅서.(그거 한번 말해보십시오.)

106036 #1 아니, 가막창신은 멘들아진 거, 몰레 들이곡 후영 곱닥흔 신입디다. 그건 새각시 씨집 갈 때 신으는 거. 보통 씨집가는 사름덜은 흰 고무신을 신으는디, 부재칩 양반의 딸, 멋쟁이, 우리 친정 할망 씨집갈 때 가막창신 신져렌 후디다게. 거 일름이 가막창신. 거 일름뿐 알지 다른 건 몰라.(아니, 검은 가죽신은 만들어진 거, 물감 들이고 해서 고운 신입디다. 그건 새색시 시집 갈 때 신는 거. 보통 시집가는 사람들은 흰 고무신을 신는 데, 부자집 양반의 딸, 멋쟁이, 우리 친정 할머니 시집갈 때 검은 가죽신 신졌다고 합디다. 거 이름이 검은 가죽신. 거 이름뿐 알지 다른 건 몰라.)

## 모자 등

106037 @ 그다음 그 모자 종류에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그다음 그 모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6037 #1 밀랑페렝이 후곡.(밀짚모자 하고.)

106037 @ 정동으로 멩근 것도 있지 안 후우파?(땡땡이땡굴로 만든 것도 있지 안 합니까?)

106037 #1 아, 그건 입제, 멩긴. 입제엔 후곡 멩진이엔도 후곡. 딱시 큰 밀랑페렝이ㄴ찌 대로 멘든 건 병것. 그거주 우리 듣기가.(아, 그건 입자, 망진. 입자라고 하고 망진이라고도 하고. 다시 밀짚모자같이 대로 만든 건 병거지. 그거지 우리 듣기가.)

106037 @ 다시 혼 번.(다시 한 번.)

106037 #1 병것은양, 큰 정시나 식님이나 그런 거, 대로 멘든 입제후고, 샷갓 여자덜 검질 벨 때 대로 멘든 거, 샷갓도 있고, 밀랑페렝이도 있고, 남자덜 머흔 어른덜 쓰는 거는, 줌 머흔 사름덜은 밀랑페렝이만 췌주게, 모자 안 췌.(병거지는요, 큰

지관이나 스님이나 그런 거, 대로 만든 입자하고, 삿갓 여자들 김멜 때 대로 만든 거, 삿갓도 있고, 밀짚모자도 있고, 남자들 뒤편 어른들 쓰는 거는, 좀 뒤편 사람들은 밀짚모자만 썼지, 모자 안 써서.)

106037 #2 늙은 어른덜 보민 기자 므쉬도 보레 뎡기곡 드르에 하르버지덜은 그자 병것 흐엿주.(늙은 어른들 보면 그저 마소도 보러 다니면서 들에 할아버지들은 그저 병거지 했지.)

106037 #1 털병것도 있고, 기냥 병것도 있어.(털병거지도 있고, 그냥 병거지도 있어.)

106037 @ 잘 알아봅서, 무싱거마씨?(잘 말해보십시오, 무엇이요?)

106037 #1 털벌립도 있고, 기냥 벌립도 이서.(털병거지도 있고, 그냥 병거지도 있어.)

106038 @ 여름 모잔 어떤 것덜이 잇수과?(여름 모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6038 #1 여름 모잔 그것에서 알루운 거주게. 밀랑페랭이 ㄹ뎡 거.(여름 모자는 그것에서 얹은 거지. 밀짚모자 같은 거.)

106038 #2 여름 모자엔 혼 건 우리 알거니 페랭이, 보리낭으로 짜근에.(여름 모자라고 한 건 우리 알거니 페랭이, 보릿짚으로 짜서.)

106039 @ 그다음에 겨울 모자는?(그다음에 겨울 모자는?)

106039 #1 겨울 모자 그게 그놈의 아덜이주게. 털벌립 흐고, 겨울 모자가 따로 있어?(겨울 모자 그게 그놈의 아들이지. 털병거지 하고, 겨울 모자가 따로 있어?)

106040 @ 양태 멩글아봅디가? 양태.(갓양태 만들어봤습니까? 갓양태.)

106040 #1 양태가 머라?(양태가 뭐지요?)

106040 @ 양태.(갓양태.)

106040 #1 들어본 디도 엇인 말이여.(들어본 데도 없는 말이야.)

106041 @ 총모자?(총모자?)

106041 #1 털벌립 흐여근에 노리 잡으레 뎡기는 사름이 총모자 아닌가?(털병거지 해서 노루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총모자 아닌가?)

106041 @ 총 흐민 저 물총.(총하면 말총.)

106041 #1 아, 건 나 우리 몰라.(아, 건 나 우리 몰라.)

106041 #2 이름은 들엇수다만은 만들어보지 안 했수다.(이름은 들었습니다만 만들어보지 안 했습니다.)

106042 @ 탕건?(탕건?)

106042 #1 탕건이 입제주게. 멩질 때 절흐곡 흐는 거, 노인덜.(탕건이 입자지. 멩질 때 절하고 하는 거, 노인들.)

106042 #2 물총으로 만든 겁주게.(말총으로 만든 겁지요.)

106044 @ 도롱이 알아지쿠과? 도롱이. 비올 때, 새로 멩근 거.(도롱이 알아지겠습니까? 도롱이. 비올 때, 띠로 만든 거.)

106044 #1 비오민 도롱이 쓰는 거, 건 도롱이.(비오면 도롱이 쓰는 거, 건 도롱

이.)

106044 @ 멩글아봄디강?(만들어 봤습니까?)

106044 #1 난 멘들아보지도 안 하고, 써보지도 안 했수다. 새로 멘들곡, 딱시 어  
욱으로도 멘들곡, 짜는 거게.(난 만들어보지도 안 하고, 써보지도 안 했습니다. 띠로  
만들고, 다시 역새로도 만들고, 짜는 거지요.)

106044 #2 느람지<sup>158)</sup> 모양으로 짜근에 썩 텡기는 거.(이영 모양으로 짜서 써서  
다니는 거.)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밥 종류?(밥 종류?)

107001 #1 밥 종류는 곤밥 있고, 조팝 있고, 보리밥 있고, 범벅 있고 그거주게.  
무싱거 다른 건 엇어.(밥 종류는 흰밥 있고, 조밥 있고, 보리밥 있고, 범벅 있고 그  
거지. 무엇 다른 건 없어.)

107001 @ 밥도 많지 안 하여, 곤밥도 있고.(밥도 많지 안 해, 흰밥도 있고.)

107001 #1 곤밥 있고, 보리밥 있고, 조팝 있고, 흐린조팝 있고, 모원 조팝 있고,  
범벅 있고 그거주게.(흰밥 있고, 보리밥 있고, 조밥 있고, 차조밥 있고, 메진 조밥  
있고, 범벅 있고 그거지.)

107002 @ 밥쌀의 종류는 어떤 거 잇수과?(밥쌀의 종류는 어떤 거 있습니까?)

107002 #1 곤쌀 있고, 보리쌀 있고, 좁쌀 있고, 흐린좁쌀 있고, 모원좁쌀 있고,  
모멸쌀 있고, 거벳기 더 엇어. 쌀이엔 흔 건 그거주게.(흰쌀 있고, 보리쌀 있고, 좁  
쌀 있고, 차좁쌀 있고, 메좁쌀 있고, 메밀쌀 있고, 거밖에 더 없어. 쌀이라고 한 건  
그거지요.)

107003 @ 보리밥에 대행 흔 번 말해봅서.(보리밥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십시  
오.)

107003 #1 보리밥은 그거주게. 보리밥은 흥젠 흥민 거끄렁보리, 솔오리 보리밥,  
거끄렁 보리밥. 걸보리고라 거끄렁보리엔 해서, 이제 대맥고라. 그거게 쟁ㄱ레<sup>159)</sup>에  
굴양, 가난흔 사름은 쟁ㄱ레에 굴아근에 범벅 점, 밥 점 흥연 맥여서, 아의덜이영.  
가난흔 집원 늬의 집의 왕 일당 가근에, 이제 ㄱ뜨민 대맥이난 그거 흔 말 흥영, 바  
싹 바라 좇인 거 흥영 물리민 그거 막 흥여근에, 그걸 저 쟁ㄱ레에 굴민 거죽 트로,  
쌀 트로, 스투기 트로 나오주게. 게민 그걸 체로 치곡, 푸는체로 칭 죽, 즈배기 흥영  
아의덜 맥였주게, 가난흔 집윗 아의덜은.(보리밥은 그거지. 보리밥은 하려고 하면  
걸보리, 쌀보리 보리밥, 걸보리 보리밥, 걸보리더러 걸보리라고 했어, 이제 대맥더

158) '느람지'는 표준어 '이영'에 대응하는 말이다.

159) '쟁ㄱ레'는 조금 알팍하고 가벼운 돌로 만든 맷돌이다.

러. 그거 ‘쟁ㄹ레’에 갈아서, 가난한 사람은 ‘쟁ㄹ레’에 갈아서 범벅 겸, 밥 겸 해서 먹었어, 아이들하고. 가난한 집에는 남의 집에 와서 일당 가서, 이제 같으면 대맥이니까 그거 한 말 해서, 바삭 바락 젓은 거 해서 말려서 그거 막 해서, 그것을 저 ‘쟁ㄹ레’에 갈면 거죽 따로, 쌀 따로, 싸라기 따로 나오지. 그러면 그것을 체로 치고, 키로 쳐서 죽, 수제비 해서 아이들 먹었지, 가난한 집에 아이들은.)

107003 @ 무슨 걸로 햏여근에?(무슨 걸로 해서요?)

107003 #1 보리쌀로.(보리쌀로.)

107003 #2 보리로, 보리로.(보리로, 보리로.)

107003 @ 보리쌀로 안 햏여근에, 스투기?(보리쌀로 안 해서, 싸라기?)

107003 #1 늬의 일 햏면은 거죽 채 보리를 주거든, 햏 말을. 일콸으로, 일당으로. 경 햏영 주면은 오락 널면은 바삭 물러 거 아이짜? 물르면은 햏 말, 녀 웰 받아와신디 석 뉘빠기 안 햏여 몰라볼민. 가난햏 사름덜은 늬의 일 햏영, 이젠 돈으로 일당을 줍주만은 그뻐 엇인 사름이 일콸 받으레 강, 경햏민 이젠 그걸 바삭 물리민 ㄹ레에 곶아, 방에도 질 거 엇이민, ㄹ레에 곶민 햏뽀 햏은 쌀도 나오곡, 줍진 스투기도 나오곡.(남의 일 햏면은 거죽 채 보리를 주거든, 한 말을. 품삯으로, 일당으로. 그렇게 해서 주면은 와서 널면 바삭 마를 거 아닙니까? 마르면은 한 말, 녀 되 받아왔는데 석 되밖에 안 햏 말라버리면. 가난한 사름들은 남의 일 해서, 이젠 돈으로 일당을 주고 있지만은 그때는 없는 사름들이 품삯 받으러 가서, 그러면 이젠 그것을 바삭 말리면 맷돌에 갈아, 방아도 질 거 없으면, 맷돌에 갈면 조금 곶은 쌀도 나오고, 자잘한 싸라기도 나오고.)

107003 @ 스투기도 나오곡, 그다음엔 머도 나오지 안 햏여 저?(싸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는 뭐도 나오지 안 햏 저?)

107003 #1 ㄹ루도 나오고.(가루도 나오고.)

107003 @ ㄹ루.(가루.)

107003 #1 ㄹ루도 나오곡, 쌀도 나오곡.(가루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107003 @ ㄹ루도 종류가 잇지 안 햏우짜?(가루도 종류가 잇지 안 합니까?)

107003 #1 아니 종류 그거주게. 게문 체로 쳐. 대거름체<sup>160</sup>, 거름체<sup>161</sup>, 총체<sup>162</sup> 걸로 치민, 총체는 ㄹ루 나오곡, 대거름체는 햏은 대거름체, 줍진 대거름체 햏니다. 게민 줍진 대거름체는 줍지롱햏 스투기 나오곡, 햏은 대거름체는 햏은 스투기 나오곡, 또 대거름체 우의 거는 햏은 쌀이라. 경햏민 줍진 스투기덜 ㅍ근에 ㄹ쿨 티 엇이 멘들아근에 이젠 ㄹ를은 ㅈ배기 햏놓곡, 그걸론 죽 ㄹ뽀 거 썰 아기덜 맥 엇수게게.(아니 종류 그거지요. 그러면 체로 쳐. 대체, ‘거름체’, ‘총체’ 걸로 치면, ‘총체’는 가루 나오고, ‘대거름체’는 곶은 ‘대거름체’, 가는 ‘대거름체’ 합니다. 그러면 가는 ‘대거름체’는 자잘한 싸라기 나오고, 곶은 ‘대거름체’는 곶은 싸라기 나오고, 또 ‘대거름체’ 위에 거는 곶은 쌀이야. 그러면 자잘한 싸라기들 넣어서 모두 티

160) ‘대거름체’는 햏불을 가는 맷개비로 조금 늬이 곶게 짜서 메운 체이다.

161) ‘거름체’는 찌기나 건더기가 잇는 액체를 거르는 데 쓰는 조금 늬이 곶은 체이다.

162) ‘총체’는 말의 갈기나 마소의 꼬리털로 햏불을 짜서 메운 체이다.

없이 만들어서, 이젠 가루는 수제비 해놓고, 그것으로 죽 같은 거 썰서 아기들 먹였 습니다.)

107003 @ 스레기로?(짜라기로?)

107003 #1 스레기로.(짜라기로.)

107003 @ 거난 찰로는 보리밥.(그러니까 찰로는 보리밥.)

107003 #1 예게, 가난흔 아의덜이난.(예게,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107003 @ 밥은 어떻 흡니까?(밥은 어떻게 합니까?)

107003 #1 마찬가지지. 물 낵 보리쌀.(마찬가지지. 물 넣어서 보리쌀.)

107003 @ 멩글 때, 자, 보리쌀 놔근에, 물 놓곡.(만들 때, 자, 보리쌀 넣어서, 물 넣고.)

107003 #1 훗은 쌀은양, 줍쌀 먹을 때나.(굶은 쌀은요, 줍쌀 먹을 때나.)

107003 @ 게민 씻어야지.(그러면 씻어야지.)

107003 #1 씻으는 건 입자에 메곡, 본인에 메곡, 씻고 안 씻곤 밥 흐는 가정부 가 알양 흐는 거고, 경흐민 훗은 쌀은 밥 흐영 흐젠 흐민 보리쌀이난, 보리낭으로 검은 솟디 삶을 거 아니우파? 게민 그거 익도록은 못 삶거든. 경흐민 바라바라 두 번 꿩민 불 쟁 내불어, 그 보리밥 할 때. 그 내불면은 뜸자민 보리쌀이 헤싸질 거 아니우파? 또 불 슴으민 꿩민 이제 그뎨 줍쌀을 놔. 게민 그거 밥이주게.(씻는 건 입자에 매고, 본인에 매고, 씻고 안 씻고 밥 하는 가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 면 굶은 쌀은 밥 해서 하려고 하면 보리쌀이니까, 보릿짚으로 검은 솥에 삶을 거 아납니까? 그러면 그거 익도록 못 삶거든. 그러면 바라바라 두 번 끓으면 불 꺼서 내버려, 그 보리밥 할 때. 그 내버리면 뜸들면 보리쌀이 헤벌어질 거 아납니까? 또 불 때면 끓으면 이제 그때는 줍살을 넣어. 그러면 그거 밥이지요.)

107003 @ 빨운덴 흐주, 빨운덴.(갓힌다고 하지, 갓힌다고.)

107003 #1 빨우는 거 그거. 보리밥은 빨우는 거고, 줍쌀 논 밥은 안 빨우고. 생 보리밥 여름에 줍쌀 아이 먹을 때, 보리밥은 밥 빨와뎡 오라사컬, 문딱 밥 흐여도 다시 삶양 물을 때깍히게 잘 빨와. 그건 빨우는 거. 여름에 보리밥, ㄹ슬 들영 줍쌀 논 거 빨우는 거 아니.(갓히는 거 그거, 보리밥은 갓히는 거고, 줍쌀 넣은 밥은 안 젓히고. 생보리밥 여름에 줍쌀 아니 먹을 때, 보리밥은 밥 젓혀뎡서 와야 할 걸, 모 두 밥해도 다시 삶아서 물을 허물어지지 않게 잘 젓혀. 그건 젓히는 거. 여름에 보 리밥, 가을 들어서 줍쌀 넣은 거 젓히는 거 아니.)

107003 @ 그냥 맨보리밥양.(그냥 강보리밥이요.)

107003 #1 맨보리밥이주. 옛날사 맨보리밥이주. 곤쌀 낵 흐는 집의가 어디셔. 식 게, 멩질 때난 곤밥 흐 적 얻어먹엇주.(강보리밥이지. 옛날이야 강보리밥이지. 흰쌀 넣어서 하는 집이 어디 있어. 제사, 명절 때니까 흰밥 한 적 얻어먹엇지.)

107004 @ 경흐민 반지기밥<sup>163</sup>에 대해영 말해봡서.(그러면 ‘반지기밥’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163)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이다.



107004 #1 반지기밥이엔 흰 거는 흐린좁쌀에 곤쌀 논 것도 반지기밥, 보리쌀에 곤쌀 논 것도 반지기밥.('반지기밥'이라고 한 거는 차좁쌀에 흰쌀 넣은 것도 '반지기밥', 보리쌀에 흰쌀 넣은 것도 '반지기밥'.)

107004 #1 잔치 때에는 부잣집의 잔치 홀 때 강 보민 콩 농곡, 통보리쌀 농곡, 곤쌀 하나씩 보나마나 햅쌀 밥헛곡, 또 머흔 집원 콩 헛곡, 보리쌀 헛곡만 놔서 밥 흡주게. 경 햅여도 콩 농난 밥이 그추룩 맛좋아. 햅쌀 헛곡. 멩텅이에 퍼근에. 멩텅이에 밥을 막 퍼놔. 경햅민 부주 구덕 보리쌀을 두 뉘 햅쌀 같 거 아이파? 게민 부주 구덕에 밥으로 놔 줏서. 마지막엔 멩텅이에 밥을 다 써지민 멩텅이 탁탁 털어근에 부주 구덕에, 집의 오랑 맨 멩텅이 털이라. 경 햅연 살앗수다게. 게민 아의덜은 콩 농곡 햅민, 잔치밥 반양 오민 먹젠 오독오독 앓앗곡. 고기, 돼야지고기는 어떻 해시냐 햅면은양, 집의서 도새기 잡양 햅민, 어른은 요멘씩, 득새기만씩 석 점, 아윈 두 점, 경 햅연 먹엇수다. 저 선생님도 어떻 들양 간 두 점 얻어먹여실 거라.(잔치 때에는 부잣집에 잔치할 때 가서 보면 콩 넣고, 통보리쌀 넣고, 흰쌀 하나씩 보나마나 해서 밥하고, 또 뉘한 집에는 콩하고, 보리쌀하고만 넣어서 밥 합지요. 그렇게 해도 콩 넣으니까 밥이 그처럼 맛좋아. 많이 하고. 망태기에 퍼서. 망태기에 밥을 막 퍼넣어서. 그러면 부조 바구니 보리쌀을 두 뉘 해서 같 거 아넙니까? 그러면 부조 바구니에 밥으로 넣어 줏어. 마지막에는 망태기에 밥을 다 써지면 망태기 탁탁 털어서 부조 바구니에, 집에 와서 온통 망태기 털이야. 그렇게 해서 살앗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콩 넣고 햅면, 잔치밥 받아서 오면 먹으려고 오독오독 앓아있고. 고기, 돼지고기는 어떻게 했느냐 햅면은요, 집에서 돼지 잡아서 햅면, 어른은 요만큼씩, 달걀만큼씩 석 점, 아이는 두 점, 그렇게 해서 먹엇습니다. 저 선생님도 어머니 데려서 가서 두 점 얻어먹엇을 거야.)

107004 @ 나도 좃안 텅겨났수다.(나도 좃아서 다녔엇습니다.)

107004 #1 맞수다게. 오십다섯 뉘여가민 그때, 나와.(맞습니다. 오십다섯 뉘 가면 그때, 나와.)

107004 @ 그땐 보리쌀.(그때는 보리쌀.)

107004 #1 막 잔치집의만 가젠.(막 잔치집에만 가려고.)

107004 @ 보리쌀 두 뉘 햅쌀 가민 그 머냐, 저 보리밥에 풋 논 거.(보리쌀 두 뉘 해서 가면 그 뉘냐, 저 보리밥에 팔 넣은 거.)

107004 #1 그거주게, 것도 경 들야.(그거지요, 것도 그렇게 달야.)

107004 @ 햅 사발 햅곡, 그다음에 국은 늣뵈국 정도 햅곡, 그다음에 꿩기 석 점, 앓은 거 석 점.(햅 사발 하고, 그다음에 국은 무국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고기 석 점, 앓은 거 석 점.)

107004 #1 아윈 두 점.(아이는 두 점.)

107004 @ 막 생각햅민 올 때 그 저.(막 생각햅면 올 때 그 저.)

107004 #1 햅꿈 꿩기 주곡.(조금 고기 주고.)

107004 @ 브른구덕<sup>164</sup>에 곤밥 햅 그릇 농곡.('브른구덕'에 흰밥 한 그릇 넣고.)

107004 #1 곤밥 흰 그릇 놓는 되가 드물었수다. 새각시 상 출리민 독새기 세 개나, 네 개나 새각시 상에 있어. 계민 독새기 하나에, 꿩기 두 점에, 밥 거러냥 상 아래 나뉘. 그 독새기 어느 놈사 아의덜 좃어가붙어사신디 엇어.(흰밥 한 그릇 넣는 데가 드물었습니다. 새색시 상 차리면 달걀 세 개나, 네 개나 새색시 상에 있어. 그러면 달걀 하나에, 고기 두 점에, 밥 떠놓아서 상 아래 놔둬서. 그 달걀은 어느 놈이야 아이들 주워가버렸는지 없어.)

107004 @ 그거 아무나 주지 안 했수다. 독새기.(그거 아무나 주지 안 하였습니다. 달걀은.)

107004 #1 독새기 어느 저를에.(달걀 어느 저를에.)

107004 @ 질 가까운 사름안티 쫓주.(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쫓지.)

107004 #1 가까운 사름도 대반이나 앓곡, 훈장이나 흐민 얻어먹어도. 경흐민 울어 가민, 아이고 울지 말라, 어느 집의 잔치흐문 독새기 받아당 주마 이, 주마 이, 경 했수계게. 독새기 반찬 흐영 벤또 행 간 사름은 대통령 백이우다. 벤또 쌍 뎅기 명, 마농지 담양 내불민.(가까운 사름도 대반이나 앓고, 훈장이나 하면 얻어먹어도. 그러면 울어 가면, 아이고 울지 말라, 어느 집에 잔치하면 달걀 받아다가 주마 이, 주마 이, 그렇게 했습니다. 달걀 반찬 해서 간 사름은 대통령 백입니다. 도시락 싸서 다니면서, 마늘장아찌 담아서 내버리면.)

107004 @ 나도 저 독새기 반찬 엇으난 소풍도 못 가났수다.(나도 저 달걀 반찬 없으니까 소풍도 못 갔었습니다.)

107005 @ 그다음엔양, 곤밥에 대흐영 말해봅서.(그다음에는요, 흰밥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107005 #1 곤밥은 게 그거주게. 스투기 낱 흐민 스투기밥이고, 큰 쌀 낱 흐민 곤밥, 그거주게.(흰밥은 게 그거지. 싸라기 넣어서 하면 싸라기밥이고, 큰 쌀 넣어서 하면 흰밥, 그거지.)

107005 @ 나룩쌀로.(별쌀로.)

107005 #1 나룩쌀로 해도, 산티쌀로 해도 곤밥이라. 쌀로만, 흰쌀로만 흐 건 곤밥.(별쌀로 해도, 발벼쌀로 해도 흰밥이야. 쌀로만, 흰쌀로만 한 건 흰밥.)

107005 @ 어떻 멩급니까?(어떻게 만듭니까?)

107005 #1 어떻 멘들아게, 불 솜양 밥 햄주게, 솟디. 메 흐젠 흐민, 스뭇 식게 때에 메 흐젠 흐민, 콩꼬질도 나뉘당 메, 진영, 찻냥도 흐민 짓지 말라 메 흐게, 메 흐게 흐민, 밥이 흐꿈 서나 흐민 솟두께 우트레 불 담아놓곡.(어떻게 만들어게, 불 대어서 밥 하고 있지요, 솜에. 메 하려고 하면, 사뭇 제사 때에 메 하려고 하면, 콩 짬도 놔뉘다가 메, 불을 때어서, 깻짬도 하면 불을 때지 말라 메 하게, 메 하게 하면, 밥이 조금 덜 익으나 하면 솜뚜껑 위로 불 담아놓고.)

107005 @ 그뎨 저 낭불로 흐지 안 했수과?(그대는 저 나무불로 안 했습니까?)

164) '부른구덕'은 대오리를 걸은 바구니가 헐어서 종이나 형겅 따위에 풀을 발라 붙인 바구니이다.

107005 #1 낭으로 하는 사람도 잇곡.(나무로 하는 사람도 있고.)

107005 @ 식계 흘 때는 경 하여도 막 정성하여.(제사 할 때는 그렇게 해도 아주 정성해서.)

107005 #1 정성하여게 콩꼬질, 콩꼬질은 불.(정성해서 콩짚, 콩짚은 불.)

107005 @ 그다음에 찻탕?(그다음에 찻짚.)

107005 #1 찻탕. 그런 거 나뒀당 메 하게, 메 하게 하루 곱정 나뒀.(찻짚. 그런 거 나뒀다가 메 하게, 메 하게 하루 숨겨서 나뒀.)

107005 @ 보리낭은 안 했주게?(보릿짚은 안 했지요?)

107005 #1 보리낭은 안 했주게. 보리낭으로는 메를 안 하는 거주게, 원치. 와닥 와닥 와닥 와닥 어떻게 보리낭으로.(보릿짚은 안 했지. 보릿짚으로는 메를 하는 거지요, 원치. 와닥 와닥 와닥 하면서 어떻게 보릿짚으로.)

107005 @ 아침 새벽의 가근에, 물 나는 디 가근에 물 흔 허벅 정 와근에 나뒀당, 그걸로 멧밥 했주.(아침 새벽에 가서, 물 나는 데 가서 물 한 허벅 쳐서 와서 나뒀다가, 그것으로 메 했지.)

107005 #1 예게, 스몫 멧밥 하면 하면 정성시리 했수다. 어느 저를에. 이제덜은 곧밥도 안 먹영 자락자락 비와불곡, 계영국도 먹지 안 하여 데껴불곡 해도 가마귀 알아구리 털어집니다. 우리 씨아버지가 죽은아덜이난 식계, 멧질이 엇어. 식계, 멧질이 엇어민 큰집의 식계, 멧질 흘 거 아이파? 경하면 난 아기덜 물아기 들곡 하여 뉘시민, 하이고 밤중 들민 씨아방이영 씨어머이영, 앞뒤로, 가로세로로 갈중의 씨우 명 곧밥 얻어먹이레 업영 들았수다.(예, 스몫 메 하려고 하면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어느 저를에. 이제들은 흰밥도 안 먹어서 자락자락 부어버리고, 갱도 먹지 안 해서 던져버리고 해도 가마귀 턱 아랫부분 떨어집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작은아들이니까 제사, 명절이 없어. 제사, 명절이 없으면 큰집에 제사, 명절 할 거 아녘니까? 그러면 난 아기들 ‘물아기’ 데리고 해서 뉘 있으면, 아이고 밤중 들면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앞뒤로, 가로세로로 ‘갈중의’ 씨우면서 흰밥 얻어먹으러 업어서 달렸습시다.)

107006 @ 그다음엔 조팍에 대하여 곱아봅서.(그다음에는 조팍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107006 #1 조팍은게, 흐린조팍, 모원조팍 그거주게. 조팍은 그거뿐이주 무싱거. 메좁쌀만 낱 하는 집, 감저 바레기 썰어낱 하는 집 가난한 집. 경 했주게.(조팍은요, 차조팍, 메조팍 그거지요. 조팍은 그거뿐이지 무엇. 메좁쌀만 넣어서 하는 집, 고구마 아주 많이 썰어 넣어서 하는 집 가난한 집. 그렇게 했지요.)

107006 @ 계난 주로 무슨 조팍을 먹어서마썸?(그러니까 무슨 조팍을 먹었어 요?)

107006 #1 아이고, 모원좁쌀, 보리쌀에. 보리쌀 꿰와근에 모원좁쌀 낱 주로 먹었주. 흐린좁쌀 먹는 사람 배랑 엇어서. 흐린좁쌀은 좋은 밧디 하는 거주게. 저 웃드르 밧딘 문딱 모원조주게. 모원존 벌경하곡, 흐린존 고고리도 검영 하곡.(아이고, 메좁쌀, 보리쌀에. 보리쌀 끊어서 메좁쌀 넣어서 주로 먹었지. 차좁쌀 먹는 사람 별로

없었어. 차좁쌀은 좋은 밭에 하는 거지. 저 ‘웃드르’ 밭에는 모두 메조지. 메조는 별  
경고, 차조는 이삭도 검어 해.)

107006 @ 어느 것이 존 겨우파?(어느 것이 좋은 것입니까?)

107006 #1 흐린좁쌀이 좋은 겨우파.(차좁쌀이 좋은 거지.)

107006 @ 건디 요즘은 모원조가 비쌀 걸?(그런데 요즘은 메조가 비쌀 걸?)

107006 #1 하이고, 모원조는 흔 뿔박에 이만 원이우다.(아이고, 메조는 한 되에  
이만 원입니다.)

107006 @ 흐린조는?(차조는?)

107006 #1 흐린좁쌀은 잘 엇어.(차좁쌀은 잘 엇어.)

107006 @ 모원조가 비싸?(메조가 비싸?)

107006 #1 모원조가 흔 뿔박에 이만 원. 이제 좁쌀 먹엄수과? 잡곡 헛자 다른  
잡곡만 막. 우리 안거리 아덜네 집원 가민 잡곡쌀이 무싱것사 남신디 밥이 짓빨경  
하고, 기자 멘딱 곤쌀은 못 보곡, 멘딱 잡곡쌀이라. 우리 세 가지만 낱 먹엄주만은.  
몸에 좋덴 흐민 벨 거라도 먹어덜.(메조가 한 되에 이만 원. 이제 좁쌀 먹고 있습니  
까? 잡곡 해봐도 다른 잡곡만 마구. 우리 안채 아덜네 집에는 가면 잡곡 무엇 넣고  
있는지 밥이 아주 질게 빨경고, 그저 모두 흰쌀은 못 보고, 모두 잡곡이야. 우리 세  
가지만 넣어서 먹고 있지만은. 몸에 좋다고 하면 벨 거라도 먹어덜.)

107007 @ 팟밥에 대햅영 글아줍서.(팔밥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07 #1 팟은 돛비도 팟밥추룩 별경햅곡, 팟 그거주기. 다시 녹디.(팟은 동부  
도 팔밥처럼 별경고, 팟 그거지. 다시 녹두.)

107007 #2 녹디로는 팟밥이 아이 돼주.(녹두로는 팔밥이 아니 되지.)

107007 #1 팟밥이 안 되는 거.(팔밥이 안 되는 거.)

107007 @ 팟으로 밥 햅지 안 햅수과?(팔으로 밥 하지 안 햅습니까?)

107007 #1 팟 낱 잔치 때고 집의서도 팟 낱, 따시 저 무싱거 흘 때는 팟죽 썩곡  
게.(팟 넣어서 잔치 때고 집에서도 팟 넣어서, 다시 저 무엇 할 때는 팟죽 썩고요.)

107007 @ 팟밥에 대햅여근에?(팔밥에 대하여서?)

107007 #1 밥은 그거. 팟 햅곡 돛비, 팟이 흔 종류뿐이난.(밥은 그거. 팟 하고  
동부, 팟이 한 종류뿐이니까.)

107007 @ 보리밥에도 낱 먹곡.(보리밥에도 넣어서 먹고.)

107007 #1 보리밥에도 낱 먹곡, 조팟에도 낱 먹곡.(보리밥에도 넣어서 먹고, 조  
팟에도 넣어서 먹고.)

107007 @ 곤팟에는 안 놓지양?(흰팟에는 안 넣지요?)

107007 #1 곤팟에도 놓는 거.(흰팟에도 넣는 거.)

107008 @ 피팟?(피팟?)

107008 #1 피는 모릅니다, 우리. 저 동더레만 박접흔 피 해나난 난 몰라. 동의  
강 우리 할망 피 하영 버실어오라낫젠 흡디다, 일당으로.(피는 모릅니다, 우리. 저  
동으로만 박대한 피 햅었으니까 난 몰라. 동에 가서 우리 할머니 피 많이 벌어왔었

다고 합디다, 일당으로.)

107009 @ 감저밥에 대햅영 햅뎡 굴아뵤서.(고구마뵤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십시오.)

107009 #1 감저뵤은게, 감저 싱그민, 뵤데기 햅영, ㄱ루 햅영 ㄱ루 치민, ㄱ루 우의 뵤골뵤골 혼 거 감저 주시가 잇주게. 그거 뵤에 뵤 먹는 집인 뵤에 뵤 먹어. 뵤데기는 떡도 햅영 떡곡, 즈뵤기도 햅영 떡곡, 경 햅주게.(고구마뵤은요, 고구마 심 으면, 고구마 고지해서, 가루해서 가루 치면, 가루 위에 동공동골 한 거 고구마 찌꺼기가 잇지. 그거 뵤에 뵤어서 먹는 집에는 뵤에 뵤어서 먹어. 고구마 고지는 떡도 해서 먹고, 수제비도 해서 먹고, 그렇게 햅지요.)

107009 @ 즈뵤기 햅 먹어져?(수제비 해서 먹어져?)

107009 #1 즈뵤기 햅여, ㄱ루로. 햅좋아.(수제비 햅, 가루로. 햅좋아.)

107009 @ 막 ���삭���삭 햅여근에.(아주 ���삭���삭 해서.)

107009 #1 아니, 안 햅니다. 막 찌민 찌닥찌닥 햅여. 이젠 감저뵤데기 삶아도 햅엇고, 즈뵤기도 햅엇잇디다. 먹는 거 좋아노난.(아니, 안 햅니다. 막 찌면 찌닥찌닥 햅. 이젠 고구마 고지 삶아도 햅없고, 수제비도 햅없습디다. 먹는 거 햅았으니까.)

107009 @ 입이 변햅수게게.(입이 변하고 잇어요.)

107009 #1 아니, 아니. 먹을 거 햅부난.(아니, 아니. 먹을 거 햅아뵤리니까.)

107009 @ 거난 입이 변햅는 거라.(그러니까 입이 변햅는 거야.)

107009 #1 먹을 거 햅부난 그거주.(먹을 거 햅아뵤리니까 그거지.)

107009 @ 옛날 먹을 거, 거뵤기 어신디, 이제는 햅도.(옛날 먹을 거, 거뵤에 없는데, 이제는 햅아도.)

107009 #1 옛날엔 승년 지난 등개<sup>165)</sup> 골룰로도 햅햅 햅엇수다.(옛날에는 흥년 지나서 ‘등개’ 가루로도 햅해서 햅엇습디다.)

107009 @ 등개 ㄱ루마썸?(‘등개’ 가루요?)

107009 #1 보리 저 나민 줌진 ㄱ로, 것고라 등개 ㄱ루엔 햅수다. 승년 지난 그 걸로 주로 떡 햅영 먹고, 즈뵤기 햅영 먹는 사람이 햅낫수다.(보리 도정햅여 나면 자잘한 가루, 것더러 ‘등개’ 가루라고 햅습디다. 흥년 지나서 그것으로 주로 떡 해서 먹고, 수제비 해서 먹는 사람이 햅았엇습디다.)

107009 @ 이제 그거 먹으민햅, 쉼 막 찢러뵤어.(이제 그거 먹으면요, 소 마구 찢러뵤려.)

107009 #1 감젓주시 햅당 담더레 녅영, 승년지곡 막 햅난 담더레 녅영 궤삭 뵤를 거 아이궤? 게민 부수왕 ㄱ레에 굴햅 등개ㄱ루. 애고애고, 죽 썬 떡곡. 난 씨집 의엔 햅연 오란 보난 고생도 햅고, 쌀도 혼 햅을 엇고, 친정에선 세상을 모르게 살 앗단 윈.(고구마찌꺼기 햅다가 담으로 녅어서, 흥년지고 막 햅니까 담으로 녅어서 궤삭 마를 거 아뵤니까? 그러면 부썬서 햅뵤에 갈아서 ‘등개’가루. 애고애고, 죽 썬서 먹고. 난 씨집이라고 햅서 와서 보니까 고생도 햅고, 쌀도 한 햅을 없고, 친정에

165) ‘등개’는 정미소에서 보리를 도정햅 때 나오는 찌꺼기이다.

서는 세상을 모르게 살았다가 원.)

107010 @ 늪빼밥 ㅎ연 먹어봬디가?(무밥 해서 먹어봬습니까?)

107010 #1 아이, 늪빼밥. 이제야 늪빼여, 밥이여 무싱거 했주. 옛날엔 국 길령 떡국, 탕쉬<sup>166</sup>) ㅎ곡, 그거빼긴 안 했수다.(아니, 무밥. 이제야 무여, 밥이여 무엇 했지. 옛날에는 국 끓여서 먹고, ‘탕쉬’ 하고, 그거밖에는 안 했습니다.)

107010 @ 늪빼 낱은 안 먹어보곡?(무 넣어서는 안 먹어보고?)

107010 #1 아니 먹어봬. 고구마는 썰연 ㅎ명 밥 ㅎ연 먹어신디, 늪빼엔 ㅎ 건 썰어근에 옛날에 식게 때 탕쉬, 채로 썰영 탕쉬 ㅎ곡, 따시 국 길령 떡국, 빙떡<sup>167</sup>) 물젠 ㅎ민 그 늪빼채 ㅎ여근에, 쪽과 썰어근에 ㅎ영 빙떡에 들앗주. 늪빼밥은 아니 ㅎ연 먹어봬수다.(아니 먹어봬어. 고구마는 썰어서 하면서 밥해서 먹었는데, 무라고 한 건 썰어서 옛날에 제사 때 ‘탕쉬’, 채로 썰어서 ‘탕쉬’ 하고, 다시 국 끓여서 먹고, ‘빙떡’ 말려고 하면 그 무채 해서, 쪽과 썰어서 해서 ‘빙떡’에 말았지. 무밥은 아니 해서 먹어봬습니다.)

107011 @ 툷밥에?(툷밥에?)

107011 #1 툷밥은 난드르 오난 툷밥 먹어봬.(툷밥은 ‘난드르’ 오니까 툷밥 먹어봬어.)

107011 @ 어떻 어떻 ㅎ니까?(어떻게 어떻게 ㅎ니까?)

107011 #1 스투기엔 ㅎ명 막 툷밥 ㅎ더라고.(싸라기라고 하면서 막 툷밥 하더라고.)

107011 @ 계난 어떻 멘듭디가?(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107011 #1 어떻 ㅎ연 멘들아서게. 씨어명이 멘드는 디게, 그 보리쌀 ㅎ꿈 농곡게, 툷 바락 낱 밥을 해주게. 보리밥 우리 먹듯게. 건 불룰라고, 승년 저부난. 하영 ㅎ민 밥 하영 백일 거난.(어떻게 해서 만들었지. 시어머니가 만드는 데요, 그 보리쌀 조금 넣고요, 아주 많이 넣어서 밥을 했지. 보리밥 우리 먹듯이. 건 부르라고, 승년 저버리니까. 많이 하면 밥 많이 먹일 거니까.)

107011 @ 보리.(보리.)

107011 #1 보리쌀러레 툷이영 ㅎ디 낱.(보리쌀로 툷하고 함께 넣어서.)

107011 @ 빨운 다음에?(꺾힌 다음에?)

107011 #1 빨우기 전의 낱 ㅎ디 ㅎ여붙어.(꺾히기 전에 넣어서 함께 해버려.)

107011 @ 그다음에 젓으는 거?( 그다음에 젓는 거?)

107011 #1 젓영, 베수기로 젓으민 밥이 다 서꺼점주게, 툷밥. 난 툷 난드르 오난 툷 먹어봬주. 옷드르사 툷이라.(저어서, 죽젓개로 저으면 밥이 다 섞어지고 있지, 툷밥. 난 툷 ‘난드르’ 오니까 툷 먹어봬지. ‘옷드르’야 툷이야.)

107011 @ 맛 좋읍디가?(맛 좋읍디까?)

107011 #1 맛사 좋아신디, 난 먹지만 실편고.(맛이야 좋았는데, 난 먹기만 싫었

166) ‘탕쉬’는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참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에 쓰는 나물이다.

167) ‘빙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팔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 고서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이다.

어.)

107011 @ 양?(예?)

107011 #1 난 먹지만 실패. 보리, 보리쌀 농곡, 부짓칩이난 좁쌀 농곡, 저 곤쌀 농곡 현떡단에 이디 오난, 송년 들어불고, 그걸 먹으렐 현떡 먹얼져게. 아의덜은 흘 수 엇이 먹언 살앗주. 경현떡 큰아덜, 나 현떡, 이 하르방 들앙 친정에 밥 얻어 먹으레 가. 현 떡 살민 할망이 곤쌀 현 떡 싸 주멍 가라, 가라 현떡 보내불곡. 경 흠데다.(난 먹기만 싫어. 보리, 보리쌀 넣고, 부짓집이니까 좁쌀 넣고, 저 흰쌀 넣고 해서 먹다가 여기 오니까, 송년 들어버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면 먹어져. 아이들은 할 수 없이 먹어서 살았지. 그러면 큰아들, 나 하고, 이 ‘하르방’ 데려서 친정에 밥 얻어먹으러 가. 한 떡 살면 할머니가 흰쌀 한 되 싸 주면서 가라, 가라 해서 보내버리고. 경 합디다.)

107012 @ 너패밥 먹어봬디강?(넙패밥 먹어봬습니까?)

107012 #1 너패가 무사 저 거세기.(넙패가 왜 저 거시기.)

107012 @ 넙패.(넙패.)

107012 #1 너패, 넙패. 밥은 아이 현떡 먹곡, 국은 길렁 먹어서.(넙패, 넙패. 밥은 아니 해서 먹고, 국은 끓여서 먹었어.)

107012 @ 넙패 낱은 밥 안 현떡반?(넙패 넣어서는 밥 안 해봬어요?)

107012 #1 아니 해봬수다. 보짱, 그거 확 바닷물에서 밀어뒹 씻어뒹 읍니다. 오라근에 건 보까, 보끄민 문작현떡 물 낱 국 끓연 먹었주. 흐린조팍에 넙패국 뒹게 맛 줍니다.(아니 해봬습니다. 볶아서, 그거 확 바닷물에서 밀어뒹서 씻어서 읍니다. 와서 건 볶아, 볶으면 반드러우면 물 넣어서 국 끓여서 먹었지. 차조밥에 넙패국 되우 맛 좋습니다.)

107012 @ 넙패 좋아, 나도 먹어나신디.(넙패 좋아, 나도 먹었었는데.)

107012 #1 옛날에 넙패국 맛 줍니다, 거. 이젠 가시리 낱도 비빔밥 현떡 줍디다. 식당에 가난, 가시리 낱집디다.(옛날에 넙패국 맛 좋습니다, 거. 이젠 풀가사리 넣어서도 비빔밥 하니가 좋습니다. 식당에 가니까, 풀가사리 넣어 있습니다.)

107013 @ 그다음엔양 국 종류, 국 종류 어떤 것덜 잇수과?(그다음에는요 국 종류, 국 종류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7013 #1 국은 누멸국도 현떡, 메역국도 현떡, 늙뽕국도 현떡, 넙패국도 현떡. 그거주게. 콩누물, 옛날엔 콩누물 낱 국도 안 현떡 먹었수다. 콩누물이 어려우난, 식게나 현떡 현떡사 콩누물 그거주게. 넙패국, 난드르난 넙패국이주. 웃드르넙패국이 엇주게. 누멸국, 메역국, 뒹장국, 그거주게. 늙뽕국 그거뿐이주게.(국은 배춧국도 하고, 미역국도 하고, 무국도 하고, 넙패국도 하고, 그거지요. 콩나물, 옛날에는 콩나물 넣어서 국도 양 해서 먹었습니다. 콩나물이 어려우니까, 제사나 하려고 해야 콩나물 그거지. 넙패국, ‘난드르’니까 넙패국이. ‘웃드르’는 넙패국이 없지요. 나물국, 미역국, 뒹장국, 그거지요. 무국 그거뿐이지.)

107013 @ 콩국?(콩국?)

107013 #1 콩국은 느멸 낱 국 끌리는 거난 그거뿐이주.(콩국은 배추 넣어서 국 끓이는 거니까 그거뿐이지.)

107013 @ 요즘은 성게국도 나오고.(요즘은 성게국도 나오고.)

107013 #1 중간에 성게국이주, 옛날에.(중간에 성게국이지, 옛날에.)

107013 @ 갈치국도 나오고.(갈치국도 나오고.)

107013 #1 옛날에도 갈치국은 이섯주게. 경 흐주만은 갈칠 경 먹어져서. 솔나니 국 길령 떡국, 옥돔도 경 아무나 먹어졌수과게? 그것도게. 식게 때에나 먹엇주게. 꿩기국을 경 아무 때나 먹어서? 옛날에. 이젠 기자 때에도 기루우민 사당 떡국 들 구 흐염주만은.(옛날에도 갈치국은 있었지요. 그렇게 하지만은 가치를 그렇게 먹어 졌어. 옥돔국 끓여서 먹고, 옥돔도 그렇게 아무나 먹어졌습니까? 그것도요. 제사 때 에나 먹엇지요. 고기국을 그렇게 아무 때나 먹엇어? 옛날에. 이젠 그저 끼니에도 그리우면 사다가 먹고 계속 하고 있지만은.)

107014 @ 느멸국에 대흐영 곶아봄서.(배춧국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107014 #1 느멸국은양, 물 낱, 웬장을 낱 삭삭 꿩우민, 느멸 낱 국 끌리민 매기. 웬장국.(배춧국은요, 물 넣어서, 된장을 넣어서 끓이면, 배추 넣어서 국 끓이면 끝. 된장국.)

107014 @ 느멸은 저 우녕에?(배추는 저 텃밭에?)

107014 #1 우녕밭도 갈곡, 사당도 떡국 흐엿주게.(텃밭에도 갈고, 사다가도 먹고 했었지.)

107014 @ 제일 흔하게 흐영 먹읍디게양?(제일 흔하게 해서 먹었습니까?)

107014 #1 느멸은 옛날은 느멸국베끼 더 잇엇수과? 우녕의 막 갈양. 옛날엔 마 농도양, 대사니도 이제는 기냥 깡 막 밧디서 작업, 옛날엔 우녕의 흐꿈 싱그민 헤양 케 베견 싱것수다. 반찬 흐꿈씩 흔 것도. 어느 저를에 마농도 경 핫수과? 옛날엔. 헤영케 베경 싱거. 이젠 베끼민 썩어불어, 싱경 나두민, 베긴 건.(배추는 옛날은 나 물국밖에 더 잇엇습니까? 텃밭에 막 갈아서. 옛날에는 마늘도요, 마늘도 이제는 그 냥 까서 막 밧에서 작업, 옛날에는 텃밭에 조금 심으면 하얗게 벗겨서 심었습니다. 반찬 조금씩 한 것도. 어느 겨를에 마늘도 그렇게 많습니까? 옛날에는. 하얗게 벗겨 서 심어. 이젠 벗기면 썩어버려, 심어서 봐두면, 벗긴 건.)

107014 @ 머마씨?(뭐예요?)

107014 #1 대사니.(마늘.)

107014 @ 곱대사니?(마늘?)

107014 #1 베경 싱근 건 문딱 썩어불어.(벗겨서 심은 건 모두 썩어버려.)

107014 @ 여긴 대사니엔 흡니까?(여기는 마늘이라고 합니까?)

107014 #1 옛날엔.(옛날에는.)

107014 @ 곱대사니엔 흐지 안 흐여?(마늘이라고 하지 안 해?)

107014 #1 옛날엔 곱대사니, 대사닌 중간에사 나온 이름이고, 옛날엔 곱대사니. (옛날에는 마늘, 마늘은 중간에야 나온 이름이고, 옛날에는 마늘.)



107014 @ 콧대사니, 콧으로 영 베끼난에 콧대사니?(마늘, 손톱으로 이렇게 벗기니까 마늘?)

107014 #1 몰라, 건. 어떻사 햏연 콧대사닌지.(몰라, 건. 어떻게야 해서 마늘인지.)

107014 @ 이거 콧, 손톱을 콧.(이거 손톱, 손톱을 ‘콧’)

107014 #1 이젠 쪽파엔 햏는디, 옛날엔 패마농. 세우리 이제는 정구지엔 햏주게.(이젠 쪽파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쪽파. 부추 이제는 부추라고 하지요.)

107014 @ 정구진 거 경상도에서 햏는 거.(‘정구지’는 거 경상도에서 햏는 거.)

107014 #1 게메, 이젠 정구지엔 햏주, 세우리엔 안 곺아.(글쎄, 이젠 부추라고 하지, 부추라고 안 말해.)

107014 @ 경상도 사름덜 하영 왓구나?(경상도 사름들 많이 왓구나?)

107014 #1 아니, 하영 오나, 아니 오나, 장에 가도 정구지.(아니, 많이 오나, 아니 오나, 장에 가도 부추.)

107014 @ 부추를?(부추를?)

107014 #1 부추를 세우리엔 햏낫주게, 옛날엔.(부추를 부추라고 햏었지. 옛날에는.)

107014 @ 경기도에서는 솔이엔 햏곡, 경상도는 정구지, 전라도나 제주도는 세우리.(경기도에서는 ‘솔’이라 햏고, 경상도는 ‘정구지’, 전라도나 제주도는 ‘세우리’)

107014 #1 이젠 세우리엔 햏민 몰르메, 이디 사름덜토.(이젠 ‘세우리’라고 햏면 몰라요, 여기 사름들도.)

107014 @ 제주도에서는 세우리.(제주도에서는 ‘세우리’.)

107014 #1 제주도 옛날 우리 세우리.(제주도 옛날 우리 부추.)

107015 @ 그다음에양, 콩나물국에 햏햏영 곺아줍서.(그다음에요, 콩나물국에 햏햏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15 #1 콩나물국이 무싱거라게. 콩나물, 물 수왕수왕 궤왕, 다듬아뵤 낱 머뵤장국이민 뵤장, 장물이민 장물 낱 곺렝 먹는 거주, 거뵤. 옛날이사 콩나물국 햏영 먹어졌수과? 나뵤국이 주장이주. 옛날에 식게 햏젠 햏사 시리에 놔근에, 집의서 놔근에 질루와근에 식게 햏수게. 궤는 디 콩나물도 어섯수다. 어느 저를에. 사와, 어느 저를에.(콩나물국이 무엇이라. 콩나물 물 수왕수왕 끓여서, 다듬어뵤서 넣어서 뵤뵤장국이민 뵤장, 간장이면 간장 넣어서 끓여서 먹는 거지, 거뵤. 옛날이야 콩나물국 햏해서 먹어졌습니까? 배춧국이 주장이지. 옛날에 햏사 햏려고 햏야 시루에 놓아서, 집에서 놓아서 키워서 햏사햏했습니다. 궤는 데 콩나물도 없었습니다. 어느 저를에 사와, 어느 저를에.)

107015 @ 게난 식게 때나 콩나물.(그러니까 햏사 때나 콩나물.)

107015 #1 탕쉬 햏젠, 탕쉬 햏젠.(‘탕쉬’ 햏려고, ‘탕쉬’ 햏려고.)

107015 @ 탕쉬 햏젠?(‘탕쉬’ 햏려고?)

107015 #1 예, 집의서 시리에 낱 매날 물 주멍.(예, 집에서 시루에 넣어서 맨날

물 주면서.)

107015 @ 온돌방에?(온돌방에?)

107015 #1 온돌방에 아이라도 부엌에 낵이라도 매날 물 줘주.(온돌방에 아니더라도 부엌에 놓아서라도 맨날 물 주고 있지.)

107015 @ 크질 안 흐주게.(크질 안 하지.)

107015 #1 아니, 시리에 낵. 이디 저 장테<sup>168</sup>)나 이제 낵, 낵 바투앙 시털 그 우 트레 올려놔. 게민 알려레 느린 물을 자꾸 박세기 흐연 거려 낵주게, 들구. 게문 콩 느덜 커.(아니, 시루에 넣어서. 여기 저 ‘장테’나 이제 넣어서, 나무 바투어서 시루를 그 위로 올려놔. 그러면 아래로 내린 물을 자꾸 바가지 해서 거려 넣고 있지요, 계속. 그러면 콩나물 커.)

107015 @ 무사 새로 물 안 놓곡?(왜 새로 물 안 넣고?)

107015 #1 새로 아니라도 그 물도 놓곡, 새 물도 놓곡, 물을 쥐야 크는 거난. 경 흐여도 콩느덜이 몽칼몽칼<sup>169</sup>) 커. 이제추록 안 흐영. 이제는 죽은 건 준자리콩<sup>170</sup>) 이엔 흐영 쟈젠흔 거난 그거주. 옛날엔 준자리콩이 어딿수과? 득새기콩<sup>171</sup>)하고, 붉은 콩베끼 더 이섯수과? 장콩.(새로 아니라도 그 물도 넣고, 새 물도 넣고, 물을 쥐야 크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콩나물이 ‘몽칼몽칼’ 커. 이제처럼 안 해서. 이제는 작은 건 ‘준자리콩’이라고 해서 자잘한 거니까 그거지. 옛날에는 ‘준자리콩’이 어디 있습니까? ‘득새기콩’하고, 붉은 콩밖에 더 있습니까? 장콩.)

107016 @ 늣뻘국에 대흐영 곶아줍서.(무국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16 #1 늣뻘국은 그거 웬장도 놓곡 그거주게. 장물 낵.(무국은 그거 된장도 넣고 그거지요. 간장 넣어서.)

107016 @ 늣뻘?(무?)

107016 #1 늣뻘 썰어낵게. 웬장 일어낵 꿩여가민 늣뻘 썰어낵 익으면 국이주게. 경흐고 옛날엔 늣뻘국을 잘 안 흐엿수다. 느덜이 좋으면, 느덜국이 주장이주게. 웃 드른 메역국은 아이 떡곡.(무 썰어 넣어서. 된장 일어 넣어서 끓여 가면 무 썰어 넣어서 익으면 국이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무국을 잘 안 했습니다. 배추가 좋으니까, 배춧국이 주장이지.)

107017 @ 콩국에 대행 곶아봅서.(콩국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107017 #1 콩국엔 소금 놓곡게, 콩ㄱ룬 물 수왕수왕 꿩왕 콩ㄱ룬 물에 탕 놓는 사름, ㄱ루로 허끄는 사름 흐주게. 물 꿩민 이제 느덜을 앞의 놓는 사름도 잇곡, 콩ㄱ루 논 후제 놓는 사름도 이십니다. 경 흐영 부각이 두 번, 세 번 올라오라가민 기자 소금으로 짝 뇌붙어. 소금 낵 불을 요멘이 흐영 베롱이 오래 솔므민 트랑트랑흐는 거.(콩국에는 소금 넣고요, 콩가루는 물 수왕수왕 끓여서 콩가루는 물에 타서 넣

168) ‘장테’는 양푼 모양으로 하되 그보다 크게 만든 질그릇이다.

169) ‘몽칼몽칼’은 식물이나 콩나물 따위가 통통하고 힘 있게 잘 자라는 모양이다.

170) ‘준자리콩’은 콩 종류의 하나로, 자잘한 콩을 일컫는다.

171) ‘득새기콩’은 콩 종류의 하나로, 달걀같이 생긴 콩을 일컫는다.

는 사람, 가루로 섞는 사람 하지요. 물 끓이면 이제 나물을 앞에 넣는 사람도 있고, 콩가루 넣은 후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각이 두 번, 세 번 올라와 가면 그저 소금으로 싹 넣어버려. 소금 넣어서 불을 요만큼 해서 희미하게 오래 삶으면 텅텅하는 거.)

107017 @ 계란 소금 놓니까? 거기.(그러니까 소금 넣습니까? 거기.)

107017 #1 춘물 어시난, 소금물도 놓주만은 소금으로 주장 놔붙어, 이젠. 옛날엔 춘물 질어다냥 했주기에. 그레에 곶양. 두부 흐젠 흐민양, 옛날엔 우리 친정 할머니 순 두부만 흐영 식게, 멩질을 흡디다게. 난드르 씨집 오난 춘물 저 가는 게 일이라. 경흐민 어떻 흐냐 흐민 저 콩은 물 둥급니다, 우리나라고. 물 둥강 나뉘당 이 도고리, 큰 마렛도고리 앓정 마렐 앓저. 물 둥근 걸 출구덕에 건젓당 수까락으로 거려 놓명 곶민, 그거 누리민 물 꿩왕 솥습니께. 솥아근에 춘물 질어당 문 솥아저가민 춘물을 싹 하게 뿌렁 나두민, 그것이 부끄지 안 흐영 트랑트랑흐민 미녕 잘리고, 광목 잘리고 흐영 그걸 저. 경 흐영 안반이고 그레착이고 딱 지들루민 두부 뵈니께게.(짠물 없으니까, 소금물도 넣지만은 소금으로 주장 넣어버려, 이젠. 옛날에는 짠물 길어다 넣어서 했지요. 맷돌에 갈아서. 두부 하려고 하면요, 옛날에는 우리 친정 할머니 순 두부만 해서 제사, 명절을 합디다. ‘난드르’ 시집 오니까 짠물 저가는 게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콩은 물 담급니다, 우리나라고. 물 담가서 놔뉘다가 이 함지박, 큰 맷돌함지박 앓혀서 맷돌을 앓혀. 물 담근 걸 ‘출구덕’에 건젓다가 숟가락으로 거려 넣으면서 갈면, 그거 내리면 물 끓여서 삶습니다. 삶아서 짠물 길어다가 모두 삶아저가면 짠물을 싹 하게 뿌려서 놔두면, 그것이 끓어 넘치지 안 해서 텅텅하면 무명 자루고, 광목 자루고 해서 그것을 저. 그렇게 해서 안반이고 맷돌짜이고 딱 지지르면 두부 뵈니께.)

107017 @ 거 비지로도 콩국 끓이지양?(거 비지로도 콩국 끓이지요?)

107017 #1 예, 비제기국.(예, 비지국.)

107017 @ 비제기국?(비지국?)

107017 #1 딱난 거.(다른 거.)

107017 @ 콩국이나 마찬가지 아니?(콩국이나 마찬가지 아니?)

107017 #1 아니 안 돼여. 비제긴 두부 다 짜부난 맛엇주게, 비제기국.(아니 안 돼. 비지는 두부 다 짜버리니까 맛없지요, 비지국.)

107017 @ 요즘 저 무싱거 닳은 거구나, 저 순두부.(요즘 저 무엇 닳은 거구나, 저 순두부.)

107017 #1 순두부는 두부 짜기 전의 순두부고, 옛날도.(순두부는 두부 짜기 전의 순두부고, 옛날도.)

107017 @ 아, 두부 만들기 전의 것이 순두부구나.(아, 두부 만들기 전의 것이 순두부구나.)

107017 #1 예, 순두부엔 합니다. 트랑트랑흔 거. 경 흐는디, 계란 옛날 고마우민 비제기 사례 갖당 두불 줏다 흐는 거라.(예, 순두부라고 합니다. 텅텅한 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를 줬다 하는 거야.)

107017 @ 계란 콩국 끓일 땐 느멸도 농곡?(그러니까 콩국 끓일 때 배추도 넣고?)

107017 #1 느멸도 농곡, 늬삐도 농곡, 아무거나 농주게.(배추도 넣고, 무도 넣고, 아무거나 넣지요.)

107017 @ 보통.(보통.)

107017 #1 보통 느물 낫수다, 옛날은.(보통 배추 넣었습니다, 옛날은.)

107017 @ 느멸하고 늬삐.(배추하고 무.)

107017 #1 늬삐 노는 사름도 드물어, 느물 기자. 옛날엔 느물이 우녕에 혼전해 노난 느물로만.(무 넣는 사람도 드물어, 나물 그저. 옛날에는 나물이 텃밭에 혼했으니까 나물로만.)

107018 @ 그다음에 호박입국에 대햅영 곶아볶서.(그다음에 호박입국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107018 #1 호박입국은 물 수왕수왕 꿩우민 호박입 박박 무지러 낱 꿩민.(호박입국은 물 수왕수왕 끓이면 호박입 박박 무질러 넣어서 끓이면.)

107018 @ 호박입 저 영.(호박입 저 이렇게.)

107018 #1 베경.(벗겨서.)

107018 @ 베껴야 할 거 아니우짜?(벗겨야 할 거 아닙니까?)

107018 #1 베껴땡, 연흔 걸로 햅영 거죽 베껴땡, 물 수왕수왕 꿩우민 박박 손으로 무지러 낱 바락바락 꿩민, 모멸꺾루 타근에 그레 비와근에 젓영 햅민 호박입국 아니짜? 호박입국은 옛날엔 들꺾기 맛이엔 해낫수다.(벗겨땡서, 연한 걸로 해서 거죽 벗겨땡서, 물 수왕수왕 끓이면 박박 손으로 무질러 넣어서 바락바락 끓이면, 메밀가루 타서 그리로 부어서 저어서 하면 호박입국 아닙니까? 호박입국은 옛날에는 말고기 맛이라고 했었습니다.)

107019 @ 그다음엔 몹국<sup>172)</sup>, 몹국에 대햅영 곶아볶서.(그다음에는 ‘몹국’, ‘몹국’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19 #1 옛날은양, 도새기 잔치 할 때 아시날 잡을 거 아니우짜? 웃드르 몹 어섯수다. 몹 푸는 것도 엇곡. 느물만 쳐 담아 낱 도새기 삶은 돛국물에 햅영, 내일 잔치문 오늘 동네 사름덜토 먹곡 다 했수게. 경흔디 이젠 몹국 햅는 디양, 느물 안 놓니다, 이제 사름덜은. 몹국에 꺾루 타 농곡, 늬삐 조끔 썰어 농곡, 미나리 좀 썰어 농곡 햅영 몹국을 끌리지. 몹 주장 햅영, 느물 바락바락 담아 낱 안 햅메.(옛날은요, 돼지 잔치 할 때 전날 잡을 거 아닙니까? ‘웃드르’는 모자반 없었습니다. 모자반 파는 것도 없고, 나물만 쳐 담아 넣어서 돼지 삶은 돼지국물에 해서, 내일 잔치면 오늘 동네 사람들도 먹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몹국’하는데요, 나물 안 넣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몹국’에 가루 타 넣고, 무 조금 썰어 넣고, 미나리 조금 썰어 넣고 해서 ‘몹국’을 끓이지. 모자반 주장해서, 나물 바락바락 담아 넣어서 안 하지

172) ‘몹국’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이다.

요.)

107019 @ 옛날 잔치 할 때 묵국 흐젠 흐면은 도새기 삶아난 국물.(옛날 잔치 할 때 ‘묵국’ 하려고 하면은 돼지 삶아난 국물.)

107019 #1 게메, 국물에. 옛날엔 묵국도 잘 어섯수다. 도새기 삶아나도. 묵이 어디 웃드르 쉬웁니까? 푼는 디가 잇수광? 어떻 헛수광? ㄴ멸만 막 놔근에 도새기, 돛 삶은 물, 돛국물.(글쎄, 국물에. 옛날에는 ‘묵국’도 잘 없었습니다. 돼지 삶아나도. 모자반이 어디 ‘웃드르’ 쉽습니까? 파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추만 마구 넣어서 돼지, 돼지 삶은 물, 돼지국물.)

107019 @ 그 저 수에 삶아난 물.(그 저 순대 삶아난 물.)

107019 #1 수에 삶아나사, 스몫 자게 먹젠 흐민, 수에 삶기 전의.(순대 삶아나야, 사몫 빨리 먹으려고 하면, 순대 삶기 전에.)

107019 @ 터진 수에도 나오곡.(터진 순대도 나오고.)

107019 #1 수에 삶기 전의 저녁 맥여불민 국이 맛엇텐 흐곡, 수에 삶아난 물은 풀풀흐곡, 수에 터지민 ㄱ루도 하곡, 국이 맛좋앗주게.(순대 삶기 전에 저녁 맥여버리면 국이 맛없다고 하고, 순대 삶아난 물은 걸쭉하고, 순대 터지면 가루도 많고, 국이 맛좋았지요.)

107019 @ 게난 수에 터진 것이 나와야.(그러니까 순대 터진 것이 나와야.)

107019 #1 예, 게난 옛날엔 돛국물이 주장헛수게게. 잔치 아시날이고, 소상 아시날이고게. 권당덜이영 이제난 동네 사름 막 하영 가도 권당 엇인 사름은 사름도 하지 아니 흐여. 권당벧기 안 갈 때난.(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돼지국물이 주장헛습니다. 잔치 전날이고, 소상 전날이고. 권당들하고 이제니까 동네 사람 아주 많이 가도 권당 없는 사름은 사름도 많지 아니 해. 권당밖에 안 갈 때니까.)

107020 @ 생선국에 대흐영 흐 번 곱아줍서.(옥돔국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7020 #1 물 꿩민 솔라닐 썰어 놀 거 아니우파? 썰어 낱, 꿩영 막 솔라니가 익으면 늪뿔 놓던지, 메역을 놓던지, 경 흐영 끌리는 거 아니우파게.(물 끓이면 옥돔을 썰어 넣을 거 아십니까? 썰어 넣어서, 끓여서 아주 옥돔이 익으면 무를 넣든지, 미역을 넣든지, 그렇게 해서 끓이는 거 아십니까.)

107020 @ 게난 식게 때 정도 헛지양?(그러니까 제사 때 정도 헛지요?)

107020 #1 어느 저를에 솔라니국 흐영 먹곡, 이제사 기루우민 시장에 강 사당 먹곡 햄주만은, 옛날엔 식게 때베끼 옥돔을 썰수과? 저 꿩 올리는 것도 며 흐 사름은 우럭, 옥돔으로 제숙<sup>173)</sup> 흐는 사름도 드물엇수다, 옛날엔. 우리 친정 할마닌 봄나른 오라근에 옥돔을 문짱 사당 메역으로 막 씹디다. 그 슬난일 쌍 조왕더레 놔, 보리항이나 깍깍 찢렁 나뒤, 게민 일 년 내낭 그걸로 제숙 흡디다, 우리 친정 할머닌.(어느 겨를에 옥돔국 해서 먹고, 이제야 그리우면 시장에 가서 사다가 먹고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제사 때밖에 옥돔을 썰습니까? 저 구워서 올리는 것도 뭐 한

173) ‘제숙’은 제상(祭床)에 올리는 생선류이다.

사람은 우럭, 옥돔으로 ‘제숙’ 하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친정 할머니는 봄 나면 와서 옥돔을 모두 사다가 미역으로 막 씹디다. 그 옥돔을 싸서 부엌으로 놔, 보리향아리나 깍각 질러서 놔둬, 그러면 일 년 내내 그것으로 ‘제숙’ 합디다, 우리 친정 할머니는.)

### 장아찌와 회

107055 @ 오늘은양, 장아찌혹 회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양. 장아찌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과?(오늘은요, 장아찌하고 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디다. 장아찌 종류는 어떤 것들 잇습디까?)

107055 #1 장아찌는양, 반치지이, 늬뻘지이, 마농지이, 딱로 콥대사니지이, 양에근지이<sup>174</sup>), 네 가지 거뻘.(장아찌는요, 파초장아찌, 무장아찌, 마늘장아찌, 따로 마늘장아찌, ‘양에근지이’, 네 가지 거뻘.)

107055 @ 몹지인 엇수과?(모자반장아찌 없습디까?)

107055 #1 몹지이 안 햏여. 몹은 경 하지 안 햏난. 몹 친 소금에 절영 뻘뻘 치져 먹는 거, 그거. 매집의 햏지 안 햏곡, 몹이 어려와노난게, 웃드르 ㄱ뻘 된.(모자반장아찌 안 햏. 모자반은 그렇게 하지 안 하니까. 모자반 친 소금에 절여서 뻘뻘 찢어 먹는 거, 그거. 모든 집에 하지 안 하고, 모자반이 어려웠으니까, ‘웃드르’ 같은 데는.)

107056 @ 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곶아줍서.(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햏주십시오.)

107056 #1 마늘은양, 마농 뻘리 장아찌는 이제야 난 거고. 옛날은 대사니, 콥대사니 메영, 딱딱 썰영, 뻘리영 몹이영 딱딱 썰어근에 소금에 절엇당 물에 씨쳐뻘 장물 낱 햏는 거. 경 햏연 먹엇주게. 소금에만 절영 먹는 사름, 장물 낱 먹는 사름, 건 마농지이라고.(마늘은요, 마늘 뿌리 장아찌는 이제야 난 거고. 옛날은 마늘, 마늘 매어서, 딱딱 썰어서, 뿌리하고 몹하고 딱딱 썰어서 소금에 절엇다가 물에 찢어뻘서 간장 넣어서 햏는 거. 그렇게 햏서 먹엇지요. 소금에만 절여서 먹는 사름, 간장 넣어서 먹는 사름, 건 마늘장아찌라고.)

107056 @ 멏월 달 정도 마농지이 담앗수과?(멏 월 달 정도 마늘장아찌 담앗습디까?)

107056 #1 마농 나면은, 여름에 이제 마농 날 거 아니우과? 나민 햏영 겨울 내냥 묵은 새햏까지 삼 년이라도 먹는 거, 건.(마늘 나면은, 여름에 이제 마늘 날 거 아냅디까? 나면 햏서 겨울 내내 묵은 새햏까지 삼 년이라도 먹는 거, 건.)

107056 @ 거난에 멏 월달에 마농은 싱경?(그러니까 멏 월에 마늘은 심어서?)

107056 #1 마농은 오뉴월에, 마농은 이 마농 훗으민 햏는 거난, 마농은 오유월에 담주게. 칠월에, 팔월에 메여근에 다듬양, 햏영케 다듬양 머햏쨍이만 다듬양 소금에 절엇다근에 마농지이라고. ㄱ궘 찢영 딱로 단지에 담아근에 그레 장물을 낱주

174) ‘양에근지이’는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나온 꽃 이삭으로 담근 장아찌다.

게. 이 년, 삼 년 먹어. 돌 지둘루민양, 이만씩 혼 돌 옷어당 딱 지둘랑 곰팡이 안 피게. 경흐른 이 년 돼가문 곰팡이 막 피문 곰팡이도 거렁 데껴불곡, 옛날엔 경 헛 주게.(마늘은 오뉴월에, 마늘은 이 마늘 굵으면 하는 거니까, 마늘은 오뉴월에 담지요. 칠월에, 팔월에 매어서 다듬어서, 하얗게 다듬어서 먼지만 다듬어서 소금에 절였다가 장아찌라고. 깨끗이 씻어서 따로 단지에 담아서 그리로 간장을 넣고 있지요. 이 년, 삼 년 먹어. 돌 지지르면요, 이만큼씩 한 돌 가져다가 딱 지지러서 곰팡이 안 피게. 그러면 이 년 돼 가면 곰팡이 막 피면 곰팡이도 거려서 던져버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요.)

107057 @ ㉠ ㉡ 종류는 어떤 것덜 이섯수광?(회 종류는 어떤 것들 있었습니까?)

107057 #1 ㉡, 사름 먹는 ㉡, 자리㉡, 따시 비계㉡, 옛날은 따시 머 무싱거 도새기새끼㉡, ㉡야질 잡으른 그 새끼, 새끼㉡, 그거베끼 ㉡가 어실 거라, 옛날엔.(회, 사람 먹는 회, 자리회, 다시 두툽상어회, 옛날은 다시 뭐 무엇 돼지새끼회, 돼지를 잡으면 그 새끼, 새끼회, 그거밖에 회가 없을 거야, 옛날에는.)

107057 #2 무사 방어도 ㉡ 해먹주게.(왜 방어도 회 해먹지요.)

107057 #1 옛날에 방어 섯수과? 방어랑 마랑 아무것도 어쉽디다. 계난 원채 ㉡ 영 먹는 종류 그거 뿐이주게. 그 군 걸로 ㉡여근에, 무신 옥돔이라도 영 행 먹는 건 먹을 줄 몰란에 영 ㉡ 헨 안 먹엇수다. 이젠 막 오리 지서근에 ㉡도 행 먹곡 다 ㉡는다. 도새기새끼㉡도 잔치나, 암커 잡아근에 새끼 나오문 해 먹곡, 도새기 배설로 또 해먹곡, 도새기 잡으른 또 배설 막 찍어놔근에.(옛날에 방어 있었습니까? 방어랑 마랑 아무것도 없습디다. 그러니까 원채 해서 먹는 종류는 그거뿐이지요. 그 구운 걸로 해서, 무슨 옥돔이라도 이렇게 해서 먹는 건 먹을 줄 몰라서 이렇게 회 해서 안 먹엇습디다. 돼지새끼회도 잔치나, 암컷 잡아서 새끼 나오면 해서 먹고, 돼지 창자로 또 해먹고, 돼지 잡으면 또 창자 막 찍어 넣어서.)

107057 @ 그 계절에 따른 반찬에는 어떤 것덜 잇수과? 봄에는 어떤 반찬덜.(그 계절에 따른 반찬에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봄에는 어떤 반찬들.)

107057 #1 봄에는게, 마농지이 묵은 거여, 머 반치지이여, 이제 머 저 고춧넙 툫아근에, 고치 싱그문 고춧넙 홀터근에, 그거 장물에 담양 먹곡, 따시 멜컷에 버무령 먹곡, 경 흐는 거주게. 고기 사당 보끄는 건, 동저슬 ㉡이 고기 사당 보끄는 거고, 이제 지지는 말을 이젠 볶으는 거엔 햄주. 옛날 제주도 어른덜은 제주도 사투리가. 보짱 먹곡, 자리 보짱 먹곡, 자리도 동저슬 ㉡이 시는 거난에, 겨울에 잘 ㉡어도 시는 거난 해 먹곡, 그자 반찬이엔 현 건 반치지이, 늣빼지이, 그런 거 주장 행 먹엇주게. 반찬은 행 먹엇수과?(봄에는, 마늘장아찌 묵은 거여, 뭐 파초장아찌여, 이제 뭐 저 고춧잎 뜯어다가, 고추 심으면 고춧잎 훑어서, 그거 간장에 담아서 먹고, 다시 멸치젓에 버무려서 먹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고기 사다가 볶는 건, 겨울 없이 고기 사다가 볶는 거고, 이제 지지는 말을 이젠 볶는 거라고 하고 있지. 옛날 제주도 어른들은 제주도 사투리가. 볶아서 먹고, 자리 볶아서 먹고, 자리도 겨울 없이 있는 거니까, 겨울에 잘 ㉡어도 있는 거니까 해 먹고, 그저 반찬이라고 한 건 파초

장아찌, 무장아찌, 그런 거 주장해서 먹었지요. 반찬은 해서 먹었습니까?)

107058 @ 여름엔 어떤 반찬덜 잇수과?(여름에는 어떤 반찬들 있습니까?)

107058 #1 여름엔 그게 그놈의 아덜.(여름에는 그게 그놈의 아들.)

107058 @ 여름에는 그.(여름에는 그.)

107058 #2 여름엔게 반치지이 해 낫당 그것도 해 먹곡, 웬장국, 늘웬장국 행 그냥.(여름에는 파초장아찌 해 낫다가 그것도 해 먹고, 된장국, 날된장국 해서 그냥.)

107058 @ 며 해근에?(뭐 해서?)

107058 #1 저 물웨 썰어놔, 물웨 썰어놔 국 행 먹곡, 경 햇주게. 또 번쩍 대접에 그냥 물만 낱 웬장 혼 수까락 낱 확확 후령 물웨도 안 놓곡 해도 그냥, 장국으로 기냥.(저 물외 썰어 넣어서 국 해서 먹고, 그렇게 했지요. 또 말갱게 대접에 그냥 물만 넣어서 된장 한 숟가락 넣어서 확확 후려서 물외도 안 넣고 해도 그냥, 장국으로 그냥.)

107058 @ 지난 여름엔 주로 물웨?(그러니까 여름에는 주로 물외?)

107058 #1 물웨. 장국이주 저 시원하게 웬장국. 끌렁 먹으진 안 하고 여름에 어른덜은. 이제 사름덜은 여름도 저슬도 옛이 끌렁 먹고 딸려 먹는다, 여름엔 경 안 하여. 물웨 행 먹곡, 웬장국 기냥도 행 먹곡, 막 해주게. 그자 웬장 혼 수까락 거러 낱 확 것영 그냥 맨물에 그 웬장국. 콩잎 툫양 먹곡, 여름엔 콩잎.(물외. 장국이져 저 시원하게 된장국. 끓여서 먹진 안 하고 여름에 어른들은. 이제 사람들은 여름도, 겨울도 없이 끓여서 먹고 딸려서 먹는데, 여름에는 그렇게 안 해. 물외 해서 먹고, 된장국 그냥도 해서 먹고, 막 하지요. 그저 된장 한 숟가락 거러 넣어서 확 저어서 그냥 맨물에 그 된장국. 콩잎 뜯어다가 먹고, 여름에는 콩잎.)

107058 @ 그다음엔 가을에는 어떤 것덜 현 먹읍디가?(그다음에는 가을에는 어떤 것들 해서 먹었습니까?)

107058 #1 가을에는게, 가을에는 꿩기도 사당 볶양 먹곡, 그 반치지이, 늪뻘지이가 겨울에도 먹는거주게. 그냥 다음 여름, 저슬 옛이 그냥.(가을에는요, 가을에는 고기도 사다가 볶아서 먹고, 그 파초장아찌. 무장아찌가 겨울에도 먹는거지요. 그냥 다음 여름, 겨울 없이 그냥.)

107058 @ 가을, 가을.(가을, 가을.)

107058 #1 가을게. 이 가을도 먹곡, 저슬도 먹곡, 그자 주로 먹는 거, 그거. 봄, 가을 옛이, 경 먹는 겨우다게.(가을요, 이 가을도 먹고, 겨울도 먹고, 그저 주로 먹는 거, 그거. 봄, 가을 없이,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107058 @ 그다음에 겨울에는 어떤 것덜 현 먹었수과?(그다음에 겨울에는 어떤 것들 해서 먹었습니까?)

107058 #1 겨울엔 그거 주게. 그것도 먹곡, 꿩기도 사당 볶양먹곡, 느물국 끌렁 먹곡, 기자 무신 반찬 이서수과? 옛날이사. 독새기 하나 숲아근에 장물 낱 닥닥 청아의덜 재왕 맥이곡, 경 햇수게.(겨울에는 그거지요. 그것도 먹고, 고기도 사다가 볶아서 먹고, 나물국 끓여서 먹고, 그저 무슨 반찬 있었습니까? 옛날이야. 달걀 하나



삶아서 간장 넣어서 딱딱 쳐서 아이들 재우고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107058 @ 여름에 반찬은 어떤 것덜 해마썸?(여름에 반찬은 어떤 것들 해요?)

107058 #1 그거, 그추록 반치지이도 행 장 담앗당 웬장 양념행 떡곡, 물웨 햅영 떡곡, 콩잎 툃아당 떡곡, 그거주게. 여름에 옛날 어른덜 반찬이 어디 잇수과? 꿩기나 가다금 사지문 볶양 떡곡.(그거, 그처럼 파초장아찌도 해서 장 담앗다가 된장 양념해서 먹고, 물외 해서 먹고, 콩잎 뜯어다가 먹고, 그거지요. 여름에 옛날 어른들 반찬이 어디 잇습니까? 고기나 가끔 사지면 볶아서 먹고.)

107058 @ 계난 물웨양?(그러니까 물외요?)

107058 #1 물웨가 주장이주게, 여름엔. 웬장 짝영 기냥도 떡곡, 국도 행 떡곡, 물외로.(물외가 주장이지요, 여름에는. 된장 짝어서 그냥도 먹고, 국도 해서 먹고, 물외로.)

107058 @ 겨울에는 어떤 것덜.(겨울에는 어떤 것들.)

107058 #1 겨울에는 녹물국, 웬장국 행 먹고, 늣뻘국도 끌렁 떡곡, 메역국도 끌렁 떡곡. 그 반치지이, 늣뻘지이도 겨울에도 놔뵤당 이 년이곡, 삼 년이곡 묵영 먹는 거난 거 떡곡, 꿩기 지정 떡곡, 경 햅주게. 옛날 어른덜 촌엔 반찬이 그거. 반치지이햅곡 늣뻘지이햅곡, 자리도 지정 떡곡, 자리젓 떡곡.(겨울에는 나물국, 된장국 해서 먹고, 무국도 끓여서 먹고, 미역국도 끓여서 먹고, 그 파초장아찌, 무장아찌도 겨울에도 놔뵤다가 이 년이곡, 삼 년이곡 묵어서 먹는 거니까 거 떡고, 고기 지져서 먹고, 그렇게 햅지요. 옛날 어른들 촌에는 반찬이 그거. 파초장아찌햅고, 무장아찌햅고, 자리도 지져서 먹고, 자리젓 떡고.)

107058 @ 고사리무침은 언제 햅 먹엿수과?(고사리무침은 언제 해서 먹엿습니까?)

107058 #1 고사린 식게, 멩절이나 썸주. 어느 저를에 경 무청 떡곡 햅진 안 햅서. 이제난 막 매집의 젊은 사름덜 햅 다락씩은, 옛날엔 난드르 씨집왕 보난 햅 굴레<sup>175)</sup> 햅 그냥 지랑이 빨래에 덕덕 걸첸게.(고사리는 제사, 멩절이나 썸지. 어느 저를에 그렇게 무쳐서 먹고 하지는 안 햅어. 이제니까 막 모든 집에 젊은 사름들 한 다락씩은, 옛날엔 ‘난드르’ 시집와서 보니까 한 ‘굴레’ 햅서 그냥 길이로 빨래에 덕덕 걸첸어.)

107058 @ 계난 지금은 언제 썸 햅 먹읍니까?(그러니까 지금은 언제 썸 햅서 먹습니까?)

107058 #1 고사리 나뵤 아무 때나. 물렁 나뵤당 숲양 먹는 거난, 겨울, 여름 엿이 먹는 거.(고사리 나뵤 아무 때나. 말려서 놔뵤다가 삶아서 먹는 거니까, 겨울, 여름 없이 먹는 거.)

107058 @ 그다음엔 호박무침.(그다음에는 호바무침.)

107058 #1 호박은 그 탕쉬, 식게 때, 무청. 것도 저 여름, 저슬 엿이. 여름엔 풀 호박 햅영 햅꿈 떡곡, 겨울엔 호박, 끓어지질 안 햅어. 이제도 호박 먹는 거난, 끌렁

175) ‘굴레’는 입을 말한다. 여기에서 ‘햅 굴레’는 ‘아주 적은 분량’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도 먹고, 숲아근에 탕쉬추룩 행 먹는 거주게.(호박은 그 '탕쉬', 제사 때, 무쳐서. 것도 여름, 겨울 없이. 여름에는 풀호박 해서 조금 먹고, 겨울에는 호박, 끓여지질 안 해. 이제도 호박 먹는 거니까, 끓여서도 먹고, 삶아서 '탕쉬'처럼 해서 먹는 거지요.)

### 장 담그기

107059 @ 그다음엔양, 장 담는 거 물어보쿠다양. 그 장을 언제 담급니까?(그다음에는요, 장 담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그 장을 언제 담급니까?)

107059 #1 장, 저 거세기, 셋들 구물양 보름에, 셋들에. 옛날엔 셋들에 담안. 동짓들에 숲양, 메주콩 숲앗당 멩탱이고 어디고 톱왕, ㅋ쿨 씻어땡 셋들에, 셋들 그믐날은 마지막으로 장 통드레 소금물 흐여근에 글라앗아근에, 저 메주 탁탁 물에 들이청 소금물 거려 낱, 그것이 장 담그는 거. 경 흐영 익으문 먹는 거. 셋들에, 셋들에 담아, 옛날엔. 이젠 저슬에도 담곡, 여름에도 담곡, 봄에도 담곡. 막 장은 하영, 막장이영 머영 흐는디, 옛날엔 셋들이 흐이라. 셋들에 장 담아. 셋들에 초승에 못 흐 사람은 바쁘른 그믐날에 마지막 날 보멍, 집안에 헤치 엇인 날로만 담아야 땡여, 옛날 어른덜은. 못 담은 사람덜은 셋들 그믐날은 헤치가 싯고 엇고 막 담아불언. 이젠는 머 여름도 엇고, 저슬도 엇고, 땡장 막 철마다 흡니다게.(장, 저 거시기, 선달 그물어서 보름에, 선달에. 옛날에는 선달에 담았어. 동지달에 삶아서, 메주콩 삶았다가 망태기고 어디고 띄워서, 깨끗이 씻어땡서 선달에, 선달 그믐날은 마지막으로 장 통으로 소금물 해서 가라앗아서, 저 메주 탁탁 물에 들이쳐서 소금물 거려 넣어서, 그것이 장 담그는 거. 그렇게 해서 익으면 먹는 거. 선달에, 선달에, 옛날에는. 이젠 겨울에도 담고, 여름에도 담고, 봄에도 담고. 아주 장은 많이, 막장하고 땡과고 하는데, 옛날에는 선달이 한이야. 선달에 장 담아. 선달에 초승에 못 한 사람은 바쁘면 마지막 날 보면서, 집안에 떠 없는 날로만 담아야 땡, 옛날 어른들은. 못 담은 사람들은 선달 그믐날은 떠가 있고 없고 마구 담아버려. 이젠는 땡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고, 땡장 막 철마다 합니다.)

107060 @ 장 종류는 어떻 했수과?(장 종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107060 #1 장 종류는 땡장, 장물, 그거주 머. 양념 흐민 그건 양념장으로, 땡장 향아리 거 거려당 낱 그거 양념흐고, 장은 그거주기. 이젠는 머 오복 간장이여, 무신 진간장이여, 간장이 많은 디, 옛날에는 향아리에 담은 땡장흐곡, 장물베끼 엇주기.(장 종류는 된장, 간장, 그거지 땡. 양념 하면 그건 양념장으로, 된장 향아리 거 거려다가 놓아서 그거 양념하고, 장은 그거지. 이젠는 땡 오복 간장이여, 무슨 진간장이여, 간장이 많은 데, 옛날에는 향아리에 담은 된장하고, 간장밖에 없지.)

107060 @ 그 저 고치장은 엇어낫수광.(그 저 고추장은 없었었습니까?)

107060 #1 고치장은 옛날엔 잘 엇어도 고치장도 잇엇주게. 잇긴 잇어. 게도 매집의 고치장이 엇어. 육지 사람덜 막 담으렌 땡겨나서.(고추장은 옛날에는 잘 엇어도 있었지요. 있기는 잇어. 그래도 모든 집에 고추장이 엇어. 육지 사람들 막 담으라고 다녔엇어.)

107061 @ 그 장 담그는 법에 대해 한 번 알아봅서.(그 장 담그는 법에 대해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7061 #1 장담금은 아까처럼 소금물을 미릇에 소금을 흐영 나눠, 계문 골라왔거든.(장담금은 아까처럼 소금물을 미리 소금을 해서 놔둬, 그러면 가라앉거든.)

107061 @ 아, 우선 메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우파?(아, 메주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7061 #1 케메, 골라왔져뒤근에 메주는 콩 삶양 발로 이만한 큰 도구리에 놔근에, 웃터레 발 데부는 따문 무싱거 더경 발로 막 불랑 메주가 문짝 까질 거 아이파? 까지문 이추록 저 딱딱 불라 놓민 칼로 이추록 꼬차, 요만씩 요만씩. 거민 오곳 오곳 이멍 이추록 수눌영<sup>176)</sup> 멘들아. 멘들앗당 멩탱이에던지 어디 낡 퇴와근에, 이젠 향아리에 담으멍 장 담그는 거주. 곰팡이 퇴와냥.(글쎄, 가라앉혀둬서 메주는 콩 삶아서 이만한 큰 함지박에 넣어서, 위로 발 데는 때문 무엇 덮어서 발로 마구 밟아서 메주가 몽땅 까질 거 아닙니까? 까지면 이처럼 저 딱딱 밟아 놓으면 칼로 이처럼 끊어, 요만큼씩 요만큼씩, 쭉쭉 이면서 이처럼 ‘수눌어서’ 만들어. 만들었다가 망태기든지 어디 넣어서 띄워서, 이젠 향아리에 담으면서 장 담그는 거지. 곰팡이 띄워놔서.)

107061 @ 계난 메주 흐영근에?(그러니까 메주해서?)

107061 #1 메주 흐영.(메주해서.)

107061 @ 그다음에 메주 이제 곰팡이 피면 그걸.(그다음에 메주 이제 곰팡이 피면 그것을.)

107061 #1 씻영, 물로 문딱 씻영.(씻어서, 물로 모두 씻어서.)

107061 @ 예, 그 과정을 쭉 말해보십시오.(그 과정을 쭉 말해보십시오.)

107061 #1 물로 문 씻영 향아리에 툭툭 놀 거 아니우파? 메주를 들이칠 거 아니우파? 들이치면은 옛날 향아리레 들이치면은, 이제 소금을 골라왔은 거, 다른 조그만흔 통의고 다라이고 행 나뉘당, 걸 콜락박세기<sup>177)</sup>로 그 향아리레 메주 논 향아리레 짐작흐영 메주 흐 말미민 소금 얼마, 두 말미민 메주, 콩이 두 말미민 얼마, 경 흐영 그 찬물을 지릿주게.(물로 모두 씻어서 향아리에 툭툭 넣을 거 아닙니까? 메주를 들이칠 거 아닙니까? 들이치면 옛날 향아리로 들이치면, 이제 소금을 가라앉은 거, 다른 조그마한 통이고 대야고 해서 놔뉘다가, 걸 ‘콜락박세기’로 그 향아리로, 메주 넣은 향아리로 짐작해서 메주 한 말미민 소금 얼마, 두 말미민 메주, 콩이 두 말미민 얼마, 그렇게 해서 찐물을 길었지요.)

107061 @ 계난 메주 몇 개 낡, 소금 어느 정도 낯수광?(그러니까 메주 몇 개 넣어서, 소금 어느 정도 넣었습니까?)

107061 #1 소금을 흐민 흐 말미문 어떻사 해져신디 몰라. 짜게 담기민 너무 장이 짜꼭 흐는 거주게. 소금 하영 해불민. 경 흐영 이제는 저울이멍 장을 흐으로 담

176) ‘수눌다’는 힘든 일을 이웃간에 서로 거들어 가며 하다.

177) ‘콜락박세기’는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고 만든 바가지이다.

주마는, 그때 무조건 그자 짐작헌영 뗏박으로 거리멍 잘락잘락 촌물 헌영 놔 노난 무신.(소금을 하면 한 말이면 어떻게야 해졌는지 몰라. 짜게 담그면 너무 장이 짜고 하는 거지요, 소금 많이 해버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저울이면서 장을 한으로 담지만은, 그때는 무조건 그저 짐작해서 되로 거리면서 잘락잘락 찌물 해서 넣어 놓으니까 무슨.)

107061 @ 경 헌영 담양?(그렇게 해서 담아서?)

107061 #1 담양 놔두면 익을 거주게.(담아서 놔두면 익을 거지요.)

107061 @ 어디에다 놔 뒤?(어디에다 놔 뒤?)

107061 #1 아니, 뒤에 장팡뒤<sup>178)</sup>에 있어. 장 담는 향아리 놓는 장팡뒤. 장팡뒤, 옛날 제주도 사투리가 장팡뒤. 장항 놓는 디난 장팡뒤. 경 행 놔두면은 그거 익으면, 봄이영 익으면 이제 따로 팔월 낭 ㅁ실 들어가민 장물 따라 낱 향아리레, 추니<sup>179)</sup>레 딸라노민 이젠 똥장은 딱딱하게 놔똥당, 똥장은 그 향아리에서 거리멍 사밭이고 보시고 옷영 거리멍 떡곡, 장물은 식게 올 땐 박세기로 거러당 먹었주게. 장은 두 가지 뿐이라. 이젠 진간장이여 오복간장이여 벨 게 다 있어도 똥장헌곡 장물 베끼 엇어수다. 고치장헌곡 장이난.(아니, 뒤에 ‘장팡뒤’에 있어. 장 담는 향아리 놓는 ‘장팡뒤’. ‘장팡뒤’, 옛날 제주도 사투리가 ‘장팡뒤’. 장독 놓는 데니까 ‘장팡뒤’. 그렇게 해서 놓아두면 그거 익으면, 봄하고 익으면 이제 따로 팔월 나서 가을 들어가면 간장 따라 넣어서 향아리로, ‘추니’로 따라 넣으면, 이젠 똥장은 딱딱하게 놔똥다가, 똥장은 그 향아리에서 거리면서 사밭이고 보시고 가져서 거리면서 먹고, 간장은 제사 올 때는 박가지로 거러다가 먹었지요. 장은 두 가지 뿐이야. 이젠 진간장이여 오복간장이여 벨 게 다 있어도, 똥장하고 간장밖에 없었습니다. 고추장하고 장이니까.)

107061 @ 경 해근에 그 우선 장물은 거러똥?(그렇게 해서 그 우선 간장은 거러똥서?)

107061 #1 거러똥 똥장은 쟁, 딱딱 쟁 놔두주게. 막 하나씩 앓아내멍 저 젖은 상태에서 막 쟁.(거러똥서 똥장은 썩서, 딱딱 썩서 넣어두지요. 막 하나씩 가져내면서 저 젖은 상태에서 마구 썩서.)

107061 @ 게난 똥장 따로, 장물 따로 흘 거 아니우파?(그러니까 똥장 따로, 간장 따로 할 거 아십니까?)

107061 #1 예, 장물 따로.(예, 간장 따로.)

107061 @ 처음에는 ㅁ찌 헛당이네.(처음에는 같이 했다가.)

107061 #1 ㅁ찌 답앗당, 그 메주 울어낭 장물이 돼사주게. 울어나근에 장물 별정 헌문 이젠 거리는 거라.(같이 답앗다가, 그 메주 울어나서 간장이 돼야지요. 울어나서 간장 별정게 하면 이젠 거리는 거야.)

107061 @ 장물만 거렁.(간장만 거러서.)

178) ‘장팡뒤’는 장독을 넣어두는 자리의 뒤쪽이다.

179) ‘추니’는 술 따위를 담는 준이다. 기다랗게 둥그스름하며 위아래는 끝이 차차 가늘어진 모양이며, 밑은 얇혀지게 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모양이다.

107061 #1 거령, 그 추니엔 혼 것이 장물 거리는 추니라. 우 따시려근에. 옛날 술 닭양 먹는거시 추니로, 아고 장물 낱 추니로 혼나베끼 안해라, 반은 해라, 경 혼 명덜. 저거 먹어보문 들곡, 굿곡 혼곡.(거려서, 그 ‘추니’라고 한 것이 간장 거리는 ‘추니’야. 위 다스려서. 옛날 술 닭아서 먹는 것이 ‘추니’로, 아이고 간장 넣어서 ‘추니’로 하나밖에 안 해라, 반은 해라, 그렇게 하면서들. 저거 먹어보면 달고, 굿고 하고.)

107062 @ 메주는 언제, 어떻 쏘니까?(메주는 언제, 어떻게 쏘니까?)

107062 #1 메주 쏘는 거, 게 나 근지 안 흡디까? 동짓달에 콩 3실 들문, 구월 나민 콩 두드려볼 거 아이우파? 경혼민 동짓달에 삶아, 그걸.(메주 쏘는 거, 그거 나 말하지 안 했습니까? 동짓달에 콩 가을 들면, 구월 나면 콩 두드려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짓달에 삶아, 그것을.)

107062 @ 머에 삶아?(뭘에 삶아?)

107062 #1 솥에도 삶곡계, 가메에도 삶곡.(술에더 삶고요, 가마에도 삶고.)

107062 @ 말치솥<sup>180</sup>?(‘말치술’?)

107062 #1 말치솥. 큰 데 말치에 바라바락, 경 혼영 그 저 콩 삶은 물은 덜어 낫당 묵은 웬장더레 낱 더 찌곡, 경 햇수계계.(‘말치술’. 큰 데 ‘말치’에 바라바락, 그렇게 해서 그 저 콩 삶은 물은 덜어 낫다가 묵은 된장으로 넣어서 더 찌고, 그렇게 했습니다.)

107062 @ 게 얼마정도 썬 붓디강?(그거 얼마정도 썬 봤습니까?)

107062 #1 그거는 집안에 가. 닷 말 쏘는 사름도 잇곡, 서 말 쏘는 사름도 잇고며, 혼 말 쏘는, 식구에 따라서 혼는 거주게. 그 집의 가정에 따라근에 콩은 삶는 거. 기준이 엇어, 혼 마련이 엇어.(그거는 집안에 가. 닷 말 쏘는 사람도 있고, 한 말 쏘는 사람도 있고 뭘, 한 말 쏘는, 식구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 집의 가정에 따라서 콩은 삶는 거. 기준이 엇어, 한 마련이 엇어.)

107062 @ 게난 동짓달에 메주?(그러니까 동짓달에 메주?)

107062 #1 동짓달에 메줄 삶양, 셋들 나문 장담양, 그름 나문 거령, 장물 트로, 웬장 트로.(동짓달에 메주를 삶아서, 선달 나면 장담아, 그름 나면 거려서, 간장 따로, 된장 따로.)

107063 @ 장 담글 때 금기 사항 잇지양?(장 담글 때 금기 사항 잇지요?)

107063 #1 장담을 때 고사 어떻게?(장담을 때 고사 어떻게?)

107063 @ 금기 사항?(금기 사항?)

107063 #1 금기 사항이 머?(금기 사항이 뭘?)

107063 @ 무싱거 혼면 안 웬다 혼는 거.(무엇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107063 #1 아니, 그런 거 엇입니다. 장담을 때 그런 거 엇고, 해치, 우리 집이민 득해치.(아니, 그런 거 없습디다. 장담을 때 그런 거 없고, 띠, 우리 집이민 닭띠.)

107063 @ 그런 거.(그런 거.)

180) ‘말치솥’은 한 말 드는 크기의 솥이다.

107063 #1 납해치, 납해친 관계어시난, 몰해치 시민 장을 안 담아. 이녁 집이 식구에서 해친날은 장을 안 담아. 셋들 그믐날은 해치가 식구, 마지막이난 다 담아부러. 마지막 특이라노난. 셋들 그믐날 너무민 장을 담질 못흐난 경 햄주기, 옛날엔.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관계없으니까, 말띠 있으면 장을 안 담아. 이녁 집의 식구에서 띠 날은 장을 안 담아. 선달 그믐날은 띠가 있고, 마지막이니까 다 담아버러. 마지막 턱이라서. 선달 그믐날 넘으면 장을 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옛날에는.)

107063 @ 그거 웨 또 잊지 안 흐우짜?(그거 외 또 있지 안 합니까?)

107063 #1 그거 웨로 무싱거?(그거 외로 무엇?)

107063 @ 누게 오면 안 웬다.(누가 오면 안 된다.)

107063 #1 아이, 그런 건 엇어.(아니, 그런 거 없어.)

## 떡류

107064 @ 그다음엔 떡에 대행 알아보쿠다양.(그다음에는 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7064 #1 떡은 곤떡계.(떡은 흰떡.)

107064 @ 계난 질문흐걸랑 대답흐써예. 떡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광?(그러니까 질문하거든 대답하십시오. 떡 종류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7064 #1 떡 종류는 쌀, 곤떡은 쌀을 이제 다라던지 무싱거에 물 크지 안 흡니까? 떡은 흰 말 흐는 사름도 식곡, 석 돼 흐는 사름도 식곡, 작업에 뜨랑 떡은 흐는 거고, 좁쌀도 트로 등강.(떡 종류는 쌀, 흰떡은 쌀을 이제 대야든지 무엇에 물 크지 안 합니까? 떡은 한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석 되 하는 사람도 있고, 작업에 따라서 떡은 하는 거고, 좁쌀도 따로 담가서.)

107064 @ 계난 떡 종류?(그러니까 떡 종류는?)

107064 #1 종류 조떡, 따시 저 곤떡, 따시 흐린조떡, 모원조떡, 따시 저 고달부찢떡<sup>181)</sup>은 곤쌀떡 반, 조떡 반 허민 고달부찢떡, 흐린조떡, 모원조떡, 그거주게.(종류는 조떡, 다시 저 흰떡, 다시 차조떡, 메조떡, 다시 저 ‘고달부찢떡’은 흰떡 반, 조떡 반 하면 ‘고달부찢떡’, 차조떡, 메조떡, 그거지요.)

107064 @ 그다음엔?(그다음에는?)

107064 #1 그, 그거뿐이주게.(그, 그거뿐이지요.)

107064 @ 저 절벤, 솔벤<sup>182)</sup>?(저 절편, ‘솔벤’?)

107064 #1 절벤, 솔벤, 곤떡. 건 곤떡.(절편, ‘솔벤’, 흰떡. 건 흰떡.)

107064 @ 그 구체적으로.(그 구체적으로.)

107064 #1 그서봐이. 솔벤, 절벤, 영장 뎨 은절미<sup>183)</sup>, 따시 저 은절미 말고 그냥

181) ‘고달부찢떡’은 좁쌀가루에 팔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친 시루떡이다.

182) ‘솔벤’은 반월형(半月形)의 떡본으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이다.

183) ‘은절미’는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로 네모지고 넓적하게 만든 후 삶거나 찌낸 떡이다. 달리 ‘인절미’라고도 한다.

거 멋이엔 흡니까? 그냥 딸른 거.(있어봐. ‘솔벤’, 절편 영장 때는 저 ‘은절미’, 다시 저 ‘은절미’ 말고 그냥 거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멍 뚫은 거.)

107064 @ 명절 때 하는 거게, 명절 때.(명절 때 하는 거, 명절 때.)

107064 #1 멧질 때, 제 때 쓰는 거, 제 때에는 은절민 안 하는 거고, 은절미, 솔벤, 젤벤, 은절미, 그거고라 무싱거엔 해라마는, 큰 은절미, 죽은 은절미 흡디다, 춤. 니귀난 건 큰 거, 영 소량이 혼 건 죽은 거.(명절 때, 제 때 쓰는 거, 제 때에는 ‘은절미’는 안 하는 거고, ‘은절미’, ‘솔벤’, 절편, ‘은절미’, 그거더러 무엇이라고 해라만 은, 큰 ‘은절미’, 작은 ‘은절미’ 합디다, 참. 네모진 건 큰 거, 이렇게 길쭉이 한 건 작은 거.)

107064 #2 고망 딸라 거.(구멍 뚫어 거.)

107064 #1 고망 딸랑 혼 건 산에 제 할 때만 쓰주. 소랑헌 것만 식게 때 흡니다 게.(구멍 뚫어서 한 건 산에 제 할 때만 쓰지. 길쭉한 것만 제사 때 합니다.)

107064 @ 묘제 때 고망 딸랑 혼 거.(묘제 때 구멍 뚫어서 한 거.)

107064 #1 예, 묘제 때. 큰 은절미, 죽은 은절미, 그추룩 곱아나서. 우리가 할 때. 제 때에만 썼주, 고망 딸오는 떡은. 니귀 반뜩혼 거.(예, 묘제 때. 큰 ‘은절미’, 작은 ‘은절미’, 그처럼 말했었어. 우리가 할 때. 제 때에만 썼지, 구멍 뚫은 떡은. 네 모반듯한 거.)

107064 @ 침떡도 잇잖아.(시루떡도 잇잖아.)

107064 #1 침떡도 잇주게. 저 거세기 곤침떡, 곤떡, 제펜<sup>184</sup>). 제펜은 제에 쓰는 거, 흰 것만. 완전히 침떡. 이제는 머 백시리엔 흥영 식게 때도 그 흰떡 쓰꼭 다 하는데, 옛날엔 제 때에만 흰 곤침떡을 썼주게. 쓸떡 해영혼 거. 제펜이라고, 옛날 이름이 제펜이라고. 제펜, 그 침떡 흰 그루 곱아, 제펜이렌 곱앗수다.(시루떡도 잇지요. 저 거시기 시루떡, 흰떡, ‘제펜’. ‘제펜’은 제에 쓰는 거, 흰 것만. 완전히 시루떡. 이제는 뭐 백설기라고 해서 제사 때도 그 흰떡 쓰고 다 하는데, 옛날에는 제 때에만 흰 시루떡을 썼지요. 쌀떡 하얀 거. ‘제펜’이라고, 옛날 이름이 ‘제펜’이라고. ‘제펜’, 그 시루떡 흰 가루 같아, ‘제펜’이라고 말했습니다.)

107065 @ 시루떡에 대행 곱아봅서.(시루떡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107065 #1 시루떡 그거주게.(시루떡 그거지요.)

107065 @ 시루떡 어떻?(시루떡 어떻게?)

107065 #1 시루떡, 제펜흥곡, 저 거세기. 흰 모원침떡<sup>185</sup>, 팟 놓곡 흥영 모원침떡 흰 걸로만양. 따시 흐린조떡, 모원조떡, 그것이 시루떡이주게.(시루떡, ‘제펜’하고, 저 거시기. 흰 ‘모원침떡’, 팔 넣고 해서 ‘모원침떡’ 흰 걸로만. 다시 차조떡, 메조떡, 그것이 시루떡이지요.)

107065 @ 계난 시루떡 재료는 머짜?(그러니까 시루떡 재료는 뭘니까?)

107065 #1 재료는게 좁쌀 그루. 흐린좁쌀 떡 흥젠 흥문 흐린조 백사당 흐린좁쌀

184) ‘제펜’은 쌀가루에 팔소 따위로 커를 얹혀 찐 시루떡이다.

185) ‘모원침떡’은 멧쌀.메좁쌀가루에 팔 따위의 소를 넣으며 커를 지어서 찐 시루떡이다.

만 농곡, 쉬, 풋 노명 고달<sup>186</sup>) 입지곡, 고달이엔 혼 건 풋 낱, 풋 백사당 우트레 속  
속 부뜨지 안 하게. 혼 시루 치고. 제펜이란 거는 이제 산제나 무싱거 흘 때만 제펜  
씹니다. 식게 뎨 안 하여.(재료는 좁쌀가루. 차좁쌀 떡 하려고 하면 차조 빵아다가  
차좁쌀만 넣고, 소, 팔 넣으면서 ‘고달’ 짓고, ‘고달’이라고 한 건 팔 넣어서 팔 빵아  
다가 위로 속속 붙지 안 하게. 한 시루 찌고. ‘제펜’이란 거는 이제 산제나 무엇 할  
때만 ‘제펜’ 씹니다. 제사 때는 안 해.)

107065 @ 계난 시루떡 멘들젠 흐민 어떻 흡니까?(그러니까 시루떡 만들려고 하  
면 어떻게 합니까?)

107065 #1 시루떡 멘들젠 흐민 고싸추룩 좁쌀 흐영.(시루떡 하려고 하면 아까처  
럼 좁쌀 해서.)

107065 @ 무슨 도구가 필요하여마썸.(무슨 도구가 필요해요?)

107065 #1 그 도구는 ㄱ루 해당 시리만 잇이민 돼어.(그 도구는 가루 해다가 시  
루만 있으면 돼.)

107065 @ 시리를 어디에 놔?(시루를 어디에 놓아?)

107065 #1 시리 놔근에, 딱시 그 솟더레 아쨌.(시루를 놓아서, 다시 그 솔으로  
얹혀서.)

107065 @ 어디, 말치<sup>187</sup>)에?(어디, ‘말치’에?)

107065 #1 말치에 강 시리에 맞춰이근에게. 시리가 족으민 족은 솟디, 계문 저  
닷돼들이 시리, 혼 말들이 시리가 잇주게. 경흐민 큰 거는 다도테기<sup>188</sup>), 솟 맞인 거  
엇이민 빌어당이라도 시리에 맞춰사 되는 거. 계문 똑 아찌민 시리광 솟 사이에 이  
트멍 잇지 안 흡니까? 경흐민 저 보리ㄱ루로 막 찌근에, 끈닥끈닥하게 쨌 스펵에  
부쨌, 걸 짐 나지 못하게.(‘말치’에 가서 시루에 맞춰서. 시루가 작으면 작은 솔에,  
그러면 저 닷 되들이 시루, 한 말들이 시루가 잇지요. 그러면 큰 거는 ‘다도테기’,  
솔 맞은 거 없으면 빌어서라도 시루에 맞춰야 되는 거. 그러면 똑 얹히면 시루와  
솔 사이에 이 틈 잇지 안 합니까? 그러면 저 보릿가루로 마구 찌서 준득준득하게  
찌서 사방에 붙여서, 걸 짐 나가지 못하게.)

107065 @ 짐 나오지 못하게.(짐 나오지 못하게.)

107065 #1 경 헛다근에 이제는 막 기계가 빠난 갓다 왔다 해도, 옛날엔 시리떡  
흘 때 사름 정지에 금해부러어, 부엌드레.(그렇게 헛다가 이제는 막 기계가 빠니까  
갓다 왔다 해도, 옛날에는 시루떡 할 때 사름 부엌에 금해버러어, 부엌으로.)

107065 @ 무사 경 해서마썸?(왜 그렇게 했어요?)

107065 #1 선뎡 흐명, 옛날.(덜 익는다고 하면서, 옛날.)

107065 @ 무사?(왜?)

107065 #1 몰라게. 선뎡 흐명 시리떡 아찌민 문 딱 더꺼근에 사름 베리지도 못  
하게 하여.(몰라요. 덜 익는다고 하면서 시루떡 얹히면 문 딱 닫아서 사름 보지도

186) ‘고달’은 좁쌀가루에 팔소 따위로 커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커를 안친 것이다.

187) ‘말치’는 한 말 드는 크기의 솔이다.

188) ‘다도테기’는 용적(容積)이 두 되 드는 크기의 솔이다.



못 하게 해.)

107065 @ 빨리 먹어볼까부텐?(빨리 먹어버릴까 싶어서?)

107065 #1 아니, 아니. 저 흔 작은 설곡, 흔 작은 안 익넨 햅영, 경 헤낫주게. 동티냥.(아니, 아니. 저 한 짝은 덜 익고, 한 짝은 안 익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지요. 동티나서.)

107065 @ 게난 그 시리 고냥은 멧 갠지 알아지쿠과? 밑에.(그러니까 그 시루 구멍은 멧 개인지 알아지겠습니까?)

107065 #1 시리 고냥 일곱 개.(시루 구멍 일곱 개.)

107065 @ 일곱 개짜?(일곱 개입니까?)

107065 #1 예, 시리 고냥 일곱 개. 가운데 하나, 스방에. 시리 고냥은 일곱 개우다.(예, 시루 구멍 일곱 개. 가운데 하나, 사방에. 시루 구멍은 일곱 개입니다.)

107065 @ 그다음에 그 시루떡 만드는 법?(그다음에 그 시루떡 만드는 법?)

107065 #1 시리떡 멘드는 건양, 좁쌀, 호린좁쌀 강 곱아오문 ㄹ루 아니우과? 곱으민양, 그 옛날엔 낭 도구리가 만추게. 낭 도구리에 넣이네 물 서꺼근에 막 밍니다. 밑어근에 솔박<sup>189)</sup>이든 박세기든 시리레 거려노멍 흔 칭 놉뒤근에, 또 풋쉬 농곡, 녹디쉬 돼문 또 거려냥 흔 칭 놉똥, 시리로 흔 말들일 경 하영햅민 ㄹ득이민 솟드레 강, 아정 ㄹ루로 스방 부쳐뒤근에 솟두깁이 딱 더꺼근에 불 습양햅민 우로 햅끔, 솟밧할망<sup>190)</sup>이 옛날엔 솟밧할망이 이십주게. 솟디서 떡 햅곡 막 햅는 사름 ㄹ라 솟밧할망이렌 헤낫수다. 그 사름이 짐작이 잇어근에 새 꺾 해당 짝 찢러봅니다. 경 빠내보문 익고, 선 걸 아는 생이라. 우리 거 봐낫수다게. 젓가락도 아니고 새 꺾, 고운 새 꺾 빠다근에 시리 우로 솟뚜경 여랑 꺾 찢러똥다게. 찢러문 선 거는 막 새 꺾에 막 ㄹ루가 부뜨곡, 익으민 문들락햅는 생입디다. 경 햅영 짐작햅영, 경햅민 이젠 덕석 그 고운 거 놉근에 그 시릴 들러당 팍 어풀주게. 어푸민 떡이 오글락햅게 시리만 빠내곡 떡이라. 이제 칼로 빌 거 아니과? 츠레로. 흔 칭씩 문딱 비영, 차룽 착더레 낫든, 그릇에 낫든 걸 문딱 비영 넣 침떡 소랑소랑햅게, 그것이 침떡이주게. 게난 곤침떡이고, 반침떡이고, 그거 시리에 치는 거, 그건. 종류가. 게난 침떡 종류양, 제웬, 모원조떡, 호린조떡, 딱시 반, 곤 거 반, 쌀 반 햅영 논 거 햅민 시리떡 종류가 네 가지, 네 가지우다, 옛날엔. 경햅고 또 은절미가 잇어양, 은절미는 영 소랑소랑햅 떡을.(시루떡 만드는 건요, 좁쌀, 차좁쌀 가서 곱아오면 가루 아닙니까? 같면요, 그 옛날에는 나무 함지박이 많지요. 나무 함지박에 넣어서 물 섞어서 마구 밍니다. 밑어서 ‘솔박’이든 바가지든 시루로 거려넣으면서 한 층 넣어뒤서, 또 팔소 넣고, 녹두소 되면 또 거려넣어서 한 층 넣어뒤서, 시루로 한 말들일 그렇게 많이하면 가득하면 솔로 가서, 가져서 가루로 사방 붙여서 솔뚜경 딱 단아서 불 때어서 하면 위로 조금, ‘솟밧할망’이 옛날에는 ‘솟밧할망’이 있습지요. 솔에서 떡하고 막 하는 사람더러 ‘솟밧할망’이라고 했었습디다. 그 사람이 짐작이 잇어서 띠 가닥 해

189) ‘솔박’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이다.

190) ‘솟밧할망’은 큰일이 있을 때, 솔의 아래쪽에서 불을 때어 각종 떡이나 밥을 짓는 일을 하는 할머니이다.

다가 딱 찢어봅니다. 그렇게 빼내보면 익고, 덜 익은 걸 아는 모양이야. 우리 거 봤  
었습니다. 젓가락도 아니고 띠 가닥, 고운 띠 가닥 빼어다가 시루 위로 솔뚜껑 열어  
서 꼭 찢습니다. 찢으면 덜 익은 거는 아주 띠 가닥에 아주 가루가 붙고, 익으면 매  
끈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짐작해서, 그러면 이젠 멍석 그 고운 거 놓아서 그  
시루를 들러다가 딱 얹으지요. 얹으면 떡이 오코이 시루만 빼내고 떡이야. 이제 칼  
로 벨 거 아닙니까? 차례로. 한 층씩 모두 베어서, 채롱쪽으로 넣었든, 그릇에 넣었  
든 걸 모두 베어넣어서 시루떡 길쭉길쭉하게, 그것이 시루떡이지요. 그러니까 흰시  
루떡이고, 반시루떡이고, 그거 시루에 찢는 거, 그건. 종류가. 그러니까 시루떡 종류  
는요, ‘제편’, 메조떡, 차조떡, 다시 반, 흰 거 반, 쌀 반 해서 넣은 거 하면 시루떡  
종류가 네 가지, 네 가지입니다, 옛날엔. 그리고 또 ‘은절미’가 있어요, ‘은절미’는  
이렇게 길쭉길쭉한 떡을.)

107066 @ 그다음에 송편에 대해서 알아봅서.(그다음에 송편에 대해서 말해보십  
시오.)

107066 #1 송편은양, 흰가루 곱아당 쟁, 요만씩 요만씩 툽툽 툽앙, 손바닥의서  
막 동글락하게 멘들앙, 손바닥의서 ㄱ냥 딸랑 그거 무신 풋을 놓젠 흐민 막 ㄱ냥  
딸랑 영영영영 돌릅주기. 돌르민 문뜰락허민 이제 그 쉬나 무싱거 양꼬를 놓이네,  
또 줍아. 영 흐민 소랑홀 거 아니우파? 딱딱 줍으민 이제 즈근즈근 낱 이제 떡을  
솔잎이나 무싱거 노명 치는 겁주게.(송편은요, 흰가루 갈아다가 찢서, 요만큼씩 요  
만큼씩 툽툽 뜯어서, 손바닥에서 아주 동그략게 만들어서, 손바닥에서 구멍 뚫어서  
그거 무슨 팔을 넣으려고 하면 막 구멍 뚫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도리  
지요. 도리면 매끈하면 이제 그 소나 무엇 소를 넣어서, 또 접어. 이렇게 하면 길쭉  
할 거 아닙니까? 딱딱 접으면 이제 자근자근 놓아서 이제 떡을 솔잎이나 무엇 놓으  
면서 찢는 거지요.)

107066 @ 계란 송편 재료는 어떤 거 잇수과?(그러니까 송편 재료는 어떤 거 잇  
습니까?)

107066 #1 송편은 그거주게, ㄱ루 쟁.(송편은 그거지요, 가루 찢서.)

107066 @ 거란 재료?(그러니까 재료?)

107066 #1 재료, 곤살ㄱ루.(재료, 흰쌀가루.)

107066 @ 곤살ㄱ루 흐고.(흰쌀가루 하고.)

107066 #1 송편은 그거.(송편은 그거.)

107066 @ 그다음에 풋이나.(그다음에 팔이나.)

107066 #1 풋은 담는 거. 양꼬 담는 거, 소굽에. 영 행이네, 다라는 동의던지 우  
리가 막 찢 거 아니우파? 몽클락하게 찢질 거 아니우파? 계문 수까락이든 손으로  
툽툽 줍아근에 그걸 바가지로 막 멘들락하게 멘듭니다. 경 일로 또 손 드미랑 그걸  
똥그락하게 이추룩 멘드랑, 멘드라기네 수까락으로 풋이고 멋이고 양꼬 담앙, 경흐  
민 영 오그릴 거 아니우파게? 오그리민 울로 요레ㄱ지 딱 툽툽툽툽 줍아 가, 경흐  
민 떡이라.(팔은 담는 거. 소 담는 거, 속에. 이렇게 해서, 대야는 동이든지 우리가

마구 찢 거 아닙니까? 몽톡하게 찢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가락이든 손으로 툭툭  
잡아서 그것을 바가지로 아주 매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리로 또 손 드밀어서  
그것을 동그랗게 이처럼 만들어서, 만들어서 손가락으로 팔이고 무엇이고 소 담아  
서, 그러면 이렇게 오그릴 거 아닙니까? 오그리면 여기서 요 곳으로까지 딱 툭툭  
툭 접어 가, 그러면 떡이야.)

107066 @ 송편도 보면은 동그랗흔 송편이 잇고.(송편도 보면 동그란 송편이 있  
고.)

107066 #1 이제야 동그랗해주게.(이제야 동그랗지요.)

107066 @ 그다음에 옛날은.(그다음에 옛날은.)

107066 #1 옛날은 소랑소랑.(옛날은 길쪽길쪽.)

107066 @ 거 무신 송편이엔 흡니까?(거 무슨 송편이라고 합니까?)

107066 #1 것도 송편이주게, 다 송편.(것도 송편이지요, 다 송편.)

107066 @ 조개 모양으로 생긴난 조개송편<sup>191</sup>이엔 하지 안 흡니까?(조개 모양으  
로 생기니까 ‘조개송편’이라고 하지 안 합니까?)

107066 #1 조개송편, 옛날엔 조개송편이고, 이젠 동글락흔 송편은 이제야 난 거  
라.(‘조개송편’, 옛날에는 ‘조개송편’이고, 이제는 동그란 송편은 이제야 난 거야.)

107066 @ 옛날엔 주로 조개송편양?(옛날에는 주로 ‘조개송편’요?)

107066 #1 처음 왕 식게 때도 이만씩 훌개 흐곡, 이젠 기계에 강 해부는 따문,  
송편이고, 아무 거고 무신 이젠 조개송편이 엇입니다. 동글락흔 송편만 흐주. 기계  
로 강 해오는 따문.(처음 와서 제사 때도 이만큼씩 굽게 하고, 이제는 기계에 가서  
해버리는 따문, 송편이고, 아무 거고 무슨 이젠 ‘조개송편’이 없습디다. 동그란 송편  
만 하지. 기계로 가서 해오는 따문.)

107066 @ 계난 그 송편 멩글 때 흰 ㄱ루.(그러니까 그 송편 만들 때 흰 가루.)

107066 #1 흰 ㄱ루, 곤썰 곶아당 물 컷당, 방에에 강, 기계 방에 강 ㄱ루 곶아  
당, 부청, 물 꿩왕 반죽을 물주게, 우리가. 물양 이만히 쩡 나두민 흐끔씩 톤으멍 ㄱ  
싸추룩 동글동글 흐게 영, 멘들락흐게 영 손으로 영영 흐영 넘작흐게 멘들앙, 곶  
줍 아. 영 오그려노민 이거 떡이 오그려질 거, 요레 툭툭툭툭 ㄱ루 칠흐멍 줍아근에 차  
룽착더레 낫당 치주게, 따로 솟디서.(흰 가루, 흰쌀 갈아다가 물 담갔다가, 방아에  
가서, 기계 방아에 가서 가루 갈아다가, 붙여서, 물 끓여서 반죽을 말지요, 우리가.  
말아서 이만큼 찢서 놔두면 조금씩 뜯으면서 아까처럼 동글동글 하게 이렇게, 매끈  
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넓죽하게 만들어서, 곶 접어. 이렇게 오그려  
놓으면 이거 떡이 오그려질 거, 요 곳으로 툭툭툭툭 가루 칠하면서 접어서 채룽짜  
으로 낫다가 찢지요, 따로 솥에서.)

107066 @ 치는 거 머?(찌는 거 뭐?)

107066 #1 치는 거는 솥읷을 낫던, 솥읷 길멍 솥디를 낫던, 솥디, 솥디서 쳐.(찌  
는 거는 솥읷을 놓았든, 솥읷을 깔면서 솥에를 놓았든, 솥에, 솥에서 찢.)

191) ‘조개송편’은 모시조개 모양으로 만들어진 송편이다.

107066 @ 노는 걸.(농는 걸.)

107066 #1 노는 거, 솔잎 노문 아래 바드랭이 놔, 바드랭이 아래 물 안 올라오게. 바드랭이.(농는 거, 솔잎 놓으면 아래 경그레 놓아, 경그레 아래 물 안 올라오게.)

107066 @ 바드랭이?(경그레?)

107066 #1 바드랭이만 놔 물 안 올라오게, 바드랭이만 놔 솟디 탁 걸쳐지민 이제.(경그레만 놓아서 물 안 올라오게, 경그레만 놓아서 솔에 탁 걸쳐지면 이제.)

107066 @ 그다음에 솔잎 놓곡.(그다음에 솔잎 놓고.)

107066 #1 아니, 솔잎 놔도 흥 칭 낱, 또 우티레 솔잎 놓곡 흥영 부트지 아니하게 행이네, 가득이문 두께 덮영 숲으문 송편 익으문 되는 거.(아니, 솔잎 놓아도 한층 놓아서, 또 위로 솔잎 놓고 해서 붙지 아니하게 해서, 가득이면 뚜껑 덮어서 삶으면 송편 익으면 되는 거.)

107066 @ 솔잎도 타다근에.(솔잎도 따다가.)

107066 #1 뽑아당.(뽑아다가.)

107066 @ 그 저 숲아 물려야 할 거 아니우파?(그 저 삶아서 말려야 할 거 아닙니까?)

107066 #1 예, 물려야. 이제는 솔잎도 안 흥곡, 집의서 떡 안 흥난, 옛날에는.(예, 말려야. 이제는 솔잎도 안 하고, 집에서 떡 안 하니까, 옛날에는.)

107066 @ 계난.(그러니까.)

107066 #1 계난 솔잎도양, 뽑아온 것광 ㄱ새로 ㄱ아온 것관 틀려. 그 뽑으문 검은 북데기가 있지 안 흥우파? 뽑으는 흥이 있어, 그 기획가. 뽑으문 해영케 뽑아지지 안 흥민 ㄱ새로 강 흥디 ㄱ새로 ㄱ아났수다게, 솔잎을. 이제 집의서 떡 안 흥난 무신.(그러니까 솔잎도요, 뽑아온 것과 가위로 잘라 벤 것과는 달라. 그 뽑으면 검은 북데기가 있지 안 합니까? 뽑는 흥이 있어, 그 기획가. 뽑으면 하얗게 뽑아지지 안 하면 가위로 가서 함께 가위로 잘라 베었었습니다, 솔잎을. 이제는 집에서 떡 안 하니까 무슨.)

107067 @ 다음에 빙떡<sup>192)</sup>에 대해서 흥 번 곱아봅서.(다음에 ‘빙떡’에 대해서 흥 번 말해보십시오.)

107067 #1 빙떡은양, 모멸ㄱ루 강 곱아올 거 아니파? 모멸ㄱ루. 박세기고 다라고 그걸 막 ㄱ루 카, 경 막 돌려근에. 이제는 머 후라이판이여 멋이여 해도 옛날엔 솟두쟁이, 그 빙떡 지지는 솟두쟁이가 잇입디다. 빙떡 지지는 거 아쟁이네 알로 낭 불로 베통이 숲양, 남자고, 멋이고 흥 거려냥 바지직흥게 익으민 확 흥게 차롱착 얼어냥 차롱착 우티레 테여노민, 늣뻘 낱 물민 떡, 빙떡. 빙떡은 족은 거 하나, 또 새미떡<sup>193)</sup>이 잇어양, 또.(‘빙떡’은요, 메밀가루 가서 곱아올 거 아닙니까? 메밀가루.

192) ‘빙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팔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고서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이다.

193) ‘새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팔소 등을 넣어 접어서 솔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바가지고 대야고 그것을 막 가루 타, 그렇게 마구 돌려서. 이제는 뭐 프라이팬이여  
뿔이여 해도 옛날에는 솔뚜껑, 그 ‘빙떡’ 지지는 솔뚜껑이 있습니다. ‘빙떡’ 지지는  
거 얹혀서 아래로 나무불로 희미하게 삶아서, 국자고, 뿔이고 거려와서 바지직하게  
익으면 확 하게 채롱작 얹어와서 채롱작 위로 떼어놓으면, 무 넣어서 말면 떡, ‘빙  
떡’. ‘빙떡’은 작은 거 하나, 또 ‘새미떡’이 있어요, 또.)

107067 @ 예, 계난 일단 빙떡에 대해서만 알아봅서.(예, 그러니까 일단 ‘빙떡’에  
대해서만 말해보십시오.)

107067 #1 그거주게.(그거지요.)

107067 @ 계난 빙떡 멘들젠 흐면은.(그러니까 ‘빙떡’ 만들려고 하면.)

107067 #1 빙떡 멘들젠 흐면은 모멸ㄱ루 곁아당 이젠 흐 번에 다 카지 안 흐영  
흐끔씩 흐끔씩 갑니다. 경 흐영 장테<sup>194</sup>)고, 이제는 머 프라스틱 장테여 하는데, 그  
것에 낱 막 카, 캉 막 돌려, 돌려근에 흐랑하게 카지문.(‘빙떡’ 만들려고 하면은 메  
밀가루 갈아다가 이젠 한 번에 다 타지 안 해서 조금씩 조금씩 탑니다. 그렇게 해  
서 ‘장테’고, 이제는 뭐 플라스틱 ‘장테’여 하는데, 그것에 넣어서 마구 타, 타서 마  
구 돌려, 돌려서 아주 부드럽게 타지면.)

107067 @ 경 흐영.(그렇게 해서.)

107067 #1 사꼬로 거리멍 솟두껍의서 파직파직 지집니께. 지지민 저 고랑착 어  
평, 고랑착 어픈 두껍이레 확 아사놔근에, 식으문 무채해여근에 그레 놔근에 몰민.  
(국자로 뜨면서 솔뚜껑에서 파직파직 지집니다. 지지면 저 채롱작 얹어서, 채롱작  
얹은 뚜껑으로 확 가져와서, 식으면 무채해서 그리로 놓아서 말면.)

107067 @ 늑빠로 채 해근에, 거기에 머 놔?(무로 채 해서, 거기에 뭐 놔?)

107067 #1 그대로. 이제 ㄱ트문 쪽파, 늑빠, 께, 그것만 놓니다. 양념 흐영, 경 흐  
영 그거 손으로 줍아놔든, 가지깁이로 줍아놔든 빙 툄민 빙떡.(그대로. 이제 같으면  
쪽파, 무, 참깨, 그것만 놓니다. 양념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 손으로 줍어놔든, 바리  
뚜껑으로 줍어놔든 빙 말면 ‘빙떡’.)

107067 @ 머옴, 빙떡이옴 흡니까?(뭐라고, ‘빙떡’이라고 합니까?)

107067 #1 옛날엔 빙떡, 이제는 머 빙, 빙 흐는디, 이제는 빙떡이옴 안 흐영 영  
빈이옴 흐는디, 옛날엔 빙떡.(옛날에는 ‘빙떡’, 이제는 뭐 빙, 빙 하는데, 이제는 ‘빙  
떡’이라고 안 해서 ‘영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빙떡’.)

107067 @ 영빈이옴 여기서도 흐여마썸?(‘영빈’이라고 여기서도 해요?)

107067 #1 여기서 영빈. 이제 사름덜은 영빈이옴 곁아. 빙떡이옴 안 곁아.(여기서  
는 ‘영빈’. 이제 사람들은 ‘영빈’이라고 말해. ‘빙떡’이라고 안 말해.)

107067 @ 영빈?(‘영빈’?)

107067 #1 영빈.(‘영빈’.)

107067 @ 영빈이파?(‘영빈’입니까?)

107067 #1 영빈게 영빈. 계난 몰라게. 영빈 지정, 잔치 때도 지지곡 막 흐주게,

194) ‘장테’는 양푼 모양으로 하되 그보다 크게 만든 질그릇이다.

이제.(‘영빈’게 ‘영빈’. 그러니까 몰라요. ‘영빈’ 지져서, 잔치 때도 지지고 마구 하지요, 이제.)

107068 @ 새미떡에 대행 혼 번 곁아줍서.(‘새미떡’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7068 #1 새미떡?(‘새미떡’?)

107068 @ 예.(예.)

107068 #1 새미떡?(‘새미떡’?)

107068 @ 예, 새미떡.(예, ‘새미떡’.)

107068 #1 새미떡은 곧 ㄱ루로도 새미떡 할 수 있고, 모멸ㄱ를도 새미떡 할 수 있고, ㄱ짜추룩, 이추룩 혼 저 거세기에 낱, 곁 요만씩 그치멍 막 밍주게. 쟈쟁하게 알웁게, 밀어노문, 너무 알웁게 혼문 틀어지고, 알웁게 밀영, 영 오그령 이레 무신 늻삐첸 낱던지, 저 모멸 영빈, 새미떡엔양, 따시 게도 주로 늻삐첸 놓니다. 그 저 모멸 새미떡에도. 경 혼영 ㄱ짜추룩 영 오그령 영영 줍으민 거 새미떡이라. 경 혼영 시리에 처.(‘새미떡’은 흰 가루도 ‘새미떡’ 할 수 있고, 메밀가루도 ‘새미떡’ 할 수 있고, 아까처럼, 이처럼 한 저 거세기에 넣어서, 곁 요만큼씩 끊으면서 마구 밍지요. 자잘하게 얇게, 밀어놓으면, 너무 얇게 하면 틀어지고, 얇게 밀어서, 이러게 오그려서 이리로 무슨 무채를 넣었든지, 저 메밀 ‘영빈’, ‘새미떡’에는요, 다시 그것도 주로 무채를 넣습니다. 그 저 메밀 ‘새미떡’에도.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오그려서 이렇게이렇게 접으면 거 ‘새미떡’이야. 그렇게 해서 시루에 쩌.)

107068 @ 게난 주로 모멸ㄱ루로?(그러니까 주로 메밀가루로?)

107068 #1 예, 모멸ㄱ루로, 새미떡은. 송편은 곧떡으로 혼곡, 새미떡은 모멸ㄱ루, 모멸 새미떡.(예, 메밀가루로, ‘새미떡’은. 송편은 흰떡으로 하고, ‘새미떡’은 메밀가루, 메밀 ‘새미떡’.)

107069 @ 식계 때 떡 종류?(제사 때 떡 종류?)

107069 #1 식계 뎨게, 조떡 혼민 게 혼린조떡 혼는 집이, 건 집안으로 가는 거고. 떡 혼는 집도 있고, 떡 안 혼는 집도 있고, 경혼난.(제사 때는요, 조떡 하면 게 차조떡 하는 집이, 건 집안으로 가는 거고. 떡 하는 집도 있고, 떡 안 하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107069 @ 게난 식계 뎨 떡?(그러니까 제사 때는 떡?)

107069 #1 솔벤, 절벤, 그거주게. 그거 혼곡 따시 솔벤, 절벤 안 혼는 집이 새미떡이라도 혼깁, 영빈도 혼깁 지정 혼여나곡, 가정에 매영 혼는 거.(‘솔벤’, 절편, 그거지요. 그거 하고 다시 ‘솔벤’, 절편 안 하는 집에 ‘새미떡’이라도 조금, ‘영빈’도 조금 지져서 했었고, 가정에 따라서 하는 거.)

107069 #2 침떡 혼곡.(시루떡 하고.)

107069 #1 침떡은 솔벤, 절벤 혼문 침떡은 해야지. 솔벤, 절벤 안 혼문 침떡 안 해도 되는 거고. 게나네 그 제에 어디 산제나.(시루떡은 ‘솔벤’, 절편 하면 시루떡은 해야지. ‘솔벤’, 절편 안 하면 시루떡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제에 어디 산

신제나.)

107069 @ 식게 때, 식게 때.(제사 때, 제사 때.)

107069 #1 식게 때는 그거, 저 곤침떡, 풋 농곡 햅영 곤침떡, 어멍, 아방신디 전  
홀 식게 때에 우리가 딸이난 가젠 햅민 침떡 청 풋 농곡 햅영 시리떡 햅영 혼 고랑  
정 가는 거.(제사 때는 그거, 저 흰시루떡, 팔 넣고 해서 흰시루떡, 어머니, 아버지  
에게 전할 제사 때에 우리가 딸이니까 가려고 하면 시루떡 찌서 팔 넣고 해서 시루  
떡 해서 한 채롱 저서 가는 거.)

107069 @ 계난 아까 새미떡 했고양.(그러니까 아까 ‘새미떡’ 했고요.)

107069 #1 예.(예.)

107069 @ 그다음, 그 제사 때 떡 종류부터 햅쿠다양. 제사 때 떡 어떤 종류, 어  
떤 것덜 이십디가?(그다음, 그 제사 때 떡 종류부터 하겠습니까. 제사 때 떡 어떤  
종류, 어떤 것들 있었습니까?)

107069 #1 제사 뎨게, 솔벤, 절벤, 침떡, 중게<sup>195)</sup>. 아, 중게, 약궤<sup>196)</sup>. 아, 중게,  
약궤. 큰 건 약궤. 계난 제사 뎨게, 솔벤, 절벤 햅 사람은 경 햅고, 솔벤, 절벤 안  
햅는 사람은 침떡도 안 햅곡, 떡 안 햅영도 햅 수 있고, 건 집안에 따랑 햅는 거곡.  
식게 때 쓰는 떡은 옛날엔 침떡, 곤침떡, 곤침떡이엔 햅수다. 솔벤, 절벤, 중게, 그  
것만. 약궤는 안 햅여. 약궤는 제 때에베끼, 식게 때엔 안 햅니다.(제사 때는요, ‘솔  
벤’, 절편, 시루떡, ‘중게’. 아, ‘중게’, ‘약궤’. 아, ‘중게’, ‘약궤’. 큰 건 ‘약궤’. 그러니  
까 제사 때는요, ‘솔벤’, 절편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솔벤’, 절편 안 하는 사람은  
시루떡도 안 하고, 떡 안 해서도 햅 수 있고, 건 집안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제사 때  
쓰는 떡은 옛날엔 시루떡, 흰시루떡, 흰시루떡이라고 햅습니다. ‘솔벤’, 절편, ‘중게’,  
그것만. ‘약궤’는 안 햅. ‘약궤’는 제 때에밖에, 제사 때에는 안 햅니다.)

107069 #2 빙떡도 햅여.(‘빙떡’도 햅.)

107069 #1 게메, 빙떡도 햅는 사람, 안 햅는 사람 햅엿주기. 지금은 솔벤, 절벤  
햅곡, 또 빙떡만 햅영 식게 햅는 사람, 혼이 어십니다게.(글쎄, ‘빙떡’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하였지요. 지금은 ‘솔벤’, 절편 하고, 또 ‘빙떡’만 해서 제사 하는 사  
람, 때가 없습니까.)

107070 @ 그 상례 때 떡 종류는마썸?(그 상례 때 떡 종류는요?)

107070 #1 상례 때에?(상례 때에?)

107070 @ 상례, 상례, 계난 이 저.(상례, 상례, 그러니까 이 저.)

107070 #1 영장?(영장?)

107070 @ 소상.(소상.)

107070 #1 소상, 대상인디, 그거.(소상, 대상인데, 그거.)

107070 @ 영장.(영장.)

107070 #1 영장 때는 제 떡 햅젠 햅문, 저 거세기 제편, 침떡양, 제편햅곡, 솔벤,

195) ‘중게’는 좁쌀가루나 메밀가루로 가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긴 떡이다.

196) ‘약궤’는 좁쌀가루나 밀가루 따위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구멍 다섯을 내고 기름에 지지거나 삶아낸 떡이다.

젤벤헝곡, 솔벤헝곡, 젤벤헝곡, 중계헝곡, 약래헝곡, 거는 경 해서. 약 다섯 가지 떡이, 제 떡이. 소상, 대상 떡, 영장 떡, 제 떡은 그거우다.(영장 때는 제 떡 하려고 하면, 저 거시기 ‘제펜’, 시루떡이요, ‘제펜’하고, ‘솔벤’, 절편하고, ‘솔벤’하고, 절편하고, ‘중계’하고, ‘약래’하고, 거는 그렇게 했어. 약 다섯 가지 떡이, 제 떡이. 소상, 대상 떡, 영장 떡, 제 떡은 그것입니다.)

107070 @ 그다음에, 그 묘제 때는 어떤 거?(그다음에, 그 묘제 때는 어떤 거?)

107070 #1 묘제 때도 그거.(묘제 때도 그거.)

107070 @ 고망 툄라진 건 머엔 흡니까?(구멍 툄어진 건 뭐라고 합니까?)

107070 #1 고망 툄라진 건 약래, 게난게.(구멍 툄어진 건 ‘약래’, 그러니까요.)

107070 @ 게난 그 큰 거, 네귀방장 혼 건.(그러니까 그 큰 거 네모지게 한 건.)

107070 #1 건 약래, ㄹ냥 툄라진 거. 요 수랑 혼 건 램시<sup>197)</sup>헝기 좋게 멘든 거예. 게난 두 가지주게. 게난 침떡, 곤침떡, 솔벤, 젤벤, 중계, 약래 다섯 가지.(그것은 ‘약래’, 구멍 툄어진 거. 요 길쭉한 건 ‘램시’하기 좋게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지. 그러니까 시루떡, 희시루떡, ‘솔벤’, 절편, ‘중계’, ‘약래’ 다섯 가지.)

107071 @ 그다음에 설기떡에 대행 곶아줍서.(그다음에 백설기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71 #1 설기, 무신 설기.(백설기, 무슨 백설기.)

107071 @ 설기떡, 새미떡인가?(백설기, ‘새미떡’인가?)

107071 #1 새미떡<sup>198)</sup>이주게, 이건.(‘새미떡’이지요, 이건.)

107071 @ 설기떡도.(백설기도.)

107071 #1 새미떡이주.(‘새미떡’이지.)

107071 @ 게난 새미떡은 아까 ㄹ떨로?(그러니까 ‘새미떡’은 아까 메밀로?)

107071 #1 새미떡은 ㄹ떨쫄로 새미떡 헝는 거고, 송편은 곤쫄로 헝는 거고. 게난 그 대,소상 제떡은 새미떡, 송편을 안 헝주게. 제사 때 헝곡, 제물헝영 가는 거 헝고.(‘새미떡’은 메밀쫄로 ‘새미떡’ 하는 거고, 송편은 흰쫄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 소상 제떡은 ‘새미떡’, 송편을 안 하지요. 제사 때 하고, 제물해서 가는 거 하고.)

107072 @ 인절미에 대행 물어보쿠다.(인절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7072 #1 은절미는양, 저 ㄹ루 해당, 시리에 청, 도고리에 낱 ㅼ얏양, 옛날엔 ㅼ얏아근에 그걸 손으로 헤영 안반에서 밀어그네, 소랑소랑헝게 썰문 은절미우다. 이제 속떡 모양으로, 속떡도 경 헝곡, 은절미도 경 헝곡, 옛날엔 속떡이엔 안 헝영 속단. 요초록 몽클몽클헝영 안네 엇이나 무싱거 담양 속단, 떡이 속단베끼 엇어수다, 옛날엔.(‘은절미’는요, 저 가루 해당가, 시루에 썬서, 함지박에 넣어서 빵아서, 옛날에는 빵아서 그것을 손으로 해서 안반에서 밀어서, 길쭉길쭉하게 썰면 ‘은절미’입니다. 이제 속떡 모양으로, 속떡도 그렇게 하고, 은절미도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속떡이라

197) ‘램시’는 잡귀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제를 지낸 후 음식을 걸어 던지는 일이다.

198) ‘새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고 안 해서 ‘숙단’. 요처럼 몽푁몽푁해서 안에 엇이나 무엇 담아서 ‘숙단’, 떡이 ‘숙단’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107072 @ 계란 인절미 재료는 곤살 ㄱ루?(그러니까 인절미 재료는 흰쌀 가루?)

107072 #1 예, 은절미는 곤살 ㄱ루ㅎ영 시리에 청, ㅂㅂ앙, 니귀방장ㅎ게 썰영, 그것이 은절미. 이제도 은절민 잇수게.(예, 은절미는 흰쌀 가루해서 시루에 찌서, ㅂㅂ아서, 네모반듯하게 썰어서, 그것이 은절미. 이제도 은절미는 있습니다.)

107072 @ 시루에 칩니까?(시루에 찹니까?)

107072 #1 시리에 치주게. 시리에 처사 비왕 ㅂㅂ주게. 쌀로도, ㄱ루로도 안 ㅎ영, 쌀로 ㅎ는 디도 잇곡, ㄱ루로 ㅎ는 디도 잇곡, 시리에 치민 ㅂㅂ 될 거 아니ㅂㅂ? 경 비왕이네 ㅂㅂ방ㅎ쪽으로 ㅂㅂ으민, 그꺄로 떡 멘드라.(시루에 찌지요. 시루에 찌야 부어서 ㅂㅂ지요. 쌀로도, 가루로도 안 해서, 쌀로 하는 데도 있고, 가루로 하는 데도 있고, 시루에 찌면 ㅂㅂ 될 거 아닙니까? 그꺄게 부어서 ㅂㅂ방ㅎ쪽으로 ㅂㅂ으면, 그꺄으로 떡 만들지요.)

107072 @ 어디에서 ㅂㅂ아?(어디에서 ㅂㅂ아?)

107072 #1 그꺄는 도구리에 ㅂㅂ ㅂㅂㅂ주게. 옛날엔 ㅂㅂ 도구리가 만치 안 ㅎㅂㅂ? 부꺄칩의 ㅂㅂ 도구리, ㅂㅂ 둠비ㄱ루 ㄱ는 도구리, 떡 ㅎ는 도구리, 부꺄집의 도구리가 합주.(그꺄는 합지박에 ㅂㅂ어서 ㅂㅂㅂ지요. 옛날에는 나무 합지박이 많지 안 합니까? 부꺄집에 나무 합지박, ㅂㅂ 두부가루 가는 합지박, 떡 하는 합지박, 부꺄집에 합지박이 많지.)

107072 @ 멘들 때는 저 영 청이네?(만들 때는 저 이꺄게 찌서?)

107072 #1 멘들 때는양, 처 ㅂㅂ이네 칩니다. 꺄 치민 ㅎ꺄씩 기창 저 둠베고, 안반이고 ㅂㅂ 꺄 밀어, 밀어기네 도둑ㅎ게 밀어지민 꺄로 소랑소랑 썩니꺄꺄. 경허민 건 은절미. 은절민 제사 때나 ㅎ주, 제 때엔 안 쓰는 거. 제사 때, 명꺄 때만 ㅎ는 거. ㅂㅂ 대소상 ㅂㅂ 안 쓰는 거우다.(만들 때는요, 찌 놓아서 찹니다. 그꺄을 찌면 조꺄씩 끊어서 도마고, 안반이고 놓아서 꺄 밀어, 밀어서 도둑ㅎ게 밀어지면 꺄로 꺄 꺄꺄꺄 썩니다. 그꺄면 건 은절미. 은절미는 제사 때나 하지, 제 때에는 안 쓰는 거. 제사 때, 명꺄 때만 하는 거. ㅂㅂ 대소상 때는 안 쓰는 꺄입니다.)

107073 @ 절벤에 대꺄 ㅎ 번 꺄아꺄서.(꺄편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7073 #1 절벤은꺄, 곤살 ㄱ루로꺄, 꺄도 찌꺄네. 저 절벤도 옛날엔 손으로, 이창꺄산이<sup>199)</sup> ㅎ고 열리<sup>200)</sup>는 방ㅎ쪽에 ㅂㅂ앙 저 절벤을 ㅎ영, 둠꺄꺄꺄ㅎ게 ㅎ영 두 꺄 마주 부꺄, 떡 두 꺄. 둠꺄꺄꺄ㅎ게 마주 부꺄 이꺄 ㅂㅂ로 누뜨는 떡판이 잇수다, 절벤판. 손으로 ㅂㅂ 늘꺄.(꺄편은요, 흰쌀 가루로, 꺄도 찌서. 저 꺄편도 옛날에는 손으로, 이 ‘창꺄산리’ 하고 ‘열리’는 방ㅎ쪽에 ㅂㅂ아서 저 꺄편을 해서, 둠꺄꺄꺄ㅎ게 해서 두 꺄 마주 부꺄, 떡 두 꺄. 둠꺄꺄꺄ㅎ게 마주 부꺄서 이제 ㅂㅂ로 누르는 떡살이

199) ‘창꺄산리’는 서꺄포시 안꺄면 창꺄천리와 꺄산리를 일꺄는다.

200) ‘열리’는 서꺄포시 예꺄꺄꺄꺄를 일꺄는다.

있습니다, 절편떡살. 손으로 푹 눌러서.)

107073 @ 절편판이엿 흡니까? 절벤본<sup>201</sup>이엿 흡니까?(‘절편판’이라고 합니까? ‘절벤본’이라고 합니까?)

107073 #1 절벤본, 절벤본, 이젠 판이엿 글아점저만. 절벤본으로 딱 누르민 절벤 웨는 거.(‘절벤본’, ‘절벤본’, 이젠 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절벤본’으로 딱 누르민 절편 되는 거.)

107073 @ 절벤본은 어디서 사옵니까?(‘절벤본’은 어디서 사옵니까?)

107073 #1 옛날엔게 사곡, 과곡, 멘들양게 옛날 것덜이주게.(옛날에는 사고, 과고, 만들어서 옛날 것들이지요.)

107073 @ 뭘로 멘들아마썸?(무엇으로 만들어요?)

107073 #1 낭으로.(나무로.)

107073 @ 무신 낭으로?(무슨 나무로?)

107073 #1 무신 낭으로사 멘들암신디, 낭 빨강흔 낭 곱딱흔 거우다.(무슨 나무로야 만들고 있는지, 나무 빨간 나무 고운 것입니다.)

107073 @ 돛박낭으로 주로 멘들암주.(동백나무로 주로 만들고 있지.)

107073 #1 모르쿠다. 돛박낭으로 멘들암신디, 멧으로 멘들암사신디.(모르겠습니다. 동백나무로 만들고 있는지,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지.)

107073 @ 돛박낭이 돛박도 타곡.(동백나무가 동백도 따고.)

107073 #1 게난 모르쿠다게. 절벤본으로만 우린 떡만 해나난 몰라. 아의 뎨 얻어떡단, 이녁이 어른 뎨난 절벤을 멘들앗수게, 우리낭으로.(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절벤본’으로만 우리는 떡만 했었으니까 몰라. 아이때는 얻어떡다가, 이녁이 어른 되니까 절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대로.)

107073 @ 집의 잇수광? 절벤본.(집에 있습니까? ‘절벤본’.)

107073 #1 절벤본 우리 집인 잇수다. 친정엔 잇어도. 거 문 폴아부러트주, 이제사 놔둡니까, 데껴불곡 나둡니까게. 물 사발도 다 바짜불엇주.(‘절벤본’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친정에는 잇어도. 거 모두 팔아버렸지, 이제야 놔둡니까, 던져버리고 놔둡니까. 물 사발도 다 바꿔버렸지.)

107073 @ 거난이네, 그걸 처근에.(그러니까, 그것을 썬서.)

107073 #1 처근에 썬아. 도구리에 막 방엿비<sup>202</sup>로 “선 이어동 흐라 셋 걸 방에”, 그걸 썬일 뎨양, 막 흐명 “이어동 흐라 셋 걸 방에 썬 걸어간다. 이어동 흐라”, 경 흐명 방에 저. 경흐민 걸 문 썬아지민 모여 낭이네, 썬근에, 툄름, (썬서 빵아. 함지박에 마구 ‘방엿비’로 “선 이어동 흐라 셋 걸 방에”, 그거 빵을 때는요, 마구 하면서 “이어동 흐라 셋 걸 방에 썬 걸어간다. 이어동 흐라”, 그렇게 하면서 방아 저. 그러면 걸 모두 빵아지면 모여 놔서, 썬서, 뜯으면서.)

107073 @ 막 밀어야 흘 거 아니우짜?(마구 밀어야 할 거 아닙니까?)

201) ‘절벤본’은 원형(圓形)의 떡인 절편을 만드는 떡살이다.

202) ‘방엿비’는 방앗간에서 방아를 짚을 때에 쓰는 비이다.

107073 #1 예, 요만씩 툇으멍, 요만씩 툇으멍, 손으로 동글락동글락하게 멘들아, 동글락동글락하게 썩독세기추룩. 경흐민 두 개를 마주 부칩니다게.(예, 요만큼씩 뜯으면서, 요만큼씩 뜯으면서, 손으로 동그랗게 동그랗게 만들어, 동그랗게 동그랗게 생달갈처럼. 그러면 두 개를 마주 붙입니다.)

107073 @ 부청.(붙여서.)

107073 #1 부청 놔두민 절벤본으로 짝 눌러민.(붙여서 놔두면 ‘절벤본’으로 짝 누르면.)

107073 @ 그다음에는 거 머 칠흐지 안 흡니까?(그다음에는 거 뭐 바르지 안 합니까?)

107073 #1 거 지름 칠흐는 거, 부트지 말렌.(거 기름 바르는 거, 붙지 말라고.)

107073 @ 무슨 지름?(무슨 기름?)

107073 #1 춤지름, 물러레 춤지름 비와냥 확 씻어불곡, 건 떡 마지막에 부터불 카부덴 흐는 거, 머 필요 엇인 거.(참기름, 물로 참기름 부어넣어서 확 씻어버리고, 건 떡 마지막에 붙어버릴까 싶어서 하는 거, 뭐 필요 없는 거.)

107073 @ 춤지름 놔야 코시롱홀 거 아니우파예?(참기름 놔야 고소할 거 아닙니까?)

107073 #1 부트카부덴, 솔벤에도 브르곡, 솔벤은 열 개씩 마주심어근에 손 위로 영 춤지름 흐영, 가로 흐나씩 흐나씩 영 춤지름 부쳐근에 툇 열 개씩 고티착에 쪽 놔. 절벤은 하나씩 웨로 나라비 행 놔도, 솔벤은 부터불카부덴.(붙어버릴까 싶어서, ‘솔벤’에도 바르고, ‘솔벤’은 열 개씩 마주잡아서 손 위로 이렇게 참기름 해서, 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참기름 붙여서 툇 열 개씩 채롱짝에 쪽 놔. 절편은 하나씩 외로이 줄 해서 놔도, ‘솔벤’은 붙어버릴까 싶어서.)

107074 @ 솔벤에 대행 곱아줍서.(‘솔벤’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74 @ 솔벤은?(‘솔벤’은?)

107074 #1 솔벤도 그거. 그거는 처근에 놀 걸로 안반에 밀영, 솔벤 분이 있어, 동글락흐 거, 소랑흐 거. 딱딱.(‘솔벤’도 그거. 그거는 찌서 날 걸로 안반에 밀어서, ‘솔벤’ 분이 있어. 둥근 거, 길쭉한 거. 딱딱.)

107074 @ 반달 모양으로 웬 거.(반달 모양으로 된 거.)

107074 #1 예, 걸로 딱딱 짝주게. 걸로 딱딱, 솔벤은 멘들양 짝영 나오민, 그거는 딱시 솔잎 노명 딱로 솟의고, 시리고 쳐. 문 쳐지문 그걸 다라에, 물 논 다라에 비와, 솔잎도 씻어지곡, 떡만 고티착더레 노민 딱로 춤지름 브르는 거주게. 경 흐는 거.(예, 걸로 딱딱 짝지요. 걸로 딱딱, ‘솔벤’은 만들어서 짝어서 나오면, 그거는 다시 솔잎 놓으면서 따로 솔이고, 시루고 찌. 모두 찌지면 그것을 대야에, 물 넣은 대야에 부어, 솔잎도 씻어지고, 떡만 ‘채롱짝’으로 넣으면 따로 참기름 바르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거.)

107075 @ 웃기떡 알아지쿠과?(웃기떡 알아지겠습니까?)

107075 #1 예?(예?)

107075 @ 웃기떡?(웃기떡?)

107075 #1 예, 웃기떡은 우짚일 거우다. 솔벤, 절벤 흐는 집원 우짚을 흐고, 송편 흐는 집원 우짚이 엇수다. 솔벤, 절벤 흐문양, 솔벤 굽에 농곡, 저 솔벤 굽에는 약래 두 개 농곡, 솔벤 농곡, 절벤 노민 동그락흐 절벤 우티레 농곡, 우짚을 놓니다. 그거문 매기.(예, 웃기떡은 ‘우짚’일 것입니다. ‘솔벤’, 절편 하는 집에는 웃기떡을 하고, 송편 하는 집에는 웃기떡이 없습니다. ‘솔벤’, 절편 하면요, ‘솔벤’ 밑에 놓고, 저 ‘솔벤’ 밑에는 ‘약래’ 두 개 놓고, ‘솔벤’ 놓고, 절편 놓으면 동그런 절편 위로 놓고, 웃기떡을 놓니다. 그거면 없음.)

107075 @ 우짚은 뭘로 멘들앗수과?(웃기떡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7075 #1 우짚은 거 곤떡, 절벤 멘드는 쌀로.(웃기떡은 거 흰떡, 절편 만드는 쌀로.)

107075 @ 그 저 모멸로는 안 멩굽니까?(그 저 메밀로는 안 만듭니까?)

107075 #1 모멸로는 안 해여. 모멸떡 흐는 디사 모멸로. 곤떡이나 우짚 경 안 해여. 이젠 솔벤, 절벤도 안 흐난 우짚도 엇입니다. 옛날엔게 우짚이여, 무신 거여 스뭇, 이것도 중문<sup>203</sup> 몰르문 못 대답허켄게.(메밀로는 안 해. 메밀떡 하는 데야 메밀로. 흰떡이나 웃기떡 그렇게 안 해. 이젠 ‘솔벤’, 절편도 안 하니까 웃기떡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웃기떡이여, 무슨 거여 사뭇, 이것도 ‘중문’ 모르면 못 대답하겠네.)

107075 @ 고사 지낼 때, 토신제흐고 당에 갈 때 어떤 떡?(고사 지낼 때, 토신제 하고 당에 갈 때 어떤 떡?)

107075 #1 떡 흐영 가는 사름덜도 싯곡, 다데떡<sup>204</sup>, 동그락흐 다데떡, 손으로 모멸이고, 곤쌀이고 멘들앙 다데떡 흐영 가는 디, 이디 사름덜은 오랑 보난 떡 흐영 가는 사름이 엇언게, 메만.(떡 해서 가는 사름들도 있고, ‘다데떡’, 동그런 ‘다데떡’, 손으로 메밀이고, 흰쌀이고 만들어서 ‘다데떡’ 해서 가는 데, 여기 사름들은 와서 보니까 떡 해서 가는 사름이 없던데, 메만.)

107075 @ 옛날 보면은 보름달 모양으로.(옛날 보면 보름달 모양으로.)

107075 #1 동글락흐게게. 게난 다데떡, 그 다데. 모멸쌀로도 흐곡.(동그랗게요. 그러니까 ‘다데떡’, 그 ‘다데’. 메밀쌀로도 하고,)

107075 @ 빙떡마썸?(‘빙떡’이요?)

107075 #1 다데, 다데엔 글아나서. 요만씩 동그락 동그락 흐게. 경흐면은 저 그 거 떡 흐영 메흐곡, 꿩기 굽곡 흐영 가는 사름은 경 흐곡.(‘다데’, ‘다데’라고 말했었어. 요만큼씩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러면 저 그거 떡 해서 메하고, 고기 굽고 해서 가는 사름은 그렇게 하고.)

107075 @ 꿩기도 귀?(고기도 구워?)

107075 #1 꿩기, 꿩기 귀삽주기. 밥흐곡 꿩기도 꿩 가서. 꿩 가는 거. 꿩기 굽국 다데 행 가는 사름은 행 가곡, 떡 안 행 가는 사름덜은 안 흐곡, 거 매 사름 흐는

203) ‘중문’은 서귀포시 중문동을 일컫는다.

204) ‘다데떡’은 당에 갈 때 제물로 바치는 동글납작한 떡이다.

거 아니, 이녁 흐구정흐문 흐곡.(고기, 고기 구워야지요. 밥하고 고기도 구워서 갔어. 구워서 가는 거. 고기 굽고 ‘다데’ 해서 가는 사람은 해서 가고, 떡 안 해서 가는 사람들은 안 하고, 거 모든 사람 하는 거 아니, 이녁 하고자하면 하고.)

107075 @ 계난.(그러니까.)

107075 #1 메는 멧 개냐 하민양, 큰 메, 작은 메 해영 세 개. 세 개 잇곡, 딱시 이 해변이난 용왕 메, 용왕 메 딱로 거립니다. 용왕 메 저 바당 어염더레 농곡. 나가 감산이서 이디 결혼하지 안 했수과? 계문 감산이 당 적시도 나가 거령 가. 경흐민 이디 사름은 네 개베끼 안 흐는디, 난 다섯 겔 거령 가.(메는 멧 개냐 하면요, 큰 메, 작은 메 해서 세 개. 세 개 있고, 다시 이 해변이니까 용왕 메, 용왕 메 따로 뜯니다. 용왕 메 저 바다 옆으로 놓고. 나가 ‘감산리’서 여기 결혼하지 안 했습니까? 그러면 ‘감산리’ 당 뭇도 나가 떠서 가. 그러면 여기 사름은 네 개밖에 안 하는데, 나는 다섯 개를 떠서 가.)

107075 @ 계난 고사 지낼 때, 토신제 때 보면은 그 곤쌀로.(그러니까 고사 지낼 때, 토신제 때 보면 그 흰쌀로.)

107075 #1 토신제는양.(토신제는요.)

107075 @ 그 곤쌀로 침떡 멘들곡, 그다음에 줍쌀로 조침떡 멘들곡.(그 흰쌀로 시루떡 만들고, 그다음에 줍쌀로 조시루떡 만들고.)

107075 #1 토신제도 떡 흐는 사름은 곤침떡이여 무싱거여 흐는디, 저 놀께기, 옥돔 큰 거, 놀 걸 씹니다. 토신제 집의서, 산제도. 놀 걸로 기냥 시들지 안 흐 거던지, 시든 건지 놀 걸로 써, 토신제는. 경 제관 빌어근에 축 흐는 거주기.(토신제도 떡 하는 사름은 흰시루떡이여 무엇이여 하는데, 저 날고기, 옥돔 큰 거, 날 걸 씹니다. 토신제 집에서, 산제도. 날 것으로 그냥 시들지 안 한 거든지, 시든 건지 날 것으로 써, 토신제는. 그렇게 제관 빌어서 하는 거지요.)

107075 @ 여긴 조침떡, 곤침떡 안 흡디가?(여긴 조시루떡, 흰시루떡 안 합디까?)

107075 #1 안 흡디다. 제펜 흡디다. 흰 떡, 토신제 흐는 디도, 흐는 사름덜은 해도, 안 흐는 사름덜은 안 해여. 주로 제펜, 흰 제펜, 흰 침떡, 주로. 토신제.(안 합디다. ‘제펜’ 합디다. 흰 떡, 토신제 하는 데도, 하는 사름들은 해도, 안 하는 사름들은 안 해. 주로 ‘제펜’, 흰 ‘제펜’, 흰 시루떡, 주로. 토신제.)

107075 @ 조침떡도 험디다.(조시루떡도 합디다.)

107075 #1 게메, 조침떡도 흐는 집인 흐는디, 이 제펜이라 해서 흰침떡은 제 흘 때만 쓰는 거라. 토신제 흘 때도 그걸로 흡디다게. 우리 시아버지가 토신제 제관으로 멩집주게. 경흐민 옥돔 이만이 흐 거, 놀 거 제관침이 가져옵디다게. 집의서나 친정의서 흐는 것도 봐나고.(글쎄, ‘조침떡’도 하는 집에는 하는데, 이 ‘제펜’이라 해서 흰시루떡은 제 할 대만 하는 거야. 토신제 할 때도 그것으로 합디다. 우리 시아버지가 제관으로 다니지요. 그러면 옥돔 이만큼 한 거, 날 거 제관집에 가져옵디다. 집에서나 친정에서 하는 것도 봐나고.)

107077 @ 긧 흘 때 떡은 어떤 거?(긧 할 때 떡은 어떤 거?)

107077 #1 긧 흘 때는 그거 다데떡, 곤떡. 곤떡, 다데떡 햅영이네 그자 심방 오랑 그 올리는 거, 과일햅곡. 햅망집<sup>205</sup>)이 갈 때도 과일 뇨곡게, 과일도 햅 가주게. (긧 할 때는 그거 ‘다데떡’, 흰떡. 흰떡, ‘다데떡’ 햅서 그저 무당 와서 그 올리는 거, 과일햅고. ‘햅망집’이 갈 때도 과일 뇨고요, 과일도 햅서 가지요.)

107077 @ 게난 다데떡 햅나햅?(그러니까 ‘다데떡’ 햅나햅?)

107077 #1 다데떡 햅나. 저 심방 오랑, 영장나냥 심방 오랑 긧 흘 때도 다데떡, 그거 떡이엔 햅 건 그거 햅나햅. 심방 떡 햅니다게.(‘다데떡’ 햅나. 저 무당 와서, 영장나냐서 무당 와서 긧 할 때도 ‘다데떡’, 그거 떡이라고 햅 건 그거 햅나햅. 무당 떡 햅니다.)

107078 @ 아가 말한 떡 웨로 다른 떡덜은 엇수과?(아가 말한 떡 외로 다른 떡 들은 없습니까?)

107078 #1 다른 떡덜은 엇주게. 이젠 햅이여, 무싱거여.(다른 떡들은 없지요. 이젠 햅이여, 무엇이여.)

107078 @ 아니, 옛날에 다른 떡덜?(아니, 옛날에 다른 떡들?)

107078 #1 엇어, 그것햅, 떡 종류엔 햅 건. 새미떡, 모멸 새미떡, 흰 송편, 빙떡, 침떡, 따시 햅린조떡, 모윈 조떡, 떡이엔 햅 건, 종류가.(엇어, 그것햅, 떡 종류라고 햅 건. ‘새미떡’, 메밀 ‘새미떡’, 흰 송편, ‘빙떡’, 시루떡, 다시 차조떡, 메진 조떡, 떡이라고 햅 건, 종류가.)

107078 @ 상왜떡<sup>206</sup>, 상왜떡 햅민 저 뭐마햅?(‘상왜떡’, ‘상왜떡’ 햅면 뭐지요?)

107078 #1 돌레떡<sup>207</sup>?(‘돌레떡’?)

107078 @ 햅, 밀꺾루로 햅근에.(햅, 밀가루로 햅서.)

107078 #1 목.(목.)

107078 @ 햅 식으로 길죽햅게 햅영 햅그라근에.(햅 식으로 길쪽햅게 햅서 만들어서.)

107078 #1 그건 침떡게.(그건 시루떡이지.)

107078 @ 아, 침떡 말고 밀꺾루로 거.(아, 시루떡 말고 밀가루로 거.)

107078 #1 이제도게, 밀꺾루 떡 햅이네.(이제도요, 밀가루 떡 햅서.)

107078 @ 막걸리 놔근에.(막걸리 넣어서.)

107078 #1 이제사 밀꺾루주, 옛날 어른덜이 밀꺾루 떡이 어디 시수과게? 엇수다, 곤떡 그거햅이주. 이제사 햅떡, 밀꺾루 떡이여, 양꼬햅이여, 막 햅주. 옛날에 햅이 어디 시수과? 옛날 거 햅젠 햅민. 이제 햅이 여려 종류주게.(이제야 밀가루지, 옛날 어른들이 밀가루 떡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흰떡 그거햅이지. 이제야 햅떡, 밀가루 떡이여, 팔소가 들어가 있는 햅이여, 마구 햅고 있지. 옛날에 햅이 어디

205) ‘햅망집’은 고사 지널 적에 무당이 일러바치고 햅기는 여신의 집이다.

206) ‘상왜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 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햅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어서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햅여 찐 떡이다. 표준어 ‘상화’에 햅당햅는 떡이다.

207)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햅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이다.

있습니까? 옛날 거 하려고 하면. 이젠 빵이 여러 종류지요.)

### 소와 고물

107079 @ 그 소와 고물인데, 소를 쉬라고 합니다. 쉬, 쉬 종류는 어떤 것덜 잇 수과?(그 소와 고물인데, 소를 ‘쉬’라고 합니다. 소, 소 종류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7079 #1 쉬 종류는 녹디쉬도 잇곡, 돔비쉬도 잇고, 따시 풋쉬도 잇고, 그거주 게. 쉬엔 흔 건, 떡에 노는 쉬.(소 종류는 녹두소도 있고, 동부소도 있고, 다시 팔소도 있고, 그거지요. 소라고 한 건, 떡에 놓는 소.)

107079 @ 어디에 놓니까?(어디에 놓습니까?)

107079 #1 떡, 시루떡 할 때 우터레, 이거 흔 빗<sup>208</sup> 시민, 이거 놓을 거 흔 빗 시민, 이레 놓젠 흐민 이디 쉬 허껴놔사 부트지 앓을 거 아니우파? 또 흔 빗, 흔 칭 농곡, 또 쉬 낱 흔 칭 농곡, 경 흐는 거.(떡, 시루떡 할 때 위로, 이거 한 ‘빗’ 있으면, 이거 놓을 거 한 ‘빗’ 있으면 이리로 놓으려고 하면 여기 소 섞어놔야 붙지 앓을 거 아닙니까? 또 한 ‘빗’, 한 층 놓고, 또 소 놓아서 한 층 놓고, 그렇게 하는 거.)

107079 @ 고물이엿도 흐지양?(고물이라고도 하지요?)

107079 #1 고물이엿은 안 흐여. 게민 침떡은 늣삐채로 썰엿, 무채로 썰엿 서경도, 조침떡<sup>209</sup> 쳐.(고물이라고는 안 해. 그러면 시루떡은 무채로 썰어서, 무채로 썰어서 섞어도, ‘조침떡 썬’.)

107079 @ 계난 것도 쉬에 들어갈 거파?(그러니까 것도 소에 들어갈 것입니까?)

107079 #1 쉬엔 안 들어가고 ㄱ루에 서꺼근에.(소에는 안 들어가고 가루에 섞어서.)

107079 @ 계난 송편 멩글 때도 쉬?(그러니까 송편 만들 때도 소?)

107079 #1 송편 멘들 땀 앙꼬로 쉬 담고, 늣삐채 담앗던, 녹디쉬 담앗던, 그 풋쉬 담앗던.(송편 만들 때는 팔으로 소 담고, 무채 담앗든, 녹두소 담앗든, 그 팔소 담앗든.)

107079 @ 풋쉬.(팔소.)

107079 #1 풋쉬, 녹디쉬, 앙꼬엔 흔 건 늣물 채, 그거주게. 돔비 솥앙 뵈아근에 그것도 쉬고.(팔소, 녹두소, 팔소라고 한 건 나물 채, 그거지요. 동부 삶아서 빵아서 그것도 소고.)

107079 @ 콩ㄱ루는 안 홉니까?(콩가루는 안 합니까?)

107079 #1 콩ㄱ루도 놔, 쉬로. 콩ㄱ루 부트지 안 흐게, 침떡 칠 때, 콩ㄱ루도 우터레 허꿍니다. 콩ㄱ루 잘 허끄지 안 흐여. 콩ㄱ루도 쉬로 들어가는 거, 콩 보짱 굴 앙.(콩가루도 놔, 소로. 콩가루 붙지 안 하게, 시루떡 찢 때, 콩가루도 위로 섞습니

208) ‘빗’은 칼로 베어 낸 시루떡의 날개, 또는 그를 세는 말리다.

209) ‘조침떡’은 좁쌀가루에 팔소 따위로 커를 얹혀서 찢 시루떡이다.

다. 콩가루 잘 섞지 안 해. 콩가루도 소로 들어가는 거, 콩 볶아서 갈아서.)

107081 @ 떡에 얹힌 숙담 잇수광? 숙담.(떡에 얹힌 숙담 있습니까? 숙담.)

107081 #1 숙담이 머 잇어?(숙담이 뭐 잇어?)

107081 @ 떡에 관련뎌 거.(떡에 관련된 거.)

107081 #1 옛날에 저 거세기, 저 이 숙떡은 숙단이엔 해서, 숙단.(옛날에 저 거시기, 저 이 썩떡은 ‘숙단’이라고 했어, ‘숙단’.)

107081 @ 무싱거마썸?(무엇이요?)

107081 #1 숙단. 숙단 흐젠 흐면은 어떻 헛냐 흐민 시리에 처근에, 속을 해근에 소랑소랑 멘들앙 요디 수까락 조륙으로 딱 그릇나게 흐영 그레 칭이나 옛 흐영 담 읍디다. 숙단이렌 흐여. 몽클락몽클락 혼 거, 식게 때에도. 앙플 안 담으면 식게에 켓상에 올리지 못흐는 거, 썩떡은. 앙꼬 놔야 떡이라 해서 상엘 올리주, 숙떡은 먹젠 흐주. 앙플 안 노문 상에, 켓상에 안 올립니다, 이제도.(썩떡. 썩떡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루에 썸서, 썩을 해서 길쭉길쭉 만들어서 여기 숟가락 자루로 닥 금나게 해서 그리로 풀이나 옛 해서 담습디다. 썩떡이라고 해. 몽톡몽톡 한 거, 제사 때에도. 팔소를 안 담으면 제사에 제상에 올리지 못하는 거, 썩떡은. 팔소 넣어야 떡이라 해서 상에 올리지, 썩떡은 먹으려고 하지. 팔소를 안 넣으면 상에, 제상에 안 올립니다, 이제도.)

107081 @ 무사?(왜?)

107081 #1 몰라. 옛날 어른덜 경 해여. 모르는 사름덜은 올려도. 숙떡 은절미도 상에 안 올려. 계난 앙꼬 담은 건 올리곡, 앙꼬 엇인 건 안 올려.(몰라. 옛날 어른들 그렇게 했어. 모르는 사람들은 올려도. 썩떡 ‘은절미’도 상에 안 올려. 그러니까 팔소 담은 건 올리고, 팔소 없는 건 안 올려.)

107081 @ 금기 사항, 거기에 대한 것. 아까 저 시루떡 칠 때는 머 들어오지 말라.(금기 사항, 거기에 대한 것. 아까 저 시루떡 찢 때는 뭐 들어오지 말라.)

107081 #1 들어오지 말렌 흐는 건 옛날에는양, 부엌에 딱 아쟁이네 시리 담앙 흐문 뒷문도 더끄곡, 앞문도 더경 사름 드나들문 혼 착은 익고, 흐 착은 선덴 흐멍 못 들어가게 해주게.(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요, 부엌에 딱 앉혀서 시루 담아서 하면 뒷문도 닫고, 앞문도 닫아서 사름 드나들면 한 짝은 익고, 한 짝은 덜 익는다고 하면서 못 들어가게 했지요.)

107081 @ 또 따른 건 엇수광?(또 다른 건 없습니까?)

107081 #1 예, 집나기 전윈 못 들어가게 흐여.(예, 집나기 전에는 못 들어가게 해.)

107081 @ 금기 사항, 따른 건.(금기 사항, 다른 건.)

107081 #1 금기, 그거 금기. 이제는 머 공장에 가민, 어느 저레. 이제사 공장으 로 많이 햄주, 집의서 떡 흐는 사름 잇수광? 솟밧할망이 흐는 거, 이건, 옛날엔. 솟 밧할망이렌 헛수다. 떡 흐는 할망, 밥 흐곡 흐는 할망.(금기, 그거 금기. 이제는 뭐 공장에 가면, 어느 겨를에. 이제야 공장으 로 많이 하고 있지, 집에서 떡 하는 사름



있습니까? ‘숫밧할망’이 하는 거, 이걸, 옛날에는. ‘숫밧할망’이라고 했습니다. 떡 하는 할머니, 밥하고 하는 할머니.)

### 별식

107082 @ 그다음엔양, 수에 대해 흥 번 곱아줍서.(그다음에는요, 순대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7082 #1 수에 담는 거, 도새기 잡양.(순대 담는 거, 돼지 잡아서.)

107082 @ 예, 수에 담는 과정?(예, 순대 담는 과정?)

107082 #1 예, 수에 담는 거는 모멸꺾루, 는쟁이, 홀근.(예, 순대 담는 거는 메밀가루, 나깨, 곱은.)

107082 @ 우선 필요한 것이 수에 말고.(우선 필요한 것이 순대 말고.)

107082 #1 수에는 도새기 베설, 훑은베설, 준베설.(순대는 돼지 창자, 대창, 소창.)

107082 @ 차례대로 곱아줍서.(차례대로 말해주십시오.)

107082 #1 훑은베설은 수에 담으면 독지고, 준 베설은 즐주게. 경흥민 수에 담는 양꼬는 머냐? 모멸꺾루도 곧 걸로 담 질 안 흥여. 곧 거 아꼬왕. 계민 구진 거, 는쟁이 꺾루 카근에, 피영 흥디 낱 막 것영 풀풀하게 흥영 그레 막 담압주게. 경 흥영 숲으면은 수에라.(대창은 순대 담으면 굶직하고, 소창은 잘지요. 그러면 순대 담는 소는 무엇이냐? 메밀가루도 고운 걸로 담지를 안 해. 고운 거 아까워서. 그러면 곱은 거, 나깨 가루 타서, 피하고 함께 넣어서 마구 저어서 풀풀하게 해서 그리로 마구 담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삶으면 순대야.)

107082 @ 계난 도새기 잡양 베설, 또 무싱거 담는 거 아니나네, 어떻 씻어야 할 거 아니꽈?(그러니까 돼지 잡아서 창자, 또 무엇 담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씻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7082 #1 똥은게 막 홀터똥, 막 도새기 잡는 사름덜이 하르방덜이잖아. 내가 본 거는 도새기 잡는 사름이 똥을 빠젠흥민 막 홀트멍 뺨데다. 빠민 베설만 남을 거 아니우꽈? 나오민 소금 놔기네 그걸 막 밍디다게, 스나이덜이. 막 장태에서 막 기냥, 두루 밀민 씨. 밀영 씻어 노면은 그거를 모멸꺾루, 는쟁이 풀풀하게 흥영 패 마농 썰어 놓는 사름 잇곡, 안 썰어 놓는 사름, 기냥 담아근에 문딱 사려낱 다라이 든 구덕에든 놔똥당 썰영 먹주게.(똥은 마구 훑어똥서, 막 돼지 잡는 사름들이 할아 버지들이잖아. 내가 본 거는 잡는 사름이 똥을 빠려고 하면 마구 훑으면서 뺨디다. 빼면 창자만 남을 거 아닙니까? 나오면 소금 넣어서 그것을 마구 밍디다, 낱자들이. 마구 장태에서 마구 그냥, 덜 밀면 씨. 밀어서 씻어놓으면 그거를 메밀가루, 나깨 풀풀하게 해서 쪽과 썰어 놓는 사름 있고, 안 썰어 놓는 사름, 그냥 담아서 전부 사려놓아서 대야에든 바구니에든 놔똥다가 썰어서 먹지요.)

107083 @ 두부 만드는 과정 흥 번 말해봅서.(두부 만드는 과정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7083 #1 두부 멘드는 건 나가 더 잘 알주.(두부 만드는 건 내가 더 잘 알지.)

107083 @ 예, 흔 번 곱아봅서.(예,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7083 #1 두부는양, 두부 이제 그 메주콩을 이젠 다라에 흔 말이고, 두 말이고 하민 한양 다라에 물 등급니다. 그 콩을 물 담앗당 이젠 건져근에 ㄱ레에, 이젠 도고리 안찌근에 도고리 낱 도고리 안에 ㄱ레를 안집주게. 경 둘이가 곱면은 그 물 흔 수까락 거려놓고, 콩 흔 수까락 거려노명 그 ㄱ레 아궁이레 거려놉니다. 경 행 밋밋 곱 거 아이짱? 곱민 이젠 텔레비에 나오듯 그것이 콩 근 물이 나와양, 그 나오민 이젠 그걸 어떻 흐느냐 흐면은, 몬 곱아지민 미녕 찰리나 광목 찰리나 멘들 거 아니짜? 멘들민 그레 그거를, 아니 그 흐기 전에 그걸 삶아양, 그걸 순두부로 막 삶으면 트랑트랑행, 소금 낱 촌물 낱 흐민 트랑트랑흐민 미녕 찰리나 광목 찰리나 그걸 순두부 웬 걸 담을 거 아니짜? 담으면 아렌 이젠 안반 놓고 그 가운데 그 담은 거 놔근에 안반 더꺼. 더끄민 우트레 돌이던 ㄱ렛착이던 막 지들랑 놔두민 촌물 빠져, 그 두부 물 빠지민 이제 그걸 그 찰리 거 베리쌍 보민 두부 아이짜? 찰리 채칼로 삭삭 뺨디다. 이추룩, 이추룩 베민 두부민 네기반씩 베민 아사놓민 그거 두부라, 그거. 촌물 저당 바당에 강, 나 촌물 잘 저갓주. 우리 할망 두부 흐젠 흐난, 두부는 나만이 아는 사람 엇어.(두부는요, 두부 이제 그 메주콩을 이젠 대야에 한 말이고, 두 말이고 많으면 많은 대로 대야에 물 담급니다. 그 콩을 물 담앗다가 이젠 건져서 멧돌에, 이젠 함지박 앓혀서 함지박 놓아서 함지박 안에 멧돌을 앓힙지요. 그렇게 둘이가 곱면은 그 물 한 숟가락 떠놓고, 콩 한 숟가락 떠놓으면서, 그 멧돌 아궁이로 떠 놉니다. 그렇게 해서 경 행 밋밋 곱 거 아닙니까? 곱면 이젠 텔레비전에 나오듯 그것이 콩 간 물이 나와요, 그 나오면 이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모두 같아지면 무명 자루나 광목 자루나 만들 거 아닙니까? 만들면 그리로 그거를, 아니 그 하기 전에 그것을 삶아요, 그것을 순두부로 막 삶으면 트랑트랑해서, 소금 넣어서 짠물 넣어서 흐민 트랑트랑하면 무명 자루나 광목 자루나 그것을 순두부 된 걸 담을 거 아닙니까? 담으면 아래는 이젠 안반 놓고 그 가운데 그 담은 거 놓아서 안반 덮어. 덮으면 위로 돌이든 멧돌짜이든 막 지지러서 놓아두면 짠물 빠져, 그 두부 물 빠지면 이젠 그것을 그 자루 거 열어 보면 두부 아닙니까? 자루 채칼로 삭삭 뺨디다, 이처럼, 이처럼 베면 두부면 네모반듯 가져놓으면 두부야, 그거. 짠물 저다가 바다에 가서, 나 짠물 잘 저갓지. 우리 할머니 두부 하려고 하니까, 두부는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

107083 @ 계난 잘 곱아봅서, 흔 번.(그러니까 잘 말해보십시오, 한 번.)

107083 #1 그거주게, 그거. 계민 동네 사름덜은 하영 안 흐젠 흐민 멧질에 두웨씩 가져오랑 부짱 흔덴 흐여, 갈라가곡, 경 흡디다게.(그거지요, 그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많이 안 하려고 하면 멧질에 두 되씩 가져와서 붙여서 한다고 해, 갈라가고, 그렇게 합디다.)

107084 @ 그다음에는 모멸목에 대해근에 흔 번 곱아봅서.(그다음에 메밀목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7084 #1 모밀묵은, 모밀묵은 ㄹ루 칼 거 아니꽈? 카민 솟두쟁의서 빙 지지듯 두껍게, 그 모밀 칸 거를 두껍게 카야 묵이 웰 겁주게. 솟두쟁의서 지정 건져넝 칼로 썰문 모밀묵. 또 묵은 솟디서 ㄹ루로 찌는 묵도 잇어양, ㄹ루를 지지지 안 흥영, 그거는 쏘 묵. 청묵은 모밀쌀.(메밀묵은, 메밀묵은 가루 탈 거 아닙니까? 타면 솔뚜쟁에서 '빙 지지듯 두껍게, 그 메밀 탄 거를 두껍게 타야 묵이 될 거지요. 솔뚜쟁에서 지져서 건져내어 칼로 썰면 메밀묵. 또 묵은 솔에서 가루로 찌는 묵도 잇어요, 가루를 지지지 안 해서, 그거는 쏘 묵. 청묵은 메밀쌀.)

107084 @ 아니, 거난 모밀묵에 대행만.(아니, 그러니까 메밀묵에 대해서만.)

107084 #1 묵게, 묵 그거. 경 지진 묵도 잇곡, 저 쏘 묵도 잇곡, 게난 묵 췌, 경 곤곡, 청묵은 모밀쌀 물 흥끔 등갓당 주멩기에 담양 췌지랑 낱, 그거 찌민 청묵.(묵게, 묵 그거. 그렇게 지진 묵도 잇고, 저 쏘 묵도 잇고, 그러니까 묵 췌서, 그렇게 말하고, 청묵은 메밀쌀 물 조금 담갓다가 주머니에 담아서 짜서 넣어서, 그거 찌면 청묵.)

107085 @ 게난양, 그 청묵 해시난에 청묵에 대행 흥 번 더 곱아봅서.(그러니까요, 그 청묵 했으니까 청묵에 대해서 한 번 거 말해보십시오.)

107085 #1 그 청묵은 모밀쌀을 곱닥흥 거, 곱닥흥 거 두 돼고, 흥 돼고 자기네 가정이 행펜대로 흥 돼고, 반 돼고 물 등갓당 주멩기로 막 췌집니다게. 스뭇 풀풀하게 막 췌지랑 그 솟의 췌. 솟의 췌 낱폰이 무싱거 비왕놔두민 언디민 청묵, 그건 청묵. 경 비어근에 썰어근에 저 그 적고지에 영 췌영 묵 햄수게, 그거.(그 청묵은 메밀쌀을 곱은 거, 곱은 거 두 되고, 한 되고 자기네 가정의 형편대로 한 되고, 반 되고 물 담갓다가 주머니로 마구 짹니다. 사뭇 풀풀하게 마구 짜서 그 솔에 췌. 솔에 췌서 양폰 무엇 부어서 놔두면 굳어지면 청묵, 그건 청묵. 그렇게 베어서 썰어서 저 그 적꼬치에 이렇게 췌어서 묵 하고 잇습니다, 그거.)

107085 @ 게난 그거 적고지에도 췌고, 안 췌는 것도 잇지 안 흥우꽈?(그러니까 그거 적꼬치에도 췌고, 안 췌는 것도 잇지 안 합니까?)

107085 #1 안 췌고, 췌는 거 집안으로 가. 췌는 집은 췌고, 소랑소랑 췌영 기냥 올리는 집 잇고, 경 흥니다. 우리 양칩원, 우리 집안엔, 이 하르방<sup>210</sup>네 집엔 꼭 췌사 돼어. 우리 감산이 우리 친정의 꼭 췌입니다. 네 개, 녁 점. 이 다른 집원 보민 소랑이 췌영 기냥 췌반에 올리는 집이 하.(안 췌고, 췌는 거 집안으로 가. 췌는 집은 췌고, 길쭉길쭉 췌어서 기냥 올리는 집 잇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양씨 집에는, 우리 집안에는, 이 '하르방'네 집에는 꼭 췌어야 돼. 우리 '감산리' 우리 친정에 꼭 췌입니다. 네 개, 녁 점. 이 다른 집에는 보면 길쭉이 췌어서 그냥 췌반에 올리는 집이 많아.)

107086 @ 개역에 대해 흥 번 곱아줍서.(미숫가루에 대해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7086 #1 개역? 개역은게, 옛날에는 솟두쟁의서 보까수다. 이 도라무팡덜이 옛이난 솟두쟁의서 보까근에, 이제 ㄹ레에 곱민 이제 스투기도 나오곡.(미숫가루? 미

210)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숫가루는요, 옛날에는 솔뚜껑에서 볶았습니다. 이 드럼통들이 없으니까 솔뚜껑에서 볶아서, 이제 멧돌에 갈면 이제 싸라기도 나오고.)

107086 @ 뭘로 곶아, 무슨.(무억으로 곶아, 무슨.)

107086 #1 ㄹ레에.(멧돌에.)

107086 @ 아, 계난 무슨 보리, 콩?(아, 그러니까 무슨 보리, 콩?)

107086 #1 보리 보깡. 곶보리 보근 사름도 있고, 솔오리 옛인 사름은 곶보리. 따시 이제 대맥고라 곶보리엔 해십주게. 이제 대맥보단 씨가 뜨난 거라, 대맥도. 그거 ㅎ곡 솔오리, 주로 개역은 솔오립주게. 옛인 사름은 그 신 집의 강 바짜당도 ㅎ곡, 일쿰 반양도 ㅎ곡 해영, ㄹ레에 곶 거 아니짜게? ㄹ레에 곶민 줌질게 곶 거 아니 짜? ㅎ나씩 툽툽 드리치명 곶민 그걸 ㄹ루민 체로 칩니다게. 체로 치민, ㄹ는체로 치민 개역, 경 치민 그 ㄹ는체로 치민 체 우의 건 스투기 개역. 스투기, 그거 개역 이엔 ㅎ 거.(보리 볶아서. 곶보리 볶은 사람도 있고, 쌀보리 없는 사람은 곶보리. 다시 이제 대맥더러 곶보리라고 했습지요. 이제 대맥보다는 씨가 다른 거야, 대맥도. 그거하고 쌀보리, 주로 미숫가루는 쌀보립지요. 없는 사람은 그 있는 집에 가서 바뀐다가도 하고, 품삯 받아서도 하고 해서, 멧돌에 갈 거 아납니까? 멧돌에 갈면 잘고 가늘게 갈 거 아납니까? 하나씩 툽툽 들이치면서 갈면 그것을 가루면 체로 칩니다. 체로 치면, 가는체로 치면 미숫가루, 그렇게 치면 그 가는체로 치면 체 위에 건싸라기 미숫가루. 싸라기, 그거 미숫가루라고 한 거.)

107086 @ 스투기를 뭐렌 ㅎ여.(싸라기를 뭐라고 해.)

107086 #1 스투기는 밥도 버무령 먹고, 이젠 스투기 엷주만 밥도 버무령, 보리밥 낱 박박 저 박세기에 낱 버무령도 먹고, 기냥도 떡곡 막 ㅎ디다게. 옛날 어려운 때난, 개역은 그거.(싸라기는 밥도 버무려서 먹고, 이젠 싸라기 없지만 밥도 버무려서, 보리밥 넣어서 박박 저 바가지에 넣어서 버무려서도 먹고, 그냥도 먹고 마구 합디다. 옛날은 어려운 때니까, 미숫가루는 그거.)

107086 @ 콩으로도 개역 멘들지양?(콩으로도 미숫가루 만들지요?)

107086 #1 콩ㄹ루는 서경 ㅎ주. 콩 개역은 저 물 경 못 먹는 거.(콩가루는 섞어서 하지. 콩 미숫가루는 저 물 담가서 못 먹는 거.)

107086 @ 콩ㅎ고, 저 뭐 보리 개역ㅎ곡.(콩하고, 저 뭐 보리 미숫가루하고.)

107086 #1 보리 개역 ㅎ 때 콩을 ㅎ 방울씩 놔. 들게 떡젠, 경 ㅎ주. 콩 개역은 아니. 콩 개역은 떡 쉬, 콩 개역은 떡 쉬. 사름이 물 강 먹는 건 아니고, 떡에 그 콩 ㄹ루 곶앗다근에 그 송편에도 콩 개역 거러낱 ㅎ고, 그거 것뿐 콩은. 보리 개역이라 사 ㅎ주게.(보리 미숫가루 할 때 콩을 한 방울씩 넣어. 달게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콩 미숫가루는 아니. 콩 미숫가루는 떡 소, 콩 미숫가루는 떡 소. 사람이 물 타서 먹는 건 아니고, 떡에 그 콩가루 곶앗다가 그 송편에도 콩 미숫가루 떠 넣어서 하고, 그거 것뿐 콩은. 보리 미숫가루라야 하지요.)

107087 @ 그다음에 지짐이에 대해 ㅎ 번 곶아줍서.(그다음에 지짐이에 대해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7087 #1 옛날에사 지집이가 잇어수과? 지집이, 묵 지진 거 지집이주게, 옛날에. 묵이 지집이라, 옛날에. 이제는 뭐 벨 문 새우영 무싱거 막 지집이 지진 걸 식게, 멩질 때 만이 흥영, 옛날에 지집이가 어디 잇수과? 묵 그거 뿐이주.(옛날에야 지집이가 있었습니까? 지집이, 묵 지진 거 지집이지요, 옛날에. 묵이 지집이야, 옛날에. 이제는 뭐 벨 모두 새우하고 무엇 마구 지집이 지진 걸 제사, 멩질 때에 많이 해서, 옛날에 지집이가 어디 있습니까? 묵 그거뿐이지.)

107087 @ 계란 그 요즘 지집이에 대행.(그러니까 그 요즘 지집이에 대해서.)

107087 #1 요즘 지집이는 이제 저 초기지집이, 새우지집이, 딱로 저 초기도 소량흔 거, 지집이가 몇 가지파? 계란지집이, 호박 소량소량흔 호박 해당 호박지집이, 지집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으섯, 일곱 가지라, 우리 알거니.(요즘 지집이는 이제 저 버섯지집이, 새우지집이, 다시 저 버섯도 길쭉한 거, 지집이가 몇 가지니까? 계란 지집이, 호박 길쭉길쭉한 호박 해다가 호박지집이, 지집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야, 우리 알거니.)

107087 @ 지집이 흘 때.(지집이 할 때.)

107087 #1 지집이 흘 땀.(지집이 할 때는.)

107087 @ 뭤로 멘그라.(무엇으로 만들어.)

107087 #1 그거는 지름하고, 무싱거 저 무싱거, 저 그 지집이 ㄹ루가 잇주게.(그거는 기름하고, 무엇 저 무엇, 저 그 지집이 가루가 잇지요.)

107087 @ 무슨 ㄹ루로마썸?(무슨 가루로요?)

107087 #1 ㄹ루 저 지집이 ㄹ루, 그 무싱거엔 해라마는. 그 ㄹ루도 잇고, 딱시 계란 해근에 무칭.(가루 저 지집이 가루, 그 무엇이라고 해라만은. 그 가루도 잇고, 다시 계란 해서 무쳐서.)

107087 @ 밀ㄹ루 아니?(밀가루 아니?)

107087 #1 밀ㄹ루 아니라. 지집이 지지는 ㄹ룬 딱로 잇어, 이제 사름덜은. 밀ㄹ루 흥끔 놔도 밀ㄹ루 서끄고, 그거 서끄고 계란 세 개 놔서 툽툽 데쓰멍, 데쓰멍 흥영, 경 안 흥민 문딱 부서져부렁 엇어. 호박지집이, 초기지집이, 새우지집이, 뭐 따시 저 무싱거팡? 동태지집이 뭐 지집이가 족수과? 우리 메누리 흥 거 보민 일곱 가지란게. 옛날에 지집이 짓갈 하나베끼 더 잇수과?(밀가루 아니야. 지집이 지지는 가루는 따로 잇어, 이제 사람들은. 밀가루 조금 놔도 밀가루 섞고, 그거 섞고 계란 세 개 넣어서 툽툽 뒤집으면서, 뒤집으면서 해서, 그렇게 안 하면 모두 부서져버려서 없어. 호박지집이, 버섯지집이, 새우지집이, 뭐 다시 저 무엇입니까? 동태지집이 뭐 지집이가 적습니까? 우리 며느리 한 거 보면 일곱 가지던데. 옛날에 지집이 짓갈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107088 @ 오메기술<sup>211)</sup>에 대해 흥 번 곶아줍서.(‘오메기술’에 대해 한 번 말해주십시오.)

211) ‘오메기술’은 차좁쌀 가루를 반죽해 만든 오메기떡에 누룩을 섞어 반죽한 후 적당량의 물을 넣어 발효시킨, 제주 전통 민속주이다.

107088 #1 오메기술은양, 나가 더 잘 압주. 우리 시어멍 오메기술만 계속 흡디다.(‘오메기술’은요, 내가 더 잘 알지요. 우리 시어머니 ‘오메기술’만 계속 흡디다.)

107088 @ 계메, 오메기술 그 과정, 멩그는 과정.(글쎄, ‘오메기술’ 그 과정, 만드는 과정.)

107088 #1 예, 흐린좁쌀 물 컷당, 옛날 기계 엇이난 “이어동 흐라” 흐멍 방엿혹에 뺏을 거 아니파? ㄴ루 쳐당, 이젠 그걸 쟁 멘들야, 고냥 나게 오메기<sup>212)</sup> 이만씩 오메기 고냥 나게 멘들양 슬몹디다. 솟디 바람 발탁하게. 발탁 슬므민 그걸, 이젠 누룩ㄴ루 방에에 뺏앗던지, ㄴ레에 곱앗던지 했당, 누룩ㄴ루에 낱 썬. 그걸 오메기 슬몹 오메길 썬근에 향드레 툯 하게 요추룩 흐멍 툯툯 드리칭 놔두며는, 그거 녹아근에 술 돼민 거리며는 청주라. 들랑 장물 거리듯 거리민 청주라. 경흐고 탁배기, 탁배기 거 청주주게. 탁배긴 그 거러난 주생이난 탁배기, 팍팍흔 거. 청주는 별정흔 청주고. 이젠 청주 파는 디 잇주마는, 옛날 청주 답진 안 흐여.(예, 차좁쌀 물 담갔다가, 옛날 기계 없으니까 “이어동 흐라” 하면서 ‘방엿혹’에 뺏을 거 아녓니까? 가루 쳐다가, 이젠 그것을 썬서 만들어, 구멍 나게 ‘오메기’ 이만큼씩 ‘오메기’ 구멍 나게 만들어서 삶습디다. 술에 바람 축축하게. 축축하게 삶으면 그것을, 이젠 누룩 가루 방에에 뺏앗던지, 멩돌에 곱앗던지 했다가, 누룩가루에 놔서 썬. 그것을 ‘오메기’ 삶은 ‘오메기’를 썬서 독으로 툯 하게 요처럼 하면서 들이쳐서 넣어 두면은, 그거 녹아서 술 되면 뜨면 청주야. 따라서 간장 뜨듯 뜨면 청주야. 그리고 탁주, 탁주 거 청주지요. 탁주는 그 떠난 썬꺼기니까 탁주, 팍팍한 거. 청주는 별건 청주고. 이젠 청주 파는 데 잇지만은, 옛날 청주 답지는 안 해.)

107088 @ 그 저 헤근에 오메기를 담양 놔두민은 그것이.(그 저 해서 ‘오메기’를 담아서 넣어 두면은 그것이.)

107088 #1 녹아근에 청주 돼는 거, 술 돼곡. 경흐민 곱라얏으면 곱라얏양 청주 돼어불민, 이젠 그 삶아난 물이영 흐디 두박두박 거러놓민, 오메기 향아리에 담양놔 두민 그거 녹으면 청주, 장 흐덧 청주가 동그랑이 올라옴주게, 그 장물추룩 올라오민 그걸 거립주게. 거리문 그거 청주, 남은 거 주생인 탁배기. 탁배기는 흐 사발씩 흐영 모멸죽 썬근에 수까락 거러냥 확 짓영 먹고, 그거 탁배긴 경 흡디다. 모멸죽 썬 모멸 사발, 모멸죽 사발더레 그 탁배길 거러냥 짓영 먹읍디다게.(녹아서 청주 되는 거, 술 되고. 그러면 가라얏으면 가라얏아서 청주 돼버리면, 이젠 그 삶아난 물하고 함께 두박두박 떠 넣으면, ‘오메기’ 향아리에 담아서 넣어 두면 그거 녹으면 청주, 장 하듯 청주가 동그랑게 올라오지요, 그 간장처럼 올라오면 그것을 뜨지요. 뜨면 그거 청주, 남은 거 썬꺼기는 탁주. 탁주는 한 사발씩 해서 메밀죽 썬서 숟가락 떠놓아서 확 저어서 먹고, 그거 탁주는 그렇게 흡디다. 메밀죽 썬서 메밀 사발, 메밀죽 사발로 그 탁주를 떠 넣어서 저어서 먹습디다.)

107088 @ 청주는 언제 썬수광? 청주.(청주는 언제 썬습니까?)

212)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동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이다. 팔고물을 무치거나 소를 넣어 만들기도 한다. 술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107088 #1 그 저슬에.(그 겨울에.)

107088 @ 그거 언제, 식게 때 써?(그거 언제, 제사 때 써?)

107088 #1 식게 때 씌도 흥곡, 적당히 씌도 흥곡, 먹음도 흥곡 경 헛주게, 그거는 청주. 경흥난 토신제 흘 뎨양, 청주, 감주 잇이민 토신제 못 흡니다. 생감주. 감주가 딸리는 거, 딸리지 안 흥 감주를 씌니다. 토신제 때, 영장 때도, 천리홀 때 가민 절대 생감주 가정강 시체레 팍팍 빠명, 경 흥는 집안 드물주게. 건 몰랑 못 흥는 거.(제사 때 씌도 하고, 적당히 씌도 하고, 먹음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거는 청주. 그러니까 토신제 할 때는요, 청주, 감주 없으면 토신제 못 합니다. 생감주. 감주가 달이는 거, 달이지 안 한 감주를 씌니다. 토신제 때, 영장 때도, 이장할 때 가면 절대 생감주 가져가서 시체로 팍팍 뿌리면서, 그렇게 하는 집안 드물지요. 그거는 몰라서 못 하는 거.)

107088 @ 탁배기는 언제 써?(탁주는 언 제 써?)

107088 #1 탁배기, 그 청주 거려볼민 탁배기.(탁주, 그 청주 떠버리면 탁주.)

107088 @ 게메 그 언제, 그 게난.(글쎄 그 언제, 그 그러니까.)

107088 #1 여름 나가민 쉬어볼주게, 저슬에 먹는 거주, 다.(여름 나가면 쉬어버리지요, 겨울에 먹는 거지, 다.)

107088 @ 게난 세배홀 때두.(그러니까 세배할 때도.)

107088 #1 세배홀 때 청주 줍주게.(세배할 할 때 청주 주고 있지요.)

107088 @ 탁배기.(탁주.)

107088 #1 탁배기 주는 사름 잇어.(탁주 주는 사름 없어.)

107088 @ 옛날 탁배기 주더라고.(옛날 탁주 주더라고.)

107088 #1 세배가민 청주로 대접햄주. 상이나 늙은이신디만 감주, 무신. 정당으로 흥뻘에 때 집의 세배 뎡기젠 흥민 허리가 그차져.(세배가면 청주로 대접하고 있지. 상가나 늙은이에게만 가고 있지, 무슨. 정당으로 한꺼번에 모든 집에 세배 다니려고 하면 허리가 끊어져.)

107089 @ 순다리<sup>213</sup>, 그거 흥 번 곶아줍서.(이 ‘순다리’, 그거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7089 #1 순다리는 나 잘 흥여. 순다리는 어떻 해시냐민, 옛날에는 누룩흥여근에양, 보리 곶아다근에 보리나 보리, 보리, 보리 거피당 체로 칭, 첨 내불고, 건 딱 흥게 물 등강 썬, 썬근에 딱딱흥민 체, 쳇망 싯지 안 흥우파? 그걸 그거안티 딱 발로 불랑 놔두민 거 터, 거명흥게 터, 이만씩 다테 멘들양 놔두주게. 경흥민 그걸 보리냥 곶곡 흥 놔두민, 그것이 거명흥게 터, 거 트민 걸 곶아근에 이젠 밥 흥여근에, 그거 흥디 담양 놔두는 거 순다리.(‘순다리’는 나 잘 해. ‘순다리’는 어떻게 했느냐면, 옛날에는 누룩해서요, 보리 갈아다가 보리나 보리, 보리, 보리 거피해서 체로 쳐서, 겨는 내버리고, 건 딱 하게 물 담가서 썬, 썬서 딱딱하면 체, 쳇바퀴 있지 안 합니까? 그것을 그거한테 딱 발로 밟아서 놔두면 거 떠, 거명게 떠, 이만큼씩 ‘다데’

213) ‘순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이다.

만들어서 놔두지요. 그러면 그것을 보릿짚 깔고 해서 놔두면, 그거 거뭇게 떠, 거 뜨면 걸 갈아서 이젠 밥해서, 그거 함께 담아서 놔두는 것이 ‘순다리’.)

107089 @ 아니, 거난 옛날 보면은 보리밥 쉬엄직흐면은.(아니, 그러니까 옛날 보면은 보리밥 쉴 것 같으면.)

107089 #1 쉰 밥계, 그것에 흐영.(쉰 밥, 그것에 해서.)

107089 @ 그거 해여근에.(그거 해서.)

107089 #1 찌근에.(찌서.)

107089 @ 저 누룩 헤근에 놔두민.(저 누룩 해서 넣어두면.)

107089 #1 순다리가 돼엄주게, 박 하게 퀘어사.(‘순다리’가 되고 있지요, 박 하게 피어야.)

107089 @ 그 과정은 거난에.(그 과정은 그러니까.)

107089 #1 계난 그거계. 쉰밥을 그 누룩ㄱ를 이젠 즘진 ㄱ를 이젠 그 밥드레 혼 디 낱, 쟁 물 데와근에, 냉물 흐는 사름 짓고, 물 데왕 놓는 사름 있어. 물 퀘왕 해사 순다리가 맛 좋습니다, 처음엔. 그추룩 혼 사름 시민, 거 담양 놔두민 자게 퀘는 사름, 늦게 퀘는 사름 흐여, 것도 여자덜이. 경흐민 부각이 올라오주게, 퀘영. 그 누룩ㄱ루 낱 퀘영 걸 오미는, 그걸 짓어근에 보리밥 바구리만씩 혼 거 화룩화룩 먹 엄주게, 그거 순다리.(그러니까 그거지요. 쉰밥을 그 누룩가루를 이젠 자잘한 가루를 이젠 그 밥에 함께 넣어서, 찌서 물 데워서, 냉물 하는 사람 있고, 물 데워서 넣는 사람 있어. 물 끓여서 해야 ‘순다리’가 맛 좋습니다, 처음에는. 것처럼 한 사람 있으면, 거 담아서 놔두면 빨리 피는 사람, 늦게 피는 사람 해, 것도 여자들이. 그러면 부각이 올라오지요, 피어서. 그 누룩가루 넣어서 피어서 걸 오면, 그것을 저어서 보리밥 바구리만큼씩 한 거 화룩화룩 먹고 있지요, 그거 ‘순다리’.)

107089 @ 계난 옛날은 그디 당원 놓디강?(그러니까 옛날은 거기 당원 넣습니까?)

107089 #1 당원, 옛날 당원, 사까린.(당원, 옛날 당원, 사카린.)

107089 @ 당원흐고 사까린.(당원하고 사카린.)

107089 #1 사까린 그 순다리에도 즐바로 안 난 먹었어. 감저뻗테기 술물 때나 낱주, 당원도. 이제 순다리덜은양, 그 장에 강 누룩ㄱ루, 누룩 이만씩 동글락, 동글락 혼 거 사당 통째 드리칩니다. 통째 드리청 놔두민 그 물 퀘와근에 밥, 이젠 그 쓸 밥덜 아니파게? 좋은 밥덜이난. 경흐디 놔두민 부각부각 올라오민 그것만 톱 건져 불민 누룩ㄱ루도 엇고, 아무것도 엇영 순다리라, 맛 좋고. 설탕 팍 놔오네 이젠 먹 엄수계게. 순다리 새콤 혼 거 먹으민 술 취흐여. 경흐곡 그거 걸러근에 헤영케 헤근에 그 주생이 엇이 담으민 막걸리라. 그 순다리 막 담은 거, 두쟁이 혼 거 열지 안 으민, 열엇당 천장드레 문딱 손아져붙어.(사카린 그 ‘순다리’에도 바르게 안 넣어서 먹었어. 고구마 고지 삶을 때나 넣었지, 당원도. 이제 ‘순다리’들은요, 그 장에 가서 누룩가루, 누룩 이만큼씩 둥그런, 둥그런 거 사다가 통째 들이칩니다. 통째 들이쳐서 넣어두면 그 물 끓여서 밥, 이젠 그 쌀밥들 아납니까? 좋은 밥들이니까. 그런데



넣어두면 부각부각 올라오면 그것만 툭 떠버리면 누룩가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순다리’야, 맛 좋고. 설탕 팍 넣어서 이젠 먹고 있지요. ‘순다리’ 새콤한 거 먹으면 술 취해. 그리고 그거 걸러서 하얗게 해서 그 찌꺼기 없이 담으면 막걸리야. 그 ‘순다리’ 마구 담은 거, 뚜껑 한 거 열지 않으면, 열었다가 천정으로 전부 쏟아져버려.)

107090 @ 그다음에 누룩, 누룩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그다음에 누룩, 누룩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107090 #1 누룩 멘드는 거, ㄴ싸추룩게 보리 낱알, 보리, 생보리.(누룩 만드는 거, 아까처럼 보리 갈아서, 보리, 생보리.)

107090 @ 보릿 ㄴ루로.(보릿가루로.)

107090 #1 보릿 ㄴ루, 스테기영. 스테기 정, 보릿 ㄴ루 정 곱아근에, 저 그걸 물 등가근에, 찌근에 탁 담양 발로 불랑 다데도 멘들곡, 그 체, 망시리, 망 잇주게. 그것드레 담양 딱 발로 즈근즈근 불랑 잘 불라근에, 저 보리낭을 깔던지 무싱거 영 득스드레 놔두민, 그것이 트민 것이 누룩, 것이 누룩.(보릿가루, 싸라기하고, 싸라기 쳐서, 보릿가루 쳐서 갈아서, 저 그것을 물 담가서, 찌서, 탁 담아서 발로 밟아 ‘다데’도 만들고, 그 체, 망사리, 망 있지요. 그것에 담아서 딱 발로 자근자근 밟아서 잘 밟아서, 저 보릿짚을 깔든지 무엇 이렇게 따뜻한 데 놔두면, 그것이 뜨면 것이 누룩, 것이 누룩.)

107090 @ 계란 보릿 ㄴ루 하나만 들어갑니까?(그러니까 보릿가루 하나만 들어갑니까?)

107090 #1 보릿 ㄴ루, 이젠 보리쌀로 험주게, 보릿 ㄴ루 해근에게.(보릿가루, 이젠 보리쌀로 하고 있지요, 보릿가루로 해서.)

107090 @ 거 언제 멩글아, 거.(거, 언제 만들어, 거.)

107090 #1 그거 아무 때라도 멘드는 거.(그거 아무 때라도 만드는 거.)

107090 #2 아무 때라도.(아무 때라도.)

107090 #1 경흐민 별경흐게 트는 사름, 거명흐게 트는 사름, 누룩이 발강흐게 터사 맛 좋주게, 순다리도. 거명흐게 트민 순다리도 맛 잇고. 사름으로 갑니다. 누룩 멘드는 것도 사름으로 가. 우리 시어명은 순다리해도 들곡, 누룩도 잘 멘들아나수다. 누룩도 별단 그거주게. 이젠, 이젠 보리쌀 곱알 누룩험수게게, 이제들은.(그러면 별정게 뜨는 사름, 거명게 뜨는 사름, 누룩이 발강게 떠야 맛 좋지요, ‘순다리’도. 거명게 뜨면 ‘순다리’도 맛없고, 사름으로 갑니다. 누룩 만드는 것도 사름으로 가. 우리 시어머니는 ‘순다리’해도 달고, 누룩도 잘 만들었었습니다. 누룩도 별단 그거지요. 이젠, 이젠 보리쌀 갈아서 누룩하고 있지요, 이제들은.)

107091 @ 옛 만들영 먹어봬디강?(옛 만들어서 먹어봤습니까?)

107091 #1 예, 옛날 옛도 해나수다.(예, 옛날 옛도 했었습니다.)

107091 @ 옛 종류 어떤 거.(옛 종류 어떤 거.)

107091 #1 득 옛은양, 경 흡니다. 골 흐영, 좁쌀 ㄴ루 흐영, 밥 흐영, 그 곱에 쩍

놔두면 그것이 보그락이 피어갑니다. 피어가면 이제 걸 딱 췌지라붙어, 주생이. 다 췌지라근에 그걸 딸려. 경 딸리민 이제 득 숲양, 득 옛은 숲양 복복 치저근에 그 문 딸려져 가민 그 딸려지는 것드레 득을 낱 딸리민 득옛이라, 옛날에. 그거우다게.(닭 옛은요, 그렇게 합니다. 옛기름 해서, 좁쌀가루 해서, 밥해서, 그 옛기름에 찌서 놔두면 그것이 보각이 피어갑니다. 피어가면 이제 걸 짜버려, 찌꺼기. 다 짜서 그것을 달여, 그렇게 달이면 이제 닭 삶아서, 닭 옛은 삶아서 복복 찢겨서 그 모두 달여져 가면 그 달려지는 것으로 닭을 넣어서 달이면 닭 옛이야, 옛날에. 그것입니다.)

107091 @ 경흐난에 득히고, 옛 만들젠 흐민, 득옛 멘들젠 흐민, 득히고 그다음에.(그러니까 닭하고, 옛 만들려고 하면, 닭옛 만들려고 하면, 닭하고 그다음에.)

107091 #1 득히고 그거주게.(닭하고 그거지요.)

107091 @ 골.(옛기름.)

107091 #1 골, 좁쌀.(옛기름, 좁쌀.)

107091 @ 골은 어떻 멩글아?(옛기름은 어떻게 만들어?)

107091 #1 골게, 저 ㄱ루를(옛기름, 저 가루를.)

107091 #2 보리에 보리.(보리에 보리.)

107091 #1 이녁냥으로 골 낱, 저 보리 낱 놔두민 막 췌납니께, 과랑게. 경 뽕족 뽕족 나민 바삭 물리와. 덕석에 널멍 물려, ㄱ레에 골민 ㄱ루 아니꽈? 경흐민 체로 쳐근에, 건 골ㄱ루. 경흐민 흐린조로 밥해여근에 그 골ㄱ루에 췌 놔두민 그거 보그락이 췌며는 췌질민, 이제 숲으민 옛이라. 경흐민 득, 득 숲양 논 사름, 웨야지고기 흐영 췌어 놓는 사름.(이녁대로 옛기름 놓아서, 저 보리 놓아서 놓아두면 마구 잎 납니다, 과랑게. 그렇게 뽕족뽕족 나면 바삭 말려서. 멩석에 널면서 말려서, 멩돌에 갈면 가루 아닙니까? 그러면 체로 쳐서, 건 옛기름가루. 그러면 차조로 밥해서 그 옛기름가루에 찌서 놓아두면 그거 보각이 피면 짜면, 이제 삶으면 옛이야. 그러면 닭, 닭 삶아서 넣는 사름, 돼지고기 해서 췌어 넣는 사름.)

107091 @ 계난 옛 종류는 득 옛히고.(그러니까 옛 종류는 닭 옛하고.)

107091 #1 득 옛히고, 도새기레기도 넣곡, 거 옛은 그거주게.(닭 옛하고, 돼지고기도 넣고, 거 옛은 그거지요.)

107091 @ 그다음.(그다음.)

107091 @ 꿩, 꿩도 흐곡.(꿩, 꿩도 하고.)

107091 #1 꿩이사 언제 먹었주, 경 옛 해수과? 매 사람이 꿩 햇수과게?(꿩이야 언제 먹었지, 그렇게 옛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꿩 했습니까?)

107091 @ 그다음에 지달이.(그다음에 오소리.)

107091 #1 아이고, 지달이 꼴도 못 봐수다.(아이고, 오소리 모습도 못 봤습니다.)

107091 #2 (웃음.)

107091 @ 지다리옛도 흐주게.(오소리 옛도 하지요.)

107091 #1 난 지다리옛 모릅니다. 지다리 심는 사름은 웃드르 사름덜 들이 강 심는 사름 흐주. 지다리옛은 아무나 해집니까게?(나는 오소리 옛 모릅니다.(오소리

잡는 사람은 ‘웃드르’ 사람들 둘이 가서 잡는 사람 하지. ‘오소리엿’은 아무나 해잡니까?)

107091 @ 그다음 도새기 퀘기도 햇주마는 지다리.(그다음 돼지고기도 했지만은 오소리.)

107091 #1 득 옻하고, 지다리엿.(닭옻하고, 오소리엿.)

107091 @ 지다리, 그다음 꿩, 득, 그다음에 저 콥대사니엿도 햇지양?(오소리, 그다음 꿩, 닭, 그다음에 저 마늘엿도 했지요?)

107091 #1 콥대사니엿은 이제사 낫수다.(마늘엿은 이제야 낫습니다.)

107091 @ 아, 우리 옛날, 우리 그 먹어수게, 콥대사니.(아, 우리 옛날, 우리 그 먹었습니다, 마늘.)

107091 #1 콥대사니 뿔양 숲아근에 하나씩 먹엉, 똥 경 해낫주.(마늘 뿔아서 삶아서 하나씩 먹어서, 똥 그렇게 했었지.)

107091 @ 막 냄새 굿주게.(아주 냄새 굿지요.)

107091 #1 예, 그거 해낫주.(예, 그거 했었지.)

107091 @ 콥대사니엿.(마늘엿.)

107091 #1 우리 클 땐 대사니엿도 엿어나수다. 경하고 따시 저.(우리 클 때는 마늘엿도 없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

107091 @ 놀 거 엿이나네, 콥대사니 논 겁주게.(넣을 거 없으니까, 마늘 넣은 거지요.)

107091 #1 저 무싱거팡? 저 다섯 가지엔 하는 거 오합주, 오합주가 있어수다. 오합주는 뭐냐, 청주, 따시 저 골ㄱ루, 생강, 계란, 따시 거 뭐니, 다섯 가지. 설탕 저 청주하고, 옻하고, 저 청주. 청주, 골ㄱ루 따시 저 거세기 별 하는 거 무싱거팡? (웃음) 별 싸는 거 무싱거팡?(저 무엇입니까? 저 다섯 가지라고 하는 거 오합주, 오합주가 있습니다. 오합주는 무엇이나, 청주, 다시 저 옻기름가루, 생강, 계란, 다시 거 뭐니, 다섯 가지. 설탕 저 청주하고, 옻하고, 저 청주, 옻기름가루 다시 저 거 시기 별 하는 거 무엇입니까? (웃음) 별 싸는 거 무엇입니까?)

107091 #2 칭.(꿀.)

107091 #1 칭, 칭 그거 놓민 다섯 가지난 오합주.(꿀, 꿀 그거 넣으면 다섯 가지니까 오합주.)

107091 @ 뭐, 뭐 청주.(뭐, 뭐 청주.)

107091 #1 청주, 계란.(청주, 계란.)

107091 @ 득새기 그다음.(달걀 그다음.)

107091 #1 따시 무싱거 골ㄱ루.(다시 무엇 옻기름가루.)

107091 @ 골ㄱ루, 칭.(옻기름가루, 꿀.)

107091 #1 생강, 칭, 경 다섯 가지 오합주.(생강, 꿀, 그렇게 다섯 가지 오합주.)

107091 @ 그걸로 옻 행 먹고.(그것으로 옻 해서 먹고.)

107091 #1 옻이 아니고, 오합주. 그건 보기약, 그건, 그건 보약.(옻이 아니고, 오

합주. 그건 보약, 그건, 그건 보약.)

107091 @ 이진 마을에서 해먹었던 음식이구나.(아진 마을에서 해먹었던 음식이구나.)

107091 #1 예.(예.)

107092 @ 이 웨에 마을에서 해먹었던 음식덜 어떤 거 잇수과?(이 웨에 마을에서 해먹었던 음식들 어떤 거 있습니까?)

107092 #1 마을에서 이젠 복지가 나난 햄주, 옛날엔 마을에서 무싱거 해먹은 거 잇수과?(마을에서 이젠 복지가 나니까 하고 있지, 옛날에는 마을에서 무엇 해먹은 거 있습니까?)

107092 @ 여기서 경 해도.(여기서 그렇게 해도.)

107092 #1 아니, 아니. 아이고, 옛날엔 경 부락해서 행 맥인 거 엇어수다. 아무 디도, 이제사 복지가 나난 때 부락 그 무싱거 행 맥이는 거 햄주. 옛날엔 부락에서 집마다 산태<sup>214</sup>걸이는 거나했주. 산태걸이<sup>215</sup>는 건 무사냐민 나쁜 짓 흔 사름 부락에서 심어다근에, 경 산태걸이 해서. 경흐난 부부가 효자라야 자식도 효자 나는 건, 산태걸이로 나온 거우다.(아니, 아니. 아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부락에서 해서 먹인 거 없었습니다. 아무 데도, 이제야 복지가 나니까 모든 부락 그 무엇 해서 먹이는 거 하고 있지. 옛날에는 부락에서 ‘산태’걸이는 거나했지. ‘산태걸이’는 건 왜냐면 나쁜 짓 한 사람 부락에서 잡아다가, 그렇게 ‘산태걸이’ 했어. 그러니까 부부가 효자라야 자식도 효자가 나는 건, ‘산태걸이’로 나온 것입니다.)

107092 @ 좀 쉬엇당 흐쿠다.(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7092 #1 경 흡서.(그렇게 하십시오.)

## 8. 주생활

### 구조

108001 @ 이번은양, 그 집에 관련웬 거 물어보쿠다양.(이번은요, 그 집에 관련된 거 물어보겠습니다.)

108001 #1 집 짓는 거?(집 짓는 거.)

108001 @ 예, 그 집을 지엇던 경험이 잇걸랑 말해봅서. 우리 남자 삼촌 말해봅서.(예, 그 집을 지엇던 경험이 잇걸랑 말해보십시오. 우리 남자 삼촌 말해보십시오.)

108001 #1 집 짓쟁 흐민 시초가.(집 지으려고 하면 시초가.)

108001 @ 집을 지엇던 경험마씨?(집을 지엇던 경험이요?)

108001 #2 쥘 처음엔예, 그 제목을 준비해압주게. 계민양, 딱로 그 뵈엿 혼다마

214) ‘산태’는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앞뒤로 들게 된 도구이다.

215) ‘산태걸이’는 죄인을 ‘산태’에 묶어 거꾸로 세워놓고 매를 치는 일이다.

는 상머리, 그 상머리, 다음 지동, 딱로 그 중머리<sup>216</sup>)영, 무싱거영마썸, 거난.(제일 처음에는요, 그 재목을 준비해야지요. 그러면요, 다시 그 뭐라고 한다만 용마루, 그 용마루, 다음 기둥, 다시 그 중도리하고, 무엇하고요, 그러니까.)

108001 @ 계난 초집 짓어봅디게양?(그러니까 초집 지어봤습지요?)

108001 #2 초집은 짓는 거, 영 넘어가명 혼 뒤 번 보난.(초집은 짓는 거, 이렇게 넘어가면서 한 두어 번 보니까.)

108001 #1 아니, 네뚜미<sup>217</sup>) 짓을 때 엇어나수가? 우리 집 짓을 때 하루방 잇어 낫주.(아니, ‘네뚜미’ 지을 때 없었습니까? 우리 집 지을 때 ‘하루방’ 있었었지.)

108001 #2 갱 해근에, 갱 해도.(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108001 #1 그런 거게, 아무 소낭해당 이런 백브름 된 여끄곡, 풍선<sup>218</sup>) 끈어당.(그런 거, 아무 소나무해다가 이런 바람벽 모두 엮고, ‘풍선’ 끊어다가.)

108001 #2 경 행 풍선 낭 끈어당으네 상머루, 중머루영, 그 철들어근에 전부 나무 쫄롭주게, 딸라근에 저 갔다가.(그렇게 해서 ‘풍선’ 나무 끊어다가 용마루, 중도리하고, 그 철들어서 전부 나무 자르지요, 뚫어서 갔다가.)

108001 #1 크게 곱읍서.(크게 말하십시오.)

108001 #2 맞추명 이제 끈영, 경 해근에 이젠 그 고양이 딸르곡, 고양이 딸르곡, 경 해근에 그 맞추명 전부 거시기 흡주게.(맞추면서 이제 끊어서, 그렇게 해서 이젠 그 구멍 뚫고, 구멍 뚫고, 그렇게 해서 그 맞추면서 전부 거시기 합지요.)

108001 #1 목시가 잇주게, 목시가.(목수가 있지요, 목수가.)

108001 #2 게메, 목수하는 일이 그거주.(글쎄, 목수하는 일이 그거지.)

108001 @ 거난 그 고양이 딸를 뎨 뵤로 딸라?(그러니까 그 구멍 뚫을 때는 무엇으로 뚫어?)

108001 #2 끌.(끌.)

108001 #1 자귀, 끌.(자귀, 끌.)

108001 #2 마께, 끌 해근에 마께 두들면서 그 고양이 딸롭주게.(방망이, 끌 해서 방망이 두드리면서 그 구멍 뚫습지요.)

108001 @ 경호고 저 그 서리, 서리는 무슨 낭으로 했수과?(그리고 저 그 서까래, 서까래는 무슨 나무로 했습니까?)

108001 #2 서리는 저 소낭으로.(서까래는 저 소나무로.)

108001 #1 풍선 끈어당게.(‘풍선’ 끊어다가.)

108001 #2 풍선을 저 길직길직흔 거, 기자 흥꿈 좋아 빈 걸로만 골려근에 끈어근에, 가져다근에 기냥 겁죽 베끼곡 해근에 불 태우명, 그거 뭉뚱디다게, 경 좀 막아근에.(‘풍선’을 저 길쭉길쭉한 거, 그거 조금 좋아 빈 걸로만 골라서 끊어다가, 가져다가 그냥 꺾테기 벗기고 해서 불 태우면서, 그거 말립디다. 그렇게 나무좀 막아서.)

216) ‘중머루’는 지붕의 용마루와 처마와의 중간 높은 곳이다.

217) ‘네뚜미’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의 지명이다.

218) ‘풍선’은 나무 종류의 하나다.

108001 @ 그 흑질했지양? 흑질헤근에.(그 흑질했지요? 흑질해서.)

108001 #1 예.(예.)

108001 @ 그 여기에 그 저 낭하고 낭 사이에 영영 흑.(그 여기에 그 저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흑.)

108001 #1 간 백.(간 백.)

108001 @ 영 여끄는 걸 뉘엔 흑니까?(이렇게 엮는 거 뭐라고 합니까?)

108001 #1 백브름.(바람벽.)

108001 @ 벽, 벽 그.(벽, 벽 그.)

108001 #1 백브름, 백브름 헛수게.(바람벽, 바람벽 했습니다.)

108001 #2 백브름, 게메 그 백브름인디 거, 것이 뉘엔 흑는고?(바람벽, 글썸 그 바람벽인디 거, 것이 뉘라고 하는가?)

108001 #1 백브름 저 풍선 끈어다근에, 나 흑는 거 보난, 풍선 끈어단에 너부룬 굿디 막 여끔주게.(바람벽 저 ‘풍선’ 끊어다가, 나 하는 거 보니까, ‘풍선’ 끊어다가 넓은 가에 마구 엮습지요.)

108001 #2 게메, 게 저.(글썸, 게 저.)

108001 @ 게 여끄는 거.(게 엮는 거.)

108001 #1 그거 백브름, 백브름. 이 스방 다 흑는 거.(그거 바람벽, 바람벽. 이 사방 다 하는 거.)

108001 #2 백브름을 전체가 말흑는 것이 그 백브름인디, 경 거 ㄴ는 거 끈어다 근에 그거 맞추멍, 맞춰근에게 그걸 얼급주게. 경 헤근에 그 혁 달라근에 혁을 메기 민게 백브름이 뉘는 거라마썸.(바람벽을 전체가 말하는 것이 그 바람벽인디, 그렇게 가는 거 끊어다가 그거 맞추면서, 맞춰서 그것을 엮습지요. 그렇게 해서 그 흑 다져서, 흑을 칠하면 바람벽이 되는 거지요.)

108001 @ 거난 흑 흘 때는 그 짝으로 헛수과? 짝 썰어근에 헛수과? 보리낭 썰 언헛수과?(그러니까 흑 할 때는 그 짚으로 헛수과? 짚 썰어서 헛수과? 보릿짚 썰어서 헛수과?)

108001 #1 보리낭도 흑고.(보릿짚도 하고.)

108001 #2 짝을.(짚을.)

108001 #1 짝 썰어낭 쉼로 흑영 막 흑 해당 불리곡.(짚 썰어놓아서 소로 해서 마구 흑 해다가 밟고.)

108001 @ 물을 어디 강 저와?(물을 어디 가서 저와?)

108001 #1 물은 허벽으로 사름덜 저 흑질 흑는 디, 저 물 저가는 사름덜 천지. 경 콩밥 행 맥이곡, 여자덜이 저갓주게.(물은 동이로 사람들 저 흑질 하는 데, 저 물 저가는 사람들 천지. 그렇게 콩밥 해서 먹이고, 여자들이 저갓지요.)

108001 #2 다 여자덜 거시기 킬민 다 저웁니다게, 물게. 물 저오민 물 받아근에 막 흑더레 비와놓고, 그 검질, 보리낭이영 뉘 짝이영 무싱거 막 뿌려근에 불립주 게.(다 여자들 거시기 말하면 다 저웁니다, 물게. 물 저오면 물 받아서 마구 흑으로

부어넣고, 그 검불, 보릿짚하고 뭐 짚하고 무엇 마구 뿌려서 밟지요.)

108001 @ 경 험에 집 멩글앗구나양.(그렇게 해서 집 만들었구나.)

108001 #2 예, 경 해네 그걸로 여끄멍, 그걸로 불르곡 해근에, 경 해근에 막 블라나거든 서리 걸쳐근에, 따로 서리 곳을 그 서슬<sup>219)</sup> 이젠 흘 거 아니짱? 흐여난 다음에 따로 흑으로 그자 그 서리 걸친 우로 우에 그냥 문짝하게 메집주게. 경 해근에 새로 더꿍주게, 새로 더꺼근에, 다음은게 줄 서너 개 줄 놉근에, 저 줄을 짓엉, 경 해근에 줄 처근에 맵주게.(예,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엮으면서, 그것으로 밟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마구 밟아나거든 서까래 걸쳐서, 따로 서까래 가를 그 ‘서슬’ 이젠 할 거 아닙니까? 해난 다음에 띠로 덮지요, 띠로 덮어서, 다음은 줄 서너 개 줄 놓아서, 저 줄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줄 쳐서 매지요.)

108002 @ 거민 집 종류는 어떤 집덜 잇어수과?(그러면 집 종류는 어떤 집들 잇었습니까?)

108002 #1 이견 이간 막살이 기냥 스간.(이견 이간 오막살이 그냥 사간.)

108002 @ 아니, 거난 집 종류는 뭐 초가?(아니, 그러니까 집 종류는 뭐 초가?)

108002 #1 초가, 그거주게.(초가, 그거지요.)

108002 @ 초가집베끼 엿어나수과? 여기.(초가집밖에 없었습니까? 여기.)

108002 #1 예.(예.)

108002 #2 초가집, 여기 초가집벧기 엿어수다게.(초가, 여기 초가밖에 없었습니까.)

108002 #1 옛날엔 초가집이주, 다.(옛날에는 초가지, 다.)

108002 #2 옛날엔.(옛날에는.)

108002 @ 초가집은 흑흑고 돌?(초가는 흑흑고 돌?)

108002 #2 흑흑곡 돌흑곡양, 백 싸아올리곡 해근에.(흑흑고 돌하고, 백 쌓아올리고 해서.)

108002 #1 존, 예점 흐 돌로.(잔, 보통으로 한 돌로.)

108003 @ 집채 종류는 어떤 거 잇수과? 집채 종류.(집채 종류는 어떤 거 잇습니까? 집채 종류.)

108003 #2 집채 종류?(집채 종류?)

108003 @ 예. 아, 거난 집채 종류 흐민 안거리.(예. 아, 그러니까 집채 종류 하면 안채.)

108003 #1 밖거리.(바깥채.)

108003 #2 안거리, 밖거리.(안채, 바깥채.)

108003 #1 이간막살이, 스칸집.(이간오막살이, 사간집.)

108003 @ 거난 안거리, 밖거리 그다음엔.(그러니까 안채, 바깥채 그다음에는.)

108003 #2 안거리, 밖거리.(안채, 바깥채.)

108003 @ 그다음엔 모커리.(그다음에는 곁채.)

219) ‘서슬’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이다.

108003 #2 동모커리, 동쪽으로 거시기 혜근에짓은 건 동모커리고, 서로 짓엉 거세기 서모커리고, 앞으로 흐민 건 기냥 모커리, 기냥 밖거리.(동결채, 동쪽으로 거시기 해서 지은 건 동결채고, 서로 지어서 거시기 서결채고, 앞으로 하면 건 그냥 결채, 그냥 바깥채.)

108003 #1 쉼막사리 잇곡.(외양간 잇고.)

108003 #2 경 쉼막사린, 또 쉼막사리, 따로 쉼막사리엔 흐고.(그렇게 외양간은, 또 외양간, 따로 외양간이라고 하고.)

108003 @ 안거리에는 누게가 주로 살았수과(안채에는 누구 주로 살았습니까?)

108003 #1 어멍, 아방.(어머니, 아버지.)

108003 #2 안거리에는 보통 어멍, 아방이 삼주게.(안채에는 보통 어머니, 아버지가 살지요.)

108003 @ 밖거리엔.(바깥채에는.)

108003 #2 밖거리에는 그냥 그 자식들, 예를 들어 말흐민 결혼흐곡 흐민 자식들.(바깥채에는 그냥 그 자식들, 예를 들어 말하면 결혼하고 하면 자식들.)

108003 #1 자식, 늬도 빌려주고.(자식, 남도 빌려주고.)

108003 #2 늬도 빌려주고.(남도 빌려주고.)

108003 @ 모커리에는.(결채에는.)

108003 #1 모커리나 밖거리나 마찬가지로.(결채나 바깥채나 마찬가지.)

108003 @ 모커리에는 무슨 창고로 썼수광?(결채에는 무슨 창고로 썼습니까?)

108003 #2 창고, 창고 쓰는 건 따로, 따로 합니다.(창고, 창고 쓰는 건 따로, 따로 합니다.)

108003 #1 쉼막사리 옆의 창고가 있어.(외양간 옆에 창고가 있어.)

108003 #2 쉼막사리 옆의.(외양간 옆에.)

108003 @ 계난 모커리 흐민 밖거리나 마찬가지?(그러니까 결채 하면 바깥채나 마찬가지?)

108003 #1 예.(예.)

108003 #2 예, 밖거리나 서 모커리나 동 모커리나.(예, 바깥채나 서 결채나 동 결채나.)

108003 #1 밖거리 잇이민 서모커리로 앓곡, 동모커리 앓곡, 밖거리로도 앓지. 경흐 마당 안에 네 커리 앓진 사람이 드물주게. 계민 집도 두 거리민 ㅋ똥흐게, 이거 스간.(바깥채 업으면 '서결채'로 앓고, '동결채'로 앓고, 바깥채로 앓지. 그렇게 한 마당 안에 네 채 앓은 사람이 드물지요. 그러면 집도 두 채면 가지런하게, 이거 스간.)

108003 @ 계문 집이 네 개 있다면은 흐나는.(그러면 집이 네 개 있다면 하나는.)

108003 #1 서모커리.(‘서결채’.)

108003 @ 응.(응.)



108003 #1 딱시 저 스칸집, 저 큰 집 두 개 골르랭이 나란이 저 앞뒤 들어가게 나란이 두 개 잇는 집. 하나만 잇는 집, 서모커리, 동모커리 잇는 집, 경 흐주게, 스칸집.(다시 저 사칸집, 저 큰 집 두 개 같이 나란히 저 앞뒤 들어가게 나란히 두 개 잇는 집, 하나만 잇는 집, ‘서결채’, ‘동결채’ 잇는 집, 그렇게 하지요, 사칸집.)

108003 #2 경 안팍거리 짓어근에, 동모커리, 서모커리, 집 네 채가 돼는 겹주게, 작아도.(그렇게 안채와 바깥채 지어서, ‘동결채’, ‘서결채’, 집 네 채가 되는 거지요, 적어도.)

108003 @ 뭐 뭐? 안거리.(뭐 뭐? 안채.)

108003 #2 안거리, 밖거리.(안채, 바깥채.)

108003 #1 쉼막살이.(외양간.)

108003 #2 동모커리, 서모커리, 딱로 쉼막은 딱로 흐고, 쉼막이 잇이민 쉼 질루는 디, 쉼 멜 디 따로 거시기 해뒤근에.(‘동결채’, ‘서결채’, 따로 외양간은 따로 하고, 외양간이 있으면 소 기르는 데, 소 멜 데 따로 거시기 해뒤서.)

108003 #1 백연<sup>220</sup>.(‘백연’.)

108003 #2 하간거 놓는, 그 물건 같은 거 놓는 것이.(온갖 거 놓는, 그 물건 같은 거 놓는 것이)

108003 #1 건 백연이엔 곱읍주.(건 ‘백연’이라고 말하지.)

108004 @ 삼칸집 짓는 과정에 대해서 혼 번 말해보셔.(삼칸집 짓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8004 #2 삼칸집이엔 혼 건양, 상마루 딱 흐게 상마루 짓영 집 짓어가는 디, 상마루 딱 흐게 올리민, 게난 그 상마루 하나에 이 포 해서 그 포가양, 똑 두 개 들어갑니다. 게민 그거 포 하나가 하나 스이에 혼 커리, 두 커리, 경 흐연 삼 커리.(삼칸집이라고 한 건요, 용마루 딱 하게 지어서 집 지어가는 데, 용마루 딱 하게 올리면, 그러니까 그 용마루 하나에 이 보 해서 그 보가요, 똑 두 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 보 하나가 하나 사이에 한 채, 두 채, 그렇게 해서 세 채.)

108004 @ 삼칸집.(삼칸집.)

108004 #2 삼칸집, 한 칸, 두 칸, 세 칸 집이.(삼칸집, 한 칸, 두 칸, 세 칸 집이.)

108004 @ 거난 포 해서.(그러니까 보해서.)

108004 #2 포 두 개 봐근에게, 그 사이에 하나, 하나씩, 또 세 개 나옵주게. 게민게 그 삼칸(보 두 개 놓아서, 그 사이에 하나, 하나씩, 또 세 개 나오지요. 그러면 그 삼 칸.)

108004 @ 삼칸집양.(삼칸집요.)

108004 #2 예.(예.)

108005 @ 게난 집 짓젠 흐민 주춧돌.(그러니까 집 지으려고 하면 주춧돌.)

108005 #2 주춧돌은양, 볏아근에 벌러근에.(주춧돌은요, 밝아서 깨어서.)

220) ‘백연’은 외양간 한 칸에 각종 농기구들을 놓는 곳을 일컫는다.

108005 @ 주춧돌 몇 개 놓니까?(주춧돌 몇 개 놓습니까?)

108005 #1 네 개.(네 개)

108005 #2 지춧돌게 처음 무싱거 집 짓을 땐 네 개 해근에, 지둥 네 개 세울 거 아니짱? 경 해근에 딱로 딱로, 다음은 건 네 개, 다음은 지춧돌 아무거나 되는 냥 멘드라근에 세웁니다게. 쟁 지춧돌 생각흐민.(주춧돌 처음 무엇 집 지을 때는 네 개 해서, 기둥 네 개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 따로, 다음은 건 네 개, 다음은 주춧돌 아무거나 되는 대로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렇게 주춧돌 생각하면.)

108005 #1 네 개라게? 네 개.(네 개인가? 네 개.)

108005 #2 넷, 다섯, 으섯, 일곱, 으답.(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8005 #1 구들 앞의, 마리 앞의, 정지 앞의.(방 앞에, 마루 앞에, 부엌 앞에.)

108005 #2 흔 아홉 개, 열 개 들어갑니다게. 지춧돌 전부.(한 아홉 개, 열 개 들어갑시다. 주춧돌 전부.)

108005 @ 거민 지둥도 한 아홉 개 뒤텔네?(그러면 기둥도 한 아홉 개 되겠네?)

108005 #2 예, 지둥도 것이 막 크지 안 해도게.(예, 기둥도 것이 아주 크지 안 해도요.)

108005 @ 주춧돌 위에 흐는 냥이 지둥이난에, 거민 주춧돌이 네 개면은 지둥도 네 개.(주춧돌 위에 하는 나무가 기둥이니까, 그러면 주춧돌이 네 개면은 기둥도 네 개.)

108005 #1 예.(예.)

108005 #2 예.(예.)

108005 @ 그다음에 그 주춧돌이 뭐 여덟 개면은 거 지둥도 여덟 개.(그다음에 그 주춧돌이 뭐 여덟 개면은 거 기둥도 여덟 개.)

108005 #2 예.(예.)

108005 @ 거난 홀수로는 안 들어 가쿠다. 지둥이 집 뒤텔 흐민 짝수가 돼야 돼니까.(그러니까 홀수로는 안 들어 가겠습니다. 기둥이 집 되려고 하면 짝수가 돼야 되니까.)

108005 #1 경흐민 마라도 주춧돌 세와근에 지둥 세운 디도 있고, 경 흡디다게.(그러면 마루도 주춧돌 세워서 기둥 세운 데도 있고, 그렇게 합디다.)

108005 @ 경흐민 지둥 세우면, 지둥 세우면은 지둥하고 지둥 사이에 놓는 냥을 뒤텔 흡니까?(그러면 기둥 세우면, 기둥 세우면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놓는 나무를 뒤텔라고 합니까?)

108005 #1 ㄱ른새<sup>221</sup>.(‘ㄱ른새’.)

108005 #2 ㄱ른새엔.(‘ㄱ른새’라고.)

108005 @ 거민 무신 냥, 이름 며영 흐여.(그러면 무슨 나무, 이름 뒤텔라고 해.)

108005 #1 소냥 그.(소나무 그.)

108005 @ 포엔 허지 안 흡니까?(보라고 하지 안 합니까?)

221) ‘ㄱ른새’는 가로로 보내지는 외이다.

108005 #2 포는.(보는.)  
 108005 #1 우의 거주.(위에 거지.)  
 108005 #2 우의 집 짓을 포 두 개헤근에 지둥 네 개 세우면, 그거 포 똑 두 개 들어러잡니다게. 게민게 포 두 개민, 삼칸집이민 두 개, 사칸집이민 두 개 것이 아니라, 사칸집이 돼어 가민 딱로 포 하나가 더들어가곡, 경 흠니다.(위에 집 지을 보 두 개해서 기둥 네 개 세우면, 그거 보 두 개 들어잡니다. 그러면 보 두 개면, 삼칸 집이민 두 개, 사칸집이민 두 개 것이 아니라, 사칸집이 돼 가면 따로 보 하나가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108005 @ 포 우에는 또 머팡?(보 위는 또 뭘니까?)  
 108005 #2 포 우에는 무신, 거기는 그 서리 골으곡, 뭘 하는 거 골은 뭇이 들어잡니다게.(보 위는 무슨, 거기는 그 서까래 같고, 뭘 하는 거 같은 뭇이 들어잡니다.)  
 108005 @ 머마썸?(뭘예요.)  
 108005 #1 낭.(낭.)  
 108005 #2 낭, 츠낭.(나무, 참나무.)  
 108005 @ 무슨 낭?(무슨 나무?)  
 108005 #2 낭.(나무.)  
 108005 #1 집 짓는 낭.(집 짓는 나무.)  
 108005 @ 명칭은 머엿 험니까?(명칭은 뭘라고 합니까?)  
 108005 #2 명칭은. (웃음)(명칭은.)  
 108005 #1 (웃음) 하도 오래노난.(아주 오래되니까.)  
 108005 @ 계난 쥬 꼭대기에 잇는 낭은 머팡?(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잇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108005 #2 제일 꼭대기엔 상마루.(제일 꼭대기에는 용마루.)  
 108005 #1 상마루.(용마루.)  
 108005 @ 상마루양, 그다음에 거기 포 우에 세우는 낭이 잇고, 그다음에.(용마루, 그다음에 거기 보 위에 세우는 나무가 잇고, 그다음에.)  
 108005 #2 중마르 잇곡.(중도리 잇고.)  
 108005 @ 그다음에 그.(그다음에 그.)  
 108005 #1 대들포, 대들포.(대들보, 대들보.)  
 108005 #2 대들폰게 그.(대들보네요 그.)  
 108005 @ 이 영영 세우는 것을 우리 아까 머엿 헤서마썸.(이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 아까 뭘라고 했어요.)  
 108005 #2 아,`그건 서레.(아, 그건 서까래.)  
 108005 @ 서레.(서까래.)  
 108005 # 2 예, 서슬, 거 집 우의 거.(예, '서슬', 거 집 위에 거.)  
 108005 @ 서레엔 험니까? 서슬이엿 험니까?(서까래라고 합니까? '서슬'이라고

합니까?)

108005 #2 서슬이엔 혼 건양, 우의 머.(산자라고 한 건요, 위에 뭐.)

108005 #1 더끄는 거.(덜는 거.)

108005 #2 존 거.(잔 거.)

108005 @ 존존 혼 것이 서슬.(자잘한 것이 산자.)

108005 #2 서슬 해나근에 올립주게, 경 흐여근에 새 더꺼근에.(산자 해나서 올리 지요, 그렇게 해서 떠 덜어서.)

108005 @ 거난 영 흐는 것은 서래.(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서까래.)

108005 #2 서리.(서까래.)

108005 @ 서리 그 서리 영영 주위로 영 흐는 낭, 거 줄 메는 낭은 머엔 흡니까?(서까래 그 서까래 이렇게이렇게 주위로 이렇게 하는 나무, 거 줄 메는 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108005 #2 줄 메는 거는.(줄 매는 거는.)

108005 #1 서슬가지 아니파?(발비 아십니까?)

108005 @ 줄 매는 거.(줄 매는 거.)

108005 #2 줄 매는 거는 건 무슨.(줄 매는 거는 건 무슨.)

108005 @ 서까래?(서까래?)

108005 #1 아니, 서까래가 아니고.(아니, 서까래가 아니고.)

108005 @ 서까래, 머파? 서까래.(서까래, 무엇입니까? 서까래.)

108005 #2 아이고 머 그때 자꾸 말 해나신디, 서슬, 아 서슬.(아이고 뭐 그때 자꾸 말 했었는데, 산자, 아 산자.)

108006 @ 거민양, 외 알아지쿠과? 외.(그러면요, 외 알아지겠습니까? 외.)

108006 #1 무신 외.(무슨 외.)

108006 @ 산자, 인방, 반자틀.(산자, 인방, 반자틀.)

108006 #2 반자, 반자 그거는.(반자, 반자 그거는.)

108006 @ 반자틀.(반자틀.)

108006 #2 반자.(반자.)

108006 @ 반자, 반자. 거난에 이 서슬을 이제 여끌 거 아니파? 여끌 때 멀로 여꺼수과?(반자, 반자. 그러니까 이 '서슬'을 이제 엮을 거 아십니까? 엮을 때 무엇으로 엮었습니까?)

108006 #1 노끈으로, 노끈하고 소낭.(노로 된 끈으로, 노로 된 끈하고 소나무.)

108006 @ 무슨 노끈, 멀로 멩근 거.(무슨 노로 된 끈, 무엇으로 만든 거.)

108006 #1 배로, 노끈 파근에.(참바로, 노로 된 끈 꼬아서.)

108006 @ 멀로 멩근 거.(무엇으로 만든 거.)

108006 #1 짝으로, 짝으로 배 팡 그걸로 여깃주게.(짚으로, 짚으로 참바 꼬아서 그것으로 엮었지요.)

108006 #2 짝으로 여깃니다.(짚으로 엮습니다.)

- 108006 @ 여꺼근에 거기에 이제.(엮어서 거기에 이제.)
- 108006 #1 새 더끄곡.(띠 덮고.)
- 108006 @ 흑을.(흙을.)
- 108006 #1 흑을 메겨냥 서슬, 서슬.(흙을 칠해 놓아서 ‘서슬’, 서슬.)
- 108006 #2 건 그싸 판넬 흑는 거는 그 가메 집 밑에 널판 깔지 안 흡니까게?  
그 판자엔 혼 것이 가메 밑에 잇는 거.(건 아까 판넬 하는 거는 그 가마니 집 밑에  
널판지 깔지 안 합니까요? 그 판자라고 한 것이 가마니 밑에 잇는 거.)
- 108006 @ 흑 불를 땀 멀로 불라.(흙 바를 때는 무엇으로 발라.)
- 108006 #2 흑 불를 때?(흙 바를 때?)
- 108006 #1 날라당 흡주.(날라다가 하지요.)
- 108006 #2 흑 불를 때 날라다근에 사름 손으로 불르주.(흙 바를 때 날라다가 사  
람 손으로 바르지.)
- 108006 #1 사드래 놔뒤서 올라가민 아래서 앓아주곡.(사닥다리 놓아뒤서 올라가  
면 아래서 가져주고.)
- 108006 @ 탁탁 던정?(탁탁 던져서?)
- 108006 #1 굴체로 담아당 주곡.(삼태기로 담아다 주고.)
- 108006 #2 담아당주민 손으로 전부 부찌지게.(담아다가주면 손으로 전부 붙이  
지.)
- 108006 #1 전부 착착, 지금은.(전부 착착, 지금은.)
- 108006 #2 묵 흑여근에 영 톱 그레 올리문 톱 말아근에 그걸 삭삭 불릅주게.(묵  
해서 이렇게 톱 그리로 올리면 톱 말아서 그것을 삭삭 바르지요.)
- 108006 #1 경 헨게, 어디 강 보난.(그렇게 했어요, 어디 가서 보니까.)
- 108007 @ 그 방에 대해근에 물어보쿠다양, 방.(그 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
- 108007 #2 예.(예.)
- 108007 @ 자 방은 우선 그 방 종류 혼 번 말해봅써. 방, 방에는 어떤 방들.(자  
방은 우선 그 방 종류 한 번 말해보십시오. 방, 방에는 어떤 방들.)
- 108007 #1 죽은구들, 큰구들.(작은방, 큰방.)
- 108007 #2 큰구들, 죽은구들.(큰방, 작은방.)
- 108007 #1 고랑캐구들<sup>222</sup>.(‘고랑캐구들’.)
- 108007 #2 고랑캐, 조그만 혼 건 고랑캐구들이엔 흑곡, 큰구들, 죽은구들, 그다  
음은 마루방, 머 옷정지 머 독정지엔도 흑곡.(‘고랑캐’, 자그만 한 건 ‘고랑캐구들’이  
라고 하고, 큰방, 작은방, 그다음 마루방, 뭐 윗부엌 뭐 독부엌이라고도 하고.)
- 108007 #1 옛날 부엌도 크난게.(옛날 부엌도 크니까요.)
- 108007 @ 이 저 괴, 괴는 어디 낫수과?(이 저 퀘, 퀘는 어디 놓았습니까?)
- 108007 #1 백장.(벽장.)

222) ‘고랑캐구들’은 부엌 입구 옆에 위치한 아주 작은 방을 일컫는다.

108007 #2 백장, 구들 백장.(벽장, 방 벽장.)  
 108007 #1 구들 백장 우의.(방 벽장 위에.)  
 108007 @ 그다음에 그 이런 위에 영 만든 건 머짱? 무신 옷덜 놓는 거.(그다음에 그 이런 위에 이렇게 만든 건 뭐입니까? 무슨 옷들 놓는 거.)  
 108007 #2 그 우의 놓는 것이.(그 위에 놓는 것이.)  
 108007 #1 다락방.(다락방.)  
 108007 #2 다락방이 아이고.(다락방이 아니고.)  
 108007 @ 시렁?(시렁?)  
 108007 #2 거 무슨 머옌 혼다만은.(거 무슨 뭐라고 한다만.)  
 108007 #1 백장 우의 무사 옷 놓는 거 섯수과? 옛날 초가집에사.(벽장 위에 왜 옷 놓는 거 있었습니까? 옛날 초가에야.)  
 108007 @ 그냥 저 판자 하나 영 낳으네.(그냥 저 판자 하나 이렇게 놓아서.)  
 108007 #1 거는 옷 놓는 것이 백장 우의 퀘 두 개에도 놓곡, 죽은구들 아래도 놓곡 해주게. 옷 놓는 것이 따로 엇어수다. 옛날에 초가집.(거는 옷 놓는 것이 벽장 위에 퀘 두 개에도 놓고, 작은방 아래도 놓고 했지요. 옷 놓는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옛날에 초가.)  
 108007 @ 거난 구들에 보면은 백장은 다 잇엇고, 거기에 이제 퀘 놓고, 그다음에 머 놓고, 이불?(그러니까 방에 보면 벽장은 다 잇엇고, 거기에 이제 퀘 놓고, 그다음에 뭐 놓고, 이불?)  
 108007 #1 이불게, 이불 율더레도 놓곡, 퀘 우트레도 놓곡, 이불도 하수과? 퀘 우트레도 올려놓곡.(이불요, 이불 옆으로도 놓고, 퀘 위로도 놓고, 이불도 많습니까? 퀘 위로도 올려놓고.)  
 108007 @ 퀘 우트렌 저 바농상지?(퀘 위로는 저 바느질고리.)  
 108007 #1 바농상진 아래도 놓곡, 아무 디라도 놓곡, 이불 개영 올려놔수게게. 아래 내불민 줍으난.(바느질고리는 아래도 놓고, 아무 데라도 놓고, 이불 개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아래 내버리면 줍으니까.)  
 108007 #2 예, 엇이민 엇인 데로.(예, 없으면 없는 데로.)  
 108007 #1 살앗주게, 왕골 짓영 짚곡, 굴묵<sup>223</sup> 짚곡, 바닥은.(살았지요, 왕골 지어서 깔고, ‘굴묵’ 때고, 바닥은.)  
 108007 @ 이 막 이 부엌에서 불 때면은 요 딱뜻흔 디를 머옌 흡니까?(이 마구 이 부엌에서 불 때면 요 따뜻한 데를 뭐라고 합니까?)  
 108007 #1 온돌.(온돌.)  
 108007 @ 아니, 거난 딱뜻흔 부분을 구들에서.(아니, 그러니까 따뜻한 부분을 방에서.)  
 108007 #1 구들에 온돌방.(방에 온돌방.)  
 108007 @ 아, 온돌방인디 구들에서 이 딱뜻흔 디를 머옌 흡니까?(아, 온돌방인

223)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데 방에서 이 따뜻한 데를 뭐라고 합니까?)

108007 #2 구들방 따뜻하 디.(방 따뜻한 데.)

108007 #1 그건 온돌방인디, 이것이 부엌 아니짜? 거민 이건 방 아니짜? 올로 불 솥으민 온돌 행 요기만 멘도롱혀. 다른 딴 멘도롱 안 하고.(그건 온돌방인데, 이것이 부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방 아닙니까? 요쪽으로 불 때면 온돌 해서 요기만 따뜻해. 다른 데는 따뜻 안 하고.)

108007 @ 게메, 그 멘도롱흔 디를 며엔 하여마썸?(글쎄, 그 따뜻한 데를 뭐라고 해요?)

108007 #1 온돌방이엔 해주게.(온돌방이라고 했지요.)

108007 @ 멘도롱흔 디, 거난 멘도롱흔 디가 잇고, 차가운 디가 잇거든.(따뜻한 데가 있고, 차가운 데가 있거든.)

108007 #1 건 차가운 디, 그 방은 저 온돌방이엔.(건 차가운 데, 그 방은 저 온돌방이라고.)

108007 @ 윗목, 아랫목은 안 해수과?(윗목, 아랫목은 안 했습니까?)

108007 #1 엇어, 엇어. 기자 아이고, 굴목 짓는 디 바른 아궁이를 솥는 딴 온돌방, 그딴 어른이나 눅찌고, 아이덜이나 눅찌고.(없어, 없어. 그저 아이고, ‘굴목’ 때는 데 바른 아궁이를 불 때는 데는 온돌방, 거기는 어른이나 눅히고, 아이들이나 눅히고.)

108007 @ 아이 게나네, 그 구들 전체가, 방이 구들인데.(아이 그러니까, 그 방 전체가, 방이 ‘구들’인데.)

108007 #1 뜨스 디가 흔 밧디뿐, 밧자리, 안자리 해주,(따스운 데가 한 군데뿐, 윗목, 아랫목 했지.)

108007 @ 응?(응?)

108007 #1 밧자리, 안자리. 뜨스 딴 안자리, 언 딴 밧자리, 일름이.(윗목, 아랫목. 따스운 데는 아랫목, 추운 데는 윗목, 이름이.)

108007 @ 게난 따뜻하 딴 머?(그러니까 따뜻한 데는 뭐?)

108007 #1 안자리.(아랫목.)

108007 @ 차가운 딴?(차가운 데는?)

108007 #1 차가운딴 밧자리. (웃음) 나가 그거 생각납디다게. 밧자리, 안자리.(차가운 데는 윗목. (웃음) 나가 그거 생각납디다. 윗목, 아랫목.)

108008 @ 마루에 대행 물어보쿠다양.(마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8008 #1 마리는 널 마리게.(마루는 널빤지 마루.)

108008 @ 그 무슨 마리마썸?(그 무슨 마루요?)

108008 #1 널로 해주, 요 너기방장흔.(널빤지로 했지, 요 네모반듯한.)

108008 @ 그 마루 며엔 하여마썸?(그 마루 뭐라고 해요?)

108008 #1 마루는 마리에 이제는 삼방이엔, 육지 사름덜 삼방, 삼방. 옛날 마리주게. 경흐민 널착이, 이추룩 진 널착이 드몰어. 게민 너기반듯흔 널착입디다게. 경

행 알로 돌 바퇴근에, 아랜 허덩챙이꼭 돌 바탕 널착 놔십디다.(마루는 마루에 이제 는 삼방이라고, 육지 사람들 삼방, 삼방. 옛날 마루지요. 그러면 널빤지가, 긴 널빤 지가 드물어. 그러면 네모반듯한 널쪽입디다. 그렇게 해서 알로 돌 받쳐서, 아래는 헛공간이고 돌 받쳐서 널쪽 놓았습디다.)

108008 @ 거난 돌 바투곡, 그다음에.(그러니까 돌 받치고, 그다음에.)

108008 #1 진 낭 놓곡.(긴 나무 놓고.)

108008 @ 영영 논 낭은 머옌 허여?(이렇게이렇게 놓은 나무는 뭐라고 해?)

108008 #1 진 낭 놔십디다. 그냥 그자 굴무기낭.(긴 나무 놓았습디다. 그냥 그저 느티나무.)

108008 @ 영 놔근에 널 받지 안 흡니까?(이렇게 놓아서 널빤지 받지 안 합니 까?)

108008 #1 그걸 무신 낭이옌.(그것을 무슨 나무라고.)

108008 @ 귀클?(귀틀?)

108008 #1 귀클옌사 해신디, 머옌사 해신디.(귀틀이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108008 @ 귀클옌 흡니까?(귀틀이라고 합니까?)

108008 #1 귀클은 아니고, 그냥 그걸 마리에.(귀틀은 아니고, 그냥 그것을 마루 에.)

108008 @ 귀클은 머짱?(귀틀은 뭐입니까?)

108008 #1 귀클은 집 지슬 때 스방에 들어가는 낭.(귀틀은 집 지슬 때 사방에 들어가는 나무.)

108008 #2 귀클이옌 흔 건게, 마루에 이추룩 낭 놀 거 아이짱? 전원 그거.(귀틀 이라고 한 건요, 마루에 이처럼 나무 놓을 거 아닙니까? 전에는 그거.)

108008 @ 거난 영, 영영 놔야 여기에.(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아야 이렇게.)

108008 #2 낭 아래 이거 귀클 영 놔근에, 이걸로 해가지고.(나무 아래 이거 귀틀 이렇게 놓아서, 이걸로 해가지고.)

108008 #1 돌 바퇴십디다게.(돌 받쳐있었습니다.)

108008 @ 거난 돌 위에 귀클 놔근에, 그 위에 널을 박는 거 아니짜?(그러니까 돌 위에 귀틀 놓아서, 그 위에 널빤지를 박는 거 아닙니까?)

108008 #2 예.(예.)

108008 #1 우리 집 고찌멍 마릴 문딱 그 안에 개조호젠 호난, 초가집 트덩 고찌 는 디 보난, 아래 돌 바퇴근에 기자 영 놔네, 기자 넓작넓작흔 널착 그자 그레 탁탁 바탕만 내붙어십디다게. 무신 낭인처린 모르고.(우리 집 고치면서 마루를 모두 그 안에 개조하려고 하니까, 초가 뜯어서 고치는 데 보니까, 아래 돌 받쳐서 그저 이렇게 놓아서, 그저 넓적넓적한 널쪽 그저 그리로 탁탁 받쳐만 내버려있습디다.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고.)

108008 @ 거난 그 명칭을, 명칭은 귀클.(그러니까 그 명칭을, 명칭은 귀틀.)



108008 #1 귀클일 거우다, 귀클.(귀틀일 것입니다, 귀틀.)  
 108008 @ 귀클.(귀틀.)  
 108008 #1 예, 귀클.(예, 귀틀.)  
 108008 @ 그 귀클이엔 흡니께, 이 저 영영.(그 귀틀이라고 합니다, 이 저 이렇게이렇게.)  
 108008 #1 예, 진 거.(예, 긴 거.)  
 108008 @ 귀클, 그걸 놔야 널을 박을 거니까.(귀틀, 그것을 놓아야 널빤지를 박을 거니까.)  
 108008 #1 마리 졸바로 아니해 논 건 사름 걸어가민 문글락.(마루 제대로 아니해 놓은 것은 사름 걸어가면 흔들.)  
 108008 #2 경 해근에 마루 널 영 우트레 더깝니다게.(그렇게 해서 널빤지 이렇게 위로 덮습니다.)  
 108008 #1 예, 경흐민 들그락들그락 소리 냅.(예, 그러면 들그락들그락 소리 냅어.)  
 108008 @ 옛날 그 마레, 마리엔 흡니까? 마레엔 흡니까?(옛날 그 마루, 마루라고 흡니까? 마루라고 흡니까?)  
 108008 #1 마리, 마리.(마루, 마루.)  
 108008 @ 마리?(마루?)  
 108008 #1 삼방고라 마리엔 헛주게, 가운데. 구들 양편의 잇고.(대청더러 마루라고 헛지요, 가운데. 방 양편에 잇고.)  
 108008 #2 마루, 마루.(마루, 마루.)  
 108008 @ 거난 마레, 마루?(그러니까 마루, 마루.)  
 108008 #1 마리.(마루.)  
 108008 @ 마리?(마루?)  
 108008 #1 옛날 마리에 갈아, 경.(옛날 마루에 갈아, 그렇게.)  
 108008 @ 그 마리.(그 마루.)  
 108008 #1 어른만 앓는 디주게, 마린.(어른만 앓는 데지요, 마루는.)  
 108008 @ 거면은 그 마리 널은 무슨 낭으로 멩글아수과?(그러면 그 마루 널빤지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108008 #1 자귀낭도 잇곡, 거 집안에 따라근에 옛날엔 자귀낭이 하.(자귀나무도 잇고, 거 집안에 따라서 옛날에는 자귀나무가 많아.)  
 108008 #2 보통, 보통 예, 그 무슨 낭이냐 하면은 거시기 저 반두어리.(보통, 보통 예, 그 무슨 나무냐 하면은 거시기 저 후박나무.)  
 108008 @ 양?(예?)  
 108008 #2 반두어리엔 흐는가?(후박나무라고 하는가?)  
 108008 @ 츠낭허지 안 헛수과?(참나무 하지 안 했습니까?)  
 108008 #2 츠낭이 아니고, 거 이 넷가에 가면은 옛날 그 흘근 낭덜 잇지 안 흐

으썩게.(참나무가 아니고, 거 이 냇가에 가면은 옛날 그 굵은 나무들 있지 안 합니까.)

108008 @ 츠낭?(참나무?)

108008 #1 츠낭, 츠낭.(참나무, 참나무.)

108008 #2 츠낭이 아이주게, 츠낭은 무신 에 반두어리엔 흡니다게, 에 그.(참나무가 아니지요, 참나무는 무슨 에 후박나무라고 합니다, 에 그.)

108008 @ 다시 혼 번 곶아봅서.(다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8008 #1 반두어리.(후박나무.)

108008 #2 반두어리마썸.(후박나무요.)

108008 @ 반두어리?(후박나무?)

108008 #2 예, 반두어리 냇.(예, 후박나무.)

108008 #1 예, 이제 반두어리 냇이 어디 있어.(예, 이제 후박나무가 어디 있어.)

108008 @ 반두어리? 음.(후박나무? 음.)

108008 #2 그거 거시기 주로 그 냇.(그거 거시기 주로 그 나무.)

108008 #1 쫄랑, 깎아근에.(잘라서, 깎아서.)

108008 #2 마루 거시기 널 냇은 주로 그 냇이우다.(마루 거시기 널빤지 나무는 주로 그 나무입니다.)

108008 #1 깎앙, 대패로 깎앙 멘썩헛게.(깎아서, 대패로 깎아서 평평하게.)

108008 #2 옛날 집은 다 그거, 그 냇.(옛날 집은 다 그거, 그 나무.)

108008 #1 마리 널은.(마루 널빤지는.)

108008 #2 그 널, 그 냇 끈어근에 그거 이제 흘근 도끼로 이제 막 그 냇을 깨거든게, 납작납작헛게 깨어놔근에 그것이 이제 자귀로 닥닥 까끄멍게.(그 널빤지, 그 나무 끊어서 그거 이제 굵은 도끼로 이제 마구 그 나무를 깨거든요, 납작납작하게 깨어놓아서 그것이 이제 자귀로 닥닥 깎으면서.)

108008 #1 대패로 밀곡, 대패로 밀곡.(대패로 밀고, 대패로 밀고.)

108008 #2 그거 마루 놓는 거주게.(그거 마루 놓는 거지요.)

108008 @ 옛날 그 저 대패론 안 혼 거 닥고, 옛날 자귀로.(옛날 그 저 대패론 안 한 거 닥고, 옛날 자귀로.)

108008 #1 자귀로 해도 대패도 있어수다. 집 짓는 디 보난 목시안티.(자귀로 해도 대패도 있었습시다. 집 짓는 데 보니까 목수한테.)

108008 #2 대패도 잇주만은.(대패도 잇지만은.)

108008 #1 멘썩 헛젠 헛민 대패로 막 밍디다게, 옛날.(평평 하려고 하면 대패로 마구 밍디다, 옛날.)

108008 #2 거야게 멘썩 헛젠 대패로 밀젠 헛민 힘들주게.(거야 평평 하려고 대패로 밀려고 하면 힘들지요.)

108008 #1 우리 집 짓을 때 보난, 우리 이제 사는 집이 초가집이난 나 시집 온 후제 짓은 집이난 목시가 대패로 막 밍디다.(우리 집 지을 때 보니까, 우리 이제 사

는 집이 초가이니까, 나 시집 온 후에 지은 집이니까 목수가 마구 밍니다.)

108008 @ 지난 옛날 보면은, 귀클을 요러케 허면은 여기에 골을 파근에 여기에 담았어. 여기 이 정도 귀클 있고.(그러니까 옛날 보면은, 귀틀을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 골을 파서 여기에 담았어. 여기 이 정도 귀틀 있고.)

108008 #2 경 해근에 마룬 널을 옆으로 똑똑 끼왕 박아십주.(그렇게 해서 마루 널빤지를 옆으로 똑똑 끼워서 박았습니다.)

108008 @ 지난 옛날은 못이 엇일 때나네 순 그 이디 골 판에 이디 끼웁.(그러니까 옛날은 못이 없을 때니까 순 그 여기 골 파서 여기 끼워서.)

108008 #1 똑똑 끼왕 마주.(똑똑 끼워서 마주.)

108008 @ 옆으로 치면서, 지난 옛날 그 마루에 널은 상당히 널벗지양?(옆으로 치면서, 그러니까 그 마루에 널빤지는 상당히 넓었지요?)

108008 #2 예, 널버도 또 이 보통 이 정도 수준을.(예, 넓어도 또 이 보통 이 정도 수준을.)

108008 #1 뜯드레 가가민 좁은 걸 놓곡, 경 흡디다.(다른 데로 가가면 좁은 걸 놓고, 그렇게 합디다.)

108008 @ 그 마루는 주로 멀 헛수과?(그 마루는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108008 #1 아니, 어른덜만 앓는 디라. 남저, 남저덜 식계, 멩질 흘 때도 그디 앓곡, 마리에. 옛날 어른 집안에 방, 식계 젓상을 마리에 폐우는 집, 방에 폐우는 집 헛주게. 주로 양반의 집은 마리에 폐와, 쩡풍치곡.(아니, 어른들만 앓는 데야. 남자, 남자들 제사, 명절 할 때도 거기 앓고, 마루에. 옛날 어른 집안에 봐서, 제사 제상 마루에 퍼는 집, 방에 퍼는 집 헛지요. 주로 양반의 집은 마루에 퍼, 병풍 치고.)

108008 #2 경헛곡 영 보민 이 여름 나가민 주로 마리 주장헛영 삼니다게.(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여름 나가면 주로 마루 주장해서 살아요.)

108008 #1 정지 거기 걸 시작하는 디, 낭 강알에덜 앓곡.(부엌 거기 걸 시작하는데, 나무 아래에 앓고.)

108008 #2 마루에 가근에 그자 자리 폐와근에 뉘자곡 해십주게.(마루에 가서 그저 자리 퍼서 누워 자고 헛지요.)

108008 #1 여자덜은 마리에 가보지도 못 헛여. 식겅밥 ㄱ정 오라도 정지루만 어땡.(여자들은 마루에 가보지도 못 해. 제삿밥 가져서 와도 부엌으로만 어땡게.)

108009 @ 그 이제는 여자 삼춘 고폡, 고폡에 대해근에 곶아줍서.(그 이제는 여자 삼춘 고폡, 고폡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8009 #1 고폡은양, 이건 정지문 이건 마리 아이짱? 마린 일로 건녕 이 뒷방이 고폡이라. 경허민 통개 쭈런히 놔근에 곡석을 놓주게. 잇당 누구 주고, 이딘 앙토도 안 흘 그랑그랑<sup>224)</sup> 흘 디라. 안방엔 따로, 경허민 이건 부엌이곡, 이건 마리민 마리우녀 쩡의 뒷문 발라로 막 쑤데, 동드레 돌아앗지민 서르레 막 쑤데.(고방은요, 이건 부엌이면 이건 마루 아닙니까? 마루는 이리로 건너서 이 뒷방이 고폡이야. 그러

224) '그랑그랑'은 흙 조각 따위가 여럿 매달린 모양이다.

면 향아리 나란히 놓아서 곡식을 넣지요. 있다가 누구 주고, 여기는 앙토도 안 한 ‘그랑그랑’ 한 데야. 안방에는 따로, 그러면 이건 부엌이고, 이건 마루면 마루 위쪽 편에 뒷문 방향으로 아주 끝에, 동으로 돌아앉으면 서로 아주 끝에.)

108009 @ 이 부엌이엔 헵니까?(이 부엌이라고 합니까?)

108009 #1 이젠 부엌인데, 옛날 정지.(이젠 부엌인데, 옛날 부엌.)

108009 @ 예, 그럼 옛날 말로.(예, 그럼 옛날 말로.)

108009 #1 예, 옛날은 정지난, 요건 이 그싸 부엌, 정지 넘어, 마리 넘어 이거 고팡이라. 계민 요디 웨다지 문이라. 문 하나만, 문 두 개 든 집이 고팡 드물어. 큰 집이엔 해도. 우리 집의 친정엔 두 개 들앙 마주 영, 고팡 문을 마주 영 툇 채와불 곡 경 해낫주게. 경 흐는디 그디 항을 쭈런히 놔. 망데기영 무싱거영 그자 곡석 놓는 건 문딱 그디 강 놓주게. 가냥흐는 건 고팡이라. 시어멍 잘못 만나민 밧디 가멍 마주 두 개 널착 마리 툇 더경 툇 채와불민 메누린 배고파.(예, 옛날은 부엌이니까, 요건 이 아까 부엌, 부엌 넘어서, 마루 넘어서 고팡이야. 그러면 요기 외단이 문이야. 문 하나만, 문 두 개 단 집이 고팡 드물어. 큰 집이라고 해도. 우리 집에 친정에는 두 개 달라서 마주 이렇게, 고팡 문을 마주 이렇게 툇 채워버리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 독을 나란히 놓아. 옹기하고 무엇하고 그저 곡식 넣는 건 모두 거기 가서 놓지요. 보관하는 건 고팡이야. 시어머니 잘못 만나면 밧에 가면서 마주 두 개 널쪽 마루 툇 달아서 툇 채워버리면 며느리는 배고파.)

108009 @ 거난 고팡 안에는.(그러니까 고팡 안에는.)

108009 #1 쌀, 조, 나록, 곡석을 그 꿩에만 놓주게.(쌀, 조, 벼, 곡식을 그 고팡에만 놓지요.)

108009 @ 꿩?(고방?)

108009 #1 응, 고팡.(응, 고팡.)

108009 #2 고팡.(고방.)

108009 @ 고팡이엔 헵니까? 꿩이엔 헵니까?(고방이라고 합니까? 고팡이라고 합니까?)

108009 #1 꿩, 꿩, 꿩이엔.(고방, 고팡, 고팡이라고.)

108009 @ 꿩이엔도 해마썸?(고방이라고도 해요?)

108009 #1 옛날엔 꿩, 꿩 해낫주게. 그디만 곡석이엔 흐 건 다 들어가, 꿩에만. 콩도 불령 그레 가곡, 나록도 불령. 통개에 쥬이가 하부난, 쥬이 이제 쥐가 하부난 문 기냥 놔두민 먹어부는 따문, 장테<sup>225)</sup> 툇 툇 더끄멍 곡석이엔 흐 건 다 그레 들어가, 꿩드레 꿩.(옛날에는 고팡, 고팡 했었지요. 거기만 곡식이라고 한 건 다 들어가, 고팡에만. 콩도 불려서 그리로 가고, 벼도 불려서. 향아리에 쥐가 많아버리니까, 쥐 이제 쥐가 많아버리니까 모두 그냥 넣어두면 먹어버리는 따문, ‘장테’ 툇 툇 덮으면서 곡식이라고 한 건 다 그리로 들어가, 고팡으로 고팡.)

108009 @ 계난 거기 통개도 잇엇주만은 뒤주도 잇엇지양?(그러니까 거기 향아

225) ‘장테’는 양푼 모양으로 하되 그보다 크게 만든 질그릇이다.

리도 있었지만은 뒤주도 있었지요?)

108009 #1 두지도 잇주게.(뒤주도 잇지요.)

108009 @ 두지.(뒤주.)

108009 #1 부잣집의만 두지 잇주. 가난한 집은 두지도 없어. 옛날 부잣집이, 두지 족은 두지, 큰 두지. 부잣집이는 마리 우녘 펜의 뒷문 발라 큰 두지는 놔 고팡이 좁으면 경 흐영 놓고, 족은 두지도 잇곡, 큰 두지도 잇곡, 부잣집이 양반의 집의만 두지 잇주. 소스한 집인 두지도 없어수다.(부잣집에만 뒤주 있지. 가난한 집은 뒤주도 없어. 옛날 부잣집에, 두지 작은 뒤주, 큰 뒤주. 부잣집에는 마루 위쪽 편에 뒷문 방향 큰 뒤주는 놔 고팡이 좁으면 그렇게 해서 놓고, 작은 뒤주도 있고, 큰 뒤주도 있고, 부잣집이 양반의 집에만 뒤주 있지. 소소한 집에는 뒤주도 없었습니다.)

108009 @ 계난 두지, 통개, 체 ㄱ튼 것도.(그러니까 뒤주, 항아리, 체 같은 것도.)

108009 #1 체는 뱅이왕<sup>226</sup>)에, 쉼막 에염에 뱅이왕이 잇주게. 저 남방에<sup>227</sup>) 짙는 뱅이왕, 그레 강 체 ㄱ튼 거 툃툃 걸곡, 경 흐여. 체, 푸는체 그 그디서 방에 정 그 디서 푸는체질 흐곡, 체로 치곡 흐난 그레 툃툃 흐영 그 무신걸로산디 해영 그디 놔뒤. 쉼막 에염에 뱅이왕이 있어. 저 남방에 영 널찍한 거 놔근에 방앗귀도 잇고, 건 뱅이왕.(체는 ‘뱅이왕’에, 외양간 옆에 ‘뱅이왕’이 잇지요. 저 ‘남방에’ 짙는 ‘뱅이왕’, 그리로 가서 체 같은 거 툃툃 걸고, 그렇게 해. 체, 키 그 거기서 방아 짙어서 거기서 키질 하고, 체로 치고 하니까 그리로 툃툃 해서 그 무엇으로인지 해서 거기 놔뒤. 외양간 옆에 ‘뱅이왕’이 있어. 저 ‘남방에’ 이렇게 널찍한 거 놔서 절긱공이도 잇고, 건 ‘뱅이왕’.)

108009 @ 식계 혈 때 고팡제 함수과?(제사할 때 ‘고방제’ 하고 잇습니까?)

108009 #1 고팡제 안 합니다, 우리 집인. 친정에도 엇고, 이디도 엇고, 시집이도 엇고, 집안으로 가. 우리 감산이 친정은 문제도 엇어. 아무 제도 엇어. 문전, 문전 모른 공사가 어디서, 우리 강침원 문전제도 엇어.(‘고방제’ 안 합니다, 우리 집에는. 친정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시집에도 없고, 집안으로 가. 우리 ‘감산리’ 친정은 문전제도 없어. 아무 제도 없어. 문전, 문전 모른 공사가 어디 잇어, 우리 강씨집에는 문전제도 없어.)

108009 @ 거 기독교에선 안 합니다만은.(거 기독교에서는 안 합니다만은.)

108009 #1 아니, 아니. 감산이 강침원 원처 옛날부터 문전제가 엇덴.(아니, 아니. ‘감산리’ 강씨집에는 원래 옛날부터 문전제가 없다고.)

108009 @ 거 하느님 믿엄구나.(거 하느님 믿고 잇구나.)

108009 #1 아니, 아니. 하느님 아이 믿어. 우리 양침원 따로 갱 놓는 집인 문전, 멩질 할 때 갱 놓는 디, 우리 양침원 갱은 아이 놓니다.(아니, 아니. 하느님 아니 믿어. 우리 양씨집에는 따로 갱 놓는 집에는 문전, 멩질 할 때 갱 놓는 데, 우리 양씨

226) ‘뱅이왕’은 절구를 놓아두고서 방아를 짙는 헛간이다.

227) ‘남방에’는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절구이다.

집에는 갯은 아니 놓습니다.)

108009 @ 그건 저 토신제 할 땐 안 놓니다만은.(그건 저 토신제 할 때는 안 놓습니다만은.)

108009 #1 아니, 문전 할 때 갯 놓는 집이 합니다, 집안으로 가.(아니, 문전 할 때 갯 놓는 집이 많습니다, 집안으로 가.)

108009 @ 우리도 갯 놓는 디, 갯 안 놓는 집은 토신제 할 땐 갯 안 놔.(우리도 갯 놓는 데, 갯 안 놓는 집은 토신제 할 때는 갯 안 놔.)

108009 #1 아니, 계문 토신제 안 혼는 디, 멩질, 식게에도.(아니, 토신제는 안 하는 데, 멩질, 제사에도.)

108009 @ 그건 잘못 쁜 거.(그건 잘못 된 거.)

108009 #1 아니, 몰르쿠다. 우린 어느 거사 잘 쁜신지.(아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거야 잘 되었는지.)

108009 @ 계난 고평.(그러니까 고평.)

108009 #1 쁜기도양, 옥돔도 귀근에 어평 올리는 디, 가르청 올리는 디, 우리 양칩원 어평 올려나수다.(고기도요, 옥돔도 구워서 얹어서 올리는 데, 가르쳐서 올리는 데, 우리 양씨집에는 얹어서 올렸었습니다.)

108009 @ 계난 그 고평에 고평 그 제허는 디가 그 안칠성<sup>228</sup>이주게.(그러니까 그 고평에 고평 그 제하는 데가 그 ‘안칠성’이지요.)

108009 #1 예, 그난 집안마다 안칠성 신 집원 허곡, 옛인 집원 안 홉주게. 옛날 조상부떠 안칠성 잇인 집원 안방에 식게, 멩질 때도 출령 그레 놓곡 허는디, 우리 시집이도 엇고, 친정도 엇고.(예, 그러니까 집안마다 ‘안칠성’ 잇는 집에는 하고, 없는 집에는 안 하지요. 옛날 조상부떠 ‘안칠성’ 잇는 집에는 안방에 제사, 멩질 때도 차려서 그리로 놓고 하는데, 우리 시집이도 없고, 친정도 없고.)

108009 @ 계난 우리도 이젠 고평은 어수다만은, 고평이 이젠 방이 쁜부러터든.(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고평은 없습니다만은, 고평이 이제는 방이 쁜버러터든.)

108009 #1 맞수다. 이젠 우리도 다 방인디.(맞습니다. 이젠 우리도 다 방인데.)

108009 @ 우리는 아직도 식게할 때 고평에 놓니다.(우리는 아직도 제사할 때 고평에 놓습니다.)

108009 #1 아, 고평에 허는 거, 그 벌이는 거 잇주게.(아, 고평에 하는 거, 그 벌이는 거 잇지요.)

108009 @ 예, 그 저 험니다게. 거난에 우리 그 본상 옆의 문전제 할 거허고, 그 고평에 놀 거허고 헤근에 낫다근에, 혼 열두 시, 우리 식게 열두 시에 홉주게.(예, 그 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본상 옆에 문전제 할 거하고, 그 고평에 놓을 거하고 해서 놓았다가, 한 열두 시, 우리 제사 열두 시에 하지요.)

108009 #1 우리도 경 홉니다.(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228) ‘안칠성’은 제주도에서 고평(庫房)에 모시는 여자 귀신이다. 뱀의 화신으로 재물을 관장한다고 한다. 쌀독 위에 무명 일곱 자를 접어서 페백으로 놓는다.

108009 @ 우리 열두 시에 허는디, 이젠 머 여덟 시, 아홉 시 허는디.(우리 열두 시에 하는데, 이젠 뭐 여덟 시, 아홉 시 하는데.)

108009 #1 아홉 시 식게흐는 거 아니우다.(아홉 시 제사하는 거 아닙니다.)

108009 @ 우린 열두 시에 꼭 험니다게.(우린 열두 시에 꼭 합니다.)

108009 #1 아홉 시 식게흐는 거 아니우다.(아홉 시 제사하는 거 아닙니다.)

108010 @ 경흐고양, 그 정지.(그리고요, 그 부엌.)

108010 #1 정지.(부엌.)

108010 @ 정지에 대해근에 곱아봅서.(정지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108010 #1 정지는양.(부엌은요.)

108010 @ 거기 놓는 것덜, 정지에.(거기 놓는 것들, 부엌에.)

108010 #1 놓는 것덜은 사발, 살레, 낭살레, 현 살레, 낭살레 잇주게. 문 더끄는 살레도 잇곡, 문 아니 더끄는 살레, 바닥에 머 깔았냐문 죽대로 여끈 겹디다. 여끈 거 놔져십디다게. 우리 감산이는 문 더끄곡 흐는 저 정지 살레가 존 건디, 시집원 오랑보난 문 아이 더끄는 거, 말자 문 더끄는 거 흠디다게. 그추록 해신디 바닥엔 머 깐느냐? 매매 아래는 널착 깔곡, 쥬 위에는 죽대로 여끈 댕디다. 대 깔아십디다게. 문 마주 툇 더끄고, 사발 어프곡, 그거, 그거흐곡, 조막단지, 무신 자리젯 망데기<sup>229)</sup> ㄴ튼 것도 우녁 펜드레 살레 에염드레 놓곡, 경 험디다게. 무싱거 두루 허지 령흔 거, 박세기도 어프곡, 경 험디다. 정젠 짝 썬근에, 이리 저 마리레 가는 대문 에염엔 부엌에 앓앙 밥 먹어도 아방 앓곡, 어른 앓히곡, 이딘 여청들, 여자들 앓고, 아기덜이영 앓앙 트로 먹곡, 트로 밥 박세기에 상 출령 먹어수과? 낭, 저 남박세기에 평 흔디 먹곡, 이딘 상 출령 하루방이영 영 상 출령 안네곡.(놓는 것들은 사발, 살강, 나무살강, 현 살강, 나무살강 잇지요. 문 닫는 살강도 있고, 문 아니 닫는 살강, 바닥에 뭐 깔았냐면 이대로 엮은 겹디다. 엮은 거 놓아져 있었습디다. 우리 ‘감산리’는 문 닫고 하는 저 부엌 살강이 좋은 것인데, 시집에는 와서 보니까 문 아니 닫는 거, 말자 문 닫는 거 합디다. 것처럼 했는데 바닥에는 뭐 까느냐? 매매 아래는 널쪽 깔고, 쥬 위에는 이대로 엮은 댕디다. 대 깔아 십디다. 문 마주 툇 닫고, 사발 엮고, 그거, 그거하고, 조그마한 단지, 무슨 자리젯 ‘망데기’ 같은 것도 위쪽 편으로 살강 옆으로 놓고, 그렇게 합디다. 무엇 두루 어지러운 거, 바가지도 엮고, 그렇게 합디다. 부엌은 쥬 떠어서, 이리 저 마루로 가는 대문 옆에는 부엌에 앓아서 밥 먹어도 아버지 앓고, 어른 앓히고, 여기는 여편들, 여자들 앓고, 아기들이랑 앓아서 따로 먹고, 따로 밥 바가지에 상 차려서 먹었습니까? 나무, 저 나무바가지에 퍼서 함께 먹고, 여기는 상 차려서 할아버지랑 이렇게 상 차려서 드리고.)

108010 @ 거난 정지에서 주로 먹었지양?(그러니까 부엌에서 주로 먹었지요?)

108010 #1 예, 정지에서 주로.(예, 부엌에서 주로.)

108010 @ 정제엿 흠니까? 정지엿 흠니까?(‘정제’라고 합니까? ‘정지’라고 합니까?)

229)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용기이다.

108010 #1 정지, 정지.(부엌, 부엌.)  
 108010 @ 정지엥 흡니까?(‘정지’라고 합니까?)  
 108010 #1 계난 정제엔도 곤곡, 정지. 원체는 정지라, 이젠 부엌인디, 정지.(그러니까 ‘정제’라고도 말하고, ‘정지’. 원체는 ‘정지’야. 이젠 부엌인데, ‘정지’.)  
 108010 @ 거난 그 거기에 살레도 잇곡, 그다음에 살레 옆인 머 놔수과?(그러니까 그 거기에 살강도 있고, 그다음에 살강 옆에는 뭐 놓았습니까?)  
 108010 #1 조막단지 그튼 거 놓는 것도, 김치 망데기, 단지도.(조그마한 단지 같은 거 놓는 것도, 김치 ‘망데기’, 단지도.)  
 108010 @ 물항은 안 놔수과?(물독은 안 놓았습니까?)  
 108010 #1 물항은 이펜이, 저 이건 살레민 이펜드레 놔. 그레 저 독석, 그렛착 아래에 낳, 그 우트레 부жат집인 큰 지세항<sup>230</sup> 농곡, 다른 던 아무 향이라도 농곡, 아무 향이라도.(물독은 이쪽에, 저 이건 살강이면 이쪽으로 놔. 맷돌 저 멍석, 맷돌 짝 아래에 놓아서, 그 위로부жат집에는 큰 ‘지세항’ 농고, 다른 데는 아무 독이라도 농고, 아무 독이라도.)  
 108010 @ 물항 농고.(물독 농고.)  
 108010 #1 물항 농곡.(물독 농고.)  
 108010 @ 그다음에.(그다음에.)  
 108010 #1 그릇 씻는, 설거지 하는 장태 물항 에염에 농곡.(그릇 씻는, 설거지 하는 장태 물독 옆에 농고.)  
 108010 @ 그다음 솟덜 잇지 안 후우과?(그다음 솔들 잇지 안 합니까?)  
 108010 #1 솟덜은 이펜으로게.(솔들은 이쪽으로요.)  
 108010 @ 제일 큰 솟을 머엿 흡니까?(제일 큰 솔을 뭐라고 합니까?)  
 108010 #1 말치<sup>231</sup>.(‘말치’.)  
 108010 #2 말치.(‘말치’.)  
 108010 @ 말치, 그다음에 솟 몇 개 놓디가?(‘말치’, 그다음에 솔 몇 개 놓았습니까?)  
 108010 #1 솟, 그거는 집안으로 가.(솔, 그거는 집안으로 가.)  
 108010 @ 계난.(그러니까.)  
 108010 #1 우린 그서봐. 말치, 다도테기<sup>232</sup>, 다시 중솟, 옹주리, 반찬 지저먹는 옹주리, 네 개.(우린 가만히 있어 봐. ‘말치’, ‘다도테기’, 다시 중간 솟, 옹달솟, 반찬 지저먹는 옹달솟, 네 개.)  
 108010 @ 다시 혼 번 해봅서.(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108010 #1 말치.(‘말치’.)  
 108010 @ 말치에선 멀 해떡어?(‘말치’에서는 뭐 해떡어?)  
 108010 #1 말치에선 큰 거, 무싱거 머.(‘말치’에서는 큰 거, 무엇 뭐.)

230) ‘지세항’은 기와를 만드는 흙으로 만든 독이다.  
 231) ‘말치’는 한 말 드는 크기의 솔이다.  
 232) ‘다도테기’는 용적이 두 되 드는 크기의 솔이다.



108010 @ 옛 할 때?(옛 할 때?)

108010 #1 옛 할 때도 흥곡, 죽은 옛 힘이나, 말치는 완전이 왕이주게, 큰 대말친.(옛 할 때도 하고, 적은 옛 힘이나, ‘말치’는 완전히 왕이지요, 큰 ‘대말치’는.)

108010 #2 큰일 때만 사용하는 거.(큰일 때만 사용하는 거.)

108010 #1 예, 큰일 때 스용흥곡, 셋것 슬물 때 그튼 때영 그추룩 흥는 거고.(예, 큰일 때 사용하고, 소먹이 삶을 때 같은 때랑 것처럼 하는 거고.)

108010 @ 그다음에는.(그다음에는.)

108010 #1 밥흥는 솟도 있고.(밥하는 솟도 있고.)

108010 @ 다도테기 다음에 밥흥는 솟?('다도테기' 다음에 밥하는 솟?)

108010 #1 예, 죽은 거. 다도테기에 밥흥는 사람, 식구에 뜨랑 밥흥는 거. 다도테기 밥 흥나 빨웁 먹는 집 잇곡, 우리는 식구가 하도 세 번째 솟으로 흥디다.(예, 작은 거. '다도테기'에 밥하는 사람, 식구에 따라서 밥하는 거. '다도테기' 밥 하나 갖혀서 먹는 집 있고, 우리는 식구가 많아도 세 번째 솟으로 흥디다.)

108010 @ 세 번째 솟은 머엔 흥여?(세 번째 솟은 뭐라고 해?)

108010 #1 그건 저 죽은 다도테기, 다도테기.(그건 저 작은 '다도테기', '다도테기'.)

108010 @ 거난 다도테기.(그러니까 '다도테기'.)

108010 #1 웅주리, 웅주린 반찬 지정 먹는 거.(웅달솟, 웅달솟은 반찬 지져서 먹는 거.)

108010 @ 웅조리.(웅달솟.)

108010 #1 예.(예.)

108010 @ 거민 그때는 온돌은 안 헛지양?(그러면 그때는 온돌은 안헛지요?)

108010 #1 온돌 안 흥연. 불치로, 보리낭으로 불 솟을 때, 이 불 솟으민 뒤트레 부지뎡이로 불 솟아근에.(온돌 안 헛어. 재로, 보릿짚으로 불 뎡 때, 이 불 때면 뒤로 부지깽이로 불 때어서.)

108010 @ 그 밥솟 엇히는 돌은 머엔 흥여?(그 밥솟 엇히는 돌은 뭐라고 해?)

108010 #1 솟떡.(붓돌.)

108010 #2 솟떡.(붓돌.)

108010 @ 솟떡.(붓돌.)

108010 #1 솟떡이엔 해수다.(붓돌이라고 했습니다.)

108010 @ 솟떡 세 개. 세 개 놓곡, 거기서 뒤에 불치 놓는 디.(붓돌 세 개. 세 개 놓고, 거기서 뒤에 재 놓는 데.)

108010 #1 뒤의로 흥곡, 옆으로 흥곡, 세 개.(뒤에로 하고, 옆으로 하고, 세 개.)

108010 #1 예, 자락자락 밀리민 불치는 뜨로 무신 부지뎡이로 저 저레 밀림도 흥곡, 이레 무룩흥민 저레 밀림도, 솔박<sup>233</sup>)으로 앓당, 솔박으로 아져당 자락자락 저레 밀림도 흥곡, 경 헛수게. 경 흥영 불치도 담아근에, 곶체로 담양 곶목<sup>234</sup>) 불치

233) '솔박'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이다.

놓는 디레도 담아당 농곡, 경 향여근에 그건 걸름으로 씻주게, 불칠.(예, 자락자락 밀리면 재는 따로 무슨 부지깽이로 저 저리로 밀림도 하고. 이리로 수북하면 저리로 밀림도, ‘술박’으로 가져다가, ‘술박’으로 가져다가 자락자락 저리로 밀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도 담아서, 삼태기로 담아서 ‘굴묵’ 재 놓는 데로도 담아다가 놓고, 그렇게 해서 그건 거름으로 썼지요, 재를.)

108010 @ 그다음에 그 정지에는 그건만 놔수과?(그다음에 그 부엌에는 그건만 놓았습니까?)

108010 #1 예, 그거뿐이주게. 밥 먹곡 기자 허드렁흔 거 농곡, 불 솥곡, 온돌내 영 밥헛곡, 솥 앓히곡, 그겁주게. 무싱거 정지에서 무싱거 흡니까게? 이제는 찻장이여 무싱거 막 항 따로따로 해도.(예, 그거뿐이지요. 밥 먹고 그저 잡다한 거 놓고, 불 때고, 술 앓히고, 그거지요. 무엇 부엌에서 무엇 합니까? 이제는 찻장이여 무엇 아주 독 따로따로 해도.)

108011 @ 문설주에 대해근에 곶아줍서, 문설주.(문설주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문설주.)

108011 #1 문설주?(문설주?)

108011 @ 돌쩌귀.(돌쩌귀.)

108011 #1 응?(응?)

108011 @ 문, 문, 문에 대한 거.(문, 문, 문에 대한 거.)

108011 #1 문에는 낭문이주게.(문에는 나무문이지요.)

108011 @ 계난에.(그러니까.)

108011 #1 옛날에 밀문이 어디 잇수과?(옛날에 밀문이 어디 있습니까?)

108011 @ 거난에 부엌에 저 정지 들어갈 때 낭문.(그러니까 부엌에 저 부엌 들어갈 때 나무문.)

108011 #1 낭문 두 개, 마리에 대문 두 개, 창문은 따시 영 영.(나무문은 두 개, 마루에 대문 두 개, 창문은 다시 이렇게 이렇게.)

108011 @ 계난 대문, 그 문, 문지방.(그러니까 대문, 그 문 문지방.)

108011 #1 문지방은 대문지방, 정지지방.(문지방은 대문지방, 부엌지방.)

108011 @ 거난 문 들젠 흐민 문지방이 있어야 흘 거 아니짜?(그러니까 문 달려고 하면 문지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8011 #1 예, 대문지방, 대문이 그.(예, 대문지방, 대문이 그.)

108011 @ 그다음에 그 문지방 미테는 머가 있어야 돼어?(그다음에 그 문지방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

108011 #1 아무 것도 엇어.(아무 것도 없어.)

108011 @ 돌 아니?(돌 아니?)

108011 #1 돌.(돌.)

108011 #2 돌, 돌.(돌, 돌.)

---

234)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108011 #1 돌로 흙질해정 막아져불주게.(돌로 흙질해져서 막아져버리지요.)

108011 @ 거 머영 험니까? 그 돌을.(거 뭐라고 합니까? 그 돌을.)

108011 #2 돌을 머, 머영 해, 돌이엔 허주.(돌을 뭐, 뭐라고 해, 돌이라고 하지.)

108011 #1 아니, 대문지방 아니.(아니, 대문지방 아니.)

108011 @ 돌쩌귀?(돌쩌귀?)

108011 #1 아니, 대문지방 아랜양, 영 대문지방 영 들민 이던 영흐지 안 흙니까? 아예 이디는 무싱거에 흙질해부러, 흙질해부러 돌도 낭도 엇곡, 그냥.(아니, 대문지방 아래는요, 이렇게 대문지방 이렇게 달면 여기는 비어 있지 안 합니까? 아예 여기는 무엇에 흙질해버려, 흙질해버려 돌도 나무도 없고, 그냥.)

108011 #2 무사 돌 이주.(왜 돌이지.)

108011 #1 기냥 요만씩흔 가지로 영 대문 아래서 혼엇이 높습니까게? 낭간 그 다음엔 낭간이난게, 낭간 위로 대문 혼연 낭간 알로 고냥 잇어. 고냥 잇영 낭간 알로 득도 들어강 그디 강 심어오곡, 경 흙디다게.(그냥 요만큼한 가지로 이렇게 대문 아래서 별로 높습니까? 뒷마루 그다음에는 뒷마루니까요, 뒷마루 위로 대문 해서 뒷마루 아래로 구멍 잇어. 구멍 잇어서 뒷마루 아래로 닭도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잡아오고, 그렇게 합디다.)

108011 @ 그 마레문도.(그 마루문도.)

108011 #1 마레문 아래 낭간이 잇지 안 혼우짜?(마루문 아래 뒷마루가 잇지 안 합니까?)

108011 @ 마레 앞에 낭간.(마루 앞에 뒷마루.)

108011 #1 예, 낭간 이제 그트민 저 거시기 모양으로, 경흐민 이거는 마리문 이레 지방 돌아불민 이건 낭간, 지방 부쩌근에 낭간 잇지 안 혼우짜? 경 해불민 낭간 아랜 영 보민 낭간 아랜 맨혹이곡, 득도 그디 강 곱곡, 경 흙디다게.(예, 뒷마루 이제 같으면 저 거시기 모양으로, 그러면 이거는 마루문 이리로 지방 달아버리면 이건 뒷마루, 지방 붙여서 뒷마루 잇지 안 합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뒷마루 아래는 맨혹이고, 닭도 거기 가서 숨고, 그렇게 합디다.)

108011 @ 마리 앞에만 낭간 잇어나서.(마루 앞에만 뒷마루 있었어.)

108011 #1 예, 마리 앞의만, 저 큰 집의는양, 부잣집의 저 큰구들 앞의까지 낭간 이십니다. 정지 부튼 저 굴목엔 구들은 엇곡, 마레 부튼 큰구들은 아방이 높은 방에는 마레가 부평 이십디다. 마리 저 낭간 엇인 집도 하우다게, 옛날엔.(마루 앞에만 뒷마루 있었어. 저 큰 집에는요, 부잣집에 저 큰방 앞에까지 뒷마루 있습니다. 부엌 붙은 저 ‘굴목’에는 방은 없고, 마루 붙은 큰방은 아버지가 눕는 방에는 뒷마루가 붙어 있었습디다. 마루 저 뒷마루 없는 집도 많습디다, 옛날에는.)

108011 @ 거난 잘 사는 집의 낭간 잇엇주게?(그러니까 잘 사는 집에 뒷마루 있었지요?)

108011 #1 예게, 부잣집의 보민 옛날 소문 간다하는 집의만 낭간도 크게, 질게 잇고.(예게, 부잣집에 보면 옛날 소문 간다하는 집에만 뒷마루도 크게, 길게 잇고.)

108011 @ 거난에 옛날 삼간집 허민.(그러니까 옛날 삼간집 하면.)

108011 #1 스간집에.(사간집에.)

108011 @ 저 정지, 마리, 방, 구들 하나.(저 부엌, 마루, 방, 구들 하나.)

108011 #1 스간집은 맞구들 두 개, 스간집의엔 혼 건.(사간집은 ‘맞구들’ 두 개, 사간집이라고 한 건.)

108011 @ 맞구들 허면은 저 정지 앞의?(맞구들 하면은 저 부엌 앞에?)

108011 #1 아니, 이것이 마리 아이파? 경허민 요디 구들 하나, 요 앞의 하나 허민 맞구들이라. 경허곡 저디 고랑케구들 하나 잇곡, 부잣집원. 스간집은 경 험디다. 우리 친정엔 스간집 두 거리난 경 험디다. 정지레 가는 딴 낭간도 엇어.(아니, 이것이 마루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방 하나, 요 앞에 하나 하면 맞구들이야. 그리고 저기 ‘고랑케구들’ 하나 잇고, 부잣집에는. 사간집은 그렇게 합디다. 우리 친정에는 사간집 두 채니까 그렇게 합디다. 부엌으로 가는 데는 툃마루도 없어.)

108012 @ 그다음에양, 그 문허고 창문에 대해근에 곶아줍서, 문. 문은 우선 저 정지문 잇곡.(그다음에요, 그 문허고 창문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문. 문은 우선 저 부엌문 잇고.)

108012 #1 정지문은 널문<sup>235</sup> 두 개 아이파게?(부엌문은 ‘널문’ 두 개 아닙니까?)

108012 @ 그 뭇로 멩글아서마씨?(그 무엇으로 만들었어?)

108012 #1 낭으로게. 그 널착으로 큰 무신 자귀낭산디, 무싱것산디.(나무로요. 그 널쪽으로 큰 무슨 자귀나무인지, 무엇인지.)

108012 @ 낭 하나로 웬 거지양?(나무 하나로 된 것이지요?)

108012 #1 낭 하나로사 웨엄신지, 두 개로 웨엄신지, 두 착이라.(나무 하나로야 되고 있는지, 두 개로 되고 있는지, 두 짝이야.)

108012 #2 하나로 웨엄신지, 두 개로 웨엄신지, 그 양착인디게 꼭 2튼 낭으로 거시기 행, 경 행 멘들안.(하나로 되고 있는지, 두 개로 되고 있는지, 그 양쪽인데 꼭 같은 나무로 거세기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108012 #1 예, 두 개 행, 지방에 곶냥 두 개 헤근에게 이쪽 문, 저쪽 문 행 마주 툃 더경 통웨 툃 채우곡, 띃시 구들은 창문이라양, 창문 영 헤근에 곶 곶어진 창문 잇잔흐광?(예, 두 개 해서, 문지방에 구멍 두 개 해서 이쪽 문, 저쪽 문 해서 마주 툃 단아서 자물쇠 툃 잠그고, 다시 방은 창문이에요, 창문 이렇게 해서 곶 곶어진 창문 있지 않습니까?)

108012 @ 머 블라수광?(뭇 발랐습니까?)

108012 #1 창호지 창호지를 블랏주게. 풀, 가시리죽 썩, 창호지 블르민.(창호지. 창호지를 발랐지요. 풀, 풀가시리죽 썩서, 창호지 바르면.)

108012 @ 마리문은?(마루문은?)

108012 #1 마리문은 또 대문이라. 큰 더 큰 널착으로 멘든 대문. 그거 잇곡, 낭간 잇곡, 창문 잇곡, 구들 안에. 경허민 또 이펜원 정지곡, 이 구들 돌아가민 이디

235) ‘널문’은 나무를 도끼로 짜개서 이를 자귀로 다듬은 후 이 판을 그대로 사용한 문이다.

굴목이 있어.(마루문은 또 대문이야. 큰 더 큰 널쪽으로 만든 대문. 그거 있고, 텃마루 있고, 창문 있고, 방 안에. 그러면 이쪽에는 부엌이고, 이 방 돌아가면 여기 ‘굴목’이 있어.)

108012 @ 그 마루 뒤에 문은 며영 허여?(그 마루 뒤에 문은 뭐라고 해?)

108012 #1 뒷문, 마룻뒷문, 정짓뒷문, 마룻뒷문.(뒷문, 마루뒷문, 부엌뒷문, 마루뒷문.)

108012 @ 그다음에 마루에서 정지레 가지 안 홉니까? 거기 그 조그만.(그다음에 마루에서 부엌으로 가지 안 홉니까? 거기 그 조그만.)

108012 #1 거는 셋문.(거는 셋문.)

108012 @ 양?(예?)

108012 #1 셋문이엔 해나서.(셋문이라고 했었어.)

108012 @ 저 마루에서 정지?(저 마루에서 부엌?)

108012 #1 정지레 가는 문, 셋문.(부엌으로 가는 문, 셋문.)

108012 @ 셋문?(셋문?)

108012 #1 경 골아나수다.(그렇게 말했었습니다.)

108012 @ 그다음에 마루에서 방에 들어가는 문이 잇엇주.(그다음에 마루에서 방에 들어가는 문이 잇엇지.)

108012 #1 건 저 큰구들문, 작은구들문 경 헛주게. 경 골아수다게.(건 저 큰방문, 작은방문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108012 @ 고평드레 가는?(고방으로 가는?)

108012 #1 고평엔 건 고평문이엔 허곡, 경 헤수게게. 계난 경 구들 두 개 허곡.(고방에는 건 고평의 문이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 두 개 하고.)

108012 @ 굴목에도 문이 잇어나수과?(‘굴목’에도 문이 잇엇습니까?)

108012 #1 어수다. 굴목에는 문 어수다. 허덩청이주. 저 낭으로 영 낱 이레 ㅁ스락이영 나가지 안 허게 멘들곡게.(없습니다. ‘굴목’에는 문 없습니다. 헛간이지. 저 나무로 이렇게 놓아서 이리로 까끄라기랑 나가지 안 하게 만들고요.)

108012 @ 장광뒤레 가는 문은 며엔 허여마썸?(장독대로 가는 문은 뭐라고 해요?)

108012 #1 장광뒤에 가는 뒷문.(장독대에 가는 뒷문.)

108012 @ 장광뒤에 가는 거?(장독대에 가는 거?)

108012 #1 장광뒤뒷문, 정지뒷문고라 장광뒤, 정지 바른 다가 장광뒤가 잇주게.(장독대뒷문, 부엌뒷문더러 장독대, 부엌 바른 데가 장독대가 잇지요.)

108012 @ 그 저 바로 뒤에가 장광뒤.(그 저 바로 뒤에가 장독대.)

108012 #1 장광에는 문 장 답는 딴 뜨로 잇주게, 장광뒤. 그디 영 헤근에 멘들 아근에.(장독에는 모두 장 답는 데는 다로 잇지요, 장독대. 거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108012 @ 계난 그 창문 벌릴 때는 무슨 폴로?(그러니까 그 창문 바를 때는 무슨 폴로?)

108012 #1 가시리죽 썩.(풀가사리죽 썩서.)

108012 @ 가시리죽 썩근에.(풀가사리죽 썩서.)

108012 #1 이거 다 가시리로 블랏주게, 밀가루가 어디수광?(이거 다 풀가사리로 블랏지요, 밀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108012 @ 가시리.(풀가사리.)

108012 #1 방도 블르곡, 신문지로도 블르곡, 방도.(방도 바르고, 신문지로도 바르고, 방도.)

108012 @ 지게문은 어디파? 지게문.(지게문은 어디입니까? 지게문.)

108012 #1 지겟문은양, 지겟문이엔 혼 건 이 마리에 큰 이거 대문 아이파? 우리 지겟문 죽은 문이 이수다. 어른 앓는 디, 어른 앓는 디, 어른, 어른 앓는 발라 지겟문 옆의 앓입니다.(지게문은요, 지게문이라고 한 건 이 마루에 큰 이거 대문 아닙니까? 우리 지게문 작은 문이 있습니다. 어른 앓는 데, 어른 앓는 데, 어른, 어른 앓는 방향 지게문 옆에 앓습니다.)

108012 @ 건 어디 정지에서?(건 어디 부엌에서?)

108012 #1 정지가 아니고, 마리광 구들 사이에 그 낭간 사이에 있어. 조금만 합니다, 그 지겟문은. 조금만 흥영 어른이 지겟문 옆의 앓양 담배통 물곡하는 거주게. 대문 발라, 대문 즈꿋디, 건 어른 앓는 디.(부엌이 아니고, 마루와 방 사이에 그 텃마루 사이에 있어. 조그만 합니다, 그 지게문은. 조그만 해서 어른이 지게문 옆에 앓아서 담배통 물고하는 거지요. 대문 방향, 대문 곁에, 건 어른 앓는 데.)

108013 @ 호령창<sup>236</sup>에 대해 혼 번 곱아줍서. 호령창.(‘호령창’에 대해 한 번 말 해주십시오. ‘호령창’.)

108013 #1 호령창이 머라.(‘호령창’이 뭐야.)

108013 @ 이 서귀포지역은 호령창이 있어.(이 서귀포지역은 ‘호령창’이 있어.)

108013 #1 호령창은 난 들어본 적 어수다.(‘호령창’은 난 들어본 적 없습니다.)

108013 #2 호령창이엔 혼 건 그 사름 앓아서 호령하는 그 문 보고 호령창엔 혼는가?(‘호령창’이라고 한 건 그 사람 앓아서 호령하는 문 보고 ‘호령창’이라고 하는가?)

108013 @ 아, 거난에. 호령창.(아, 그러니까. ‘호령창’.)

108013 #1 우린 몰르쿠다.(우린 모르겠습니다.)

108013 #2 우리 생각엔 그.(우리 생각에는 그.)

108013 #1 호령창은 머 어떻게 텨 거파?(‘호령창’은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8013 @ 저도 잘 몰라부난양.(저도 잘 몰라버리니까요.)

108013 #1 서귀포쪽으로 있어부난게.(서귀포쪽으로 있어버리니까.)

108013 #2 계난에 그쪽으로 혼 번 알아봅서만은, 그 호령창이엔 혼 건 그 옛날

236) ‘호령창’은 마루방인 ‘상방’의 큰 대문 옆에 시설한 조그만 창이다. 판문으로 만들어진다.

어른덜 그 양반 집의 그 제 창문 잇지 안 흐으파? 그 마루 옆의 거시기 그 조금만  
흔 문, 그 옆의 앓아뒤서 사름 것이 잘못 해가면 “너 영 흐라.” 흐여근에 호령흐민  
호령창이주.(그러니까 그쪽으로 한 번 알아보십시오만은, 그 ‘호령창’이라고 한 건  
그 옛날 어른들 그 양반 집에 제 창문 잇지 안 합니까? 그 마루 옆에 거시기 그 조  
그마한 문, 그 옆에 앓아뒤서 사름 것이 잘못 해가면 “너 이렇게 하라.” 해서 호령  
하면 ‘호령창’이지.)

108013 #1 그것이 호령창 닳아.(그것이 ‘호령창’ 닳아.)

108014 @ 계문 굴묵<sup>237</sup>)에 대행 곱아줍서.(그러면 ‘굴묵’에 대해서 말해주십시  
오.)

108014 #1 굴묵은게, 뭇똥 좇어당 농곡, 쇠똥 뭇령 해농곡, ㄴ시락 서경 불그네  
요만 흔 거 해영 조록 질게 해근에 불치 딱 파네똥, 불치 솔박<sup>238</sup>)이나 흔 걸로  
행 불치똥드레 놔똥, 그 굴묵을 뭇똥, 쇠똥, ㄴ시락 짝 담주게. 담양 보리낭으로든지  
불부찌민 그 불부뜨민 굴묵 짙어 진 거, 온돌방이주게.(‘굴묵’은요, 말똥 주워다가  
놓고, 소똥 말려서 해농고, 까끄라기 섞어서 불당그래 요만큼 한 거해서 자루 길게  
해서 재 모두 파내뒤서, 재 ‘솔박’이나 한 걸로 해서 재똥으로 놔뒤서, 그 ‘굴묵’을  
말똥, 소똥, 까끄라기 짝 담지요. 담아서 보릿짚으로든지 불붙이면 그 불붙으면 ‘굴  
묵’ 때어 진 거, 온돌방이지요.)

108014 @ 거난 굴묵 그 뒤쪽에 보면은 이 불치 놓는 디 잇지 안흐으파?(그러니  
까 ‘굴묵’ 그 뒤쪽에 보면 이 재 놓는 데 잇지 않습니까?)

108014 #1 예게.(예게.)

108014 @ 불치 놓는 디 위에 무싱거 질러수과?(재 놓는 데 위에 무엇 길렀습니  
까?)

108014 #1 불치엔 무싱거 질루지 안 했주게. 굴묵에 불치에는 풀브른구덕<sup>239</sup>) 낭  
득, 득새기, 빙애기도 깨우곡.(재에는 무엇 기르지 안 했지. ‘굴묵’에 재에는 ‘풀브른  
구덕’ 놓아서 닭, 달걀, 병아리도 깨우고.)

108014 @ 그 우의 영.(그 위에 이렇게.)

108014 #1 예, 우의 낭 득, 득 올리곡.(예, 위에 놓아서 닭, 닭 올리고.)

108014 @ 득 올리는 덜 머엔 흡니까?(닭 올리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108014 #1 득텅에<sup>240</sup>). 대로 멘들앙 여까근에, 굴묵 그 불치 우의 득똥 막 싸농  
곡, 득텅에. 옛날에 득텅에엔 했어.(‘득텅에’. 대로 만들어서 엮어서, ‘굴묵’ 그 재 위  
에 닭똥 마구 싸놓고, ‘득텅에’. 옛날에 ‘득텅에’라고 했어.)

108014 @ 그거 저 득도 바졌디 득 질루는 경우도 이수과?(그거 저 닭도 바깥에  
닭 기르는 경우도 있습니까?)

108014 #1 아니, 그건 밤원 올르곡, 밤원 그레 지네양으로 올라가곡, 불그민 ㄴ

237)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238) ‘솔박’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이다.

239) ‘풀브른구덕’은 대오리를 걸은 바구니가 헐어서 종이나 형질 따위에 풀을 발라 붙인 바구니이다.

240) ‘득텅에’는 닭이 들어 앓아 있으면서 알을 낳는 곳이다.

려. 그 바깥에서 놀았주게, 옛날 득은.(아니, 그건 밤에는 오르고, 밤에는 그리로 자기대로 올라가고, 밝으면 내려. 그 바깥에서 놀았지요, 옛날 닭은.)

108014 @ 계란 바깥에서도 득 질렀어.(그러니까 바깥에서도 닭 길렀어.)

108014 #1 바깥에서만 질렀주게, 바깥에만.(바깥에서만 길렀지요, 바깥에만.)

108014 #2 득집 영 멘드라근에 키웠주.(닭집 이렇게 만들어서 키웠지.)

108014 #1 멘들양, 옛날은 그자 우영팻디 낭만 질렀주게. 경 흥영 어두우민 득 델이 어두와 가민 도로로로로 흥게 그 득텅에레 올라. 올르곡 뒷날 아침의 느리곡.(만들어서, 옛날은 그저 텅밭에 놓아서만 길렀지요. 그렇게 해서 어두우면 닭들이 어두워 가면 도로로로로 흥게 그 ‘득텅’에 올라. 오르고 뒷날 아침에 내리고.)

108014 @ 거란 굴목흥민 이제 방을 따뜻하기 위해서 흥는 건디.(그러니까 ‘굴목’하면 이제 방을 따뜻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08014 #1 예게, 경흥난 안자리, 밧자리. 따스 딴 안자리, 썩늘흔 딴 밧자리.(예, 그러니까 아랫목, 윗목. 따스한 데는 아랫목, 차가운 데는 윗목.)

108014 @ 그 저 머냐, 그 굴목은 주로 멀로 때었수과?(그 저 뭐냐, 그 ‘굴목’은 주로 무엇으로 때었습니까?)

108014 #1 뭇똥, 썩똥 뭇른 거, 고스락 서꺼근에. 이 난드르<sup>241)</sup> 고스락, 옷드르<sup>242)</sup> 순 뭇똥, 썩똥 걸로만 짚었주게.(말똥, 소똥 마른 거, 까끄라기 섞어서. 이 ‘난드르’는 까끄라기, ‘옷드르’는 순 말똥, 소똥 걸로만 때었지요.)

108014 @ 낭토막은 안 짚어수과?(나무토막은 안 때었습니까?)

108014 #1 낭토막은 난드르주. 어디 옷드르 낭토막이 잇어게, 대평<sup>243)</sup>은 군산<sup>244)</sup>에 강 낭토막 해당 똥 좃어오지 못흥민 낭토막으로 불 솜앗주게, 굴목 짚었주게. 옷드르사 어디 똥만 좃어오랏주. 뭇똥 좃영, 좃영 널영 놔두민 늬 담아가불곡 막 경 해낫주게. 썩 그정 강 뭇똥 시꺼오곡.(나무토막은 ‘난드르’지. 어디 ‘옷드르’ 나무토막이 잇어요. ‘대평’은 ‘군산’에 가서 나무토막 해다가 똥 주워오지 못하면 나무토막으로 불 때었지요, ‘굴목’ 때었지요. ‘옷드르’야 어디 똥만 주워왔지. 말똥 주워서, 주워서 널어서 놓아두면 남 담아가버리고 마구 그렇게 했었지요. 소 가져서 가서 말똥 실어오고.)

108015 @ 풍체에 대해근에 흥 번 곱아줍서.(차양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8015 #1 풍체 지붕, 집 어염에 풍체? 거는 느람지<sup>245)</sup> 모양으로 여깡.(차양 지붕, 집 옆에 차양? 거는 ‘느람지’ 모양으로 엮어서.)

108015 #2 여까근에.(엮어서.)

108015 #1 낭 세왕, 경 흥영 그 지붕 옆으로 풍체 들앗주. 건 비 막음으로 풍체.

241) ‘난드르’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를 일컫는다.

242) ‘옷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243) ‘대평’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를 일컫는다.

244) ‘군산’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와 서귀포시 예래동의 경계인 일주도로 남쪽에 있는 오름. 유사시대(有史時代)에 분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외로 덧생긴 산이라 하여 ‘군메’, 군산이라고 한다.

245) ‘느람지’는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게난 이제는 그 저 무싱걸로 다 그 집의 밋동에 다 낭 세와근에 다 흐지 안 해수과  
게? 이제는 좋게덜 흐는디, 옛날엔 그 느람지 모양으로 여깁, 새로. 풍채, 짝으로영  
풍채. 일름이 풍채주.(나무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 지붕 옆으로 차양 달았지. 건 비  
막음으로 차양.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저 무엇으로 다 그 집에 밑동에 다 나무 세워  
서 다 하지 안 했습니까? 이제는 좋게들 하는데, 옛날에는 그 ‘느람지’ 모양으로 엮  
어서, 띠로. 차양, 짚으로랑 차양. 이름이 차양이지.)

108015 @ 물팡<sup>246</sup>)에 대해근에 흐 번 곁아줍서.(‘물팡’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  
시오.)

108015 #1 물팡은 허벽<sup>247</sup>)팡<sup>248</sup>)?(‘물팡’은 ‘허벽팡’?)

108015 @ 예.(예.)

108015 #1 통물 질레 가민, 물 질레 가민.(통물 길러 가면, 물 길러 가면.)

108015 @ 물팡은 어디 멩글아수과?(‘물팡’은 어디 만들었습니까?)

108015 #1 정지 무똥<sup>249</sup>)에, 부엌 가는 디, 정지 뒤에 밧 부쳐근에 낭으로 푹 허  
벽 흐나 부릴 만이, 물구덕<sup>250</sup>) 부릴 만이 잇이메, 이수다게. 경흐민 그레.(부엌 ‘무  
똥’에, 부엌 가는 데, 부엌 뒤에 밧 붙여서 나무로 푹 ‘허벽’ 하나 부릴 만큼, ‘물구  
덕’ 부릴 만큼 있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108015 @ 어떻 멩글아서?(어떻게 만들었어?)

108015 #1 낭 세와, 그걸 옆어지지 말게 낭을 세와사, 우의 낭 바뵤근에 허벽  
톡 부리게 멘들주게. 알은 구리곡.(나무 세워서, 그것을 옆어지지 말게 나무를 세워  
야, 위에 나무 받쳐서 ‘허벽’ 푹 부리게 만들지요. 아래는 비어 있고.)

108015 @ 돌론 안 멩급니까?(돌로는 안 만듭니까?)

108015 #1 돌로 안 멩글아. 기자 낭으로, 옛날엔 낭만 주장흐는 디, 돌 그거 께  
쟁 흐민.(돌로 안 만들어. 그저 나무로, 옛날에는 나무만 주장하는 데, 돌 그거 깨려  
고 하면.)

108015 @ 아니, 거난 돌 널븐 거 영 놓곡.(아니, 그러니까 돌 넓은 거 이렇게  
놓고.)

108015 #1 아니, 경 흐 디가.(아니, 그렇게 한 데가.)

108015 #2 널븐 거 해근에 물팡흐여근에.(넓은 거 해서 ‘물팡’ 해서.)

108015 #1 건 물 지는 통물, 물 하영 지는 디 가사 낭, 저 돌로 했주. 집의서는  
집의 허벽 부리는 물팡은 낭으로 세와근에 지둥 두 개 세우곡, 베리 세와 납작하게  
우트레 무싱거 여까와근에 물 질레 갈 때 푹 정가곡, 푹 정오곡, 경흐고 물질레가민  
통물엔 물팡이 돌로 툐 팡이우다. 서쪽, 동쪽. 이진 물질영 먹는 디, 느물 씻는 디

246)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 두는 대(臺)이다.

247) ‘허벽’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이다.

248) ‘팡’은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臺)가 되게끔 놓인 넓직한 큰 돌 따위이  
다.

249) ‘무똥’은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보통 마당보다 조금 높게 되  
어 있다.

250) ‘물구덕’은 물동이를 넣고 지어 다니게 된 대로 만든 조금 큰 바구니이다.

흐민, 이쪽으로 이딘 노픈 디 잇곡, 이딘 물팡 돌로 멘들양 납작납작 행 쭈런히 놔져, 허벅 부리는 거. 검질메레 옷드르 가젠 흐민.(건 물 길는 통물, 물 많이 길는 데 가야 나무, 저 돌로 했지. 집에서는 집에 ‘허벅’ 부리는 ‘물팡’은 나무로 세워서 기둥 두 개 세우고, 물추리막대 세워서 납작하게 위로 무엇 엮어놓아서 물 길러 갈 때 툭 저서가고, 툭 저서오고, 그리고 물 길러 가면 통물에는 ‘물팡’이 돌로 된 ‘팡’입니다. 서쪽, 동쪽. 이건 물길어서 먹는 데, 나물 씻는 데 하면, 이쪽으로 여기는 높은 데 있고, 여기는 ‘물팡’ 돌로 만들어서 납작납작 해서 나란히 놓아져, ‘허벅’ 부리는 거. 김매러 ‘옷드르’ 가려고 하면.)

108015 @ 허벅, 물구덕.(‘허벅’, ‘물구덕’.)

108015 #1 물구덕계, 그거 다 경 져주게. 이제 감산이 가민 통물.(‘물구덕’이요, 그거 다 그렇게 져지요. 이제 ‘감산리’ 가면 통물.)

108015 @ 여기서는 어디 강?(여기서는 어디 가서?)

108015 #1 이디는 응굴물 먹영, 물질을 때가 엇어주게.(여기는 우물 먹어서, 물질을 때가 없었지요.)

108015 @ 계난 어딘 물 먹어수팡?(그러니까 어딘 물 먹었습니까?)

108015 #1 응굴물 파곡, 응굴물 팡 물 먹곡 했주. 우리 동네는 그 산물 툭툭 나오는 디가 잇언 물질영 먹었주. 저 당케<sup>251</sup>, 부두레 가는 디 당케 물이 잇어수다. 질어 먹는 물, 통 박은 디, 그딘 물 먹었젠 흙디다게.(우물 파고, 우물 파서 물 먹고 했지. 우리 동네는 그 용천수 툭툭 나오는 데가 있어서 물길어서 먹었지. 저 ‘당케’ 부두로 가는 데 ‘당케’ 물이 있었습시다. 질어 먹는 물, 통 박은 데, 거긴 물 먹었다고 합디다.)

108015 @ 당케?(‘당케’?)

108015 #1 당케.(‘당케’.)

108015 @ 겐 그디 물 먹어뵤디까?(겐 거기 물 먹어뵤디까?)

108015 #1 난 아이 먹어보고.(난 아니 먹어보고.)

108015 @ 무사 이디 시집오고.(왜 여기 시집오고.)

108015 #1 냇동네, 우리 동네엔 산물 나는 디가 잇이난 산물코<sup>252</sup>, 산물코 흐명 첫동네<sup>253</sup> 사름덜도 그디 지르레 오곡, 온수물이라, 그딘. 산물코엔 흐 디, 이제도 산물코엔 곱읍니다, 그디고라.(‘냇동네’, 우리 동네에는 용천수 나는 데가 있으니까 ‘산물코’, ‘산물코’ 하면서 ‘첫동네’ 사람들도 거기 길러 오고, 온수물이야, 거기는. ‘산물코’라고 하는 데, 이제도 ‘산물코’라고 말합니다, 거기더러.)

108015 @ 아침의 물 질어다근에.(아침에 물 길어다가.)

108015 #1 아침의도 가곡, 머 저녁의도 가곡, 경 햄주게. 새벽의 늪 가기 전의 흔저 질영 오쟁 새벽의 강 질영 오곡. 난드른 응굴물 팡, 감저 구텡이꺾 집의 막경 했주게.(아침에도 가고, 뭐 저녁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새벽에 남 가기

251) ‘당케’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위치한 지명이다.

252) ‘산물코’는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 용천수가 나는 지경인 것 같다.

253) ‘첫동네’는 마을의 서쪽에 있는 동네를 이른다.

전에 빨리 길어서 오려고 새벽에 가서 길어서 오고. ‘난드르’는 우물 파서, 고구마 구덩이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108015 @ 예, 쉬엇당 허쿠다.(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8017 @ 예, 급서.(예, 말하십시오.)

108017 #1 올레<sup>254</sup> 진 디고라 골목엔, 저 안네 집. 골목 막 들어간 집고라 골목 집.(‘올레’ 긴 데더러 골목이라고, 저 안에 집. 골목 아주 들어간 집더러 골목집.)

108017 @ 올레엔 안 햇수광? 올레.(‘올레’라고 안 했습니까? 올레.)

108017 #1 올레엔 안 흐고 골목. 계난 올레 진 디가 골목질이엔 해낫주게, 옛날엔. 이젠 올레영 무싱거영 해도. 아이고, 올레도 진진 흐곡, 골목질, 골목도 진진 혼 집, 경 흐명.(‘올레’라고 안 하고 골목. 그러니까 ‘올레’ 긴 데가 골목길이라고 했었지요, 옛날에는. 이젠 ‘올레’랑 무엇이랑 해도. 아이고, ‘올레’도 긴긴 하고, 골목길, 골목도 긴긴 한 집, 그렇게 하면서.)

108017 @ 그 올레.(그 ‘올레’.)

108017 #1 웃드르가 하.(‘웃드르’가 많아.)

108017 @ 올레, 올레 진 집이 잘살았지요?(‘올레’, ‘올레’ 긴 집이 잘살았지요?)

108017 #1 아이고, 그거는 이간막살이도 안네 집, 큰 집도 바깥디, 그건 혼이 없고, 그런 거는. 잘살고 못 사는 건 아니고, 부잣집이라고 혼 거는 기자 안네 들어간 집이 하긴 하는 디, 거는 그 도량에 매어서 집 나오는 거고, 잘살고 못 사는 거는. (아이고 그거는 이간오막살이도 안에 집, 큰 집도 바깥에, 그건 혼이 없고, 그런 거는. 잘살고 못 사는 건 아니고, 부잣집이라고 한 거는 그저 안에 들어간 집이 많긴 많은 데, 거는 그 지경에 매어서 집 나오는 거고, 잘살고 못 사는 거는.)

108018 @ 문간채 알아지쿠광? 문간채, 문 들어 갈 때.(문간채 알아지겠습니까? 문간채, 문 들어 갈 때.)

108018 #1 대문?(대문?)

108018 @ 예, 그 집으로 해낫지 안흐으파?(예, 그 집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108018 #1 이 근래는 이 목안<sup>255</sup>드레, 서촌<sup>256</sup>드렌 대문이 잇는디, 이 안덕<sup>257</sup>더렌 대문이 엇어수다. 그런 문도 엇어서, 그냥 정낭<sup>258</sup>. 그 진진 혼 낭, 그걸로 올레주게. 올레 막는 거, 그거주게. 경흐민 이디 영 흐영 고냥 딸라근에게.(이 근래는 이 ‘목안’으로, ‘서촌’으로는 대문이 잇는데, ‘안덕’으로는 대문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도 없었어, 그냥 ‘정낭’. 그 긴긴 한 나무, 그것으로 ‘올레’지요. ‘올레’ 막는 거, 그거지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구멍 뚫어서.)

108018 @ 정낭이우파?(‘정낭’입니까?)

108018 #1 정낭이엔 해낫주, 정낭.(‘정낭’이라고 했었지, ‘정낭’.)

254) ‘올레’는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이다.

255) ‘목안’은 한라산을 경계로 하여 제주시 동지역,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조천읍, 구좌읍을 일컫는다.

256) ‘서촌’은 여기서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을 일컫는 것 같다.

257) ‘안덕’은 여기서 서귀포시 안덕면 전체를 일컫는다.

258) ‘정낭’은 거리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大門) 대신 가로 걸쳐놓는 길고 굽직한 나무이다.

108018 #2 정낭, 올레 정낭.(‘정낭’, ‘올레’, ‘정낭’.)

108018 #1 계민 그 정낭은 어떻 흥 의미냐 흥민은양, 세 개 아이파? 이제 저디 관광역 가는 디도 잇는디, 세 개민 흥나만 놔진 집은 보든 디 간 사름, 주인이, 주인이. 또 두 개 흥민 흥뽀 먼 디 가분 사름. 경흥민 세 개까지는 편찍이여, 세 개 다 닫으면 안네 사름이 엇인 집, 세 개 다 앓아지민 안네 주인이 잇인 집, 경 해낫 수다. 경흥난 들므쉬 들카부덴, 질레 멩기멍 들므쉬 집 안트레 들카부덴 정낭을 논 거주게. 계민 그 정낭으로 주인이 싯고 엇는 걸 알아서. 정낭, 낭, 정낭 세 개 놔근 에.(그러면 그 ‘정낭’은 어떻게 한 의미냐 하면은요, 세 개 아닙니까? 이제 저기 관광지 가는 데도 잇는데, 세 개면 하나만 놓아진 집은 가까운 데 간 사름, 주인이, 주인이. 또 두 개 하면 조금 먼 데 가버린 사름. 그러면 세 개까지는 아무것도 없어, 세 개 다 닫으면 안에 사름이 없는 집, 세 개 다 가져지면 안에 주인이 잇는 집,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소 들까보아서, 길에 다니면서 마소 집 안으로 들까보아서 ‘정낭’을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정낭’으로 주인이 잇고 없는 걸 알 앓어. ‘정낭’, 나무, ‘정낭’ 세 개 놓아서.)

108019 @ 놀에 대해근에 흥 번 곶아줍서, 놀.(가리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가리.)

108019 #1 놀 누는 거?(가리 가리는 거?)

108019 @ 예, 놀.(예, 가리.)

108019 #1 놀 누는 건게, 보리.(가리 가리는 건요, 보리.)

108019 @ 마당에 놀.(마당에 가리.)

108019 #1 보리낭놀이도 잇고, 산디찍낭놀이도 잇고, 산디 여문 거, 조코고리, 조코고리 무꺼다근에 조낭 비어당, 조코고리로 또 놀 누는 거 잇곡. 계민 부잣집에는 크게, 놀 터를 크게 흥곡, 가난흥 집원 족으민 족게 흥곡, 경 흥영 놀을 놀엇주게. 조 놀, 보리낭놀이, 보리놀이, 따시 칠놀이, 자골출<sup>259)</sup>놀이, 감저줄놀이, 놀이 뻗 개라게. 감저줄 쉼칠, 감저줄 해당 놀 놀곡, 따시 보리낭 놀, 산디 홀타난 산디찍놀이, 나룩찍놀이, 따시 조코고리 비어다근에 툃지 아니할 때는 조코고리 놀곡 흥지만은 빈 낭 놀이 해주 게. 칠놀이, 조낭데기놀이, 감저줄놀이, 따시 무싱거 놀, 산디찍낭놀이, 나룩찍놀이, 경 헛주 게.(보릿짚가리도 잇고, 밭벚짚가리도 잇고, 밭벼 여문 거, 조이삭, 조이삭 묶어다가 조짚 베어다가, 조이삭으로 또 가리 싹는 거 잇고. 그러면 부잣집에는 크게, 가리 터를 크게 하고, 가난한 집에는 작으면 작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리를 싹앓지요. 조가리, 보릿짚가리, 다시 풀가리, 차풀가리, 고구마줄기가리, 가리가 몇 개야. 고구마줄기 소풀, 고구마줄기 해다가 가리 싹고, 다시 보릿짚가리, 밭벼 훑어난 밭벚짚 가리, 벚짚가리, 다시 조이삭 베어다가 툃지 아니할 때는 조이삭 싹고 하지만은 빈 대 가리가 많지요. 풀가리, 조짚가리, 고구마줄기가리, 다시 무엇 가리, 밭벚짚가리, 벚짚가리, 그렇게 했지요.)

108019 @ 거기서 곱을락 해봣디광?(거기서 솜바꼭질 해봣습니까?)

259) ‘자골출’은 자귀풀의 열매가 맺기 전에 소먹이용으로 베는 풀이다.

108019 #1 곱을락 헛주게, 어틸 때.(숨바꼭질 했지요, 어틸 때.)

108019 #2 (웃음.)

108019 @ 그거 헛 번 곱아줍서.(그거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8019 #1 곱을락은게, 아이덜이 쟁겹부시 헛영 눈 곱으렐, 진 사름은 눈 곱아근에 저 “쨌꼭 쨌꼭” 행 곱아불민, 늘 소곱에 강 곱아불곡 헛민, 그 좃이레 땡기당 먼저 좃은 사름은 따시, 따시 저 눈 곱을락 헛곡, 경 해낫주게.(숨바꼭질은요,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해서 눈 감으라고, 진 사람은 눈 감아서 저 “쨌꼭 쨌꼭” 해서 숨어버리면, 가리 속에 가서 숨어버리고 하면, 그 좃으러 다니다가 먼저 좃은 사람은 다시, 다시 저 눈 곱을락 하고, 그렇게 했었지요.)

108019 @ 거기 저, 무신 것도 해낫지 안헛으파?(거기 저, 무슨 것도 했었지 않습니까?)

108019 #1 공기.(공기.)

108019 @ 그거 저 머냐? 사금파리 놀이렌 해냐? 거 머냐? 밥해 먹는 거.(그거 저 뭐냐? 사금파리 놀이라고 해냐? 거 뭐냐? 밥해 먹는 거.)

108019 #1 아니, 거 저 머.(아니, 거 저 뭐.)

108019 @ 거 머렌 헛수과?(거 뭐라고 했습니까?)

108019 #1 저, 거세기 흑밥.(저, 거시기 소꿉놀이.)

108019 @ 응, 흑밥.(응, 소꿉놀이.)

108019 #1 구제기딱물도 앓히곡, 앓정 돌새기 낱, 구제기딱물 낱 흑 농곡 헤근에 밥헛노렐 헤근에 무신 검질께기 해당 숨는 체 헛명, 그 흑밥.(소라딱지도 앓히고, 앓혀서 자잘한 돌 넣어서, 소라딱지 놓아서 흑 넣고 해서, 밥하노라고 해서 무슨 검불 해다가 때는 체 하면서, 그 소꿉.)

108019 @ 경 헛다근에 불도 나불고.(그렇게 하다가 불도 나버리고.)

108019 #1 불도 나불곡, 늘 아래서 아이덜 장난헛당 보민 불낱 집도 카곡.(불도 나버리고, 가리 아래서 아이들 장난하다가 보면 불나서 집도 타고.)

108019 @ 흑밥놀이 허당게, 그 저 밥허는 식으로 헛명.(소꿉놀이 하다가요, 그 저 밥하는 식으로 하면서.)

108019 #1 예게, 밥허는 식으로 헛명, 기낱 빈 솟 숨는 아이덜도 잇곡, 콧 ㄴ저당 기낱 숨아불어. 경 행 불나부는 집도 잇곡 해낫어. 경 헛 거주게. 경헛고 우리 그때는 흑교 가민 고무줄 펠락, 검은 고무줄 행 절로 헛나 심곡, 일로 헛나 심영 글로 뛰곡, 오자미 멘들곡, 공기 헛곡, 그것베끼 장난감이 엇어.(예게, 밥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냥 빈 솟 때는 아이들도 있고, 성낱 가져다가 그냥 때어버려. 그렇게 해서 불나버리는 집도 있고 했었어. 그렇게 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 그때는 학교 가면 고무줄 펠락, 검은 고무줄 해서 저쪽으로 하나 잡고, 이쪽으로 하나 잡아서 거기로 뛰고, 오자미 만들고, 공기 하고, 그것밖에 장난감이 엇어.)

108020 @ 계난 그때 독들도 보민 놀에 독새기 나는 경우가 잇어.(그러니까 그때 닭들도 보면 가리에 달걀 낱는 경우가 잇어.)

108020 #1 예, 독새기. 놀 트멍에 독새기 난 거 하. 거 텅에<sup>260</sup> 안 해여근에, 거 텅에 독새기 안 나시카부텅 보민, 그 놀, 출 빠당 보민 그 놀, 출 소곱에 보민 독새기가 수두락<sup>ㅎ</sup>곡, 경 해낫어. 건 우리 경험<sup>ㅎ</sup> 거.(예, 달갈. 가리 틈에 달갈 낳은 거 많아. 거 ‘텅에’ 달갈 안 낳았을까 싶어서 보면, 그 가리, 풀 빠다가 보면 그 가리, 풀 속에 보면 달갈이 수두룩하고, 그렇게 했었어. 건 우리 경험<sup>ㅎ</sup> 거.)

108020 @ 그다음에양, 그 도새기, 돛통, 돛통에 대해근에 <sup>ㅎ</sup> 번 말해봅서.(그다음에요, 그 돼지, 돼지우리, 돼지우리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8020 #1 돛통에 대한 건 무싱거라게. 도새기 심어당 자릿도새기<sup>261</sup> 놓민 돛도고리<sup>262</sup> 요추룩 <sup>ㅎ</sup> 거 낳, 자릿도새기 심어오랑 죽은 도새기<sup>ㄱ</sup>루 문작<sup>ㅎ</sup> 걸로 주곡, <sup>ㅎ</sup>뽀 커 가민 방에 저난 보리채, 그걸로 주곡, 돛도고리 영 낳. 디딜광은 돛도고리에염으로, 디딜광에 강 똥 싸민, 돌 놔근에 고냥 난 디 <sup>ㅎ</sup>민, 도새기 들어강 먹당 탁탁 털어볼민 이 우트레 똥 문 블라지곡 경 해낫주게. 경<sup>ㅎ</sup>민 이젠 쉼걸름을 굴채로 돛통더레 담아놔, 굴채로, 쉼걸름. 쉼걸름 돛통더레 담아놔, 그거 썩으면 이젠 또 굴채로 바꿨디로 내청 보리 갈 땐 그거 돛걸름 했주게.(돼지우리에 대한 건 무엇이랴. 돼지 잡아다가 ‘자릿도새기’ 넣으면 ‘돛도고리’ 요처럼 한 거 놓아서, ‘자릿도새기’ 잡아와서 작은 돼지는 가루 반드러운 걸로 주고, 조금 커 가면 방아 저난 보리쌀의 곱곱질, 그것으로 주고, ‘돛도고리’ 이렇게 놓아서. 부춘돌은 ‘돛도고리’ 옆으로, 부춘돌에 가서 똥 싸면, 돌 놓아서 구멍 난 데 하면, 돼지 들어가서 먹다가 탁탁 털어버리면 이 위로 똥 모두 발라지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러면 이젠 소거름을 삼태기로 돼지우리로 담아 넣어, 삼태기로, 소두엄. 소두엄 돼지우리로 담아 넣어서, 그거 썩으면 이젠 또 삼태기로 바깥으로 내쳐서 보리 갈 땐 그거 돼지거름 했지요.)

108020 @ 거난에 그 도새기 사는 그 집.(그러니까 그 돼지 사는 그 집.)

108020 #1 집, 돛집<sup>263</sup>.(집, ‘돛집’.)

108020 @ 돛집, 거 멀로 멩글아마썸?(‘돛집’, 거 무엇으로 만들어요?)

108020 #1 돌로, 들어가는 도엔 돌로 바투곡, 내중엔 낭도 걸치곡 <sup>ㅎ</sup>영 <sup>ㄴ</sup>람지<sup>264</sup> 모양으로 썩으로 더껏주게. 경 해영 그건 도새기 들어갔다 나왔다 <sup>ㅎ</sup>는 돛집, 돛집.(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돌로 받치고, 나중에는 나무도 걸치고 해서 이영 모양으로 짚으로 덮었지요. 그렇게 해서 그건 돼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돛집’, ‘돛집’.)

108020 @ 새끼 날 땐 저 그디.(새끼 날 땐 거기.)

108020 #1 새끼 날 때도 그디서 나곡, 베껏디서도 나곡, 경 <sup>ㅎ</sup>여.(새끼 날 때도 거기서 나고, 바깥에서도 낳고, 그렇게 해.)

260) ‘텅에’는 닭이 들어앉아 있으면서 알을 낳는 곳이다.

261) ‘자릿도새기’는 어미젖을 떼었어도 아직 두 마리를 우리에 함께 넣고 기르는 돼지이다.

262) ‘돛도고리’는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 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이다.

263) ‘돛집’은 동그랗고 자그마하게 삼면(三面)으로 담을 쌓아 올려서 위에 검불을 덮고 한쪽 면을 터서 돼지가 드나들게 한 막이다.

264) ‘<sup>ㄴ</sup>람지’는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108020 @ 보드라운 거 영 집어주지양?(부드러운 거 이렇게 집어주지요?)

108020 #1 아니, 그건 새끼 나는 중 알민 헝곡, 몰르민 기냥 베꼈디서도 나곡, 안네서도 나곡, 열두 개씩, 열세 개씩 나, 도새기 새끼가. 경 켈 먼저 나온 건 켈 족 으메.(아니, 그건 새끼 낳는 중 알면 하고, 모르면 그냥 바깥에서도 낳고, 안에서도 낳고, 열두 개씩, 열세 개씩 낳아, 돼지 새끼가. 그렇게 제일 먼저 나온 건 제일 작 아요.)

108020 @ 사름도 마찬가지로우다. 큰아들이 좀 족아.(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들이 조금 작아.)

108020 #1 아니, 큰아덜이 족는 게 아니고, 건 나민 트로 남주만은, 도새기는 혼 자리에서 열두 개도 나곡, 열 개도 나는데, 켈 앞의 난 게 족아, 열 개에서도. 거 켈 각끝에 가난 젓 얻어먹지 못행 족암젠. 젓고고리가 메기난, 열세 개 나가민.(아니, 큰아들이 작은 게 아니고, 건 낳으면 따로 낳고 있지만은, 돼지는 한 자리에서 열두 개도 낳고, 열 개도 낳는데, 제일 앞에 낳은 게 작아, 열 개에서도. 거 제일 끝에 가니까 젓 얻어먹지 못해서 작고 있다고. 젓꼭지가 없으니까, 열세 개 나가면.)

108020 @ 젓고고리가 멧 개파?(젓꼭지가 몇 개입니까?)

108020 #1 젓고고리가 열하나산디 열두 개 잇주게. 도새기 새끼, 도새기 젓고고 린. 계난 도새기에 메주게, 짓도. 큰 도새기는 젓고고리가 하곡, 족은 도새긴 젓고 고리가 족곡, 경 헝는 거주게.(젓꼭지가 열하나인지 열두 개 있지요. 돼지 새끼, 돼 지 젓꼭지는. 그러니까 돼지에 매지요, 짓도. 큰 돼지는 젓꼭지가 많고, 작은 돼지 는 젓꼭지가 적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108020 @ ㄹ트지 안헝여?(같지 않습니까?)

108020 #1 ㄹ트지 안헝여.(같지 않아요.)

108020 #2 보통, 보통은 열두 개주게.(보통, 보통은 열두 개지요.)

108020 #1 예, 사름은 젓이 두 갠디 크나 족으나 헝는디, 도새긴 경 안 헝주게. 큰 도새기도 싯곡, 족은 도새기도 새끼 나곡 헝난게. 쉼 새끼도, 쉼도 젓이 두 개 고.(예, 사름은 젓이 두 개인데 크나 작으나 하는데, 돼지는 그렇게 안 하지요. 큰 돼지도 있고, 작은 돼지도 새끼 낳고 하니까요. 소 새끼도, 소도 젓이 두 개고.)

108020 @ 거난 헝나벳기 안 남주게.(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낳고 있지요.)

108020 #1 헝나벳기 안 나. 헝나벳기 안 나, 쉼는.(하나밖에 안 낳아. 하나밖에 안 낳아, 소는.)

108020 @ 계난 사름은 쌍둥이, 쌍둥이까지벳기 안 남니께. 젓고고리가 두 개니 까.(그러니까 사름은 쌍둥이, 쌍둥이까지밖에 안 낳고 있지요. 젓꼭지가 두 개니까.)

108020 #1 예, 이제는 세상이 바파정 네 쌍둥이도 나곡, 세 쌍둥이도 나곡 막 헝주게.(예, 이제는 세상이 바뀌져서 넷 쌍둥이도 낳고, 셋 쌍둥이도 낳고 막 하고 있지요.)

108020 @ 그건, 그건 바파져야 합니다. (웃음)(그건, 그건 바파져야 합니다.) (웃 음)

108020 #1 아니, 세 쌍둥이 나난 딴 옛날도 잇엇젠.(아니, 셋 쌍둥이 낳았던 데는 옛날도 잇었다고.)

108020 @ 그다음에 그 저 머냐? 수컷, 수커 이거.(그다음에 그 저 뭐냐? 수컷, 수컷 이거.)

108020 #1 도새기?(돼지?)

108020 @ 저 암커구나 암커. 암커 이거 머 저 해가민 그 도새기통 그 담 막 널 어불곡 흐지 안흠니까?(저 암컷이구나 암컷. 암컷 이거 뭐 저 해가면 그 돼지우리 그 담 마구 헐어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108020 #1 예, 담 널영 수토새기 좃앙 새끼 베쟁 흐민, 경흐민 그 수토새기신디 배로 무경 가주게. 수토새기 빌어근에 가민 수토새기 게꿈 바라바라 물멍 착착착 흐메, 암컷 들어가기 전에. 게꿈 이만씩 나오멍, 입 착착 다시멍 암컷 풀만 보민. (예, 담 헐어서 수돼지 찾아서 새끼 배려고 하면, 그러면 그 수돼지에게 참바로 묶어서 가지요. 수돼지 빌어서 가면 수돼지 거품 바라바라 물면서 착착착 하지요, 암컷 들어가기 전에. 거품 이만큼씩 나오면서, 입 착착 다시면서 암컷 풀만 보민.)

108020 @ 그다음에 수컨 그 불베곡.(그다음에 수컷은 그 불알을 끊어서 자르고.)

108020 #1 불베곡, 불독새기 베어근에 스나이덜 불블른 사름 술 안주 흐곡. 경흐난 옛날양, 아덜 성제가 잇는디, 죽은아덜, 큰아덜. 어린 것덜 으섯 설흐곡 일곱 설인가 놔된 밧디 강 오란 보난 도새기 불블르는 거 받, 성은 아시신드레 켜 흐흐라, 켜 흐라 흐멍 오꽃 불 그차불언게.(불알을 끊어서 자르고, 불알 끊어서 잘라서 남자들 불칸 사름 술 안주 하고, 그러니까 옛날요, 아들 형제가 잇는데, 작은아들, 큰아들. 어린 것들 여섯 살하고 일곱 살 놔뒤서 밧에 가서 와서 보니까 돼지 불까는 거 봐서, 형은 동생에게 켜 하라, 켜 하라 하면서 그만 불알 끊어버렸어.)

108020 #2 (웃음)

108020 #1 경 헛젠 말이 잇수다. 도새기 불블르는 거 받 널랑 켜 흐여, 켜 흐여, 장난흔 거주게. 널랑 켜 흐여, 켜 흐여, 불 그차부난 삶니까게. (웃음) 아덜 성제놔된 밧디 간 오란 보난.(그렇게 했다는 말이 잇습니다. 돼지 불까는 거 봐서 너랑 켜 해, 켜 해, 장난한 거지요. 너랑 켜 해, 켜 해, 불알 끊어버리니까 살겠습니까. (웃음) 아들 형제 놔뒤서 밧에 간 와서 보니까.)

108021 @ 변소에 대해근에 흔 번 말해봅서.(변소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8021 #1 변소 그거주게. 디딜팡에 강 똥 싸민 착착.(변소 그거지요. 부출돌에 가서 똥 싸면 착착.)

108021 @ 계난 그 디딜팡.(그러니까 그 부출돌.)

108021 #1 디딜팡은양, 디딜팡이엔 흔 건 들어가는 디 큰 돌을 놓디다. 그 디딜팡, 도새기 곧 들어가는 딴 문 농곡, 따시 박석으로 더끄는 딴 저 디딜팡 양펜의, 양펜의 돌 놔근에 밧 디디는 거 박석 놓니까게. 경 흐영 양펜드레 영 앓앙 똥이나



오줌이나 싸민 도새기 그 안트레 들어강 똥 먹젠 흐민게, 착착 싸민 머리뺍 우트레 가지 안흡니까? 게민 탁탁 털어불어. 게민 옷뜨레 똥 문딱 블라져.(부춘돌은요, 부춘돌이라고 한 건 들어가는 데 큰 돌을 놓습니다. 그 부춘돌, 돼지 곧 들어가는 데는 모두 놓고, 다시 반석으로 덮는 덴 저 부춘돌 양편에, 양편에, 양편에 돌 놓아서 발 디디는 거 반석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편으로 이렇게 앉아서 똥이나 오줌이나 싸면 돼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똥 먹으려고 하면요, 착착 싸면 머리 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탁탁 털어버려. 그러면 옷으로 똥 모두 발라져.)

108021 @ 게민 그 저 변소 갈 때는 인기척해야 될 거 아니우파?(그러면 그 저 변소 갈 때는 인기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8021 #1 인기척은 머 집도 엇인디 인기척혀여?(인기척은 뭐 집도 없는데 인기척해?)

108021 @ 아, 경해도 가근에.(아, 그래도 가서.)

108021 #1 아니, 먼저 사름 앉은 거 베려지는데, 집의서.(아니, 먼저 사람 앉은 거 보는데, 집에서.)

108021 @ 경해도계.(그래도요.)

108021 #1 아니, 아니. 경 행 가면은 이젠 휴지지만은, 그뻘 보리냥, 짝, 그거주게. 게난 우리 큰아들 클 땐 다 검질로 보리냥, 똥고냥. 전원 감산리, 칠해냥 신문지 덜 빌레 막 탕겨.(아니, 아니. 그렇게 해서 가면은 이젠 휴지지만은, 그뻘 보릿짚, 짚, 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클 땐 다 검불로 보릿짚, 똥구멍, 전에는 ‘감산리’, 칠해놔서 신문지들 빌려 마구 다녀.)

108021 @ 게난 그 남자삼촌이 흐 번 곱아봅서. 머냐 그 변소에 엇힌 이야기들머.(그러니까 그 남자삼촌이 한 번 말해보십시오. 뭐냐 그 변소에 엇힌 이야기들 뭐.)

108021 #2 변소에 엇힌 이야기는 박석 헤다근에 세우곡, 박석 두 갠 너른 것 헤근에 걸쳐근에, 경 행 변소에 앓아근에 봅주게.(변소에 엇힌 이야기는 반석 헤다가 세우고, 반석 두 개는 넓은 것 헤다가 걸쳐서, 그렇게 해서 변소에 앓아서 보지요.)

108021 #1 탁탁 털주게.(탁탁 털지요.)

108021 #2 사름 우트레.(사람 위로.)

108021 #1 문딱 똥이영 블라지주게. 머리뺍 우트레 똥 싸민양, 도새기가 탁탁 털주게. 경허민 옷뜨레 문딱 그 도새기 똥 머리뺍에 싸진 거 옷뜨레 문딱 블라지주게.(모두 똥이랑 발라지지요. 머리 위로 똥 싸면요, 돼지가 탁탁 털지요. 그러면 옷으로 모두 그 돼지 똥 머리에 싸진 거 옷으로 모두 발라지지요.)

108021 #2 경 헤근에 그 옷 벗어근에, 오랑 가져가는 사름 잇고.(그렇게 해서 그 옷 벗어서, 와서 가져가는 사람 잇고.)

108021 #1 아기덜은 옷 문들락기 벗영 탕기곡.(아기들은 옷 모두 벗어서 다니고.)

108022 @ 헛간에 대해근에, 이것도 변소지양? 헛간.(헛간에 대해서, 이것도 변

소지요? 헛간.)

108022 #1 헛간은 변수가 아니고, 뱅이왕<sup>265</sup>) ㄱ튼 거 헛간이엔 헛주게.(헛간은 변수가 아니고, 방앗간 같은 거 헛간이라고 했지요.)

108022 @ 응, 헛간. 그거 혼 번 돌아봅서.(응, 헛간. 그거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8022 #1 그거 뱅이왕게. 혼 펜윈 쉼 메곡, 이 펜윈 이만이 혼 뱅엿귀 방에 지는 디, 영 방에 낱 푸는체도 걸곡 흥영, 그건 헛간. 뱅이왕이엔 헛주, 헛간이엔 안헛수다. 뱅이왕, 것고라.(그거 방앗간. 한 편에 소매고, 이편에는 이만큼 한 절굿공이 방아 지는 데, 이렇게 방아 놓아서 키도 걸고 해서, 그건 헛간. 방앗간이라고 했지, 헛간이라고 안 했습니다. 방앗간, 것더러.)

108022 @ 헛간, 무싱거마썸?(헛간, 무엇이요?)

108022 #1 뱅이왕.(방앗간.)

108022 #2 뱅이왕(방앗간.).

108022 @ 뱅이왕?(방앗간?)

108022 #1 예, 죽은 뱅이왕. 쉼막살이 어염에 거 뱅이왕이엔 해낫수다.(예, 작은 방앗간, 외양간 옆에 거 방앗간이라고 했었습니다.)

108023 @ 쉼막에 대행 혼 번 돌아봅서.(외양간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8023 #1 쉼막은 쉼막. 쉼메곡게. 코거리 흥영 쉼 이른 빈지<sup>266</sup>)에 코거리 걸어근에 쉼석<sup>267</sup>) 메와근에 코거리에 쉼석 영 줄라메엿주게. 그것이 그 쉼, 쉼막이주게.(외양간은 외양간. 소매고요. 올라미 해서 소 이런 ‘빈지’에 올라미 걸어서 ‘쉼석’ 매워서 올라미에 ‘쉼석’ 이렇게 줄라매었지요. 그것이 그 소, 외양간이지요.)

108023 @ 쉼석.(‘쉼석’.)

108023 #1 쉼막. 내중에라 가난 낭으로 영 행 저 대문 모양으로 걸어근에 그디 메엿주만은, 출 곶양 뵝이곡, 자골출 빠당 못 채, 반 못 주곡, 혼 못 주곡, 경 헛주게. 저 곶이 박양 저디 쉼석으로 메영, 이제 부룽이고라 밧갈쉼<sup>268</sup>), 암쉼.(외양간. 나중에 가니까 나무로 이렇게 해서 저 대문 모양으로 걸어서 거기 매었지만은, 풀 같아서 먹이고, ‘자골출’ 빠다가 못 채, 반 못 주고, 한 못 주고, 그렇게 했지요. 저 고리 박아서 저기 ‘쉼석’으로 매어서, 이제 부룩소더러 ‘밧갈쉼’, 암소.)

108023 @ 쉼 질루는 게 쉼막이고.(소 기르는 게 외양간이고.)

108023 #1 쉼막.(외양간.)

108023 @ 물 질루는 디는?(말 기르는 데는?)

108023 #1 물 질루는 디가 딱로 엿지. 물은 드르팻디 낱 내불엿지 집의서 질랏 수과게? 저 웅매 ㄱ튼 건 석 흥영 밧디 메엿주.(말 기르는 데가 따로 없지. 말은 들 밭에 놓아서 내버렸지 집에서 길렀습니까? 저 말의 수컷 같은 건 줄 해서 밭에 매 엿지.)

265) ‘뱅이왕’은 남방아나를 놓아두고서 방아를 찧는 헛간이다.

266) ‘빈지’는 벽 아래쪽 두 기둥 사이에 가로 질러 막은 널빤지이다.

267) ‘쉼석’은 소(牛)의 대가리를 걸려 잡아매어 끄는 줄이다.

268) ‘밧갈쉼’은 밭을 가는 데 부리는 소이다.

108024 @ 장독대, 그 저 물항. 아,그 저 머냐? 장항.(장독대, 그 저 물독. 아, 그 저 뭐냐? 장독.)

108024 #1 장항은 장팡뒤<sup>269</sup>)에.(장독은 ‘장팡뒤’에.)

108024 #2 장팡뒤에.(‘장팡뒤’에.)

108024 #1 장팡뒤에 그 정지 바른 디 장팡뒤 헤여근에 저 거세기 돌 바탕, 장항 놓젠 흐민 그디 돌 뇌근에 저 자갈이라도 냇창에 강 해당 수두룩이 흐영, 동글락하게 흐여근에 흐곡, 장항은 무싱거 들카부덴 풍선, 저 소낭, 지친 거 끈어당 노끈으로 벵 하게 돌아가멍 여꿍니다. 그 무싱거 므쉬라도 장항 벌러불카부덴, 그추룩 흐영 요만이 흐 도흐영 정지 무똥<sup>270</sup>)으로, 그 뒷문으로 장항 거리레 가게, 그것이 장항.(‘장팡뒤’에 그 부엌 바른 데 ‘장팡뒤’ 해서 저 거시기 돌 받쳐서, 장독 놓으려고 하면 거기 돌 놓아서 저 자갈이라도 냇가에 가서 해다가 수두룩이 해서, 둥글게 해서 하고, 장독은 무엇 들까 싶어서 풍선, 저 소나무, 얇은 거 끊어다가 노끈으로 빙하게 돌아가면서 엮습니다. 그 무엇 마소라도 장독 꺾까 싶어서, 것처럼 해서 요만 큼 한 입구해서 부엌 ‘무똥’으로, 그 뒷문으로 장독 뜨러 가게, 그것이 장독.)

108024 @ 무슨 낭으로 그디 영 들렀수과?(무슨 나무로 거기 이렇게 들렀습니까?)

108024 #1 저 소낭풍선 끈어당, 지친 거 끈어당.(저 소나무풍선 끊어다가, 얇은 거 끊어다가.)

108024 @ 소낭으로도 흡니까?(소나무로도 흡니까?)

108024 #1 예, 소낭 끈어당 세와근에.(예, 소나무 끊어다가 세워서.)

108024 @ 츠낭으로 보통 흡니까?(참나무로 보통 흡니까?)

108024 #1 아니, 츠낭 아니고 소낭, 소낭. 소나무 쯤쨌흔 거 끈어당 직작하게 헤여근에.(아니, 참나무 아니고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자잘한 거 끊어다가 아주 뻑뻑하게 해서.)

108024 @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장팡뒤에는 오갈피를 심어난 거 닳아, 오갈피.(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장팡뒤’에는 오갈피를 심었던 거 닳아, 오갈피.)

108024 #1 웃드르<sup>271</sup>)난 거주게, 웃드르.(‘웃드르’니까 거지요, ‘웃드르’.)

108024 @ 그거 가지 돌은 거 오갈피라, 오갈피. 지금 말로 하니까.(그거 가지 돌은 거 오갈피야, 오갈피. 지금 말로 하니까.)

108024 #1 아니, 이딘 소나무 햇수다.(아니, 여기는 소나무 했습니다.)

108024 @ 계난 오갈피가양, 그때는 회양흔 거 부터게.(그러니까 오갈피가요, 그때는 흰 거 붙어요.)

108024 #1 우리 감산원, 친정에는 담으로 장팡뒤 다지곡, 뒷문 넘어가는 문 담

269) ‘장팡뒤’는 장독을 넣어두는 자리의 뒤쪽이다.

270) ‘무똥’은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보통 마당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다.

271)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으로 딱 우잣<sup>272)</sup> 돌런에 해지곡 장광뿔. 이딘 오란 보난에 우영팻디 경 소낭 끈어 단 여간 험십디다게. 경 그레 서답도 널곡, 빨래도 널곡, 갈중의<sup>273)</sup> ㄴ튼 것도 그레 착착 걸청 널곡, 경 흡디다. 우리 집은 담으로 다지곡, 우리 친정은.(우리 ‘감산리’는 친정에는 담으로 ‘장광뿔’ 쌓아지고, 뒷문 넘어가는 문 담으로 딱 둘러서 해지고, ‘장광뿔’를. 여기는 와서 보니까 텃밭에 그렇게 소나무 끊어다가 엮어서 하고 있었 습니다. 그리로 빨래도 널고, 빨래도 널고, ‘갈중의’ 같은 것도 그리로 착착 걸쳐서 널고, 그렇게 합디다. 우리 집은 담으로 쌓아지고, 우리 친정은.)

108025 @ 그다음에 춤<sup>274)</sup> 또는 춤향<sup>275)</sup> 알아지쿠광?(그다음에 ‘춤’ 또는 ‘춤향’ 알아지겠습니까?)

108025 #1 응?(응?)

108025 @ 춤.(‘춤’.)

108025 #1 숨?(춤?)

108025 @ 춤, 춤.(‘춤’, ‘춤’.)

108025 #1 춤?(‘춤’?)

108025 @ 춤향?(‘춤향’?)

108025 #1 춤향이 머라?(‘춤향’이 뭐라?)

108025 @ 잘 모르겠지양.(잘 모르겠지요.)

108025 #1 춤향은 모르쿠다.(‘춤향’은 모르겠습니다.)

108025 @ 이진 나도 잘 모르큰게.(이진 나도 잘 모르겠네.)

### 초가지붕 이기

108026 @ 그다음에는 초가지붕 이기로 가쿠다양.(그다음에는 초가지붕 이기로 가겠습니다.)

108026 #1 예, 초가지집 그거주게.(예, 초가 그거지요.)

108026 @ 그 초집 이는 거.(그 초가 이는 거.)

108026 #1 예, 이는 건 새로.(예, 이는 건 따로.)

108026 @ 초가지붕은 일 년에 한 번 입니까?(초가지붕은 일 년에 한 번 입니까?)

108026 #1 일 년에 한 번 이는 사람, 두 해에, 삼 년에 한 번 이는 사람, 그건 한이 엇어. 경흐민 그 새 우터레 딱루 썰 비어당.(일 년에 한 번 이는 사람, 두 해에 삼 년에 한 번 이는 사람, 그건 한이 없어. 그러면 그 띠 위로 따로 띠를 베어다 가.)

108026 @ 거난 여기서는 주로.(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272) ‘우잣’은 한 집안의 울타리의 안쪽이다.

273)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이다. 보통 노동복으로 입는다.

274) ‘춤’은 새를 머리 땅듯이 땅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 따위를 받아 그 밑에 둔 향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이다.

275) ‘춤향’은 ‘춤’을 타고 내려온 이슬 따위를 담은 향아리이다.

108026 #1 일 년에도 혼 번 흐곡, 이 년에도 혼 번 흐곡, 경 사름에 메곡게. 이 년에 혼 번 해가민 저 줄도 문 삭아불곡, 경 흐주게. 삼 년에 혼 번 행. 계난 흐여 지는 사름 새 헛당 일 년에 혼 번 흐민 판쪽 새 지봉 담주게. 경 행 새로 줄 놉근 에.(일 년에도 한 번 하고, 이 년에도 한 번 하고, 그렇게 사름에 달려 있고요. 이 년에 한 번 해가면 저 줄도 모두 삭아버리고, 그렇게 하지요. 삼 년에 한 번 해서. 그러니까 해지는 사름 띠 했다가 일 년에 한 번 하면 깨끗이 새 지봉 닙지요. 그렇게 해서 띠로 줄 드러서.)

108027 @ 예, 예. 그건 나중에양. 초가를 일젠 허민 새를 해야 될 거 아니파 양?(예, 예. 그건 나중예요. 초가를 이려고 하면 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8027 #1 예, 새 비어당.(예, 띠 베어다가.)

108027 @ 그 새는 어떻 준비릅니까?(그 띠는 어떻게 준비릅니까?)

108027 #1 새는 새왓디 잇주게, 새왓. 신 사름도 잇곡, 새 좇어당도 흐는 사름도 잇곡, 이녁 밧 잇인 사름 새 강 비영 무꺼다근에.(띠는 띠발에 있지요, 띠발. 있는 사름도 있고, 띠 주워다가도 하는 사름도 있고, 이녁 밧 잇는 사름 띠 가서 베어다가 묶어서.)

108027 @ 언제 강 비어, 새.(언제 가서 베어, 띠.)

108027 #1 거는 저.(거는 저.)

108027 #2 동지선들에.(동지선달에.)

108027 #1 동지선들에. 동짓달, 선달. 새 비는 건 동지선들이우다. 계당 봄 나민 일주게.(동지선달에. 동짓달, 선달. 띠 베는 건 동지선달입니다. 그러다가 봄 나민 일지.)

108027 @ 계난 지봉 이는 건 새로 일고.(그러니까 지봉 이는 건 띠로 이고.)

108027 #1 예.(예.)

108027 @ 그다음 줄 놓는 건 각단<sup>276</sup> 아니우파?(그다음 줄 드리는 건 ‘각단’ 아닙니까?)

108027 #1 각단으로 흐주.(‘각단’으로 하지.)

108027 @ 각단은 어떻 준비릅니까?(‘각단’은 어떻게 준비릅니까?)

108027 #1 각단은게, 이만이 썩른 거. 거꾸로 느다 낱 무꺼당 집의 왕 데멧다근 에 새로 일어남, 그 각단으로 줄로 저 혼 사름은 비명, 그 줄 비는 걸로 비어근에 가곡, 혼 사름은 이디 줄노는 어른은 혼 번으로 뱅뱅뱅 돌민 혼 사름은 저레 줄 비어강, 또 이레 막 줄 비어진 거 이레 놉뵈당 둘이가 줄 비곡, 혼 사름은 흐곡 행 둘이 어울려가. 그 둘이 마주 붙영 줄을 멘들주게. 손으로 영 주르륵하게, 주르륵하게 경 어울려 가는 거주게. 경 행 줄이 뛴는 거.(‘각단’은요, 이만큼 짧은 거. 거꾸로 바로 놓아서 묶어 다가 집에 와서 쌓았다가 띠로 이어나서, 그 ‘각단’으로 줄로 저 한 사름은 돌리면서, 그 줄 돌리는 걸로 돌려서 가고, 한 사름은 여기 줄드리는 어른은 한 번으로 뱅뱅뱅 돌리면 한 사름은 저리로 줄 돌려가서, 또 이리로 막 줄 돌

276)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이다.

려진 거 이리로 놔뒀다가 돌이가 줄 돌리고, 한 사람은 하고 해서 돌이 어울려가. 그 돌이 마주 붙여서 줄을 만들지요. 손으로 이렇게 주르륵하게, 주르륵하게 그렇게 어울려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줄 되는 거.)

108027 @ 계란 그 각단.(그러니까 그 ‘각단’.)

108027 #1 각단은 줄.(‘각단’은 줄.)

108027 @ 저 새밭디 강 보민 각단.(저 띠밭에 가서 보면 ‘각단’.)

108027 #1 짝른 것들께.(짧은 것들요.)

108027 @ 예.(예.)

108027 #2 새 비명 남은 거 끈어근에게.(띠 베면서 남은 거 끊어서.)

108027 #1 끈영도 흥곡, 각단 밧이 짝른 밧이 해주께. 경 각단 트로 비영 묶영 읊니께께. 이녁 밧이 엇인 사름은 좃으레도 텅기곡, 각단 좃으레, 새 좃으레 막 텅기곡.(끊어서도 하고, ‘각단’ 밧이 짧은 밧이 많지요. 그렇게 ‘각단’ 따로 베어서 묶어서 읊니다. 이녁 밧이 없는 사름은 주우러 다니고, ‘각단’ 주우러, 띠 주우러 막 다니고.)

108028 @ 집줄<sup>277</sup>, 이제 각단으로 집줄 멩글아야 할 거 아니우파양?(‘집줄’, 이제 ‘각단’으로 ‘집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8028 #1 예, 예. 그추록 흥곡.(예, 예. 것처럼 하고.)

108028 @ 집줄 그 만들기에 대해서 혼 번 곶아줍서.(‘집줄’ 그 만들기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8028 #1 그 ㄱ싸 곧듯 각단으로 혼 사름은 이디 머리 앓앙 줄놓는 어른은 뽕뽕 돌멍, 줄을 각단 멕이멍.(그 조금 전 말하듯 ‘각단’으로 한 사름은 여기 머리 앓아서 줄드리는 어른은 빙빙 돌리면서, 줄을 ‘각단’ 먹이면서.)

108028 @ 머렌 곶아, 줄 놓는 거.(뭐라고 말해, 줄드리는 거.)

108028 #1 줄 놓는 거, 그 무신 저 줄 놓는 거, 저 도르기엔 해냐?(줄드리는 거, 그 무슨 저 줄드리는 거, 저 바퀴라고 하냐?)

108028 #2 줄 놓는 도르기.(줄드리는 바퀴.)

108028 #1 예, 줄 놓는 도르기. 경흥민 이디 줄 놓는 소꿍\*\*이라사 돌아다근에 앞의서 이디서 영 뽕뽕 돌멍 각단 멕이멍 경.(예, 줄드리는 바퀴. 그러면 여기 줄드리는 소꿍\*\*이라야 데려다가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각단’ 먹이면서 그렇게.)

108028 @ 거 돌아가는 건 머옌 흥여, 호롱이<sup>278</sup>?(거 돌아가는 건 뭐라고 해, ‘호롱이’?)

108028 #1 줄 도르기! 저 줄 놓는 도르기엔 홉디다께.(줄 바퀴! 저 줄드리는 바퀴라고 합디다.)

108028 @ 이거 저 머.(이거 저 뭐.)

277) ‘집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엮어매는 줄이다.

278) ‘호롱이’는 줄, 참바 따위를 뒤트는 제구이다.

108028 #1 경흐민게.(그러면요.)

108028 @ 여자들 영.(여자들 이렇게.)

108028 #1 흐 사람은 거 걸려근에 이레 줄 뱅뱅 돌멍 갑주게. 경흐민 거 문 나 지민 이레 데경 놔두곡, 또 문 나지민 데경 놔두민, 이젠 줄을 문 나지민 이젠 일로 뱅뱅 데우는 사람이 돌리라양, 돌리고 이젠 흐 사람이 데우곡 흐민 이젠 돌리 어울려 가는 거라.(한 사람은 거 걸려서 이리로 줄 빙빙 돌리면서 가지요. 그러면 거 모두 드러지면 이리로 던져서 놔두고, 또 모두 드러지면 던져서 놔두면, 이젠 줄을 모두 드러지면 이젠 이리로 빙빙 트는 사람이 둘이에요, 둘이고 이젠 한 사람이 틀고 하면 이젠 둘이 어울려 가는 거야.)

108028 @ 응.(응.)

108028 #1 흐 사람이 어울렁 둘을, 줄 두 갠 메와근에 줄을 멘들암수계게.(한 사람이 어울려서 둘을, 줄 두 개를 모아서 줄을 만들고 있어요.)

108028 @ 경흐고 줄도 보민 그 진 줄 잇고, 찌른 줄 잇지 안흐으파?(그리고 줄도 보면 그 긴 줄 잇고, 짧은 줄 잇지 않습니까?)

108028 #1 예게, 영 매는 건 지봉으로 영 매는 건 즈른 줄, 따시 영 지룩지룩 매는 건 진 줄. 게난 트로트로 어울렁 트로트로 놔뵤. 진 줄, 즈른 줄.(예게, 이렇게 매는 건 지봉으로 이렇게 매는 건 짧은 줄, 다시 이렇게 길쭉길쭉 매는 건 긴 줄. 그러니까 따로따로 어울려서 따로따로 놔뵤. 긴 줄, 짧은 줄.)

108028 #2 예, 트로트로.(예, 따로따로.)

108028 #1 따로 놔뵤서. 경 흡디다게. 난 흐는 거 봤주.(따로 놔뵤서. 그렇게 합디다. 난 하는 거 봤지.)

108028 @ 게난 동네 사람들 흐고 어울런 했수과?(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하고 어울려서 했습니까?)

108028 #1 동네 사람덜 빌영당 줄 놔가민 막 읍니다. 흐엿주게, 서로덜.(동네 사람들 빌어다가 줄 드러 가면 막 읍니다. 하였지요, 서로들.)

108028 @ 오민 머 쥐?(오면 뭐 쥐?)

108028 #1 오민 무신 술도 흐 잔 주는 사람도 싯곡, 기냥 해동 가부는 사람.(오면 무슨 술도 한 잔 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해두고 가버리는 사람.)

108028 #2 (웃음) 기냥 해동 가불민.((웃음) 그냥 해두고 가버리면.)

108028 #1 이제는 머 식당도 잇영 무싱거 먹곡 흐지만, 옛날에사 경 했수과게? 친구덜토 오락 해주곡게. 안 오민.(이제는 뭐 식당도 있어서 무엇 먹고 하지만, 옛날에야 그렇게 했습니까? 친구들도 와서 해주고요. 안 오면.)

108029 @ 게난 다음 집줄 멩글 때 그 연장.(그러니까 다음 ‘집줄’ 만들 때 그 연장.)

108029 #1 연장 그거게.(연장 그거요.)

108029 @ 이거 영 돌리는 거 머렌 흐여, 호롱이?(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 뭐라고 해, ‘호롱이’?)

108029 #1 아니.(아니.)

108029 @ 호롱이렌 하지, 호롱이?('호롱이'라고 하지. '호롱이'?)

108029 #1 호롱이가 아니고.('호롱이'가 아니고.)

108029 #2 호롱이는데, 저 줄 도르기, 도르기렌 해주게.('호롱이'는요, 저 줄 바퀴, 바퀴라고 하지요.)

108029 #1 도르기인데 그걸 무싱거옴 해라.(바퀴인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라.)

108029 @ 호롱이.('호롱이'.)

108029 #1 예, 경흔디 이딘 하나. 이딘 영영 하는 거 둘리랴, 두 개. 그 작대기 달른 거, 즈록 돋은 거, 영 꿰여근에 뱅뱅뱅 돌리는 거, 것고라 머시렌 해라만은, 나 잊어불언.(예, 그런데 여기는 하나. 여기는 이렇게이렇게 하는 거 둘리랴, 두 개. 그 작대기 닳은 거, 자루 돋은 거, 이렇게 꿰어서 빙빙빙 돌리는 거, 것더러 뭐라고 해라만은, 나 잊어버려서.)

108029 @ 알양 놔둬서.(알아서 놔두십시오.)

108029 #1 예, 경 흡서. 그 줄 비는 거 머시렌 알아뿡 놔두민 뉘켜.(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줄 돌리는 거 뭐인지 알아봐서 놔두면 되겠어.)

108030 @ 평고대 흔 번 곱아줍서, 평고대. 평고대는 머냐 하면은 줄 매는 거.(평고대 한 번 말해주십시오, 평고대. 평고대는 뭐냐 하면은 줄 매는 거.)

108030 #1 아~.(아~.)

108030 @ 줄 매는 거, 줄 매는 거는 무슨 낭으로 했수과?(줄 매는 거, 줄 매는 거는 무슨 나무로 했습니까?)

108030 #1 아니, ㄴ는ㄴ는 흔 낭을 지붕 아래 영 매어 주면서.(아니, 가는가는 한 나무를 지붕 아래 이렇게 매어 주면서.)

108030 @ 계난 줄을, 줄을 매어야 뉘 겨주게.(그러니까 줄을, 줄을 매어야 될 거지요.)

108030 #1 예, 줄 매는 낭이, 도로기가 이만이 헝곡, 경 매어 주민 초가집의.(예, 줄 매는 나무가, 바퀴가 이만큼 하고, 그렇게 매어 주면 초가에.)

108030 @ 예.(예.)

108030 #1 계난 그 낭고라 머시엔산디 모르쿠다. 경흔민 줄 지붕 우에 강 집 이는 사름이.(그러니까 그 나무더러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줄 지붕 위에 가서 집 이는 사름이.)

108030 @ 줄, 줄 올리민은 줄 양쪽으로 영 흔민은 그걸 매여근에.(줄, 줄 올리면 줄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매어서.)

108030 #1 뒤에도 영, 앞의 영 잇곡, 동서으로 잇곡, 경흔민 줄, 예.(뒤에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줄, 예.)

108030 @ 경 헤근에 영 진 건 잘라, 매난 다음에 잘라근에 그 불 슴고.(그렇게 해서 이렇게 긴 건 잘라, 매난 다음에 잘라서 그 불 때고.)

108030 #1 동기명 쩡글쩡글 잡아 동기명 매영 놔두민은 집 이는 날은 매영 내



불민 집 임젠 진 거 쫄라불곡, 지붕도 코칭게 끈곡, 경 흡니다게.(당기면서 쨍글쨍글 잡아 당기면서 매어서 놔두면 집 이는 날은 매어서 내버리면 집 임자는 긴 거 잘라버리고, 지붕도 가지런하고 고르게 끊고, 그렇게 합니다.)

108030 @ 응, 응.(응, 응.)

108030 #1 경 흡디다게. 계난 그 냥이 진 거, 매진 냥이 무신 냥인고?(그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긴 거, 매어진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108030 @ 계난 나무로도 흐곡, 나무로도 흐곡.(그러니까 나무로도 하고, 나무로도 하고.)

108030 #1 배로도 흐곡, 왕대.(참바로도 하고, 왕대.)

108030 @ 예, 대로도 흐곡.(예, 대로도 하고.)

108030 #2 예, 주로 대로 흐곡.(예, 주로 대로 하고.)

108030 @ 그다음에 철사로도 흐곡, 경 흡니다만.(그다음에 철사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108030 #1 아니, 거 철사는 대, 왕대.(아니, 거 철사는 대, 왕대.)

108030 @ 냥허고 대라.(나무하고 대야.)

108030 #1 대, 왕대 독진 거.(대, 왕대 굽직한 거.)

108030 @ 그거 명칭이 이실 건데.(그거 명칭이 있을 건데.)

108030 #1 예, 이름이 이실거우다. 우린 몰란, 거 들영 놔두쿠다.(예,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몰라서, 들어서 놔두겠습니다.)

108030 @ 예, 그것도 이제 들영 놔둬서.(예, 그것도 이제 들어서 놔두십시오.)

108031 @ 집줄<sup>279)</sup> 땔 때양.(‘집줄’ 땔 때요.)

108031 #1 예.(예.)

108031 @ 집줄 매기에 대해서 혼 번 곶아줍서.(‘집줄’ 매기에 대해서 한 번 말 해주십시오.)

108031 #1 집줄 매는 거 어떻 하여게. 지붕에서 집줄 매, 집 이는 사름이.(‘집줄’ 매는 거 어떻게 해. 지붕에서 ‘집줄’을 매, 집 이는 사름이.)

108031 @ 거 집 영 해근에 집줄 매어근에, 이거 무끝 때 어떻 무꺼?(거 집 이렇게 해서 ‘집줄’ 매어서, 이거 묶을 때 어떻게 묶어?)

108031 #1 무끝 때도 영 차례로 무꺼.(묶을 때도 이렇게 차례로 묶어.)

108031 @ 그거 클러지지 말아야지게.(그거 풀어지지 말아야지요.)

108031 #2 영 해근에 이거 줄이민 원래 영 해근에 혼 곳되 심어근에 이레 영 흐민 일로 등집니다게. 등겨근에 따로 혼 번 영 감아근에게 속 찢러근에 등겨불민 됩니다게.(이렇게 해서 이거 줄이민 원래 이렇게 해서 한 곳에 잡아서 이리로 이렇게 하면 이리로 당집니다. 당겨서 따로 한 번 이렇게 감아서 속 찢러서 당겨버리면 됩니다.)

108031 #1 건 딱 든든하여. 경 해불민.(건 딱 단단해. 그렇게 해버리면.)

279) ‘집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엮어매는 줄이다.

108031 @ 거난 멧 번 흐는 거라. 잡아 멧경.(그러니까 멧 번 하는 거야. 잡아 당겨서.)

108031 #2 잡아 멧경.(잡아 당겨서.)

108031 #1 줄 매영.(웃음)(줄 매어서.(웃음))

108031 #2 한 번 감쳐냥.(한 번 감쳐놔서.)

108031 @ 응.(응.)

108031 #2 두 번째 돌려근에 영 그 디물좌근에 착 동겨불민.(두 번째 돌려서 이렇게 그 집어넣어서 착 당겨버리면.)

108031 @ 두 번째까지.(두 번째까지.)

108031 #1 예, 두 번째 매어서 든든해주게. 게난 저 저고리 골롬 매듯 흐는 겁디다게. 우리 여자덜 저고리 골롬 매듯. 줄 매는 사름 빌어당 흐곡, 훌어멍은.(예, 두 번째 매어서 단단하지요. 그러니까 저 저고리 고름 매듯 하는 거지요. 우리 여자들 저고리 고름 매듯. 줄 매는 사람 빌어다가 하고, 훌어머니는.)

108032 @ 쓰다 남은 집줄은 어떻 험니까?(쓰다 남은 '집줄'은 어떻게 험니까?)

108032 #1 쓰다 남은 집줄 남음도 흐여게? 멧 그르 세영 낫다근에.(쓰다 남은 '집줄' 남음도 해요? 멧 그루 세어서 낫다가.)

108032 @ 영 잡아멧겨근에 남은 거.(이렇게 잡아당겨서 남은 거.)

108032 #1 남은 건 그창 데껴불엄주.(남은 건 끊어서 던져버리고 있지.)

108032 #2 아, 남은 건 끊어불주게.(아, 남은 건 끊어버리지요.)

108032 #1 끊영 데껴불엄주, 그것사.(끊어서 던져버리고 있지, 그것이야.)

108032 @ 불 숨진 안 흐여?(불 때지는 안 해?)

108032 #2 불 붙여부나.(불 붙여버리나.)

108032 @ 아니,아니, 그 밥 할 때 좋지.(아니, 아니, 그 밥 할 때 좋지.)

108032 #1 밥 할 때 새로 험니까? 거 데껴릅니다. 걸름들에, 돛통더레 들이쳐불민 걸름될 거주게.(밥 할 때 띠로 험니까? 거 던져버립니다. 거름들에, 돼지우리로 들이쳐 버리면 거름될 거지요.)

108032 @ 아, 그걸로 밥 허는 사름도 잇일 건디.(아, 그것으로 밥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108032 #1 밥 허는 사름도 잇주게. 거지만 돛통더레 검질이영 안아당 담아불민 걸름돼불 거주게, 경 허는 거. 돛걸름 돼부는 거.(밥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만 돼지우리로 담아버리면 거름돼버릴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거. 돼지거름 돼버리는 거.)

108033 @ 그다음에 연장에 대행 물어보쿠다양.(그다음에 연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8033 #1 밧가는 연장?(밭가는 연장?)

108033 @ 아니, 집 짓는 연장, 집 짓는 연장은 어떤 것들 잇수광?(아니, 집 짓는 연장, 집 짓는 연장 어떤 것들 잇습니까?)

108033 #1 자귀.(자귀.)

108033 #2 자귀 있고, 또 망치 있고.(자귀 있고, 또 망치 있고.)

108033 #1 따시 대패 있고.(다시 대패 있고.)

108033 #2 톱에.(톱에.)

108033 #1 톱이영 그거주게.(톱하고 그거지요.)

108033 #2 대패 있고.(대패 있고.)

108033 #1 그거주게, 옛날 어른들이사.(그거지요, 옛날 어른들이야.)

108033 @ 끝.(끝.)

108033 #1 끝도 잇주게. 이제 사름덜은 기계로 삭삭 해도, 옛날엔 그런 걸로만 저 낭 까끄곡, 스몓 지랄 염병을 다 했주게.(끝도 있지요. 이제 사람들은 기계로 삭삭 해도, 옛날에는 그런 걸로만 저 나무 깎고, 사몓 지랄 염병을 다 했지요.)

108033 #2 옛날, 옛날 거시기 톱질하여근에 자귀 하나 아저근에 그것 저것 하엿주.(옛날, 옛날 거시기 톱질해서 자귀 하나 가져서 그것 저것 하엿지.)

108033 #1 예, 자귀 하나로 집 흔 거리 지섯젠 합니다.(예, 자귀 하나로 집 한 채 지었다고 합니다.)

108034 @ 톱에 대해근에 흔 번 곱아줍서. 톱, 톱으로 머 헛수과?(톱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톱, 톱으로 뭐 했습니까?)

108034 #1 톱은 낭도 싸곡, 끊음도 허곡, 강 싸당 끊영 움도 허곡, 집의서 삼도 허곡, 지들커<sup>280)</sup> 질게 행 오민 즐게 즐름도 허곡, 경 헛주게. 톱이사 무싱거 흔는 거라, 그것베끼 더 잇어?(톱은 나무도 켜고, 끊음도 하고, 가서 켜다가 끊어서 오기도 하고, 집에서 켜도 하고, ‘지들커’ 길게 해서 오면 잘게 잘름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톱이야 무엇 하는 거라, 그것밖에 더 잇어?)

108034 @ 톱 종류 잇지 안흐으파?(톱 종류 잇지 않습니까?)

108034 #2 톱 종류도 여러 개가 잇주게.(톱 종류도 여러 개가 있지요.)

108034 @ 머파?(뭐입니까?)

108034 #1 큰 대톱, 대톱 잇고, 작은, 작은 거, ㄴ는 거 잇고, 흘근 거 잇고.(큰 대톱, 대톱 잇고, 작은, 작은 거, 가는 거 잇고, 굵은 거 잇고.)

108034 #2 대톱, 대톱 잇고.(대톱, 대톱 잇고.)

108034 @ 흔 사름씩 곱아줍서. 톱 종류?(한 사람씩 말해주십시오. 톱 종류?)

108034 #1 톱은 흘근, 니빨이 흘은 것도 잇고, 존 것도 잇어. 계난 대톱 잇고, 중톱 잇고, 경 흘디다.(톱은 굵은, 이빨이 굵은 것도 잇고, 잔 것도 잇어. 그러니까 대톱 잇고, 중톱 잇고, 그렇게 합디다.)

108034 @ 또?(또?)

108034 #1 거뿐이주게. 톱은 두 종류. 낭 즈르는 거.(거뿐이지요. 톱은 두 종류. 나무 자르는 거.)

108034 @ 대톱허고.(대톱하고.)

280) ‘지들커’는 장작, 검불 따위의 불을 때는 데 쓰는 재료이다.

- 108034 #1 죽은 톱.(작은 톱.)
- 108034 #2 소톱허고.(소톱하고.)
- 108034 #1 소톱, 그거주게.(소톱 그거지요.)
- 108035 @ 못 뽑는 거양, 못 뽑는 걸 머엔 험니까?(못 뽑는 거요, 못 뽑는 걸 뭐라고 합니까?)
- 108035 #1 짓고라 무싱거엔?(짓더러 무엇이라고?)
- 108035 #2 못 뽑는 거?(못 뽑는 거?)
- 108035 @ 응.(응.)
- 108035 #1 망치?(망치?)
- 108035 @ 아니, 망치는 못 박는 거고.(아니, 망치는 못 박는 거고.)
- 108035 #1 못 뽑는 거 잇인디, 일름을. 거 드러 곶으는 건디.(못 뽑는 거 있는데, 이름을. 거 마구 말하는 건데.)
- 108035 @ 장도리?(장도리?)
- 108035 #1 장도리가 아이라. 하르방 집이서 우리 드러 곶는 건디.(장도리가 아니라. 할아범, 집에서 우리 자꾸 이르는 것인데.)
- 108035 #2 망치? 망치두 망치두 망치주만.(망치? 망치도 망치도 망치지만.)
- 108035 @ 그거 이름 잇지아이우파.(그거 이름 잇지 않습니까.)
- 108035 #1 망치에 그거 못 빠는 거 도라진 거주게.(망치에 그거 못 빠는 거 달린 것이지.)
- 108035 @ 아 그거 말고 그 큰 거. 못만 뽑는 거 잇서. 췌로 된 거.(아 그거 말고. 그 큰 거. 못만 뽑는 거 있어. 쇠로 된 거.)
- 108035 #1 거 무시거산디 아덜 곶아오건 들어방놔뵈당 곶게.(거 뭐인지 아들 말해오면 들어보아 두었다가 말하게.)
- 108035 #2 (웃음) 자꾸 ㄱ뽀든 말을.(자꾸 같은 말을.)
- 108035 #1 ㄱ뽀든 말을. 오늘은 자꾸 잇어부림저. 가시어명이 모르난 무신.(같은 말을. 오늘은 자꾸 잇어버리네. 장모가 모르니 무슨.)
- 108036 @ 그다음에양, 대패에 대햐여근에 흥번 곶아줍서. 대패도 종류가 잇지 안햐우파?(그다음에예, 대패에 대햐여서 한번 말해주세요. 대패도 종류가 잇지 않습니까?)
- 108036 #1 대패도 큰 대패, 죽은 대패.(대패도 큰 대패, 작은 대패.)
- 108036 #2 대패도 그 으라 가지주게. 대패엔 흥 게 저 큰 낭 길쭉햐게 기자 대패질햐는 낭이 잇고, ㅈ로 작게 거시기 햐여근에 죽은 거 흥 때는 게 죽은 걸로 흥고. 한 두어 가지 될 거우다.(대패도 그 여러 가지이지요. 대패라고 한 게 저 큰 나무 길쭉햐게 그냥 대패질햐는 나무가 잇고, ㅈ로 작게 거시기 햐여서 작은 거 할 때는 게 작은 것으로 햐고. 한 두어 가지 될 것입니다.)
- 108036 #1 대패사 낭만 까끄는 거난게.(대패야 나무만 깎으는 것이라서.)
- 108036 #2 낭만 까끄는 거난.(나무만 깎으는 것이라서.)

108036 #1 빌 거 다 써졌수다양.(별 거 다 쓰였습니다.)

108037 @ 자 종류에 대해서 혼번.(자 종류에 대해서 한번.)

108037 #1 자? 자 옛날엔 그 저 왕대 깨여근에 곱닥하게 혼여근에 자 흡디다. 자민 이제민 키로로 저 멧 메다 멧 메다 혼디 옛날엔 혼 자 두 자. 경 이걸로 열 두발 딱 봄으로 열 두 개민 혼 발이라. 이거 혼 발이 자 혼 자우다. 혼 자라, 이거 우리.(자? 자 옛날엔 그 저 왕대 쪼개어서 곱다랴게 해서 자 합디다. 자라면 이제라면 킬로미터로 저 몇 미터 몇 미터 하는데, 옛날엔 한 자 두 자. 그렇게 이것으로 열 두발 딱 뺨으로 열 두 개면 한 발이야. 이거 한 발이 자 한 자입니다. 한 자라, 이거 우리.)

108037 @ 요 혼 발이?(요 한 발이?)

108037 #1 응. 혼 발이 혼 자.(응. 한 발이 한 자.)

108037 @ 혼 발. 혼 발.(한 발. 한 발.)

108037 #1 혼 발. 이거 문딱 양쪽 다.(혼 발. 이거 모두 양쪽 다.)

108037 @ 바리가 아니고 혼 발 아니우파양.(바리가 아니고 한 발 아닙니까?)

108037 #1 예. 혼 발. 그것 고라 혼 자, 두 자. 옷도 혼젠 혼민 혼 자, 두 자. 이젠 멧 메다 멧 메다 혼디 옛날에는 자로 말혼연 반 자, 혼 자. 경 했수게 옷 혼젠 혼민.(예. 혼 발. 그것 보고 한 자, 두 자. 옷도 하려고 하면 한 자, 두 자. 이젠 몇 미터 몇 미터 하는데 옛날에는 자로 말해서 반 자, 한 자. 그렇게 했습니다, 옷 하려고 하면.)

108037 @ 자 종류는 엇수가?(자 종류는 없습니까?)

108037 #1 자 종류는 그거주게. 대로 영 곱닥하게 혼영 자 혼디 이제는 그 영 선 기서지곡 자가 뜨나주게. 키루, 저 메다로 혼는 거난. 옛날엔 대로 곱자.(자 종류는 그거지요. 대로 이렇게 곱다랴게 해서 자 하는데 이제는 그 이렇게 선 그어지고 자가 다르지요. 킬로 저 미터로 하는 것이니까. 옛날엔 대로 곱자.)

108038 @ 먹통, 먹줄에 대혼영 혼번 곱아줍서.(먹통, 먹줄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8038 #1 먹통은 하르방이 알지, 나 알아?(먹통은 할아범이 알지, 나 알아?)

108038 @ 먹통.(먹통.)

108038 #2 먹통이 게 먹 거시기 혼영 먹 곱아근에게 물 담아근에 막 쪼근에 경 행 게 먹통이 게 줄까지 그췌 낱 쪼근에 먹줄입주게. 경 혼여근에 머 그치젠 혼민 그거 줄 등겨근에 이추룩 혼영 선 혼영 맞좌근에 똥겨다근에.(먹통이 게 먹 거시기 해서 먹 깔아서 게 물 담아서 막 쪼어서 그렇게 해서 게 먹통이 게 줄까지 같이 놓고 쪼어서 먹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무엇 자르려 하면 그거 줄 당겨서 이렇게 해서 선 하여서 맞추어서 당겨다 놓아서.)

108038 #1 이제 거세기 필 달근 거주게. 무시거파. 그 천필에도 먹통으로 췌진 거 달근 거주게. 그거 잡아뽕기는 거.(이제 거시기 필 닳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철필에도 먹통으로 쓰인 거 닳은 것입니다. 그거 잡아당기는 거.)

108038 @ 먹줄양. 그거 가운데 들러근에 탁 흐면은 딱 그서지지 안 흡니까게.  
(먹줄요. 그거 가운데 들어서 탁 하면 딱 그어지지 안 합니까.)

108038 #1 경흐고 영 잡아땡김도 흐곡.(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108038 @ 계난 선에 따라근에게 톱으로 영혜근에 자르고.(그러니까 선에 따라서 톱으로 이렇게 해서 자르고.)

108038 #1 경흐민 영영영 감아불민 안네 들어가부러. 먹통 안네. 걸 딱시 잡아 땡기민 나오곡, 경흡디다.(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아버리면 속에 들어가 버려, 먹통 안에. 그것을 또 잡아당기면 나오고, 그렇디다.)

108039 @ 흡손 있지 않으파. 흡 골르는 거.(흡손 있지 않습니까. 흡 고르는 거.)

108039 #1 건 흡 골르는 거.(건 흡 고르는 거.)

108039 @ 건 췌로 멩글앗수과, 낭으로 멩글앗수과?(그건 쇠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108039 #2 췌로 멘들아근에 흐는 사름도 잇곡 낭으로 멘들아근에 흐는 사름도 잇곡.(쇠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108039 #1 겐디 저 췌멘 흐 건 췌로 해도 옛날엔 주로 손으로 테껏주게 민짜흐게.(그런데 저 시멘트 한 것은 쇠로 해도 옛날엔 주로 손으로 칠했지요, 매끈하게.)

108039 @ 낭으론?(나무로는?)

108039 #1 낭으로 흐는 사름도 잇곡 흡으로 멘짜 백브름도 손으로 멘짜흐게 했수다게 옛날엔. 하간 거 무신 섯수과게.(나무로 하는 사람도 있고, 흡으로 매끈 바람벽도 손으로 매끈하게 했습니다그러 옛날엔. 여러 가지 것 무슨 있었습니까.)

108039 @ 그 흡받이. 흡받기, 흡받기. 흡 낭으로 웨 영 멩글어근에. 거 옛날엔 멀로 했수과?(그 흡받이. 흡받기, 흡받기. 흡 나무로 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옛날엔 무엇으로 했습니까?)

108039 #1 널착. 널착으로.(널빤지. 널빤지로.)

108039 #2 널착으로 혜근에 이디 조그만 흐 거 다루끼 흐영 끈어근에게 한가운 디 딱 흐게 못으로 박아근에 톱 흐게 심영.(널빤지로 해서 여기 조그마한 거 각목 해서 잘라서 한가운데에 딱 하게 못으로 박아서 톱 하게 잡아서.)

108039 #1 심어두서 그레 흡 노민 손으로 췌멍 메기곡 메기곡 경흡디다게. 저 췌멘 흐 거 덜어당 흐듯이. 경 흐연게 집 지슬 때 보난. 난 우리 이제 사는 집 지슬 때 바닷주게. 목수 오랑.(잡아 놓고서 그곳에 흡 놓으면 손으로 쥐며 바르고 바르고 그렇게 합디다. 저 시멘트 한 거 덜어다가 하듯이. 그렇게 해서 집 지을 때 지슬 때 보난. 난 우리 이제 사는 집 지을 때 보았었지요. 목수 와서.)

108039 @ 이 저 못뽑이는 그 일본말로 빠루, 빠루.(이 저 못뽑이는 그 일본말로 못뽑이, 못뽑이.)

108039 #1 빠루, 마찌, 마찌.(못뽑이, 마치, 마치.)

108039 #2 빠루, 빠루, 빠루.(못뽑이, 못뽑이, 못뽑이, 못뽑이.)

108039 @ 빠룬데 건 일본말이라게. 일본말. ('빠룬'데 건 일본말이란 말이야. 일

본말. )

108039 #1 빠루고 여기선 마찌라 해낫수다게.(못뽑이고 여기선 ‘마찌’라 하였었습니다.)

108039 @ 마찌?(마찌?)

108039 #1 예. 영 빼는 거. 고양이 난 거.(예. 이렇게 뽑는 거. 구멍 난 거.)

108039 @ 응. 못 빼는 거.(응. 못 뽑는 거.)

108039 #1 빠루는 일본말, 우린 마찌 마찌 해나서.(‘빠루’는 일본말, 우린 마찌 마찌 했었지.)

108039 #2 마찌도 일본말.(마찌도 일본말.)

108039 #1 것도 일본말이라. 이제 하시 말도 제까락인디 하시, 하시 하는 것도 일본말. 우리 제주도 사람은 제까락이주게. 수까락, 제까락.(그것도 일본말이야. 이제 하시 말도 젓가락인데 하시, 하시 하는 것도 일본말. 우리 제주도 사람은 젓가락이지. 숟가락, 젓가락.)

108039 @ 거난 옛날 흙손 대신에 주로 저 손바닥으로.(그러니까 옛날 흙손 대신에 주로 저 손바닥으로.)

108039 #1 예. 저 손바닥으로 메겟수다게. 낭으로. 췌손이 어디 잇수과, 옛날사. 옛날에 췌멘 이섯수과, 췌멘집 이섯수과, 돌로 다와근에 흑으로만 맨들락맨들락 메겼주. 중간에서 췌멘 집이 나오랏주. 부룩꾸 영 흘 때 흐엿주.(예. 저 손바닥으로 발랐습니다, 나무로. 쇠손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야. 옛날에 시멘트 있었습니까, 시멘트집 있었습니까, 돌로 쌓아서 흙으로만 매끈매끈 발라지, 중간에야 시멘트 집이 나왔지요. 블럭 이렇게 할 때 하였지요.)

## 9. 신앙

109001 @ 오늘은 그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양. 그 가신 흐민 양 집신입주게. 집이 신, 집이 신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서.(오늘은 그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가신하면요 집신입니다. 집의 신, 집의 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109001 #1 신은 무신 신이라. 토신 잇곡 그거주게. 토신베끼 더 이서, 집이사?(신은 무슨 신이라. 토신 있고 그거지요. 토신밖에 더 있어, 집이야?)

109001 @ 고평신이영.(고방신이랑.)

109001 #1 고평신도 씻는 집 잇곡 엇는 집 잇고. 고평 안, 제사 때에 안칠성이라고 하고. 밧칠성은 또 밧칠성은 문전을, 부역으로 강 하는 사름덜이 있어. 경흐문 건 밧칠성이고 안칠성이고 따로 편씩 엇인 사름도 잇곡.(고방신도 있는 집 있고, 없는 집 있고. 고평 안, 제사 때에 ‘안칠성’이라고 하고. ‘밧칠성’은 문전을, 부역으로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것은 ‘밧칠성’이고 ‘안칠성’이고 또 전혀 없는 사름도 있고.)

109004 @ 조왕신.(‘조왕신’.)

109004 #1 조왕신은 조왕제는 그거는 뭐 거 신, 조왕젠 매 사름이 흐구정 흐민 흐는 거고, 조왕제는 시님 해당도 흐곡 기냥도 흐곡 따시 우리가 따로 마음으로 곱게 다시리젠 흐문 애기들이 잇시면은 저녁 시간 아침 새벽의 일어남 좃불 싸곡 촌물 떠놓곡 흐영 절혀. 아무 멧 솔 아무 오늘 무사통과 시키주십시오 해가지고 경 흐는 사름도 잇곡 거는 뭐 신이나 그거주. 집이 신이는 것벳기 없어.(조왕신은 조왕제는 그거는 뭐 거 신, 조왕제는 사람마다 하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조왕제는 스님 모셔다가도 하고 그냥도 하고, 또 우리가 따로 마음으로 곱게 보살피려고 하면 애기들이 있으면 저녁 시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좃불 켜고 찬물 떠놓고 해서 절해. 아무 멧 살 아무 오늘 무사통과 시켜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뭐 신이나 그것이지. 집의 신은 그것밖에 없어.)

109004 @ 아이들 녀 낫을 때.(아이들 녀 낫을 때.)

109004 #1 녀 낫을 땐 녀들이는 건 녀난 디 강 덜이는 거. 질레서 나민 질레 강 덜이곡 또 모르며는 문전으로 또 녀들이곡 녀 아이 타가민 문전으로 녀들여. 문전, 이녀 대문 문전으로. 그 문전 녀을 안 타가며는 좋지 아니해가민 문전으로 막 심방 해당 빌주게. 질레서 흐면은 질레서 촌물 떠다와근에 저 영 머리뺏더레 툽툽 노명 툽툽혀근앵 아무가 애 녀들입니다 흐여근에 그 심방 흐영 노는 사름 이녀냥으로 노는 사름.(녀 나갔을 땐 녀들이는 것은 녀이 나간 데 가서 들이는 거. 길에서 나가면 길에 가서 들이고 또 모르면 문전<sup>281)</sup>으로 또 녀들이고, 녀 아니 타 가면 문전으로 녀 들여. 문전, 이녀 대문 문전으로. 그 문전 녀을 안 타 가면은 좋지 아니 해 가면 문전으로 막 무당 해다가 빌지요. 길에서 하면은 길에서 찬물 떠다 놓고서 저 이렇게 머리뺏에 툽툽 놓으면서 툽툽해서 아무개가 애 녀들입니다 해서 그 무당 해서 놓는 사람, 자기대로 놓는 사람.)

109004 @ 거 혼자 해뵈디강?(그거 혼자 해보았습니까?)

109004 #1 아니 할망 즈순 녀들여줍서 아무 멧 솔 아무가 애 흐나씩 저 혼 들여 줍서, 녀 들여 줍서, 그거뿐. 물 흐영 곡대기레 툽툽 노명.(아니 할머니 자손 녀들여주십시오 아무개 멧 살 아무개가 애 하나씩 저 혼 들여 주십시오, 녀 ,들여 주십시오, 그것뿐. 물 해서 꼭대기에 툽툽 놓으면서.)

109004 @ 아이도 앞의 앓져근에?(아이도 앞에 앓혀서?)

109004 #1 예, 영 이디 앓져두서 옆의 앓져두서 물 흐영 촌물 떠다와근에 손으로 영 곡대기레 영 노명 툽툽 두드리멍 멧 솔 아이 녀 나시메 녀들여줍서 흔들여줍서 그런 거. 그거주게. 경 흐영 말제 일어살 땐 촌물 입에 물영 껍 붙어불민 아기 일어사곡 가곡. 경흐고 네 발 탄 것에 개나 물에나 네 발 돋은 것에 흐민 녀을 안 타, 아기덜이. 아이들이 녀 저 심방 흐영 빌어도 녀타기가 힘듭네다. 네 발 돋은 것에 녀나. 독에나 기냥 흐 건 해도, 짐승이 네 발 돋지 안 홉니까, 앞두이. 그것에 녀냥 흐민 녀들임이 혼나곡 오래여 못혀.(예, 이렇게 여기 앓혀두고서 옆에 앓혀두

281) ‘문전제’는 주로 제사나 명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고서 물 해서 찬물 떠다 놓아서 손으로 이렇게 꼭대기에 이렇게 놓으면서 툭툭 두드리면서 몇 살 아이 낫 나갔으니 낫들여주십시오 혼 들여주십시오 그런 거. 그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일어설 땐 찬물 입에 물어서 껍 붙어버리면 아기는 일어서고 가고. 그리고 네 발 탄 것에 개나 말에나 네 발 돋은 것에 하면 낫을 안 타, 아기들이. 아이들이 낫, 저 무당 해서 빌어도 낫 타기가 힘듭니다. 네 발 돋은 것에 낫 나. 닭이나 그냥 한 것은 하여도, 짐승이 네 발 돋지 안 합니까, 앞뒤. 그것에 낫 나서 하면 낫들임이 혼나고 오래 걸려 못하여.)

109005 @ 경հան 여기도 뭐 칠성신 흡니까?(그러니까 여기도 뭐 칠성신 합니까?)

109005 #1 칠성제는 안 하고 옛날은 저 제단에서 저 우이 가근에 도새기 잡곡 저 부락제 큰제 헛낫주마는 그건 없어져불고 토신제는 집마다 장팡 두이서 토신제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건 토신제라고 장팡 두이 제간 빌어다근에 영지물하고 막 하여근에.(칠성제는 안 하고 옛날은 저 제단에서 저 위에 가서 돼지 잡고 저 부락제 큰 제 했었었지만 그건 없어져 버리고 토신제는 집마다 장독대 뒤에서 토신제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그것은 토신제라고 장독대 뒤 제관 빌어다가 이렇게 제물하고 막 해서.)

109005 #2 장팡 두이도 하곡 마룻 두이도 하곡.(장독대 뒤에서도 하고, 마루 뒤에서도 하고.)

109005 #1 마룻 두이서 그 토신제 하는 거주게.(마루 뒤에서 그 토신제 하는 것이지요.)

## 10. 세시풍속

110030 @ 거민양. 십일월 달로 가쿠다양.(그러면요. 십일월 달로 가겠습니다.)

110030 #1 예, 십일월달에 골 낫는 거주.(예, 십일월 달에 엇기름 놓는 것이지요.)

110030 @ 예, 십일월 달 우선 그 동짓날 그 팻죽에 대행 곁아줍서.(예, 십일월 달 우선 그 동짓날 그 팻죽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10030 #1 팻죽은양, 동짓날은게 아침의 팻죽 썬근에, 팻 슬망 팻죽 썬 맛 좋게 썬던 구지게 썬던 해근에 저 거세기 그 동짓날에 그 할망신이 잇덴 흡디다. 경 행 올레레영 막 마당에영 케우려 그걸. 팻죽 썬지문 케우려똥 이젠 그 팻죽 먹으면 동짓날 팻죽날이주게. 팻죽 썬 막 케우립니다, 마당에영 뒤트레영. 경 하여 뒤근에 이젠 팻죽 식귀덜 먹으면 똥는 거.(팻죽은요, 동짓날은 아침에 팻죽 썬서, 팻 삶아서 팻죽 썬서 맛 좋게 썬든 좋지 않게 썬든 해서 저 거시기 그 동짓날에 그 할머니신이 있다고 합디다. 그렇게 해서 올레282)에랑 마구 마당에랑 고수레하여 그것을. 팻죽

282) '올레'는 제주만이 지닌 특유의 공간으로 큰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로 폭이 1.8m~5m정도,

썩지면 고수레해두고 이젠 그 팔죽 먹으면 동짓날 팔죽날이지. 팔죽 썩서 마구 고수레합니다, 마당에랑 뒤뜰에랑. 그렇게 해 두고서 이젠 팔죽 식구들 먹으면 되는 거.)

110030 @ 무사 케우렴신고마씨?(왜 고수레하는가요?)

110030 #1 모루쿠다게, 어떤 이유산디 케우린덴 흐난 우린 케우령도 먹곡, 아니 케우령도 먹곡 흐난 모르쿠다. 동짓날, 아기동짓날엔, 동짓날도 아기동짓날 잇입니다. 아기동짓날엔 죽 안 썩 먹읍네다. 절간에 가도 풋죽, 집의서도 풋죽, 건디 아기동짓날은 저 풋죽을 아니 썩.(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고수레한다고 하니까 우린 고수레해서도 먹고, 아니 고수레해서도 먹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동짓날, 애기동짓날엔, 동짓날도 애기동짓날 있습니다. 애기동짓날에는 죽 안 썩서 먹읍니다. 절에 가도 팔죽, 집에서 팔죽, 그런데 애기동짓날은 저 팔죽을 아니 썩.)

110030 @ 지금도 풋죽 썩 먹읍수과?(지금도 팔죽 썩서 먹고 있습니까?)

110030 #1 예, 썩 먹읍니다, 이제도. 육지 사름덜은 텔레비보민 막 그 출떡으로 쟈쟈흔 즈배기 멘들아 놓고 잘 흐는디, 제주도 사름덜은 그추록도 안 흐곡 풋 솔망 죽만 썩근에 그저 곤쌀 낭 죽 썩 아이덜은 먹읍수게. 절간에 강도 먹곡, 풋죽 막 풀곡게. 사당도 먹곡덜 햄수게.(예, 썩서 먹읍니다, 이제도. 육지 사람들은 텔레비전 마구 그 찰떡으로 자잘한 수제비 만들어 놓고 잘 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처럼도 안 하고 팔 삶아서 죽만 썩서 그저 흰쌀 넣어서 죽 썩서 아이들은 먹고 있지요. 절에 가서도 먹고, 팔죽 마구 팔고요. 사다가도 먹고들 하고 있지요.)

110031 @ 아까 그 납평날에 대행 곱아줍서.(아까 그 납평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10031 #1 납평날엔 곱 놓는 거?(납평에는 옛기름 놓는 거?)

110031 @ 예, 예.(예, 예.)

110031 #1 곱 놓는 건 보리 물 등갓당 곱보리. 곱보리 옛날에 이제 대맥이 곱보리 주게. 곱보리 물 등가근에 ㄴ클 저 고스락 옛이 ㄴ클하게 해근에 물 등갓당 이제 그걸 물 오루민 건집니다. 경 물 빠정 출구덕<sup>283)</sup>이고 소쿠리에고 놔두민 쉬엄이 해영케 복삭하게 납주게. 경 흐영 불리를 파란 거 나기 전의 빼죽빼죽 흐기 전의 영이레 질게 흐지 말아근에 그 쉬엄만 복삭 나민 이 덕석의나 명석에 납니다. 그걸 널영 바짝 물리민 ㄴ레에 곱민 곱ㄴ루 웨는 거. 경 감주 흐영 옛 행 먹곡, 저 감주 행 식게, 멧질 때 그걸로.(옛기름 놓는 건 보리 물 담갔다가 곱보리. 곱보리 옛날에 이제 대맥이 곱보리지요. 곱보리 물 담가서 깨끗 저 까끄라기 없이 깨끗하게 해서 물 담갔다가 이제 그것을 물오르면 건집니다. 그렇게 물 빠져서 ‘출구덕’이고 소쿠리에고 놔두면 쉬엄이 하얗게 복삭하게 나지요. 그렇게 해서 뿌리를 파란 거 나기 전 빼죽빼죽 하기 전에 이렇게 이리로 길게 하지 말아서 그 쉬엄만 복삭 나민 이 명석에나 명석에 납니다. 그것을 널어서 바짝 말리면 멧돌에 갈면 옛기름가루

담 높이 1.2m~2.1m, 길이는 6m~20m 쯤 되고, 형태는 I, L, S형 등 다양하다. 올레의 입구에는 어긋돌이 놓여 있어 여기서부터가 입구의 시작임을 나타내고, ‘팡돌’이 놓이기도 한다.

283) ‘출구덕’은 나물이나 해산물 등을 채취할 때 허리에 차고 사용하는 대오리로 엮은 바구니이다.

되는 거. 그렇게 감주해서 옛 해서 먹고 저 감주해서 제사, 명절 때 그것으로.)

110031 #2 남평날에 그 옛도 행 먹엄주게.(남평에 그 옛도 해서 먹고 있지요.)

110031 #1 남평날에 옛도 흥곡, 따시 감주 그 골ㄴ루로 감주행 식게, 멩질 때, 이제난 스뭇 벨 저 뭐 음료수영 뭇이 잇이난 햄주. 옛날에 그 감주영 골ㄴ루흥곡 토신제 할 때 ㄴ트곡, 거 산제 할 땐 생감주를 딸리지 아니 흥영 생감주를 쓰곡 해나수게. 딸령 식게, 멩질 땐 딸령 놓는다, 이제 식혜나 다름없는 겁주게. 경 흥영 해수게. 그거 큰 겁주게, 그것이. 그것이 큰 음식이라. 웃어른덜 위흥곡, 그걸로 늘근 어른덜신디 문, 저 뭇술 먹어난 것덜 질어도 가곡, 아저도 가곡, 박세기에 거리멍 아저가곡, 늘근 어르신덜 위함으로 일가방상에 감주 흥여근에. 감주 딸릴 땐 막 딸리당 쓸 낱 딸리곡, 따로 도야지래기 낱 옛흥곡, 득래기도 낱 옛흥고, 경 햇수게.(남평에 옛도 하고, 다시 그 옛기름가루로 감주해서 제사, 명절 때, 이제니까 사뭇 별저 뭐 음료수랑 무엇이 있으니까 하고 있지. 옛날에 그 감주랑 옛기름가루하고 토신제 할 때 같고, 거 산제 할 때는 생감주를 딸리지 아니 해서 생감주를 쓰고 했었습니다. 달여서 제사, 명절 때는 달여서 놓는데, 이제 식혜나 다름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거 큰 거지요, 그것이. 그것이 큰 음식이야. 웃어른들 위하고, 그것으로 늙은 어른들에게 모두, 저 뭇술 먹었던 것들 길어도 가고, 가져도 가고, 바가지에 뜨면서 가져가고, 늙은 어르신들 위함으로 일가방상에 감주 해서. 감주 달일 때는 마구 달이다가 쌀 넣어서 달이고, 따로 돼지고기 넣어서 옛하고, 닭고기도 넣어서 옛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10032 @ 이때 절기가 그 대설흥고 동집주게.(이때 절기가 그 대설하고 동지지요.)

110032 #1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10032 @ 그거에 대행 흥번.(그것에 대해서 한번.)

110032 #1 동지는게, 동짓달이난에 동지죽 썩 먹곡 그추록 흥는 거고, 대설은 막.(동지는, 동짓달이니깐 ‘동지죽’ 썩서 먹고 것처럼 하는 거고, 대설은 아주.)

110032 @ 아니, 아니. 저 대설, 대설.(아니, 아니. 저 대설, 대설.)

110032 #1 대설은.(대설은.)

110032 @ 설이 그 눈입주게, 눈. 크게 눈 오는 날.(설이 그 눈이지요, 눈. 크게 눈 오는 날.)

110032 #1 대설 때 나간 사름 저 머 흥 때 부르지 말렌 해신가? 돌아오지 아니 흥덴, 친귀영.(대설 때 나간 사름 저 뭐 한 때 부르지 말라고 했는가? 돌아오지 아니 한다고, 친구랑.)

110032 #2 그런 쟁이라.(그런 쟁이야.)

110032 @ 대설흥고 소설이 이수다.(대설하고 소설이 있습니다.)

110032 #1 예, 소설에 나간 사름이 대설에 부르지 말렌 해신가? 경 해수다게. 나간 사름이 눈 묻영 얼영 돌아오지 못흥영 경 죽어볼곡, 돌아오지 못 본단 말 잇어나십주. 경 곶아수다게. 어느 때 나간 사름 부르지 말렌 했져. 경 흥명 옛날엔 눈

이 하도 하영 오곡 얼어노난 입을 것도 황당하곡 어떻 말이파게.(예, 소설에 나간 사람이 대설에 부르지 말라고 했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간 사람이 눈 묻어서 추워서 돌아오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버리고, 돌아오지 못 본다는 말 있었었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때 나간 사람 부르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눈이 매우 많이 오고 추웠으니까 입을 것도 황당하고 어떻게 말입니까.)

110032 #2 정월달에 눈이 하영 오곡 허민게, 정월달에 추워 가민 에이, 정월달에 나간 사람 돌아오지 못헌텐, 경 혼 말이.(정월달에 눈이 많이 오고 하면요, 저월달에 추워 가면 에이, 정월달에 나간 사람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렇게 한 말이.)

110032 #1 돌아오지 못행 열영, 실령 죽어부러.(돌아오지 못해서 추워서, 추워서 죽어버려.)

110032 #2 실령 죽넨 말이주.(추워서 죽는다는 말이지.)

110033 @ 그다음에 십이월 달로 와서양, 친구간, 친구간에 대행 혼번 곁아줍서.(그다음에 십이월 달로 와서요, 친구간, 친구간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10033 #1 친구간은 선달. 정월에 친구간 들민 그 해가 곳곡, 선달에 친구간 들민 좋곡, 정월달에 친구간 든 해엔 막 곳넨 합니다.(친구간은 선달. 정월에 친구간 들면 그 해가 곳고, 선달에 친구간 들면 좋고, 정월달에 친구간 든 해에는 아주 곳다고 합니다.)

110033 @ 친구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파?(친구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10033 #1 친구간이 저 선달나민 그 해우년으로 갑디다게. 오일인가 제라하게 친구간은.(친구간이 저 선달나면 그 해에 따라서 갑디다. 오일인가 진짜 친구간은.)

110033 #2 선달 초순일거라게.(선달 초순일거야.)

110033 #1 초승 게메.(초승 글썸.)

110033 #2 경하고 오 일.(그리고 오일.)

110033 #1 오일이 제라흔 날이라. 친구간엔 구신이, 그 신이 엇어져부렁 친구간엔, 계난 집도 트딩 고쳐도 꿩곡, 방도 고쳐도 꿩곡, 신이 엇텐 하는 날, 거 친구간엔 신 엇인 것이 친구간 입주게. 이디 트딩 고치곡, 날 뵙 안 하영 아무 때라도 친구간에 고치는 거는 그 신이, 그 신이 하늘로 올라부렛젠 합니다. 경허민 고쳐도 송 엇다 하는 겁주.(오일이 진짜 날이야. 친구간에는 귀신이, 그 신이 없어져버려서 친구간에는, 그러니까 집도 뜯어서 고쳐도 되고, 방도 고쳐도 되고, 신이 없다고 하는 날, 거 친구간에는 신 없는 것이 친구간이지요. 여기 뜯어서 고치고, 날 보아서 안 해서 아무 때라도 친구간에 고치는 거는 그 신이, 그 신이 하늘로 올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쳐도 흥없다 하는 거지요.)

110033 #2 게 선달 초승 꿩문게, 집고치는 사람 막 집고치곡.(게 선달 초승 되면요, 집고치는 사람 마구 집고치고.)

110033 #1 예게, 그거 ㅁ짜 곧듯 신이 옛날엔 그 친구간에 아니 고치민 던티나곡, 하간디 어떻 행 아이고, 집 고쳐부난 던티난 그 집이 어떻 햄져 안 합니다까? 경 혼난 그 친구간엔 신이 올라가부렁 귀신이 엇어, 엇이난 요디 트딩 고쳐도 좋고, 저

디 트덩 고쳐도 좋고, 천리도 흐곡 친구간에 천리 하영 흡니께. 영장 천리, 산 천리도 친구간에 하영 흡니다. 아이고, 이제도록 신 거, 집의 큰 낭 끈쟁 해도 친구간에 끈치곡, 경 흐는 겹주게. 친구간엔 그 신이 어디 하늘 구멍더레 올라분덴 흡니다. (예게, 그거 아까 말하듯 신이 옛날에는 그 친구간에 아니 고치면 동티나고, 여러 곳에 어떻게 해서 아이고, 집 고쳐버리니까 동티난 그 집이 어떻게 하고 있지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간에는 신이 올라가버려서 귀신이 없어, 없으니까 여기 뜯어서 고쳐도 좋고, 저기 뜯어서 고쳐도 좋고, 이장도 하고 친구간에 이장 많이 합니다. 영장 이장, 묘 이장도 친구간에 많이 합니다. 아이고, 이제도록 있는 거, 집에 큰 나무 끊으려고 해도 친구간에 끊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친구간에 그 신이 하는 구멍으로 오라버린다고 합니다.)

110033 #2 우자왓<sup>284</sup>디 낭 싱것당 것도 친구간에 끈어불고.(‘우자왓’에 나무 심었던 것도 친구간에 끊어버리고.)

110033 #1 큰 거, 굵으로 끄치는 거, 이제는 아무 때라도 박박 톱으로 싸불엄수 다만은, 그 낭 끄치는 톱으로 박박덜 흐명 싸부러도, 옛날엔 친구간 아니문 낭 요만이 혼 낭도 안 끈차봐수다. 옛날엔, 옛날 어른덜은 정성이 만했기 때문에.(큰 거, 나무의 밑둥으로 끊는 거, 이제는 아무 때라도 박박 켜버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무 끊는 톱으로 박박들 하면서 켜버려도, 옛날에는 친구간 아니면 나무 요만큼 한 나무도 안 끊어봤습니다. 옛날에는, 옛날 어른들은 정성이 많았기 때문에.)

110033 #2 게메.(글쎄.)

110033 #1 옛날 어른덜은 정성이 만했기 때문에, 경흐고 법정에서 오랑양, 집의도 법정에서 오랑 경찰에서, 법정에서 오랑 트드라, 고치라 흐는 건 승이 엇나 흡니다. 법의 흐는 거는 돛통을 고쳐도, 화장실을 고쳐도 법정에서 오랑 담을 문 고찌렌 해도 던티가 엇덴 흡니다, 법정에서 흐는 건.(옛날 어른들은 정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정에서 와서요, 집에도 법정에서 와서 경찰에서, 법정에서 와서 뜯으라, 고치라 하는 건 흥이 없나 합니다. 법에 하는 거는 돼지우리를 고쳐도, 화장실을 고쳐도 법정에서 와서 담을 모두 고치라고 해도 동티가 없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하는 건.)

110034 @ 다음에 그 이사 갈 집은 어떻 구합니까?(다음에 그 이사 갈 집은 어떻게 구합니까?)

110034 #1 이사 갈 집은 빌민 친구간에 이사하는 사름, 날 뺑 이사하는 사름, 계난 집 상 가는 사름도 잇곡, 늬의 집 빌영 가는 사름도 이사주게, 그건 이사난에 그때는 친구간낭 갈 때 잇곡, 기냥 날 봐근에, 또 이사하는 날도 잇곡.(이사 갈 집은 빌면 친구간에 이사하는 사람, 날 보아서 이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집 사서 가는 사람도 있고, 남의 집 빌어서 가는 사람도 이사지요, 그건 이사니까 그대는 친구간 나서 갈 때 있고, 그냥 날 보아서, 또 이사하는 날도 있고.)

110034 @ 어디 강 날 봐?(어디 가서 날 보아?)

284) ‘우자왓’은 한 집안의 울타리의 안쪽 밭이다.

110034 #1 아니, 건 지가게 정시신더래 강 봤던, 어디 강 날 좋은 날 봤던, 이디 사름덜은 말일날, 그믐날만 이사혀여, 경 흐는 겁주. 친구간낭 이사를 안 흐여근에 던티나카부텐 아무 때나 이사 안 흐영 막은 방도 잇곡, 터진 방도 잇인 때문에, 친구간엔 그걸 아니 보는 때문에 친구간낭 이사, 아이고 친구간나사 이사할걸, 이사할 걸 경 흡니다, 경 흡니께게. 이제 사름덜은 친구간 좇암수과? 아파트 사도게 아무 때라도 가곡, 늬의 집 내 념영 가는 건 날 안 뵙 간텐 흡니께. 먼디서 이사 오는 사름 날 안 뵙 이사해도 어떻 안 흐텐 흡니다. 내 념영 오는 때문, 옛날 어른덜 곤는 거 보민.(아니, 건 자기가 지관에게 가서 봤든, 어디 가서 날 좋은 날 봤든, 여기 사름들은 말일, 그믐날만 이사해, 그렇게 하는 거지요. 친구간나서 이사를 안 해서 동티날까 보아서 아무 때나 이사를 안 해서 막은 방위도 있고, 터진 방위도 있는 때문에, 친구간에는 그것을 아니 보는 때문에 친구간나서 이사, 아이고 친구간나야 이사할 걸, 이사할 걸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사름들은 친구간 찾고 있습니까? 아파트 사도요 아무 때라도 가고, 남의 집 내 념어서 가는 건 날 안 보아서 간다고 합니다. 먼디서 이사 오는 사름 날 안 보아서 이사해도 어떻게 안 한다고 합니다. 내 념어서 오는 때문, 옛날 사름들 말하는 거 보면.)

110035 @ 이사할 땐 쥬 처음 머 가정 갑니까?(이사할 때는 쥬 처음 뭘 가져서 갑니까?)

110035 #1 아니, 옛날에는 이사 쥬 번째 갈 때 체, 푸는체, 푸는체. 영 푸끄는 푸는체, 그거 ㄴ져근에 몸의 솟단지 흐나 우선권 행 경 가는다, 이제는 차에 문짝 시경 가근에.(아니, 옛날에는 이사 쥬 번째 강 때 체, 키, 키.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키, 그거 가져서 몸에 솔단지 하나 우선권 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제는 차에 모두 실어서 가서.)

110035 @ 아니, 그난 옛날엔.(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110035 #1 옛날엔 그거우다. 그거부터 ㄴ져다근에.(옛날에는 그것입니다. 그것부터 가져다가.)

110035 @ 그난에 쥬 먼저 푸는체하고.(그러니까 쥬 먼저 키하고.)

110035 #1 체하고 솟단지 흐나 아무 웅주리고, 큰 거고 흐나 곳곳 해영 우선 그거부터.(체하고 솔단지 하나 아무 웅달솔이고, 큰 거고 하나 가지고 해서 우선 그것부터.)

110035 @ 그다음.(그다음.)

110035 #1 그다음엔 이녁 아무 거라도 ㄴ져가는 거주게. 이사 가는 거 그거부터 먼저 우선권 ㄴ져가는 거, 불가갈 때 가는 사름 싯곡, 저녁에 가는 사름 싯곡, 시간 뵙 가는 때문.(그다음에는 이녁 아무 거라도 가져가는 거지요. 이사 가는 거 그것부터 먼저 우선권 가져가는 거, 밝아갈 때 가는 사름 있고, 저녁에 가는 사름 있고, 시간 보아서 가는 때문.)

110035 @ 단지는 안 가정 가?(단지는 안 가져서 가?)

110035 #1 단지는 냉중에서 아져가곡, 사기 벌러지는 거라 부난.(단지는 나중에

야 가져가고, 사기 깨지는 거라 버리니까.)

110035 @ 이불은?(이불은?)

110035 #1 이불도 내중에서 아저가곡계, 계난 처음에 갈 때 이불 정 가는 사람도 잊주게, 건. 체, 푸는체, 옛날엔 체, 푸는체가 켈 먼저 으정 가. 나가 이사하젠 흐민 나가 먼저 그것부터 오지다뵤 오랑 다음에 이불을 아정 갖던, 아무거나 아정 갖던 이제 이삿짐 날라 갈 거.(이불도 나중에야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이불 쳐서 가는 사람도 있지요, 건. 체, 키, 옛날에는 체, 키가 켈 먼저 가져서 가. 나가 이사하려고 하면 나가 먼저 그것부터 가져다뵤서 와서 다음에 이불을 가져서 갖든, 아무거나 가져서 갖든 이제 이삿짐 날라 갈 거.)

110035 @ 그 이사 가기 전에 뭘 뿌릅니까, 방에.(그 이사 가기 전에 뭘 뿌릅니까, 방에.)

110035 #1 아니게, 방에 푹하고 소금하고 박박 빼어붙임주게. 그디 강 방법으로 건, 푹은 방법으로. 겐디 뿌리는 사람도 잊곡, 아니 뿌리는 사람도 잊주게. 거 무신평 필요흔 거 아니고, 거 소금하고 푹은 거 방법으로 빼는 거 아니우파? 늡의 집 가쟁 흐문, 첫 번째 가쟁 흐문 건 방법으로 빼는 거고.(아니요, 방에 팔하고 소금하고 박박 뿌러버리고 있지요. 거기 가서 방법으로 건, 팔은 방법으로. 그런데 뿌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 뿌리는 사람도 있지요. 거 무슨 푹 필요한 거 아니고, 거 소금하고 팔은 거 방법으로 뿌리는 거 아닙니까? 남의 집 가려고 하면, 첫 번째 가려고 하면 건 방법으로 뿌리는 거고.)

110036 @ 집알이는 어떻게 흡니까?(집알이는 어떻게 합니까?)

110036 #1 예?(예?)

110036 @ 그 집 이제 이사하젠 흐민 이제 손님덜 이제 알릴 거 아니파?(그 집 이제 이사하려고 하면 손님들 알릴 거 아닙니까?)

110036 #1 손님덜은 집의, 그 집안 나름 가주게. 늡덜 청흐영 밥행 맥이는 사람, 무싱거 이녁만 슬짝 하게 이사하는 사람 싯곡, 그건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도 중간에 이사하젠 흐민 막 이사 먹으레도 가곡해신디, 이젠 그것이 엿주게. 경 흐는디 옛날도 마찬가지로.(손님들은 집에, 그 집안 나름 가지요. 남들 청해서 밥해서 먹이는 사람, 무엇 이녁만 살짝 하게 이사하는 사람 있고, 그건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도 중간에 이사하려고 하면 마구 이사 먹으려도 가고했는데, 이젠 그것이 없지요. 그렇게 하는데 옛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110036 @ 옛날도 햇수가?(옛날도 했습니까?)

110036 #1 옛날도 이삿밥 해영 떡곡 경.(옛날도 이삿밥 해서 먹고 그렇게.)

110036 #2 마찬가지로.(마찬가지.)

110036 #1 잇인 사람은 이삿밥 행 즈궤디 사람덜 오랜 행 떡곡, 밥 흔 뒤씩 거 리명 박세기 그져감도 흐곡 흐주만은, 경 흐곡 흐주만은 건 집안 나름 대로게. 잇는 사람은 경 흘 거, 보리밥도 굶는 사람, 늡 어떻 이삿밥 행 줄 거 잇수과? 어느 저를 에 그건 집안 나름에 가는 거고.(잇는 사람은 이삿밥 해서 곁에 사람들 오라고 해서

먹고, 밥 한 되씩 뜨면서 바가지 가져감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건 집안 나름 대로요.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 보리밥도 굽는 사람, 남 어떻게 이삿 밥 해서 줄 거 있습니까? 어느 겨울에 그건 집안 나름에 가는 거고.)

110037 @ 그때 선물은 어떤 걸 줬니까?(그때 선물은 어떤 걸 합니까?)

110037 #1 선물이 셋수과? 불초 낱 제우에사, 집의 가는 건 통곽, 통곽 하나 상으정 갑디다.(선물이 있었습니까? 불초 놓아서 겨우에야, 집에 가는 건 통성냥, 통성냥 하나 사서 가져서 갑디다.)

110037 @ 통곽하곡.(성냥하고.)

110037 #1 통곽, 불초 그거 상 가는 거, 이사 갈 땐 무신 어느 저를에 무싱거 야정 갈 거 잇수과? 불곽은 그 불 일어나렌, 경하곡 저 며 혼 집원양, 집안에 뜰네, 나가 만일 뜰네 이사하젠 혼민 나가 먼저 미릇에 강 쓸 혼 가맹이 힘들민 혼 말 놔 뒀당 대문더레 탁 안에 놔뒀 불곽으로 불 낱 곱 하게 불 피게 합니다, 건. 재계 일 일어나렌, 경 혼는 거주. 경 안 합니다게, 건 이사 나름에 가는 거주.(성냥, 불초 그거 사서 가는 거, 이사 갈 때는 무슨 어느 겨울에 무엇 가져서 갈 거 있습니까? 불성냥은 그 불 일어나라고, 그리고 저 뭐 한 집에는요, 집안에 뜰네, 나가 만일 뜰네 이사하려고 하면 나가 먼저 미리 가서 쌀 한 가마니 힘들면 한말 놔뒀다가 대문으로 탁 안에 놔뒀서 불성냥으로 불 놓아서 곱 하게 불 피게 합니다, 건.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합니다, 건 이사 나름에 가는 거지.)

110037 @ 아니 거난게, 아들덜 이사할 때 머 해줘수과?(아니 그러니까요, 아들 들 이사할 때 뭐 해줬습니까?)

110037 #1 아덜이사 그 집안 나름에 강 돈 잇인 사름은 돈으로 줄 거고, 경 흘 거주, 이사 갈 때.(아들이야 그 집안 나름에 가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줄 거고, 그렇게 할 거지, 이사 갈 때.)

110037 @ 아니, 처음에 이사 갈 때.(아니, 처음에 이사 갈 때.)

110037 #1 처음에 건 사름 나름에 가는 거, 집안 나름에 가는 거.(처음에 건 사 람 나름에 가는 거, 집안 나름에 가는 거.)

110037 @ 처음에 영 흘 때 우리 어머니가 저 쓸 혼 가망이 사주십디다게.(처음 에 이렇게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저 쌀 한 가마니 사주셨습니다.)

110037 #1 예, 혼 가맹이 상 대문드레 강 탁 놔 안트레 강.(예, 한 가마니 사서 대문으로 가서 탁 놓아 안으로 가서.)

110037 @ 응, 쓸 혼 가망이.(응, 쌀 한 가마니.)

110037 #1 예, 쓸 혼 가맹이 해당 집 안네 가기 전에 어멍이 대문 안네 대문으 로 강 안트레 강 쓸 혼 가맹이 탁 싱거불업주게.(예, 쌀 한 가마니 해당 집 안에 가기 전에 어머니가 대문 안에 대문으로 가서 쌀 한 가마니 탁 심어버리고 있지요.)

110037 @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잘 앓니다게.(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10037 #1 예, 경 합니다. 우리도 경 혼여나수다게. 우린 아덜네가 트로 안 살앙



그자 흐디만 해나난 모르고, 우린 밧거리, 아덜네 죽은아덜 안거리 쥐똥 밧거리 강 살젠 흐난에 이사 바꾸젠 흐난 저 어디 간 저 가스렌지 큰 거, 이제 밥해먹는 가스 렌지 그뻐 구만 원이었주만은 이십오만 원 쥘 가스렌지 흐나 사줘수다, 난. 선물로 이십오만 원.(예,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였었습니다. 우린 아들네가 따로 안 살아서 그저 함께만 했었으니까 모르고, 우린 바깥채, 아들네 작은아들 안채 쥐 두고 바깥채 가서 살려고 하니까 이사 바꾸려고 하니까 저 어디 가서 저 가스레인지 큰 거, 이제 밥해먹는 가스레인지 그뻐 구만 원이었지만은 이십오만 원 줘서 가스레인지 하나 사줬습니다, 난. 선물로 이십오만 원.)

110037 @ 하영 해줘신게마썸.(많이 해줬네요.)

110037 #1 예, 이십오만 원짜리, 저 네 칸짜리 영 불 앓는 거 네 개짜리.(예, 이십오만 원짜리, 저 네 칸짜리 이렇게 불 앓는 거 네 개짜리.)

110037 @ 것도 며 통곽이나 마찬가지로.(것도 뭐 성냥이나 마찬가지로니까.)

110037 #1 (웃음) 옛날 통곽은 그처럼 아니 가수다, 그만이 더 가수다게. 이십오만 원 돈도 돈이파? 이제사 옛날은양, 보리쌀 두 뿔 흐영 부주 가는 거, 이거 삼만 원보다 더 어려워수다. 이삼만 원은 간단히 부줄 행 가는데, 보리쌀 흐젠 어려워서 마썸. 늙의 집의 잔치 먹으러 갈 때도 보리쌀 두 뿔 가정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와 수과?(웃음) 옛날 성냥은 것처럼 아니 잏습니다, 그만큼 더 잏습니다. 이십오만 원도 돈입니까? 이제야 옛날은요, 보리쌀 두 뿔 해서 부조 가는 거, 이거 삼만 원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이삼만 원은 간단히 부조를 해서 가는데, 보리쌀 하려고 어려웠어요. 남의 집 잔치 먹으러 갈 때도 보리쌀 두 뿔 가져서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110037 @ 옛날엔 보리쌀 두 뿔주게, 잔치 먹으러 갈 때도.(옛날에는 보리쌀 두 뿔지요, 잔치 먹으러 갈 때도.)

110037 #1 사둔집의는 흐 말, 흐끔 바른 가진<sup>285</sup> 두 뿔, 일가방상에 고적<sup>286</sup>은 흐 말도 흐고 두 뿔, 우리 양칩원 두 뿔 흐당 흐 말 했수다.(사둔집에는 한 말, 조금 가까운 ‘가지’는 두 뿔, 일가방상에 ‘고적’은 한 말도 하고 두 뿔, 우리 양씨 집에는 두 뿔 하다가 한 말 했습니다.)

110037 @ 바른구덕<sup>287</sup>에 그 저 보리쌀 행.(‘바른구덕’에 그 저 보리쌀 해서.)

110037 #1 경흐고 사둔집의 갈 ㄴ는대구덕<sup>288</sup> 부주행 갈 구덕 상 놔둬니께.(그리고 사둔집에 갈 ‘ㄴ는대구덕’ 부조해서 갈 바구니 사서 놔둬니다.)

110037 @ ㄴ는대구덕 그건 판씩흐 거.(‘ㄴ는대구덕’ 그건 깨끗한 거.)

110037 #1 예, 굽닥흐 거 흐 말짜리 사둔집 부주행 갈 거. (웃음) 대구덕 다 데껴붙어도 이제, 난 시어멍 해난 고랑착도 요자기사 데껴붙어서, 쓰레기 시켜붙엇저 우린, 메뉴리덜 고랑착덜 썸수과게?(예, 매끈하고 고운 거 한 말짜리 사둔집 부조해

285) ‘가지’는 친척에서 나누어진 한 갈래이다.

286) ‘고적’은 일가에 경조사가 생겼을 적에 친척끼리 만들어 가는 부조떡이나 쌀이다.

287) ‘바른구덕’은 대오리를 걸은 바구니가 헐어서 종이나 형겅 따위에 풀을 발라 붙인 바구니이다.

288) ‘ㄴ는대구덕’은 아주 가늘고 긴 대오리로 엮어 만든 큰 바구니이다.

서 갈 거. (웃음) 대바구니 다 던져버려도 이제, 난 시어머니 했던 채롱짜도 요전에 던져버렸어, 쓰레기 실어버렸어 우린, 며느리들 채롱짜 쓰고 있습니까?)

110037 @ 그거 잘 놔두면은.(그거 잘 놔두면은.)

110037 #1 놔둬 봤자 어지럽고 원, 난 귀차년 데껴붙어수다, 시켜붙어수다. 이제 사름덜 옛날 거 썸수과?(놔둬 보았자 어지럽고 원, 난 귀찮아서 던져버렸습니다, 실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 옛날 거 쓰고 있습니까?)

110038 @ 아까 이때 소한하고 대한 잇는데.(아까 이때 소한하고 대한 잇는데.)

110038 #1 예, 소한, 대한. 소한에 나간 사름 대한에 못 본덴 해서.(예, 소한, 대한. 소한에 나간 사람 대한에 못 본다고 했어.)

110038 @ 예, 그거, 그거. 아까 소설, 대설이 아니고.(예, 그거, 그거. 아까 소설, 대설이 아니고.)

110038 #1 예, 그거 아니고, 소한에 나간 사름이 대한에 못 본덴 해주게. 경 그거 말이 쉽디다. 얼영, 실령 죽어불영 돌아오지 못 흥영.(예, 그거 아니고, 소한에 나간 사람이 대한에 못 본다고 했지. 그렇게 그거 말이 쉽디다. 추워서, 차가워서 죽어버려서 돌아오지 못 해서.)

110038 @ 막 추울 뻔해주게.(아주 추울 때지요.)

110038 #1 예, 소한에 나간 사름 대한에 못 본다. 다시 돌아보지 말라 해주게, 그 말이우다게.(예, 소한에 나간 사람 대한에 못 본다. 다시 돌아보지 말라 했지, 그 말입니다.)

## 11. 놀이

111001 @ 이젠양, 놀이에 대해 알아보쿠다, 옛날 놀이.(이제는요,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놀이.)

111001 #1 놀이? 옛날 놀이.(놀이? 옛날 놀이.)

111001 @ 옛날 그 며 조끼차기여, 며 자치기여. 예, 거난 놀이, 옛날 놀이.(옛날 그 뭐 제기차기여, 뭐 자치기여. 예, 그러니까 놀이, 옛날 놀이.)

111001 #1 놀이게, 공기영 무신 오자미엔 흥 거.(놀ियो, 공기랑 무슨 오자미라고 한 거.)

111001 @ 예, 거 며 잇수광? 종류.(예, 거 뭐 있습니까? 종류.)

111001 #1 우린 오자미 집의서 조영 콩이영 놔두민 어멍 모르게 막 으져다냥 강 주맹기 멘들양 콩이고 조 담양 오자미 다섯 개씩 다섯 개 딱 다섯 개 다섯 개 흥 오자미엔 흥여근에 흥곡, 공기 다섯 개, 공깃돌 흥고 저 고무줄 거멍흥 거 흥 절로 흥나 심고, 일로 흥나 심영 고무줄뛰기, 베필레기 것벧기 더 잇어수과? 옛날 놀이게가.(우린 오자미 집에서 조랑 콩이랑 놔두면 어머니 모르게 마구 가져다놔서 가서 주머니 만들어서 콩이고 조 담아서 오자미 다섯 개씩, 다섯 개, 딱 다섯 개, 다

셋 개 해서 오자미라고 하여서 하고, 공기 다섯 개, 공깃돌 하고 저 고무줄 거면 거 해서 저리로 하나 잡고, 이리로 하나 잡아서 고무줄뛰기, 줄넘기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옛날 놀이가.)

111001 @ 연날리기.(연날리기.)

111001 #1 연은 남자덜, 연 헤여근에 들연도 있고, 니 귀 반짝흔 들연도 있고, 또 풀리 돋은 개개비 저 연도 있고, 보리왓디, 보리왓디서 막 연 놀리고, 우리 죽은 아버지 연 흐레 가민 그 담 에염의 혼디덜 왕 실려서 혼디.(연은 남자들, 연 하여서 달연도 있고, 네 귀 반듯한 달연도 있고, 또 꼬리 돋은 개구리 저 연도 있고, 보리밭에, 보리밭에서 마구 연 날리고, 우리 작은아버지 연 하려 가면 그 담 옆에 함께 들 와서 차가워서 함께.)

111001 @ 곱을락도 해나고?(숨바꼭질도 했었고?)

111001 #1 곱을락도 하고, 옛날엔 그집주게.(숨바꼭질도 하고, 옛날에는 그거지요.)

111001 @ 물탈락?(말놀음질?)

111001 #1 물탈락은 스나이덜 어깨 흐영 와닥닥 와닥닥 어더더 어더더 허멍 했주, 무신 여자덜 흡니까?(말놀음질은 남자들 어깨 해서 와닥닥 와닥닥 어더더 어더더 하면서 했지, 무슨 여자들 합니까?)

111001 @ 거 혼 번 더 곱아봅서.(거 한 번 더 말해보십시오.)

111001 #1 오자미, 공기, 고무줄, 베펠락 그거뿐.(오자미, 공기, 고무줄, 줄넘기 그거뿐.)

111001 @ 그다음에양, 그 놀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쿠다양.(그다음에요, 그 놀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1001 #1 예.(예.)

## 연(鳶)

111002 @ 연에 대해 알아보쿠다, 연.(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

111002 #1 연사 하루방<sup>289)</sup>이 알주, 나가 알아.(연이야 할아버지가 알지, 내가 알아.)

111002 @ 거난 연 종류 곱아줍서.(그러니까 연 종류 말해주십시오.)

111002 #1 연은 개개비연도 있고, 들연도 있고, 가오리연도 있고.(연은 개구리연도 있고, 방패연도 있고, 가오리연도 있고.)

111002 #2 가오리연도 있고, 따로 들연도 있고, 가오리연이엔 혼 건.(가오리연도 있고, 따로 달연도 있고, 가오리연이라고 한 건.)

111002 @ 그다음 두 개벳기 엇어나수가?(그다음 두 개밖에 없었습니까?)

111002 #2 그다음은 들연, 그건 한가운데 구멍 뚫라근에 그거 끈어뒤근에 니 귀 방장흔 들연 이십주게.(그다음은 방패연, 그건 한가운데 구멍 뚫어서 그거 꿰어뒤서

289) '하루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뜻한다.

네 귀 반듯한 방패연 있습지요.)

111002 @ 그다음엔.(그다음에는.)

111002 #1 그거뿐이주.(그거뿐이지.)

111002 #2 그거뿐이주, 그 이상은 우린 더 해본 도레 엇수다.(그거뿐이지, 그 이상은 우린 더 해본 적 없습니다.)

111002 #1 나도 알기 그거 두 개라.(나도 알기 그거 두 개야.)

111002 @ 방패연이 들연이파?(방패연이 달연입니까?)

111002 #1 들연, 방패연.(‘달연’, 방패연.)

111002 @ 방패연.(방패연.)

111002 #1 방패연이엔 혼 게 들연입디다게, 책에 보난.(방패연이라고 한 게 달연 입디다, 책에 보니까.)

111002 #2 몰라, 책에 경 나와신지 몰라.(몰라, 책에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

111002 #1 잡지책에 거 이십디다.(잡지책에 거 있습니다.)

111003 @ 그러면양, 연은 어떻 멩급니까?(그러면요, 연은 어떻게 만듭니까?)

111003 #2 연 멘들 때 대 햏여근에.(연 만들 때 대 해서.)

111003 #1 대, 족대 혜근에 달좌근에.(대, 이대 해서 다뤄서.)

111003 @ 거 햏 번 자세햏게 곁아봘서.(거 한 번 자세햏게 말해보십시오.)

111003 #2 족대 혜여근에 깨영, 깨여근에 경 달릅니다. 달좌근에게 그 종이 들 연 멘들젠 햏민 종이가 곁주게. 들연에 거시기 혜근에 들연 햏는 대 딱 햏게 들르 민 따로 대 그 연에 맞게 달 곁읍니다. 조곘 들보단 연보단 조곘 크게, 경햏문 이제 그 대 부쳐근에.(이대 해서 깨어서, 깨어서 그렇게 다릅니다. 다뤄서 그 종이 달 연 만들려고 햏면 종이 크지요. 달연에 거시기 해서 달연 햏는 대 딱 햏게 마르 면 따로 대 그 연에 맞게 달 곁읍니다. 조곘 달보다는 연보다는 조곘 크게, 그러면 이제 그 대 붙여서.)

111003 @ 뭘로 부칩니까?(무엇으로 붙입니까?)

111003 #2 풀로.(풀로.)

111003 #1 밥풀이던지 막 대작대작햏게 햏게.(밥풀이든지 마구 닥지닥지햏게 햏어.)

111003 #2 밥풀로 영도 햏고, 그 밀가루 쩐 풀도 잇고, 그걸로 혜근에 저 햏겘 에 영 좌근에 곁로 영 딱 햏게 줍아근에 등기민 풀 부멍 나웁니께. 케민 거 나오민 저 들연 가져다좌근에 처음은 한가운데보다 앞의 부칩주게. 한가운데보다 딱 햏게 부쳐놓민 다음은 양편 귀, 양편 귀 햏 부찐다. 양편 귀 부찌민 세 개 들어간다. 그 다음은 따로 네 개첸 이 한가운데 들, 한가운데 이거 부찐 경 혜근에.(밥풀로 이렇게도 햏고, 그 밀가루 쩐 풀도 잇고, 그것으로 해서 저 햏겘에 이렇게 넣어서 거기로 이렇게 딱 햏게 곁어서 당기면 풀 붙어서 나웁니다. 그러면 거 나오면 저 달연 가져다놓아서 처음은 한가운데보다 앞에 붙이지요. 한가운데보다 딱 햏게 붙여놓으면 다음은 양편 귀, 양편 귀 해서 붙인다. 양편 귀 붙이면 세 개 들어간다. 그다음

은 네 개째는 이 한가운데 달, 한가운데 이거 붙여서 그렇게 해서.)

111003 @ 대가 몇 개마썸?(대가 몇 개요?)

111003 #2 네 개 텔 거, 네 개.(네 개 될 거, 네 개.)

111003 @ 위에 하나.(위에 하나.)

111003 #1 동글락흔 거 하나.(동그란 거 하나.)

111003 #2 동글락흔 거 하나, 게민 두 개, 세 개, 네 개, 거 한가운데가 들어가민 다섯 개. 게민게 줄이 이젠 댓 개 뽕주게. 경 해근에 줄 거시기 해근에 벌이줄 메젠 잡아메근에 올립주게. 경 올려근에게 막 올려가다근에 뱅뱅뱅 돌아볼민 이제 이쪽 줄 브따붙어사키여 해근에 왼쪽에 거 브뜨게 즐라메볼민 따시 이젠 외로 들앗다, 느다 들앗다 합니다. 아이 이거 저 뭐 혼 거시기, 뭐 중머리가 이젠 너무 늦언 이젠 거시기 저 브따사키여. 경 해근에 거 딱 하게 맞좌근에 올라가기 시작흐민 잘 뜯니다.(동그란 거 하나, 그러면 두 개, 세 개, 네 개, 거 한가운데가 들어가면 다섯 개. 그러면 줄이 이젠 다섯 개 되지요. 그렇게 해서 줄 거시기 해서 벌이줄 매려고 잡아매어서 올리지요. 그렇게 올려서 마구 올라가다가 빙빙빙 돌아버리면 이제 이쪽 줄 받아버려야겠어 해서 왼쪽에 거 받게 매듭을 지으면 다시 이젠 왼쪽으로 들 았다, 바로 들앗다 합니다. 아니 이거 저 뭐 한 거시기, 뭐 중머리가 이젠 너무 느 슨해서 이젠 거시기 저 받아야겠어. 그렇게 해서 딱 맞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잘 뜯니다.)

111003 #1 꼬차지민 막 돌아나볼곡.(끓어지면 막 날아나 버리고.)

111003 #2 이견 올라갓당 끈어졌다 흐민 심지를 못 흐곡, 막 이디 바당에 가근 에.(이견 올라갓다가 끊어졌다 하면 잡지를 못 하고, 막 여기 바다에 가서.)

111003 #1 바당에 터러져볼곡.(바다에 떨어져버리고.)

111003 #2 우리 어릴 때 춤 잘 멘들안.(우리 어릴 때 참 잘 만들었어.)

111003 @ 그다음 가오리연 어떻 멘듭니까?(그다음 가오리연 어떻게 만듭니까?)

111003 #1 동글락하게 영, 영 동글락하게.(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111003 #2 가오리연은 대 두 개로 한가운데, 가오리 모양으로 멘들젠 흐민 흐꿈 진 거 거시기 해근에 영 종이도 말라근에 풀 해여근에 딱 하게 부청, 부청 거시기 흐민 춤 이 가오리연이 뽕주게.(가오리연은 대 두 개로 한가운데, 가오리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면 조금 긴 거 거시기 해서 이렇게 종이도 말라서 풀 해서 딱 하게 붙 여서, 붙여서 거시기 하면 참 이 가오리연이 되지요.)

111003 #1 창호지 몇 장사 드는지 몰란게, 멘들 때도.(창호지 몇 장이야 드는지 몰라요, 만들 때도.)

111003 @ 그 가오리연은 풀렝이도 멩글아야 흘 거 아니파양?(그 가오리연은 꼬 리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111003 #1 예, 풀렝이 돌아수게, 가운데로 들안게.(예, 꼬리 달았습니다, 가운데 로 달아요.)

111004 @ 연 대는 어떻 멘듭니까?(연 대는 어떻게 만듭니까?)

111004 #2 연 대? 연 대는 대 해다근에 달뿔근에.(연 대? 연 대는 대 해다가 다 뿔서.)

111004 #1 막 달뿔주, 얇게 거죽ㅎ영.(마구 다루고 있지, 얇게 거죽해서.)

111004 @ 거난 줌 대가 혼 뿔 년 뿔 걸로 해야 뿔 거 아니우짜?(그러니까 조금 대가 한 뿔 년 뿔 것으로 해야 뿔 거 아닙니까?)

111004 #2 게난 대, 매운대. 매운대엔 혼 건, 대 ㅎ뿔 오래 간 거 ㅎ민.(그러니까 대, 꺾은대. 꺾은대라고 한 건, 대 조금 오래 간 거 하면.)

111004 @ 걸 매운대?(그것을 꺾은대?)

111004 #2 예, 매운대엔 ㅎ뿔 불그스름ㅎ게 막 뿔 ㅎ여근에.(예, 꺾은대엔 조금 발그스름하게 아주 뿔 해서.)

111004 @ 걸 영 꺾여근에, 멀로 꺾어?(그것을 이렇게 꺾어서, 무엇으로 꺾어?)

111004 #1 칼로 던지.(칼로 던지.)

111004 #2 칼로 꺾여근에게, 조고만씩 쓸만씩 ㅎ여근에.(칼로 꺾어서 조금만큼 쓸만큼 해서.)

111004 #1 동무릎에 낱 막 꺾앙게.(무릎에 놓아서 마구 꺾아서.)

111004 @ 영 ㅎ영.(이렇게 하여서.)

111004 #1 예, 막 꺾앙게.(예, 마구 꺾아서.)

111004 #2 예, 여기저기 막 달뿔주게.(예, 여기저기 마구 다루지요.)

111004 @ 달뿔마씨?(다뿔요?)

111004 #1 예, 혹은 꺾어지지 안 ㅎ게.(예, 혹은 꺾어지지 안 하게.)

111004 #2 경 해근에 막 달뿔 이 안속으로만 달루명게 꺾아뿔주게. 경허민 바꺾 디 꺾죽에 그 질긴 걸로 그을러근에 거시기 경 해근에.(그렇게 해서 마구 다루서 이 안속으로만 다루면서 꺾어버리지요. 그러면 바꺾에 꺾데기에 그 질긴 걸로 그슬려서 거시기 그렇게 해서.)

111004 @ 별이는 어떻 마련ㅎ니까?(별이는 어떻게 마련ㅎ니까?)

111004 #2 별이? 별이는게 노뿔 거시기 해근에 그 중간에 그 진 거 대 잇지 안 ㅎ으파게? 그것에 마꺾근에 별이행 두 가달로 행.(별이? 별이는요 노뿔 거시기 해서 그 중간에 그 진 거 대 잇지 않습니까? 그것에 마꺾서 별이해서 두 갈래로 해서.)

111004 @ 별이는 실이꺾? 실로 ㅎ는 거꺾?(별이는 실입니까? 실로 하는 것입니까?)

111004 #1 문뿔 실, 연실.(모두 실, 연실.)

111004 #2 예, 실, 실. 실로 ㅎ나 연실로 ㅎ나.(예, 실, 실. 실로 하나 연실로 하나.)

111004 #1 연실이주, 연실.(연실이지, 연실.)

111004 #2 연실이나 그물실이나 그 무신 마꺾가지.(연실이나 그물실이나 그 무스 마꺾가지.)

111004 #1 연실게, 뿔가지로 감앙 뿔기는 거.(연실, 뿔가지로 감아서 다니는 거.)

111004 @ 얼레는 어떻 마련합니까?(얼레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111004 #2 얼레는 그 낭으로 만듭시다게.(얼레는 그 나무로 만듭시다.)

111004 @ 무신 낭으로.(무슨 나무로.)

111004 #2 소낭으로게.(소나무로요.)

111004 @ 그 얼레 낭은 무슨 걸로 멩글아마썸?(그 얼레 나무는 무슨 걸로 만들어요?)

111004 #2 얼레 낭게, 소낭.(얼레 나무는요, 소나무.)

111004 @ 소낭?(소나무?)

111004 #2 소낭 독진 거 거시기 그.(소나무 굵직한 거 거시기 그.)

111004 #1 쟁 곱게 끈엿게.(그렇게 곱게 끊어서요.)

111004 @ 소낭 웨로 따른 건 엿고?(소나무 외로 다른 건 없고?)

111004 #2 무사 따른 낭도 이십주게. 헝기 좋은 건 끈엿 홉주게.(왜 다른 나무도 있습지요. 하기 좋은 건 끊어서 하지요.)

111004 @ 다근죽낭이엔 헝주양.(예덕나무라고 하지요.)

111004 #2 다근내기낭 ㄹ튼 거.(예덕나무 같은 거.)

111004 @ 다근내기?(예덕나무?)

111004 #2 다근내기엔 헝는 낭이 잇주게.(예덕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지요.)

111004 @ 그다음에 실은 어떻 마련합니까? 실, 실이 중요한 건디.(그다음에 실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실, 실이 중요한 것인데.)

111004 #1 실, 미녕실로(실, 무명실로.)

111004 #2 실, 미녕실로 헝나, 저 거시기 그물실로 헝나.(실, 무명실로 하나, 저 거시기 그물실로 하나.)

111004 #1 두불 영 막 두 곱 집디다.(두벌 이렇게 두 곱 지웠습니다.)

111004 #2 예, 경헝난 그물실이 쥔 좋웁주게.(예, 그물실이 제일 좋지요.)

111004 #1 난 우리 죽은아부지 연 올리렌 헝민 뒤로 강 연 탁 헝게 올려나서.(웃음) 보리왓디 강 헝디 들양 강 놀곡.(난 우리 작은아버지 연 올리라고 하면 뒤로 가서 연 탁 하게 올렸었어.(웃음) 보리밭에 가서 함께 데려 가서 놀고.)

111004 @ 개미는 어떻 마련합니까?(개미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111004 #1 개미?(개미?)

111004 @ 개미. 개미 몰르쿠과? 연에 대헌.(개미. 개미 모르겠습니까? 연에 대한.)

111004 #2 개미?(개미?)

111004 #1 연에 거미.(연에 개미.)

111004 #2 연에 대헌 개민 난 모르겠는데.(연에 대한 개미는 난 모르겠는데.)

111005 @ 연싸움은 어떻 홉니까?(연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111005 #1 연싸움은 들리가 마주쳐근에게. 연 올려근에 너가 잘 햐다, 나가 잘 햐다.(연싸움은 들리가 마주쳐서. 연 올려서 너가 잘 하고 있다, 나가 잘 하고 있

다.)

111005 #2 너 연이 좋냐, 나 연이 좋냐, 문 싸움 부쳐근에 흡주게.(너 연이 좋냐 나 연이 좋냐, 모두 싸움 부쳐서 하지요.)

111005 #1 꼬차정 막 돌아납디다.(뚫어져서 막 돌아납디다.)

111005 @ 연실에 사그마치도 블라낫지양.(연실에 사금과리도 발랐었지요.)

111005 #2 아이고, 그건 뭐 꼴아근에 사그마치.(아이고, 그건 뭐 갈아서 사금과리.)

111005 @ 뽏아근에.(뽏아서.)

111005 #2 경 흥영 어떤 거시기 해영 봉가다근에 그거 막 저 돌에 놔근에 뽏습니다게. 경 흥영 놔두민 잘못 춤 흥당 손 막 끈어먹어, 막 들어강.(그렇게 해서 어떤 거시기 해서 주워다가 그거 마구 저 돌에 놓아서 뽏습니다. 그렇게 해서 놓아두면 잘못 참 하다가 손 마구 끊어먹어, 마구 들어가서.)

111005 @ 그 연줄에.(그 연줄에.)

111005 #2 연줄에 혜근에 풀에 거시기 혜근에, 그다음 사그마치 뽏은 걸 이제 놔근에 거기레 ㄴ찌 뭐 흡주게, 경 밥풀에 해영.(연줄에 해서 풀에 거시기 해서, 그다음 사금과리 뽏은 걸 이제 넣어서 거기로 같이 뭐 하지요, 그렇게 밥풀에 해서.)

111005 #1 일자리 엇어노난.(일자리 없었으니까.)

111005 #2 심영 영 등것당.(잡아서 이렇게 당겼다가.)

111005 #1 옛날 흘 거 엇어노난게, 학교도 즐바로덜 아니가곡, 하늘 천, 따 지 흥당 보민 그거벳기 더 잇수과? 옛날 학교덜 잘 아니 덴기곡 흥난게, 시기지 안 흥난.(옛날 할 없었으니까요, 학교도 바르게들 아니가고, 하늘 천, 따지 하다가 보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옛날 학교들 잘 아니 다니고 하니까요, 시키지 안 하니까.)

111006 @ 그 연 멩그는 거 흥고, 연 놀리는 거 엇힌 추억, 옛날 그 연싸움 허멍 엇힌 추억 뭐 잇수과?(그 연 만드는 거 하고, 연 날리는 거 엇힌 추억, 옛날 그 연싸움 하면서 엇힌 추억 뭐 있습니까?)

111006 #2 엇힌 추억 헛자 상대방 연 올림시민 ㄴ찌 가근에.(엇힌 추억 헛서 상대방 연 올리고 있으면 같이 가서.)

111006 @ 친구흥고 연싸움 해난 거 흥 번 영 말해봅서, 옛날.(친구하고 연싸움 했던 거 한 번 말해보십시오, 옛날.)

111006 #1 (웃음.)

111006 #2 친구덜 이녁보다 밋에 사름덜도 잇고, 이상 사름덜도 잇이민 가근에 영 읍서, 연싸움 흥 번 해보게 허민, 경 흡서게, 경흥민 내 연이.(친구들 이녁보다 밋에 사름덜도 잇고, 이상 사름덜도 있으면 가서 이렇게 오십시오, 연싸움 한 번 해보게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연이.)

111006 #1 잘 햄저, 나 연이 잘 햄저 흥멍 돌아정도 싸웁디다.(잘 하고 있지, 나 연이 잘 하고 있지 하면서 매달려서도 싸웁디다.)

111006 #2 막 걸러근에 서로가 막 등기멍 찌저붙어근에, 경 어린 아이덜은 막



울곡.(웃음) 재미진 일이라 영 생각하민, 경 해근에 그 냉중에 말도 안 곤곡.(마구 걸려서 서로가 막 당기면서 찢겨져버려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 마구 울고.(웃음) 재미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그 나중에 말도 안 하고.)

111006 #1 (웃음) 아이 장난이다 하는 게 흘 거 엇이난게, 옛날엔 학교 강 공부도 안 하곡 해노민.((웃음) 아이 장난이다 하는 게 할 거 없으니까, 옛날에는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하면.)

111006 @ 계난 그걸 남자들은 하영 험 거 아니짜? 옛날.(그러니까 그것을 남자들은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옛날.)

111006 #1 예게, 그 순 남자덜은 경 험만 했주.(예, 그 순 남자들은 그렇게 함만 했지.)

111006 #2 뭐 흘 것이 잇어사주게.(뭐 할 것이 있어야지요.)

111006 #1 늬의 보리왓 우녜 담 예염에 잇아서 연만 올렸주.(남의 보리밭 위쪽 담 옆에 앉아서 연만 올렸지.)

111006 #2 보리왓디 가근에 브름 직직 부는디 가근에, 브름어지 가근에 사뉘서 그자 그거 문.(보리밭에 가서 바람 직직 부는데 가서, 바람막이 가서 사뉘서 그자 그거 모두.)

111006 #1 몰멩흔 건 연 아무디 터러젇텐 하민 주성오렌 하민 거 주서다 주곡.(미련한 건 연 아무데 떨어졌다고 하면 주워오라고 하면 거 주워다 주고.)

111006 @ 저레 막 가분 것도 가근에 주성 오렌 하고.(저리로 마구 가버린 것도 가서 주워 오라고 하고.)

111006 #1 예, 몰멩흔 것덜은 그거 주스레 가곡, 연 엇인 것덜은.(예, 미련한 것들은 그거 주우러 가고, 연 없는 것들은.)

111006 #2 거난 이 난드르 바당에 들어가부러트주게.(그러니까 이 ‘난드르’ 바다에 들어가 버렸지요.)

111006 #1 바당드레 털어져불엇주게.(바다로 떨어져버렸지요.)

111006 #2 하여튼 연싸움 하민 흘 대여섯 개 바당에 강 털어져.(하여튼 연싸움 하면 한 대여섯 개 바다에 가서 떨어져.)

111006 #1 하니브름이난 바당드레만 갈 거주.(북풍이니까 바다로만 갈 거지.)

## 제기차기

111007 @ 그다음에는 저 쪼끼차기.(그다음에는 저 제기차기.)

111007 #1 쪼끼차기 멘들양 했주.(제기차기 만들어서 했지.)

111007 @ 그 저 물어보쿠다양.(그 저 물어보겠습니다.)

111007 #1 쪼끼는 어떻 멩급니까?(제기는 어떻게 만듭니까?)

111007 #2 쪼끼는게, 창호지 잇지 안 하으짜? 창호지 하영근에.(제기는요, 창호지 잇지 안 합니까? 창호지 해서.)

111007 #1 마새로 문딱 꺾양.(가위로 모두 잘라서.)

111007 #2 ㄹ새로나 칼로나 해근에 영 등글락하게 이젠 끈읍주게. 끈어근에 이제 그걸 이제 구리전이나 무신 엽전이나 그거 하나 아니면 두 개를 놓주게. 한가운데 똑 정가운데 놔근에, 그걸 똑 하게 머 해근에 한가운데 똑 하게 즐라메어근에 딱 하게 즐라메어아정 이제 그 종일 칼로나 뿔으로 끈주게.(가위로나 칼로나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이젠 끊지요. 끊어서 이제 그것을 구리전이나 무슨 엽전이나 그거 하나 아니면 두 개를 놓지요. 한가운데 똑 한가운데 놓아서, 그것을 똑 하게 뭐 해서 한가운데 똑 하게 매듭을 지어서 딱 하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이제 종이를 칼로나 무엇으로 끊지요.)

111007 #1 ㄹ새로 복삭하게.(가위로 폭삭하게.)

111007 #2 계난 똑 마련해근에 똑똑 끈어근에.(그러니까 똑 마련해서 똑똑 끊어서.)

111007 #1 조끼찰락.(제기차기.)

111007 #2 뽀으로 흥 뽀 기럭지, 경흥민 그거 거시기 조끼가 뽀 겁주게.(뽀으로 한 뽀 길이, 그러면 그거 거시기 제기가 된 거지요.)

111007 #1 아, 이제도 모여 잇는디 가민, 운동 때 가민 이제 쪼끼찰락 나오렝 흥 늘근 하르방덜 참수게. 다섯 개, 세 개, 흥나토 못 차는 사름도 싯곡.(아, 이제도 모여 잇는데 가면, 운동 때 가면 이제 제기차기 나오라고 해서 늙은 할아버지들 차고 있습니다. 다섯 개, 세 개, 하나도 못 차는 사람도 있고.)

111007 #2 아이 늘근 하르방도 영 그 차젠 흥민 차보켄 흥여근에 차당 영 허지 령흥발 주왱주왱 흥여근에.(아니 늙은 할아버지도 이렇게 그 차려고 하면 차보겠다고 해서 차다가 헛발 기웃기웃 해서.)

111007 #1 흥나토 못 차주.(하나도 못 차지.)

111007 @ 거난 그 쪼끼는 종이로만 멩글앗수과?(그러니까 그 제기는 종이로만 만들었습니까?)

111007 #1 예, 종이.(예, 종이.)

111007 #2 종이로게.(종이로요.)

111007 @ 비닐로는?(비닐로는?)

111007 #1 비니루도 안 뽀고, 옛날 비니루 잇어수과? 중간에사 비니루 나왔주. 창호지, 창호지.(비닐도 안 되고, 옛날 비닐 있었습니까? 중간에야 비닐 나왔지. 창호지, 창호지.)

111007 @ 흥겘으로.(흥겘으로.)

111007 #1 흥겘으로도 안 뽀어, 거 무거왕.(흥겘으로도 안 뽀어, 거 무거워서.)

111007 #2 흥겘으로도 허지만은 하여튼 창호지로 멘들아서.(흥겘으로도 하지만은 하여튼 창호지로 만들었어.)

111007 #1 흥겘이 잇어수과?(흥겘이 있었습니까?)

111007 @ 창호지로?(창호지로?)

111007 #1 저 오광목 헤영흥 거 줌진 거라사 오광목, 경 험벽은 잇어수과? 창호

진거 창문 불르는 거난 쉽게 사당 했주. 창호진 문딱 창문 불르는 건 창호지 아니 파? 옛날 종이로 불르는 문만 있어노난.(저 광목 하얀 거 자잘한 거라야 광목, 그렇게 형질은 있었습니까? 창호지는 거 창문 바르는 거니까 쉽게 사다가 했지. 창호지는 모두 창문 바르는 건 창호지 아닙니까? 옛날 종이로 바르는 문만 있었으니까?)

111007 #2 옛날에게 그 광목, 그 오광목이엔 혼 거 잊지 안 후우파게? 그거 해근에 늬의 집의 사름 사는 디 들어가근에게 그 저 바농통에.(옛날에 그 광목, 그 광목이라고 한 거 잊지 안 합니까? 그거 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저 바느질고리에.)

111007 #1 바농상지에 거.(바느질고리에 거.)

111007 #2 바농상지에 거 도둑질해근에 ㄹ저다근에.(웃음)(바느질고리에 거 도둑질해서 가져다가.(웃음))

111007 #1 (웃음)어이고.((웃음) 아이고.)

111007 #2 경 해근에 막 다올령 돌아댕기곡.(그렇게 해서 마구 내쫓아서 돌아다니고.)

111008 @ 그 쪼끼차기 종류, 어떤 것이 있어나수과?(그 제기차기 종류,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11008 #1 종류는 발로 사서 발로 차는 종류벳기 더 있어?(종류는 발로 서서 발로 차는 종류밖에 더 있어?)

111008 @ 아니 거난에, 이거 무슨 차기, 혼 발로 차는 거 있고.(아니 그러니까, 이거 무슨 차기, 한 발로 차는 거 있고.)

111008 #1 게 혼발로, 두발로 차는 건 양쪽 굴메들이명.(그럼 한발로 두발로 차는 건 양쪽 갈마들면서.)

111008 #2 두발로 차는 건 양쪽 굴메들이명.(두발로 차는 건 양쪽 갈마들면서.)

111008 @ 혼발차기는 어떻 흡니까? 혼발차기.(한발차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발차기.)

111008 #1 청에쫓으명.(양감질하며.)

111008 #2 청에쫓아근에 이거 청에쫓으명 막 발 혼 착으로 영.(양감질하면서 이거 양감질하며 마구 발 한 짝으로 이렇게.)

111008 #1 이제는 하나도 못 차.(이제는 하나도 못 차.)

111008 @ 그다음 혼발차기가 있고, 그다음에 며.(그다음 한발차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111008 #1 두발로, 양착으로 굴메드리명.(두발로, 양쪽으로 갈마들면서.)

111008 @ 두발차기? 양발차기, 두발차기?(두발차기? 양발차기, 두발차기?)

111008 #1 양발로게 굴메드리명 이착 차나민 이착 차고.(양발로 갈마들면서 이쪽 차나면 이쪽 차고.)

111008 #2 굴메드리명게.(갈마들면서요.)

111008 @ 양발차기렌 흡니까? 두발차기렌 흡니까?(양발차기라고 합니까? 두발

차기라고 합니까?)

111008 #1 두발차기엔 햇주, 옛날엔.(두발차기라고 했지, 옛날에는.)

111008 @ 두발차기?(두발차기?)

111008 #2 두발차기나 양발차기나 마찬가지로. (두발차기나 양발차기나 마찬가지로 지요.)

111008 #1 이젠 양발이엔 해도 두발차기 그쁜 거, 나 들은풍월 잇주.(이젠 양발이라고 해도 두발차기 같은 거, 나 들은풍월 있지.)

111008 @ 그다음 올리기 잇지 안 흐으짜? 올리기.(그다음 올리기 잇지 않습니까? 올리기.)

111008 #1 무싱겨 올리기.(무엇 올리기.)

111008 @ 아니, 거난 저 진 사람은 영 쪼끼 던지민은 차곡.(아니 그러니까 저 진 사람은 이렇게 제기 던지면 차고.)

111008 #1 매마즐락도 흐곡계, 지민 지민양.(매 맞기도 하고요, 지면 지면요.)

111008 @ 그거 흔 번 곱아봅서. 네기 해근에 올리기.(그거 한 번 말해보십시오. 네기 해서 올리기.)

111008 #1 지난해 영 흡디다. 이마팍 팍팍 조저붐디다. 진 사람덜 스나이덜끼리.(지니까 이렇게 합디다. 이마팍 팍팍 때려버립디다. 진 사람들 남자들끼리.)

111008 @ 계난 올리기 흐민 이거 머리 위에 올리는 거, 그것도 해봬디강? 올리기.(그러니까 올리기 하면 이거 머리 위에 올리는 거, 그것도 해봬습니까? 올리기.)

111008 #2 그건계, 올리는 건디.(그것은요, 올리는 것인데.)

111008 @ 쪼끼 올리는 거.(제기 올리는 거.)

111008 #2 이녁냥으로 차명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 머리 위로 넘어가는 거.(이녁대로 차면서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 머리 위로 넘어가는 거.)

111008 @ 그다음 입에 무는 거.(그다음 입에 무는 거.)

111008 #1 (웃음.)

111008 #2 (웃음) 입에 무는 거는.(웃음) 입에 무는 거는.)

111008 @ 물기.(물기.)

111008 #1 물기 아니해 보구렌.(물기 아니해 봤다고.)

111008 #2 경 무는 아이덜은 막 물렁 흔 번 물어봐, 물어봐 흐민 이제 거시기 흔 몇 번 물엄시민 흔 번 무나마나 것도 힘들어.(그렇게 무는 아이들은 마구 물려서 한 번 물어봐, 물어봐 하면 이제 거시기 한 몇 범 물고 있으면 한 번 무나마나 것도 힘들어.)

111008 #1 찬 거 무는 것도 힘들주게.(찬 거 무는 것도 힘들지요.)

111008 @ 아, 계난 찬 거.(아, 그러니까 찬 거.)

111008 #1 게 무는 거 힘들지.(그럼 무는 거 힘들지.)

111008 #2 거 힘들어. 몇 번 흐영 흔 번 물어지민 야, 나 흔 번 물었다 허멍 거시기.(거 힘들어. 몇 번 해서 한 번 물어지면 야, 나 한 번 물었다 하면서 거시기.)

111009 @ 쫓기차기는 어떻 승부를 냅니까? 하영 창.(제기차기는 어떻게 승부를 냅니까? 많이 차서.)

111009 #1 하나, 두 개 세영.(하나 두 개 세어서.)

111009 #2 하나, 두 개 세여근에게.(하나, 두 개 세어서요.)

111009 #1 하나, 두 개로, 그걸로 성부 낸게.(하나, 두 개로, 그것으로 승부 내었어.)

111009 @ 그 몇 개까지 차보디강?(그 몇 개까지 차봤습니까?)

111009 #2 아이고, 우린 몇 개 차보질 못해서.(아이고, 우린 몇 개 차보질 못했어.)

111009 @ 잘 차는.(잘 차는.)

111009 #1 아이덜 잘 차는 아이덜 잘 차주.(아이들 잘 차는 이이들 잘 차지.)

111009 #2 잘 차는 사람은 열댓 개, 한 스무남은 개까지 차.(잘 차는 사람은 열댓 개, 한 스무남은 개까지는 차.)

111009 @ 그거베키 못 찹니까?(그거밖에 못 차나요?)

111009 #1 아이고, 것도 지치주게. 청에쫓으멍 치젠 흐민.(아이고, 것도 지치지요. 양감질하면서 차려고 하면.)

111009 #2 난 그자 많이 찻자 두 개, 세 개. (웃음)(난 그저 많이 차도 두 개, 세 개.)

111009 #1 (웃음) 쉼 맥이레 텅기곡 흐젠 흐민 쫓기 찰 시간 엇어서.((웃음) 소먹이러 다니고 하려고 하면 제기 찰 시간 없었어.)

111010 @ 그 쫓기차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말해봅서. 아까 연 ㄴ찌, 옛날 사람덜.(그 제기차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말해보십시오. 아까 연 같이, 옛날 사람들.)

111010 #2 경 현 거 엇수다. 거 썩다근에게, 차다근에 싸움도 흐곡 무싱거 흐는 것도 이십주만.(그렇게 한 거 없습니다. 거 싸우다가, 차다가 싸움도 하고 무엇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111010 #1 말 아니 곤곡, 어멍, 아방덜 오랑 펜박흐멍 썩곡.(말 아니 하고, 어머니, 아버지들 와서 편벽하면서 싸우고.)

## 자치기

111011 @ 자치기 해봅디게양?(자치기 해봤습니까?)

111011 #2 자치기?(자치기?)

111011 #1 응, 자치기게.(응, 자치기요.)

111011 @ 자치기양, 게메 여자삼춘 해낫지양.(자치기요, 글썸 여자삼춘 했었지요.)

111011 #1 나도 해나수다.(나도 했었습니다.)

111011 @ 예, 게민 그 자치기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과?(예, 그러면 그 자치기

종류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111011 #1 자치긴 막랭이 요만씩 꼬창 꺼끄던지 요만씩 헤여근에 두 개로 흐주게. 하나 영 흐민 착 흐민 멀리가곡 브디게 가곡 따시 몇 개 착착 테긴 거 몇 개, 것도 하나, 둘 세영 숫자가 하영 착착 하게 흐는 사름은 선수라.(자치기는 막대기 요만큼씩 끊어서 꺾든지 요만큼씩 해서 두 개로 하지요. 하나 이렇게 하면 착 하면 멀리가고 가깝게 가고 다시 몇 개 착착 던딘 거 몇 개, 것도 하나 둘 세어서 숫자가 많이 착착 하게 하는 사름은 선수야.)

111011 @ 그 종류 잊지 안흐으파?(그 종류 잊지 않습니까?)

111011 #1 종류 그거주게, 낭끼기.(종류 그거지요, 나뭇개비.)

111011 @ 낭끼기로 영 치는 거, 그거 흐나뿐?(나뭇개비로 이렇게 치는 거, 그거 하나뿐?)

111011 #1 그거라, 자치기엔 흐 건 그거. 우리 여자덜 방칠락, 자치기.(그거야, 자치기라고 한 건 그거. 우리 여자들 사방치기, 자치기.)

111011 @ 예, 그난 자치기.(예, 그러니까 자치기.)

111011 #1 자치긴 그거.(자치기는 그거.)

111012 @ 잔 어떻 준비릅니까?(자는 어떻게 준비릅니까?)

111012 #1 자는게, 막랭이 꺼꺼다근에게, 요만씩 꺼꺼다근에 맞게 행.(자는요, 막대기 꺾어다가요, 요만큼씩 꺾어다가 맞게 해서.)

111012 @ 무슨 낭?(무슨 나무.)

111012 #1 아무 거라도 그자.(아무 거라도 그저.)

111012 #2 아무 낭이라도게.(아무 나무라도요.)

111012 #1 아무 낭이라도, 자치기 요만씩 흐 거 해당 두 개로 흐나 착 테끼민, 경 흐는 거주게.(아무 나무라도, 자치기 요만큼씩 한 거 해당 두 개로 하나 착 던지면, 그렇게 하는 거지요.)

111012 @ 거난에 그 자도, 자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잊지 안흐으파?(그러니까 그 자도, 자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잊지 않습니까?)

111012 #1 자는 그건 옷 흘 때 자고, 자치기 흐는 건 딱난 거주게.(자는 그건 옷 할 때 자고, 자치기 하는 건 다른 거지요.)

111012 @ 게메, 자가 여기 영 곶냥 딸라근에 여기 탁 뇌근에 탁 처근에 올라오면은.(글쎄, 자가 여기 이렇게 구멍 뚫어서 여기 탁 놓아서 탁 쳐서 올라오면.)

111012 #1 그거는 이디 뇌근에 착 두드리는 거, 두드령 올라가민 손, 이착 손으로 확 심곡, 그거주게.(그거는 여기 놓아서 착 두드리는 거, 두드려서 올라가면 손, 이쪽 손으로 확 잡고, 그거지요.)

111012 @ 자로 이거 큰 자로 치지 안 흐여?(자로 이거 큰 자로 치지 안 해?)

111012 #1 영 착 테낌도 흐곡, 착 침도 흐곡, 겐디 자치기도 자치긴 이건 자치기고, 옷 흐는 자도 있고.(이렇게 착 던지기도 하고, 착 침도 하고, 그런데 자치기도 자치긴 아건 자치기고, 옷 하는 자도 있고.)

111012 @ 아니, 아니. 자치기 놀 때.(아니, 아니. 자치기 놀 때.)

111012 #1 놀이게 이견 자치기고, 착착 데끼곡 착착 영 착 두드령 올라오민 손으로, 혼 짝 손으로 탁 심음도 흐곡.(놀이요 이견 자치기고, 착착 던지고 착착 이렇게 착 올라오면 손으로, 한 짝 손으로 탁 잡음도 하고.)

111012 @ 거난 족은 자가 잇고.(그러니까 작은 자가 잇고.)

111012 #1 예, 크게 낭끼기 크게 혼 것도 잇고, 족은 거 흐는 것도 잇고, 게난 못흐는 사름은 족은 거만 흐젠 흐곡, 자치기 큰 건 스나이덜이 자치기 큰 걸로 흐젠 흐여, 남자덜이. 여자는 영 족은 걸로만 흐젠 흐곡, 경 흐여낫주게, 그거주게 자치기가.(예, 크게 나뭇개비 크게 한 것도 잇고, 작은 거 하는 것도 잇고, 그러니까 못하는 사름은 작은 것만 하려고 하고, 자치기 큰 건 남자들이 자치기 큰 걸로 하려고 해, 남자들이. 여자는 이렇게 작은 걸로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였었지요, 그거지요 자치기가.)

111013 @ 거난 그 어떻 승부를 겨뤄?(그러니까 그 어떻게 승부를 겨뤄?)

111013 #1 승부는 자가 잘 나간 거게, 멧 개 수정 세주게. 영 자치기해도 요만 이강 터러지곡, 그디 그뭇 잇어 그디까지 가게, 그디까지 못 가는 건 진 사름이주게. 경 흐영 매도 맞곡, 손바닥 두들락도 흐곡, 이마팍 두들락도 흐곡, 계문 진 사름은 막 이디 맞아. 스나이덜은 이만씩 혼 거 흐여근에 그걸로 맞이민 대가리 터져. 남자덜은 여자덜이영 못해, 툄흐영.(승부는 자가 잘 나간 거요, 멧 개 숫자 세지요. 이렇게 자치기해도 요만큼 가서떨어지고, 거기 금 잇어 거기까지 가게, 거기까지 못 가는 건 진 사름이지요. 그렇게 해서 매도 맞고, 손바닥 두드리기도 하고, 이마팍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진 사름은 마구 여기 맞아. 남자들은 이만큼씩 한 거해서 그것으로 맞으면 머리 터져. 남자들은 여자들이랑 못해, 투박해서.)

111014 @ 그 자치기에 얽힌 추억?(그 자치기에 얽힌 추억?)

111014 #1 얽힌 추억 그거주게. 경 흐당 째곡, 지집아의덜도 스뭇 머리 메명 싸와.(얽힌 추억 그거지요. 그렇게 하다가 싸우고, 계집아이들도 사뭇 머리 매면서 싸워.)

111014 @ 남자영 ㄴ찌 해나수과?(남자랑 같이 했었습니까?)

111014 #1 남자덜이영 혼디도 했주게, 어릴 때.(남자들이랑 함게도 했지요, 어릴 때.)

111014 @ 그거 곶아줍서. 뭘 싸와난 거라도.(그거 말해주십시오. 뭘 싸웠던 거라도.)

111014 #1 싸와낫주게, 돌아정 막 물어불명.(싸웠었지요, 매달려서 마구 물어버리면서.)

111014 @ 무사 싸완?(왜 싸웠어?)

111014 #1 아, 그 자치기 수정 틀리게 했져, 뭘 잘못 했져, 잘 했져 흐명게, 아이덜이난게. 경흐민 스나이덜신디 들러들영 막 물어불곡, 여자덜은 모다들영 막 스나이 흐나 띠러불곡, 경 해나서. 또 간잘기, 웨 달믄 간잘기 탕 입으로 씨 빠똥 쟁

그락깡그락 소리 난, 간잘기 타다쥬 스나이덜 그거 흐렌 흐영 아이고, 저 감산이<sup>290</sup>), 우리 감산이는 남즈 스나이덜은 간잘기 타당 지집아이 주는 거, 거 입으로 꼬로록.(아, 그 자치기 숫자 틀리게 했어, 뭐 잘못 했어, 잘 했어 하면서요, 아이들이. 그러면 남자들에게 달려들어서 마구 물어버리고, 여자들은 모여들어서 마구 남자 하나 따들려버리고, 그렇게 했었어. 또 개똥참외, 외 닳은 개똥참외 따서 입으로 씨 빼어뒤서 깡그락깡그락 소리 난, 개똥참외 따다줘서 남자들 그거 하라고 해서 아이고, 저 ‘감산리’, 우리 ‘감산리’는 남자 사나이들은 개똥참외 따다가 계집아이 주는 거, 거 입으로 꼬로록.)

111014 @ 자치기행 지민?(자치기해서 지면?)

111014 #1 지민 간잘기 행 네일 간잘기 멧 개 타오렝 행.(지면 개똥참외 해서 내일 개똥참외 멧 개 따오라고 해서.)

111014 @ 거 뉘물이네 완전히.(거 뇌물이네 완전히.)

111014 #1 뉘물이주. 어이고, 남즈 스나이덜 가파 흐여근에양.(뇌물이지. 아이고, 남자 사나이들 갓아 해서요.)

111014 @ 거난 여자들이 그때도 여자들 췌여낫구나.(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때도 여자들 세었었구나.)

111014 #1 그때도 여잔 췌여도 여자는 사름이 아니라. 남자덜안티 죽어죽어. 남자덜은 툄헉곡, 이젠 여자 팍팍 달려들어도, 그뎀 경 못헉여, 므스왕. 책가방도 이젠 가방 행 뎡검주, 광목으로 흐영 니귀반듯헉게 흐영 책헉여근에, 스나이덜은 영 흐영 일로 탁 즐라메여근에 발로 탁탁 차불곡 어떻 말이파?(그때도 여자는 세어도 사람이 아니야. 남자들한테 죽어죽어. 남자들은 투박하고, 이젠 여자 팍팍 달려들어도, 그뎀 그렇게 못해, 무서워서. 책가방도 이젠 가방 해서 다니고 있지, 광목으로 해서 네모반듯하게 해서 책해서, 남자들은 이렇게 해서 이리로 탁 매듭을 지어서 발로 탁탁 차버리고 어떻게 말입니까?)

111014 @ 학교 갔다 오당 자치기 했수과?(학교 갔다 오다가 자치기 했습니까?)

111014 #1 자치기 했주, 질네에서.(자치기 했지, 길에서.)

111014 @ 질네에서?(길에서?)

111014 #1 질네에서 그 일주도로 감산이영 화순<sup>291</sup>) 가는 일주도로에서 아정 자치기도 흐곡, 베뎡레기도 흐곡, 공기도 흐당 오곡, 공깃돌 문 오져가불곡 스나이덜은 문, 오자미도 문 오져당 아이 주곡.(길에서 그 일주도로 ‘감산리’랑 ‘화순’ 가는 일주도로에서 앉아서 자치기도 하고, 즐넘기도 하고, 공기도 하다가 오고, 공깃돌 모두 가져가버리고 남자들은 모두, 오자미도 모두 가져다가 아이 주고.)

## 말타기

111015 @ 거민양, 이번은 그 저 톨탈락에 대행 알아보쿠다.(그러면요, 이번은

290) ‘감산이’는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이다.

291) ‘화순’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이다.



그 저 말놀음질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1015 #1 놀이게?(놀이요?)

111015 @ 몰탈락.(말놀음질.)

111015 #1 몰탈락은 놀이게파? 뭐.(말놀음질은 놀이입니까? 뭐.)

111015 @ 몰탈락게 저 몰탈락은 두 가지가 잇수다게. 생 몰 타는 거 허고, 그다음에 사름덜 영 굽어근에 허는 거양. 게면은 몰탈락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과?(말놀음질이요, 저 말놀음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 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이렇게 굽어서 하는 거요. 그러면은 말놀음질 종류는 어떤 것들 잇습니까?)

111015 #1 몰 타는 건 몰러레 타근에 이경 땡기고게, 경 핫주게.(말 타는 건 말에 타서 이끌어서 다니고요, 그렇게 했지요.)

111016 @ 아니 거난에, 몰탈락 종류는 죽은 몰탈락이 잇고, 사름 몰탈락?(아니 그러니까, 말놀음질 종류는 죽은 말놀음질이 잇고, 사람 말놀음질?)

111016 #1 응, 사름 업떠저근에 아이덜 장난으로 상 어러렁 탁탁 흥명 해낫주게.(을 사람 엮더저서 아이들 장난으로 서서 ‘어러렁 탁탁’ 하면서 했었지요.)

111016 @ 응, 사름 몰탈락. 그다음에.(응, 사람 말놀음질. 그다음에.)

111016 #1 제라헹게는 몰을 타고.(온전하게는 말을 타고.)

111016 @ 생 몰 타기.(살아있는 말 타기.)

111016 #1 응, 생 몰 타기.(응, 살아있는 말 타기.)

111017 @ 그다음에 죽은 몰 타기.(그다음에 죽은 말 타기.)

111017 #1 죽은 몰 타기가 뭐라?(죽은 말 타기가 뭐라?)

111017 @ 거난 사름 몰 타기주게, 사름으로. 그걸 어떻 흥니까?(그러니까 사람 말 타지요, 사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111017 #1 그건 영 업떠정 사름이 업떠지면, 이레 하르방이 업떠지면 나가 우티 잇당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흥명 기엇주게, 그것이 몰탈락.(그건 이렇게 엮더저서 사람이 엮더지면, 이리로 ‘하르방’이 엮더지면 나가 위에 잇다가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하면서 기엇지요, 그것이 말놀음질.)

111017 @ 게메 영 옆의, 영 모가지 영 심어근에 영 몰 타곡.(글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모가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말 타고.)

111017 #1 생 몰 이경 모가지 심영 이경 땡기는 거고.(살아있는 말 이끌어서 모가지 잡아서 다니는 거고.)

111017 @ 아니, 아니. 거난 사름 영 굽어근에 탈락하는 거지.(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굽어서 탈락하는 거지.)

111017 #1 아니, 우린 몰탈락이엔 흥민 이 하르방이 업뜨리민 막 기어가민 난 타민 발 탁탁 차명 몰 제게 가, 제게 가 흥명.(아니, 우린 말놀음질이라고 하면 이 ‘하르방’이 엮드리면 마구 기어가면 나는 타면 발 탁탁 말 빨리 가, 빨리 가 하면서.)

111017 @ 아니, 그것도 잇고.(아니 그것도 잇고.)

111017 #1 그것이 잇주게, 그것벧기 좇깁이 혼 건 몰라.(그것이 있지요, 그것밖에 겨드랑이 한 건 몰라.)

111017 #2 케민 그것도 잇고.(그러면 그것도 잇고.)

111017 @ 아니, 거난 사름 영 구부령 헤근에, 그다음에 영 강알에 영 들어가근에 뛰어오명, 뛰어오명 팍 타는 거 잇지 안흐으파?(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구부려서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사타구니에 이렇게 들어가서 뛰어오면서, 뛰어오면서 팍 타는 거 잇지 않습니까?)

111017 #1 일로 영 흐민.(이리로 이렇게 하면.)

111017 @ 혼 세 사름이 영 굽어근에, 혼 사름은 서곡.(한 세 사람이 이렇게 굽어서, 한 사람은 서고.)

111017 #1 세 사름이 즈근즈근 밀민 일로 자르륵 하게 절로 가곡.(세 사람이 자근자근 밀면 이리로 자르륵 하게 저리로 가고.)

111017 @ 아니, 아니. 뛰어와근에.(아니, 아니. 뛰어와서.)

111017 #2 뛰어 올라왕 타는 건.(뛰어 올라와서 타는 건.)

111017 @ 그난 이런 식으로 이디 영 혼 사름 서곡, 여기 영 굽어근에 저 뛰어오명.(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한 사람 서고, 여기 이렇게 굽어서 저 뛰어오면서.)

111017 #2 뛰어오명 사름 위로 영 짚어근에 올라가는 거.(뛰어오면서 사람 위로 이렇게 짚어서 올라가는 거.)

111017 @ 것도 잇지 안흐으파?(것도 잇지 않습니까?)

111017 #1 그것도 해낫주게. 학교 운동 때나 흐주, 기냥은 안 흐여.(그것도 했었지요. 학교 운동 때나 하지, 그냥은 안 해.)

111017 @ 아, 그난 기냥 동네에서.(아,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111017 #1 동네에서 놀 때는 그런 거 위험행 잘 안 흐곡, 학교 운동 때는 해낫주.(동네에서 놀 때는 그런 거 위험해서 잘 안 하고, 학교 운동 때는 했었지.)

111016 @ 생 물 타기. 그 저 물, 물.(살아있는 말 타기. 그 저 말, 말.)

111016 #1 물은 난 저.(말은 난 저.)

111016 @ 말탈락.(말놀음질.)

111016 #2 말탈락은 생 물 타기, 기냥 빨리 듣는 말 그자 심어근에 갈기 심어근에 타는 거.(말놀음질은 살아있는 말 타기, 빨리 달리는 말 그저 잡아서 갈기 잡아서 타는 거.)

111016 #1 막 탕 들앗주.(마구 타서 달렸지.)

111016 #1 석으로 이끄곡.(고삐로 이끌고.)

111016 @ 물 타봤지양?(말 타 봤지요?)

111016 #2 물이야게 잘 타낫주.(말이야 잘 탔었지.)

111016 @ 계난 그거 혼 번 곶아줍서.(그러니까 그거 한 번 말해주십시오.)

111016 #2 케민게, 생 물 타기 기자 영 갈기 심어근에 듣는 뭇생이 이젠 즈꿏디

올 게 아니라, 영 해시민 영 막 달려강 술술 쓸멍 거시기 햅여근에 갈길 폭 햅게 심주게. 갈길 폭 심어근에게 이젠 뛰렌 햅멍 올라타주게.(그러면요, 살아있는 말 타기 그저 이렇게 갈기 잡아서 달리는 말 망아지 이젠 곁에 올게 아니라, 이렇게 햅 있으면 이렇게 마구 달려가서 살살 쓰면서 거시기 햅서 갈기를 폭 햅게 잡고 있지요. 갈기를 폭 잡아서 이젠 뛰라고 하면서 올라타지요.)

111016 #1 올라탕, 듣는 거 올라탄게게.(올라타서, 탈리는 거 올라탔어요.)

111016 #2 경 햅여근에 타는 거.(그렇게 햅서 타는 거.)

111016 @ 털어지진 안 햅여?(떨어지지는 안 햅?)

111016 #2 아니, 그난 딱 갈길 딱 햅영 양편으로게 떨어지지 안 햅게 딱 즐라메민 떨어지질 안 햅주게.(아니, 그러니까 딱 갈기를 딱 햅서 양편으로 떨어지지 안 햅게 딱 매듭을 지으면 떨어지지를 안 하지요.)

111016 #1 손으로 잡암주.(손으로 잡고 있지.)

111016 @ 물 떨어져 뽕디강?(말 떨어져 보았습니까?)

111016 #2 털어짐도게, 털어져도 봤수다게. 막 한창, 막 뛰어가당 확 햅게 돌아서불민 핑핑 떨어져불어.(떨어짐도요, 떨어져도 봤습니다. 마구 한창, 마구 뛰어가다가 확 햅게 돌아서버리면 핑핑 떨어져버려.)

111015 #1 (웃음.)

111015 #2 물이나 쉼나 막 한창 든다근에 힘 쉼 든다근에 확 우뚝햅게 사부나, 확 돌아서부나 햅민 팽팡팡 떨어져불어.(말이나 소나 마구 한창 달리다가 힘 주어서 달리다가 확 우뚝햅게 서버리나, 확 돌아서버리나 하면 팽팡팡 떨어져버려.)

111016 @ 게민 물은 어디서 타마썸?(그러면 말은 어디서 타요?)

111016 #1 드르팍디 강게.(들발에 가서요.)

111016 #2 들의서도, 집의서도. 여물 질레서 영 가다근에게 물 거시기 햅민 옆으로 햅끔 사렝 햅여근에 달레멍 햅다근에.(들에서도, 집에서도. 여물 길에서 이렇게 가다가 말 거시기 하면 옆으로 조금 서라고 햅서 달래면서 하다가.)

111016 #1 아으 장난이주게.(아이 장난이지.)

111016 #2 화다닥 햅게 기자 갈기 심으민 올라타주게. 게민 어른 걷다근에 화다닥 햅게 햅주게. 게민 막 뛰 햅민 잘 심지 못햅민게 갈기 딱 햅게 심어뒀서 햅뚝햅게 자빠져, 막 물, 듣는 물에.(화다닥 햅게 그저 갈기 잡으면 올라타지요. 그러면 어른 걷다가 화다닥 햅게 하지요. 그러면 마구 뛰 하면 잘 잡지 못하면 갈기 딱 햅게 잡아뒀서 갑자기 자빠져, 마구 말, 달리는 말에.)

111018 @ 대말타기 햅뽕디가? 대. 대말타기. 낭 영, 대 영 햅근에.(대말타기 햅 봤습니까? 대. 대말타기. 나무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햅서.)

111018 #1 그것도 아이덜 순 햅주게.(그것도 아이들 늘 햅지요.)

111018 #2 장난으로.(웃음)(장난으로.(웃음))

111018 #1 그것도 순 햅서.(그것도 늘 햅어.)

111018 @ 대말 타기, 대냥 햅근에 영 강알에 햅근에 막 듣는 거.(대말 타기, 대

나무 해서 이렇게 사타구니에 해서 마구 달리는 거.)

111018 #1 막 듣는 거. 어르닥닥 어르닥닥 경. 여자덜토 막 헤나서.(마구 달리는 거. 어르닥닥 어르닥닥 그렇게. 여자들도 마구 했었어.)

111018 @ 그거 혼 번 곱아줍서.(그거 한 번 말해주십시오.)

111018 #2 그거게, 낭이민 낭 거시기 시민 그거 흥영 등겨근에게 가달 영 올려 근에 심영.(그거요, 나무면 나무 거시기 있으면 그거 해서 당겨서 다리 이렇게 올려 서 잡아서.)

111018 #1 탕 들앗주게, 막 들앗주게. 사름으로 들앗주게.(타서 달렸지요, 마구 달렸지요. 사름으로 달렸지요.)

111018 #2 사름으로 막 뚫주게. 가달 올라탄 것추룩 흥여근에.(사름으로 마구 달 리지요. 다리 올라탄 것처럼 해서.)

111018 #1 와닥닥 와닥닥.(와닥닥 와닥닥.)

111018 #2 그거주 무신.(그거지 무슨요.)

111018 @ 물 시늬 흥명이?(말 시늬 하면서요?)

111018 #1 여자덜토 막 헤났어, 그거. 방칠락 흥명.(여자들도 마구 했었어, 그거. 사방치기 하면서.)

111018 @ 곱아봅서게.(말해보십시오.)

111018 #1 아니, 낭 진 거 해당 탕 앓이민 일로 심으민 발로 막 듣주게. 경흥민 와닥닥 와닥닥 드르민 들탈락이주게, 그거 흥젠. 쟁점부시 흥영 것도. 쟁점부시 흥 영 이겨사 그 낭도 타곡, 지민 세 번, 네 번 타나사 타곡 어느 저를에.(아니, 나무 긴 거 해다가 타서 앓으면 이리로 잡으면 발로 마구 달리지요. 그러면 와닥닥 와닥 닥 달리면 말놀음질이지요, 그거 하려고. 가위바위보 해서 것도. 가우바위보 해서 이겨야 그 나무도 타고, 지면 세 번, 네 번 타나야 타고 어느 겨를에.)

111019 @ 물 타기에 얽힌 추억?(말 타기에 얽힌 추억?)

111019 #1 추억 그거주게. 경 흥영 잘못 흥민 째곡, 아이덜이영게. 경 울명 스못 어멍덜 오랑 펜박흥명 째곡, 지랄염병덜 다 해났주게.(추억 그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아이들이랑. 그렇게 울면서 사뭇 어머니들 와서 편벽하면서 싸우고, 지 랄염병들 다 했었지요.)

111019 @ 그걸 잘 곱아줍서.(그것을 잘 말해주십시오.)

111019 #1 그게 추억이주게, 그것이, 그것뿐이주게. 다른 거 벨 거 있어. 낭으로 물 타는 사름.(그것이 추억이지요, 그것이, 그것뿐이지요. 다른 거 벨 거 있어. 나무 로 말 타는 사람.)

111019 @ 무슨 들탈락 흥당?(무슨 말놀음질 하다가?)

111019 #1 무신 들탈락이라게, 낭 들탈락 흥단 싸왓주게. 낭 꺾어져부렁 자빠정 대가리도 터지곡. 옛날에사 아이고, 쫓쫓. 이젠 차도 탕 장난감도 요디도 막 풀암선 게 흥곡 흥주만은. 무신 구제기떡물 놔근에 흑 낭 밥흥영 먹노렌 흥명 막 얼굴드레 해분딘 개고녕이 달른 눈만 베롱흥곡, 구제기떡물에 밥 흥노렌 흥영, 검질끼기 봉가

당 불 습는 채 흐곡.(무슨 말놀음질이야, 나무 말놀음질 하다가 싸웠지요. 나무 꺾어져버려서 자빠져서 머리도 깨지고. 옛날에야 아이고, 찢찢. 이젠 차도 타서 장난감도 여기도 마구 팔고 있던데 하고 하지만은. 무슨 소라딱지 놓아서 흙 넣어서 밥해서 머노라고 하면서 마구 얼굴로 해버린데 개고양이 닮은 눈만 약간 트이고, 소라딱지에 밥 하노라고 해서 검부러기 주워다가 불 때는 채 하고.)

### 구슬치기

111020 @ 그다음에는 그 구슬치기, 그 구슬치기 흐민 옛날은 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저 다마, 다마, 다마인다.(그다음에는 그 구슬치기. 그 구슬치기 하면 옛날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저 구슬, 구슬, 구슬인데.)

111020 #1 다마, 저 딱딱흔 거, 동글락 동글락흔 거.(구슬, 저 딱딱한 거, 동그란 동그란 거.)

111020 @ 젠디 삼촌네 흘 때는 그 저 돌맹이, 그 저 동글락하게 굴안에 해실 거우다게양.(그런데 삼촌네 할 때는 그 저 돌맹이, 그 저 동그렇게 갈아서 했을 것입니다.)

111020 #1 굴지 안 흐연. 기냥 동글락흔 거 봉가당, 영 흐영 헛수다, 영 흐영.(갈지 안 해서. 그냥 동그란 거 주워다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1020 @ 그러면은 지금, 구슬은 어떻 준비릅니까?(그러면은 지금, 구슬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20 #1 구슬은 다섯 개 흐영 영 맞추난.(구슬은 다섯 개 해서 이렇게 맞추니까.)

111020 @ 아니, 그난 아까 돌로 어떻 준비혀.(아니, 그러니까 아까 돌로 어떻게 준비해.)

111020 #1 돌로 흔 거 다섯 개. 쟈젠흔 거, 동글락 동글락흔 거 봉가당 요디 하나 놓곡, 요디 하나 놓양 태올락.(돌로 한 거 다섯 개. 자잘한 거, 동그란 동그란 거 주워다가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아서 태올락.)

111020 @ 아니, 계난 동글락하게 멩글아야 할 거 아니우파? 어떻 행 동글락하게.(아니, 그러니까 동그렇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동그렇게.)

111020 #1 동글락흔 거 돌을 봉가오주. 어디 강 멩급니까?(동그란 거 돌을 주워오지. 어디 가서 만듭니까?)

111020 @ 어디 강 봉가와.(어디 가서 주워와.)

111020 #1 자갈 이신디 강 동글락 동글락흔, 옛날은 돌맹이 만흔지 안 됩니까? 질레영 세멘 안 흐난, 경흐민 동글락 동글락흔 거 일부러 막 스뭇 그거 글그명 봉가당 구실 행 태올락 흐영, 요디 하나 놓곡, 요디 하나 낱 태올락 흐영 잘 맞은 사름은 일등.(자갈 있는데 가서 동그란 동그란, 옛날은 돌맹이 많지 안 됩니까? 길이랑 시멘트 안 하니까, 그러면 동그란 동그란 거 일부러 마구 사뭇 굵으면서 주워다가 구슬 해서 태올락 해서,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아서 태올락 해서 잘 맞은

사람은 일등.)

111020 @ 다마 나올 때도 해봅디강? 사기로.(구슬 나올 때도 해봤습니까? 사기로.)

111020 #1 다마 나올 땐 막 어린 후제난 못하고, 어른이 돼어부난. 중간에사 다마나왔주게.(구슬 나올 때는 어린 후제니까 못하고, 어른이 되어버리니까. 중간에 구슬 나왔지요.)

111020 @ 계난 돌, 돌.(그러니까 돌, 돌.)

111020 #1 돌만, 어릴 땐 흑교 땡기명 돌세기로만, 공깃돌로만, 경 했주게. 공깃돌 동글락흔 거 해당 탕 맞추민.(돌만, 어릴 때는 학교 다니면서 돌맹이로만, 공깃돌로만, 그렇게 했지요. 공깃돌 동그란 거 해다가 탕 맞추면.)

111020 @ 맞아, 그건 구슬이 아니고 공기, 공기.(맞아, 그건 구슬이 아니고 공기, 공기.)

111020 #1 공기, 공깃돌. 이제도 공깃돌 잊지 안흐으파? 나이롱. 할망덜 막 경로당에서 흐는 거.(공기, 공깃돌. 이제도 공깃돌 잊지 않습니까? 나이론. 할머니들 마구 경로당에서 하는 거.)

111021 @ 자 그러면은 그 구슬치기 종류는 어떤 것덜 잊수과?(자 그러면은 그 구슬치기 종류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111021 #1 구슬치긴게, 다마치기주게.(구슬치기는요, 구슬치기지요.)

111021 @ 예, 그 다마치기 종류가 어떤 것덜 있어.(예, 그 구슬치기 종류가 어떤 것들 있어.)

111021 #1 다마, 다마치기 영 허민 요디 두 개 놔근에 요걸로 하나로 두 개 탁 그찌 맞이민 요건 일등. 하나만 행 하나 등글어버리주게. 이디서 마친 돌이 등글어 불어. 경흐민 건 낙, 낙 웬 거, 못흔 거, 건 못흐는 거, 건 진 거, 얻어맞을 거 그건.(구슬, 구슬치기 이렇게 하면 여기 두 개 놓아서 요걸로 하나로 두 개 탁 맞으면 요건 일등. 하나만 해서 하나 등글어버리지요. 여기서 맞춘 돌이 등글어버려. 그러면 건 낙, 낙 된 거, 못한 거, 건 못하는 거, 건 진 거, 얻어맞을 거 그건.)

111021 @ 따른 건 잊수과?(다른 건 없습니까?)

111021 #1 다른 건 잊어 그거. 구슬치기엔 흔 건 그거. 나 알거니, 공기흐는 거 뿐 흐고.(다른 건 없어 그거. 구슬치기라고 한 건 그거. 나 알거니 공기하는 거뿐 하고.)

111022 @ 계난 이런 구멍치기.(그러니까 이런 구멍치기.)

111022 #1 구멍치긴양.(구멍치기는요.)

111022 @ 구멍치긴 어떻 흡니까?(구멍치기는 어떻게 합니까?)

111022 #1 건 방칠락. 구멍치기가 아니고, 방칠락은양.(건 사방치기. 구멍치기가 아니고, 사방치기는요.)

111022 @ 구멍, 구멍에 집어넣는 거?(구멍, 구멍에 집어넣는 거?)

111022 #1 난 그건 안 해봤어.(난 그건 안 해봤어.)

111022 @ 구멍치기?(구멍치기?)  
 111022 #2 안 해봤어. 건 몰라.(안 해봤어. 건 몰라.)  
 111022 #1 그건 요 중간에사 나와실 거라. 그냥 고냥 딸랑 동골락<sup>292)</sup> 들어가게.(그건 요 중간에야 나왔을 거야. 그냥 구멍 뚫어서 ‘동골락’ 들어가게.)  
 111022 @ 예, 들어가는 거.(예, 들어가는 거.)  
 111022 #1 그거는양, 중간에사 나온 거고, 우리 흘 뎨 방칠락.(그거는요, 중간에야 나온 것이고, 우리 할 때는 사방치기.)  
 111022 @ 방칠락은 나중에 나올 거우다. 공기, 공기가 아니라 그 구슬이우다, 구슬. 구멍치기.(사방치기는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공기, 공기가 아니라 그 구슬입니다, 구슬. 구멍치기.)  
 111022 #1 구슬로 나왔을 거우다.(구슬로 나왔을 것입니다.)  
 111023 @ 원치기는?(원치기는?)  
 111023 #1 원치기가 뭐라, 의미를.(원치기가 뭐야, 의미를.)  
 111023 @ 모르쿠광?(모르겠습니까?)  
 111023 #1 예.(예.)  
 111024 @ 벽치기?(벽치기?)  
 111024 #1 벽치긴 이 벽덜에 돌마칠락, 돌세기로 팍 팍 해근에 멧 개 마쳐져. 멧 개? 두 개.(벽치기는 이 벽들에 돌던지기, 돌멩이로 팍 팍 해서 멧 개 던졌어. 멧 개? 두 개.)  
 111024 @ 탁 해근에 저 멀리 나가는 것이 이기는 거 아니우파양?(탁 해서 저 멀리 나가는 것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111024 #1 멀리 나가는 것이 이긴 거주게. 경 해낫주게. 게민 하나, 둘 공깃돌 모양으로 세여근에 하영 숫자가 한 사람은 이긴 사람.(멀리 나가는 것이 이긴 거지요. 그렇게 했었지요. 그러면 하나, 둘 공깃돌 모양으로 세어서 많이 숫자가 많은 사람은 이긴 사람.)  
 111024 @ 멀리 간 사람 아니?(멀리 간 사람 아니?)  
 111024 #1 응, 숫자가 하곡, 멀리 가고 숫자가 하사, 건 이긴 사람. 경 이마팍 신드레 맞앙 돌아오랑 이마팍 맞앙 터진 사람.(응, 숫자가 많고, 멀리 가고 숫자가 많아야, 건 이긴 사람. 그렇게 이마팍 있는 데로 맞아서 돌아와서 이마팍 맞아서 깨진 사람.)  
 111025 @ 눈알치기 알아지쿠과?(눈알치기 알아지겠습니까?)  
 111025 #1 눈알치기가 뭐라?(눈알치기가 뭐야?)  
 111025 @ 눈치기?(눈치기?)  
 111025 #1 눈치기가 뭔가?(눈치기가 뭔가?)  
 111026 @ 모르쿠과? 삼각치기?(모르겠습니까? 삼각치기?)  
 111026#1 것도 모르쿠다.(것도 모르겠습니다.)

292) ‘동골락’은 구슬이 구멍에 들어가는 소리이다.

111027 @ 계민 구슬치기에 얽힌 추억?(그러면 구슬치기에 얽힌 추억?)

111027 #1 얽힌 추억은 ㄱ싸추룩게, 지민 싸와근에 돌아정 싹곡, 울곡 스뭇 난리가 나는 그것이 추억이주, 다른 거 아니. 멧뜰씩 말 안 곧곡 쉼면해영덜.(얽힌 추억은 아까처럼, 지면 싸워서 매달려서 싸우고, 울고 사뭇 난리가 나는 것이 추억이지, 다른 거 아니. 며칠씩 말 안 하고 죄면해서들.)

### 딱지치기

111028 @ 딱지치기 해봅디강?(딱지치기 해봤습니까?)

111028 #1 딱지치기사 흐주.(딱지치기야 하지.)

111028 @ 계민양, 딱지.(그러면요, 딱지.)

111028 #1 멘들양.(만들어서.)

111028 @ 거난 이거 우리 클 때는 딱지를 빠짱이엔 했는디.(그러니까 이거 우리 클 때는 딱지를 ‘빠짱’이라고 했는데.)

111028 #1 그때는 빠짱이고 우린 딱지. 저 종이로 영 뱅뱅 오그려근에 딱지치기, 뱅뱅 오그렷 니귀반뜻흐게 흐영 딱지치기.(그때는 ‘빠짱’이고 우린 딱지. 저 종이로 뱅뱅 오그려서 딱지치기, 뱅뱅 오그려서 네모반듯하게 해서 딱지치기.)

111028 @ 경 행 어떻 준비릅니까?(그렇게 해서 어떻게 준비릅니까?)

111028 #1 그거 이제 니귀반뜻흐게 오그려근에 꼭꼭 디물렁 니귀반뜻흐게 흐영 이레 흐나 낱 착 두드리민 뉘싸지민 이긴 거.(그거 이제 네모반듯하게 오그려서 꼭꼭 들이밀어서 네모반듯하게 해서 이리로 하나 놓아서 착 두드리면 뒤집어지면 이긴 거.)

111028 @ 계난 준비, 준비.(그러니까 준비, 준비.)

111028 #1 준비가 그거. 종이 허영.(준비가 그거. 종이 해서.)

111028 @ 종일 어떻 놔근에.(종이를 어떻게 놓아서.)

111028 #1 니 귀 반뜻흐 종이가 이거 아니꽈? 일로 오그렷다, 일로 오그렷다, 일로 오그렷다, 일로 오그렷다 흐민, 또 흐 번 오그리고, 또 오그리고 영 행 마지막에 마주 꼭 디물렁 놔두민 그 딱지가 웨는 거주게, 니 귀 반뜻흐. 딱지 뉘민 흐나 낱 우의서 흐나로 탁 치민 이것이 뉘싸지민 이기는 거고, 뉘싸지지 안흐민 진 거. (네 귀 바듯한 종이가 이거 아닙니까? 이리로 오그렷다, 이리로 오그렷다, 이리로 오그렷다, 이리로 오그렷다 하면, 또 한 번 오그리고, 또 오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마주 꼭 들이밀어서 놓아두면 그 딱지가 되는 거지요, 네 귀 반듯한. 딱지 되면 하나 놓아서 위에서 하나로 탁 치면 이것이 뒤집어지면 이기는 거고, 뒤집어지지 않으면 진 거.)

111028 @ 종이도 그뻬 엇어신디.(종이도 그때는 없었는데.)

111028 #1 종이도 신문지로도 흐곡, 어디 강 좃어당 잘 멘들야, 경 해도.(종이도 신문지로도 하고, 어디 가서 주워다가 잘 만들어, 그렇게 해도.)

111028 @ 어디 강.(어디 가서.)



111028 #1 어디서 강 좇어오는데 아으덜 잘 멘들아, 아방 책도 문 브려 오람신 디사 기자.(어디서 가서 주워오는지 아이들 잘 만들어, 아버지 책도 모두 찢어 오고 있는지 그저.)

111028 #2 (웃음).

111028 @ 거 방에 잇인 종이 문뜩 찢어와부는 거 아니?(거 방에 잇는 종이 모두 찢어와 버리는 거 아니?)

111028 #1 찢어오람주게. 백브름도 치져진 거 문 브려당 문 멩글아불곡, 경 헛주게, 옛날엔. 백브름 풀 흐민 두둑두둑 흐지 안 해수과?. 게민 그거 막 박박 브렁온 아이덜도 하.(찢어오고 있지요. 바람벽 찢어진 거 모두 찢어다가 모두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했지요, 옛날에는. 바람벽 풀 하면 두둑두둑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 박박 찢어서 온 아이들도 많아.)

111028 @ 크게 만들젠.(크게 만들려고.)

111028 #1 크게 만들젠. 경흐고 하영, 숫자 하영 만들젠. 종이는 엇고 어뎡 말이 우과? 이제난 보리상자 잇지만, 옛날 보리상자 서수과? 벨걸 다 해수다. 뽕이치기 흐곡.(크게 만들려고. 그리고 많이, 숫자 많이 만들려고. 종이는 없고 어떻게 말입니까? 이제니까 골판지상자 잇지만, 옛날 골판지상자 있었습니까? 별것 다 했습니다. 뽕이치기 하고.)

111029 @ 계난 딱지치기 종류는 어떤 것덜 이수과?(그러니까 딱지치기 종류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111029 #1 딱지치기는 큰 거 멘들민 큰 거, 죽은 거 멘들민 죽은 거 따 먹는 거 그저주게.(딱지치기는 큰 거 만들면 큰 거, 작은 거 만들면 작은 거 따 먹는 거 그저지요.)

111029 @ 뤼, 이걸로 내려청?(뤼, 이것으로 내리쳐서?)

111029 #1 예, 이거 흐나 낱 흐나로 탁 두드리민 이것이 브름으로 뤼싸져. 뤼싸지민 이기는 거고, 따시 흐 번 그 저편의 앓은 산 아이가 또 흐나 놔, 따시 흐 두 번, 세 번 흐민 완전 일등이라, 세 번 뤼싸지민. 흐나토 못 뤼쓰는 아이덜이 하.(예, 이거 하나 놓아서 하나로 탁 두드리면 이것이 바람으로 뒤집어져. 뒤집어지면 이기는 거고, 다시 한 번 그 저편에 앓은 선 아이가 떠 하나 놓아, 다시 한 두 번, 세 번 하면 완전 일등이야, 세 번 뒤집어지면. 하나도 못 뒤집는 아이들이 많아.)

111029 @ 영 딱지를 딱 쳐근에 그 뤼는 안 해봄디강?(이렇게 딱지를 딱 쳐서 그 뤼는 안 해보았습니까?)

111029 #1 경은 안 흐고.(그렇게는 안 하고.)

111029 @ 네모 속에 들어가면은.(네모 속에 들어가면은.)

111029 #1 경은 안 흐고, 그건 방칠락이고. 이거 두들령 따먹는 거는 딱지치기. 우리 흐 때는 두들령 따먹는 거. 이제도 햄주, 아이덜.(그렇게는 안 하고, 그것은 사방치기이고. 이거 두드려서 따먹는 거는 딱지치기. 우리 할 때는 두드려서 따먹는 거. 이제도 하고 있지, 아이들.)

111030 @ 계난, 계난 딱지치기, 어땜 해마씨? 우선 젤 처음에.(그러니까, 그러니까 딱지치기, 어떻게 해요? 우선 제일 처음에.)

111030 #1 종이로.(종이로.)

111030 @ 경 행 먼저 치는 사람.(그렇게 해서 먼저 치는 사람.)

111030 #1 장괘부시 흥영, 장괘부시 해사. 장괘부시 흥영 이긴 사람이 먼저 치는 거. 경 흥영 진 사람은 말째사. 그 사람이 으라게 뒤흔불민 오레주게. 경흥고 흥나도 못 뒤흔근에 낙하는 아이덜이 하. 경흥민 내기를 흥영근에 매 맞곡, 손바닥 두들 내기나 이마팍 영 행 팍팍 마사불곡.(가위바위보 해서, 가위바위보 해야,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치는 거. 그렇게 해서 진 사람은 말째야. 그 사람이 여러게 뒤집어버리면 오래지요. 그리고 하나도 못 뒤집어서 낙하는 아이들이 많아. 그러면 내기를 해서 매 맞고, 손바닥 두들기는 내기나 이마팍 이렇게 해서 팍팍 다치게 해버리고.)

111030 @ 그땐 두 개? 이마.(그땐 두 개? 이마.)

111030 #1 이맹이 막 두드려.(이마 마구 두드려.)

111030 @ 이맹이 두드릴락만?(이마 두드릴락만?)

111030 #1 이맹이 두드릴락 흥고, 손바닥 두드릴락 흥고. 매도 맞으면 아파. 그 추룩 흥영근에 무싱거 사 먹을 게 서, 무싱거 서.(이마 두드릴락 하고, 손바닥 두드릴락 하고. 매도 맞으면 아파. 것처럼 해서 무엇 사 먹을 것이 있어, 무엇 있어.)

111030 @ 나중 그 딱지를 가정 가는 거 아니?(나중 그 딱지를 가져서 가는 거 아니?)

111030 #1 가정, 이녁 문 오정감주, 탄 건게.(가져서, 이녁 모두 가져가고 있지, 탄 것은요.)

111030 @ 탄 건.(탄 것은.)

111030 #1 탄 건. 저 백브름 브리멍 흥 건게, 어땜 말이라게. 탄 건 오정강 뒷날 흥곡게. 흥교 갈 땐 곱져붙어서 학교에선 못하게 흥메.(탄 것은. 저 바람벽 찢으면서 한 것은요, 어떻게 말이라. 탄 것은 가져가서 뒷날 하고요. 학교 갈 때는 숨겨버려야 학교에서는 못하게 하지.)

111030 #2 (웃음) 난 원 도저히 모르키여.(웃음) 나는 원 도저히 모르겠어.)

111030 #1 (웃음) 도저히 모르켄.(웃음) 도저히 모르겠다고.)

111031 @ 계민 그 딱지치기에 얽힌 추억?(그러면 그 딱지치기에 얽힌 추억?)

111031 #1 얽힌 추억은 늣광 돌아정 지민 싹곡게, 어땜덜 오랑 펜박흥영 싸우민 췌면흥곡 스뭇 야단이주, 그 추억이주게. 흥 사흘씩 말 안 곤곡, 흥교에 가도.(얽힌 추억은 남과 매달려서 지면 싸우고, 어머니들 와서 편벽해서 싸우면 췌면하고 사뭇 야단이지, 그 추억이지요. 한 사흘씩 말 안 하고, 학교에 가도.)

111031 @ 그 저 방, 방은 안 브려롭디강?(그 저 방, 방은 안 찢어봤습니까?)

111031 #1 난 방은 안 브려 받. 우리 집의 신문지도 하곡, 우린 아버지네, 족은 아버지네 막 공무원들이난 무신 것이 하주게. 경흥민 그거 슬짜기 흥 권 도둑질도

해가곡, 모르게. 계난 책 찾지 못ㅎ영 막 아방안티 “난 몰라, 난 몰라.” 경 ㅎ영주. (나는 방은 안 찢어 봤어. 우리 집에 신문지도 많고, 우린 아버지네, 작은아버지네 마구 공무원들이니까 무슨 것이 많지요. 그러면 그거 살짝 한 권 도둑질도 해가고, 모르게. 그러니까 책 찾지 못해서 마구 아버지한테 “난 몰라, 난 몰라.” 그렇게 하였지.)

111031 @ 책도 다 찢어불엇지양?(책도 다 찢어버렸지요?)

111031 #1 책도 다 찢어불엇주게. 경ㅎ민 “난 모르쿠다, 난 안 봐신디, 안 봐신디.” 경 ㅎ명 거짓말도 ㅎ곡. 옛날 책 두켤양, 이 책 두께가 막 두꺼웁디다게. 계난 그걸로 주루 멘들앗주, 브러다근에.(책도 다 찢어버렸지요. 그러면 “난 모르겠습디다, 난 안 봤는데, 안 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옛날 책 두께는요, 이 책 두께가 아주 두꺼웠습디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주로 만들엇지, 찢어서.)

### 숨바꼭질

111032 @ 곱을락.(숨바꼭질.)

111032 #1 곱을락도 ㅎ주게, 놀 트명에 영.(숨바꼭질도 ㅎ지요, 가리 틈에 이렇게.)

111032 @ 예, 곱을락양.(예, 숨바꼭질요.)

111032 #1 췌꼭췌꼭 ㅎ명.(췌꼭췌꼭 하면서.)

111032 @ 숨바꼭질인디.(숨바꼭질인테.)

111032 #1 이젠 숨바꼭질인디, 그땐 곱을락.(이젠 숨바꼭질인테, 그땐 ‘곱을락’.)

111032 @ 계메, 곱을락은 어떻 ㅎ니까?(글췌, 숨바꼭질은 어떻게 ㅎ니까?)

111032 #1 곱을락은계, 췌겡부시 꺠려근에게 진 사름은 눈 곱양 ㅎ을락 ㅎ곡, 이긴 사름은 문딱 곱아불주게. 경ㅎ민 ㅎ나 둘 셋 넷 열 개 세민 ㅎ으레 땡기주게. 경ㅎ민 ㅎ질 못행 문저 ㅎ나 둘 세어난디 문저 착 대어불민 그 또 곱을락ㅎ 사름은, 눈 곱은 사름은 또 눈 곱아야 뷌어, 문저 착 대어불민.(숨바꼭질은요, 가위바위 보 가려서 진 사름은 눈 감아서 ㅎ을락 하고, 이긴 사름은 모두 숨어버리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열 개 세면 ㅎ으러 다니지요. 그러면 ㅎ지를 못해서 문저 하나 둘 세엇던데 문저 착 대어버리면 그 또 숨바꼭질한 사름은, 눈 감은 사름은 또 눈 감아야 돼, 문저 착 대어버리면.)

111032 @ 어디덜 강 막 곱아?(어디들 가서 마구 숨어.)

111032 #1 놀 트명에도 곱곡, 장독에도 강 곱곡, 지랄염병을 다 ㅎ주게.(가리 틈에도 숨고, 장독에도 가서 숨고, 지랄염병을 다 하지요.)

111032 #2 출 놀 소곱에도 강 곱곡.(꿀 가리 속에도 가서 숨고.)

111032 #1 출 놀 소곱에도 들어가불곡, 계민 ㅎ스락 어염에 강 해불민 ㅎ스락 꺠려왕 막 ㅎ곡, 장난ㅎ 때가.(꿀 가리 속에도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까끄라기 옆에 가서 해버리면 까끄라기 가려워서 아주 하고, 장난할 때가.)

111033 @ 계난 술래는 어떻 정해여?(그러니까 술래는 어떻게 정해?)

111033 #1 어땡.(어떻게.)

111033 @ 눈 감는 사람은.(눈 감는 사람은.)

111033 #1 눈 감는 사람은 영 해영 눈 감으면.(눈 감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눈 감으면.)

111033 @ 어땡 정합니까?(어떻게 정합니까?)

111033 #1 진 사람이, 쟁점부시 행 진 사람이 눈 감주게. 눈 감으면 하나 둘 셋 넷 행 열 개 세면 좇으레 땡기는 거라. 좇을락 행 그디 강 못 좇으면 그 하나 둘 셋 한 사람 좇으레 한 트멍에 확 그디 점령해볼민 그 사람 따시 눈 감아사 웨어, 문딱 좇지 못하민. (웃음)(진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눈 감지요. 눈 감으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열 개 세면 좇으러 다니는 거야. 좇을락 해서 거기 가서 못 좇으면 그 하나 둘 셋 한 사람 좇으러 한 틈에 확 거기 점령해버리면 그 사람 다시 눈 감아야 돼, 모두 좇지 못하면.(웃음))

111033 @ 그난 그 눈 감은 사람 그디 가근에 건들여야 될 거 아니우파?(그러니까 그 눈 감은 사람 거기 가서 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111033 #1 건들지 안 하영, 누게 영 일름 불러볼주게.(건들지 안 해서, 누구 이렇게 이름 불러버리지.)

111033 @ 아, 일름 불령.(아, 이름 불러서.)

111033 #1 일름 불러볼주게, 아이덜이난 아난게. 일름 불르민 그 사람덜은 만나오곡, 저 좇지 못하 사람은 막 못 좇앙 돌아땡기당 보민.(이름 불러버리지요, 아이들이니까 아니까. 이름 부르면 그 사람들은 모두 나오고, 저 좇지 못한 사람은 아주 못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보면.)

111033 @ 아, 이긴 사람이 와근에 탁 건드려야 할 거 아니우파?(아, 이긴 사람이 와서 탁 건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111033 #1 그 좇지 못하 한 사람은 좇지 못하 아이가 먼저 오랑 이디 점령해볼민 눈 감아난 사람은 또 눈 감아사 웨어, 두 번. 그 문딱 좇지 못해볼민. (웃음) 눈만 감아근에 한 번 곱을레기 곱지 못하 아이덜이 하.(그 좇지 못해서 한 사람은 좇지 못한 아이가 먼저 와서 여기 점령해버리면 눈 감았던 사람은 또 눈 감아야 돼, 두 번. 그 모두 좇지 못해버리면. (웃음) 눈만 감아서 한 번 숨바꼭질 숨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

111034 @ 계난 아까 어디에 몸 숨겨?(그러니까 아까 어디에 몸 숨겨?)

111034 #1 야, 놀 트멍에도 곱곡, 장독 어염에도 강 곱아불곡, 따시 집의 무똥<sup>293</sup>에도 강 곱아불곡. 계민 그 좇아땡기는 사람이.(야, 가리 틈에도 숨고, 장독 옆에도 가서 숨어버리고, 다시 집에 '무똥'에도 가서 숨어버리고. 그러면 그 찾아다니는 사람이.)

111034 @ 굴목<sup>294</sup>에도 가곡, 그다음.(‘굴목’에도 가고, 그다음.)

293) '무똥'은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보통 마당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다.

294)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떼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111034 #1 너무 지끈 디 들어가면 제게 나오질 못혀. 제기 나오라사주. 경 혀어나수게, 그거주게, 추억은. 다른 게 아니주. 옛날엔 흘 거 엇이난게, 흑교 아니 땡기곡 해노난게.(너무 깊은 데 들어가면 빨리 나오지를 못해. 빨리 나와야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거지요, 추억은. 다른 게 아니지. 옛날엔 할 거 없으니까, 학교 아니 다니고 했었으니까.)

111035 @ 곱을락에 대한 추억이 있으면 글아줍서.(숨바꼭질에 대한 추억이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111035 #1 추억은게, 그거 혀영 째곡게, 이마팍 두드려볼민 싸와근에 어멍덜 펜 박혀레 왕 말 안 곱으멍게, 그게 추억이주게. 사흘씩 나흘씩 말 안 곱으멍 학교 가도, 췌면혀여근에.(웃음)(추억은요, 그거 해서 싸우고요, 이마팍 두드려버리면 싸워서 어머니들 편벽하러 와서 말 안 하면서요, 그게 추억이지요. 사흘씩 나흘씩 말 안 하면서 학교 가도, 죄면해서.(웃음))

### 실뜨기

111036 @ 실뜨기양, 실로 영 해근에.(실뜨기요, 실로 이렇게 해서.)

111036 #1 양발 짜는 거?(양발 짜는 거?)

111036 @ 아니, 실뜨기에 대해 물어보는 디양. 실 영 혀여근에 영 혀곡 영 혀는 거.(아니, 실뜨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데요. 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111036 #1 아, 그거 해낫수다, 실. 영 혀영 실 혀민 영 혀민 밧도 웨곡.(아, 그거 했었습니다, 실. 이렇게 해서 실 하면 이렇게 하면 밧도 되고.)

111036 @ 예, 모양 멩그는 거.(예, 모양 만드는 거.)

111036 #1 따시 영 혀민 영 혀영 영 들이치곡.(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이치고.)

111036 @ 그거 실은 어멍 준비릅니까?(그거 실은 어떻게 준비릅니까?)

111036 #1 췌은 집의 바농상지에 췌. 저 옛날엔 미녕췌 막 독진 거주게, 이제추 룩 미싱 실 아니난. 독지민 그거 도독질 해당, 어멍 거. 막 낭께기 ㄹ정 뵁뵁뵁 감 아다근에 막 즐라메근에 영 혀여근에 영 혀곡 영 혀영 그거.(실은 집에 바느질고리에 실. 저 옛날엔 무명실 아주 굵직한 거지요, 이제처럼 재봉틀 실 아니니까. 굵직하면 그거 도독질 해다가, 어머니 거. 마구 나뭇개비 가져서 뵁뵁뵁 감아다가 마구 매듭지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111037 @ 그 실뜨기 할 때 어떤 손가락이 필요릅니까?(그 실뜨기 할 때 어떤 손가락이 필요릅니까?)

111037 #1 이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이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

111037 @ 어느 손가락?(어느 손가락?)

111037 #1 이거 세 개에 감아 영.(이거 세 개에 감아 이렇게.)

111037 @ 세 개 어느 손가락?(세 개 어느 손가락?)

111037 #1 이거, 이거,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흐른 올로 영.(이거, 이거,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하면 여기로 이렇게.)

111037 @ 세 개, 이거 무슨 손가락이엔 흐여?(세 개, 이거 무슨 손가락이라고 해?)

111037 #1 이거, 이거 상손가락. 계난 그싸 몰란 햄주게. 요건 엄지손가락, 요건 아기손가락, 요건 상손가락이이엔 흐난. 요건 상손가락이엔 흐는다, 요건 아기손가락엔 무신 거라. 경흐민 영 흐민 이쪽의 실 따시 영 그뭇 곳어진 것이 있어. 실이 이디 가민, 계민 이걸 영 흐민 또 이레 오곡, 영 흐민 이레 가곡. 경흐민 밧도 웨곡, 따시 논도 웨곡, 그걸로 흐주게. 경흐민 따시 영 가운데로 영 실 꿰영 영 웨쓰민 차례대로 웨곡, 경 흡디다게. 건 바농상지에 실 도둑질 해당.(이거, 이거 가운데손가락. 그러니까 아까 몰라서 하고 있지요. 요것은 엄지손가락, 요것은 아기손가락, 요것은 가운데손가락이라고 하니까. 요것은 가운데손가락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아기손가락이라고 무슨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쪽에 실 다시 이렇게 굵 그어진 것이 있어. 실이 여기 가면,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또 이리로 오고, 이렇게 하면 이리로 가고. 그러면 밧도 되고, 다시 논도 되고, 그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실 꿰어서 이렇게 뒤집으면 차례대로 되고, 그렇게 합디다. 그것은 바느질고리에 실 도둑질 해다가.)

111037 @ 거난에 엄지손가락, 그다음에 집게손가락.(그러니까 엄지손가락, 그다음에 집게손가락.)

111037 #1 엄지손가락. 이것이 집게손가락 닮아. 이건 상손가락.(엄지손가락. 이것이 집게손가락 닮아. 이것은 가운데손가락.)

111038 @ 어떤 기능 흡니까? 이거, 이거 이건 필요 엇어? 엄지손가락은?(어떤 기능 합니까? 이거, 이거 이것은 필요 없어? 엄지손가락은?)

111038 #1 요것이 젤 필요흐주.(요것이 제일 필요하지.)

111038 @ 엄지손가락은?(엄지손가락은?)

111038 #1 엄지손가락이 필요흐주, 무사 필요가 엇어.(엄지손가락이 필요하지, 왜 필요가 없어.)

111038 @ 아니, 실뜨기 흘 때.(아니, 실뜨기 할 때.)

111038 #1 실뜨기 흘 땐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실뜨기 할 때는 요것 세 개, 요것 세 개.)

111038 @ 계난 엄지손가락은 필요 없네?(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은 필요 없네?)

111038 #1 필요 없어. 요거, 요거 세 개만 이디 영 해지민 영 가리곡, 이레 가리곡, 저레 가리곡 했주게. 우리가 흐여보난.(필요 없어. 요것, 요것 세 개만 여기 이렇게 해지면 이렇게 헤어지고, 이리로 헤어지고, 저리로 헤어지고 했지요. 우리가 해보니까.)

111038 @ 계난 요거가 집게 닮고, 엄지.(그러니까 요것이 집게 닮고, 엄지.)

111038 #1 상손가락, 요것이 상손가락.(가운데손가락, 요것이 가운데손가락.)

111038 @ 집게, 그다음에 요것이 새끼손가락.(집게, 그다음에 요것이 새끼손가락.)

111038 #1 요건 무성거인지 몰라. 요건 상손가락, 요건 집게손가락, 요것이 무신손가락인지 모르쿠다. 요건 상손가락, 요건 새끼손가락.(요것은 무엇인지 몰라. 요것은 가운데손가락, 요것은 집게손가락, 요것이 무슨 손가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요것은 가운데손가락, 요것은 새끼손가락.)

111039 @ 게민 새끼손가락은 어떻 껌는 겁니까?(그러면 새끼손가락은 어떻게 껌는 것입니까?)

111039 #1 새끼손가락은 씹먹을 거 하나도 엇어.(새끼손가락은 씹먹을 거 하나도 없어.)

111039 @ 무사, 손가락 다 씹먹는 거주게.(왜, 손가락 다 씹먹는 거지요.)

111039 #1 다 씹먹어도 새끼손가락은 안 씹먹어.(다 씹먹어도 새끼손가락은 안 씹먹어.)

111039 @ 손가락 하나 엇이민 안 웨어.(손가락 하나 없으면 안 돼.)

111039 #1 경해도 새끼손가락 흔엇이 움직이지 안 해부난.(그래도 새끼손가락 별로 움직이지 안 해버리니까.)

111039 @ 새끼손가락 뭘 햏여? 껌밥 떼는 거?(새끼손가락 뭘 햏어? 껌밥 떼는 거?)

111039 #1 몰르쿠다. 껌밥 떼껌 ㄹ려운 디 껌는 거뻌기 요건 필요 엇인 거.(모르겠습니다. 껌밥 떼고 ㄹ려운데 껌는 것뻌에 요것은 필요 없는 거.)

111039 @ 이거는?(이거는?)

111039 #1 요것이 쯔 껌도 필요햏 거라.(요것이 쯔 껌도 필요햏 거야.)

111039 @ 쯔 필요햏 거 어느 거라.(쯔 필요햏 거 어느 거야.)

111039 #1 상손가락, 요거 두 개가 쯔 필요햏주게.(가운데손가락, 요거 두 개가 쯔 필요햏지요.)

111039 #2 요것이 쯔 필요햏 안 햏지.(요것이 쯔 필요햏지는 안 햏지.)

111039 #1 요것이 필요햏 안 햏여.(요것이 필요햏지는 안 햏어.)

111039 #2 노내기.(약손가락.)

111039 @ 이거?(이거?)

111039 #1 이거 노내기라. 이거 노내기, 일름이 노내기라.(이거 약손가락이야. 이거 약손가락, 일름이 약손가락이야.)

111039 @ 노내기? 노내기?(약손가락? 약손가락?)

111039 #1 노내기라, 이거. 새끼손가락.(약손가락이야, 이거. 새끼손가락.)

111039 @ 껌난 이거 엄지.(그러니까 이거 엄지.)

111039 #1 엄지, 이껌.(엄지, 이껌은.)

111039 @ 집껌.(집껌.)

111039 #1 이껌 애기손가락, 이껌 상손가락, 이껌 노내기. 이껌 새끼손가락 거

맞아.(이것은 애기손가락, 이것은 가운데손가락, 이것은 약손가락, 이것은 새끼손가락 거 맞아.)

111039 @ 이거, 이거 무싱거? 아까.(이거, 이거 무엇? 아까.)

111039 #1 어느 거? 이건 애기손가락. 경호난 이건 상손가락, 이건 노내기가 맞아, 이건. 이것이, 이건 잘 안 써지주게. 상손가락만 헝영 쓰지.(어느 거? 이것은 애기손가락. 그러니까 이것은 가운데손가락, 이것은 약손가락이 맞아, 이것은. 이것이, 이것은 잘 안 써 지지요. 가운데손가락만 해서 쓰지.)

111039 @ 계난 새끼손가락은, 아까 세 개벧기 필요 엇어?(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은, 아까 세 개밖에 필요 엇어?)

111039 #1 세 개가 제일 필요해주.(세 개가 제일 필요하지.)

111039 @ 뭐, 뭐? 어느 손가락?(뭐, 뭐? 어느 손가락?)

111039 #1 노내기 헝고, 이거 두 개가 제일 필요해주게.(약손가락하고, 이거 두 개가 제일 필요하지요.)

111039 @ 계난 그 두 개가 뭐, 뭐?(그러니까 그 두 개가 뭐, 뭐?)

111039 #1 요건 엄지손가락, 이건 애기손가락.(요것은 엄지손가락, 이것은 애기손가락.)

111039 @ 아니, 이거 세 개가 필요헝텐 헝명.(아니, 이거 세 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111039 #1 게, 필요 없는 거는 쓸 때는 필요헝 디게, 이름은 그거주게.(그럼, 필요 없는 거는 쓸 때는 필요한 데요, 이름은 그거지요.)

111039 @ 아니, 거난 필요헝 거만.(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거만.)

111039 #1 필요헝 거, 요거 두 개가 제일 필요헝지.(필요한 거, 요것 두 개가 제일 필요하지.)

111039 @ 아니, 실뜨기 헝 때.(아니, 실뜨기 할 때.)

111039 #1 실뜨기 헝 땐 요거 세 개.(실뜨기 할 때는 요것 세 개.)

111039 @ 뭐, 뭐?(뭐, 뭐?)

111039 #1 요거, 애기손가락, 상손가락, 노내기, 그것이 필요헝 거, 우리가 실뜨기 헝 때.(요것, 애기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그것이 필요한 거, 우리가 실뜨기 할 때.)

111040 @ 실뜨기에 대한 추억?(실뜨기에 대한 추억?)

111040 #1 추억게, 그거 실 얼우당 잘못 헝쟁 헝여근에 싸와근에게 스뭇 헝민.(추억요, 그거 실 어우르다가 잘못 헝다고 해서 싸워서 사뭇 하면.)

111040 @ 계속 ㄱ뽀든 거 굴아부난에.(계속 같은 거 말해버리니까.)

111040 #1 그거주게, 다른 것이 아니주게. 경 헝영 어멍, 아방 싸와근에.(그거지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 싸워서.)

111040 @ 실 도둑질 해난 거라던가, 뭐 그런 거.(실 도둑질 헝었던 거라든가, 뭐 그런거.)



111040 #1 도둑질 해봤주. 바농상지에 가근에 어멍네 썰패에 감양, 낭 썰패에 감양 놔두민게, 낭계기 요텐이 혼 거 으정강 모르게 뽁뽁 감아다근에 실뜨기를 했주게, 그거주게. 어멍 모르게, 경 흥영 말젠 때 맞곡.(도둑질 해봤지. 바느질고리에 가서 어머니네 실패에 감아서, 나무 실패에 감아서 놔두면요, 나뭇개비 요만큼 한 거 가져가서 모르게 뽁뽁 감아다가 실뜨기를 했지요, 그거지요. 어머니 모르게, 그렇게 해서 말쑤는 때 맞고.)

111040 @ 계난 계속 매 맞은 말만 추억으로 해부니깐.(그러니까 계속 매 맞은 말만 추억으로 해버리니까.)

111040 #1 경 그거 도둑질 해갠 때 맞았주게. 썰도 어려울 때 해갠젠게.(그렇게 그거 도둑질 해갠다고 매 맞았지요. 실도 어려울 때 해갠다고.)

### 공기놀이

111041 @ 그다음에 공기, 공기놀이에 대해서 물어볼쿠다양. 공기는 어멍 준비하니까?(그다음에 공기, 공기놀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기는 어떻게 준비하니까?)

111041 #1 다섯 개게, 공깃돌 해당 다섯 개 해근에.(다섯 개요, 공깃돌 해당 다섯 개 해서.)

111041 @ 저 돌로양?(저 돌로요?)

111041 #1 돌로 영 흥나씩 흥나씩 영 놓곡 했주게, 오자미 식으로.(돌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놓고 했지요, 오자미 식으로.)

111042 @ 공기는 어떤 순으로 진행하니까?(공기는 어떤 순으로 진행하니까?)

111042 #1 다섯 개 쨌쨌흔 거, 동골락 동골락흔 거.(다섯 개 자잘한 거, 동그란 동그란 거.)

111042 @ 다섯 개 해근에 쨌 처음에.(다섯 개 해서 제일 처음에.)

111042 #1 영 하난 영 우트레 올리곡 하나 톱 심곡, 또 하나 올령 두 개, 두 개 민 두 개 다 올려근에, 또 하나씩 흥민 네 개 아니파게? 하난 다섯 개난 하나는 먼저 올리곡, 네 개 다 올리민 딱시 말젠 딱시 심곡.(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위로 올리고 하나 톱 잡고, 또 하나 올려서 두 개, 두 개면 두 개 다 올려서, 또 하나씩 하면 네 개 아넵니까? 하나는 다섯 개니까 하나는 먼저 올리고, 네 개 다 올리면 다시 말쑤는 다시 잡고.)

111042 @ 어디에 올령, 어디 이레?(어디에 올려서, 어디 이리로?)

111042 #1 아니, 아니. 저레 올령 또 일로 심어, 올라간 걸 다.(아니, 아니. 저리로 올려서 또 이리로 잡아, 올라간 것을 다.)

111042 @ 뒤트레 놓지 앓고?(뒤로 놓지 앓고?)

111042 #1 아니, 이레. 이레 심영 딱시 영 올려근에 딱로 영 놓으면 다섯 개 다 놔지주게.(아니, 이리로. 이리로 잡아서 다시 이렇게 올려서 다시 이렇게 놓으면 다섯 개 다 놔지지요.)

111042 @ 거민 이긴 거?(그러면 이긴 거?)

111042 #1 이긴 거. 건 놓지 못하는 아이덜도 하. 그거 흐지 못하는 아이덜.(이긴 거. 그것은 놓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 그거 하지 못하는 아이들.)

111042 @ 흐 번 더 해봅서.(한 번 더 해보십시오.)

111042 #1 흐 번은 흐나 흐영 흐나 툭 올령 흐나 심영, 또로 두 개 올령 또로 흐나 심으민 세 개, 또로 세 개 다 올령 네 개 심으민 네 개민, 또 하나씩 올려근에 툭툭툭툭 놓민 흠치 네 개 다 놔버릴 때도 잇곡, 경 흐는 거 아니우꽈? 흐나도 못하는 아이덜도 하.(한 번은 하나 해서 하나 툭 올려서 하나 잡아서, 또 두 개 올려서 또 하나 잡으면 세 개, 또 세 개 다 올려서 네 개 잡으면 네 개면, 또 하나씩 올려서 툭툭툭툭 놓으면 한꺼번에 같이 네 개 다 놔버릴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납니까?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

111043 @ 게민 공기놀이예 얽힌 추억?(그러면 공기놀이예 얽힌 추억?)

111043 #1 얽힌 추억은게, 경 흐영 드좌근에 싸와근에 느 공기 잘했져, 내 공기 잘했져.(얽힌 추억은요, 그렇게 해서 다튀서 사워서 너 공기 잘했어, 내 공기 잘했어.)

111043 @ 뭇 때문에 드좌?(뭇 때문에 다튀?)

111043 #1 잘못 헛젠 해가민 우기닥질흐명 싸왓주게.(잘못 했다고 해가면 우기면서 싸우고 있지요.)

111043 @ 뭇 영 건드린 걸 안 건드렸덴 해근에?(뭇 이렇게 건드린 것을 안 건드렸다고 해서?)

111043 #1 게난 지넨 지곡흐민 악은 나놓고게, 이긴 사름이영 싸왓주게. 경흐민 스뭇 머리 잡아등기명 싸우민 어명덜 강 곶아불민 어명덜 펜박흐레 오랑 사흘씩 말 안 곧곡, 심어낱 그 공깃돌 이기난게, 지어 노난 악 난 싸왓주게. 어린 것덜이엔 흐게 무신.(그러니까 자기네는 지고하면 악은 나놓고요, 이긴 사람이랑 싸우고 있지요. 그러면 사뭇 머리 잡아당기면서 싸우면 어머니들 가서 말해버리면 어머니들 편벽하러 와서 사흘씩 말 안 하고, 잡아와서 그 공깃돌 이기니까, 저 노니까 악 나서 싸우고 있지요. 어린 것들이라고 한 것이 무슨.)

## 고누

111044 @ 고누 알아지쿠과?(고누 알아지겠습니까?)

111044 #1 고누?(고누?)

111044 @ 고누. 사금파리, 사그마치 해근에.(고누. 사금파리, 사금파리 해서.)

111044 #1 사그마치. 허벽<sup>295</sup> 벌러진 거, 망데기 벌러진 거, 사그마치.(사금파리. '허벽' 깨진 거, 웅기 깨진 거, 사금파리.)

111044 @ 사그마치 해근에 노는 놀이.(사금파리 해서 노는 놀이.)

111044 #1 사그마치 해근에 영 앓혀근에 저 물 놔근에 밥헿 먹누렌 흐곡, 불 습

295) '허벽'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다.

양.(사금파리 해서 이렇게 앉혀서 저 물 넣어서 밥해서 먹는다고 하고, 불 때어서.)

111044 @ 물판 준비해근에. 사그마치양, 그 저 뭐냐 하면은 툭툭 치명 가는 거, 발로.(말판 준비해서. 사금파리요, 그 저 뭐냐 하면은 툭툭 치면서 가는 거, 발로.)

111044 #1 그거는 저 거세기 방칠락, 방칠락이라. 옛날 우리 방칠락이엔 해나수다.(그거는 저 거시기 사방치기, 사방치기야. 옛날 우리 사방치기라고 했었습니다.)

111044 @ 방칠락이우파?(사방치기입니까?)

111044 #1 예, 사그마치 툭툭 치명 가는 거, 그건 방칠락.(예, 사금파리 툭툭 치면서 가는 거, 그건 사방치기.)

111044 @ 으, 고누. 방칠락 답네. 게난 사그마치엔 흐지양?(예, 고누. 사방치기 답네. 그러니까 사금파리라고 하지요?)

111044 #1 예, 사그마치 벌러근에.(예, 사금파리 깨서.)

111044 @ 사그마치 해근에 동글락하게 해근에.(사금파리 해서 동그렇게 해서.)

111044 #1 아니, 동글락도 흐곡 니기반뜻흐곡, 봉가당 발로 툭 차민 저 칸들에 가곡, 툭 차민 이 칸들에 오민, 거 방칠락이우다게.(아니, 동그랳기도 하고 네모반뜻하고, 주워다가 발로 툭 차면 저 칸들에 가고, 툭 차면 이 칸들에 오면, 거 사방치기입니다.)

111044 @ 게민 방칠락, 그 사그마치는 어떻 준비릅니까?(그러면 사방치기, 그 사금파리는 어떻게 준비릅니까?)

111044 #1 사그마치는 드르팍디 막 통개 벌러진 거영 허벅 벌러진 거 데껴불민 그거 막 봉가당 멘들암주.(사금파리는 들발에 마구 향아리 깨진 거랑 ‘허벅’ 깨진 거 던져버리면 그거 마구 주워다가 만들고 있지.)

111044 @ 그걸 해근에.(그것을 해서.)

111044 #1 독독, 돌로 독독독 흐영 흐민 문딱 벌러지민 데껴똥 따시 강 봉가오곡, 경 햄주게. 돌로 독독독 흐민 바우 돌랑 손바닥만씩 흐곡, 게민 문딱 벌러지민 데껴똥 또 봉가오곡. 경 해근에 발로 툭 차민 이 칸들에 가곡, 일로 툭 차민 이 칸들에 가곡. 니기방장하게 영 흐영 낱 가운데 영 네 칸을 멘들주게.(독독, 돌로 독독독 해서 하면 모두 깨지면 던져똥서 다시 가서 주워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돌로 독독독 하면 둘레 도려서 손바닥만큼씩 하고, 그러면 모두 깨지면 던져똥서 또 주워오고. 그렇게 해서 발로 툭 차면 이 칸들에 가고, 이리로 툭 차면 이 칸들에 가고, 네모반뜻하게 이렇게 해서 놓아서 가운데 이렇게 네 칸을 만들지요.)

111045 @ 그 물판도 멩글아야 할 거 아니파양? 물판.(그 말판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말판.)

111045 #1 물판이 뭐라.(말판이 뭐라.)

111045 @ 아이, 여기 보민 녁동베기 흘 때에 영 뭐 토면은 영.(아니, 여기 보면 옷놀이 할 때에 이렇게 뭐 도면은 이렇게.)

111045 #1 난 그건 모릅니다게.(난 그것은 모릅니다.)

111045 @ 물판 해실 걸?(말판 했을 걸?)

111045 #1 건 저 거세기 아니파게.(건 저 거시기 아닙니까.)

111045 #2 들판은게, 옷놀이 할 때 하는 거.(말판은요, 옷놀이 할 때 하는 거.)

111046 @ 건 모르쿠과? 거면은 고누놀이 종류?(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고누놀이 종류?)

111046 #1 고누?(고누?)

111046 @ 예, 아까 그거, 방칠락.(예, 아까 그거, 사방치기.)

111046 #1 예, 그거. 검은 고무 해근에.(예, 그거. 검은 고무 해서.)

111046 @ 아니, 거난 뭐냐 아까 방칠락 종류는 어떤 것덜 있어?(아니, 그러니까 뭐냐 아까 사방치기 종류는 어떤 것들 있어?)

111046 #1 종류는 사그마치로, 니기방장하게 땅에 굿영 영 니기방장하민 영 가운데 하민 칸이 네 개라. 계민 이리 차가곡, 저리 차가곡, 이리 차오곡 하영, 그거 방칠락.(종류는 사금파리로, 네모반듯하게 땅에 그어서 이렇게 네모반듯하면 이렇게 가운데 하면 칸이 네 개야. 그러면 이리 차가고, 저리 차가고, 이리 차오고 해서, 그거 사방치기.)

111047 @ 거면은 이 저 승부는 어떻 정하여?(그러면은 이 저 승부는 어떻게 정해?)

111047 #1 승부는게, 가다근에 이 칸 어엿드레 가민 진 거라, 그뚝드레 가불민. 계난 톡 하게 차민 이레 가곡, 이레 찰 때도 이 그뚝드레 걸치지 안 하게 톡 차곡 하민 이기는 거고, 이레 걸쳐정 진 거주게, 그뚝드레 가불민.(승부는요, 가다가 이 칸 옆으로 가면 진 거야, 금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톡 하게 차면 이리로 가고, 이리로 찰 때도 이 금으로 걸치지 안 하게 톡 차고 하면 이기는 거고, 이리로 걸쳐져서 진 거지요, 금으로 가버리면.)

111048 @ 요 저 방칠락에 대한 추억.(요 저 사방치기에 대한 추억.)

111048 #1 추억게, 그거 하당 싸와근에게 스뚝 니네 어명이여, 무신 니네 아방이여 하명 싸우는 거 그거주게. 말 안 곧곡게. 아무 무신 아무 것도 아닌디 경 하는 거주게, 아이덜이영게.(추억은요, 그거 하다가 싸워서 사뚝 너네 어머니다, 무슨 너네 아버지다 하면서 싸우는 거 그거지요. 말 안 하고. 아무 무슨 아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아이들이랑.)

## 땅뺏기

111049 @ 땅뺏기 해봤지양? 땅뺏기.(땅뺏기 해봤지요? 땅뺏기.)

111049 #1 땅뺏긴 뺏이치기?(땅뺏기는 뺏기치기?)

111049 @ 아니, 땅을 빼앗는 거.(아니, 땅을 빼앗는 거.)

111049 #1 몰라. 땅 빼앗는 건.(몰라. 땅 빼앗는 건.)

111049 @ 아까 그거, 방칠락이 그건가?(아까 그거, 사방치기가 그건가?)

111049 #1 그게 방칠락이여, 그게. 방칠락이가 그거우다게. 청에쫓을락 하고.(그게 사방치기여, 그게. 사방치기가 그거입니다. 양감질하기 하고.)

## 웃놀이

111053 @ 그다음에양, 그 웃가락, 웃놀이에 대해 물어보쿠다양.(그다음에요, 그 웃가락, 웃놀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1053 #1 웃놀이는 나 몰라. 웃놀이사, 여자가 웃놀이 해봤수과?(웃놀이는 나 몰라. 웃놀이야, 여자가 해봤습니까?)

111053 @ 웃놀이에 대해양.(웃놀이에 대해서요.)

111053 #1 무신 개여, 토시여 그거주게.(무슨 개여, 도여 그거지요.)

111053 @ 웃가락은 어떻 준비릅니까?(웃가락은 어떻게 준비릅니까?)

111053 #2 웃가락은 낭ㅎ영 잘르민.(웃가락은 나무해서 자르면.)

111053 #1 잘라당 멧 개 ㅎ영.(잘라다가 멧 개 해서.)

111054 @ 무슨 낭 ㅎ여?(무슨 나무 해?)

111054 #1 아무 낭이라도. 요만씩 ㅎ영 깨여근에.(아무 나무라도. 요만큼씩 해서 깨어서.)

111054 #2 아무 낭이라도 흘 만 한 거 봉가근에.(아무 나무라도 할 만큼 한 거 주워서.)

111054 #1 이젠 이만씩 ㅎ 낭으로 햄주게.(이젠 이만큼씩 한 나무로 하고 있지요.)

111054 @ 웃놀이 낭으로,(웃놀이 나무로.)

111054 #2 웃놀이 낭게, 옛날 웃놀이엔 ㅎ 낭 잇이민 ㄱ는 거 끊어다근에.(웃놀이 나무요, 옛날 웃놀이라고 한 나무 있으면 가는 거 끊어다가.)

111054 #1 깨여근에게.(깨어서.)

111054 #2 똑 웃가락 흘 만씩 해근에 잘라근에게 한가운디로 똑 ㅎ게 깨민 반 뜻ㅎ게 깨지주게. 네 개 해근에 그걸로.(똑 웃가락 할 만큼씩 해서 잘라서 한가운데로 똑 하게 깨면 반듯하게 깨지지요. 네 개 해서 그것으로.)

111054 #1 개여, 토시여, 걸이여, 모여, 숯이여 그거주게. 문딱 갈라지민 숯.(개여, 도여, 걸이여, 모여, 웃이여 그거지요. 모두 갈라지면 웃.)

111054 @ 계난에 웃가락은 아까 그 웃놀이낭ㅎ고 또 무신 낭으로?(그러니까 웃가락은 아까 그 웃놀이나무하고 또 무슨 나무로.)

111054 #1 아니, 아무 낭으로.(아니, 아무 나무로.)

111054 @ 돛박낭?(돛백나무?)

111054 #1 돛박낭이 최고 좋넨.(돛백나무가 최고 좋다고.)

111054 @ 돛박낭?(돛백나무?)

111054 #2 돛박낭 말고, 웃놀이낭이 제일 최고 좋은 거주.(돛백나무 말고, 웃놀이나무가 제일 최고 좋은 거지.)

111054 #1 웃놀이낭은 아무디나 서게?(웃놀이나무는 아무데나 있어?)

111055 @ 종지 잇어야지양?(종지 잇어야지요?)

111055 #1 사기종지. 그레 낱 픽 데끼곡.(사기종지. 그리로 넣어서 픽 던지고.)

111055 @ 옛날 그 잔치할 때 그디 장물 뇌근에 먹어난 거.(옛날 그 잔치할 때 거기 간장 넣어서 먹었던 거.)

111055 #1 예, 장종지, 사기종지, 사기종지, 사기종지. 이젠 스댕종지주만은 사기종지였주.(예, 간장종지, 사기종지, 사기종지, 사기종지. 이젠 스테인리스종지지만은 사기종지였지.)

111055 @ 옛날 그 저 잔치 때 해난 거.(옛날 그 저 잔치 때 했던 거.)

111055 #1 옛날 잔치 때 하고. 아니, 그 집의도 사기종지로 상 촬영 아방이나 하르방이나 삼춘, 장종지를 낫주게. 장종지 아니 놓으면 상 들러놓질 못했쥬.(옛날 잔치 때 하고. 아니, 그 집에도 사기종지로 상 차려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삼춘, 간장종지를 놓았지요. 간장종지 아니 놓으면 상 들러놓지를 못하였지.)

111055 @ 그난 종지, 그다음에 윗판은 어떻 멘들아수과?(그러니까 종지, 그다음에 윗판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11055 #1 윗판은 명석, 명석. 주로 명석이주게.(윗판은 명석, 명석. 주로 명석이지요.)

111055 #2 물 쓰는 판은게, 명석 혼펜의 한가운데 굿어.(말 쓰는 판은요, 명석 한편에 한가운데 그어.)

111055 #1 경 행 솟으로.(그렇게 해서 솟으로.)

111055 #2 돌빵 딱 하게 반디기 거시기 해근에 선 굿지 안 하여게? 경 행 거기 돌빵 그리거든게. 영 해근에.(말판 딱 하게 반듯이 해서 선 굿지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말판 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111055 @ 돌빵양?(말판?)

111055 #2 돌빵 그리민 물 쓰는 사름 앓아근에.(말판 그리면 말 쓰는 사람 앓아서.)

111055 @ 뭘로 그려? 돌빵.(무엇으로 그려? 말판.)

111055 #1 아니, 솟으로도 하곡, 솟으로도 하여, 명석더레.(아니, 솟으로도 하고, 솟으로도 해, 명석으로.)

111055 #2 먹으로도 하곡.(먹으로도 하고.)

111055 @ 보통은 솟으로?(보통은 솟으로?)

111055 #1 예, 이젠 널판 낱 썸십디다게. 그 명석 혼펜드레, 이젠 보난.(예, 이젠 널빤지 놓아서 쓰고 있었습디다. 그 명석 한편으로, 이젠 보니까.)

111055 #2 명석에 주로 명석에 하고.(명석에 주로 명석에 하고.)

111055 #1 명석에도 하고 혼이 었어.(명석에도 하고 한이 없어.)

111055 @ 명석 위에 하영 그리주게.(명석 위에 많이 그리지요.)

111055 #2 예, 명석 위에 주로 그리주.(명석 위에 주로 그리지.)

111055 #1 그난 이거 명석 니기방장하민 낙하민게 요디서 돌빵을 그리주게, 하는 거 보난. 토는 하나만 가리쳐 진 거 토, 네 개 다 었어지민 모, 가리쳐지민 솟.

(그러니까 이거 명석 네모반듯하면 낙하면요 여기서 말판을 그리지요, 하는 거 보니까. 도는 하나만 뒤집어 진 거 도. 네 개 다 옆어지면 모, 뒤집어지면 옷.)

111056 @ 거면 옷놀이 종류 어떤 것이 잇수과?(그러면 옷놀이 종류 어떤 것이 있습니까?)

111056 #1 옷놀이 종류, 토.(옷놀이 종류, 도.)

111056 #2 종류는 그 저 토, 캐, 걸, 솟, 모 그거주게. 경흐난 젤 우두머리는 모가 우두머리거든, 그다음은 솟 네 개 가리쳐진 거, 세 개 갈라진 건 걸. 두 개 갈라진 건 캐, 하나 갈라진 건 토.(종류는 그 저 도, 개, 걸, 옷, 모 그거지요. 그러니까 제일 우두머리는 모가 우두머리거든, 그다음은 옷 네 개 뒤집어진 거, 세 개 뒤집어진 건 걸, 두 개 뒤집어진 건 개, 하나 뒤집어진 건 도.)

111056 @ 경흐민 그 저 모는 어떤 동물이우파?(그러면 그 저 모는 어떤 동물입니까?)

111056 #1 모는 네 개 다 옆어진 거 모.(모는 네 개 다 옆어진 거 모.)

111056 @ 동물, 동물이 있어. 모, 물. 그난 타는 물. 모가 타는 물이라, 물.(동물, 동물이 있어. 모, 말. 그러니까 타는 말. 모가 타는 말이야, 말.)

111056 #1, 2 타는 물?(타는 말?)

111056 @ 응, 모가 옛날 타는 물이주게, 의미가.(응, 모가 옛날 타는 말이지요, 의미가.)

111056 #1 의미주 이견. 모엔 흐난 모르주.(의미지 이견. 모라고 하니까 모르지.)

111056 @ 캐는 개고.(‘캐’는 ‘개’고.)

111056 #1 캐는 세 개.(개는 세 개.)

111056 @ 두 개, 두 개.(두 개, 두 개.)

111056 #1 아, 두 개. 걸이 세 개. 세 개 가리쳐진 게 걸, 솟은 네 개 다 가리쳐지민 솟, 흐나만 가리쳐진 건 토.(아, 두 개. 걸이 세 개. 세 개 뒤집어진 게 걸, 솟은 네 개 다 뒤집어지면 옷, 하나만 뒤집어진 건 도.)

111056 @ 여기서 옷놀이를, 옷놀이엔 안 흐지양?(여기서 옷놀이를, 옷놀이라고 한 하지요?)

111056 #1 옷놀이 흘 때 돼민.(옷놀이 할 때 되면.)

111056 @ 뭐렌 허여? 옷놀이를 다른 말로.(뭐라고 해? 옷놀이를 다른 말로.)

111056 #1 옷놀이엔 흐지, 옷놀이.(옷놀이라고 하지, 옷놀이.)

111056 @ 녁동베기라고 안 허여?(냉동내기라고 안 합니까?)

111056 #1 녁동베기가 맞주게, 녁동베기.(냉동내기가 맞지요, 녁동내기.)

111056 #2 녁동베기엔도 흐고, 옷놀이엔도도 흐고.(냉동내기라고도 하고, 옷놀이라고도 하고.)

111056 #1 게난 이제사 옷놀이주, 녁동베기주게, 그게.(그러니까 이제야 옷놀이지, 녁동내기지, 그게.)

111057 @ 게난 승부는 어떻게 정합니까?(그러니까 승부는 어떻게 정합니까?)

111057 #1 승부는 그 물빵 흐는 사름, 데끼는 사름 메영 흐는 거, 그날에 따랑 흐는 거주게, 잘 흐는 사름.(승부는 그 말판 하는 사람, 던지는 사람 메어서 하는 거, 그날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잘 하는 사람.)

111057 #2 슷, 캐 거시기 해근에, 옷가락 두 개씩 심어근에 승부 콜리주게.(옷, 캐 거시기 해서, 옷가락 두 개씩 잡아서 승부 가리지요.)

111057 @ 그건 먼저 던지는 사름이고.(그건 먼저 던지는 사름이고.)

111057 #2 먼저 던지는 게 아니고, 둘리가 마주 잇일 거 아니라게, 둘리가 승부 콜리젠 흐민 던지주게. 토, 캐 난다든가.(먼저 던지는 게 아니고, 둘리가 마주 있을 거 아니라, 둘리가 승부 가리려고 하면 던지지요. 도, 캐 난다든가.)

111057 @ 그건 먼저 던지는 사름이고. 그 물빵 멧 개 나와야 이기는 사름이라.(그건 던지는 사름이고. 말판 멧 개 나와야 이기는 사름이라.)

111057 #2 물빵이 네 개 나와야.(말판이 네 개 나와야.)

111057 #1 진짜 모 하영 나온 사름이 이기는 거주게.(진짜 모 많이 나온 사름이 이기는 거지요.)

111057 @ 물빵. 거난 물빵 네 개를 뭐렌 흡니까?(말판. 그러니까 말판 네 개를 뭐라고 합니까?)

111057 #2 물빵 네 개? 네 개민.(말판 네 개? 네 개면.)

111057 @ 녁동?(냁동?)

111057 #2 녁동이엔도 흐지만은.(냁동이라고도 하지만은.)

111057 @ 물빵 네 개.(말판 네 개.)

111057 #2 물빵 네 개민게.(말판 네 개면.)

111057 #1 모가 하영 나와사 이기주게.(모가 많이 나와야 기가지요.)

111057 #2 모가 세 개, 네 개. 제라하게 물빵 거시기 다 나오젠 흐민 모 네 갠 나와야 제라하게 이기는 거주게. 결국은 그거 다 나오면은 이기는 거주게.(모가 세 개, 네 개. 온전하게 말판 거시기 다 나오려고 하면 모 네 개는 나와야 온전하게 이기는 거지요. 결국은 그거 다 나오면 이기는 거지.)

111058 @ 옷놀이에 얽힌 추억이 잇결랑 말해봅서. 옛날 저 녁동베기 해봅디강?(옷놀이에 얽힌 추억이 있거들랑 말해보십시오. 옛날 저 녁동내기 해봤습니까?)

111058 #2 녁동베기? 뭐 추억이여 무싱거 기억이 엇주게.(냁동내기? 뭐 추억이여 무엇 기억이 없지.)

111058 @ 거난 내기해근에.(그러니까 내기해서.)

111058 #1 하영 일어나지도 안 흐고.(많이 일어나지도 안 하고.)

111058 #2 경 좋아흐지도 안 흐고.(그렇게 좋아하지도 안 하고.)

111058 @ 구경만?(구경만?)

111058 #2 예게, 구경, 구경만 흐는 거주.(예게, 구경, 구경만 하는 거지.)

111058 #1 우리 큰아덜은 편쩍 흘 줄도 모르는데, 신 때. 작은아덜은 녁동베기 잘 흐여.(우리 큰아들은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있는 때. 작은아들은 녁동내



기 잘 해.)

### 팽이치기

111059 @ 팽이칠락 해봐수계양?(팽이치기 해봤습니까?)

111059 #1 팽이칠락이사 흐주게.(팽이치기야 하지요.)

111059 #2 팽이칠락도 안 해보고.(팽이치기도 안 해보고.)

111059 #1 난 지집아이도 팽이칠락 해났져.(난 계집아이도 팽이치기 했었어.)

111059 @ 계민 끝아줍서양. 거 팽이는 어떻 준비릅니까? 어떻 준비혀여.(그러면 말해주십시오. 거 팽이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해.)

111059 #1 팽이는 낭 흐영.(팽이는 나무 해서.)

111059 @ 무신 낭으로.(무슨 나무로.)

111059 #1 무신 낭산디, 아무 낭이나 동골락하게 흐영 멘들락하게 깍양 알은 쪼라들곡 위는 넓게 흐여근에 영 그릇 굿어근에, 저 낭계기 하나 흐영 친 돌아근에 저 팽이에 팽팽 몰양 껍 돌리민.(무슨 나무인지, 아무 나무나 동그랗게 해서 매끈하게 깎아서 아래는 줄아지고 위는 넓게 해서 이렇게 굵 그어서, 저 나뭇개비 하나 해서 끈 달아서 팽이에 팽팽 말아서 껍 돌리면.)

111059 @ 아니, 거난 팽이만 말흡서, 팽이만.(아니, 그러니까 팽이만 말하십시오. 팽이만.)

111059 #1 팽이만게. 낭흐영 멘들락하게 깍양 알은 쪼라지고 다해가는 건, 우원 벌어지고 흐여근에 뱅뱅 돌리민 팽이주게.(팽이만. 나무해서 매끈하게 아래는 줄아지고 다해가는 건, 위에는 벌어지고 해서 뱅뱅 돌리면 팽이지요.)

111060 @ 팽이 종류는?(팽이 종류는?)

111060 #1 종류는 그거주게. 하나막이주게, 팽이가 하나베끼, 두 가지라게? 경흐고 팽이 돌리는 거는 낭계기에 험벽 즐라메어근에 팽이 바우에 뱅뱅 감양 껍 둥그리민 뱅뱅뱅뱅 둥그는 게 팽이주게, 그거주게. 경 탁탁 두드리멍 돌곡.(종류는 그거지요. 하나뿐이지, 팽이가 하나밖에, 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팽이 돌리는 거는 나뭇개비에 형겅 잘라매어서 팽이 둘레에 뱅뱅 감아서 껍 굴리면 뱅뱅뱅뱅 둥그는 게 팽이지요, 그거지. 그렇게 탁탁 두드리면 돌고.)

111061 @ 팽이는 주로 어떤 낭으로 멩급니까?(팽이는 주로 어떤 나무로 만듭니까?)

111061 #1 아무 낭이나, 몰라. 무신 낭으로사 멘들암신디사.(아무 나무나, 몰라. 무슨 나무로야 만들고 있는지.)

111061 @ 돛박낭?(돛박나무?)

111061 #1 돛박낭사 멩글암신지, 팽이 말만 들엇주, 나 무사 알아집니까.(돛박나무야 만들고 있는지, 팽이 말만 들엇지, 나 왜 알아집니까.)

111061 @ 소낭은 안 웰 거라.(소나무는 안 될 거야.)

111061 #1 몰라.(몰라.)

111061 @ 소낭은 가운데가 구려부난.(소나무는 가운데가 구려 버리니까.)

111061 #1 소낭도 주루 하영 햇주. 돛박낭이 하영 해서게. 옷드르<sup>296</sup>) 돛박낭이 하노난.(소나무도 주로 많이 했지. 동백나무가 많이 했어요. ‘옷드르’는 동백나무가 많으니까.)

111061 @ 돛박낭이 췌주게. 이게 도장도 멩글고, 돛박낭.(동백나무가 세지요. 이게 도장도 만들고, 동백나무.)

111061 #2 잘 등금도 하고.(잘 등글기도 하고.)

111061 #1 코쟁이 잘 내우민 잘 등글주게.(끝이 뽀족한 것 잘 내면 잘 등글지요.)

111062 @ 팽이를 잘 돌게 하젠 하민 어떻 해야 흡니까?(팽이를 잘 돌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1062 #1 코쟁이 잘 내어근에 험벽으로 잘 두드려사, 뱅뱅 돌아가민. 또 죽어가민 꺾 두드리곡, 꺾 두드리곡 이레도 등글곡, 저레도 등글곡 경 하는 거주게.(끝이 뽀족한 것 잘 내어서 형겔으로 잘 두드려야, 뱅뱅 돌아가면. 또 죽어가면 꺾 두드리고, 꺾 두드리고 이리로도 등글고, 저리로도 등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111062 @ 그난 팽이 꺾대이를 뭐 중뫼으로 박아신가?(그러니까 팽이 끄트머리를 뭐 뫼으로 박았는가?)

111062 #1 아니, 아니. 낭께기로 쫄랑하게 멘들주게, 무싱겔로.(아니, 아니. 나뫼개비로 길쭉하게 만들지요, 무엇으로.)

111062 #2 그 낭으로 멩글암주게.(그 나무로 만들고 있지요.)

111062 #1 그 낭으로 코지나게. 경하민 운 벌어지고 알은 코지나민게, 험벽 막뎡이 요만이 혼 것에 험벽 들민게, 팽이 우의로 뱅뱅 돌아가게 감으민 꺾 하게 등그리민 뱅뱅뱅 돌 거 아니우짜? 들민 따시 막뎡이에 험벽 돌아멘 겔로 저레 등그렝 꺾 두드리곡, 이레 등그렝 꺾 두드리곡, 잘 두드리지 못하민 그것이 죽어불어, 경하민 팽이치기주게.(그 나무로 뽀족하게. 그러면 위에는 벌어지고 아래는 뽀족하면, 형겔 막대기 요만큼 한 것에 형겔 달면, 팽이 위로 뱅뱅 돌아가게 감으면 꺾 하게 굴리면 뱅뱅뱅 돌 거 아닙니까? 들면 다시 막대기에 형겔 달아멘 것으로 저리로 굴려서 꺾 두드리고, 이리로 굴려서 꺾 두드리고, 잘 두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죽어버려, 그러면 팽이치기지요.)

111063 @ 팽이채 어떻 준비흡니까?(팽이채 짝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63 #1 팽이채가 그거. 팽이채, 낭께기 요만이 혼 것에 험벽해다근에 낭께기.(팽이채 짝 그거. 팽이채 짝, 나뫼개비 요만큼 한 것에 형겔해다가 나뫼개비.)

111063 @ 험벽만 하여?(형겔만 해?)

111063 #1 험벽, 그 팽이채 두드리는 겔. 경 행 노끈, 노끈 모양으로 저 끈 것도 잇고, 아니 깡 아이덜. 아니 깡 건 폭삭폭삭하곡, 깡 건 노긱으로 영 뱅뱅 돌아진 노긱으로 즐라메민, 영 하영 꺾 등그리민 잘 등글어.(형겔 그 팽이채 짝 두드리는 것

296) ‘옷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을. 그렇게 해서 노끈, 노끈 모양으로 저 끈 것도 있고, 아니 끈 아이들. 아니 끈 건 폭신평신평하고, 끈 건 노끈으로 이렇게 뱅뱅 말아진 노끈으로 잘라매면, 이렇게 해서 팩 굴리면 잘 굴러.)

111063 @ 신사라로는 안 해봅디강?(뉴질랜드삼으로는 안 해봤습니까?)

111063 #1 신사라로는 안 해보고.(뉴질랜드삼으로는 안 해보고.)

111063 @ 아, 신사라 좋아, 그거.(아, 뉴질랜드삼 좋아, 그거.)

111063 #1 난 모르쿠다. 난 지집아이난 핑이치기 혼엇이 해수과? 신사라여 하간 거.(난 모르겠습니다. 난 계집아이니까 핑이치기 별로 했습니까? 뉴질랜드삼이여 이것저것.)

111063 @ 험벅으로 많이 흐는디, 신사라가 막 췌주게.(형겘으로 많이 하는데, 뉴질랜드삼이 아주 세지요.)

111063 #1 동넷아이덜 놀민 여자덜도 “나도 흐켜, 나도 흐켜.” 흐멍 해봤주 무신. 신사라 하간거 핑이치기 흘 만이 해봤수과?(동네아이들 놀면 여자들도 “나도 하겠어, 나도 하겠어.” 하면서 해봤지 무슨. 뉴질랜드삼 이것저것 할 만큼 해봤습니까?)

111063 @ 험벅으로양?(형겘으로요?)

111063 #1 험벅으로 해나서, 우리 흘 땐. 아이덜 흘 때 보난 험벅으로.(형겘으로 했었어, 우리 할 때는. 아이들 할 때 보니까 형겘으로.)

111064 @ 게난 핑이 싸움은 어떻 흡니까?(그러니까 핑이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111064 #1 핑이 싸움은게, 그 등글엉 저불민.(핑이 싸움은요, 그 등글어서 저버리면.)

111064 @ 핑이 두 개 해근에?(핑이 두 개 해서?)

111064 #1 예, 이레도 갖다가 저레도 갖다 흐민 때 맞지 못흔 거는 죽어부는 거 주게.(예, 이리로도 갔다가 저리로도 갔다 하면 때 맞지 못한 거는 죽어버리는 거지요.)

111064 @ 게난 핑이끼리도 부닥치게 흐고양?(그러니까 핑이끼리도 부닥치게 하고요?)

111064 #1 예, 부닥치주. 부닥치민 핑 하게 등글어 나곡, 핑 하게 등글어 나곡. 경흐민 그 친 든 걸로 강 이녁 거 탁 두드리민 저레 꽤르르르룩하게 등글어 가곡, 그러당 잘 두드리지 못헿 죽어불민 그건 진 거.(예, 부닥치지. 부닥치면 핑 하게 등글어 나가고, 핑 하게 등글어 나가곡. 그러면 그 끈 단 것으로 가서 이녁 거 탁 두드리면 저리로 꽤르르르룩하게 등글어 가고, 그러다가 잘 두드리지 못해서 죽어버리면 그건 진거.)

111064 @ 그난 핑이채 잘 두드려야 돼어, 잘 살게.(그러니까 핑이채찍 잘 두드려야 돼, 잘 살게.)

111064 #1 예, 잘 두드려야 돼어, 잘 살게. 뽕뽕 돌아가게.(예, 잘 두드려야 돼,

잘 살게. 뽕뽕 돌아가게.)

111064 @ 잘못 두드려도, 쟈게 두드려도 박아져불고.(잘못 두드려도, 쟈게 두드려도 박아져버리고.)

111064 #1 예, 당구장도 들어가불곡, 경 흐는 거. 계난 여자인 뽕이치기 혼엇이 해봤수과게? 지집아이난 그자 갓아흐난.(예, 당구장도 들어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니까 뽕이치기 별로 해봤습니까? 계집아이니까 그자 갓아하니까.)

111064 @ 남자삼춘은 암전흐게 큰 거 닻아. 뽕이치기도 안 해봤덴 흐고.(남자삼춘은 암전하게 큰 거 닻아, 뽕이치기도 안 해봤다고 하고.)

111064 #1 (웃음) 난 막 기냥 그자 스나이덜이영 흐교 땡기명 혼디 놀곡게.(웃음) 난 아주 그냥 그자 남자들이랑 학교 다니면서 함께 놀고.)

111064 #2 난 그추룩 흐 거 해보 질 안 해수다.(난 것처럼 한 거 해보 지를 안 했습니다.)

111064 #1 어릴 때라도게 밥 흐곡, 어멍, 아방네 물질 저 육지 줌수 동원해근에 배로 가불민, 그레 골명 밥행 누이덜 맥이곡, 기자 집의서 누물 트다당.(어릴 때라도 밥 하고, 어머니, 아버지네 물질 저 육지 줌수 동원해서 배로 가버리면, 땡돌 갈면서 밥해서 누이들 먹이고, 그자 집에서 나물 뜯어다가.)

111064 @ 계난 뽕이를 칠 시간이 엇엇구나.(그러니까 뽕이를 칠 시간이 없었구나.)

111064 #1 시간도 엇주게, 어느 겨를에. 성은 펠락펠락 땡기당 오랑 이것만 햄젠 더 드렌 흐곡, 누이동생덜은 세 개라노난 그것덜, 어린 것들 밥행 맥이곡. 어멍, 하르방은 저 거세기로 가곡, 할망은 배 동서영 가불곡 흐민, 육지 물질 가불민게 하르방<sup>297</sup>이 살림 살앗젠 흠디다. 난 큰딸로 나도 그 흐교 땡기곡게, 아이덜이영 잘 어울리난 흐는 거고, 하르방은 저루가 엇언 못했주게. 나도 저루 어십디다만은.(시간도 없지요, 어느 겨를에. 형은 펠락펠락 다니면서 와서 이것만 하고 있다고 더 달라고 하고, 누이동생들은 세 명이었으니까 그것들, 어린 것들 밥해서 먹이고, 어머니, 할아버지는 저 거세기로 가고, 할머니는 배 동서랑 가버리고 하면, 육지 물질 가버리면 ‘하르방’이 살림 살았다고 함디다. 난 큰딸로 나도 난 학교 다니고요, 아이들이랑 잘 어울리니까 하는 거고, ‘하르방’은 겨를이 없어서 못했지요. 나도 겨를 없었습니다만은.)

111064 @ 경 생각흐는 게 좋을 거 닻수다. (웃음) 대부분 남자들은 뽕이치기를 했주게.(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 닻습니다.(웃음) 대부분 남자들은 뽕이치기를 했지요.)

111064 #1 한문만, 웨하르방이 큰 한문 서당이난 성제가 그자 한문 서당에만 땡기명 한문 막 잘 압니다, 이제 경. 경흐민 바당에 오다근에 간세흐영, 하르방 그르치는 거 간세흐영 오랑 그메기 잡아근에 구제기흐고 숲안 먹곡 했젠 흠디다. 우리 웨하르방이 큰 훈장 스서장이난 웨하르방신디만 글 흐레 땡기명.(한문만, 외할아버

297)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뜻한다.

지가 큰 한문 서당이니까 형제가 그저 한문 서당에만 다니면서 한문 아주 잘 압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면 바다에 오다가 게으름을 피워서, 할아버지 가르치는 게 게으름을 피워서 와서 남방울타리고등 잡아서 소라하고 삶아서 먹고 했다고 합디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큰 훈장 사서장이니까 외할아버지에게만 글 하러 다니면서.)

111065 @ 뽕이치기에 얽힌 추억 흔 번 곱아줍서.(뽕이치기에 얽힌 추억 한 번 말해주십시오.)

111065 #1 뽕이치긴게, 지집아가가 흔엇이 뽕이치기 해수과게? 흐뽀 흐난 싸완게 그싸 그추룩 흐영 말 안 곧곡, 그거뿐이주. 지집아가가 뽕이치기 흔엇이 흡니까? 늡 흔덴 흐난 스나이영 흔디 흐여보젠 흔 거주. 건 지집아이광 지집아이 스이에 흐주. 스나이광 흔디 흐지 안 흐여, 뽕이치기.(뽕이치기呢요, 계집아가가 별로 뽕이치기 했습니까? 조금 하니까 싸워서 아까 것처럼 해서 말 안 하고, 그거뿐이지. 계집아가가 뽕이치기 별로 합니까? 남 한다고 하니까 남자랑 함께 해보려고 한 거지. 건 계집아이와 계집아이 사이에 하지. 남지와 함께 하지 안 해, 뽕이치기.)

111065 @ 거난 그것도 추억이주게.(그러니까 그것도 추억이지요.)

111065 #1 추억이주게, 그거주게. 이제 생각흐민 추억, 그뻐 심상케 해도.(추억이지요, 그거지. 이제 생각하면 추억, 그뻐 심상하게 해도.)

111065 @ 계난 뽕이치긴 주로 남자덜이 흐는 거 아니우파?(그러니까 뽕이치기는 주로 남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111065 #1 남자가 흐는 거주게. 여자덜은 흑교 땡기곡 그자 경 흐난 흔디 어울리난 흐는 거주게. 일 흐당 보민, 물 질영 가당 물구덕<sup>298</sup>) 부러뵐 흐곡, 대배기<sup>299</sup>) 경 가당 물구덕 질레에 부러뵐 내불어뵐 뽕이치기 흐곡, 방칠락 흐곡 해수게.(남자가 하는 거지요. 여자들은 학교 다니고 그저 그렇게 하니까 함께 어울리니까 하는 거지요. 일 하다가 보면, 물 길어서 가다가 ‘물구덕’ 부러뵐서 하고, ‘대배기’ 저서 가다가 ‘물구덕’ 길에 부러뵐서 내버러뵐서 뽕이치기 하고, 사망치기 하고 했습디다.)

## 굴렁쇠

111066 @ 굴렁쇠 해봣디강? 이거 영. 동굴락흔 쇠 흐영 굴리는 거.(굴렁쇠 해봣 습니까? 이거 이렇게. 동그란 쇠 해서 굴리는 거.)

111066 #1 그건 해낫주. 것ㄴ라 뵐이엔 흔다만은.(그건 했었지. 짓더러 뵐라고 한다만은.)

111066 @ 굴렁쇠.(굴렁쇠.)

111066 #1 아니, 일름이 와동구릴락. 와 동구리는 거, 옛날에는 와동구릴락.(아니, 이름이 바퀴굴리기, 바퀴 굴리는 거, 옛날에는 바퀴굴리기.)

111066 @ 와동구릴락? 경 흐영 굴렁쇠가 와동구릴락?(바퀴굴리기? 그렇게 해서

298) ‘물구덕’은 물동이를 넣고 저 다니게 된 대로 만든 조금 큰 바구니이다.

299) ‘대배기’는 모양이 둥그스름하여서 가운데 배는 볼록하고 위아래는 좁아지되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게 된, 물을 길어 나르는 작은 동이다.

굴렁쇠가 ‘와동구릴락’?)

111066 #1 옛날에 우리 할 때는 와동구릴락. 학교 운동할 때도 그거 일등, 이등 해놔수다게.(옛날에 우리 할 때는 바퀴굴리기. 학교 운동할 때도 그거 일등, 이등 했었습니다.)

111066 @ 와동구릴락, 그거 어떻 준비릅니까? 와는.(바퀴굴리기, 그거 어떻게 준비릅니까? 바퀴는.)

111066 #1 와는 대막뎡이, 이 손 심는 건. 대막뎡이 흐여근에 하리가네 영 오그린 것이 있어. 오그려근에 꼭 꿰여근에 그 와 멘든 걸로.(바퀴는 대막대기, 이 손 잡는 건. 대막대기 해서 철사로 이렇게 오그린 것이 있어. 오그려서 꼭 꿰어서 그 바퀴 만든 것으로.)

111066 @ 이건 어떻 멩글아, 와는, 굴렁쇠.(이건 어떻게 만들어, 바퀴는, 굴렁쇠.)

111066 #1 동글락흔 건 쉼로, 쉼로 독진 하리가네, 독진 걸로. 독진 걸 동골락흔 게 멘듭니다게.(동그란 건 쇠로, 쇠로 굽직한 철사, 굽직한 것으로, 굽직한 것을 동그랗게 만듭니다.)

111066 @ 요즘 몇 년 전에는 자전거 그 쉼로 허더라고.(요즘 몇 년 전에는 자전거 그 쇠로 하더라고.)

111066 #1 예, 경흐디 이제는. 옛날엔 그 하리가네 독진 거. 독진 걸로 멘들락흔 걸로 흐여근에 동골락흔게 영 행 좇주. 경흐민 대막뎡이에 그 오골랑흔 하리가네 디물민 그 저 와레 똑 꿰민 조루루루 하게 드르민 그것이 줄줄줄 등글 거 아니우파게? 게민 조창 흐디 등글리는 거 아니우파게? 이제도 노인덜 저 무신 대 운동 때 가민 노인덜 나오랑 그거 흐렌 합니다, 이제도.(예,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는 그 철사 굽직한 거. 굽직한 것으로 매끈한 것으로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쪼지. 그러면 대막대기에 그 오그라진 철사 집어넣으면 그 저 바퀴로 꿰면 조루루루루 하게 달리면 그것이 줄줄줄 등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좇아서 함께 굴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도 저 무슨 대 운동 때 가민 노인들 나와서 그거 하라고 합니다, 이제도.)

111067 @ 그거 굴렁댄디, 그건 어떻 준비릅니까?(그거 굴렁대인데, 그건 어떻게 준비릅니까?)

111067 #1 그건 게메게, 대는 왕대, 족대영 족앗수과? 대 끈어당 요만이 조룩흐여근에, 오그린 쉼흐여근에 똑 이레 박아근에게.(그건 그럼요, 덴느 왕대, 이대랑 적습니까? 대 끊어다가 요만큼 자루해서 오그린 쇠해서 똑 이리로 박아서.)

111067 @ 그 대에 오그린 쉼을 박아?(그 대에 오그린 쇠를 박아?)

111067 #1 박아, 박아근에. 그 와레게 주르르륵하게, 줄줄줄줄 가게 동그립주게, 경 흐 거. 이것이 와 아니파?(박아, 박아서. 그 바퀴로 주르르륵하게, 줄줄줄줄 가게 굴리지요, 그렇게 한 거. 이것이 바퀴 아닙니까?)

111067 @ 왕대로 해야 돼겟네양.(왕대로 해야 되겠네요.)

111067 #1 아니, 족대도 좋아, 아무 거라도. 대민 웨어, 족대가 주장합니다.(아

니, 이대도 좋아, 아무 거라도. 대면 돼, 이대가 주장합니다.)

111067 @ 족대가 그 구멍에 담으면 돼겠구나.(이대가 그 구멍에 담으면 되겠구나.)

111067 #1 담곡, 족대도 그 독진 족대 족어나수과? 옛날에사게. 그집주게, 우린. 학교 운동 때도 그거 하여근에 일등, 이등하여근에 상 타곡 흡니께. 공책, 연필하곡게.(담고, 이대도 그 굵직한 이대 적었습니까? 옛날에야. 그거지요, 우린. 학교 운동 때도 그거 해서 일등, 이등해서 상 타고 합니다. 공책, 연필하고요.)

111067 @ 운동회 때?(운동회 때?)

111067 #1 운동회 때, 그 와동구틸락 하여.(운동회 때, 그 바퀴굴리기 해서.)

111067 @ 거 막 오래 돼었구나.(거 아주 오래 되었구나.)

111067 #1 예게, 거 옛날부터 와동구틸락은 잇엇수다. 이제는 그 이제도 경 햄주, 와동구틸락.(예게, 거 옛날부터 바퀴굴리기는 잇엇습니다. 이제는 그 이제도 그렇게 하고 있지, 바퀴굴리기.)

111067 @ 이제 보난 그 자전거 바퀴로 하더라, 바퀴로.(이제 보니까 그 자전거 바퀴로 하더라, 바퀴로.)

111067 #1 예, 바퀴로 흡디다.(예, 바퀴로 합디다.)

111067 @ 바퀴로 하여근에 그 흡 난 거니까, 그디 낭 영 해근에.(바퀴로 해서 그 흡 난 거니까, 거기 마무 이렇게 해서.)

111067 #1 예, 이제는 완전 좋게만 햄수게. 옛날엔 엇이난 경 했주. 옛날엔 자전거 경 셋수과? 어디. 우리 아버지는 도청에도 자전거 하여 넙은팡<sup>300</sup>)으로 자전거 탄 덩겅젠 흡디다, 근무 덩길 때에. 생수<sup>301</sup>)로 하여 자전거 탕 덩겅덴 흡디다만은. 도청에 근무 갈 때, 도둑놈도 하여 만나나고.(예, 이제는 완전 좋게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 옛날에는 자전거 그렇게 잇엇습니까? 어디. 우리 아버지는 도청에도 자전거 해서 ‘넙은팡’으로 자전거 타서 다녔다고 합디다, 근무 다닐 때에. ‘생수’로 해서 자전거 타서 다녔다고 합디다만은. 도청에 근무 갈 때, 도둑놈도 많이 만나나고.)

111068 @ 게민 굴렁쇄에 대한 추억 잇으면.(그러면 굴렁쇄에 대한 추억 잇으면.)

111068 #1 추억은 그거 무신 추억 다르고, 이제난 추억이 남아 잇주. 그땐 심상케 하여 소리난.(추억은 그거 무슨 추억 다르고, 이제니까 추억이 남아 잇지. 그때는 심상하게 하던 소리니까.)

111068 @ 게난 그때, 지금 생각허민 추억이주게.(그러니까 그때,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지요.)

111068 #1 예, 추억입주게, 이제는. 쟁점부시 행 쫄려근에 하곡 일등, 이등 하곡, 운동회 가민 선생덜 행 거 일등, 이등 들음박질 모양으로 하민 삼등<sup>7</sup>진 상주곡게,

300) ‘넙은팡’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지역명이다.

301) ‘생수’는 서귀포시 생달동에 있는 천(川) 이름이다.

나머진 못 주꼭게. 깍으로 둥그리민, 다섯이 둥으리민게, 다섯 사람이 드르민게. 난 어릴 때 들음박질호영 선수도 나가고 헤낫수다.(예, 추억이지요, 이제는. 가위바위보 해서 가려서 하고 일등, 이등하고, 운동회 가면 선생들 해서 거 일등, 이등 달리기 모양으로 하면 삼등까지는 상주고. 나머지는 못 주고. 끝으로 굴리면, 다섯이 굴리면, 다섯 사람이 달리면. 난 어릴 때 달리기해서 선수도 나가고 했었습니다.)

## 12. 통과이레

### 출생

112001 @ 오늘은양, 통과이레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오늘은요, 통과이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2001 #1 통과이레가 뭐라.(통과이레가 뭐야.)

112001 @ 통과이레면은 우선 그 출생, 출생에 대해서 우선 물어보쿠다.(통과이레면 우선 그 출생, 중생에 대해서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112001 #1 어느 때 난 거.(어느 때 난 거.)

112001 @ 아니, 계난에 질문에만 대답흡서양. 예, 태교는 어떻게 흡니까?(아니, 그러니까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예, 태교는 어떻게 흡니까?)

112001 #1 폐교?(폐교?)

112001 @ 태교, 태교.(태교, 태교.)

112001 #1 아기태, 아기태는 아기 나면은 아기가 먼저 나오거든, 아기가 먼저 나오민 태는 말째 나와. 그것이 아기 배포롱줄이 방석에 돌아져. 그것이 돌아지민 그거 나오질 못흐민 애기 어머님이 죽는 거라, 그거 태 나오지 안 흐민. 계민 그거 나오민 이젠 배포롱줄을 그치거든, 태하고 그 배포롱줄호고 연결해진 거를 2세로 굿아근에 그 태는 저 무슨 것에 싸근에 바닷물드레 던지나, 경 아니민 혼 멧칠 후에 되뒀당 옛날엔 스나 경 헛주게. 건 경 흐는 거.(아기태, 아기태는 아기 낳으면 아기가 먼저 나오거든, 아기가 먼저 나오면 태는 말째 나와. 그것이 아기 탯줄이 방석에 매달려. 그것이 매달리면 그거 나오질 못하면 애기 어머니가 죽는 거야, 그거 태 나오지 안 하면. 그러면 그거 나오면 이젠 탯줄을 끊거든, 태하고 그 탯줄하고 연결해진 것을 가위로 잘라 베서 그 태는 저 무슨 것에 싸서 바닷물로 던지거나, 그렇게 아니면 한 며칠 후에 되뒀다가 옛날에는 사르나 그렇게 했지요. 건 그렇게 하는 거.)

112002 @ 그다음에양, 출산 준비는 어떻게 흡니까?(그다음에는요, 출산 준비는 어떻게 흡니까?)

112002 #1 출산 준비는 아기 어머님이 배 아팡 해가민게, 보리낭 길꼭 호영 방에 서게 চল리는 거주게.(출산 준비는 아기 어머니가 배 아파서 해가면, 보릿짚 깔고 해서 차리는 거지요.)



112002 @ 아, 거난예 멧칠 전에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우꽈?(아, 그러니까 멧칠 전에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112002 #1 아니, 그거는 사름에 가는 거. 그날 아파근에 그날 곧 나는 사름, 혼삼일 전의부떠 베 아팜 막 흥는 사름, 게난 건 사름에 달려잇는 거고. 경흥민 애기 날 땐 고통이 되는 거주게.(아니, 그거는 사름에 가는 거. 그날 아파서 그날 곧 나는 사름, 한 삼일 전에부터 베 아파서 아주 하는 사름, 그러니까 건 사름에 달려잇는 거고. 그러면 애기 날 때는 고통이 되는 거지요.)

112002 @ 어디서 출산릅니까?(어디서 출산릅니까?)

112002 #1 아니, 옛날엔 집의 구들에 보리낭 짚앙, 집의서, 옛날엔. 이제는 병원에 다 감주만은 옛날엔 방에 저 보리낭을 짚아, 그 피 따문. 피 나오카부덴 보리낭 깎는 거주. 보리낭 우의 애기 떨어져. 게민 아기 받는 할망이 아기 받아근에 저 쌍 녹저뒤근에, 아기 어멍 젓 흥여똥 녹저뒤근에, 이젠 그 보리낭을 걷어근에 바깥으로 내쳐볼주게.(아니, 옛날에는 집에 방에 보릿짚 깔아서, 집에서, 옛날에는. 이제는 병원에 다 가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방에 저 보릿짚을 깔아, 그 피 때문. 피 나올까 보아서 보릿짚 까는 거지. 보릿짚 위에 애기 떨어져. 그러면 아기 받는 할머니가 아기 받아서 저 싸서 눕혀뒤서, 아기 어머니 젓 해뒤서 눕혀뒤서, 이젠 그 보릿짚을 걷어서 바깥으로 내쳐버리지.)

112002 @ 질레서 나는 사름도 잇지양?(길에서 낳는 사름도 잇지요?)

112002 #1 게, 질레서 나는 사름이 잇주.(그럼, 길에서 낳는 사름이 잇지.)

112002 #2 질레 걸어가다근에.(길에 걸어가다가.)

112002 #1 질레 걸어가당 나는 사름, 감저 싱그레 가당 나는 사름, 베에서 나는 사름, 차에서 나는 사름, 그거는 혼이 엇는 거고, 그건 사름에 달려잇는 거.(길에 걸어가다가 낳는 사름, 고구마 심으러 가다가 낳는 사름, 베에서 낳는 사름, 차에서 낳는 사름, 그거는 때가 없는 거고, 그건 사름에 달려잇는 거.)

112002 @ 밧디 강도 나고양.(밭에 가서도 낳고요.)

112002 #1 베에서 나민 베에서 막 상 쥐, 애기 나민, 아덜 나민 더, 그놈의 아덜.(베에서 낳으면 베에서 마구 상 쥐, 애기 낳으면, 아들 낳으면 더, 그놈의 아들.)

112003 @ 테흥고 텃줄은 어멍 처리릅니까?(태하고 텃줄은 어떻게 처리릅니까?)

112003 #1 텃줄. 아까추룩 텃줄흥고, 베또롱줄흥고 연결이 웨어 잇거든, 그 애기가 먼저 나오민 그 텃줄을 ㄱ짜 붙영 나오지 안 흥영, 그것이 못 나오민 연결이 못 흥영 못 나근에 스못 못 나근에 아기 어멍 못 전더 가민 저 베또롱줄 확 그차불민 우트레 올라오랑 아기 어멍이 죽고 흥는 거주게. 경 흥영 ㄱ짜 붙영 나와야 웨어.(텃줄. 아까처럼 텃줄하고, 텃줄하고 연결이 웨어 잇거든, 그 아기가 먼저 나오면 그 텃줄을 같이 붙어서 나오지 안 해서, 그것이 못 나오면 연결이 못해서 못 낳아서 사못 못 낳아서 아기 어머니 못 견더 가면 저 텃줄 확 끊어버리면 위로 올라와서 아기 어머니가 죽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같이 붙어서 나와야 돼.)

112003 @ 게난 어디 강 던져?(그러니까 어디 가서 던져?)

112003 #1 그건 그 시간에 바닷물드레 던지는 사름 잇곡, 혼 삼일 아기 어멍 몸  
곱질 때 ㄴ찌 몸 곱을 때 싸근에 어디 강 저 고운드레 강 데껴부는 사름, 술아부는  
사름도 잇곡, 경 홉니다.(그건 그 시간에 바닷물로 던지는 사람 있고, 한 삼일 아기  
어머니 몸 감길 때 같이 몸 감을 때 싸서 어디 가서 고운 곳으로 가서 던져버리는  
사람, 사라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112004 @ 산모 음식은 어떤 것덜이 잇수과? 산모 음식.(산모 음식은 어떤 것들  
이 있습니까? 산모 음식.)

112004 #1 음식은 옛날에 모멸ㄴ루 햅여근에 미역 농곡, 제베기 점, 죽 좀 해서  
멕이는 거, 혼 삼일.(음식은 옛날에 메밀가루 해서 미역 넣고, 수제비 점, 죽 겸 해  
서 먹이는 거, 한 삼일.)

112004 @ 모멸ㄴ루?(메밀가루?)

112004 #1 모멸ㄴ루, 생모멸ㄴ루 곧 나민 피 삭으렌. 생모멸ㄴ루를 물에 카근에  
흔 사발 멕이곡, 경 아니민 미역 농곡 햅영, 그걸 죽제베기 ㄴ찌 햅영 혼 삼일을 멕  
이주게, 미역 낱, 모멸ㄴ루 피 삭으렌. 제주도는 모멸쌀만 잇는 디난, 모멸 그것벳기  
안 햅 줘. 삼일 돼면은 따시 고기국 끌리곡 사발에 곤밥 햅여근에 저 아기밥 햅 먹  
곡, 삼일 돼민. 아기 낱 삼일 돼민 밥햅 먹곡, 아기 어멍 몸 곱지곡, 아기 몸 곱지  
곡.(메밀가루, 날메밀가루 곧 나민 피 삭이라고. 날메밀가루 물에 타서 하 s 사발  
멕이고, 그렇게 아니면 미역 넣고 해서, 그것을 죽수제비 같이 해서 한 삼일을 멕이  
지, 미역 넣어서, 메밀가루 피 삭이라고. 제주도는 메밀쌀만 잇는 데니까, 메밀 그것  
밖에 안 해서 줘. 삼일 돼면은 다시 고기국 끓이고 사발에 흰밥 해서 저 아기밥 해  
서 먹고, 삼일 돼면. 아기 낱아서 삼일 돼면 밥해서 먹고, 아기 어머니 몸 감기고,  
아기 몸 감기고.)

112005 @ 계난 아기 목욕은 언제 홉니까?(그러니까 아기 목욕은 언제 합니까?)

112005 #1 아기 곧 난 때 목욕햅곡, 아기 어멍 홉 때 햅곡, 아기 목욕은 맨날  
시켜야지게.(아기 곧 낱은 때 목욕하고, 아기 어머니 할 때 하고, 아기 목욕은 맨날  
시켜야지요.)

112005 @ 곧 난 때부터?(곧 낱은 때부터?)

112005 #1 곧 난 때부터. 박박 밀명 등뎡이 두루 밀영 내불민 옥으민 ㄴ릅텐 햅  
명 곱어드렷 햅곡. 계난 배내웃 입지는 건 베웃. 베, 베적삼 입지는 거, 먼저. 곧 난  
때.(곧 낱은 때부터. 박박 밀면서 등뎡기 덜 밀어서 내버리면 성장하면 가렵다고 하  
면서 곱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배내웃 입히는 건 베웃. 베, 베적삼 입히는 거, 먼  
저. 곧 낱은 때.)

112005 @ 계난 그 물은 어멍 햅여근에?(그러니까 그 물은 어떻게 해서?)

112005 #1 물 데와근에 멘도롱햅게, 여름에는.(물 데워서 따듯하게, 여름에는.)

112005 @ 뒷에 답아근에.(뒷에 답아서.)

112005 #1 아니, 다라에 퍼다 ㄴ근에 애기 몸 곱젓주게, 고무 다라. 이제는 하간  
목욕통 잇고, 애기 목욕통도 잇고. 옛날엔 장태<sup>302</sup>에도 곱지곡 벨 걸 다 햅주게, 옛

날에사.(아니, 대야에 퍼다 넣어서 애기 몸 감겼지요, 고무 대야. 이제는 여러 가지 목욕통 있고, 아기 목욕통도 있고. 옛날에는 장태에도 감기고 별 것을 다 했지요, 옛날에야.)

112006 @ 깃저고리 잇지 안흐으파?(깃저고리 잇지 않습니까?)

112006 #1 깃저고리는 헤양흐고.(깃저고리는 하양고.)

112006 @ 그거에 대흐영 말해줍서.(그거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12006 #1 그건 베옷 삼일 뒤텁 베옷 베끼민 그 흰 저고리를 입져, 애기를. 베옷이엔 흐여근에 애기, 물애기 이제 골롬 들곡 흐여근에 영 흐영 그것만 입지는 거주게, 그것이 아기 옷.(그건 베옷 삼일 되어서 베옷 벗기면 그 흰 저고리를 입혀, 아기를. 베옷이라고 해서 아기, 갓난아기 이제 고름 달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만 입히는 거지요. 그것이 기 옷.)

112007 @ 할망상<sup>303</sup> 놓지양? 할망상에 대흐영 말해줍서.(‘할망상’ 놓지요? ‘할망상’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12007 #1 할망상은 애기가 아프나 어떻 해서 할망상 놓는 거주게. 메 세 개 거려놓곡 흐여근에 찬물 떠놓고, 아기 아파시메 고완해줍서 흐여근에 비는 거주게, 심방 돌아당, 그거 할망상.(‘할망상’은 애기가 아프나 어떻게 해서 ‘할망상’ 놓는 거지요. 메 세 개 떠놓고 해서 찬물 떠놓고, 아기 아팠으니 치료해주십시오 해서 비는 거지, 무당 데려다가, 그거 ‘할망상’.)

112007 @ 어디, 집의서 흡니까?(어디, 집에서 합니까?)

112007 #1 집의서게. 할망상 놓당보민 병원에도 안 가곡 죽어불어, 옛날엔. 아파근에 심방 해당 할망상 놓당보민 애기 문탁 죽어불엇주게. 병원에도 갈 디도 엇고.(집에서요. ‘할망상’ 놓다가보면 병원에도 안 가고 죽어버려, 옛날에는. 아파서 무당해다가 ‘할망상’ 놓다가보면 아기 모두 죽어버렸지요. 병원에도 갈 데도 없고.)

112007 @ 심방 데려다근에?(무당 데려다가?)

112007 #1 예, 심방덜 데려당.(예, 무당들 데려다가.)

112007 @ 거 흐 번 자세히 곴아줍서.(거 한 번 자세히 말해주십시오.)

112007 #1 심방게, 아기 나면은 감기 걸리나 아프지 안흡니까? 물애기가 아프민 심방 돌아당 아기, 할망 아기 좋게해줍서 흐영 비는 거주게, 경 빌어. 경 흐난 옛날엔 할망상만 놓당보민 애기 으답 개 나도 두 개 사나마나, 문탁 죽어불고.(무당요, 아기 낳으면 감기 걸리나 아프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아프면 무당 데려다가 아기, 할머니 아기 좋게 해주십시오 해서 비는 거지, 그렇게 빌어.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할망상’만 놓다가보면 아기 여덟 개 낳아도 두 개 사나마나, 모두 죽어버리고.)

112008 @ 배넛머리는 어떻게 흡니까? 배넛머리.(배넛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넛머리.)

302) ‘장태’는 양푼 모양으로 하되 그보다 크게 만든 질그릇이다.

303) ‘할망상’은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고 기원하는 뜻으로 메와 실·돈 따위를 놓고 방구석이나 벽 위에 두는 상이다.

112008 #1 배냇머리? 배냇머리가 뭐라.(배냇머리? 배냇머리가 뭐라.)

112008 @ 배냇머리.(배냇머리.)

112008 #1 배냇머리는 삼일 웨영 아기 어멍 머리 감지는 거. 저 거시기 물 흐영 잘락잘락 머리빡 데영.(배냇머리는 삼일 되어서 아기 어머니 머리 감기는 거. 저 거시기 물 해서 잘락잘락 머리빡 대어서.)

112008 @ 누게가 그 흐여?(누구가 그 해?)

112008 #1 건 씨어멍이 허던지, 씨어멍이 엇이민 아무라도 해야지, 아무라도, 아무도 엇이민. 물 데왕 잘락잘락 머리 감곡, 이 우트레 잘락잘락 젓으로, 이 젓으로 물 잘잘 잘 느려사 젓 한텡 흐곡, 경 씨어멍이나 누게 목욕해 줄 사름 엇이민.(건 시어머니가 하든지, 시어머니가 없으면 아무라도 해야지, 아무라도, 아무도 없으면. 물 데워서 잘락잘락 머리 감고, 이 위로 잘락잘락 젓으로, 이 젓으로 물 잘잘 내려야 젓 많다고 하고, 그렇게 시어머니나 누구 목욕해 줄 사람 없으면.)

112008 @ 언제 흐여 그건?(언제 해 그건?)

112008 #1 건 삼일 웨민.(건 삼일 되면.)

112008 @ 삼일?(삼일?)

112008 #1 예, 딱 아기 낳는 날로 삼일.(예, 딱 아기 낳는 날로 삼일.)

112008 @ 거난 씨어멍이 감져?(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감겨?)

112008 #1 씨어멍 신 사름덜은 허곡, 엇이민 이녁냥으로 해야 웨어. 아무도 엇이민 어멍 흐여.(시어머니 있는 사람들은 하고, 없으면 이녁대로 해야 돼.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

112008 @ 친정어멍은 안 흐여?(친정어머니는 안 해?)

112008 #1 친정어멍 잇인 사름은 흐곡, 엇인 사름은 흘 수 엇주게. 경흐난 아기 저 머리, 몸 감지는 거, 그거. 일름이 아기 어멍 머리, 몸 감져사 흘 걸, 속으로 흐영 상까지 넣곡, 속 숲양.(친정어머니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아기 저 머리, 몸 감기는 거, 그거. 이름이 아기 어머니 머리, 몸 감겨야 할 걸, 속으로 해서 향 넣어서 넣고, 속 삶아서.)

112008 @ 속?(속?)

112008 #1 속. 속 숲아근에 그걸로 박박 밀멍 머리도 작작 두드리멍 흐영 머리로.(속. 속 삶아서 그것으로 박박 밀면서 머리도 작작 두드리면서 해서 머리로.)

112008 @ 무사 속으로 햇수과?(왜 속으로 했습니까?)

112008 #1 속은게, 그 좋은 거난게, 쿠시룽흐곡게. 속으로 아기 어멍 경 안 슬아분텡 흐영 막 슬아근에 아프곡, 잘 안 흐면은. 속 두텃게 이레 낳 낄앙 앓으렌 흐여, 아기 난 어멍을. 남자덜은 그걸 몰라.(속은요, 그 좋은 거니까, 구수하고. 속으로 아기 어머니 그렇게 안 사려버린다고 해서 마구 사려서 아프고, 잘 안 하면은. 속 두텃게 이리로 놓아서 깔아서 앓으라고 해, 아기 낳은 어머니를. 남자들은 그것을 몰라.)

112009 @ 이 마누라 잇지 안흐으파? 마누라허고 흥역 예방, 어떻게 흡니까?(이

마누라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하고 홍역 예방 어떻게 합니까?)

112009 #1 마누라엔 혼 것이 홍역이주게. 홍역은게, 그 할망이 그 마누라할 망<sup>304</sup>이 완전 큰 할망이주게. 송흐곡 무싱거엔 길앗당 뽀족뽀족 막 뒤 나근에, 비 리ㄴ찌 막 나주게. 경 흐영 혼 사흘 돼어 가민 뽀족뽀족 아파근에 눈부떠 별정흐여 애기가. 경 행 눈부떠 헛당 몸에 과짜 나주게. 그거 들어가지 못흐민 안트레 들어 성 아기가 죽는 거, 그거 안트레 들어세왕.(천연두라고 한 것이 홍역이지요. 홍역은 요, 그 할머니가 그 ‘마누라할망’이 완전 큰 할머니지요. 흥하고 무엇이라고 말했다 가 뽀족뽀족 마구 뒤 나서, 움같이 마구 나지요. 그렇게 해서 한 사흘 되어 가면 뽀 족뽀족 아파서 눈부터 벌거 아기가. 그렇게 해서 눈부터 했다가 몸에 곧게 나지요. 그거 들어가지 못하면 안으로 들어서서 아기가 죽는 거, 그거 안으로 들어서서.)

112009 @ 거 어떻 예방합니까?(거 어떻게 예방합니까?)

112009 #1 예방은 어떻 흐여, 그때는. 그 놔두민 거 들어가곡, 무신 병원이 잇이 카. 이젠 예방접종 해부난 그런 거 엇주만은, 행 놔두민 홍역 행 죽는 애기가 하. (예방은 어떻게 해, 그때는. 그 놔두면 거 들어가고, 무슨 병원이 있을까. 이젠 예방 접종 해버리니까 그런 거 없지만은, 해서 놔두면 홍역 해서 죽는 애기가 많아.)

112009 @ 할망상, 그런 건 안 놓고?('할망상', 그런 건 안 놓고?)

112009 #1 드리 빌어 봐도 소용이 엇어. 할망상도 놓주게. 삼일 전의 할망상 놓 으민 내내 욱도록 놓은덴 흐명 잘 아니 놓젠 흐주게, 버릇난덴 흐명. 병원 엇고게, 경흐민 안트레 들어세민 애기가 죽는 거고, 홍역 흐당. 경흐고 이것이 훤은 거는 그 홍역 해나민 그 이제 본치 지는 사람은 큰 홍역, 경 흐영 얼굴 곰보웤 건. 경 흐영 그때 잘 안 해불민 아기덜 지침흐곡, 막 폐병 걸려볼곡, 그추록 흐주게, 홍역할 때 잘 안 행. 싸주곡 방안에서 살아사 흐곡, 브름 췌우지 말아사 흐곡.(계속 빌어 보아 도 소용이 없어. ‘할망상’도 놓지요. 삼일 전에 ‘할망상’ 놓으면 내내 성장하도록 놓 는다고 하면서 잘 아니 놓으려고 하지, 버릇난다고 하면서. 병원 없고요, 그러면 안 으로 들어서면 아기가 죽는 거고, 홍역 하다가. 그리고 이것이 굵은 거는 그 홍역 해나면 그 이제 흔적 있는 사람은 큰 홍역, 그렇게 해서 얼굴 곰보된 건. 그렇게 해 서 그때 잘 안 해버리면 아기들 기침하고, 마구 폐병 걸려버리고, 그처럼 하지요, 홍역할 때 잘 안 해서. 싸주고 방안에서 살아야 하고, 바람 쏘이지 말아야 하고.)

112010 @ 그다음에 출산과 관련하여 금기 사항 있지 안흐으과양? 그다음에 출 산과 관련하여 금기 사항 있지 않습니까?)

112010 #1 출산?(출산?)

112010 @ 예, 아기 낳젠 흐민 그 금기 사항.(예, 아기 낳으려고 하면 그 금기 사항.)

112010 #1 금기 무싱거.(금기 무엇.)

112010 @ 금기 뭐 무슨거.(금기 뭐 무엇.)

112010 #1 아기 낳을 때사 그냥 뎅기당 베 아파가민 애기 낳는 거난.(아기 낳을

304) ‘마누라할망’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천연두를 앓게 한다는 여신이다.

때야 그냥 다니다가 배 아파가면 아기 낳는 거니까.)

112010 @ 아니, 금기하는 거 있지 안하오빠?(아니, 금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12010 #1 금기 있어. 무신 금기가 이십니까. 아기사 아기 배민 기냥 땡기당 어느 때 낳지 몰랑 질레서라도 배 아팠 해가민 문들락 낳는 사름도 싯곡, 집의 강 낳는 사름도 싯고.(금기 없어. 무슨 금기가 있습니까. 아기야 아기 배면 그냥 다니다가 어느 때 낳을지 몰라서 길에서라도 배 아파서 해가면 문들락 낳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서 낳는 사람도 있고.)

112010 @ 아침 새벽에 땡기지 말라 뭐 그런 거.(아침 새벽에 다니지 말라 뭐 그런 거.)

112010 #1 아니, 그건 정월대보름 날, 정월 초하루하고 대보름 날 어디 가지 말라 하는 거. 새벽의 땡기당 액막이 맞지 말고.(아니, 그건 정월대보름 날, 정월 초하루하고 대보름 날 어디 가지 말라 하는 거. 새벽에 다니다가 액막이 맞지 말고.)

112010 @ 어디 뭐 영장 칩의 가지 말라.(어디 뭐 영장 집에 가지 말라.)

112010 #1 영장 칩의도 가지 않지. 아기 벤 사름은 잘 가지 않지. 가지 말랭도 하곡.(영장 칩에도 가지 않지. 아기 벤 사름은 잘 가지 않지. 가지 말라고도 하고.)

112010 @ 그난 그런 금기 사항.(그러니까 그런 금기 사항.)

112010 #1 그것이 금기주게, 그거. 아기 어멍 금기하는 무싱거, 어느 저를에 금기랑 마랑.(그것이 금기지요, 그거. 아기 어머니 금기하는 무엇, 어느 겨를에 금기랑 마랑.)

112010 @ 저 무신것도, 금줄.(저 무엇도, 금줄.)

112010 #1 금줄. 금줄 메는 거는, 그거는 비린 사름, 식게 하젠 하민 비린 사름, 영장 집 사름, 영장 밧디 땡겨난 사름 오카부덴 그 금줄을 메어부는 거주게. 오지 말라, 우리 집의 제사난 저 비린 사름 오지 말랭 알리젠 메는 거, 금줄. 노꼇 해근에 즐라메는 거.(금줄. 금줄 매는 거는, 그거는 더러운 사람, 제사 하려고 하면 더러운 사람, 영장 집 사람, 장지에 다녔던 사람 올라 보아서 그 금줄을 매어버리는 거지요. 오지 말라, 우리 집에 제사니까 저 더러운 사람 오지 말라고 알리려고 매는 거, 금줄. 노꾼 해서 잘라매는 거.)

## 혼례

112011 @ 혼례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 그 구식 결혼, 절차. 구식 결혼 허젠 허면은.(혼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구식 결혼, 절차. 구식 결혼 하려고 하면은.)

112011 #1 결혼 하젠 하민?(결혼 하려고 하면?)

112012 @ 그 과정 있지 안하오빠? 우선 중매 하고.(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우선 중매 하고.)

112012 #1 중매게.(중매요.)

112012 @ 그걸 쑥 순서대로 곁아줍서.(그것을 쑥 순서대로 말해주십시오.)

112012 #1 만약 이 하르방이 나 구허레 가젠 흐민 우리 시아방이 누계신들에 곁주게. 그 새각시 구해줍서 흐영 곁으민 중매하는 사름이 그 탱기주게. 탱겨근에 그디가 맞으민 주는 거고. 옛날엔 어멍, 아방 양반만 좇안 했주, 눈 까져도 모르고 멜라져도 몰라. 새각시가 눈 멜라져도 모르고, 새서방이 눈 멜라져도 모르고.(만약 이 ‘하르방’이 나 구하러 가려고 하면 우리 시아버지가 누구에게로 말하지. 그 새색시 구해주십시오 해서 말하면 중매하는 사람이 그 다니지요. 다녀서 거기가 맞으면 주는 거고. 옛날엔 어머니, 아버지 양반만 찾아서 했지, 눈 까져도 모르고 찌그러져도 몰라. 새색시가 눈 찌그러져도 모르고, 새서방이 눈 찌그러져도 모르고.)

112012 @ 결혼식 날 알게 뵈고.(결혼식 날 알게 되고.)

112012 #1 결혼식 날벳기. 양반만 좇앙, 지네끼리. 사둔끼리 양반만 좇앙 탱검주, 어느 저를에. 경 행 소문, 새각시 하나 구해들엔 해가민, 이디 이젠 연애흐난 햄주만은 그 새각시 어디 잇젠 탱기민 주민흐곡, 안 주민 말곡. 경 행 새각시 허가받아 두민.(결혼식 날밖에. 양반만 찾아서 자기네끼리. 사둔끼리 양반만 찾아서 다니고 있지, 어느 저를에. 그렇게 해서 소문, 새색시 하나 구해달라고 해가면, 여기 이제는 연애하니까 하고 있지만은 그 새색시 어디 있다고 다니면 주면하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해서 새색시 허가받아 두면.)

112012 @ 계난 중매흐여근에.(그러니까 중매해서.)

112012 #1 중매흐여근에.(중매해서.)

112012 @ 응, 그다음.(응, 그다음.)

112012 #1 새각시 중매 흐민.(새색시 중매 하면.)

112012 @ 그다음엔 또 이젠 날 받아야 흘 거 아니우꽈?(그다음에는 또 이젠 날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112012 #1 날 받았. 그건 허급 흐면은 이젠 새스방 칩에서 정시신디 가근에 날 받아 오주게. 아무 날 잔치 흐쿠덩 흐영 날 받아 오민 딱로 이젠 저 새각시칩의 딱로 그거는 막펜지<sup>305)</sup> ㄴ정 가는 거.(날 받아서. 그건 허가 하면은 이젠 새서방집에서 지관에게 가서 날 받아 오지요. 아무 날 잔치 하겠다고 해서 날 받아 오면 다시 이젠 저 새색시집에 다시 그거는 ‘막펜지’ 가져서 가는 거.)

112012 @ 가정 가, 무싱거 들렁 가.(가져서 가, 무엇 들리서 가.)

112012 #1 무싱거 들렁 가지 안 흐여.(무엇 들리서 가지 안 해.)

112012 @ 무사게 앞다리, 도새기 앞다리흐고.(왜요 앞다리, 돼지 앞다리하고.)

112012 #1 앞다리 흐는 거는 저 잔칫날.(앞다리 하는 거는 저 잔칫날.)

112012 @ 아니, 아니. 그 택일 가정 가는 날.(아니, 아니. 그 택일 가져서 가는 날.)

112012 #1 택일 가정 가는 날은 가정 가는 사름도 잇곡, 안 가정 가는 사름도

305) ‘막펜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 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이다.

잇곡, 경 흐주만은 저 잔칫날은 그 흥세함<sup>306</sup>) 농곡 흐영, 돛다리 농곡 흐영 구덕에  
혜근에, 트로 쓸 혼 말 농곡, 돛다리 혼 다리 농곡 흐영 저 영 행 흥세함에 농곡,  
그디 씨정, 그 정 가는 사름이 따로 있어.(택일 가져서 가는 날은 가져서 가는 사람  
도도 있고, 안 가져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 잔칫날은 그 ‘흥세함’  
놓고 해서, 돼지다리 넣고 해서 바구니에 해서, 따로 쌀 한 말 넣고, 돼지다리 한  
다리 넣고 해서 저 이렇게 해서 ‘흥세함’에 넣고, 거기 씨져서, 그 저서 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

112012 @ 결혼 할 땐, 우리 어머니 그런 거, 이걸 잘 흡주게. 케난에 택일 가정  
가는 날 그 앞다리 하나 하고.(결혼 할 땐, 우리 어머니 그런 거, 이것을 잘 하지요.  
그러니까 택일 가져서 가는 날 그 앞다리 하나 하고.)

112012 #1 예, 경 가정 갑니다.(예, 그렇게 가져서 갑니다.)

112012 @ 그다음에 쓸하고, 경 전에.(그다음에 쌀하고, 그렇게 전에.)

112012 #1 택일 으정 갈 때 강 밤행 먹곡 흐젠 으정 가는 사름도 잇곡, 잇이민  
못 가정 가곡게.(택일 가져서 갈 때 가서 밥해서 먹으려고 가져서 가는 사람도 있  
고, 없으면 못 가져서 가고요.)

112012 @ 경 험에 흡디다게.(그렇게 해서 합디다.)

112012 #1 경 흐면은 올 땐 빈 구덕 아니 보내여근에 통독 잡아근에 흐나 농메,  
뜨로. 새시방칩드레 보내는 거, 새각시칩의서.(그렇게 하면은 올 때는 빈 바구니 아  
니 보내어서 통닭 잡아서 하나 넣어요, 따로. 새시방집으로 보내는 거, 새색시집에  
서.)

112012 @ 경 혜근에 택일 반앙, 그다음에.(그렇게 해서 택일 받아서, 그다음에.)

112012 #1 택일 반앙 잔치 아무 날 잔치햄수덴 으정 갈 거 아니우짜? 경흐민  
그날 혼 들이민 혼 들, 두 들이민 두 들 싯당 잔칫날은게 풋밥 행 풋 농곡 혜근에  
보리밥 행 꿩기 두 점, 석 점 주멍 도새기 잡앙 돛국물에 몸 농멍 숲앙 먹곡, 누물  
냥 국 끌영 먹곡 했주게.(택일 받아서 잔치 아무 날 잔치하고 있다고 가져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있다가 잔칫날은 팔밥  
해서 팔 넣고 해서 보리밥 해서 고기 두 점, 석 점 주면서 돼지 잡아서 돼지국물에  
모자반 넣으면서 삶아서 먹고, 나물 넣어서 국 끓여서 먹고 했지요.)

112012 @ 중매에 대해근에 혼 번 더 곱아줍서.(중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해주  
십시오.)

112012 #1 중매 그거주게.(중매 그거지.)

112012 @ 혼 번 더 영 곱아봅서.(한 번 더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112012 #1 어떻 흐여 또. 만약에 감산이<sup>307</sup>) 가면은 나, 우리 하르방<sup>308</sup>)이 나 구  
흐젠 흐민 감산이 아는 사름신디 우리 씨아방이 “새각시나 어디 흐나 해 줘.” 영

306) ‘흥세함’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納幣函). 함 속에는 예장과 무  
명을 넣는다.

307) ‘감산이’는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이다.

308)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굴을 거 아니우파? 경 굴으민 아무 집의 새각시 신디 강 즐랑즐랑 텅기명 굴으난  
아니 주민 말고, 뭐 이 탓이여, 저 탓이여 흥명 아니 주주게, 코걸이 걸명. 경흥민  
또 주면은 이젠 허급받아근에 우리 씨아방신드레 건 쫓쟁 흥민 이젠 그걸 고남흥  
여. 대띠<sup>309</sup>가 맞으냐, 아니 맞으냐 고남흥여근에 택일흥여근에.(어떻게 해 또. 만약  
에 ‘감산이’ 가면은 나, 우리 ‘하르방’이 나 구하려고 하면 ‘감산이’ 아는 사람에게  
우리 시아버지가 “새색시나 어디 하나 해 줘.”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무 집에 새색시 있는데 가서 즐랑즐랑 다니면서 말하니까 아니 주면 말  
고, 뭐 이 탓이여, 저 탓이여 하면서 아니 주지요, 코걸이 걸면서. 그러면 또 주면은  
이젠 허가받아서 우리 시아버지에게 건 쫓다고 하면 이젠 그것을 눈을 속여. ‘대띠’  
가 맞느냐, 아니 맞느냐 눈 속여서 택일해서.)

112012 @ 대띠가 뭐파?(‘대띠’가 뭐입니까?)

112012 #1 대띠는 둘리 스주가 맞느냐, 안 맞느냐, 팔자 스주, 둘리가. 계난 아  
니 맞은 사름은 또 몰라근에, 아니 맞은 사름이랑도 흥곡, 잔칫 택일 잘못 해도 저  
무싱거 흥곡, 경 흥는 거주게.(‘대띠’는 둘이 사주가 맞느냐, 안 맞느냐, 팔자 사주,  
둘이가. 그러니까 아니 맞은 사름은 또 몰라서, 아니 맞은 사름이랑도 하고, 잔치  
택일 잘못 해도 저 무엇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112012 @ 그난 마을에 그 중매쟁이가 있어수과?(그러니까 마을에 중매쟁이가  
있었습니까?)

112012 #1 아니, 아니. 중매쟁이가 아니고 아는 사름이 했주게, 중매쟁이가 아니  
고.(아니, 아니. 중매쟁이가 아니고 아는 사름이 했지요, 중매쟁이가 아니고.)

112012 @ 중매만 허는 사름 엇고?(중매만 하는 사름 없고?)

112012 #1 기냥 만약에 우리 시아버지가 나 구해오젠 흥민 감산이 사름 누게,  
아는 사름신디 새각시 흥나 구해줘, 영 흥민 아니 아무디 새각시 잇언 영 흥영 구  
해주는 거주, 중매자가 엇고.(그냥 만약에 우리 시아버지가 나 구해오려고 하면 ‘감  
산이’ 사름 누구, 아는 사름에게 새색시 하나 구해줘, 이렇게 하면 아니 아무데 새  
색시 있어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거지, 중매자가 없고.)

112013 @ 막편지에 대행 흥 번 굴아줍서.(‘막편지’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  
오.)

112013 #1 막편지가 그거. 도새기 다리 웃곡 흥정 가는 거, 막편지 ㄴ정 가는  
거, 날 택일 흥정 가는 거, 막편지.(‘막편지’가 그거. 돼지 다리 가지고 가져서 가는  
거, ‘막편지’ 가져서 가는 거, 날 택일 가져서 가는 거, ‘막편지’.)

112013 @ 계난 그뎌 누게 누게 가.(그러니까 그때는 누구 누구 가.)

112013 #1 그때는 시아방이영게 도새기 다리 영 낡 정 가는 사름흥곡게, 그것만  
감주 무신.(그때는 시아버지랑 돼지 다리 이렇게 놔서 져서 가는 사름하고 가고 있  
지 무슨.)

---

309) ‘대띠’는 사름이 태어난 해를 열두 지지(地支)를 상징하는 동물들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을 이르  
는 것 같다.

112013 @ 누계?(누구?)

112013 #1 새스방은 안 가고.(새서방은 안 가고.)

112013 @ 무사 새스방은 안 가?(왜 새서방은 안 가?)

112013 #1 아니, 새스방은 옛날에 아니 가십디다. 씨아방이 우리 아버지신디 그 택일 가져가는 거주.(아니, 새서방은 옛날에 아니 갔습디다.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 택일 가져가는 거지.)

112013 @ 그때 우리 나 흘 댐 큰형수하고.(그때 우리 나 할 때는 큰형수하고.)

112013 #1 그때도 우리 할 때랑은 또 틀렸주게, 더. 경 새스방 우시는 어떻 흐 옛느냐, 글 모르는 사람은 안 돼어. 새스방 우시가근에 그 무싱거 잘못 쓰민 씨오곡 하는 거라 부난 안 돼어.(그때도 우리 할 때랑은 또 달랐지요, 더. 그렇게 새서방 위요는 어떻게 하였느냐, 글 모르는 사람은 안 돼. 새서방 위요가서 그 무엇 잘못 쓰면 씨오고 하는 거라 버리니까 안 돼.)

112014 @ 그다음엔양 이바지에 대행 곶아줍서.(그다음에는 이바지에 대해서 말 해주십시오.)

112014 #1 이바지는 새각시집의가 무싱거 가난행 엇이민 새스방집의서 잔치홀 곶 이바지 가져가는 거. 썰이고 뿔이고, 것이 이바지.(이바지는 새색시집에가 무엇 가난해서 없으면 새서방집에서 잔치할 것을 이바지 가져가는 거. 썰이고 뿔이고, 것이 이바지.)

112014 @ 거난에 그 신랑집의서.(그러니까 그 신랑집에서.)

112014 #1 신랑집의서 이바지, 새각시집의가 가난하민 이바지 받으켤 흐민 신랑집의서 썰이나 무싱거 갖다주는 거, 이바지.(신랑집에서 이바지, 새색시집이 가난하면 이바지 받겠다고 하면 신랑집에서 썰이나 무엇 가져다주는 거, 이바지.)

112014 @ 썰만 갖다 줘니까?(썰만 갖다 줘니까?)

112014 #1 썰도 갖다주곡, 도새기도 갖다주곡, 건 잇는 대로 갖다주는 건디, 이바지 받는 사람은 드물어.(썰도 가져다주고, 돼지도 가져다주고, 건 잇는 대로 가져다주는 것인데, 이바지 받는 사람은 드물어.)

112014 @ 썰하고 그다음에.(썰하고 그다음에.)

112014 #1 썰하고 도새기라도 하나 당하젠 흐민 당하는 거, 아니 당하젠 흐민 아니 당하는 거. 새각시집의가 가난행 흘 수가 엇이면은 새스방집의서 그거 당하영 잔치하는 거게, 그것이 이바지.(썰하고 돼지라도 하나 당하려고 하면 당하는 거, 아니 당하려고 하면 아니 당하는 거. 새색시집이 가난해서 할 수가 없으면 새신랑집에서 그거 당해서 잔치하는 거, 그것이 이바지.)

112014 @ 계난 썰하고 도새기 정도, 다른 건 엇고?(그러니까 썰하고 돼지 정도, 다른 건 없고?)

112014 #1 그것빼기 더 이서? 도새기퀘기하고 밥벳기 더 험수과? 옛날에사.(그것밖에 더 있어? 돼지고기하고 밥밖에 더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야.)

112015 @ 혼수에 대행 곶아줍서.(혼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12015 #1 혼수가 그제 그놈의 아들이주게.(혼수가 그제 그놈의 아들이지요.)  
112015 @ 혼수?(혼수?)  
112015 #1 혼수가 그제 그놈의 아들이주게.(혼수가 그제 그놈의 아들이지요.)  
112015 @ 경헌디 혼수?(그런데 혼수?)  
112015 #1 혼수논게.(혼수논요.)  
112015 @ 저 신부집의 무싱거.(저 신부집에 무엇.)  
112015 #1 신부집의사 이불헝곡게 무싱거벳기 더행 가, 이불벳기 더행 가, 이불.(신부집에야 이불하고 무엇밖에 더해서 가, 이불밖에 더해서 가, 이불.)  
112015 @ 이불헝고.(이불하고.)  
112015 #1 이불, 이불벳기 더행 감서?(이불, 이불밖에 더해서 가고 있어?)  
112015 @ 이불만 헝여?(이불만 해?)  
112015 #1 이불벳기 더행 가서게? 요사 정 가고.(이불밖에 더해서 갔어? 요야 저서 가고.)  
112015 @ 계난 신부집의서는 이불헝고.(그러니까 신부집에서는 이불하고.)  
112015 #1 이불헝고, 것뿐.(이불하고, 것뿐.)  
112015 @ 그거 무신 찻장 ㄴ튼 거는 안 하고?(그거 무슨 찬장 같은 거는 안 하고?)  
112015 #1 찻장, 어느 저를에 옛날에 찻장이 어디 잇수과?(찬장, 어느 겨를에 옛날에 찬장이 어디 있습니까?)  
112015 @ 퀘는 해야 헝 거 아니우파?(퀘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12015 #1 옛날도 퀘 헝는 사름이 엇어수다. 어느 저를에 퀘 흘 가난 옛날 잇수과?(옛날도 퀘 하는 사름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를에 퀘 할 가난 옛날 있습니까?)  
112015 @ 그다음에 화장대 ㄴ튼 거.(그다음에 화장대 같은 거.)  
112015 #1 요 중간에 지, 화장대가 어디 잇수과?(요 중간에 지, 화장대가 어디 있습니까?)  
112015 @ 거난 이불만?(그러니까 이불만?)  
112015 #1 이불. 이불도 두 채, 헝 채 헝고, 요 두 개 헝고, 이불 저 요 헝나 헝고, 이불 두 개 헝는 사름, 이불헝고 이불 헝나에 요 헝나 헝는 사름 싯고, 이불 두 개에 요 두 개 헝는 사름 잇고, 그건 막 잘 출린 사름. 이불 헝나헝고 요 헝나.(이불. 이불도 두 채, 한 채 하고, 요 두 개 하고, 이불 저 요 하나 하고, 이불 두 개 하는 사름, 이불하고 이불 하나에 요 하나 하는 사름 잇고, 이불 두 개에 요 두 개 하는 사름 잇고, 그건 아주 잘 차린 사름. 이불 하나하고 요 하나.)  
112015 @ 삼춘은 이불 몇 개 헝연?(삼춘은 이불 몇 개 했어?)  
112015 #1 나 이불, 나도 난.(나 이불, 나도 난.)  
112015 @ 뭐, 뭐 헝디까?(뭐, 뭐 했습니까?)  
112015 #1 난 요 두 개 헝 잘 출릿젠 해서.(난 요 두 개 해서 잘 차렸다고 했어.)

112015 @ 요 두 개만 현연?(요 두 개만 했어?)

112015 #1 요 두 개 하고. 옛날엔 화장대가 경대주게, 일름이. 경대난 경대행 가는 사람이 었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흑교 선생이난 목포 저 목포가, 그 어디 무싱 거 허레 갔다 와서. 갔다 오멍 그 발강흔 경델 상 와십디다게. 경 현난 그 잔칫날 ㄱ정 오난 우리 동네 사름덜 문딱 모여, 그거 보레.(요 두 개 하고. 옛날에는 화장대가 경대지요, 이름이. 경대니까 경대해서 가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 작은아버지가 학교 선생이니까 목포 저 목포인가, 그 어디 무엇 하러 갔다 왔어. 갔다 오면서 그 발간 경대를 사선 왔습디다. 그렇게 하니까 그 잔칫날 가져서 오니까 우리 동네 사름들 모두 모여, 그거 보러.)

112015 @ 경대하고 이불 몇 개? 몇 채?(경대하고 이불 몇 개? 몇 채?)

112015 #1 요 두 개하고 이불 두 개사 해져신디, 깔레이불하고. 그건 난 잘 चल린 거, 할망 해주고 현난.(요 두 개하고 이불 두 개 했었는데, 누비이불하고. 그건 난 잘 चल린 거, 할머니 해주고 하니까.)

112016 @ 예장에 대해근에서 현 번 곁아줍서.(예장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112016 #1 예장은게 그거주게. 예장 썩 새스방 우시가는 사름이 예장을 썩 요런 노랑 포따리에 쌍 하꼬에 그 답아근에.(예장은 그거지요. 예장 써서 새서방 위요가는 사름이 예장을 써서 요런 노랑 보자기에 싸서 함에 그 답아서.)

112016 @ 홍세함양?(‘홍세함’요?)

112016 #1 홍세미녕<sup>310</sup>, 옛날엔 으답새미녕. 그추룩 행 홍세함에 낱, 요 중간에는 저 멘네현영 아기 기저귀 ㄱ슴 두 필씩 낱주게. 경 현는디 그걸로 아기 지성귀 현렌 홍세미녕 바근에 으져갓주게. 그 예장 쓴 거 놓곡 현영, 그것이 예장. 새스방 우시가 으져가는 거주.(‘홍세미녕’, 옛날에는 여덱새무명. 그처럼 해서 ‘홍세함’에 넣어서, 요 중간에는 저 면화해서 아기 기저귀감 두 필씩 넣었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아기 기저귀 하라고 ‘홍세미녕’ 넣어서 가져갓지요. 그 예장 쓴 거 낱고 해서, 그것이 예장. 새서방 위요가 가져가는 거지.)

112016 @ 계난 예장 잘못 썩 가민?(그러니까 예장 잘못 써서 가면?)

112016 #1 예장 써근에게, 홍세미녕 안에 낱 감주게.(예장 써서, ‘홍세미녕’ 안에 넣어서 가고 있지.)

112016 @ 가근에게 볼 거 아니우파?(가서 볼 거 아닙니까?)

112016 #1 보민 잘못 쓰민 다시 써오렌 하고. 계난 새스방 우시는 글 안 사름벳 기 안 돼어. 글 모르민 써오렌 현민 어떻 행 썩 가.(보면 잘못 쓰면 다시 써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새서방 위요는 글 아는 사람밖에 안 돼. 글 모르면 써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써서 가.)

112016 @ 붓도 들렁 가야겠네, 붓도 들렁 가야커라.(붓도 들러서 가야겠네, 붓도 들러서 가야겠어.)

310) ‘홍세미녕’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붓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 속에 넣는 무명이다.

112016 #1, 2 (웃음.)

112016 #1 저 새스방집의 새각시집 페라운<sup>311)</sup> 집의는 새스방 가민 올레<sup>312)</sup>에  
흔 시간 넘어 세왕 잘못 했져, 잘 했져 흐멍 난리가 나.(저 새서방집에 새색시집  
'페라운' 집에는 새서방 가면 '올레'에 한 시간 넘어 세워서 잘못 했어, 잘 했어 하  
면서 난리가 나.)

112016 @ 고쳐야 헐 거 아니우짜? 잘못 흐민 붓 가정가근에.(고쳐야 할 거 아넵  
니까? 잘못 하면 붓 가져가서.)

112016 #1 경흐난게 새스방 우시가 글 모르민 안 웬다 흐는 거주.(그러니까 새  
서방 위요가 글 모르면 안 된다 하는 거지.)

112016 @ 계난 붓도 들렁 가야 흐크라.(그러니까 붓도 들러서 가야 되겠어.)

112016 #1 몰라. 붓은 가정 감신지, 말암신지. (웃음) 우리 아버지 강침의 잔치  
만 흐민 우시만 가서.(몰라. 붓은 가져서 가고 있는지, 말고 있는지. (웃음) 우리 아  
버지는 강씨집에 잔치만 하면 위요만 갔어.)

112017 @ 가문잔치에 대행 돌아줍서.(가문잔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12017 #1 가문잔치 넬 잔치면은 오닐, 오닐게 도새기 베설이영 흐 점씩 멕이는  
거. 도새기 잡아근에 숲아난 물에 녹물 낱 국 끓이곡게, 그거.(가문잔치는 내일 잔  
치면 오늘, 오늘 돼지 창자랑 한 점씩 먹이는 거. 돼지 잡아서 삶았던 물에 나물 넣  
어서 국 끓이고, 그거.)

112017 @ 권당들이 흐는 잔치 아니우짜?(권당들이 하는 잔치 아닙니까?)

112017 #1 권당덜, 권당 동네 사름덜, 이제는 동네고 뵈이고 다 가지만은, 옛날  
엔 권당 엇인 사름은 아니 가메. 경 흐영 그거 가문잔치.(권당들, 권당 동네 사람들,  
이제는 동네고 뵈이고 다 가지만은, 옛날에는 권당 없는 사름은 아니 가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가문잔치.)

112017 @ 권당 허민 흐 멧 촌까지가 권당이라?(권당 하면 한 멧 촌까지가 권당  
이라?)

112017 #1 권당은 일가방상 먼촌도 일가방상. 양침이민 양침의 일가방상이민 권  
당이고, 브딘 권당 뜨나고, 일가에 또 방상 뜨나주게. 잔치 때 ㄱ튼 때는 먼 권당이  
고 문딱 일가방상이고 모여들주게. 스촌, 오촌은 문 모여드는데, 양침이민 양침 열  
촌 넘어도 다 모여드는 거주게, 권당은.(권당은 일가방상 먼촌도 일가방상. 양씨집  
이면 양씨집에 일가방상이면 권당이고, 가까운 권당 다르고, 일가에 또 방상 다르지  
요. 잔치 때 같은 때는 먼 권당이고 모두 일가방상이고 모여들지. 사촌, 오촌은 모  
두 모여드는데, 양씨집이면 양씨집 열 촌 넘어도 다 모여드는 거지, 권당은.)

112017 @ 계난 그날은.(그러니까 그날은.)

112017 #1 가문잔치.(가문잔치.)

112017 @ 가문잔치 허는 날은.(가문잔치 하는 날은.)

311) '페랍다'는 성질이 신경질적이고 사납기 때문에 다루기 힘들다.

312) '올레'는 거리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이다.

112017 #1 도새기 잡앙 숭앙 누물 낱 국 끓이곡, 막 베설 뒤 점씩 주곡, 베설 만.(돼지 잡아서 삶아서 나물 넣어서 국 끓이고, 마구 창자 두어 점씩 주고, 창자 만.)

112017 @ 그냥 꿩기는 안 쥐서.(그냥 고기는 안 쫘어.)

112017 #1 꿩기 어느 저를에 꿩기가 싯수과계, 도새기 질좌근에.(고기 어느 겨를에 있습니까, 돼지 길러서.)

112017 @ 도새기 혼 마리 잡아근에 허니까.(돼지 한 마리 잡아서 하니까.)

112017 #1 도새기 혼 마리 잡아근에 백 놉 잔치흔디, 경 흥영 아으 반, 어른 반 흥영 아으 두 점, 어른은 석 점흔민, 아으 반을 어른신드레 가민 승 나고.(돼지 한 마리 잡아서 백 놉 잔치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 반기, 어른 반기해서 아이는 두 점, 어른은 석 점하면, 아이 반기를 어른에게 가면 흥 나고.)

112018 @ 우시에 대행 혼 번 곱아줍서.(위요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112018 #1 우시는게 새각시집의서 저 이 새스방집의서 웨가, 성가 가주게, 웨가, 성가. 새스방집의서 우시가젠 흥면은 웨가 웨삼촌이나, 저 누이 풀민 오라방이나 우시가곡, 성가에 양칩이민 양칩의서, 꼭 돌리가 가주게, 우실. 경 흥는 거. 새각시 들레 갈 때, 그 올 때도 돌리가 와.(우시는 새색시집에서 저 이 새서방집에서 외가, 성가 가지, 외가, 성가. 새서방집에서 위요가려고 하면은 외가 외삼촌이나, 저 누이 팔면 오라비나 위요가고, 성가에 양씨집이면 양씨 집에서, 꼭 돌리가 가지, 위요를. 그렇게 하는 거. 새색시 데리러 갈 때, 그 올 때도 돌리가 와.)

112019 @ 대반흥고 중방에 대행 혼 번 곱아줍서.(대반하고 중방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12019 #1 중방은 새스방 가면은 안트레 들이는 것이 중방이고, 새스방이영 그 짜 앞앙 중방이고, 저 대반은 새각시, 그것이 대반이주게.(중방은 새서방 가면은 안으로 들이는 것이 중방이고, 새서방이랑 같이 앉아서 중방이고, 저 대반은 새색시, 그것이 대반이지.)

112019 @ 어떤 사름 가?(어떤 사람 가?)

112019 #1 어떤 사름이 아니고, 그디 권당. 동세민 동세, 고모민 고모, 경 행 큰 어명이민 큰어명이 대반 앓는 거.(어떤 사람이 아니고, 거기 권당. 동서면 동서, 고모면 고모, 그렇게 해서 큰어머니면 큰어머니 대반 앓는 거.)

112019 @ 중방은?(중방은?)

112019 #1 중방은 새스방 중방이주. 새스방이영 새스방 들이는 거게. 새각시집 의서 새스방 가민 주인 엇인 봉사 십니까, 그 저 중방이 그 새스방 즈갓디 앓곡, 들이는 거. 주인질 흥는 게 중방이주.(중방은 새서방 중방이지. 새서방이랑 새서방 들이는 거. 새색시집에서 새서방 가면 주인 없는 봉사 있습니까, 그 저 중방이 새서방 곁에 앓고, 들이는 거. 주인노릇 하는 게 중방이지.)

112020 @ 부조는 어떻 흥니까?(부조는 어떻게 합니까?)

112020 #1 부주는 옛날 보리쌀 두 뉘.(부조는 옛날 보리쌀 두 뉘.)

112020 @ 부주양?(부조요?)

112020 #1 좁쌀 두 돼고.(좁쌀 두 되하고.)

112020 @ 보리쌀 두 돼고?(보리쌀 두 되하고?)

112020 #1 좁쌀 하는 사람은 좁쌀 두 돼, 보리쌀 하는 사람은 보리쌀 두 돼, 경행 구덕에 행 가근에, 그걸 받아 낱.(좁쌀 하는 사람은 좁쌀 두 되, 보리쌀 하는 사람은 보리쌀 두 되, 그렇게 해서 바구니에 해서 가서, 그것을 받아 넣어.)

112020 @ 무슨 구덕에 했수과?(무슨 바구니에 했습니까?)

112020 #1 풀브른구덕<sup>313</sup>)에 ㄴ정 가는 사람도 싯곡, ㄴ는대구덕<sup>314</sup>) 요만이 혼 두 돼짜리 있어.(‘풀브른구덕’에 가져서 가는 사람도 있고, ‘ㄴ는대구덕’ 요만큼 한 두 돼짜리 있어.)

112020 @ ㄴ는대구덕양?(‘ㄴ는대구덕’요?)

112020 #1 예, ㄴ는대구덕에 사돈침인 혼 말, 동네 사람은 보리쌀 두 돼.(예, ‘ㄴ는대구덕’에 사돈집에는 한 말, 동네 사람은 보리쌀 두 되.)

112020 @ 그추룩 행 가민 무싱거 쥐?(그처럼 해서 가면 무엇 쥐?)

112020 #1 밥. 밥 놔, 밥. 잔칫밥 구덕드레.(밥. 밥 넣어, 밥. 잔칫밥 바구니로.)

112020 @ 잔칫밥은 무슨 어떤 거.(잔칫밥은 무슨 어떤 거.)

112020 #1 우리 가민게 풋 놓곡게, 보리쌀 놓고 햅영 밥흔 거, 우리 먹는 밥을 그레.(우리 가면 팔 놓고, 보리쌀 놓고 해서 밥한 거, 우리 먹는 밥을 그리로.)

112020 @ 멧 그릇?(멧 그릇?)

112020 #1 멧 그릇산디, 햅영 놓는 집은 혼 뒤 서너 그릇.(멧 그릇인지, 많이 놓는 집은 두어 서너 그릇.)

112020 @ 곤밥은 안 쥐?(흰밥은 안 쥐?)

112020 #1 곤밥 어느 저르에. 곤밥이 어디 잇수과?(흰밥 어느 겨를에. 흰밥이 어디 있습니까?)

112020 @ 아, 우리 어릴 땐 곤밥 혼 사발은 놓데.(아, 우리 어릴 때는 흰밥 한 사발은 놓데.)

112020 #1 곤밥은 건 브딘 쁘당, 늑은이나 잇인디 보냄주게, 그거 아무신디나 보냄수과?(흰밥은 건 가까운 쁘당, 늑은이나 잇는데 보내고 잇지요, 그거 아무에게나 보내고 잇습니까?)

112020 @ 그다음 쁘기도 좀 멧 점 놓고.(그다음 고기도 좀 멧 점 놓고.)

112020 #1 아이고, 쁘기 멧 점 놓는디도 엇수다. 브딘 쁘당, 늑은이신디 반 보내는 거. 저 도감 태우곡, 따시 출 반이엿 햅여근에 늑은이덜 오랑 반 보내지 못흐민 동네 으정 텅기명 문 태우곡 해낫수다게, 옛날엔.(아이고, 고기 멧 점 놓는데 없습니다. 가까운 쁘당, 늑은이에게 반기 보내는 거. 저 도감 태우고, 다시 출 반기라고 해서 늑은이들 와서 반기 보내지 못하면 동네 가져서 다니면서 모두 태우고 했었습

313) ‘풀브른구덕’은 대오리를 걸은 바구니가 헐어서 종이나 형겅 따위에 풀을 발라 붙인 바구니이다.

314) ‘ㄴ는대구덕’은 아주 가늘고 긴 대오리로 엮어 만든 바구니이다. 적은 양의 물건을 넣어 여자들이 허리에 끼고 운반해 다닌다.

니다, 옛날에는.)

112020 @ 남자 삼촌 고적<sup>315</sup> 잊지 안하우파? 고적. 고적도 하나의 부준디, 고적에 대행 혼 번 곱아아줍서.(남자 삼촌 ‘고적’ 잊지 않습니까? ‘고적’. ‘고적’도 하나의 부조인데, ‘고적’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12020 #1 고적은 권당덜만.(‘고적’은 권당들만.)

112020 #2 고적은 권당덜만. 만약에 우리 일가에 혼 사름 영장이 낫다 혼민 고적이 혼 말이민 혼 말, 두 말이민 두 말.(‘고적’은 권당들만. 만약에 우리 일가에 한 사람 영장이 낫다 하면 ‘고적’이 한 말이면 한 말, 두 말이면 두말.)

112020 @ 결혼할 때도 하지 안 해수과? 결혼할 때도 고적하지 안 해수과?(결혼할 때도 하지 안 했습니까? 결혼할 때도 ‘고적’하지 안 했습니까?)

112020 #1 결혼할 때 큰일 나민 고적, 이제도 해주게.(결혼할 때 큰일 나면 ‘고적’, 이제도 하지요.)

112020 @ 뭘로 하여마썸?(무엇으로 해요?)

112020 #1 그거는 곤솔로, 옛날은.(그거는 흰쌀로, 옛날은.)

112020 #2 곤솔로 하나 그자.(흰쌀로 하나 그저.)

112020 #1 아니, 옛날엔 돈 아니고, 고적은 곤솔이우다게. 나도 고적을 해신디, 그 문중으로 갑니다. 혼 말, 우리는 옛날에 양침이 하도 양게가 하 노난 두 뉘 혼 단, 말짜 가난 석 뉘 혼 단, 말짜라 가난 혼 말 혼 단, 말짜라 가난 솔로 안 혼 연 돈 으로 허렌 흙디다, 고적을. 게난 이제도 돈 햄주게.(아니, 옛날에는 돈 아니고, ‘고적’은 흰쌀입니다. 나도 ‘고적’을 했는데, 그 문중으로 갑니다. 한 말, 우리는 옛날에 양씨집이 아주 양가가 많아 노니까 두 뉘 하다가, 말짜 가니까 석 뉘 하다가, 말짜라 가니까 한 말 하다가, 말짜라 가니까 쌀로 안 해서 돈으로 하라고 합디다, ‘고적’을. 그러니까 이제도 돈 하고 있지요.)

112020 @ 돈은 얼마 햄수과?(돈은 얼마 하고 있습니까?)

112020 #1 돈은 혼 말 값. 혼 말 값이민 만약에 혼 말에 만 원이민 만 백 원이라도 시민 백 원이라도 다 들이청 돈으로 가져가곡. 이제도 경혼난 솔로 안 혼 고, 이제 고적이엔 혼 건 일가방상에 돈으로 삼만 원 딱 지정해불어수게.(돈은 한 말 값. 한 말 값이면 만약에 한 말에 만 원이면 만 백 원이라도 있으면 백 원이라도 다 들이쳐서 돈으로 가져가고. 이제도 그러니까 쌀로 안 하고, 이제 ‘고적’이라고 한 건 일가방상에 돈으로 삼만 원 딱 지정해버렸습디다.)

112020 @ 삼만 원, 전부 행 삼만 원?(삼만 원, 전부 해서 삼만 원?)

112020 #1 우리, 나가, 우리 아덜이 삼만 원 혼 영 그져가, 고적. 잔치 때고, 영장 때고.(우리, 나가, 우리 아들이 삼만 원 해서 가져가, ‘고적’. 잔치 때고, 영장 때고.)

112020 @ 아, 우린 그 고적으로 혼 이십만 원 혼 곡, 문중에서.(아, 우리는 그 ‘고적’으로 한 이십만 원 하고, 문중에서.)

112020 #1 건 그 문중에 따랑 다릅디다.(건 그 문중에 따라서 다릅디다.)

315) ‘고적’은 일가에 경조사가 생겼을 적에 친척끼리 만들어 가는 부조떡이나 쌀이다.



112020 @ 계난 혼 이십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엔 개인 부주해주게.(그러니까 한 이십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는 개인 부조하지요.)

112020 #1 거는 우리도 하는디, 브딘 권당 잊지 안하우파? 스춘도 있고, 오춘도 잊지 안하우파? 그 사름들은 고적을 삼만 원 안 하영 십만 원도 하곡, 이십만 원도 하곡, 지정하영 먼 권당 고적이라고 혼 건 우린 일가방상 삼만 원 딱 지정해불엇수 다게. 계난 영장이고 잔치 때고 그자 저 으져가곡. 경하민 우린 일가방상에서 칠십 넘으면 고적을 설러불라 합니다. 노인이 웨엇젠, 경 하여도 난 건즘 팔십 나도록 했수다만은, 이젠 고적도 안 하고 부주도 안 햄수게. 아덜하고 며누리가 혼난, 늡으난. 그 고적이엔 하는 건 그거마썸.(거는 우리도 하는데, 가까운 권당 잊지 않습니까? 사춘도 있고, 오춘도 잊지 않습니까? 그 사름들은 ‘고적’을 삼만 원 안 해서 십만 원도 하고, 이십만 원도 하고, 지정해서 먼 권당 ‘고적’이라고 한 건 우린 일가방상 삼만 원 딱 지정해버렸습시다. 그러니까 영장이고 잔치 때고 그자 저 가져가고. 그러면 우린 일가방상에서 칠십 넘으면 ‘고적’을 끝내버려라 합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도 난 거의 팔십 나도록 했습시다만은, 이젠 ‘고적’도 안 하고 부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며누리가 하니까, 늡으니까. 그 ‘고적’이라고 하는 건 그거요.)

112021 @ 암창개<sup>316</sup>)에 대행 혼 번 곶아줍서.(‘암창개’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112021 #1 암창개? 암창개 여자사 스나이 좃앙 텅기는 게 암창개주게, 그거주게. 막 바람낭 좃앙 텅기는 거.(‘암창개’? ‘암창개’는 여자가 남자 찾아서 다니는 게 ‘암창개’지, 그거지. 아주 바람나서 찾아서 다니는 거.)

112021 @ 예, 그거 혼 번 곶아줍서.(예, 그거 한 번 말해주십시오.)

112021 #1 아니, 그건 뭐 암창개사 여자가 바람, 스나이 베린 척 안 해도 막 암창개를 좃앙, 수툫 놓듯 좃앙 텅기는 게 암창개주게. 벨 거 있어게.(아니, 그건 뭐 ‘암창개’야 여자가 바람, 남자 보는 척 안 해도 마구 ‘암창개’를 찾아서, 수툫 놓듯 찾아서 다니는 게 ‘암창개’지요, 벨 거 있어요.)

112021 @ 그때, 그때도 잊어났지양?(그때, 그때도 있었지요?)

112021 #1 난 그때 잊어나신디, 암창개사 뫼산디사.(난 그때 있었었는데, ‘암창개’야 뫼인지.)

112021 @ 아니, 그때는 잊어났수과?(아니, 그때는 없었습니까?)

112021 #1 아니, 잊어도 암창개엔 혼 거, 옛날에 암창개가 어디 이수과? 상뒤칩<sup>317</sup>)의 가온 비바리, 드르 카온 웅장 뫼에 씩니까? 옛날엔 상뒤칩 강 오라도 산태 걸이<sup>318</sup>)하고, 어느 저를에. 지집아이 시집도 못 갖수다.(아니, 잊어도 ‘암창개’라고

316) ‘암창개’는 약혼한 다음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의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혼례 당일 신랑이 먼 곳으로 나갔다가 부득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 예정된 날에 신랑집에서 상객들만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보통 혼례처럼 하객을 맞이하면서 치르는 혼례이다.

317) ‘상뒤칩’은 마을 사람들이 회합(會合)하는 집이다.

318) ‘산태걸이’는 죄인을 ‘산태’에 묶어 거꾸로 세워놓고 매를 치는 일이다. ‘산태’는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앞뒤로 들게 된 도구이다.

한 거, 옛날에 ‘암창개’가 어디 있습니까? ‘상뒤집’에 가온 처녀, 들에 갔다 온 된장  
뭇에 씹니까? 옛날엔 ‘상뒤집 가서 와도 ’산태걸이‘하고, 어느 겨를에. 계집아이 시  
집도 못 갔습니다.)

112021 @ 여자들이 먼저 남자 꼬시는 거네?(여자들이 먼저 남자 피는 거네?)

112021 #1 그것이 암창개.(그것이 ‘암창개’.)

112021 @ 옛날도 그런 여자덜 하낫지 안흐우파?(옛날도 그런 여자들 많았지 않  
습니까?)

112021 #1 그런 여자덜도 잇어낫주만은, 어려왓주게. 그땐 여자사 사름으로 알  
아수과? 그추룩 헛당 시집도 못 갈 거주. 어느 저를에 암창개 뎡겨낫당 시집가져,  
그 비바린 죽어볼주. 이젠 여자가 먼저 늣딱걸엄주. 이젠 여자 세상.(그런 여자들도  
있었었지만, 어려웠지요. 그때는 여자야 사름으로 알았습니까? 그처럼 헛다가 시집  
도 못 갈 거지. 어느 겨를에 ‘암창개’ 다녔었다가 시집가져, 그처녀는 죽어버리지.  
이젠 여자가 먼저 날뛰고 있지. 이젠 여자 세상.)

112022 @ 그다음에 그 사혼. 죽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그거 흔 번 곶아줍  
서.(그다음에 그 사혼. 죽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그거 한 번 말해주십시오.)

112022 #1 그건 죽은 혼서. 죽은 혼서엔 흐는 건 새스방이 먼저 죽은 디 잇지  
안 흡니까? 잇이민 그 새각시를 못흐면 처녀가 어디 죽엇덴 흐민, 우리 산 사름 구  
흐듯 구흐여근에 그 새각시 돌아가는 거주게.(그건 죽은 혼서. 죽은 혼서라고 하는  
건 새서방이 먼저 죽은 데 잇지 안 합니까? 있으면 그 새색시를 못하면 처녀가 어  
디 죽었다고 하면, 우리 산 사름 구하듯 구해서 그 새색시 데려가는 거지요.)

112022 @ 거기도 다 무싱거 저 혼수흐지양?(거기도 다 무엇 저 혼수하지요?)

112022 #1 혼수 흡니다. 잔치도 흐곡.(혼수 합니다. 잔치도 하고.)

112022 @ 그거 이제 잘 곶아줍서.(그거 이제 잘 말해주십시오.)

112022 #1 똑 우리 산 때 흐는 모양으로 우시도 가곡 흐는디, 우시가곡 잔치흐  
곡 흐여. 경 행 사진 으져근에 새스방집의서 새각시 들레 오주게. 경흐민 또 새스방  
집의서 새각시 사진 돌아ㄴ져근에 따로 강 저 잔칫날 흐는, 잔치흐는 그것이 죽은  
혼서. 거 일름이 죽은 혼서엔 흡니다.(똑 우리 산 때 하는 모양으로 위요도 가고 하  
는데, 위요가고 잔치하고 해. 그렇게 해서 사진 가져서 새서방집에서 새색시 데리러  
오지요. 그러면 또 새서방집에서 새색시 사진 데려가져서 다시 가서 저 잔칫날 하  
는, 잔치하는 그것이 죽은 혼서. 거 이름이 죽은 혼서라고 합니다.)

112022 @ 계난 혼수도 흐여?(그러니까 혼수도 해?)

112022 #1 건 혼스는 이불흐영 흐 채 행 가는 사름도 싯곡, 아니 그냥 흐는 사  
름도 이십니다. 게도 보통은 이불 흐 채는 행 갑니다게. 옷 흐 별 해 놓고, 새각시  
입을 거, 옷 흐 별 해 놓곡.(건 혼수는 이불해서 한 채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아  
니 그냥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이불 한 채는 해서 갑니다. 옷 한 별  
해 놓고, 새색시 입을 거, 옷 한 별 해 놓고.)

112022 @ 이 동네도 허지양?(이 동네도 하지요?)

112022 #1 이 동네도 하영 헛수다게. 이젠 죽은 혼스 안 흡니께. 이제는 엇어, 이젠 안 흡니다.(이 동네도 많이 했습니다. 이젠 죽은 혼사 안 합니다. 이제는 없어, 이젠 안 합니다.)

112022 #2 이젠 흐는 디도 엇어.(이젠 하는 데도 없어.)

112022 #1 이젠, 이젠 죽은 혼스 흐지 안 흐여. 허는 냥도 엇고, 흐쟁도 안 흐고. 게도 촌엔 혼 번씩 흐는 사름도 있어. 기냥 살아불주 죽은 혼스 허쟁 세상이 변흐연 죽은 혼스 허쟁 안 흡니다.(이젠, 이젠 죽은 혼사 하지 안 해. 하는 냥도 없고, 하려고도 한 하고, 그래도 촌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살아버리지 죽은 혼사 하려고 세상이 변해서 죽은 혼사 하려고 안 합니다.)

112022 @ 막 생각허는 집이나 허주.(아주 생각하는 집이나 하지.)

112022 #1 예, 이젠 옛날 답지 안 흐영 안 흡니다게. 죽어불언 살 때도 못 본 사름 죽어불영 허여시민 어떻, 말아시민 어떻, 홀아방으로 그냥 총각으로 그냥 살아불주.(예, 이젠 옛날 답지 안 해서 안 합니다. 죽어버려서 살 때도 못 본 사람 죽어버려서 하였으면 어떻게, 말았으면 어떻게, 홀아버지로 그냥 총각으로 그냥 살아버리지.)

112023 @ 혼례와 관련하여 어떤 금기 사항이 잇수과? 금기 사항.(혼례와 관련하여 어떤 금기 사항이 있습니까? 금기 사항.)

112023 #1 금기 뭐라.(금기 뭐라.)

112023 @ 잔치흐쟁 흐민은 어디 가지 말랭 그 금기 사항.(잔치하려고 하면은 어디 가지 말라고 그 금기 사항.)

112023 #1 아니, 잔치흐젠 흐민양, 저 영장 난 디 흐 댓췌 전의 가지말랭 흡니다. 영장난, 잔치흐는 집의 사름은. 우리가 잔칠 흐젠 흐민은 흐 열흘 전의 영장난 디 가지 말랭 흡니다. 이젠 경 안 흡니다. 기자 무조건 흐게 집의서 아니, 영안실에 낡 들러싸부는디 영장 신디 뱅점수과? 아니, 눈 감으나 마나 흐영 멘도롱홀 때 영안실에 뱅겨사주, 메누리덜은 아프민 아침에 탁탁 해불민 도새기 잡앙 퀘기만 먹젠 싸웁니다. 경 영장칩의 감수과? 나 원. 산 때 물 흐 적 안 췌당 죽으면 영안실 멘도롱흐디 들이쳐뵤 부주만 받젠 도새기 잡으멍 막 출려, 아침에 탁탁 일어낭.(아니, 잔치하려고 하면요, 저 영장 난 데 한 닷새 전에 가지말라고 합니다. 영장 난, 잔치하는 집에 사름은. 우리가 잔치를 하려고 하면은 한 열흘 전에 영장 난 데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젠 그렇게 안 합니다. 그저 무조건 하게 집에서 아니, 영안실에 넣어서 내팽개쳐버리는데 영장 있는데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 눈 감으나 마나 해서 따뜻할 때 영안실에 다녀야지, 며느리들은 아프면 아침에 탁탁 해버리면 돼지 잡아서 고기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상가에 가고 있습니까? 나 원. 산 때 물 한 적 안 췌다가 죽으면 영안실 따뜻한데 들이쳐 뵤서 부조만 받으려고 돼지 잡으면서 마구 차려, 아침에 탁탁 일어나서.)

112023 @ 돈 세상이주.(돈 세상이지.)

112023 #1 이젠 집의서 햄수과게? 그저 죽으면게 저 복지과고 돈 서귀 일원이

고 어디서 다 해불민 무사 집의서 영장호곡 하간거 햄수과? 영장 난 디 답지도 안  
합니다.(이젠 집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저 죽으면 저 복지관이고 모두 서귀 일원이  
고 어디서 다 해버리면 왜 집에서 영장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까? 영장 난 데  
답지도 안 합니다.)

### 상례

112024 @ 그다음엔양 상례에 대해 알아보쿠다양. 그 사람이 죽으면은, 죽으면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우파? 죽으면은. 집의서 죽으면은 어떻 확인합니까?(그다음  
에는 상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은, 죽으면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죽으면은. 집에서 죽으면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112024 #1 어떻 확인해? 죽으면 마기주게.(어떻게 확인해? 죽으면 끝이지요.)

112024 @ 아니, 그난 영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우파?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  
인지.(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  
인지.)

112024 #1 아니우다게. 아팜 죽어 가민 애기덜이 문 앓양 상식을 흐거든.(아닙니  
다. 아파서 죽어 가면 아기들이 모두 앓아서 상식을 하거든.)

112024 @ 게난 그 숨이 멈춘 걸 어떻 확인호여?(그러니까 그 숨이 멈춘 것을  
어떻게 확인해?)

112024 #1 다 알아져갑니다게.(다 알아져갑니다.)

112024 @ 경해도.(그래도.)

112024 #1 눈 감아볼곡 느릿호영 편찍이주게, 편찍이라. 게도 숨 팔락팔락 호당  
숨이 엇어져불민 멘닥호영 매기주게. 경호민 그것이 숨 거두는 거주게.(눈 감아버리  
고 나뉘해서 가만히 있지요, 가만히 있지. 그래도 숨 팔락팔락 하다가 숨이 없어져  
버리면 평평해서 끝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숨 거두는 거지.)

112025 @ 혼 불르지양? 사람 죽으면은.(혼 부르지요? 사람 죽으면은.)

112025 #1 혼 불르는 거.(혼 부르는 거.)

112025 @ 어떻 불러?(어떻게 불러?)

112025 #1 거는 대렴호는 날 하르방이 죽으면은 만약의 이제는 장의사 빌영 해  
불주게. 오춘이민 오춘, 조캐민 조캐 호민 삼촌 웰 철이민 “아무 가의 삼촌 보.” 해  
불주게, 지봉의서.(거는 대렴하는 날 할아버지가 죽으면은 만약에 이제는 장의사 빌  
어서 해버리지. 오춘이면 오춘, 조카면 조카 하면 삼촌 될 철이면 “아무 가의 삼촌  
보.” 해버리지, 지봉에서.)

112025 @ 그 옷 해근에, 입어난 옷.(그 옷 해서, 입었던 옷.)

112025 #1 입은 옷, 흔적삼. 와이사스나 우의 거. 흔적삼 으정강 영 흔들르명.  
(입은 옷, 흔적삼. 와이셔츠나 위에 거. 흔적삼 가져가서 이렇게 휘두르면서.)

112025 @ 어디 강 불러?(어디 가서 불러?)

112025 #1 그건 집의선 지봉 우의.(그건 집에서 지봉 위에.)

112025 @ 지붕 위에 올라강?(지붕 위에 올라가서?)

112025 #1 저 거시기 한라의료원은 또 흐끔 더 흐끔 올라강, 가이당으로 올라강 경 불르는 게 혼 불르는 거, 혼 불러다 놓는 거. 혼적삼 그거 혼둘렁 혼 불러당 낭 머리에 싸주게.(저 거시기 한라의료원은 또 조금 더 조금 올라가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혼 부르는 거, 혼 불러다 놓는 거. 흘적삼 그거 휘둘러서 혼 불러다가 놓아서 머리에 싸지요.)

112025 @ 몇 번 불릅니까?(몇 번 부릅니까?)

112025 #1 혼 서너 번.(한 서너 번.)

112025 #2 세 번.(세 번.)

112025 @ 세 번?(세 번?)

112025 #1 세 번. 게민 우리 하르방이 죽으면 조캐가 혼 불르젠 흐민 “삼춘 보.” 해볼주게. 게민 혼적삼에 싸다근에 머리에 낚주, 혼 불러다 놓는 거, 관 안터 레.(세 번.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죽으면 조카가 혼 부르려고 하면 “삼춘 보.” 해 버리지요. 그러면 흘적삼에 싸다가 머리에 놓고 있지, 혼 불러다 놓는 거, 관 안으로.)

112026 @ 장지 마련은 어떻 험니까? 여기서 장지 마련.(장지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112026 #1 장 날 때 먹는 거?(장 날 때 먹는 거?)

112026 @ 아니, 장지, 장지. 사름이 이제 산 이제, 산터 봐야할 거 아니우짜?(아니, 장지, 장지. 사름이 이제 묘 이제, 뫏자리 봐야할 거 아닙니까?)

112026 #1 산터 보는 건 정시 돌아당, 이녁 공동묘지 잇인 사름은 공동묘지, 엇인 사름은 어디 강 산터 보는 건 정시 돌아당 보는 거. 미룻에 빵 놔두는 사름은 빵 놔두곡.(뫏자리 보는 건 지관 데려다가, 이녁 공동묘지 잇는 사름은 공동묘지, 없는 사름은 어디 가서 뫏자리 보는 건 지관 데려다가 보는 거. 미리 봐서 놔두는 사름은 봐서 놔두고.)

112027 @ 게난 관하고 횡대는 어떻 마련릅니까?(그러니까 관하고 횡대는 어떻게 마련릅니까?)

112027 #1 관은게 죽은 후제사 가근에 재영 가근에게 관 차는디 가근에 흐여오 람주게. 서귀의료원 흐민 서귀포서 어디 관 차근에 그디 장의사덜이 다 해왓주게. (관은 죽은 후제야 가서 재어서 가서 관 짜는데 가서 해오고 있지요. 서귀의료원 하면 서귀포서 어디 관 짜서 거기 장의사들이 다 해오고 있지요.)

112027 @ 관양, 그 무슨 관 요즘 보통 흐여.(관요, 그 무슨 관 요즘 보통 해.)

112027 #1 그건 이녁이 알아서 허는 거주게, 무신.(그건 이녁이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112027 @ 요즈음 보면은 오등나무 관.(요즘 보면 오등나무 관.)

112027 #1 이제 오등나무가 어디 잇어.(이제 오등나무가 어디 잇어.)

112027 @ 노가리낭?(주목?)

112027 #2 노가리냥이 어디 있어.(주목이 어디 있어.)  
 112027 @ 횡대는 개관 다텔다.(횡대는 ‘개관’ 다텔데.)  
 112027 #1 개관은 더끄는 거고, 관은 딱로 잇주게.(횡대는 덮는 거고, 관은 따로  
 있지요.)  
 112027 @ 게메 개관은 어떻 마련혀여.(그럼 횡대는 어떻게 마련해.)  
 112027 #1 개관은 요만씩 흔, 그디서 관혀는 디서 개관 ㄴ찌 오주게.(횡대는 요  
 만큼씩 한, 거기서 관하는 데서 횡대 같이 오지요.)  
 112027 @ ㄴ찌 와?(같이 와?)  
 112027 #1 영장밧드레 ㄴ져다 놓는 거, 건.(장지로 가져다 놓는 거, 건.)  
 112027 @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땐 소낭밧디 가네 늘소낭 해단 권에.(우리 어머  
 니 돌아가실 때는 소나무밭에 가서 날소나무 해다가 태워서.)  
 112027 #1 예, 옛날엔 소낭도 햏주게.(예, 옛날에는 소나무도 햏지요.)  
 112027 @ 막 두꺼윈.(아주 두꺼워서.)  
 112027 #2 것도 생각혀난 구멍 햏수다.(것도 생각하니까 태우면서 햏습니다.)  
 112027 @ 자귀로 깍으멍.(자귀로 깍으면서.)  
 112027 #1 게메 그때는 경 햏영, 이젠 경 안 햏영 사당 다 햏불엿수다. 개관은  
 영장밧드레 으져가주.(그럼 그때는 그렇게 햏서, 이젠 그렇게 안 햏서 사다가 다 햏  
 버리고 있습니다. 횡대는 장지로 가져가지.)  
 112028 @ 수의햏고 상복은 어떻 마련햏니까? 우선 수의.(수의햏고 상복은 어떻  
 게 마련햏니까? 우선 수의.)  
 112028 #1 수의는 죽을 때 입는 것이 수의주게.(수의는 죽을 때 입는 것이 수의  
 지요.)  
 112028 @ 게 어떻 마련혀여.(게 어떻게 마련해.)  
 112028 #1 죽으민 이녁이 미룻에.(죽으면 이녁이 미리.)  
 112028 @ 잔칫날 햏지, 잔칫날?(잔칫날 하지, 잔칫날?)  
 112028 #1 잔칫날 아니.(잔칫날 아니.)  
 112028 @ 수의, 그 잔치햏 때 그.(수의, 잔치햏 때 그.)  
 112028 #1 도복 그건, 도복 잔치햏 때 햏는 거고.(도복 그건, 도복 잔치햏 때 햏  
 는 거고.)  
 112028 @ 아니, 그난 수의를 만들야.(아니, 그러니까 수의를 만들어.)  
 112028 #1 건 늑어사 멘드는 거주. 젊을 때 잔치햏는 날 죽은 수의를 멘들양 놆  
 뉘?(건 늑어야 만드는 거지. 젊을 때 잔치햏는 날 죽은 수의를 만들어서 놆뉘?)  
 112028 @ 놆뉘.(놆뉘.)  
 112028 #1 아니, 잔칫날 안 햏는 거. 거는 도복이영 입어난.(아니, 잔칫날 안 햏  
 는 거. 거는 도복이랑 입어난.)  
 112028 @ 잔치햏기 전의.(잔치햏기 전에.)  
 112028 #1 잔치햏기 전윈 잔치햏는 날 입어난 거 놓는 거고, 수의는 이 손툽햏

는 거 문딱 바지저고리영 다 죽은 옷을 멩지로 멘드는 사름 잇곡, 사당 그때 죽으  
 민 금방 ㄴ져당 사당 입는 사름, 이젠 수의 잘 멩글지 안 햏여. 문딱 그때사, 죽으  
 민 기자 강 좋은 거 햏지 기루민 좋은 거, 궂은 거 햏지 기루민 궂은 거, 경 햏는  
 따문. 수의 미룻에 안 햏여, 이제까지. 경햏고 상제웃도 다 옛날엔 해 놔뒀신디 뉘,  
 이젠 가민 멘든 거 사당 탁탁 입져, 그날 영장뵈디서 다 슬앙 데껴부는 거 무신.(잔  
 치하기 전에는 잔치하는 날 입엿던 거 넣는 거고, 수의는 이 손뚱하는 거 모두 바  
 지저고리랑 다 죽은 옷을 명주로 만드는 사람 있고, 사다가 그때 죽으면 금방 가  
 쳐다가 사다가 입는 사람, 이젠 수의 잘 만들지 안 해. 모두 그때야, 죽으면 그저  
 가서 좋은 거 하고 싶으면 좋은 거, 궂은 거 하고 싶으면 궂은 거, 그렇게 하는 때  
 문. 수의 미리 안 해, 이제까지. 그리고 상복도 다 옛날에는 해 놔뒀는데 뉘, 이젠  
 가면 만든 거 사다가 탁탁 입혀, 그날 장지에서 다 사려서 던져버리는 거 무슨.)

112028 @ 상복은, 상복은 어떻 마련햏여?(상복은, 상복은 어떻게 마련해?)

112028 #1 상복은 그디 가근에게.(상복은 거기 가서.)

112028 @ 아니, 옛날엔 집의서 멘들지 안 햏여?(아니, 옛날에는 집에서 만들지  
 안 해?)

112028 #1 집의서 멘들앙 다 놔뒀신디, 옛날엔 해 놔뒀당 삼 년, 삼년상 햏젠  
 햏민 삭망 때도 입곡, 맨날 입어신디 이제는 뉘,(집에서 만들어서 다 놔뒀는데, 옛  
 날에는 해 놔뒀다가 삼 년, 삼년상 하려고 하면 삭망 때도 입고, 맨날 입었는데 이  
 제는 뉘.)

112028 @ 아니, 그난 옛날 걸로 곱아줍서.(아니, 그러니까 옛날 것으로 말해주  
 십시오.)

112028 #1 옛날 그거주게. 삭망 햏젠 햏민 삼 년을 입엇다가 벗엇다가 해야 뉘  
 어. 게민 상복은 집의서 멩글앙 놔뒀당 영장 나민 통두건<sup>319)</sup>햏곡, 저 아덜 상제  
 뜨나곡, 사위 뜨나곡, 치메 뜨나곡, 경 햏주게. 광목은 건 복친덜, 광목몹빠 ㄴ튼  
 거, 치멘 복친덜 해주곡, 두건은 따시 복친덜 다 두건 썩우곡.(옛날 그거지요. 삭망  
 하려고 하면 삼 년을 입엇다가 벗엇다가 해야 돼. 그러면 집에서 만들어서 놔뒀다  
 가 영장 나면 ‘통두건’하고, 저 아들 상제 다르고, 사위 다르고, 치마 다르고, 그렇  
 게 하고 있지요. 광목은 건 복친들, 광목바지 같은 거, 치마는 복친들 해주고, 두건  
 은 다시 복친들 다 두건 썩우고.)

112028 @ 그 상복 집의서 멩글아근에.(그 상복 집에서 만들어서.)

112028 #1 멩글아, 옛날엔 멩글앗주, 이제는 아니 멩글아.(만들어, 옛날에는 만  
 들엇지, 이제는 아니 만들어.)

112028 @ 그다음에 상복, 이제는 뉘 일년상, 최고 햏민 일년상.(그다음에 상복,  
 이제는 뉘 일년상, 최고 하면 일년상.)

112028 #1 일 년은 어느 저를에, 석 들도 안 햏수다.(일 년은 어느 겨를에, 석  
 달도 안 하고 있습니다.)

319) ‘통두건’은 두건의 윗부분을 꿰매지 않은 채 쓰는 두건. 성복(成服) 전에 쓴다.

112028 @ 아니, 우리 일년상 해신디, 졸곡, 졸곡 날 태우는가?(아니, 우리 일년상 했는데, 졸곡, 졸곡 날 태우는가?)

112028 #1 무싱거?(무엇?)

112028 @ 상복을.(상복을.)

112028 #1 상복은 대렴하는 날, 그날 태우주. 그날 입어사 저 대렴하는 거.(상복은 대렴하는 날, 그날 태우지. 그날 입어야 저 대렴하는 거.)

112028 @ 아니, 아니. 거 상복 입다근에, 저 졸곡 날 허는가?(아니, 아니. 거 상복 입다가, 저 졸곡 날 하는가?)

112028 #1 졸곡 날 아니, 대상하민 대상하는 날 술아부는 거.(졸곡 날 아니, 대상하면 대상하는 날 사러버리는 거.)

112028 @ 아니, 그날 대상 다음에 또 잊지 안하우파?(아니, 그러니까 대상 다음에 또 잊지 않습니까?)

112028 #1 대상 다음 담제, 담제 끝나면은.(대상 다음 담제, 담제 끝나면은.)

112028 @ 담제 다음에 스는 거 아니?(담제 다음에 사르는 거 아니?)

112028 #1 스는 사름도 잇곡, 놔뒀당 옷 행 입곡, 튼영.(사르는 사람도 있고, 놔뒀다가 옷 해서 입고, 뜯어서.)

112028 @ 담제, 담제.(담제, 담제.)

112028 #1 담제 넘어사 그건.(담제 넘어야 그건.)

112028 @ 그다음에 대상 다음에 졸곡이지양?(그다음에 대상 다음에 졸곡이지요?)

112028 #1 아니, 대상 전의 졸곡 잇주게, 따로게.(아니, 대상 전에 졸곡 있지요, 따로.)

112028 @ 대상 전의?(대상 전에?)

112028 #1 소장 전의.(소장 전에.)

112028 @ 응, 마지막이 담제구나.(응, 마지막이 담제구나.)

112028 #1 예, 마지막이 담제. 담제 해나민 상복은 뭐 데껴불젠 하민 데껴불곡, 옷 하영 입젠 하민 하영 입고.(예, 마지막이 담제. 담제 해나면 상복은 던져버리려고 하면 던져버리고, 옷 해서 입으려고 하면 해서 입고.)

112028 #2 술아불젠 하민 술아불고.(사러버리려고 하면 사러버리고.)

112028 @ 우리도 담젯날 술앗주게.(우리도 담젯날 사렸지요.)

112028 #1 예, 담젯날 스는 거.(예, 담젯날 사르는 거.)

112028 @ 우린 담제까지 해수다, 우리 어머니.(우린 담제까지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112028 #1 우리도 시아버지 담제까지 다 해수다. 이제는 담제랑 마랑 어느 저를에, 그날 장밋디서 다 행 설러불어.(우리도 시아버지 담제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는 담제랑 마랑 어느 겨를에, 그날 장지에서 다 해서 끝내버려.)

112028 @ 일 년 상식하고.(일 년 상식하고.)



112028 #1 상식도 안 낚수게.(상식도 안 놓고 있습니다.)

112028 @ 우린 일 년 꼭 상식호연.(우린 일 년 꼭 상식하였어.)

112028 #1 우린 저 시아방는 삼 년하고, 시어명은 이 년하고, 경 했수다, 밥. 점심, 저녁 구짜 놓곡. 이제는 어느 저를에 영장밧디서 다 행 치와뵤 문들락이 상도 안 낚수다.(우린 시아버지는 삼 년하고, 시어머니는 이 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밥. 점심, 저녁 곧장 놓고. 이제는 어느 겨를에 장지에서 다 해서 치워뵤서 훌딱 상도 안 놓고 있습니다.)

112029 @ 상장호고양, 짝동에 대행 말해줍서.(상장하고요, 짝동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112029 #1 짝동은 그거게.(짝동은 그거.)

112029 @ 상장은 그거 뵤.(상장은 그거 뵤.)

112029 #1 방장대.(상장.)

112029 @ 방장대는?(상장은?)

112029 #1 방장대는 어명은 머귀냥, 아방은 대, 대막댕이,왕대막댕이, 그거. 아방은 외골수로 준셈이 엇이난 마디마디 막작만 하고, 어명은 숨숨 준셈이 시난 머귀냥. 머귀냥은 그거 가시 돋은 거 아니우파게? 그거 그 어명은 죽으면 머귀냥, 아방은 죽으면 대막댕이.(상장은 어머니는 머귀나무, 아버지는 대, 대막대기, 왕대막대기, 그거. 아버지는 외곶으로 자잘한 정이 없으니까 마디마디 마디만 하고, 어머니는 촘촘 자잘한 정이 있으니까 머귀나무. 머귀나무는 그거 가시 돋은 거 아닙니까? 그거 그 어머니는 죽으면 머귀나무, 아버지는 죽으면 대막대기.)

112029 @ 짝동?(짝동?)

112029 #1 짝동은 똑 그트고.(짝동은 똑 같고.)

112029 @ 멧 번 묶어?(멧 번 묶어?)

112029 #2 일곱 개, 일곱 개.(일곱 개, 일곱 개.)

112029 #1 영 친 거 일곱 개 묶어십디다.(이렇게 친 거 일곱 개 묶었습니다.)

112029 @ 일곱 개 묶어, 무사 일곱 개 묶어?(일곱 개 묶어, 왜 일곱 개 묶어?)

112029 #1 건 몰라.(건 몰라.)

112029 @ 다 이유가 잇일 건디?(다 이유가 있을 건데?)

112029 #1 아니, 일곱 개 묶어십디다.(아니, 일곱 개 묶었습니다.)

112029 @ 아니, 사름 그 저 돌아가셔근에 묶을 때도 일곱 끈, 일곱 끈을 묶거든, 건 묶은 다음에 풀거든.(아니, 사람 그 저 돌아가셔서 묶을 때도 일곱 끈, 일곱 끈을 묶거든, 건 묶은 다음에 풀거든.)

112029 #1 경호난에 일곱 개 묶곡 열두 막작, 열두 개, 열두 막작을 클러야 뵤어. 열두 개, 열두 막작 묶읍니다. 베로, 베로 묶으면 애기<sup>320</sup>덜이 클르주게.(그러니까 일곱 개 묶고 열두 마디, 열두 개, 열두 마디를 끌어야 돼. 열두 개, 열두 마디를 묶읍니다. 베로, 베로 묶으면 자식들이 꼬르지요.)

320) '애기'는 아기인데, 여기서는 자식을 뜻한다.

112029 @ 예, 거 클르주게.(예, 거 크르지요.)

112029 #1 열두 므작. 열두 므작을 묶어사 바른 말허여, 경 허명. 열두 므작이우다. 일곱 므작은 처음에 소렴홀 때 일곱이고, 대렴허젠 허민 열두 므작.(열두 마디. 열두 마디를 묶어야 바른 말해, 그렇게 하면서. 열두 마디입니다. 일곱 마디는 처음에 소렴할 때 일곱이고, 대렴하려고 하면 열두 마디.)

112029 #2 소렴, 대렴홀 때 그거 신체 묶으는 거주게.(소렴, 대렴할 때 그거 신체 묶는 거지요.)

112029 #1 예게, 시체, 사름 영장 딱 묶어부는 거, 깃딱허지 못허게.(예게, 시체, 사름 영장 딱 묶어버리는 거. 끄떡하지 못허게.)

112030 @ 두건허고 복치마양, 어떻 마련허고 누구에게 줍니까? 두건.(두건하고 복치마, 어떻게 마련하고 누구에게 줍니까? 두건.)

112030 #1 두건은 일가방상, 권당, 웨가고 성가고 두건 다 주곡, 따시 복치메도 저 브딘, 브딘 조캐나 누젠 치메주곡, 이젠 몸빠로 다 행 쥐부러, 광목몸빠.(두건은 일가방상, 권당, 외가고 성가고 두건 다 주고, 다시 복치마도 저 가까운, 가까운 조캐나 누구는 치마주고, 이젠 바지로 다 해서 쥐버러, 광목바지.)

112030 @ 광목.(광목.)

112030 #1 예, 광목몸빠로, 이젠 치메도 엇어.(예, 광목바지로, 이젠 치마도 없어.)

112030 @ 어떻 마련해여?(어떻게 마련해?)

112030 #1 거 사오람주.(거 사오고 있지.)

112030 @ 그때는 집의서 멩글앗지양?(그때는 집에서 만들었지요?)

112030 #1 옛날엔 멘들아신디.(옛날에는 만들었는데.)

112030 @ 아, 그난 옛날.(아, 그러니까 옛날.)

112030 #1 옛날엔 영장 나면은 두건 접는 사름, 베웃 허는 사름 막 앓아근에 풋죽 들어오민 떡곡, 이제는 그거 엇영 홀 거 다 사당 태와불민.(옛날에는 영장 나면은 두건 접는 사름, 베웃 하는 사름 마구 앉아서 팔죽 들어오면 먹고, 이제는 그거 없어서 한 거 다 사다가 태워버리면.)

112030 @ 게난 옛날 걸 곶아줍서.(그러니까 옛날 것을 말해주십시오.)

112030 #1 옛날 건 그거주게. 멘드는 날 풋죽 으져오민, 사돈 집의서 풋죽 썬오민 떡곡, 두건도 접곡, 베웃도 허곡 다 해서.(옛날 건 그거지요. 만드는 날 팔죽 가져오면, 사돈 집에서 팔죽 썬오면 먹고, 두건도 접고, 베웃도 하고 다 했어.)

112031 @ 풋죽에 대행 홀 번 곶아줍서.(팔죽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112031 #1 풋죽은 영장 나면은 사돈집의서 풋죽을 썬오주게. 게난 옛날은 사돈마다 풋죽을 썬와신디, 이젠 라면으로만 허는 따문에, 이 풋죽이라 하는 거는양, 사름 죽으민 방법이라, 방법이라양. 게난 풋죽이 들어올 디 엇이민 그 영장 난 집의서 풋죽을 썬야 웨어. 게민 정심도게 어떻 밥행 맥여집니까? 이젠 풋죽 푼난 문 딱 사돈 먹음수게. 풋죽 흠도 쉬엄주, 무신. 사다근에 뭐 탁탁 맥여부난.(팔죽은 영

장 나면은 사돈집에서 팔죽을 썬 오지요. 그러니까 옛날은 사돈마다 팔죽을 썬 왔는데, 이젠 라면으로만 하는 때문에, 이 팔죽이라 하는 거는요, 사람 죽으면 방법이 라,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팔죽이 들어올 데 없으면 그 영장 난 집에서 팔죽을 썬야 돼. 그러면 점심도 어떻게 밥해서 먹여집니까? 이젠 팔죽 파니까 모두 사다가 먹고 있지요. 팔죽 함도 쉬고 있지, 무슨. 사다가 탁탁 먹어버리니까.)

112031 @ 풋죽 이제 먹어난 다음에는.(팔죽 이제 먹어난 다음에는.)

112031 #1 풋죽 먹어난 다음엔게.(팔죽 먹어난 다음에는요.)

112031 @ 뭘 흡니까?(뭘 합니까?)

112031 #1 뭘 흡 거 있어게.(뭘 할 거 있어.)

112031 @ 성복제를 흡 거 아니우파?(성복제를 할 거 아닙니까?)

112031 #1 성복제사 무신 어느 때, 성복제 해나사 풋죽 먹엄주, 무신.(성복제야 무슨 어느 때, 성복제 해나야 팔죽 먹고 있지, 무슨.)

112031 @ 아, 거난 풋죽 썰 오면은 성복제 해난 다음에.(아, 그러니까 팔죽 썬서 오면 성복제 한 다음에.)

112032 @ 성복제에 대행 흡 번 곁아줍서.(성복제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112032 #1 성복제 흡는 건 제물 올려근에 흡는 거주. 제 흡는 거주, 삭망흡듯 성복젠, 그거. 성복제 해나사 옷덜 입곡, 베옷도 입곡, 풋죽 먹곡, 성복제허기 전윈 풋죽 아니 먹어.(성복제 하는 건 제물 올려서 하는 거주. 제 하는 거지, 삭망 하듯 성복제는, 그거. 성복제 해나야 옷들 입고, 베옷도 입고, 팔죽 먹고, 성복제하기 전에는 팔죽 아니 먹어.)

112032 @ 상도 못 폐와.(상도 못 폐.)

112032 #1 예, 상도 못 폐우곡, 게민 성복 해나민 상제덜 문 두건도 쓰곡, 문딱 일가방상 두건도 주곡, 상제덜 옷 입곡 다 흡는 거게. 머리창 들이곡, 건 성복 해나사.(예, 상도 못 폐고, 그러면 성복 해나면 상제들 모두 두건도 스고, 모두 일가방상 두건도 주고, 상제들 옷 입고 다 하는 거지. 머리창 들고, 건 성복 해나야.)

112032 @ 성복 흡면은 이제는 다 뉘 거 아니우파양?(성복 하면은 이제는 다 뉘 거 아닙니까?)

112032 #1 다 뉘 거.(다 뉘 거.)

112032 @ 관도 다 뉘 뉘고.(관도 다 뉘 되고.)

112032 #1 다 행 저레 들여놔볼고.(다 해서 저리로 들여놔버리고.)

112032 @ 이제 따른 데 읍기고.(이제 다른 데 읍기고.)

112032 #1 영안실더레 되물어볼고.(영안실로 집어넣어버리고.)

112032 @ 성복제. 거난 이 성복제도 보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딱 우리안티 흡는 말이 흡나 있어양.(성복제. 그러니까 이 성복제도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딱 우리한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112032 #1 어머님이 먼저 돌아갔구나.(어머님이 먼저 돌아갔구나.)

112032 @ 아버지가 살아계시우다게.(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112032 #1 이제? 아이구.(이제? 아이고.)

112032 @ 예, 겐디 그 아덜덜, 딸덜안티 딱 흐는 말이 성복제까지는 자기가 알 아근에 모든 걸 처리허갓다.(예, 그런데 그 아들들, 딸한테 딱 하는 말이 성복제까지는 자기가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하갓다.)

112032 #1 예, 맞수다. 성복제 흐 후제가 흐주.(예, 맞습니다. 성복제 한 후제가 하지.)

112032 @ 성복제 이후는 너네가 알앙 흐고, 성복제까지는 내가 관이든 뭐든 내가 다 알아서 흐갓다. 경 흡디다게.(성복제 이후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성복제까지는 내가 관이든 뭐든 내가 알아서 하갓다. 그렇게 합디다.)

112032 #1 예, 맞수다게. 성복제 흐연 꺾나민 음식 흐영 백엇든 말앗든 마련흐 명덜 무신 흐는 거주게.(예, 맞습니다. 성복제 해서 끝나면 음식 해서 먹엇든 말앗든 마련하면서들 무슨 하는 거지.)

112032 @ 옛날 그런 걸 잘 압주게. 계난에 딱 성복제까지는 알앙 허곡.(옛날 그런 것을 잘 알지요. 그러니까 딱 성복제까지는 할아서 하고.)

112032 #1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셔구나. 당신만 따로 살았구나.(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시고 있구나. 당신만 따로 살고 있구나.)

112032 @ 예.(예.)

112032 #1 따로 살아사주게. 흐디 못 살아 아이덜이영. 색달리<sup>321)</sup> 샅니까?(따로 살아야지요. 함께 못 살아 아이들이랑. ‘색달리’ 샅니까?)

112032 @ 예.(예.)

112032 #1 멧 오누이우파? 계난.(멧 오누이입니까? 그러니까.)

112032 @ 우리 저 다섯 오누이.(우리 저 다섯 오누이.)

112032 #1 아, 아덜 두 개.(아, 아들 두 개.)

112032 @ 아덜 셋.(아들 셋.)

112032 #1 아, 아덜 삼형제에 딸 둘, 다섯 오누이?(아, 아들 삼형제에 딸 둘, 다섯 오누이?)

112032 @ 아덜 사형제에 딸 하나.(아들 사형제에 딸 하나.)

112032 #1 아, 단딸 애기로구나. 아이고, 아덜 스형제. 저 부친은 부자여. 아덜 한 사람이 돈 하영 베푼 사람이주. 그 아이덜 다 공부시키고 허젠 흐난 스몯.(아, 외딸 아기로구나. 아이고, 아들 사형제. 저 부친은 부자여. 아들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번 사람이지. 그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사몯.)

112033 @ 이어근에양, 그다음에 일포제에 대행 곶아줍서.(이어서요, 그다음에 일포제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12033 #1 일포? 사름 죽으민게, 일포는 오닐 도새기 잡아근에게, 벨은 일포 흐

321) ‘색달리’는 서귀포시 색달동을 일컫는다.

여근에 고렘꾼 오민 절혀여근에 음식 마련혀영, 옛날 밥으로만 했주만은, 이젠 국수도혀곡, 밥도 혠퉉 아무 거라도 햐주게. 경흔디 고렘꾼덜 오랑 봉투 낱 절혀민은 그뎨 손님 대우라. 밥을 햐 햐 먹엿던, 떡국을 햐 햐 먹엿던 손님 대우는 주인이 혀는 거, 것이 일포.(일포? 사람 죽으면요, 일포는 오늘 돼지 잡아서, 내일은 일포 해서 조문객 오면 절해서 음식 마련해서, 옛날 밥으로만 했지만은, 이젠 국수도하고, 밥도 하고 아무 거라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조문객들 와서 봉투 낱서 절하면은 그뎨 손님 대우지. 밥을 해서 먹엿든, 떡국을 해서 먹엿든 손님 대우는 주인이 하는 거, 것이 일포.)

112033 @ 일포제는 안 햐니까?(일포제는 안 햐니까?)

112033 #1 일포제 무사 안 혀여. 일포제가 아침에도 잇곡, 따시 저녁에도 잇곡. (일포제 왜 안 햐. 일포제가 아침에도 있고, 다시 저녁에도 있고.)

112033 @ 두 번?

112033 #1 저녁제. 그건 저녁제고 아침에는 일포제.(저녁제. 그건 저녁제고 아침에는 일포제.)

112033 @ 일포제.(일포제.)

112033 #1 시작혀는 거, 그거 일포제고, 저녁은 오후에 혀는 거는 저 거세기 저녁제. 혀루 두 번.(시작하는 거, 그거 일포제고.(시작하는 거, 그거 일포제고, 저녁은 오후에 한니 거는 저 거시기 저녁제. 하루 두 번.)

112033 @ 일포제는 몇 시 정도에 혀여?(일포제는 몇 시 정도에 햐?)

112033 #1 아침에 출려지는 낱 햐 거. 산에도 강 오곡, 저 제혀고, 건 “일포햐수다.” 혀는 제주, 그거.(아침에 차려지는 대로 햐 거. 산에도 가서 오고, 저 제햐고, 건 “일포햐고 있습니다.” 하는 제지, 그거.)

112033 @ 산에 뭐 혀러 가.(산에 뭐 햐러 가.)

112033 #1 산에 갔다 와야 저 집의 제 지난.(산에 갔다 와야 저 집에 제 지내니까.)

112033 @ 산에 그 저 물을 디?(산에 그 저 물을 데?)

112033 #1 물을 디 갔다 오는 사람도 잇고, 기냥 혀는 사람도 잇는디, 보통으로 갔다 읍니다.(물을 데 갔다 오는 사람도 잇고, 그냥 햐는 사람도 잇는데. 보통으로 는 갔다 읍니다.)

112033 @ 저녁제는 혀 몇 시 정도에.(저녁제는 한 몇 시 정도에.)

112033 #1 저녁젠 다섯 시 넘으면, 다섯 시부터 시작햐 혀는 거, 보통 다섯 시에 햐니다, 저녁제.(저녁제는 다섯 시 넘으면, 다섯 시부터 시작해서 햐는 거, 보통 다섯 시에 햐니다, 저녁제.)

112034 @ 부주혀고 조문은 어햐 햐니까?(부조햐고 조문은 어햐 햐니까?)

112034 #1 부주는게 손님게, 만약에 우리 하르방<sup>322</sup> 죽으면 선생님 올 거 아냐 햐? 오민 잣당 오민, 이디 오랑 상주덜 사근에 혀는 디 부주 봉투 낱근에 상주신디

322)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이다.

인사하곡.(부조는 손님, 만약에 우리 ‘하루방’ 죽으면 선생님 올 거 아닙니까? 오면  
왔다가오면, 여기 와서 상주들 서서 하는 데 부조 봉투 넣어서 상주에게 인사하고.)

112034 @ 옛날은 돈으로 해서마썸?(옛날은 돈으로 했어요?)

112034 #1 옛날도 돈.(옛날도 돈.)

112034 @ 그 저 뒷도 하지 안 해수과? 만세.(그 저 뒷도 하지 안 했습니까? 만  
장.)

112034 #1 만세가 하주. 옛날엔 만세가 하. 게난 아이고 오늘 만세 잘도 하다,  
경 흐명, 우리 시아버진 만세 쓰는 하루방이어나서.(만장이 많지. 옛날엔 만장이 많  
아.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만장 잘도 많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아버지는 만장  
쓰는 할아버지였어.)

112034 @ 붓글씨로.(붓글씨로.)

112034 #1 막 만세 쓰래 와. 경 흐영 만세가 하주. 옛날엔.(마구 만장 쓰러 와.  
그렇게 해서 만장이 많지, 옛날에는.)

112034 @ 만세 부주도 했고양.(만장 부조도 했고요.)

112034 #1 예, 만세로 그냥 부주주, 남자덜은 보통으로. 켜디 중간에사 남즈 돈  
봉투주. 옛날 어른덜은 문딱 만세.(예, 만장으로 그냥 부조지. 남자들은 보통으로.  
그런데 중간에야 남자 돈 봉투지. 옛날 어른들은 모두 만장.)

112034 @ 여자 분덜은 떡 하지 안 해수과? 빵떡.(여자 분들은 떡 하지 안 했습  
니까? 빵.)

112034 #1 빵떡도 해가곡, 쓸도 해가곡 혼이 엇주.(빵도 해가고, 쌀도 해가고 한  
이 없지.)

112034 @ 빵떡해근에 차롱착에 해근에.(빵해서 ‘채롱짜’에 해서.)

112034 #1 예게, 빵떡 반양 강 영장에 올려냥 거 또 주민 집의 오랑, 또 다른  
집의 갈 때도 또 그거 ㄹ정가곡, 아이고 옛날엔 경 해수다.(예게, 빵 받아서 가서  
영장에 올렸던 거 또 주면 집에 와서, 또 다른 집에 갈 때도 또 그거 가져서가고,  
아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112035 @ 토신제 해야지 안흐우파?(토신제 해야지 않습니까?)

112035 #1 토신젠 집의서 토신제.(토신제 집에서 토신제.)

112035 @ 아니, 그 사름.(아니, 그 사람.)

112035 #1 사름 죽으면 토신엔.(사람 죽으면 토신에는.)

112035 @ 그 저 그디 물을 산에 가근에.(그 저 거기 물을 산에 가서.)

112035 #1 예, 산에 토신제, 그건 누게 메경 흐는 거.(예, 산에 토신제, 그건 누  
구 맡겨서 하는 거.)

112035 @ 양?(예?)

112035 #1 이녁 집의선 건 아니 흐는 거. 영장 난디선 빌영 안 돼어. 게난 다른  
사름 토신제 메끼주게. 딱 메끼민 그 사름 영장칩의 오지도 안 흐영 그 집의서 출  
려근에, 물제 사다 쥐불민은 미릇에 사다주나, 돈으로 흐켄 흐민 이녁냥으로 사당

흐렌 돈으로 줘붙어. 경 행 비리민 안 돼주게, 토신젠.(이녁 집에서는 건 아니 하는 거. 영장 난데서는 빌어서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토신제 맡기지요. 딱 맡기면 그 사람 영장집에 오지도 안 해서 그 집에서 차려서, 물자 사다 줘버리면은 미리 사나주나, 돈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녁대로 사다가 하라고 돈으로 줘버려. 그렇게 해서 더러우면 안 되지요, 토신제는.)

112035 @ 게난 그 전날 흐지 안 흡니까양? 토신제는, 저 영장날.(그러니까 그 전날 하지 안 합니까? 토신제는, 저 영장날.)

112035 #1 넬 영장이민 이 저녁 밤에 강 햄주.(내일 영장이면 이 저녁 밤에 가서 하고 있지.)

112035 @ 밤에 강?(밤에 가서?)

112035 #1 예, 밤이. 이 밤 저 밤 새 감실 거라.(예, 밤이. 이 밤 저 밤 새 가고 있을 거야.)

112035 #2 건 날 받아사주게.(건 받아야지요.)

112035 @ 흐 새벽 세 시 정도.(한 새벽 세 시 정도.)

112035 #1 예, 넬 일포민 오늘, 저 넬 영장이민 오늘.(예, 내일 일포면 오늘, 저 내일 영장이면 오늘.)

112035 @ 새벽 세 시 정도 흐지.(새벽 세 시 정도 하지.)

112035 #1 예, 경 강 흐는 거, 날 받아오민게 흐는 거주. 시간 받아오주, 시간. 택일에서 시간 잇주게, 세 시에 가는 사람, 두 시에 가는 사람. 경흐고 건 영장에 상제덜 대흐여근에 택일 나오는 거주게.(예, 그렇게 가서 하는 거. 날 받아오면 하는 거지. 시간 받아오지, 시간. 택일에서 시간 있지요, 세 시에 가는 사람, 두 시에 가는 사람. 그리고 건 영장에 상제들 대해서 택일 나오는 거지요.)

112036 @ 상여꾼이 잇지 안흐우파양? 상여꾼.(상여꾼이 잇지 않습니까? 상여꾼.)

112036 #1 상여꾼은 영장 멩가는 사람덜, 영장 생이 썩와근에.(상여꾼은 영장 메어서가는 사람들, 영장 상여 썩워서.)

112036 @ 어떻 그 마련흡니까?(어떻게 그 마련합니까?)

112036 #1 옛날엔 상뒤게, 이 동네 사람 상뒤, 영장 나민 상뒤 빌주게.(옛날엔 상두꾼, 이 동네 사람 상두꾼, 영장 나면 상두꾼 빌지요.)

112036 @ 상뒤꾼양?(상두꾼요?)

112036 #1 상뒤 빌주게, 상뒤. 영장 해줍센 흐영 일가방상 텅기명 영장 해줍서 흐영 다 텅기는데, 이젠 우녁집<sup>323)</sup> 사람도 아니가. 다 장의사 빌령 해부난 가지도 안 흐여.(상두꾼 빌지요, 상두꾼. 영장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일가방상 다니면서 영장 해주십시오 해서 다 다니는데, 이젠 ‘우녁집’ 사람도 아니가. 다 장의사 빌어서 해버리니까 가지도 안 해.)

112036 @ 그난에 옛날은 그 쁘당 아닌 사람덜이.(그러니까 옛날은 그 쁘당 아닌

323) ‘우녁집’은 한 집의 위쪽 울타리 밖에 있는 집이다.

사람들이.)

112036 #1 예, 도상뒤, 전체 빌민 도상뒤.(예, 도상두, 전체 빌면 도상두.)

112036 @ 상여 메곡.(상여 메고.)

112036 #1 예, 전체 빌민 도상이고, 반만 빌민 반만 빌영 도상 안 하고.(예, 전체 빌면 도상이고, 반만 빌면 반만 빌어서 도상 안 하고.)

112036 @ 나도 ㅎ 다섯 번 상여 메어봐수다만은.(나도 한 다섯 번 상여 메어봤 습니다만은.)

112036 #1 (웃음) 쯤 큰 사람이 앞의 메어붙어서.((웃음) 쯤 큰 사람이 앞에 메 어버려서.)

112036 @ 앞의 해불민 죽어져.(앞에 해버리면 죽어져.)

112036 #1 죽어져.(죽어져.)

112036 @ 거난 마을 사름덜이 해주지 안 흡니까양?(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해 주지 안 합니까?)

112036 #1 예, 마을 사름덜이 해주주. 이제는 무신 장의사 빌어부난 상뒤가.(예, 마을 사람들이 해주지. 이제는 무슨 장의사 빌어버리니까 상두꾼이.)

112037 @ 그 운상은 어떻 흡니까? 옛날.(그 운상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

112037 #1 운상은 어어어어어 ㅎ명 영장 메영 가는 거주.(운상은 어어어어어 하 면서 영장 메어서 가는 거지.)

112037 @ 그난 집의서.(그러니까 집에서.)

112037 #1 집의서 영장 메영 나장 나가민 질레에 가명 이젠 차로 ㅎ고, 저디도 가민 차로 문딱 가부림주만은, 옛날은 사름 어깨로만 영장밧디 다 메어갓주게. 경 영장 메영 영장소리 ㅎ명.(집에서 영장 메어서 나가서 나가면 길에 가면서 이젠 차 로 하고, 저기도 가면 차로 가버리고 있지만은, 옛날은 사름 어깨로 장지에 다 메어 갔지요. 그렇게 영장 메어서 영장소리 하면서.)

112037 @ 영장소리 ㅎ여수광?(영장소리 하였습니다니까?)

112037 #1 아기덜 저 흥역ㅎ민 영장소리 안 ㅎ여. 영장 메영가도 속숨ㅎ영 가. (아기들 저 흥역하면 영장소리 안 해. 영장 메어서가도 조용히 가.)

112037 @ 영장소리 알아지쿠과?(영장소리 알아지겠습니까?)

112037 #1 영장 메영가는 소리게.(영장 메어서가는 소리지.)

112037 #2 영장 메는 소리 어어어어 ㅎ민.(영장 메는 소리 어어어어 ㅎ민.)

112037 #1 어어어어.(어어어어.)

112037 @ 어어어어만 흡니까?(어어어어만 합니까?)

112037 #1 어어어어 영장 메는 소리.(어어어어 영장 메는 소리.)

112037 #2 (웃음) 노래 부르는 사름도 잇곡.((웃음) 노래 부르는 사름도 있고.)

112037 #1 벨 거 다 ㅎ여. 맨 앞의 멘 사름이 얼떡주게.(벨 거 다 해. 맨 앞에 멘 사람이 얼떡지요.)

112038 @ 봉분은 어떻 멩급니까?(봉분은 어떻게 만듭니까?)



112038 #1 봉분은 그디 흙 담아당 놔둬. 아시날 강덜 저 켜당덜이 강 흙 어디 먼디 건 흙곡, 그디 엇이민 그디 흑흑고.(봉분은 거기 흙 담아다가 놔둬. 전날 가서 들 저 켜당들이 가서 흙 어디 먼디 건 하고, 거기 없으면 거기 흙하고.)

112038 @ 영장날 허지 안 흑여?(영장날 하지 안 해?)

112038 #1 영장날도 아니고 미룻에 흑 으져당 놔둬사 돼주게. 다른디 흑 흑쟁 흑민, 그 밧디, 영장 묻는 밧디 흑 시민 그날사 흑는 거고, 그날 봉분 흑여. 옛날은 상주덜이 해주만은, 이제는 뭐 장의사가 다 해부난 무신 상관서.(영장날 아니고 미리 흙 가져다가 놔둬야 되지요. 다른데 흙 하려고 하면, 그밭에, 영장 묻는 밧에 흙 있으면 그날이야 하는 거고, 그날 봉분 해. 옛날은 상주들이 했지만은, 이제는 뭐 장의사가 다 해버리니까 무슨 상관있어.)

112038 @ 아, 거난 상주덜 허는 거?(아, 그러니까 상주들 하는 거?)

112038 #1 상주덜 흑는 거 거주게. 하관흑영 봉분 멘들앙 달구정.(상주들 하는 거 거주요. 하관해서 봉분 만들어서 달구짚어서.)

112038 @ 달구.(달구.)

112038 #1 달구정.(달구짚어서.)

112038 @ 달구 노래 알아지쿠광?(달구 노래 알아지겠습니까?)

112038 #1 달구 노래 난 모르켜. 우리 시어명은 달구 잘 허는, 노래 부르는.(달구 노래 난 모르겠어. 우리 시어머니는 달구 잘 하는, 노래 부르는.)

112038 @ 우리 영 옛날 보면은.(우리 이렇게 옛날 보면은.)

112038 #1 막텅이 그 저 거세기 그 무싱거, 그 무싱거.(막대기 그 저 거시기 그 무엇, 그 무엇.)

112038 @ 가운데 영 해근에.(가운데 이렇게 해서.)

112038 #1 가운데 흑 사름 상 봉분 저 선소리 흑곡, 돌아가는 사름은 따로 달구 짚는 소리 흑고.(가운데는 한 사람 서서 봉분 저 선소리 하고, 돌아가는 사름은 따로 달구짚는 소리 하고.)

112038 @ 예, 후렴흑곡.(예, 후렴하고.)

112038 #1 가운데 산 사름은 선소리, 우리 시어명은 선소리 잘 해나서.(가운데 선 사름은 선소리, 우리 시어머니는 선소리 잘 했었어.)

112038 @ 그 선소리 해지쿠광?(그 선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112038 #1 난 못허크라.(난 못하겠네.)

112038 #2 (웃음)

112038 #1 난 그런 거 흑여보지도 안 흑곡. 어어어어 달귀 진다. 경 험게.(웃음)(난 그런 거 해보지도 안 하고. 어어어어 달구짚다. 그렇게 했어.(웃음))

112040 @ 장지에 가민 상뒤꾼아티 음식 대접 잘 허지양?(장지에 가면 상뒤꾼한테 음식 대접 자 하지요?)

112040 #1 밥 맥이곡.(밥 먹이고.)

112040 @ 그걸 흑 번 곱아줍서.(그것을 한 번 말해주십시오.)

112040 #1 그건 정심.(그건 점심.)

112040 @ 그거 누게가 출립니까?(그거 누가 차립니까?)

112040 #1 그건 주인이게, 상제덜이 출리주게.(그건 주인이, 상제들이 차차리지요.)

112040 @ 아, 옛날 우리 저 어머니 할 때 보면은, 우리 웨할아버진가? 보면은 딸들이 흡디다, 딸들이.(아, 옛날 우리 저 어머니 할 때 보면은, 우리 외할아버진가? 보면은 딸들이 합디다, 딸들이.)

112040 #1 딸들이 흐는디 정심, 옛날에는양.(딸들이 하는데 점심, 옛날에는.)

112040 @ 일포는 아들이 흐곡.(일포는 아들이 하고.)

112040 #1 일포 출리는 사름, 절편 출리는 사름, 영장빳디 라면 출리는 사름, 경 흐주게. 딸덜이 라면은 잘 출려, 영장빳디.(일포 차리는 사람, 절편 차리는 사람, 장지에 라면 차리는 사람, 그렇게 하지요. 딸들이 라면은 잘 차려, 장지에.)

112040 @ 영장빳디?(장지에?)

112040 #1 영장빳디 딸이 출려. 나도 우리 아버지 죽으난 난드르<sup>324</sup>서 간 라면을 출렸주게. 딸덜이 라면은 출려, 경 밥행 맥이곡.(장지에는 딸이 차려. 나도 우리 아버지 죽으니까 ‘난드르’서 가서 라면을 차렸지요. 딸들이 라면은 차려, 그렇게 밥해서 먹고.)

112040 @ 잘 출리주양?(잘 차리지요?)

112040 #1 잘 출려.(잘 차려.)

112040 @ 뭐, 뭐 출려, 그던.(뭐, 뭐 차려, 거기는.)

112040 #1 밥흐고 국흐고 반찬흐곡게, 무신 갈칠흐든지.(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요, 무슨 갈치를 하든지.)

112040 @ 베역<sup>325</sup>이엔 해근에 막 꿩기 큰 거 끼와근에 주지 안 흐여?('베역'이라고 해서 아주 고기 큰 거 꿩어서 주지 안 해?)

112040 #1 아니, 기추룩은 안 흐곡, 그자 막 반찬행 잘 맥영 밥은 낭푼이에 탁탁 퍼다근에 상두꾼덜 쪽 두 줄로 앓이민 낭푼이에 퍼당, 2랑착에 퍼당 놓곡 흐민 그거 먹는 거주게.(아니, 그처럼은 안 하고, 그저 마구 반찬해서 잘 먹여서 밥은 양푼에 떠내다가 상두꾼들 쪽 두 줄로 앓으면 양푼에 떠다가, 채롱쪽에 떠다가 놓고 하면 그거 먹는 거지요.)

112040 @ 저 꿩기도 막 크게 해근에 영 끼와근에, 쟁고지에 끼왕.(저 고기도 아주 크게 해서 이렇게 꿩어서, 적꼬치에 꿩어서.)

112040 #1 저꼬지에 꿩영.(적꼬치에 꿩어서.)

112040 @ 막 크게.(아주 크게.)

112040 #1 예, 건 저꼬지로 꿩영 상두 아침에도 경 행 주곡.(예, 건 적꼬치로 꿩어서 상두꾼 아침에도 그렇게 해서 주고.)

324) '난드르'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의 옛 이름이다.

325) '베역'은 영장하는 날 상여꾼들에게 주는 특별한 음식을 말하는 것 같다.

112040 @ 지난 상뒤꾼덜안티 이제 보면은 수건 하나.(그러니까 상뒤꾼들한테 이제 보면은 수건 하나.)

112040 #1 이제난 수건햄주, 옛날엔 수건도 어수다. 담배도 엇고.(이제니까 수건 하고 있지, 옛날에는 수건도 없습니다. 담배도 없고.)

112040 @ 그다음에 그 담배.(그다음에 그 담배.)

112040 #1 이제는 담배혀영 줘주만은, 수건 아침에는.(이제는 담배해서 주고 있지만은, 수건 아침에는.)

112040 @ 장갑.(장갑.)

112040 #1 아침엔 장갑, 담배, 수건, 경 주곡. 낮원 가민 담배만 주는데 잇곡, 수건도 주는데 잇곡, 경 여러 가지. 또 이제는 커피 혼 통도 탕오메, 오십 개짜리 하나씩.(아침에는 장갑, 담배, 수건, 그렇게 주고. 낮에 가면 담배만 주는데 있고, 수건도 주는데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이제는 커피 한 통도 타서오지, 오십 개짜리 하나씩.)

112041 @ 그다음에양 장사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 어떻게 흡니까?(그다음에 장사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112041 #1 특별히 수고한 사람은 저 무싱거.(특별히 수고한 사람은 저 무엇.)

112041 @ 뭘, 뭘 줘?(무엇을, 무엇을 줘?)

112041 #1 저 그거는 고적<sup>326</sup>으로, 떡으로, 공정<sup>327</sup>으로 떡 혼 상자씩 으져가는 거, 꿩이 이만씩 가져가는 건, 공정.(저 그거는 ‘고적’으로, 떡으로, ‘공정’으로 떡 한 상자씩 가져가는 거, 고기 이만큼씩 가져가는 건, ‘공정’.)

112041 @ 공정?(‘공정’?)

112041 #1 예, 공정, 공정이엔 헛수다, 공정. 도감신디도 공정, 따시 죽엇젠 연락해주는 사름신디도 공정.((예, ‘공정’,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정’. 도감에게도 ‘공정’, 다시 죽었다고 연락해주는 사람에게도 ‘공정’.)

112041 @ 무싱거 가정가.(무엇 가져서가.)

112041 #1 떡 혼 고랑. 떡 혼 고랑하고 꿩이 요만씩 기차놓곡 혀영 그거 으져가는 거, 그거 공정. 딸덜 공정 설르크메 제물떡 으져오렌 헛곡.(떡 한 채롱. 떡 한 채롱하고 고기 요만큼씩 끓어놓고 해서 그거 가져가는 거, 그거 ‘공정’. 딸들 ‘공정’ 마치겠으니 제물떡 가져오라고 하고.)

112042 @ 상식은 어떻 흡니까?(상식은 어떻게 합니까?)

112042 #1 상식은 영장혀영 오면은 상을 놓주게, 집의. 영 상 출렁 놓면은 때 때에 밥을 혀영 우리 먹듯 사발에 국이영 반찬이영 행 상에 올렛당 느랑 먹곡, 경 혼는 거.(상식은 영장해서 오면은 상을 놓지요, 집에. 이렇게 상 차려서 놓면은 때 때에 밥을 해서 우리 먹듯 사발에 국이랑 반찬이랑 해서 상에 올렸다가 내려서 먹고, 그렇게 하는 거.)

326) ‘고적’은 일가에 경조사가 생겼을 적에 친척끼리 만들어가는 부조떡이나 쌀이다.

327) ‘공정’은 장사를 지낼 때 역사(役事)에 특별히 수고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보내는 떡이다.

112042 @ 옛날은 이 년 했주, 이 년.(옛날은 이 년 했지, 이 년.)

112042 #1 삼 년.(삼 년.)

112042 @ 삼 년계, 갖다오면은 소상.(삼 년요, 갖다오면은 소상.)

112042 #1 소상.(소상.)

112042 @ 대상까지.(대상까지.)

112042 #1 대상 경흐민.(대상 그러면.)

112042 @ 계민 이 년이지, 이 년.(그러면 이 년이지, 이 년.)

112042 #1 이 년이라두 삼 년씩 했젠, 대상까지 흐민 삼 년이엔 해주게. 계민 담제흐민 곳. 계민 대상해나민 상을 앗아볼주게.(이 년이라도 삼 년씩 했다고, 대상까지 하면 삼 년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담제하면 끝. 그러니까 대상해나면 상을 앗아버리지요.)

112042 @ 계민 이 년 상식흔 거지, 이 년.(그러니까 이 년 상식한 거지, 이 년.)

112042 #1 예, 이 년은 상식해도 삼년상 놔젠 곧주게. 영장까지 삼년상이주게. 이제는 어느 저를에 영장밧디서 다 행 상이랑 마랑 개팡도 안 놔서.(예, 이 년은 상식해도 삼년상 놓고 있다고 말하지요. 영장까지 삼년상이지요. 이제는 어느 저를에 장지에서 다 해서 상이랑 마랑 개빠도 안 놓고 있어.)

112042 #2 (웃음)

112042 @ 지금은 안 허지양? (웃음)(지금은 안 하지요?(웃음))

112042 #1 베고프덴 드렌 햄수과? 경흐헌디양.(베고프다고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112042 @ 이젠 저 영장밧디서 상복도 태와부는 모양이더라고.(이젠 저 장지에서 상복도 태워버리는 모양이더라고.)

112042 #1 경 흡디다.(그렇게 합디다.)

112042 @ 거 안 웬 건디.(거 안 된 건데.)

112042 #1 늬이라도양 영장밧디 간 보난 편쩍, 아무 것도 엇이난 막 섭섭흔 거란게, 난 늬이라도.(남이라도 장지 가서 보니까 아무 것도 없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아주 섭섭한 거던데, 난 남이라도.)

112042 @ 무싱거 편쩍.(무엇 아무 것도 없이.)

112042 #1 그 영장밧디서 다 흐연 상식을 아니 놓난 오민 편쩍 아니우파게?(그 장지에서 다 해서 상식을 아니 놓으니까 오면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닙니까?)

112042 @ 편쩍.(아무 것도 없어.)

112042 #1 편쩍흐난 든딱, 경흐난양 동네 할망인디 영장밧디서 오란 편쩍흐난 잘도 섭섭흔는 겹디다. 석 들, 백일이라도 거 상 놓는 채 해사, 잘도 섭섭흔는 겹디다, 나. 난 늬은 어떻게야 햄신디 난. 아이고, 늬은 어른 죽어도.(아무 것도 없으니까 모두,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인데 장지에서 와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잘도 섭섭하는 거였습니다. 석 달, 백일이라도 거 상 놓는 채 해야, 잘도 섭섭하는 거였습니다, 나. 난 남는 어떻게야 하고 있는지 난. 아이고, 늬은 어른 죽어도.)

112042 @ 거기서 이젠 상복도 테와분텐 허드라고.(거기서 이제는 상복도 태워버린다고 하드라고.)

112042 #1 문딱 테와뵤 편씩 저 문들렉기 그냥 와.(모두 태워뵤서 아무 것도 없이 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와.)

112042 @ 그냥 와근에, 그냥 꺄.(그냥 와서, 그냥 끝.)

112042 #1 꺄, 걸로 꺄.(꺄, 그것으로 꺄.)

112042 #2 그걸로 꺄이라게.(그것으로 꺄이지.)

112042 @ 그거 이거 안 뵤 거주게.(그거 이거 안 뵤 거지요.)

112042 #1 경흐난 너무 썩썩흐연 흐 말이주게. 나 경 흐주, 하르방<sup>328</sup>) 나보다 앞의 죽으민 석 달, 백일은 해주쿠다.(그러니까 너무 썩썩해서 한 말이지요. 나 그렇게 하지, '하르방' 나보다 앞에 죽으면 석 달, 백일은 해주겠습니다.)

112042 @ 우린 일 년 해서, 일 년.(우린 일 년 했어, 일 년.)

112042 #1 우리도 시아바진 삼 년흐고, 어명은 이 년 소상만흐고, 시어명은 소상만흐고, 아부진 대상까지 흐고.(우리도 시아버지는 삼 년하고, 어머니는 이 년 소상만하고, 시어머니는 소상만하고, 아버지는 대상까지 하고.)

112042 @ 경흐디 웃으는 사름도 있더라. 일 년 우리 상식흐니까, 요즘 안 흐는 판인디.(그런데 웃는 사름도 있더라. 일 년 우리 상식하니까, 요즘 안 하는 판인디.)

112042 #1 예, 안 흐는 판인디, 거 에이 이 년씩 무사 낚서, 영 흐는 사름도 잊엇주.(예, 안 하는 판인디, 거 에이 이 년씩 왜 놓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름도 있었지.)

112042 @ 예, 가끔 나무리는 사름도 잇어.(예, 가끔 나무라는 사름도 잇어.)

112042 #1 아니, 경흐디 이디도 일 년 놓는 사름이 잇수다, 경 흐는디 거.(아니, 그런데 여기도 일 년 놓는 사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

112042 @ 거 정성이주게.(거 정성이지요.)

112042 #1 정성이주.(정성이지.)

112042 #2 다 거 사름이 정성.(다 거 사름이 정성.)

112042 #1 거 사름이 거 옛날 그 전설로 내려온 거난 삼년상 놓는디 일 년도 아니 놓고, 석 달도 아니 놓난 너무 썩썩하다 흐는 거주게.(거 사름이 거 옛날 그 전설로 내려온 거니까 삼년상 놓는데 일 년도 아니 놓고, 석 달도 아니 놓니까 너무 썩썩하다 하는 거지요.)

112042 @ 그렇주게.(그렇지요.)

112042 #1 아멩 시국이 발달뵤도.(아무리 시국이 발달뵤도.)

112042 @ 그거 뵤 강 묻으민 묻어근에, 그냥 거기서 상복 슬아근에 그냥 맨 몸으로덜 그냥.(그거 뵤 가서 묻으면 묻어서, 그냥 거기서 상복 사려서 그냥 맨 몸으로 그냥.)

112042 #1 그저 상복 문짝 슬아뵤 몸만덜 오랑 밥만 먹지 못헿덜 와당와당 출

328) '하르방'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이다.

리곡.(그저 상복 모두 사려뒀서 몸만 와서 밥만 먹지 못해서들 와당와당 차리고.)

112042 @ 이 안 웬 거라, 이것이.(이 안 된 거야, 이것이.)

112042 #1 귀양풀이<sup>329</sup>)도 안 홉디다, 어떤 집의덜은, 심방 빌어당 귀양풀이도 안 흐고.(‘귀양풀이’도 안 합디다, 어떤 집들은. 무당 빌어다가 ‘귀양풀이’도 안 하 고.)

112042 @ 귀양풀이도 흐곡 해야지.(‘귀양풀이’도 하고 해야지.)

112042 #2 귀양풀이도 해야 흐고.(‘귀양풀이’도 해야 하고.)

112042 #1 늙은이 죽어도 귀양풀이 안 흐여. 옥렬이<sup>330</sup>) 아방 귀양풀이 안 해수 계.(늙은이 죽어도 ‘귀양풀이’ 안 해. ‘옥렬이’ 아버지 ‘귀양풀이’ 안 했습니다.)

---

329) ‘귀양풀이’는 사람이 죽어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치르는 곳이다.

330) ‘옥렬이’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사는 사람 이름이다.

##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돌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7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http://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